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정치사적 맥락에서 본  
김창흡 산문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張宗美

정치사적 맥락에서 본  
김창흡 산문

지도교수 金大中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張宗美

張宗美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고는 ‘정치사’를 김창흡 산문 연구의 시좌로 도입하여 문·사·철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면서 숙종 대 정치사적 맥락에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산문 세계를 고찰하였다. 본고가 ‘정치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김창흡을 오로지 ‘외재적 맥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창흡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실존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치사적 맥락’을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김창흡의 산문을 탐구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삼연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를 했다. 먼저 원집의 간행 경위와 산삭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습유』의 계통 문제와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치사적 맥락’을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였다.

첫째, 김창흡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사적 배경’ 내지 ‘당쟁사적 배경’이라는 층위에서 생애와 인적 관계망의 형성을 정치적 행보와 연관 지어 고찰하였다. 먼저 김창흡의 은거지와 학문적 흐름, 숙종 대의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생애를 모색기, 칩거기, 설악산 은거기, 곡운 노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계급적 성격에 유의하여 김창흡의 교유 대상을 경화 세족, 지방 문인, 중서층, 승려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를 갑술환국 이후부터 설악산 은거기까지와 은거기 이후부터 신축환국까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장동김문과 김창흡에게 큰 여파를 끼친 구체적인 ‘정치사적 사건’ 내지 ‘당쟁사적 사건’이라는 층위에서 가문 수호자로서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원한이라는 감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동김문을 하나의 생사 공동체로 생각하고 가문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던 김창흡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김창흡이 가문의 내부 결속을 강조한 동기는 부친 김수항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남인과 소론에 대한 원한이었다. 그러므로 갑술환국 뒤 김창흡은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동지와 적의 구별을 뚜렷이 함으로써 반대 당파에 대한 강경한 비타협적 입장 및 극도의 경계심과 공격성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김창흡은 원한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편적이고 성찰적인 차원의 지평을 획득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 길은 바로 개방적인 정통주의의 모색이었다. 이것이 바로 정치사와 당쟁사의 기저부를 형성하는 ‘사상적 지향’이라는 세 번째 층위에 해당한다.

김창흡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정통 사상의 중심에 놓았던 노론 엘리트이다. 하지만 정통주의적 틀 내에서 사상적 경직성에 빠지지 않고, 불교와 노장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창흡은 주자학의 정통성을 유연한 방향으로 재정위하려고 했다. 따라서 김창흡은 노론 헤게모니 전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호중 노론이 자기 학파의 학문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송시열을 절대화한 것을 비판하였다. 이에 더하여 김창흡은 유가의 경세의식과 불교의 대심중생의 구세의식 사이의 접점을 찾아내 노론 엘리트로서 치세의 태도를 드러내고자 했다. 김창흡에게 주자학은 시비분별의 절대적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인바, 정통주의 특유의 반대 학파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공격적 태도는 정치적으로 적과 동지를 준엄하게 구별하는 논리와 유사성을 갖는다. 이는 ‘원한’이라는 감정이 사상의 차원에서 형태 변환을 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창흡은 불교와 노장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원한’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비해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넷째, 당대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된 ‘경제적 지향’이라는 층위에서 조선 내외에 대한 김창흡의 경제적 면모를 살펴보았다. 조선 국가 전체에서 출발하여 김창흡은 과거제도, 소결, 군역, 토지 개량, 농업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적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 조청 관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중도’와 ‘변통’의 시각에서 의리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김창흡은 유연한 화이관을 주장했다. 화이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통론도 마찬가지였다. 김창흡이 정통론에서 강조한 것은 의리나 명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 곧 영토의 크기와 세력

의 성쇠였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보면 김창흡은 청나라를 정통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명 의리와 조선중화주의를 견지한 송시열 계열의 입장과 다르다. 하지만 김창흡은 청나라를 정통으로 생각하면서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청나라가 조선을 재침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오래전부터 백두산의 전략적 위치를 중요시했다.

김창흡은 한 가문이나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시야에 넣게 되었지만, 정파적 정체성을 초월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경제론도 그 당시 정치사적 맥락 속에 놓고 보면 어디까지나 노론이 반대 정파와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승리하여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화이론과 정통론도 송시열의 북벌론과 선명환대비를 이루었지만, 노론의 정파적 정체성을 초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정치사적 맥락’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의 출발점에는 ‘원한’이라는 감정이 놓여 있다. 그의 산문 세계는 이 원초적 감정이 상황에 따라 형태 변환을 하면서 일관되게 유지되려는 구심축과, 그와 반대로 이 감정에 거리를 두고 그에 얽매이지 않는 차원으로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원심축으로 직조되어 있다. 원심축에 의해 구심축의 경직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여전히 원심축이 더 강하게 작동함으로써 결국 ‘개방적 정통주의’ 내지 ‘유연화 전략’을 구사하는 노론 지배층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김창흡의 모색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원한’에서 출발하여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인간의 자기 모색이며,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는 노론 지배층이 경직화되지 않고 자기조정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더 유연하게 공고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헤게모니 전략의 모색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인의 실존적 모색이 노론의 정파적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에서도 김창흡 산문의 ‘정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김창흡, 산문, 정치사적 맥락, 원한, 가문, 노론 헤게모니, 경제적 지향

**학 번** : 2019-32139

# 목 차

1. 서론 .....	1
2. 문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 .....	18
1) 원집 간행 경위와 산삭 문제 .....	19
2) 습유의 계통 및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 .....	29
3. 김창흡의 삶과 정치적 행보 .....	37
1) 생애 .....	37
(1) 모색기(1674~1689) .....	39
(2) 칩거기(1689~1705) .....	54
(3) 설악산 은거기(1705~1714) .....	58
(4) 곡운(谷雲) 노년기(1715~1722) .....	60
2) 인적 관계망 .....	64
(1) 경화 세족 .....	64
(2) 지방 문인 .....	81
(3) 중서층 .....	94
(4) 승려 .....	97
3) 정치적 행보 .....	108
(1) 갑술환국(1694) 이후부터 설악산 은거기까지 .....	108
(2) 설악산 은거기 이후부터 신축환국(1721)까지 .....	116
4. 가문 수호자의 통한(痛恨) .....	138
1) 생사 공동체로서의 가문 .....	138
2) 김수항의 죽음에 대한 울분과 복수의 다짐 .....	157

3) 남인과 소론에 대한 원한 .....	166
5. 개방적인 정통주의 모색 .....	190
1) 주자학 중심의 ‘총관융회’(摠貫融會) .....	190
2) 송시열 절대화 비판 .....	220
3) 대심중생(大心衆生)의 구세의식(救世意識) .....	238
6. 조선 내외에 대한 시선 .....	253
1) 조선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	253
(1) 과거제도 및 소결(疏決) 비판 .....	253
(2) 군역 및 토지 개량의 문제점 진단 .....	274
(3) 농업과 민생 중시 .....	296
2) 화이관(華夷觀)과 대청인식 .....	309
(1) 유연한 화이론과 정통론 .....	311
(2) 백두산 정계비 사건에 대한 주시 .....	325
7. 결론 .....	335
참고문헌 .....	342
Abstract .....	362
中文摘要 .....	368



# 1. 서론

본고는 17·18세기 조선 정치사와의 연관 속에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산문 세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김창흡은 자는 자익(子益)이고, 호는 보광(葆光)<sup>2)</sup> 또는 삼연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부친은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고 모친은 안정나씨(安定羅氏) 나성두(羅星斗, 1614~1663)의 딸이다. 아들은 김양겸(金養謙, 1675~1728), 김치겸(金致謙, 1677~1747), 김후겸(金厚謙, 1687~1727)이고, 사위는 해평윤씨(海平尹氏) 윤세량(尹世亮, ?~1697), 전의이씨(全義李氏) 이덕재(李德載, 1683~1739)이다.

김창흡은 장동김씨(壯洞金氏)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육창’(六昌) 가운데 가장 이채로운 존재인 듯하다. 벼슬과 거리가 먼 처사(處士), 삼부연·설악산 등에 은거한 은자(隱者), 조선 팔도를 두루 돌아다닌 여행자, 5000여 수가 넘는 방대한 한시를 남긴 시인 등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하지만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점은 그가 대명의리(對明義理)를 지킨 노론 명문 집안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김창흡은 일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채 여행자나 은자로 살아갔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경화세족의 후손으로서 조선의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김창흡 연구에서는 김창흡을 둘러싼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당시의 복잡한 국내외 형세, 사회적 변화, 문화 교류가 김창흡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김창흡이 문학을 통해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김창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문학, 사학, 철학의 세 방면에서 이루

---

1)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김진영, 심규영, 안지민, 왕효아, 이한석, 조하늘, 황정수 등 동학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2) ‘보광’은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나온 말로, 재지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는 뜻이다. 이 호는 젊은 시절에 김창흡이 『장자』를 탐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창흡은 1679년 삼부연 은거 전까지 이 호를 썼는데, 김시걸(金時傑)·김시보(金時保) 형제의 문집에 실려 있는 초년의 시나 글에서 김창흡을 ‘보광자’(葆光子)라고 부르고 있다.

3) 이경구, 『조선, 철학의 왕국』, 서울: 푸른역사, 2018, 56~60면 참조.

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김창흡의 삶, 학문, 문학, 사상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중에서 문학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김창흡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창흡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 작가론, 작품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김창흡의 문학론 연구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김창흡의 문학사적 중요성을 조명하고 그의 문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자는 이종호이다. 그는 권력의 내부에서 문학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김창흡의 문학론을 분석하고 김창흡의 문학사적 위치를 재조명했다.<sup>4)</sup> 이 연구는 당시의 학계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종호는 이후 김창흡의 시경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김창흡의 후기 시론을 시도원류론(詩道原流論)과 법고창신(法古創新), 시가창작(詩歌創作)과 그 기능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의 시론이 북학과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sup>5)</sup> 이외에 김창흡의 문학을 시의식(詩意識), 은일의식(隱逸意識), 기유 문예(紀遊文藝)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을 제출하였다.<sup>6)</sup>

김창흡 연구의 초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종호의 연구, 특히 문예론에 대한 고찰은 김창흡의 시경론을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김창흡의 문학사적 위상을 재조명했다는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조성기와의 시도(詩道) 논쟁을 중심으로 김창흡의 시경론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통시적 시각에서 그 전체적 면모를 살펴보지 못한 감이 있다. 또한 인물

4) 이종호, 「三淵 金昌翁 研究(其一): 東岳, 五山詩에 對한 拙修齋와의 論爭을 中心으로」, 『韓國漢文學研究』 9집, 한국한문학회, 1987.

5) 이종호, 「三淵 金昌翁의 詩論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2; 이종호, 「삼연 김창흡의 시경해석에 나타난 문예지향」, 『大東文化研究』 3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이종호, 「삼연 김창흡의 시론과 그 비평사적 의의」, 『동양한문학회연구』 11집, 동양한문학회, 1997.

6) 이종호, 「서한논쟁을 통해 본 삼연 김창흡의 시의식」,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이종호, 「장동김문(壯洞金門)의 은둔지(외포)(隱遁地(外圃)) 경영(經營)과 김창흡(金昌翁)의 은일의식(隱逸意識)-매월당(梅月堂)과 곡운(谷雲)이 간 자리에 삼연(三淵)이 등지를 틀다-」, 『東方漢文學』 32집, 동방한문학회, 2007; 이종호, 「한국 한문학의 전통적 사유와 문예미: 17~18세기 기유문예의 두 양상 - 농연그룹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30집, 근역한문학회, 2010.

사이의 영향 관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단순화된 점이 없지 않다.

이후에 제출된 김창흡의 시론, 시경론에 대한 연구로는 박명희와 김진영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박명희는 김창협과 김창흡의 시론을 분석하면서 그 형성 배경으로 산수 취향, 교유 관계, 중국 시론의 영향력을 언급했으며, 시론의 내용을 학시(學詩), 천기(天機), 작시(作詩), 그리고 묘오(妙悟)·선시설(禪詩說)과의 관련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sup>7)</sup> 하지만 김창협과 김창흡이 산수를 유람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가문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세속을 떠나려 했다는 것으로 단순화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주자학에 대한 김창흡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김진영은 「일록」(日錄)을 중심으로 김창흡 시경론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면서 그 문학사적·경학사적 의의를 밝혔다. 김창흡 시경론의 문학사적·경학사적 위상을 밝힌 것은 종래의 김창흡 연구에서 없었던 시도로서, 김창흡의 시경론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 다만 문학사적 접근과 경학사적 접근을 종합하여 논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으며, 김창흡의 시경론이 시 창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문학론 연구 이외에 김창흡에 대한 작가론과 작품론도 잇달아 나왔다. 김창흡에 대한 작가론으로는 이승수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승수는 시인으로서의 김창흡의 생애를 그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모 양상에 주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시세계를 부친 김수항과 연계된 정치적 변동과 김창흡의 학문적 변화에 따라 학시기(學詩期)→시련기(試鍊期)→전환기(轉換期)→완숙기(完熟期)→정리기(整理期)의 5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sup>8)</sup> 이 성과를 토대로 학위논문에서 삶의 궤적과 시세계의 변모 양상, 사승과 교유, 학문의 자세와 방향, 문학사적 위상 등 여러 측면에

7) 박명희, 「朝鮮後期 詩論 研究: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박명희, 「삼연 김창흡의 시경론」,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8) 이승수, 「金昌翁 生涯와 詩世界의 變貌」, 『한국언어문화』 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1.

서 김창흡의 문학을 살펴보았다.<sup>9)</sup> 이승수의 연구는 초기 연구 성과로서 김창흡과 그 주변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주로 시를 토대로 김창흡의 생애 궤적과 문학세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김창흡의 다른 면모, 이를테면 조선의 정치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지식인으로서의 면모 같은 것을 미처 다루지 못한 감이 있다.

김창흡 문학에 대해서는 작가론보다 작품론이 많은 듯하고, 또 김창흡이 기본적으로 시인이기 때문에 산문보다는 시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김창흡 시에 관한 초기 연구성과로는 이승수, 안대회, 채환중, 김남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승수는 김창흡의 시세계 변모 양상을 밝히면서 「갈역잡영」(葛驛雜詠)을 ‘보여주는 시’와 ‘말해주는 시’로 범주화하여 김창흡의 자아와 사회현실에 대한 김창흡의 비판의식을 살펴보았다.<sup>10)</sup> 안대회는 「갈역잡영」을 중심으로 18세기 한시사에서 김창흡이 차지하고 있는 시적 성과와 의의를 밝혔으며,<sup>11)</sup> 채환중 역시 「갈역잡영」을 분석함으로써 김창흡 사회시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sup>12)</sup> 김남기는 실경(實景)과 진정(眞情)을 통한 조선시(朝鮮詩)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김창흡 산수시(山水詩)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sup>13)</sup> 더 나아가 김창흡의 시세계를 범고에서 창신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시세계의 변모양상을 고찰하고, 다양한 시형식의 실험이 갖는 의의와 김창흡이 개척한 조선시의 공과를 평가하였다.<sup>14)</sup>

9) 이승수, 「三淵 金昌翁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이승수, 『三淵 金昌翁 研究』,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8.

10) 이승수, 「김창흡의 시세계 연구-「갈역잡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1) 안대회, 「삼연 김창흡의 「갈역잡영」 연구」, 『韓國漢詩研究』 1집, 한국한시학회, 1993.

12) 채환중, 「삼연 김창흡의 사회시 연구」, 『어문연구』 27집, 어문연구학회, 1995.

13) 김남기, 「金昌翁의 山水詩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4) 김남기, 「三淵 金昌翁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남기, 「「首尾吟」의 수용과 雜詠類 連作詩의 창작 양상 - 宋時烈과 金昌翁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2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2; 김남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고연희는 정선(鄭敼)과 농연(農淵) 그룹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산수 기행 예술을 살펴보았다.<sup>15)</sup> 문학과 예술을 통합하여 살펴보려는 시도는 방법론적으로 주목된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그룹을 중심으로 당시의 문화 현상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 각각의 문학적, 문예적 특성에 대한 통찰이 부족해진 감이 있다. 한편, 유호선은 김창흡의 불교시를 중심으로 김창흡의 불교적 사유, 불교인식, 그 시적 형상화를 살펴보았다.<sup>16)</sup> 이는 김창흡의 불교인식에 대한 첫 연구로서, 김창흡의 불교사상이나 인식을 새롭게 조명한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김창흡의 시세계를 재조명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최유진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최유진은 종래의 김창흡 연구에서 ‘탈주자학’적 지표들이 의도적으로 강조된 것을 비판하면서, 김창흡 학문의 형성과 변모 과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불교인식의 시적 형상화, 역학(易學) 사유에 의한 세계 이해의 시화(詩化), 인물성동론과 천기론을 기반으로 한 사물시 등 여러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김창흡의 사상적 성격을 개방성과 낙관성으로 규정하였다.<sup>17)</sup> 이 연구는 김창흡의 문학론을 재규명·재인식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김창흡 개인의 학문적 배경에만 집중하여 시세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김창흡이 처해 있던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현상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소재별로 김창흡의 매화시,<sup>18)</sup> 관물시,<sup>19)</sup> 누정시,<sup>20)</sup> 설악산 및

---

한국한시학회, 2009.

- 15) 고연희, 「김창흡(金昌翁), 이병연(李秉淵)의 산수시(山水詩)와 정선(鄭敼)의 산수화(山水畵) 비교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20집, 한국한문학회, 1997;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서울: 일지사, 2001.
- 16) 유호선, 「17C 후반~18C 전반 경화세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김창흡, 최창대, 이덕무, 이하곤과 조귀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유호선, 「김창흡의 불교적 사유와 불교시」,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유호선,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문학』, 광주: 태학사, 2006.
- 17) 최유진, 「三淵 金昌翁의 哲學的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18) 여희정, 「김창흡(金昌翁) 매화시의 특징: 「松栢堂詠梅」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 19) 諸吟珉, 「三淵 金昌翁의 詩文學 研究: 詩에 나타난 觀物精神을 中心으로」,

금강산 관련 산수시,<sup>21)</sup> 과시(科試)<sup>22)</sup>에 대한 연구, 그리고 김창흡 시에 드러난 실경(實景) 양상,<sup>23)</sup> 김창흡의 시 비평 등에 대한 연구,<sup>24)</sup> 김창흡의 시경체 한시와 시경론과의 관련성 연구<sup>25)</sup>가 잇달아 나왔다.

이와 달리 김창흡의 산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는 주로 김창흡의 문학론, 한시에 주목했고, 산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데, 2004년 『한국인물사연구』 특집으로 농연 형제가 아니라 김창흡 개별 인물에 집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된 뒤 김창흡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창흡 산문에 대한 연구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자는 안득용이다.

안득용은 농연 그룹을 중심으로 17~18세기 산수유기를 분석하면서, 김창흡의 산수유기가 현실 소재를 적극적으로 창작에 이용하는 등 전대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것이 이하곤 등 후대 문인에게도 영향을 끼

-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신경훈, 「삼연 김창흡 시에 나타난 관물정신의 변모 양상」, 『士林語文研究』 23집, 사립어문학회, 2013.
- 20) 이심권, 「三淵 金昌翁의 樓亭詩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심권, 「삼연 김창흡 누정시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비애감」, 『국학연구론총』 27집, 택민국학연구원, 2021.
- 21) 이경수,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설악산의 심상(心象)-삼연 김창흡과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이경수, 「삼연 김창흡 한시의 금강산 표현」, 『인문과학연구』 44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22) 이상욱,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 과시(科詩) 고찰 -17세기 조선 과시(科詩)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77집, 열상고전연구회, 2022.
- 23) 김묘정,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 시에 드러난 실경(實境)의 일 양상-『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의 실경 품격을 기반으로 -」, 『동양문화연구』 32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20.
- 24) 장유승, 「김창흡(金昌翁)의 『응재유고(凝齋遺稿)』 비평(批評) 연구(研究)」, 『韓國漢詩研究』 28집, 한국한시학회, 2020.
- 25) 김진영, 「삼연 김창흡의 시경체 한시와 시경론과의 관련성-다산 정약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43집, 우리한문학회, 2020.
- 26) 2004년 9월에 출간된 『한국인물사연구』 제2집에 김창흡을 다룬 특집 논문으로 이종호의 「서한논쟁을 통해 본 삼연 김창흡의 시의식」, 김문준의 「김창흡의 학문경향과 후대의 영향」, 유호선의 「김창흡의 불교적 사유와 불교시」, 조준호의 「김창흡의 정치기반과 활동」 등이 수록되었다.

쳤다고 보았다.<sup>27)</sup> 그 밖에 ‘설’(說) 문체를 중심으로 김창흡 산문의 주제의식과 글쓰기 방식을 고찰하거나,<sup>28)</sup> 김창흡의 산문비평의식을 탐구하기도 했다.<sup>29)</sup> 또한 안득용은 한적(閑寂)과 유대(紐帶)의 두 축을 설정하여 「잡설」(雜說)을 비롯한 여타 산문을 분석함으로써 김창흡 산문의 특징적 면모를 정리하였다.<sup>30)</sup> 다만 해당 연구에서 설정한 ‘한적’과 ‘유대’라는 개념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산문이 다양화되고 문예적 성향을 띠게 되었던 당시에 김창흡이 이에 대해 어떤 사유를 가지고 산문 창작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외에 김창흡의 「동유소기」(東遊小記)를 중심으로 산수유기 중 여행안내기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일련의 작품군을 ‘가유자기’(可遊者記)로 명명하고, 일반적 일기체 산수유기와 비교하면서 그 문학적 특징을 밝힌 연구도 있다.<sup>31)</sup> 안득용의 연구는 김창흡 산문 연구의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장르론이나 문예론 차원의 분석에 집중하다 보니 김창흡 산문의 배경이 되는 김창흡의 삶이나 17·18세기 조선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안득용의 연구 외에도 김창흡의 산수 유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구일기」(丹丘日記) 연구,<sup>32)</sup> 「호행일기」(湖行日記) 연구,<sup>33)</sup> 일기체 유기 연구<sup>34)</sup> 등도 잇달아 나왔다. 그 밖에 이홍식과 김동준의 연구가 주목할

27)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안득용, 「農淵 山水遊記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2집, 동양한문학회, 2006.

28) 안득용, 「三淵 金昌翁의 산문세계와 창작 및 비평의식에 대한 소고」,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학술대회 2008집,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08.

29) 안득용, 「金昌翁 散文 批評의 實際」, 『동아한학연구』 7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1.

30) 안득용, 「金昌翁 散文 研究—閑寂과 紐帶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3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2.

31) 안득용, 「김창흡 「동유소기」 연구-가유자기의 서술 양상과 그 흐름에 대한 고찰을 겸하여」, 『고전과 해석』 20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32) 윤경희, 「김창흡(金昌翁)의 단구일기(丹丘日記) 연구」, 『民族文化研究』 4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김은정, 「김창흡의 단구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어문학』 141집, 한국어문학회, 2018.

33) 韓英, 「三淵 金昌翁의 「湖行日記」 연구」, 『한남어문학』 40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17.

만하다. 이홍식은 김창흡의 백이론(伯夷論)을 분석함으로써 김창흡이 대명이론과 존주론이 위세를 떨치던 18세기 초에 새로운 백이 표상을 구축했다는 점, 김창흡의 백이 이해가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자신의 유연한 학문관과 출처관을 직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김창흡의 백이론이 18세기 이후 강화되는 백이 담론의 다양화와 예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sup>35)</sup>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김창흡의 백이론을 분석한 것은 그 이전의 김창흡 문학 연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참신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창흡의 학문과 출처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다만 이 연구는 백이론 하나에 집중한 것이므로, 차후에 더 많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김창흡 문학의 정치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김동준은 18세기 초의 정치권력과 문학권력의 연관성에 유의하여 김창협과 김창흡 형제의 문학 비평을 살펴보았다.<sup>36)</sup> 이 연구는 농연 형제의 문학 비평을 문학사회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조선의 문풍과 학풍을 재해석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김창협과 『농암잡지』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김창흡의 문학 비평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소략한 아쉬움이 있다.

이상 김창흡에 대한 문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김창흡에 대한 문학 연구 성과는 주로 한시 분야에 집중된 감이 있다. 이는 김창흡의 시인으로서의 삶과 그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김창흡의 시 연구에 비하면 산문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산수유기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 사회적 연관 속에서 작품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희소한 형편이다. 그 결과 산수유기를 제외한 김창흡의 주요 산문 작품들을 상당수 도외시키고

34) 韓英, 「김창흡 산수시와 일기체 유기의 상호연관성 연구」, 『韓國漢詩研究』 26집, 한국한시학회, 2018; 「三淵 金昌翁의 日記體 遊記 研究」,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5) 이홍식, 「삼연 김창흡(三淵金昌翁)의 「백이전(伯夷傳)」 이해와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25집, 한국실학학회, 2013.

36) 김동준, 「정치권력과 상관계로 본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翁)의 문학비평과 그 성격-18세기로의 전환기 한국한문학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韓國漢文學研究』 67집, 한국한문학회, 2017.



김창흡을 당대 사회정치사와 유리된 시인이나 은자처럼 각인시킴으로써 김창흡의 문학세계를 단순화한 것이 한계로 파악된다. 이는 김창흡의 정체성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창흡은 노론 계급 장동김문의 구성원이다. 장동김문은 사적 측면에서는 안동김씨라는 하나의 가문이고, 공적 측면에서는 노론의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지배 엘리트 계급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장동김문에서 성장한 김창흡의 정체성에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창흡과 김창흡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장동김문과 숙종 대의 정치사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김창흡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 시각을 전환하여 17·18세기 당쟁사·정치사와의 연관 속에서 김창흡의 문학세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그간 문학 연구에서 하나의 배경으로만 간주해 오던 ‘정치사’를 김창흡 산문연구의 시좌로 도입하고자 한다. 정치사는 역사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文)－사(史)’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 사회에서 정치를 주도한 사대부 계급의 특성상 조선의 정치사는 사상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정치사’를 문학 연구의 시좌로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문－철(哲)’ 통합적 접근도 동시에 요구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문·사·철을 아우르는 종합적·총체적 접근을 지향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야를 넓혀서 역사 및 철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사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로는 이경구, 조성산, 조준호의 연구가 있다.

이경구는 김창흡의 노론으로서의 학문 계통과 호락논쟁에서의 그의 역할 및 위치를 분석하였고,<sup>37)</sup> 이후 가문 차원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통시적 시각으로 장동김문의 형성, 정치 활동, 학풍, 문예활동 등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김창흡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혔다.<sup>38)</sup> 기실 사학계

37) 이경구, 「金昌翁의 學風과 湖洛論爭」,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8) 이경구 지음, 『조선후기 안동김문 연구』, 서울: 일지사, 2007.

에서는 장동김문을 송시열을 따르는 보수적인 노론 가문이라고 하는 등 장동김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경구의 연구는 그동안 안동김문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을 전환하여 안동김문의 특성을 비교적 새롭고 입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성산은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17세기 서인학계의 동향과 분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현실 인식, 18세기 중엽부터 말까지의 낙론계 학풍의 전개와 현실대응론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sup>39)</sup> 조성산의 연구는 낙론의 형성, 호락논쟁의 유래와 전개 과정, 낙론계 학풍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으로서, 조선후기의 사상 발전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조준호의 연구에서는 김창흡의 정치적 기반과 활동을 중심으로 농연 형제의 출신배경, 교유인맥 및 정치활동을 살펴보았다.<sup>40)</sup> 이 연구는 김창흡의 정치적 역할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 성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를 농연 형제만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김창흡이 처했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듯 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김창흡 연구는 주로 낙론계 학통과 그 전개 양상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김창흡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연구도 제출되었지만, 박세당 사문시비(斯文是非) 문제에 국한하여 논의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정치사적 배경과 연관지어 김창흡을 고찰할 때 늘 김창협과 묶어서 다룬 경향이 있다. 이는 농연 형제의 동질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김창흡이라는 인물의 개별성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숙종 대의 복잡한 정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김창흡의 학문적·정치적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

39) 조성산, 「朝鮮後期 洛論系 學風의 形成과 經世論 研究」,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3; 조성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翁)의 학풍과 현실관」, 『역사와 현실』 51집, 한국역사연구회, 2004;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파주: 지식산업사, 2007.

40) 조준호, 「조선 숙종~영조대 근기지역 노론학맥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준호, 「김창흡의 정치기반과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연구소, 2004.

농연 형제의 동질성에 유의하면서도 김창흡의 고유한 특징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철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농연 형제의 심성론, 호락 사이에 벌어진 인물성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듯하다.<sup>41)</sup> 유교 심성론과 불교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농연 형제의 유불 회통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sup>42)</sup> 최근에는 김창흡의 지각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43)</sup> 그런데 김창흡의 심성론, 유불 회통 등은 어느 정도 연구가 되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김창흡이 유도불 ‘융회관통’(融會貫通)을 지향한 점에 주목한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철학 분야의 연구는 개념적 사유에 대한 밀도 있는 탐구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김창흡의 정치적 지향과 문학 창작의 기저부를 형성하는 철학적 사유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대신 김창흡의 철학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사회적 연관 내지 현실적 연관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감이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을 경유함으로써 김창흡의 사상에 대한 철학적·개념적 탐구와 정치사적·역사적 탐구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학 기반의 학제적 연구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외에 문화사적 맥락에서 장동김문의 매화, 원림 향유 양상을 정리한 연구,<sup>44)</sup> 김시걸·김시보 형제를 중심으로 삼연과 방계 족친의 교유문학을 살펴본 연구,<sup>45)</sup> 김창흡의 「만록」(漫錄) 역주<sup>46)</sup> 등의 성과도 나왔다.

41) 이종우, 「삼연 김창흡의 미발설과 호락논쟁에서 그 위상」, 『열상고전연구』 6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8; 이종우, 「김창흡과 한원진의 인물성 논쟁 및 이간과의 비교」, 『한국학논집』 7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이종우, 「『정조실록』에서 호락의 미발논쟁 연구 - 김창흡·이재 대 한원진·심조의 논쟁 및 이간과 비교를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42집, 울곡학회, 2020.

42) 박정원 지음, 『조선초·중기 불교와 유교의 심성론과 상호인식 연구』, 서울: 역락, 2021.

43) 이한석, 「김창흡의 지각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44) 김세호, 「17-18세기 안동김문(安東金門)이 향유(享有)한 매화(梅花)의 문화사(文化史)」, 『韓國漢文學研究』 63집, 한국한문학회, 2016; 김세호, 「17-18세기 壯洞金氏 淸陰派의 園林 文化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45) 한창섭, 「삼연 김창흡의 방계족친 교유문학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

이렇게 역사 및 철학 분야의 연구를 경유하여 다시 김창흡 문학에 대한 연구사를 돌이켜 보면, 김창흡의 문학 작품은 당대 정치적·사회적 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밀도 있는 사상적 토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사적·사상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김창흡 문학의 전체상에 육박하기 위해서는, 김창흡의 시에 대한 고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역시 산문에 대한 연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창흡의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숙종 대의 정치사적 맥락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창흡 문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이 기초 단계를 생략했다. 『삼연집』 문집은 원집과 습유로 구성된다. 원집은 단 한번만 간행되었다. 즉 지금 알려져 있는 1732년 간행된 운각인서체자(芸閣印書體字) 36권 18책 『삼연집』이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이본 대조를 불필요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삼연집』 원집 간행에 관해 기록의 차이가 있으며, 원집에 수록되어 있는 글 내용이 산삭되기도 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습유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습유는 거의 한 세기 뒤에 김창흡의 후손에 의해 정리된 필사본으로 여러 이본들이 존재한다. 원집과의 시간차를 감안하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실제로 습유에는 각종 오류가 종종 보인다. 그렇다면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기초 작업으로서 『삼연집』 원집의 간행 경위와 산삭문제, 습유 이본간의 계통 문제, 그리고 수록 작품들이 과연 다 김창흡의 글일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지적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본고가 제목에서부터 내세웠다시피 ‘정치사적 맥락’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차례이다. 그런데 ‘정치’라는 용어는 그 함의가 다양하므로 일단 그 개념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정치는 ‘권력현상’과 ‘국가현상’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권력현상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확대와 관

---

문, 2022.

46) 김광태, 「三淵漫錄 역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계를 갖는 모든 인간 활동을 의미하고, 국가현상은 국가의 목적, 기능, 그리고 존재양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sup>47)</sup> 김창흡의 맥락에서 보면 ‘권력현상’은 ‘붕당 간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국가현상’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복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정치’를 ‘붕당 간의 헤게모니 투쟁, 국내 정치, 국제 정치의 복합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정치사적 맥락’이란 말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행동, 당쟁, 정치사상, 경제론 등을 포괄하게 된다. 요컨대 본고에서 ‘정치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

첫 번째는 김창흡의 삶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사적 배경’ 내지 ‘당쟁사적 배경’이라는 층위이다. 김창흡은 장동김문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그 가문적 정체성에 충실했다. ‘노론’의 당파성은 그에게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여된 것’ 내지 ‘조건지워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동김문의 부침은 곧 삼연 일생의 부침이었다. 숙종대 여러 번의 환국 과정에서 벌어진 노·소론의 분기와 권력 다툼,<sup>48)</sup>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 노·소론 집안과 맺어진 혼척관계<sup>49)</sup> 등의 요인

47) 金榮國 외, 『政治學概論』(개정판), 서울: 博英社, 2001, 1~8면 참조.

48) 갑술환국 이후 노론이 집권하게 되어 노론에게 유리한 정치적 상황이 펼쳐졌다는 해석은 당시의 역사 현실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듯하다. 1716년 병신처분(丙申處分) 전까지 숙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노소간의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예기유편』(禮記類編) 간행과 훼판(毀板)·화서(火書) 사건을 통해 그들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권력 다툼, 정치 투쟁을 엿볼 수 있다. 양기정, 「『禮記類編』의 編刊과 毀板·火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49) 기존 연구에서는 농연 형제의 교유 관계와 낙론계 학맥에 노·소론계 인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김창흡의 개방적인 교유 면모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하지만 서인이 노·소론으로 갈라지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의 문제, 그리고 노·소론이 갈라지기 전, 심지어 갈라지는 과정에 서로 맺어진 척분 관계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적어도 1721~1722년 신임환국(辛壬換局)으로 노론사대신이 소론에 의해 쫓겨나 죽기 이전까지 노·소론의 관계는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노·소론 분기 이후인 1695년 영조대 소론 영수였던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이 장동김씨 상헌과 김창업의 딸과 혼인했다는 것, 조문명의 친형 조경명(趙景命, 1674~1726)이 장동김씨 상용과 김시걸의 딸과 혼인했다는 것, 1693년 소론 집안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노론 집안 송상기(宋相琦, 1657~17

은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김창흡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흔히 기사환국(1689)을 거쳐 갑술환국(1694)이 일어난 뒤 김창흡이 산림으로 돌아가 은거하면서 학문에 매진했다고 본 경우가 많다.<sup>50)</sup> 그런데 김창흡은 갑술환국 이후의 벽계(蘖溪) 복귀가 은둔을 위해서 아니라 부친을 죽인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으며,<sup>51)</sup> 1698년 최석정(崔錫鼎, 1646~1715)과 절교하고 1703년 박세당의 사문시비 사건을 사주하며 1716년 『가례원류』(家禮源流) 과문을 예의주시하는 등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창흡이 갑술환국 이후 은사로 삶을 마쳤다는 선행연구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며, 김창흡이 노론계 장동김문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김창흡의 생애와 인적 관계망의 형성을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지어 재론할 것이다. 이로써 정치사적 배경 속에서 김창흡의 삶을 재구성하고 김창흡의 정치적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장동김문과 김창흡에게 큰 여파를 끼친 구체적인 ‘정치사적 사건’ 내지 ‘당쟁사적 사건’이라는 층위이다.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이 그것이다. 김창흡은 1689년 진도에서 부친 김수항이 사사당한 장면을 직접 목도하였을뿐더러 그의 중부 김수흥(金壽興, 1626~1690)이 1690년 유배지 장기(長鬐)에서 병사(病死)한 것도 지켜보았다. 장동김문은 노론 내에서도 기사환국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집안이었으므로 김창흡이

---

23)의 딸과 혼인했다는 것 등에서 확인된다. 김경희, 『『학암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22~23면; 김성애, 『『두타초』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6면 참조.

50) 김남기는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항이 사사당하자 출사의 뜻을 완전히 꺾고 산수에 은거하며 학문에 매진하였다고 주장했고, 이승수는 기사환국으로 입었던 상처는 갑술환국으로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승수, 『삼연 김창흡 연구』,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8, 156면; 김남기, 「삼연 김창흡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5면 참조.

51) 갑술환국 이후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한 1694년 가을에 김창흡은 「가을 감회」(秋感)라는 시에서 “비록 다시 산으로 돌아가나 은둔을 위해서 아니니 /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죽인 원수 잊으면 어찌 사나이리오”(雖復歸山非隱遁, 公然忘越豈男兒)라고 말한 바 있다. 金昌翁, 「秋感之三」, 『三淵集拾遺』 권5, 한국문집총간 166, 279면.

입은 영향과 타격 역시 컸다. 그리고 갑술환국으로 김수항의 관작과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의 저지로 김수항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남인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했다. 이 두 정치적 사건은 김창흡에게 그저 외적인 사건 내지 계기가 아니라 실존적인 원체험에 해당한다. 이 원체험은 김창흡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근원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부친 김수항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것을 지켜보던 김창흡은 반대 정파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을 갖고 복수를 다짐하는 공격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김창흡의 이러한 감정은 앞서 언급한 「가을 감회」에서 잘 드러난다. 본고는 이런 ‘감정’의 차원을 중시한다. ‘원한’, ‘통한’, ‘복수심’이라는 원초적 감정 표출은 갑술환국 이후 창작된 산문에서 잘 드러난다. 김창흡은 갑술환국 뒤 소론이 집권하여 남인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인 남인에 대한 원한과 소론에 대한 원망을 품었다. 하지만 불리한 정국 속에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원한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원한이라는 강렬한 감정적 차원과 실존적 체험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갑술환국 이후의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부친 김수항의 죽음에 대한 김창흡의 원한, 남인과 소론에 대한 김창흡의 복수심과 공격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로써 그동안 간과해 왔던 장동김문수호자로서의 김창흡의 면모를 밝힐 것이다.

‘원한’과 ‘복수심’은 대단히 강력한 감정으로 양면성을 갖는다. 이는 반대 정파와의 대립 속에서 동지와 적을 구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런데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 외부로 향하는 공격성이 자기 자신에게 회귀하여 행위 주체를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높다. 그리고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한은 적에 대한 공격성과 동지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보편화하고 확장하는 길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원한이라는 원초적 감정이 과연 김창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한이라는 감정이 김창흡의 작품 세계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주되는지, 김창흡이 어떻게 원한이라는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획득했는지, 그런 성과 속에도 원한이라는 감정에 대응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김창흡의 원한과 관련된 글들을 분석한 뒤에 이어지는 탐구 과제로 제기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의 차원에 대해 좀 더 성찰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영역, ‘사상’의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사와 당쟁사의 기저부를 형성하는 ‘사상적 지향’이라는 세 번째 층위이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사대부 사회이고 유교 사회이므로, 정치와 사상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조선조 사대부 정치에서 사상의 정치성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다. 조선에서 유교화가 심화된 이래<sup>52)</sup> 숙종 대에 이르면 주자학이 절대화되면서 사상적으로 경직되고 폐쇄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노론 지배 엘리트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창흡은 주자학을 중심에 놓으면서 불·도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유연한 사상적 모색을 했다.

불교는 당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김창흡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따라서 김창흡이 기사환국 뒤에 불교에 빠진 것도 ‘정치사적 맥락’을 갖는다. 노장사상은 김창흡에게 초연한 삶의 자세,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케 하는 언어와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는 김창흡이 당화로 인한 가문의 몰락을 받아들이고 사상적 경직성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김창흡에게 불교와 노장사상은 당연히 성리학과 동등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 초기 연구에서는 김창흡을 과도하게 탈성리학적인 인물로 부각했다가 이후의 연구에서는 그를 성리학자로 다루고 있는데, 유·불·도에 관한 김창흡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듯하다. 본고는 주자학에 대한 김창흡의 입장과 태도, 유·불·도 삼교에 대한 김창흡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즉 주자학을 존중하는 정통주의적 면모와 이단 사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김창흡의 작품 세계에서 병존하

---

52) 계승범, 『중종의 시대』, 고양: 역시비평사, 2014, 264면 참조.



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모색을 통해 김창흡이 어떤 지평을 획득했으며 이것이 원한이라는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김창흡의 사상적 모색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원한이라는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주체로서 스스로를 보편화하려는 노론 엘리트 김창흡의 면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당대 조선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및 대안 모색과 관련이 있는 ‘경세적 지향’이라는 층위이다. 김창흡이 사상적 모색을 토대로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해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국가 간 정치에 대해 어떤 사고를 했는가가 자연스럽게 그 뒤를 잇는 물음으로 제기된다. 선행연구는 산수를 즐기는 시인, 은사, 방외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부각한 반면에 김창흡의 경세적 면모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김창흡의 산문을 보면 조선의 국가 운영에 대해 비판하거나 진단한 대목들이 매우 많다. 특히 숙종 대 후반기 백씨 김창집이 정국의 중심에 나가면서 김창흡 역시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시야를 넓혀서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조정 관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김창흡의 경세적 지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노론의 정파성을 대변하면서도 정파적 이익의 상위에 놓인 국가 운영의 차원을 사고한 김창흡의 면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치사적 맥락’이라는 것을 축으로 하여 원한이라는 감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입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어 온 김창흡 문학의 정치성,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김창흡의 면모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문학 기반의 문사철 통합적 연구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한다.

## 2. 문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

본고의 연구 대상은 1732년 간행된 운각인서체자(芸閣印書體字) 36권 18책 『삼연집』<sup>1)</sup>과 김귀년(金貴年) 정고(淨稿) 필사본 32권 15책<sup>2)</sup> 『삼연집습유』(이하 『습유』로 약칭)이다.

그런데 문헌에 따라 『삼연집』의 간행 연도와 간행 주체의 관직 이력에 대해 기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김창흡 연구에서는 원집 간행 문제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원집에 수록되어 있는 김창흡의 산문관이 잘 반영된 서문, 즉 「중씨 농암선생 문집 서문」(仲氏農巖先生文集序)의 산삭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못한 것 같다.<sup>3)</sup> 이는 김창흡의 산문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외에 원집이 아닌 습유간의 계통 문제, 습유의 글이 과연 다 김창흡의 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원집이나 습유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 실려 있는 김창흡의 글도 보인다. 김창흡이 벗 권익룡(權益隆)에게 쓴 「풍아별곡서」(風雅別曲序)가 대표적인 예이다.<sup>4)</sup>

1) 최근에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소장 『삼연집』이 공개되었다. 서지사항을 보면 36권 15책이고 필사본이며, 고본(稿本)인 듯하다고 밝혀두었다. 인장은 ‘朴齊香氏’, ‘敬韶’가 찍혀 있다. ‘경소’는 반남박씨 박제문(朴齊聞, 1787~?)의 자이다. 권차수로 짐작하면 원집일 가능성이 높을 듯한데,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이러한 이본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 밝혀놓고 이본 조사는 후속 작업으로 남겨둔다. 金昌翁, 『三淵集』 권1~36,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895.1-82/A642). <<https://www.nl.go.kr/korcis/search/searchResultDetail.do>>

2) 『『삼연집』 해제』에는 32권 16책이라 밝혀져 있지만, 책마다 찍힌 ‘김달순’(金達淳) 인장 개수에 의하면 32권 15책이 맞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32권 15책’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후술하겠다. 김경희, 『『삼연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315면 참조.

3) 이종호는 일찍이 각주에서 한유와 구양수의 문예를 비판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밝혀놓았는데, 자세히 논하지 않았다. 이후의 삼연 연구자들도 이 점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종호, 「삼연 김창흡의 시경과 그 비판사적 의의-조선후기 시경비평의 기조와 방향-」, 『동양한문학연구』 11집, 동양한문학회, 1997, 391~392면 각주 10번 참조.

4) 윤덕진·성무경 주해, 『고금가곡』, 파주: 보고사, 2007, 145~147면 참조.

이와 같은 기초적 사안을 규명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김창흡과 김창흡의 산문에 대해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원집의 간행 경위와 산삭 문제, 『습유』의 계통,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부터 살펴보고 하겠다.

## 1) 원집 간행 경위와 산삭 문제

먼저 원집의 간행 경위를 간행 연도와 간행 주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하겠다. 『안동김씨문헌록』(安東金氏文獻錄)<sup>5)</sup>에 의하면 『삼연집』의 간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창흡의 둘째 아들 김치겸이다.<sup>6)</sup> 이는 조카 김범행(金範行, 1706~1764)이 쓴 제문에서도 확인된다.<sup>7)</sup> 그런데 『삼연선생연보』(三淵先生年譜, 이하 『연보』로 약칭)에는 김창흡의 문인 유척기(兪拓基, 1691~1767)가 1732년 경상도 관찰사 때 운각활자로 간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8)</sup> 『삼연집』의 해제에서는 원집의 간행 연도나 간행자 유척기의 관직 이력에 대해 기록마다 차이가 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연보』에 언급된 연도를 우선 믿고 『삼연집』은 김창흡의 문인 유척기가 경상도 관찰사 재직 때 봉금을 내서 1732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9)</sup> 『삼연집』의 간행 주체에 대해 기록상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5) 『안동김씨문헌록』은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13세손 동강(東江) 김녕한(金寧漢, 1878~1950)에 의해 편집된 책이다. 1941년 윤6월에 완성되었지만 1975년에 아들 김윤동(金潤東)에 의해 간행된다. 안동김씨에 의해 간행된 책이라 신뢰할 만하다. 참고로 김귀년은 김녕한의 현손이다.

6) 안동김씨 편, ‘諱昌翁’ 조목, 『著述彙』, 『安東金氏文獻錄』(人), 서울: 昌文女子中等學校, 1975, 781면. 김창흡의 저술이 “『三淵集』三十六卷”이라고 적혀 있고, 그 뒤에 소주로 ‘仲男致謙用活字印布’라 밝히고 있다.

7) 金範行, 「祭仲父」, 『安東金氏文獻錄』(人), 677면. “念我先王考遺集之入梓, 墓道之堅石, 卽我先君子之所留恨, 而仲父幸皆卒事, 則庶可以有辭於泉下, 而在後承亦可無憾矣.” 여기서 선왕고(先王考)는 김창흡을 가리키고, 선군자(先君子)는 김양겸을 가리키며, 중부는 김치겸을 가리킨다.

8) 안동김씨 편, 『三淵先生年譜』, 『韓國人物史料叢書』 권10, 서울: 민족문화사, 1987, 136~137면 참조.

9) 김경희, 앞의 글, 320면 참조.

『삼연집』 원집의 정리·편찬 작업은 1727년 이전 노량진 민절서원(愍節書院)에서 김창흡의 문인 김신겸(金信謙, 1693~1738), 김용겸(金用謙, 1702~1789), 김문행(金文行, 1701~1754), 김익겸(金益謙, 1681~1747), 유숙기(兪肅基, 1696~1752)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sup>10)</sup> 보인다.

시간과 장소의 선택은 의미심장하다. 1725년 을사처분으로 노론사대신이 신원된 뒤 1726년 사육신을 배향한 노량진 민절서원(愍節書院) 옆에 사충신의 사당, 즉 사충서원(四忠書院)을 건립해 노론사대신을 배향했다.<sup>11)</sup> 그러므로 김창흡의 제자들이 이 사이에 노량진의 민절서원을 선택하여 『삼연집』의 원집 편집 작업을 하게 된 듯하다. 그러나 1727년 10월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재집권하자 노론사대신은 다시 관작 추탈, 시호 환수, 사충서원 철취의 처분 등을 받았다. 『삼연집』의 간행도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중단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다가 1729년 기유처분으로 노소론의 연정(聯政) 국면이 이루어지게 된다.<sup>12)</sup>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 속에서 그 뒤인 1730년 여름 문집 간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삼연집』의 정리와 간행은 당시의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안정적인 정국에서도 문집의 간행은 순조롭지 못했던 듯하다.

선숙부의 문집(『삼연집』을 가리킴: 필자)에 대해서는 올해 여름에 종씨(從氏: 김치겸을 가리킴)의 서신을 받았는데 애초에 상세하게 알리지 않고 다만 압구정(狎鷗亭)에서 간행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짐작건대 제현(諸賢)의 계획은 필시 의리에 근거했을 터, 비록 부득이하게 강화도

10) 이는 유숙기의 『겸산집』(兼山集) 권1 「仲夏, 會金兄尊甫信謙, 金友濟大用謙, 士彬文行, 日進益謙諸人於露江愍節院, 共讀師門遺稿, 將爲編次入梓計也」(한국문집총간 속 74, 197면) 및 김익겸의 『잠재고』(潛齋稿) 권1 「鷺江六臣祠與諸君子編次三淵先生文集有感」(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3648-10-617)에서 확인된다.

11) 민우수(閔遇洙, 1694~1756)는 1726년 지은 「노량진 사충사당 상량문」(露梁四忠祠上樑文)에서 창건 경위를 자세히 기록했다. 閔遇洙, 「露梁四忠祠上樑文丙午○代仲父」, 『貞菴集』 권9, 한국문집총간 215, 443~444면 참조.

12)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서울: 동방미디어, 2000, 144~164면 참조.

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관사를 혐의하여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번에 홀연 듣건대 창준(昌準)에게 문서를 보내 경사(京司)의 가물(價物)을 받게 하고 또 따라서 한 달치 작업을 셈했다고 하니, 이런 일을 어찌 차마 할 수 있단 말인가.<sup>13)</sup>

위의 인용문은 1730년에 김신겸이 유숙기에게 쓴 편지이다. 내용에 의하면 『삼연집』의 간행 작업은 1730년 여름 압구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압구정 능허정(凌虛亭)에는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 1662~1713)의 집이 있었다.<sup>14)</sup> 김창흡의 뜻을 지키기 위해 문인들이 비록 당시의 강화유수(江華留守)인 김창흡 문인 유척기<sup>15)</sup>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강화 관사에서 간행하는 것이 혐의스러워 그 대신 안동김씨의 공간에서 간행에 착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간행하는 과정에서 장인 창준(昌準)으로 하여금 경사(京司)의 가물(價物)을 받게 한 일이 발생했다. 김신겸에 의하면 이는 김창흡의 평소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였다.<sup>16)</sup> 이에 김신겸은 김창흡의 문인들이 각자 자신의 재물을 모아 간행을 마무리하자고 제의했다.<sup>17)</sup> 이는 **같은 해 가을**에 문인 김희서(金羲瑞, 1675~1742)가 자기 돈을 모아 김치겸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sup>18)</sup> 뿐만 아니라 **같은 해 겨울**에 김

13) 金信謙, 「與俞子恭書 庚戌」, 『檜巢集』 권7, 한국문집총간 속 72, 223면. “先叔父文集, 今夏得從氏書, 初不詳報, 只云開役鷗亭. 意謂諸賢區畫, 必本義理, 雖不得已取資江都, 而猶嫌官舍, 就彼開役. 乃者忽聞出付昌準, 使受京司價物, 又從而計朔工, 此亦可忍也乎?”

14) 金昌緝, 「年譜」, 『附錄』, 『圃陰集』, 한국문집총간 176, 476면. “(壬辰)十二月, 舉家出棲于廣州之狎鷗亭村(先生雅有卜居林泉之志, 而以羅夫人年高疾篤, 爲便承奉, 遲留城內. 及遭大故, 又以疾病沈綿, 且苦未得可居之所, 常恨遷就. 及是, 疾恙頗痊, 遂決意鄉居, 寓于鷗湖之凌虛亭, 卽外舅家舊榭也.)”

15) 유척기는 1730년 4월 19일부터 1732년 4월 3일전까지 강화유수로 재직했다. 『英祖實錄』 6년 4월 19일 병진 기사, 8년 4월 3일 경인 기사 참조.

16) 金信謙, 앞의 글, 223면. “此不過急於省工費廣傳布而已. 其於全不體先生平素之志, 何孰謂賢者與聞而亦不能已之耶?”

17) 金信謙, 위의 글, 223~224면. “必欲及今印看, 則當聚議僻處, 各出私財, 從容了事. 不可張遑於通邑大都, 況希覬其有賴乎?”

18) 金羲瑞, 「與金大興致謙 庚戌」, 『喚菴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칭구기호: 한古朝46-가1798), 133면. “文集刊役事巨, 綿力未易下手, 今有印布之舉, 此時此事尤出望外, 豈非天將斯文有所陰助而然耶? 其爲士林之幸大矣, 豈但爲子

창협(昌協)의 문인이자 김창흡(金昌習)의 지기인 이재형(李載亨, 1665~1741)이 김창흡의 사위이자 문인인 이덕재(李德載)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삼연집』 간행을 도모하는 것이 성대한 일이라고 감탄한 바 있었다.<sup>19)</sup>

김신겸, 김희서, 이재형의 편지에 근거하면 1730년 여름에 강화유수 유척기(兪척基)의 힘으로 『삼연집』 간행에 착수했지만 관사를 혐의하고 경사의 가물을 받기 꺼려서 뜻대로 이루지 못해 중지한 듯하다. 그 뒤에 문인들이 바로 돈을 모아 당시 유일하게 살아 있던 김창흡의 둘째 아들 김치겸(金致謙)에게 보내 두 번째 간행에 착수하지 않았을까 한다.<sup>20)</sup>

요컨대 『삼연집』 간행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1732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1730년 첫 번째 간행은 강화유수인 문인 유척기가 주도해서 진행하다가 중지했고, 1732년 두 번째 간행은 김치겸이 주도해서 완수했다. 그렇다면 『연보』에서는 왜 유척기만 언급하고 있을까? 그리고 아들에게 보낸 김창흡의 편지 가운데 왜 유독 김치겸에게 보낸 편지만 『습유』에 한 통도 수록되지 않았을까?<sup>21)</sup>

그 원인은 후사(後嗣) 문제로 일어난 김양겸(金陽謙)과 김치겸(金致謙) 집안 사이의 불화 때문이 아닐까 한다. 김치겸은 김양겸과 친형제지만 ‘김수증(金壽增)→김창국(金昌國)’ 집안에 양자로 갔다. 이 점이 후사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듯하다.

---

弟門生之私喜而已也? 義瑞固當盡心力仰助斯役, 而事出急遽, 末由遂誠, 此生於世更無用虞矣. 慚負罪恨無言可達, 只以紙代錢百五十文付呈耳.”

19) 李載亨, 「答李正言德載」, 『松巖集』 권2, 한국문집총간 179, 387면. “淵翁文集承示審方圖印布, 甚盛舉也, 實斯文之幸. 而在區區私悰, 尤不勝欣聳. 淵翁所與載亨書二簡小詩四篇贈呈, 幸收錄耶?”

20) 당시 김창흡의 아들 중에서 김치겸만 생존해 있었다. 첫째 아들 김양겸은 1728년에 죽었고, 셋째 아들 김후겸(金厚謙)은 1727년에 죽었다. 그리고 1730년에 김창흡의 문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삼연집』 간행을 중지했을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김창흡의 손녀사위 홍익대(洪益大)의 부친 홍태유(洪泰猷, 1672~1715)의 문집 『내재집』(耐齋集)도 1730년 운각인서체자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국은 노론계열에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정진웅, 「조선후기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집, 한국서지학회, 2007, 123~150면 참조.

21) 『습유』에 수록된 김창흡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첫째 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셋째 아들 김후겸에게 보낸 것은 9건이다.

여기서 후사 문제는 김화행(金和行, 1712~1750)의 파양(罷養) 사건을 가리킨다. 김화행은 김양겸의 셋째 아들이다. 원래 김양겸 집안은 김화행을 김후겸의 후사로 보내려고 했는데, 김퇴겸<sup>22)</sup>의 부인 맹씨(孟氏)의 농간으로 김화행은 퇴겸의 후사가 되어버렸고 김양겸의 둘째 아들 김간행(金簡行, 1710~1762)이 김후겸의 후사로 가게 되었다. 김창흡 생전에 김화행을 김퇴겸 집안으로 출계시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 김양겸과 부인이 부친의 유언을 지키려 했으나, 맹씨의 김화행 출계문서 위조와 김치겸의 결정으로 결국은 김화행이 김퇴겸의 후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에 이 일은 심각한 문제가 된 듯한데, 김양겸의 부인 덕수이씨(德水李氏: 이단하李端夏의 손녀)가 예조에 파양 장문을 올리고 조정에서 파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였다.<sup>23)</sup>

김범행의 아들 김이현(金履鉉, 1726~1794), 손자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의 기록에 의하면 후사 문제로 김양겸의 부인 덕수이씨는 시부친의 뜻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깊은 원한 속에서 죽었고, 김양겸의 사자 김범행(金範行)도 과거를 그만두고 귀향(歸鄉)하였다.<sup>24)</sup> 이러한 결과는 바로 안동김씨 집안의 일을 결정한 장로(長老) 김치겸의 잘못 때문에 초래되었다.<sup>25)</sup>

이런 원한이 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창흡의 직계 후손 즉 “金昌翁→金養謙→金範行→金履鉉→金達淳” 계열이 『습유』를 정리, 『연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김치겸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

22) 김퇴겸(金退謙, 1700~1719)은 김창직(金昌直, 1653~1702)의 둘째 아들이자 김수증의 손자이다. 형은 김일겸(金逸謙, 1694~1721)이다.

23) 관련 내용은 『承政院日記』 英祖 8년 3월 26일 계미 기사; 덕수이씨, 「呈禮曹狀」, 『安東金氏文獻錄』(地), 1107~1112면; 金履鉉, 「府君遺事」, 『安東金氏文獻錄』(人), 679면; 李秉成, 「與金若虛」, 『順菴集』 권5, 한국문집총간 속 59, 94~95면 참조.

24) 金履鉉, 「府君遺事」, 『安東金氏文獻錄』(人), 679면. “公以是自爲罪累, 痛哭歸鄉, 終身不復應舉. 母夫人亦以不能守先志, 深懷痛恨, 未幾而卒.”; 金邁淳, 「祖考墓誌」, 『臺山集』 권10, 한국문집총간 294, 469~470면. “同氣有爲人後者而非先志也, 府君訟于朝, 既得理矣, 長老主宗議者, 扶抑乖宜. 府君大痛恨, 引爲己罪, 廢舉歸鄉, 索然無復世念, 而病亦益深矣.”

25) 金履鉉, 위의 글, 679면. “至親尊行則被瞞於孟氏, 反咎公罷養, 勒捧不諫母之招.”; 金邁淳, 위의 글, 470면. “長老主宗議者, 扶抑乖宜.”

다. 『습유』와 『연보』의 편찬은 김창흡의 직계 후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귀년본 『습유』의 책마다 찍힌 “金達淳印”으로 보면 『습유』 정고본은 김달순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안동김씨문헌록』의 “『三淵集拾遺』三十卷玄孫達淳哀輯”이라는 기록과 부합한다.<sup>26)</sup> 그리고 『안동김씨문헌록』에 의하면 『연보』는 김이현에 의해 편찬이 시작되어 김매순<sup>27)</sup>에 이르러 편찬 작업이 마무리되었고,<sup>28)</sup>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현손 김수근(金洙根, 1798~1854)에 의해 1854년에 간행되었다.<sup>29)</sup>

이렇듯 김양겸과 김치겸 집안 사이에 대대로 맺어진 원한으로 김창흡의 직계 후손에 의해 정리된 『습유』와 『연보』에서는 김치겸이라는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을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연보』에서는 김치겸이 원집 간행을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고 『습유』에서도 김치겸 관련 편지를 한 통도 수록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상 원집의 간행 경위를 정리해보았다. 다음으로 김창흡의 산문관을 잘 드러낸 「중씨 농암선생 문집 서문」의 산삭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 확인된 『농암집』(農巖集) 서문의 이본은 총 세 가지다. 하나는 『농암집』 초간본 「농암집서」(農巖集序)이고, 하나는 중간본 「농암집서」

26) 안동김씨 편, ‘諱昌翁’ 조목, 『著述彙』, 『安東金氏文獻錄』(人), 781면 참조. 여기서 언급한 ‘삼십권’은 원집이 간행된 뒤 나머지 김창흡의 유고를 모아 편찬해 놓은 것인 듯하다. 따라서 김창흡이 직접 지은 글이 아닌 권31의 「어록」, 권32의 「부록」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7) 김매순은 김달순과 사촌형제이다.

28) 기계유씨 유신환(兪莘煥, 1801~1859)도 1839년에 「가사」(家史), 『삼연선생연보』의 교정작업에 참여했다. 참고로 유신환은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척관계를 맺은 노론명문가 유명일(兪命一, 1639~1690)의 후손이다. 兪莘煥, 「上臺山金先生己亥」, 『鳳棲集』 권1, 한국문집총간 312, 11면. “「家史」付籤, 例蒙印可, 誠非始慮之所及也. 『三淵先生年譜』謹領, 而此乃斯文之大事, 校讎之役, 與有榮焉. 而發凡起例, 若去取多少, 則莘煥之愚, 有何權衡, 可以與於此哉? 惟脫文誤句之釐正, 不敢不圖所以盡力耳.”

29) 金履鉉, 「府君遺事」, 『安東金氏文獻錄』(人), 681면. “府君晚年以高祖考墓誌, 年譜未就爲恨, 今譜經諸父兄節次修潤, 幾成定本. 小子又以諸父命, 草兩世誌文, 以及府君. 竊庶幾追述志事之萬一, 而藐茲生晚, 就正無由, 小子於此, 愀然有餘感焉.”; 안동김씨 편, ‘諱昌翁’ 조목, 『著述彙』, 『安東金氏文獻錄』(人), 781면. “年譜二卷, 歷屢世蒐輯, 至玄孫邁淳始潰于成, 附以行狀、墓誌. 哲宗甲寅, 從五世孫洙根用活字印布.”



이며, 마지막은 『삼연집』에 수록된 「중씨 농암선생 문집 서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간본(1709) 農巖集序	중간본(1712) 農巖集序	『삼연집』 원집(1732) 仲氏農巖先生文集序
1	出而端坐, 咿唔之聲, 若裂金石, 其高下往復, 妙有韻折.	至其伊吾之聲, 若出金石, 高下有韻折.	至其伊吾之聲, 若出金石, 高下有韻折.
2	則先生之跡散在於 <u>月出</u> 、 <u>寶蓋</u> 之間, 而稍稍斂華就實, 味其無味.	則先生之跡散在於 <u>月出</u> 、 <u>寶蓋</u> 之間, 稍稍斂華就實, 味其無味.	則先生之跡散在於 <u>月出</u> 、 <u>寶蓋</u> 之間, 稍稍斂華就實, 味其無味.
3	則嗚呼遭己巳之禍.	則便遭己巳大禍.	則便遭己巳大禍.
4	竊嘗論學於三代以後, 其等有三: 文章也, 訓詁也, 儒者之學也. 伊川先生嘗以此語學者, 勉其務本. 然自朱子猶不能直造其約, 紛然用心於『楚辭』、古詩、兵禪等書者.	竊嘗論學於三代以後, 其等有三: 文章也, 訓詁也, 儒者之學也. 伊川先生嘗以此語學者, 勉其務本. 然自朱子猶未能直造其約, 紛然用心於詩騷兵禪者.	竊嘗論學於三代以後, 其等有三: 文章也, 訓詁也, 儒者之學也. 伊川先生嘗以此語學者, 勉其務本. 然自朱子猶未能直造其約, 紛然用心於詩騷兵禪者.
5	然先生之所以爲先生, 簡易而已矣.	然先生之所以爲先生, 易簡而已矣.	然先生之所以爲先生, 易簡而已矣.
6	過此而存誠致知, 造乎深密, 要亦爲一味簡易而已.	過此而存誠致知, 造乎深密, 要亦爲一味易簡而已.	過此而存誠致知, 造乎深密, 要亦爲一味易簡而已.
7	夫爲文之術, 凡有三要: 理不可不精確, 氣不可不昌大, 詞不可不煥爛. 今轅飾而人庸, 詞之喻也; 水大而物浮, 氣之謂也. 二者之形, 其精明純粹者之攸載乎六經尙矣, 固純乎一理者也. 然浩然兩	없음	없음

<p>間之塞，燦然三光之麗，具在其中，則髣髴有三者之可名焉。降自八代，天下之文裂矣。不合不該，罕覩夫彬彬大雅。故詞人之文，專驚乎馳騁粉澤。經生之文，偏滯夫蒼鹵樸澁。所謂儒者之立言，則僭如『續經』，贗如『法言』者，俳優佞儻，質文俱喪，斷乎爲六經之賊耳。昌黎，文而儒者也。氣則昌矣，詞則煥矣。然「原道」、「師說」，欲其多而不可得者也。「毛穎」、「送窮」，欲其刪而不可存者也。至以孟子之宏博，降伍乎相如、子頤之渾噩，上配於六經，甚矣，其諂諛浮浪，幾乎無理。以是而謂周情孔思，以是而謂日光玉潔，嗚呼殆矣！歐陽，淺者耳。純則有之。若以夫六一華暢之辭，融橫渠玄奧之理，亦可以無憾矣。而惜乎其湊會之難邂逅。而有先生焉，言固有大而非誇者，愚竊以是自信也。抑先生之難及，亦有三焉。</p>		
<p>8 到長辭之垂畢，則節遽而音促者有矣。</p>	<p>到曼辭之垂畢，則節遽而音促者有矣。</p>	<p>到曼辭之垂畢，則節遽而音促者有矣。</p>

9	蓋天地間,固自有順氣中聲,不乖不雜,與人心相通者,自然成象而入律.一涉作爲,輒間隔以失之矣.得之自我先生久矣.夫文與道二而於是乎一矣.況在今衰季偏邦,乃能備三要而集三難,尤爲其難.卽末而推其本,其和順英華之符也歟.	蓋天地間,固自有順氣中聲,不乖不雜,與人心相通者,自然成象而入律.一涉作爲,輒間隔以失之矣.先生於此得之以易簡,斯其文與道之所合一者歟.	蓋天地間,固自有順氣中聲,不乖不雜,與人心相通者,自然成象而入律.一涉作爲,輒間隔以失之矣.先生於此得之以易簡,斯其文與道之所合一者歟.
---	---	--	--

<표(1) 「농암집서」 이본 비교>

표(1)은 세 가지 이본의 내용상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초간본 「농암집서」는 1709년 가을에 작성된 것이고, 중간본 「농암집서」는 1712년 봄에 이루어진 것이며,<sup>30)</sup> 「중씨 농암선생 문집 서문」은 1732년에 간행

30) 『『농암집』 해제』에는 『농암연보』(農巖年譜) 등 같은 안동김씨 후손에 의해 정리된 정보에 의거하여 『농암집』 중간본이 1710년 가을에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과 맞지 않은 듯하다. 이는 김창흡이 아우 김창즙, 조카 김제겸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김창즙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덕재(德哉: 이의현李宜顯의 자)가 경상 감사가 되었으니 중씨의 문집을 쉽게 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고, 김제겸에게는 “씨늘하고 한랭한 서리추위 속에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 듣건대 경상 감사가 오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어서 문집 간행 일은 장차 낙막하게 될 것이라 하니 탄식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두 편지에 언급된 경상도 감사는 이의현을 가리킨다. 『속중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의현의 경상도 관찰사 재임 기간은 1711년 6월 16일~1712년 3월 6일이다. 김제겸에게 보낸 편지의 작성 시기는 서리가 내린 때이므로 겨울이 분명하다. 김창흡은 임진년(1712)에 또 김제겸에게 편지를 보내 “듣건대 문집 간행에 이미 착수했다 하니, 영백(嶺伯)의 성실한 힘에 참으로 감격할 만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간본 『농암집』의 간행은 1712년 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金昌翁, 「答敬明」,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83면. “聞德哉爲嶺伯, 文集可易成. 今番則期於必就, 勿復以十分校準爲拘. 如何? 如何?”; 金昌翁, 「答濟謙」,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61면. “信後又半月, 霜寒淒冽, 未諳復如何? (...) 聞嶺伯難久, 文集事將歸落莫, 可嘆.”; 金昌翁, 「寄濟謙壬辰」,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95면. “文集聞已始役, 嶺伯之力量誠意, 令人感歎.”; 『肅宗實

된 것이다.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중간본 「농암집서」와 「중씨 농암선생 문집 서문」의 내용이 똑같은데, 초간본 「농암집서」로부터 많은 부분이 산삭된 것으로 보인다. 산삭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번잡한 까닭으로 산삭된 경우이다. 둘째, 특정한 어휘가 바뀐 경우이다. 셋째,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修)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경우이다.

“묘왕복”(妙往復) 같은 내용이 산삭된 것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는 1712년 조카 김제겸(金濟謙, 1680~1722)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sup>31)</sup> 표(1)에 나온 1, 2, 3, 4 조목이 다 이런 경우이다. “간이”(簡易)를 “이간”(易簡)으로 바꾼 것은 두 번째 사례이다. 5, 6, 8 조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삼요”(三要)와 “삼난”(三難) 산문관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은 세 번째 사례이다. 7, 9 조목이 여기에 속한다. 서문 내용을 다듬을 경우 번잡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어휘를 바꾸는 일은 일반적이지만, 자기의 산문관을 잘 드러낸 대목까지 삭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왜 그랬을까?

“삼요” 부분이 삭제된 원인에 대해 몽예(夢巖)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이 쓴 「단거일기」(端居日記)에서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듯하다.

11일. 영남(嶺南)에서 새로 간행된 『농암집』의 서문을 봤는데, 한유와 구양수를 비방하고 험뜯은 내용을 없애버렸다. 아마 그 무륜(無倫)함을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다.<sup>32)</sup>

11일은 임진년(1712) 7월 11일을 가리킨다. 남극관이 봤던 새로 새긴

---

錄』 37년 6월 16일 갑술 기사; 『承政院日記』 숙종 38년 3월 10일 기사 기사; 박헌순, 「『농암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294~296면 참조.

31) 金昌翁, 「寄濟謙 壬辰」,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95면. “文集聞已始役, 嶺伯之力量誠意, 令人感歎. ‘妙往復’三字, 以太繁刪之矣.”

32) 南克寬, 「端居日記」, 『夢巖集』, 한국문집총간 209, 304면. “十一日. 見嶺南新刻『農巖集』序文, 刊去詆訾韓歐語, 蓋亦自知其無倫也.”

영남 『농암집』은 이의현(李宜顯, 1669~1745)에 의해 중간된 목판본임이 분명하다. 남극관에 의하면 김창흡이 당송팔대가의 대표 인물인 한유와 구양수를 비방한 행위는 무륜(無倫)한 것이었다. 김창흡은 “삼요” 부분에서 문장가이면서 유자인 한유가 쓴 글은 기운이 있고 언어 구사가 무르익었지만 순수한 이치가 없다고 비판하였고, 구양수가 쓴 글은 아름답고 조리가 있지만 심오한 이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김창흡은 당시의 다른 문인처럼 한유, 구양수의 글을 무조건 숭앙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것이 아마 당송고문을 숭상했던 당시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중간 때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닐까 싶다.<sup>33)</sup> 가장 늦게 간행된 『삼연집』에 수록되어 있는 「중씨 농암선생 문집 서문」은 중간본 「농암집서」 내용을 그대로 따랐던 것 같다.

## 2) 습유의 계통 및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

앞서 『삼연집』의 간행 경위와 산삭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습유』의 계통 및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 알려져 있는 『삼연집습유』 이본은 32권 15책 김귀년 소장본(이하 “김귀년본”으로 약칭), 27권 14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이하 “장서각본”으로 약칭), 25권과 연보 합 17책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국중본”으로 약칭), 32권 15책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이하 “연대본”으로 약칭) 등 총 네 가지이다. 장서각본에는 마지막 제14책이 빠져 있고, 연대본에는 제2책이 빠져 있다.

「『삼연집』 해제」에서는 김귀년본이 총 32권 16책이라 밝혔지만, 책마

33) “삼요” 산문관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김창흡이 당송고문과 당송팔대가에 대한 자신의 기존 생각을 바꾸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창흡은 당송고문이나 당송팔대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나 주장을 갖고 있었는가? 이는 “삼요” 산문관과 어떤 연관을 지니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다 찍힌 “金達淳印” 도장 총수가 15개인 것으로 보면 ‘32권 15책’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래야 목록 내용이 똑같은 연대본과 일치한다. 또한 장서각본이 26권 13책이라 했지만, 장서각본 각 겉표지 우측 하단에 적혀 있는 책차 “共十四”로 보면 총 책수는 14책이 맞는 듯하다. 제14책이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총 권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원래 있어야 할 「어록」(語錄)과 「부록」(附錄)의 분량으로 보면 빠진 부분이 한 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는 장서각본을 ‘27권 14책’으로 표기한다.

네 가지 이본 가운데 장서각본을 제외하면 연대본과 김귀년본이 그 편차와 내용이 똑같고, 국중본은 안동김문 집안 사람에게 보내준 김창흡의 편지 내용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면 연대본과 편차와 내용이 똑같다. 그리고 연대본과 국중본에만 있는 필사 오류를 보면 이 두 본은 같은 모본을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34)</sup>

다른 이본과 달리 장서각본의 편찬 순서는 매우 어수선하다. 이는 시의 배열에서 잘 드러난다. 예를 들면 장서각본에는 김창흡이 1717년 전라도 여행갈 때 지은 시 「금계 사군(윤홍)이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말을 타고 달려와 마침내 한풍루에서 만나게 됐다.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니 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강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를 읊어 화답하기를 청하다」(錦溪使君尹泓聞余至，一騎馳來，遂會于寒風樓。萍水奇會，不可無記也，率爾口占以要和)가 1708년 영남을 여행했을 때 지은 시 사이에 잘못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본에는 다 실려 있는데 장서각본에만 없는 시도 종종 있다. 따라서 장서각본은 다른 이본과 같은 계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장서각본 권2에는 「설달 그믐밤의 감회 제2수」(除夕感懷之二) 뒤에 바로 「낙송루에서 이별할 때 상경에게 주다」(洛誦樓贈尙卿)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 제목 밑에 “이하 두 수의 시는 마땅히 「중양」 시 뒤에 이

34) 예컨대, 「어록」(語錄)에 나오는 “但此則論其大體，若令庶人受衰無減於天子”라는 구절이 연대본과 국중본에는 똑같이 모두 “但此則論其大體，若令庶人受衰無減無減於天下”로 되어 있는 반면, 김귀년본과 장서각본에는 모두 “但此則論其大體，若令庶人受衰無減於天子”로 되어 있다. 이처럼 연대본과 국중본에만 있는 필사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연대본과 국중본은 같은 모본을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저야 한다”(此以下二首當屬「重陽」)라는 소주가 있다.<sup>35)</sup> 이는 「낙송루에서 이별할 때 상경에게 주다」, 「의청상인에게 주다」(贈義淸上人), 「족인들과 함께 수계할 때 옥류동 술자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다」(同宗修契時, 口占玉流洞席上) 세 수가 「설달 그믐밤의 감회제2수」 시가 아닌 「중양절 다음 날에 족인의 모임에 참석하러 서울로 가는 길에 읊다」(重陽後日赴族會, 入京道中所詠) 뒤에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세 가지 이본에는 모두 이 소주대로 시 배열이 수정되어 있으며, 「낙송루에서 이별할 때 상경에게 주다」의 제목도 「낙송루에서 이별할 때 이상경(성좌)에게 주다」(洛誦樓贈李尙卿聖佐)로 더욱 자세하다.

그리고 다른 이본과 달리 장서각본 제13책에는 「태극문답」(太極問答)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만록」(漫錄) 뒤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sup>36)</sup> 이렇게 편집된 까닭은 「만록」까지는 모두 김창흡이 친히 지은 글인 반면 「태극문답」부터는 문인을 통해 정리된 것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이본들의 작품 수록 순서는 「『漫錄』, 「太極問答』, 「語錄』, 부록에 해당하는 「遺事』, 「行狀』, 「疏章』」이다. 『『삼연전집』 해제』에서는 “拾遺三十二卷은 玄孫 右議政 達淳이 裒輯한 것이니 「太極問答」 「語錄」 및 「遺事」 「行狀」 「疏章」을 附錄으로 하였으나 아직 出刊하지 못하였다”라고 했다.<sup>37)</sup>

이상 작품 수록 순서의 차이로 볼 때 장서각본이 다른 이본보다 앞서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서각본은 정고본 이전 단계의 필사본인 듯하다.

앞서 밝혔듯이 정고본인 김귀년본은 김달순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김달순은 『습유』 간행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정리했는데, 1806년 시파와 벽파의 갈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따라서 김귀년본은 1806년 이전까지 필사된 것으로 짐작된다.<sup>38)</sup> 『습유』는 그 이전까지 가장되어 공개되지 않

35) 이 정보를 알려주신 김진영 동학계 감사드린다.

36) 이는 장서각본 제13책 표지에 적혀 있는 ‘漫錄附太極問答’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7) 金彰顯, 『『三淵全集』解題』, 『三淵全集』(乾), 서울: 光成文化社, 1976, 1면 참조.

38) 『『삼연집』 해제』에서는 습유 권32의 「請享石室書院書」 제하(題下) 소주의

왔기 때문에 조선 문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고본이 나온 뒤에 장동김문과 관계가 있는 노론 가문 사이에 많이 전해지고 필사된 듯하다. 이는 한운성(韓運聖, 1802~1863)이 1839년 11월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아들 홍일순(洪一純, 1804~1856)에게 보낸 편지,<sup>39)</sup> 1855년 1월 서찬규(徐贊奎, 1825~1905)에게 답한 편지,<sup>40)</sup>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1837년 지은 『학강산필』(鶴崗散筆) 권1<sup>41)</sup> 등에서 확인된다.

요컨대, 『습유』의 네 가지 이본 가운데 장서각본은 정고본 이전 단계의 필사본인 듯하고, 김귀년본은 1806년 이전에 김달순에 의해 필사된 정고본이며, 연대본과 국중본은 같은 모본을 필사한 이본으로 필사 연도는 알 수 없으나 편차와 내용이 김귀년본과 동일하다. 정고본이 나온 뒤에 장동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론 가문 사이에 전해지고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습유』 권24에는 「백휴암서원(白休菴書院)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문을 의작하다」(擬白休菴書院請額疏)<sup>42)</sup>라는 글이 있다. 내용은 전라

‘批見年譜’라는 기록을 근거로 『연보』가 간행된 1854년경까지 30권본의 습유가 가장되어 있었고 그 뒤에 2권이 첨가된 32권본이 필사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듯하다. 만약 김귀년본이 1854년 이후에 필사된 것이라면, 책마다 1806년에 이미 죽은 김달순의 도장이 찍힐 수 없다. 그리고 『연보』 편찬 작업은 김달순-김매순 대에 이르러서 마무리되었으므로, 습유를 정리할 때 『연보』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경희, 「『삼연집』 해제」, 320면 참조.

39) 韓運聖, 「與洪憲文己亥十一月」, 『立軒集』 권4, 한국문집총간 속 124, 488면. “淵翁「太極」, 「語錄」, 嘗懇膾於令從氏矣. 或已斷手, 則并與宋閱書本覓付甚幸.”

40) 韓運聖, 「答徐景襄乙卯正月」, 『立軒集』 권9, 한국문집총간 속 124, 579면. “而崖寺歲暮, 霜霰交零, 夜闌僧眠, 孤坐讀書, 乃淵翁十趣之一.” ‘십취’는 『습유』 권24에 수록되어 있는 「예원십취」(藝園十趣)를 가리킨다. 한운성이 말한 내용은 바로 「예원십취」의 첫 번째 “崖寺歲暮, 風霰交山. 夜寒僧眠, 孤坐讀書”라는 부분이다.

41) 洪奭周, 『鶴崗散筆』 권1,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韓8-113). “淵翁此文見于『拾遺』, 亦未及刊布于世. 茲故特表而識之.”

42) 金昌翁, 「擬白休菴書院請額疏」,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21~122면.



도 남평(南平) 유생이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의 서원에 사액을 청한 것이다. 그런데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1에 내용이 똑같은 글이 실려 있는데, 「남평(南平) 백휴암서원(白休菴書院)의 사액을 청하는 상소문 유생을 대신하여 지었다」(南平白休菴書院請額疏代儒生作)<sup>43)</sup>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은 과연 누구에 의해 지어진 것일까?

우선 지은 시기부터 보자. 남평 백휴암서원의 사액 관련 기록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현종 8년(1667) 5월 11일 기사<sup>44)</sup>에 보이므로, 이 상소문은 1667년 5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봉산서원 기문」(蓬山書院記)에 나온 “송정 병오년 모월일에 ‘봉산’이라고 사액하셨다. 그때 송후(宋侯) 시걸(時杰: 1620~1697)이 현령이었으니, 고을 선비들과 함께 터를 살피고 고을의 동쪽에 옮겨 지었는데, 몇 개월 만에 완공했다. 마침내 다음 해 모월 모일에 편액(扁額)을 맞이하여 서원에 걸게 됐다”(崇禎丙午某月日賜額曰蓬山. 時宋侯時杰爲縣宰, 與縣士某某等相地移建于邑之東偏, 幾月而功訖. 遂以翌年月日, 迎額以揭)<sup>45)</sup>라는 기록에 의하면 사액의 시기는 1666년이고 남평에서 사액을 받은 시기는 1667년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상소문을 지은 시기는 1666년으로 좁힐 수 있다. 이 당시 김창흡은 겨우 14세였으므로, 김창흡이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지었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관련 기록을 보면 송시열이 백인걸이 제향된 서원의 사액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열은 당시 남평 현감이었던 송시걸의 증씨(仲氏)였으므로, 송시열이 애초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음이 짐작된다. 이에 대해 기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43) 宋時烈, 「南平白休菴書院請額疏代儒生作」, 『宋子大全』 권21, 한국문집총간 108, 489~490면.

44) 『承政院日記』 현종 8년 5월 11일 갑인 3/15 기사. “禮曹正郎李燾卒忠肅公白仁傑書院賜額致祭事, 南平地出去.”

45) 白東野 編, 宋時烈 지음, 「蓬山書院記」, 『休庵先生實記』 권4,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한古朝57-가655), 114면.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41에 같은 내용의 글이 ‘남평현봉산서원기’(南平縣蓬山書院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宋時烈, 「南平縣蓬山書院記」, 『宋子大全』 권141, 한국문집총간 113, 30~31면.

그 읍의 유생들이 내가 송 현감의 중씨로서 애초부터 그 일을 알고 있다고 여겨 나에게 기문을 써달라고 청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청액 상소문이 해섬(該贍)하고 상세하니, 내가 무엇을 더 보탬 수 있겠습니까?”<sup>46)</sup>

인용문을 통해 송시열이 송시걸의 형이었기 때문에 남평 유생을 대신하여 사액을 청하는 상소문을 지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송시열은 상소문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액을 받은 뒤에 서원의 중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sup>47)</sup> 서원 중건 뒤에 김수항에게 상량문을 부탁하기도 하였다.<sup>48)</sup> 이는 당시의 전라도 관찰사 홍처후(洪處厚, 1599~1673), 대제학 김수항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이외에 「봉산서원 기문」도 지었다.

백휴암서원의 사액 시기와 송시열의 여러 활동으로 보면 서원 사액 상소문을 지은 사람이 김창흡이 아닌 송시열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 글이 왜 『습유』에 수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글 외에도 의심스러운 글이 두 편 더 있다. 하나는 『습유』 권24에 수록되어 있는 「기몽」(記夢)이고,<sup>49)</sup> 하나는 『습유』 권22에 실려 있는 「문인에게 답하다」(答門人)이다.<sup>50)</sup> 먼저 「기몽」부터 살펴보자.

이 글은 『안동김씨문헌록』에는 김창흡의 맏아들 김양겸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sup>51)</sup> 그런데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글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문헌에 따라 기록이 다르므로 글을 인용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다.

46) 宋時烈, 위의 글, 114면. “其邑中章甫以余以宋侯之家仲, 從初與聞其事也, 來請文以爲記. 余謂: ‘諸君請額之疏, 該而詳矣, 余何贅焉?’”

47) 白東野 編, 宋時烈 지음, 「尤庵先生與湖南伯洪公處厚書」, 『休庵先生實記』 권4, 107~108면 참조.

48) 白東野 編, 宋時烈 지음, 「與大提學金公壽恒書」, 『休庵先生實記』 권4, 108~109면 참조. 편지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宋子大奎’이라 적혀 있지만 『송자대전』에는 이 글이 보이지 않는다.

49) 金昌翁, 「記夢」,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31~132면.

50) 金昌翁, 「答門人」, 『三淵集拾遺』 권22, 한국문집총간 167, 91면.

51) 金養謙, 「記夢」, 『遺文集』, 『安東金氏文獻錄』(地), 1077면 참조.

「문인에게 답하다」는 주희(朱熹, 1130~1200)가 사성지(謝成之, ?~?)에게 답한 편지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가)

諸詩固佳，但此等亦是枉費工夫，不切自己。莫論爲學，治己治人，有多少事在，如天文地理、禮樂制度、軍旅刑法，皆是着實有用事業，無非自己本分內事。古人六藝之教，所以游其心者，正在於此。其與空言以較工拙於篇牘之間者，其損益相萬矣。<sup>52)</sup>

(여러 편의 시들이 참 좋은데,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또한 공부만 헛되이 소비할 뿐, 적실하지 않다. 학문에는 치기치인(治己治人)을 막론하고 얼마간의 일이 있으니, 예를 들어 천문지리(天文地理)·예악제도(禮樂制度)·군려형법(軍旅刑法) 같은 것은 모두 착실(着實)하고 유용(有用)한 사업이고 자기의 본분(本分) 아닌 일이 하나도 없다. 고인(古人)이 육예(六藝)를 가르침으로써 마음을 노닐게 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빈말로 편독(篇牘) 기교의 능함과 서투름을 따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손익(損益)의 차이가 매우 크다.)

나)

諸詩亦佳，但此等亦是枉費工夫，不切自己底事。若論爲學治己治人，有多少事。至如天文地理、禮樂制度、軍旅刑法，皆是著實有用之事業，無非自己本分內事。古人六藝之教，所以游其心者，正在於此。其與玩意於空言，以較工拙於篇牘之間者，其損益相萬萬矣。<sup>53)</sup>

가)는 『습유』 권22에 수록되어 있는 김창흡의 편지글이고, 나)는 「사성지에게 답하다」(答謝成之)라는 주희의 편지글이다. 내용을 비교해보면 출입이 거의 없어 보인다. 김창흡이 주희의 글을 정독(精讀)하고 실사(實事) 관련 주장에 동의했다라도 남의 편지를 거의 그대로 베껴 썼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듯하다. 그런데 이 글이 왜 『습유』에 수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52) 金昌翁, 「答門人」, 『三淵集拾遺』 권22, 한국문집총간 167, 91면.

53) 朱熹, 「答謝成之」, 『晦庵集』 권58, 四部叢刊景明嘉靖本. 중국기본고적고(中國基本古籍庫)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인용. 이하 동일.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 이외에 『습유』에 달려 있는 소주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주에는 인적사항 오류나 연도 오류 등이 종종 보인다. 인적사항 오류를 보면 이백상(李伯祥: 백상은 이징명李徵明의 자)을 ‘李徵夏’로 잘못 쓰거나,<sup>54)</sup> 담화자(湛華子) 이운(李漚)을 ‘李濡’로 잘못 쓴 것<sup>55)</sup>이 있고, 연도 오류를 보면 1710년 양택지(梁擇之, 1650~1711)에게 보낸 편지의 작성 연도를 1717년인 ‘丁酉’로 잘못 쓰거나<sup>56)</sup> 1711년 양진태(梁晉泰, 1649~1714)에게 보낸 편지의 작성 연도를 1691년인 ‘辛未’로 잘못 쓴 것<sup>57)</sup>이 있다.

요컨대, 『습유』는 거의 한 세기 뒤에 후손에 의해 정리된 문집이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습유』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면서, 『습유』에 오류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각주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 
- 54) 金昌翁, 「十二日黃昏, 忠原守李伯祥徵夏率其弟季祥及甥姪沈李四昆季, 同舟而來, 童子德壽亦從焉. 將游丹丘也. 未到北津, 笛聲自暝烟中飄來, 我兄弟亦於樓上吹笛而應之. 至而明燭列坐, 恍然若夢會清都」, 『三淵集拾遺』 권3, 한국문집총간 166, 246면. 백상(伯祥)은 이징명(李徵明)의 자이고 계상(季祥)은 이징하(李徵夏)의 자이다. ‘■’ 표시는 해당 위치에 내용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 55) 金昌翁, 「次湛華子別詩李濡」, 『三淵集拾遺』 권7, 한국문집총간 166, 350면. 이운의 자는 성원(聖源)이고 호는 담화이다. ‘담화헌’(湛華軒)이 이운의 집이었다. 장동김씨 육창 형제, 신정하(申靖夏) 등과 긴밀히 교류하였다. 장동김씨 육창 형제가 그의 집에 찾아가 창화(唱和)를 한 것을 보면 장동김씨 집안과 인척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56) 金昌翁, 「答梁汝精擇之○丁酉」,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47면. 여정(汝精)은 양택지의 자이다. 편지에 나온 김창업의 딸, 즉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의 부인(1681~1710)을 곡한다는 내용과 양택지의 생몰년을 종합하면 1710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 권수용의 연구에서 양택지의 생몰년과 양택지 아들의 사망 연도에 근거하여 이를 밝힌 바 있다. 권수용 저,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9, 128면 참조.
- 57) 金昌翁, 「答梁來叔辛未」,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46면. ‘내숙’(來叔)은 양진태의 자이다. 신묘년(1711)은 신미년(1691)의 잘못인 듯하다. 권수용 저, 위의 책, 130면 참조.

### 3. 김창흡의 삶과 정치적 행보

지금까지 『삼연집』 원집과 습유에 관한 서지적 검토를 하였다. 이상의 예비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이번 장에서는 정치사적 맥락의 첫 층위인 ‘정치사적 배경’ 내지 ‘당쟁사적 배경’의 맥락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에 대해 탐구한다. 가문적 정체성에 충실했던 김창흡의 생애와 인적 네트워크를 정치적 행보와 연관 지어 본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먼저 김창흡의 생애부터 살펴보겠다.

#### 1) 생애

김창흡은 어릴 적에 백씨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중씨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함께 동몽교관 조봉원(趙逢源, 1608~1691)에게 수학했다.<sup>1)</sup> 1665년에는 족질 김시걸(金時傑, 1653~1701) 등과 함께 동몽교관 김익량(金翼亮, 1622~1674)에게 수학하였으며,<sup>2)</sup> 1667년부터는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 1628~1669)에게 『주역』(周易)을 수학하였다.

1) 金昌翁, 「同知中樞府事趙公墓碣銘并序」,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58면. “昌翁幼從兩兄後, 嘗一趨隅而仰德宇矣. 尙記其據几大坐, 櫛楚肅諸生, 凜乎霜雪逼背. 既長, 而見兩兄所誦慕終始不怠, 及先生捐館, 制服而哭又甚哀.” 『삼연집습유』 권26에 실려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제문」(祭某人文)에서의 ‘모인’(某人)은 내용상 조봉원을 가리키는 듯하다.

2) 『연보』에는 “就學于童蒙教官金公時亮”으로 되어 있지만, 『난곡선생연보』(蘭谷先生年譜)에는 “與族叔三淵諸公受業于童蒙教官金公時亮(一云翼亮)”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 현종 6년(1665) 12월 26일 기사에 김익량에게 동몽교관을 제수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익량은 구 안동김씨이고 청음 김상현의 문인이다.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이 나중에 김익량의 「묘갈명」을 지어줬는데, 이는 파주에 있는 김익량 묘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 39-1)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자료를 볼 때 『연보』에 나온 ‘김공’의 이름은 ‘익량’이 맞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익량’으로 고치기로 한다. 金世均 편, ‘乙巳年’ 조목, 『蘭谷先生年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 기호: 奎7745) 참조.

김창흡은 평생토록 이단상의 문인(門人)으로 자처했지만 송시열의 문인으로 자처하지는 않았고, 송시열과 사제 관계를 맺지도 않았다. 그리고 1676년부터 졸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 1638~1689)와 “아양계”(峨洋契)를 맺어 오랫동안 시도(詩道)와 학문을 토론했지만, 문인이 아닌 “문객”(門客)으로만 자칭했다.<sup>3)</sup> 선행연구에서는 김창흡이 송시열의 문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송시열이 학문적으로 김창흡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4)</sup> 두 사람은 학문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입장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sup>5)</sup> 조성기와도 지기의 우정을 맺었지만 역시 그를 스승으로 모시지는 않았다. 김창흡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먼저 밝혀둔다.

선행연구에서는 김창흡의 생애를 전기적 형식으로 12단계로 나누거나,<sup>6)</sup> 정치적, 학문적 변천에 따라 기사환국 이전(1653~1689), 기사환국 이후의 정치 활동기(1689~1708), 호락논쟁기(1708~1722)로 나누었다.<sup>7)</sup> 이런 분류는 어떤 분야에 한정하여 김창흡의 행적과 삶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장동김문의 정체성에 충실한 김창흡의 ‘노론’의 당파성

3) 이는 1694년 12월 하순에 조성기에게 지어준 「추만」(追挽)에 보인다. 金昌翁, 「追挽」, 『附錄』, 『拙修齋集』 권12, 한국문집총간 147, 369면. “甲戌臘月下浣, 門客安東 金昌翁追挽.”

4)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김창흡을 송시열의 문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김창흡이 1680년 <우암선생지칠십사세진> (尤庵先生之七十四歲眞)에 지은 찬문에는 ‘후학’(後學)이라고 직접 밝혔다. 이는 그림의 같은 위치에서 ‘문인’(門人)이라고 밝힌 권상하와 구분된다. 김창흡은 자기 자신이 송시열에게 수업을 받아 사제간이 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 김창흡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 연장선에서 보면 김창흡을 송시열의 문인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편, 『송준길·송시열』, 서울: 예술의전당, 2007년, 18~19면; 金昌協, 「與愼無逸癸未」, 『農巖集』 권20, 한국문집총간 162, 121면. “尤翁, 吾所尊也. 雖未嘗受業爲師弟子, 而出入門下數十年, 情義篤矣.” 참조.

5) 이에 대해서는 이경구, 조성산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그들의 연구성과를 따른다. 이경구, 「김창흡의 학풍과 호락논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경세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파주: 지식산업사, 2007.

6) 이승수, 『삼연 김창흡 연구』,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8, 43~364면 참조.

7) 이경구, 앞의 글, 16~19면 참조.

을 간과한 것이 아닐까 한다. ‘노론’의 당파성은 김창흡에게 ‘부여된 것’ 내지 ‘조건지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창흡의 삶을 이해할 때 장동김문의 정치적 부침과 이에 대한 김창흡의 대응 전략을 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은자, 학자, 정치가로서의 김창흡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은거지, 학문적 흐름,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김창흡의 일생을 크게 모색기(1674~1689), 칩거기(1689~1705), 설악산 은거기(1705~1714), 곡운(谷雲) 노년기(1715~1722)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모색기(1674~1689)

청년 시절을 모색기로 명명한 것은 여러 방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김창흡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러한 탐색도 숙종대 초기 장동김문의 정치적 부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에 김창흡은 개방적인 자세로 문학, 학문, 사상을 탐구하였다. 문학적으로는 갑자년(1674)에 시도(詩道)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하였고, 조성기와 시도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sup>8)</sup> 사상적으로는 도가에 빠져 수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이 생겨 공부하기도 하였다.

모색기의 행적을 보면 김창흡이 부친 김수항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은거지를 바꿨다는 특징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김창흡의 모색기는 김창흡의 거처와 부친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영암(靈巖) 왕복기(1675~1678), 철원(鐵原) 삼부연(三釜淵) 은거기(1679~1680), 낙송루 시사(洛誦樓詩社)기(1681~1686),<sup>9)</sup> 저자도(楮子島) 현성(玄城) 정거기(1687~

8) 시도 논쟁에 대해서는 이종호, 「삼연 김창흡 연구(기일)-동악·오산시에 대한 졸수재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9·10집, 한국한문학회, 1987, 147~225면; 정무룡, 「17세기 후반 경화사인간의 문학론 공방의 한양상-김창흡과 조성기의 왕복서한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13집, 동양한문학회, 139~174면 참조.

9) 『연보』에 의하면 낙송루는 1682년에 지어졌다. 그런데 김양행(金亮行, 1715~1779)이 지은 「행장」에는 낙송루를 지은 시기가 신유년(1681)으로 되어

1689)로 나눌 수 있다. 시기별로 행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승 이단상이 죽은 뒤에 김창흡은 외삼촌 나석좌(羅碩佐, 1652~1698)와 함께 『장자』(莊子)를 읽고서 도가 양생술에 빠지게 되고 도가서를 따라 몇 년 동안 수련하였다.<sup>10)</sup> 갑인년(1674)부터는 ‘문자’(文字)에 뜻을 두었다.<sup>11)</sup> 따라서 영암 왕복기에 김창흡이 한 일은 『장자』를 비롯한 도가 책 탐독 및 도가 양생술 수련,<sup>12)</sup> ‘문자’ 공부, 영암 방문 등 세 가지였다.

김창흡이 외가서(外家書) 가운데 가장 애독한 책은 바로 『장자』이다.<sup>13)</sup> 이는 영암 왕복기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각 시기마다 김창흡은 여러 시에서 『장자』를 애독하는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장자』 탐독을 통해 『장자』에서의 ‘소유’(逍遊) 정신, 작문법을 얻게 되었다.<sup>14)</sup>

---

있다. 김창흡이 신유년(1681)에 지은 「동쪽 성곽으로 가는 흥동자를 전송하다」(送洪童子之郭東), 같은 시기에 김창립이 지은 「동쪽 성곽으로 가는 벗을 전송하다」(送友之東郭), 홍중성(洪重聖)의 『운와집』(芸窩集)에 수록된 첫 번째 시인 「낙송루의 여러 벗과 이별하다」(叙別洛誦樓諸友)를 종합하여 보면 낙송루는 1681년경에 지은 것이 맞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낙송루시 사기를 1681년부터 1686년까지로 설정하기로 한다. 金昌翁, 「送洪童子之郭東」, 『三淵集拾遺』 권1, 한국문집총간 166, 212면; 金昌立, 「送友之東郭」, 『澤齋遺唾』, 한국문집총간 속 56, 82면; 洪重聖, 「敘別洛誦樓諸友」, 『芸窩集』 권1, 한국문집총간 속 57, 7면 참조.

10) 金昌翁, 「祭季舅羅教官文」, 『三淵集拾遺』 권26, 한국문집총간 167, 157면. “旣失靜觀, 散而自賢, 則惟荒唐謬悠之門, 宏闊勝大之海, 汎濫出入之與同. 又聞有喬松度世之說, 欣然慕焉. 便謂仰青天靚白日爲不遠, 遂相與搜討冥筮, 效其所謂熊經鳥伸吐故納新之法, 晝夜窮忙, 從事乎斯盖有年.” ‘熊經鳥伸吐故納新之法’이라는 말은 『장자』 「각의」(刻意)에 나온 ‘吹呬呼吸, 吐故納新, 熊經鳥申, 爲壽而已矣’라는 내용을 가리키는 듯하다.

11) 金昌翁, 「上仲氏丁巳」,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1면. “弟自甲寅, 有志于文字, 到今回思, 則四歲所獲, 只一揣摩耳.”

12) 김창흡의 『장자』 수용과 공부에 대해서는 이승수, 「조선조 지식인의 장자 수용과 본격의식- 삼연 김창흡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5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1 참조.

13) 李沆, 「遺事」, 『安東金氏文獻錄』(地), 846면. “於外家書最好看莊子, 獨得其髓.” 물론 김창흡이 『장자』를 애독한 것은 조선중기의 『장자』 수용 양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세현, 「조선중기 한문산문에서 『장자』 수용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5집, 한국한문학회, 2010, 437~471면 참조.

14) 구체적인 내용은 이승수, 앞의 글, 319~331면 참조.



도가 양생술 수련에 관한 이야기는 김창흡의 글 이외에 김수항 영암 유배기에 김시걸이 영암 월출산(月出山)에서 김창흡에게 지어준 「월출산에서 보광자를 송별하다」(月出山歌別葆光子)에서도 확인된다.<sup>15)</sup> 김창흡은 『참동계』(參同契)를 탐독하기도 하였다. 김창흡은 자신이 『참동계』를 애독하고 공부에 힘을 쓴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데,<sup>16)</sup> 1717년 봄 보개산 강학 때 제자들에게 “일찍이 내가 『참동계』에 힘써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 유자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기도 하였고,<sup>17)</sup> 경자년(1720) 「일록」(日錄)에서는 초연수(焦延壽)의 괘기법(卦氣法)<sup>18)</sup>이 『참동계』에 드러난 역의 구성 체계와 비슷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sup>19)</sup>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중씨 김창협에게 『참동계』를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기도 했다.

지금 또 회계(會稽)의 단서(丹書)를 가지고 무너진 마음을 구하는 묘함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에게 전심(專心)하라 권하는 방법은

- 
- 15) 金時傑, 「月出山歌別葆光子」, 『蘭谷集』 권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승계古3648-10-243), 32면, “月出山乃在南海, 南海出丹砂, 服丹砂延壽千年. 念君志意在蓬萊上天之門, 今行去可得神仙. 我欲從君離室宅, 駝乘風雲, 覽翱遊八極.” 김시걸도 도가 양생술에 관심이 많고 도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다. 이는 김창흡이 김시걸에게 지은 만시와 김시걸의 「세제」(歲除)에 보인다. 金昌翁, 「土興挽」, 한국문집총간 165, 154면. “黃庭陰符參同契, 朱鷺上陵思悲翁.”; 金時傑, 「歲除」, 『蘭谷集』 권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02면. “平生少年志, 飄飄凌九陽. 被葛懷琬琰, 鍊道要長生. 長生未易期, 皓首多悲傷.”
- 16) 물론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서울·경기 지역 서인 학계에서 『참동계』가 차지한 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조성산, 앞의 글, 16~22면 참조.
- 17) 金昌翁, 「語錄」, 『三淵集拾遺』 권31, 한국문집총간 167, 284면. “又曰: ‘嘗於『參同契』下工, 此亦儒者之所不可不知也.’”
- 18) 초연수는 초공(焦贛)을 가리킨다. 연수는 그의 자이다. 중국 서한(西漢) 때의 역학자(易學家)이다. 맹희(孟喜)에게 『주역』을 배워 경방(京房)을 가르치고, 『초씨역림』(焦氏易林)을 지었다. 괘기설은 64괘를 사시, 월령, 기후 등에 배합시키는 방법이다. 맹희가 제기한 설로, 초공을 거쳐 경방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다.
- 19) 金昌翁, 「日錄」, 『三淵集』 권34, 한국문집총간 166, 144면. “焦延壽卦氣法, 就六十四卦, 取乾至坤十二爲辟, 餘四十八卦, 爲公侯卿大夫, 除出坎離震兌二十四爻, 直日時. 其法與『參同契』除乾坤坎離四卦, 而以六十卦準三十日, 一爻直一時, 頗似.”

정밀하고 깔끔하니 다른 소술(小術)과 잡기(雜技)에 비견할 바 아닙니다.  
저에게 또한 하나의 스승입니다.<sup>20)</sup>

위 인용문은 현성 시절에 증씨 김창협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sup>21)</sup>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다듬어 기(氣)를 기르는 고민을 토로하였다. 처음에 김창흡은 진덕수(眞德秀)의 『심경』(心經)<sup>22)</sup>을 읽고서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이 정좌(靜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배워 시도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다.<sup>23)</sup> 이에 김창흡은 다시 회계(會稽) 단서(丹書)를 읽고 사람의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회계 단서는 바로 위백양(魏伯陽)의 『참동계』를 가리킨다.<sup>24)</sup> 마침내 김창흡은 『참동계』에서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sup>25)</sup> 이 방법에

20) 金昌翁, 「上仲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3면. “今又就會稽丹書, 以請救頽之妙. 其勸人專心之法, 精微潔淨, 非他小術襍技之比, 亦一吾師已矣.”

21) 편지의 앞부분에 ‘평강’(平江)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강은 사평강(沙平江)을 줄인 말로 한강을 가리킨다. 근처에 바로 저자도가 있었다. 평강에 있었을 때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의 『심경』(心經)을 얻어 두 번 읽었다는 말로 볼 때, 당시에 김창흡이 현성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金昌翁, 「上仲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3면. “故在平江時探得『心經』, 喜其有搔癢處, 草覽二遍. 求其下工之要, 終在於靜坐. 遂學而試之於間間.”

22) 『심경』은 바른 마음을 주제로 하는 유교 서적이다. 진덕수가 마음에 대해 논한 성현들의 격언을 모으고 또 정요로운 성현들의 의논을 채집하여 주석을 달았다. 그런데 김창흡에 의하면 이 책은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데 소용이 별로 없었던 듯하다.

23) 金昌翁, 「上仲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3면. “因畧認陰陽之非二物, 養察之通一法. 稍欲即事而鍊心, 以求其止. 其所止終是客慮老健, 常心稀少. 靜坐之功, 未免作輟. 頽然一放則依舊荒亂人也. 以其無急著新效, 易生不快.”

24) 『신선전』(神仙傳)에 의하면 위백양은 회계 상우(上虞) 사람이다. 단서는 도가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회계 단서는 위백양의 『참동계』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25) 『참동계』의 ‘관건삼보장’(關鍵三寶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청나라 구조오(仇兆鰲)의 주에 의하면 온양(溫養)하는 공부(工夫)는 마음을 전일하게 해서 기를 모으는 데 있다. 김창흡은 마음을 안정시켜 기를 기르는 고민에 대해 편지 서두에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참동계』의 해당 원문은 “證驗自推移, 心專不縱橫. 寢寐神相抱, 覺悟候存亡. 顏容浸以潤, 骨節益堅強. 排卻眾陰邪, 然後立正陽”이고, 해당 주석은 “補註:

대해 정미하며 깔끔하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참동계』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김창흡에게 『참동계』는 단지 도가 양생수련을 위한 책이 아니라 『주역』의 원리와 마음과 기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도가 서적이다.<sup>26)</sup> 이것이 아마 김창흡이 만년에 이르러서도 제자들에게 『참동계』를 강조한 이유였을 것이다.

김창흡의 문자 공부는 갑인년(1674)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전의 공부가 과거 급제를 위한 과거 공부였다면 1674년부터 시작된 공부는 ‘위기’(爲己)의 공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원래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던 김창흡의 타고난 성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겠지만, 갑인예송(甲寅禮訟)으로 서인 세력이 대거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하던 정치적 흐름<sup>27)</sup>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이 시기에 김창흡은 자주 형 김창협, 족질(族姪) 김시걸·김시보 형제 등과 함께 한남(漢南)의 능허정(凌虛亭)에서 공부하였다.<sup>28)</sup> 졸수재 조성기와의 시도 논쟁도 1676년에 벌어졌다. 특히 1677년 봄 김창흡은 영암에 있던 김창협<sup>29)</sup>에게 편지를 보내 학문의 자세와 문자 공부의 방향을 말한 바 있었는데, 이는 졸수재의 권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저는 갑인년(1674)부터 문자에 뜻을 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네 해 동안 얻은 바는 다만 일개의 체마(揣摩)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른 살이 넘어도 끝내 이와 같을 뿐일 것이니, 어찌 슬프지

---

此言溫養工夫，在心專而氣聚，即經文所云”이다. 魏伯陽 撰，仇兆鰲 集註，『古本周易參同契集註』，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9，308면 참조.

26) 조성산의 연구에서는 김창흡이 단학(丹學)에 심취했기 때문에 『참동계』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단학은 김창흡이 『참동계』를 탐독한 이유 중 하나일 뿐이다. 조성산, 앞의 글, 21~22면 참조.

27) 갑인예송에 대해서는 양선비, 「17세기 중후반 禮訟의 전개와 政治地形의 변화-禮訟의 政治史的 과정과 國王-朋黨 力學關係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9~44면 참조.

28) 金時傑, 「丁巳徂暑下旬，講學于凌虛亭，既罷順水而下. 農巖仲季凡六人同舟」, 『蘭谷集』 권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49면; 「戊午夏，與農淵諸公會講于漢南凌虛亭」, 『蘭谷集』 권1, 26면.

29) 이승수, 앞의 책, 74면 각주 30번 참조.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이 대용력(大勇力)을 발휘하여 한 마디 말 한 번의 대화에서부터 외화(外華)를 떨쳐내고 내실(內實)로 나아가지 않음이 없어서, 터무니없고 긴요하지 않은 말은 입밖에 내지 않기로 합시다. 만약 한 가지 일을 궁구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정신을 모아 서로 잘못을 바로 잡아 주고 빠진 것을 채워주면서, 제가 말단을 다스리면 형은 근본을 치고, 형이 밖을 다스리면 저는 안을 공략합시다. (...) 이와 같이 성숙해지면 굳이 주관을 두거나 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침식하고 응접하는 사이가 독서 아닌 것이 없을 터이니, 어찌 출입을 근심하겠으며, 어찌 산방(山房)에 연연하겠습니까?<sup>30)</sup>

이외에 형제들과 번갈아 영암에 가서 부친을 찾아뵙기도 하였다. 월출산(月出山)을 비롯한 영암 주변을 유람하기도 하였고, 현징(玄徵)·현약호(玄若昊) 부자, 박태초(朴泰初)·박필헌(朴弼憲) 부자, 원관(遠觀) 김극광(金克光) 등을 비롯한 지방 문인(文人)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1678년 9월에 김수항이 철원으로 양이(量移: 멀리 유배된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김)됨에 따라 김창흡의 영암 왕복기는 일단락 되었다. 겨울에는 철원 보개산(寶蓋山) 대승암(大乘庵)에 머물렀고, 1679년 2월에 석천 계곡(石泉溪谷)을 유람하고, 3월에 두 번째 금강산 유람을 했다.<sup>31)</sup> 철원 삼부연 은거는 1679년 7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철원 삼부연 은거기를 보면, 김창흡이 1679년 7월에 철원 용화산 삼부연에 복거(卜居)하여 은거하기 시작한 뒤, 같은 해 8월에 부친 김수항이 백운산에 송노암(送老庵)을 지었고,<sup>32)</sup> 중씨 김창협은 백운산 응암(鷹

30) 金昌翁, 「上仲氏丁巳」,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1면. “弟自甲寅, 有志于文字. 到今回思, 則四歲所獲, 只一揣摩耳. 依此模樣, 雖過三十, 終亦如斯而已矣. 豈不悲哉? 繼自今我二人, 發大勇力, 自一話一言, 罔不落華就實, 無稽不要之言, 約不出口. 若究一事, 則必聚精合神, 糾繆補漏. 弟理其末而兄批其本, 兄畧其外而弟攻其內. (...) 如此成熟, 則不待置筭啓筭, 而寢食應接之間, 無非讀書. 何患乎出入? 何戀乎山房乎?” 인용문의 번역은 이승수, 앞의 책, 79~80면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했다.

31) 안동김씨 편, 『三淵先生年譜』, 『韓國人物史料叢書』 권10, 서울: 민족문화사, 1987, 17면 참조.

32) 金壽恒, 「送老菴上梁文」, 『文谷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33, 487~488면.

巖)에 집을 지어 정거하기 시작하였다. 백부 김수증은 일찍이 춘천 백운에, 중부 김수홍은 1679년 가평에 가릉 초당(嘉陵草堂)을 지어 은거하였다.<sup>33)</sup>

이처럼 1679년에 장동김씨 구성원들이 서로 멀지 않은 곡운, 가평, 백운산, 철원 사이에 각자 은거지를 마련했다. 서로간의 거리가 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산도 다른 구역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어서 한 집안이 가까이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다.<sup>34)</sup> 따라서 김창흡의 삼부연 은거는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장동김문 가문과 함께한 선택이었다.

삼부연 은거기에 김창흡이 주로 했던 것은 『역학계몽』(易學啟蒙) 공부, 벗과의 강학, 석천 계곡 유람 등이다. 김창흡은 1679년 겨울에 『역학계몽』을 처음으로 읽었고,<sup>35)</sup> 삼부연에서 『주역』 공부를 십 년 기약했다.<sup>36)</sup> 이는 김창흡이 역학(易學)을 공부하는 첫걸음이었다. 1710년경에는 「후천도설」(後天圖說)을 지었고,<sup>37)</sup> 1717년 1월 17일 보개산 영은암(靈隱庵) 강학 때 문인들에게 「후천도설」을 보여주면서 글의 마지막에 후천도에 대한 자기의 공부 과정을 설명하였다.<sup>38)</sup>

33) 장동김씨 은거지의 별서에 관한 연구는 김세호, 「17-18세기 장동김씨 청음파의 원림 문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71~83면 참조.

34) 金壽恒, 「伯氏既棲遯壽春之谷雲, 而仲氏方營菟裘於嘉陵江上. 余之小築在洞陰白雲山下, 翁兒又結廬東州之太華山. 自太華至白雲三十里, 自白雲至谷雲四十餘里, 自谷雲至嘉陵亦不滿百里. 四處相去雖遠近差殊, 其間各限以一帶山, 山本一脈, 非異區也. 一家所依歸, 皆密邇如此, 可謂幸矣. 聊賦一律以識之, 仍呈伯氏仲氏, 且示兒輩」, 『文谷集』 권5, 한국문집총간 133, 103면.

35) 金昌翁, 「後天圖說」, 『三淵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65, 521면. “記昔己未冬, 余在三淵之上, 始讀『啟蒙』. 略費旬月工夫, 既無師授, 全然鹵莽.”

36) 金昌翁, 「更次村字韻呈仲氏」, 『三淵集拾遺』 권1, 한국문집총간 166, 209면. “携取義文易, 歸哉谷口村. 遐情豈丘壑, 冥觀在乾坤. 擁雪冬爐冷, 懸燈夜氣存. 十年淵上卧, 思浥百泉源.”

37) 金昌翁, 「日錄庚子」, 『三淵集』 권34, 한국문집총간 166, 150면. “自先天而爲後天, 其換易方位, 自朱子以爲未詳, 竊悶悶也. 十年前偶得覩破, 作爲一說, 頗似簡易, 以爲獨得也. 在寶蓋講『啟蒙』時, 出示誠仲輩矣.”

38) 金純行, 「寶蓋日錄」, 『摯翁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2480, 331면. “十七日, 受文王八卦. 先生作後天卦小說, 示諸生.” 따라서 김창흡의 「후천도설」은 두 번에 걸쳐 완성된 것이다. “後天之圖~不呵其杜撰乎否” 부분은 1710년경에 지은 것이고, “記昔己未冬~一笑” 부분은 1717년 1월 17일에 지은 것이다.

1680년 봄에는 벗이자 족질인 김시걸과 강학했다.<sup>39)</sup> 부친 김수항이 1680년 3월 29일 해배된 뒤 아우 김창즙과 함께 석천사(石泉寺)를 유람했고, 기쁜 마음으로 「석천 계곡 기문」(石泉谷記)<sup>40)</sup>을 지었다. 이는 김창흡이 찾아간 곳마다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고 품제(品題)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680년 12월 여동생이 죽음에 따라 삼부연의 은거 생활은 일단락되었다.

김창흡은 여동생을 잃어 슬퍼하는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1681년 봄에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기사환국 전까지 삼부연을 왕래했지만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1681년 낙송루를 지어 벗과 문인과 한자리에 모여 고시를 강학하면서 시도를 진작(振作)하려 했는데, 이를 낙송루 시사라 한다.

낙송루시사의 인물들을 보면 김창흡의 벗인 묘헌(妙軒) 이규명(李圭明, 1653~1686), 오재(寤齋) 조정만(趙正萬, 1656~1739), 족질 김시걸(金時傑, 1653~1701)·김시보(金時保, 1658~1734) 형제, 유하(柳下) 홍세태(洪世泰, 1653~1725) 등이 있고, 김창흡의 문인인 동생 김창립, 즉 손 김민행(金敏行, 1666~1720)·김신행(金愼行, 1670~1746) 형제, 안수이(安壽頤),<sup>41)</sup> 유명악(兪命岳, 1668~1718), 이몽상(李夢相, 1667~?), 홍구택(洪九澤, 1668~1693), 최동표(崔東標), 강천득(姜天得), 홍유인(洪有人, 1667~1694),<sup>42)</sup> 홍중성(洪重聖, 1668~1735), 정룡하(鄭龍河, 1671~1702) 등이 있다.<sup>43)</sup> 문인 가운데 최동표와 강천득은 여향인이고 나

39) 金時傑, 「春講東原」, 『蘭谷集』 권1, 27면.

40) 『포음연보』(圃陰年譜)에 의하면 부친 김수항이 1680년 3월 29일 해배된 뒤에 김창흡은 아우 김창즙과 함께 석천사를 유람했다. 金昌緝, 「年譜」, 『附錄』, 『圃陰集』, 한국문집총간 176, 474면. “三月, 文忠公蒙宥. 同叔氏遊石川寺.”

41) 안수이는 오아재(鰲齋) 강석규(姜錫圭, 1628~1695)의 사위이다.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아들은 안준(安僬, 1690~1743)이다.

42) 이상의 인물들은 중택재(重澤齋)에서 중유한 김창립의 벗이자 김창흡의 문인들이다. 이는 그들이 공동으로 쓴 김창립의 제문에서 확인된다. 안동김씨 편, 『安東金氏文獻錄』(地), 347~348면.

43) 낙송루 시사 구성원 관련 정보는 김형술, 「백악시단의 진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0~26면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본고는 시공간의 차원에서 낙송루 시사를 보기 때문에, 김창립과 이규명이 죽고 현성에 정거

머지는 다 김창흡과 척분관계를 맺은 경화세족 가문의 구성원들이다.<sup>44)</sup> 그들은 시회는 물론 유람도 같이 하였다. 1682년 봄의 송천(松川) 유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여정에 참석한 사람으로는 김창흡, 김시보, 이성좌(李聖佐), 김창립을 비롯한 중택재 구성원들, 김창협, 김창직(金昌直) 등이 있었다. 김창흡은 이 유람을 기약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여정이라 생각하였고, 이 유람에서 지은 시들을 모아 수창집(酬唱集)을 엮고 발문을 지었다.<sup>45)</sup> 이 발문은 즉흥(卽興)을 좋아하고 안배(安排)를 싫어하는 김창흡의 유람 자세와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1683년 12월 26일 김창립이 죽고, 1686년 이규명이 죽음에 따라 낙송루 시사는 몰락한 듯하다. 김창립은 김창흡에게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어받은 지기이자 문인이었다.<sup>46)</sup> 따라서 김창흡의 「김수재전」(金秀才傳)에 나오는 허술한 시학을 제대로 궁구하여 시도를 진작하자는 발언과 그 뜻은 김창립의 것이면서 김창흡의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그만큼 김창립은 김창흡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였다. 이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규명에게 쓴 만시인 「이서경 만시」(李瑞卿挽), 「이서경의 제문」(祭李瑞卿文), 「묘현유고 서문」(妙軒

---

한 시점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1682~1686년으로 보았다.

44) 이에 대해서는 경화 세족과의 교류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5) 金昌翁, 「春遊酬唱錄跋」,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16면. “往春卽山之遊, 余實倡之. 乃其登高, 而賦則抑士敬之勸爲多. 是以三日而酬唱成錄, 追而展之, 遊歷之詳具在. 其涉則自松川觀瀑以往, 聽雨於妙峰之寺, 瞰遠於萬丈之岡, 轉而過舞雩臺而觀止. 其偕則吾與士敬、尙卿之間, 季弟暨其屬數人輿至, 笛童一行琴者一, 實混以後先. 而及至舞雩則仲兄若季達, 逆而會之. 於是乎唱要壹富, 而遊事始暢. 勝美之輶, 蔑以求多. 雖然造適而獻笑者, 無意而才適爾. 若曰安排於期會, 則烏能若是?”

46) 金壽恒, 「亡兒行狀」, 『文谷集』 권22, 한국문집총간 133, 433면. “兒於第三兄昌翁, 委己師事, 愛慕特深, 昆弟間相爲知己. 昌翁別爲傳, 以記兒志行本末, 茲竝附納以備財擇.”

47) 김형술, 앞의 글, 25면 참조. 「김수재전」은 김창흡이 쓴 유일한 인물전이다. 원집이나 습유에는 다른 인물에 대한 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김수재전」의 존재는 특별하다. 게다가 「김수재전」은 김창립이 죽은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1684년 2월)에 바로 쓴 글로서, 김창흡이 이 글을 통해 어떤 식으로 동생과 ‘나’ 사이의 정과 뜻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김창흡의 입전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음미할 필요가 있다.

遺稟序)을 통해 알 수 있다.<sup>48)</sup>

현성은 기사환국 이전 김창흡의 마지막 은거지다. 부친 김수항이 이전부터 저자도에 은거할 뜻을 뒀기에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1687년 8월 여기에 현성을 짓고 정거(靜居)하기 시작하였다.<sup>49)</sup> 김창흡의 현성 정거는 이때의 정국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1687년 가을 정국은 장동김문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sup>50)</sup> 김수항이 엄지를 받고 상처하여 대죄하고 마침내 양주로 물러나고 김창흡이 대사성에서 청풍(淸風) 부사로 좌천된 것은 다 이 무렵이었다.<sup>51)</sup> 1690년에 김창흡은 저자도 현성 집을 고종사촌 이세백(李世白)에게 팔아버렸다.<sup>52)</sup>

현성 시절 김창흡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한 듯하다. 하나는 불전

---

48) 金昌翁, 「李瑞卿挽」, 『三淵集』 권3, 한국문집총간 165, 48면; 「妙軒遺稟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2~483면; 「祭李瑞卿文」, 『三淵集』 권31, 한국문집총간 166, 88~89면.

49) 金昌翁 찬, 「臨命日記」, 『安東金氏文獻錄』(地), 302면. “昌翁曰: ‘白雲泉石大人素所愛好, 而竟違歸老之計. 楮島江山亦自前留意者, 故子之作亭占取, 實承此意也. 方其經營拮據之際, 費了許多分付亦勤也. 曾不得一日奉遊, 而萬事至此. 今後更焉用彼亭哉? 將毀之矣.’” 아쉽게도 김수항은 현성에 한번도 오지 못한 채 사사되었다. 원래 김수항은 전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현성에 들를 계획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바로 진도에 유배되는 명을 받았다. 즉 김수항은 생전에 현성에 가 본 적이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저자도 관련 시를 분석하면서 김수항·김창흡 부자가 저자도에서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절을 추억했다고 보았지만, 사실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듯하다. 강혜선, 「조선후기 장동 김문의 부자간 수창시 연구」, 『돈암어문학』 35집, 돈암어문학회, 2019, 132~133면 참조.

50) 宋相琦, 「文谷遺事」, 『玉吾齋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71, 535면. “至丁卯秋, 先生始退, 則事無可爲. 而已年之禍, 兆於此矣.” 당시의 정국에 대해서는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51) 金昌協, 「上親庭丁卯」, 『農巖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61, 501면. “子之求外之計, 至今不得成, 情勢日益悶迫. 而前此不但無窠闕, 銓地又無出力人, 其勢固未易遂矣. 今則宋叔在銓地, 若可以周旋, 而富平又方見闕, 淸風似亦不久當遞, 此誠不可失之幾.”

52) 李世白, 「與金子益庚午」, 『雩沙集』 권10, 한국문집총간 146, 540면. “曾聞哀家江上新舍有放賣之意, 未知尚不賣否? 若得移構則雖其價直之卒難辦, 可以事省而功易就. 第欲觀勢圖之, 其價之幾許, 須酌量速示如何?” 1694년 김창흡이 지은 「저도」(楮島)에 나온 ‘이상서’(李尙書)는 이세백을 가리키는 말이다. 金昌翁, 「楮島」, 『三淵集拾遺』 권5, 한국문집총간 166, 281면. “成毀棟樑還咫尺, 風流分付李尙書.”



에 관심이 생겨 공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688년 봄 단구(丹丘)를 유람한 것이다. 먼저 불전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기존 연구에서는 김창흡이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항이 사사되는 사건을 계기로 슬픔에 빠져 불교에 몰두하고 의지했다고 보았다.<sup>53)</sup> 그러나 삼연 자신의 글이나 주변 인물의 글을 통해 김창흡이 저자도 현성 시절에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불전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쯤 김창흡이 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사대부 사이에 소문이 난 듯하다. 박세채(朴世采, 1631~1695)는 정제두(鄭齊斗, 1649~1736)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생(金生) 자익(子益)이 또 도가의 뜻에 빠져 전심(專心)하면서 정밀하게 술업을 연마했는데, 사람들이 혹은 선학(禪學)에 아울러 능통하다고 합니다. 근래 듣건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꽤 많다 하니, 대저 청고(淸高)함과 유락(遺落)함에 힘써 혹은 명산을 유람하고 혹은 고시를 숭상하여 언론과 행동거지가 대부분 상륜(常倫)과 같지 않습니다.<sup>54)</sup>

이 편지는 1687년 5월 12일에 보낸 것으로, 편지에 나온 김생 자익은 바로 김창흡이다. 위 인용문의 “혹은 선학에 아울러 능통하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편지에 의하면 김창흡은 이전부터 도가에 빠져

53) 선행연구에서는 1670년 겨울 강화도 적석사(積石寺) 독서, 1676년 6월 김시걸 형제와 함께한 삼각산(三角山) 중흥사(重興寺) 독서, 1678년 2월 농암과 함께한 삼각산 중흥사 독서, 같은 해 겨울 강원도 보개산(寶蓋山) 대승암(大乘庵) 독서 경험이 김창흡의 불서 탐독에 일조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절에서 독서한다는 것이 꼭 불전을 접해 공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 절에서 독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김창흡이 불전을 접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김창흡이 불전을 읽은 증거는 김창흡의 작품에서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창흡의 불전 공부를 입증하기 위해 김창흡의 글, 주변 인물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유진, 「삼연 김창흡의 철학적 시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6면 참조.

54) 朴世采, 「與鄭士仰」, 『南溪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39, 131~132면. “金生子益又耽道家之旨, 專心精治, 人或以爲兼通禪學. 近聞其徒頗衆, 大抵以淸高遺落爲務. 或游名山, 或尚古詩, 言論舉止, 多與常倫不同. 新學後生之稍有聰明者舉皆傾心, 猶恐不入其中. 若此不已, 幾何而不爲異端之倡也?”

술업을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선학에도 능통하다고 소문이 났던 듯하다. 같은 시기에 김창흡의 지기 조성기는 현성에 새로 정거한 김창흡에게 화답한 시에서 김창흡이 승려와 불전을 공부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강가의 새 집 살림살이 빈한하니	江上新居計活涼,
농가에서 농사나 지으려네.	擬從農舍返耕桑.
승려는 결사(結社)를 기약해 계송을 자주 남기는데	僧期結社頻留偈,
물새는 기심 잊은 데 익숙하여 배를 피하지 않네.	鷗熟忘機 <sup>55)</sup> 不避檣. <sup>56)</sup>

이 시는 김창흡이 현성에 은거하기 시작한 1687년 가을경에 조성기가 지은 것이다. “승려는 결사(結社)를 기약해 계송을 자주 남기는데”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려가 결사를 기약한 대상은 바로 저자도에 새로 정거한 김창흡이다. 이 시는 불전 공부로 승려와 왕래한 김창흡의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현성에 은거했을 때 김창흡은 불교 공부 관련 이야기들을 시로 많이 읊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현성만영」(玄城漫詠) 연작시이다.

1) 벗 부르면 나무꾼 어부가 뒤섞여 있고	喚友渾樵釣,
책 읽으면 노장 불서가 절반이라네	看書半老禪.
2) 끝내 백사(白社)로 돌아가	終當歸白社,
주인옹(主人翁)을 자주 부를 것이네.	頻喚主人翁. <sup>57)</sup>

위의 인용문은 1688년 가을에 지은 「현성만영」 연작시의 일부분이다. 1)은 제3수의 5·6구이고, 2)는 제5수의 7·8구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간서반노선”(看書半老禪), “빈환주인옹”(頻喚主人翁)이라는 시

55) ‘구로망기’(鷗鷺忘機)의 고사를 가리킨다. ‘망기’는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는 것을 말한다. 『열자』(列子) 「황제」(黃帝)에, “기심이 하나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갈매기가 수도 없이 날아와 함께 노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56) 趙聖期, 「和金子益」, 『拙修齋集』 권2, 한국문집총간 147, 193면.

57) 金昌翁, 「玄城漫詠」, 『三淵集』 권4, 한국문집총간 165, 78면.

어와 시구이다. ‘간서반노선’은 도가, 불전을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환주인옹’은 남송 승려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지은 『무문관』(無門關)에 실려 있는 ‘암환주인’(岩喚主人) 고사<sup>58)</sup>에서 나온 말로, 자기의 마음을 다듬는다는 것을 뜻한다.<sup>59)</sup>

이처럼 김창흡은 연작시에서 현성에 은거할 때 불전을 공부하며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토론했던 일을 담아내었다. 불전 관련 표현과 시구는 1688년에 지은 다른 시에서도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이때 동생 김창즙에게 편지를 보내 불전이 사람에게 준 깨달음과 가르침에 대해 토로한 바 있었다.

회옹(晦翁)의 서독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묘함이 마고의 긴 손톱으로 한번 긁으면 한번 시원해지는 것과 같으니, 이로 인하여 바른길로 즐겁게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밖의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석씨(釋氏) 대해 종고(大慧宗杲)의 무리로 말하면 그 말이 모두 마음으로 향하는 데 절실해서 구절마다 반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마음에 대주기를 마치 고질병이 걸려 음식이 당기지 않는 자가 어느 한 곳에 입을 대게 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끝내 망연히 적지(赤地)보다 나은 것이니,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sup>60)</sup>

위의 인용문은 김창흡이 1688년에 김창즙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회옹(晦翁: 朱熹)의 서독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가리킬 가능성이

58) 『無門關』의 ‘岩喚主人’ 조에 다음 내용이 보인다: “서암 사언(瑞岩師彦) 화상이 매일 스스로 ‘주인공’이라 부르고 스스로 ‘예’라 답하였다. 또 ‘또렷하게 깨어 있느냐?’라고 묻고, 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날에 사람에게 속지 마’라고 말하고, 또 ‘예, 예’라고 답하였다.”(瑞岩彦和尚每日自喚: “主人公”, 復自應諾。乃云: “惺惺著?” “諾!” “他時異日莫受人瞞。” “諾! 諾!”)

59) ‘주인옹’은 ‘주인공’과 같은 말로, 마음을 가리킨다. 자세한 해석은 연담 유일 지음, 조영미 옮김, 『석전유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74면 참조.

60) 金昌翁, 「答敬明戊辰」,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81면. “晦翁書牘, 其所啓人之妙, 想如麻姑長爪, 一爬一快. 因此而樂進乎正當門外, 固無禦也. 雖外此者, 如釋氏大慧之徒, 其言皆切於向裏, 句句有省發處. 苟可以接湊此心, 如舊疾不思食者之接口乎一處, 則終勝於茫然赤地矣. 未知然否?”

높으며,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이야기한 것은 『대혜어록』(大慧語錄)에 수록되어 있는 대혜의 말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재미 있는 점은 김창흡이 이 편지에서 주희 서독이 사람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주희와 동시대 사람인 불교 대사 대혜 종고가 이야기한 내용 역시 사람을 반성하게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마음의 수련에 도움이 있다면 설령 불전일 지라도 배워도 무방하다. 이 편지로 김창흡은 불전 공부에 대한 생각을 동생 김창즙에게 전달했다.

같은 해 겨울에 김창흡은 다시 김창즙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 안에서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절 개원사(開元寺), 천주사(天柱寺)를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sup>61)</sup> 그는 개원사에서 선정(禪定: 불교의 삼학 중의 하나로, 진정한 이치를 사유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하는 승려와 하룻밤을 지냈고, 천주사에서 백곡 처능(白谷處能, 1617~1680)의 유고(遺稿)를 읽고 처능의 고시를 높이 평가했다.<sup>62)</sup>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봉은사에서 외조카 홍유인(洪有人, 1667~1694)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자』 공부를 그만두고 불전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sup>63)</sup>

61) 金昌翁, 「答敬明」,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51~352면. 편지의 작성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편지에 서울에서 여러 사찰을 돌아다녔다는 사실과 남한산성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 1688년 겨울에 지은 「남한산성을 바라보는 곡」(望南漢曲), 「남한산성을 바라보다」(望南漢) 시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으로 짐작해보면 이 편지의 작성 연도는 1688년 겨울일 가능성이 높다.

62) 金昌翁, 「答敬明」,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51~352면. “俺自來屢易棲所, 城中諸寺, 大抵醜鬧. 此寺乃開元, 最與雞犬相接. 始望而嘖蹙也, 稍廻而若成一壑, 林樾陂塘隱約, 有中州道觀之致. 夏月處之, 當益佳矣. 有禪定僧一人過而留焉, 與之默處深房, 戶外兩履而已. 西將臺嘗一登望, 雪山滿目, 江漢縱橫. 雖使曹李輩臨之, 不得不竦劍悲歌, 蓋其地勢使然. 北俯三田碑, 東睨汗伊峰, 痛可言耶? 突起城外東北而名蜂峰者, 最爲城中所忌. 當時有一虜酋跳梁其上, 窺我動靜. 我軍善砲者, 一舉而使兩脚騰空, 獨此稍可追快. 循城而下, 山僧指而相語曰: ‘此李將軍殺賊處.’ 其地夷而不巖, 宜其僕緣之易也. 到天柱寺, 觀『處能遺稿』, 詩情甚豪. 其在古詩淋漓瀾翻處, 如錦袖舞風, 明珠走盤. 近體稍俗, 亦有自造語, 終是近世貫高, 未可輕評也.”

63) 金昌翁, 「奉恩寺月夜, 與仁甫夜話」, 『三淵集拾遺』 권4, 한국문집총간 166,

김창즙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를 통해 현성 시절 김창흡의 불전에 대한 관심 및 태도, 불전 공부를 하는 마음 및 실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창즙이 숙씨(叔氏) 김창흡이 불전에 빠져 공부한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된다.<sup>64)</sup>

현성 시절 김창흡에게 중요했던 다른 한 가지 일은 바로 1688년 봄의 단구(丹丘: 단양) 유람이다. 이 유람은 병이 나은 뒤에 계획해서 간 것이다. 단구 유람에 대한 김창흡의 기대와 기쁨은 김시걸 형제와 읊었던 시<sup>65)</sup>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단구일기」(丹丘日記)를 통해 청년 시절 의기양양했던 김창흡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창흡은 그 뒤에 기사환국으로 유배를 가게 된 부친 김수항을 따라 유배지 진도에 가서 부친을 끝까지 모셨다.<sup>66)</sup> 그는 걱정하는 눈빛과 마음을 숨기면서 부친을 위로하고 부친의 사사를 지켜보았다.<sup>67)</sup> 부친의 죽음, 가문의 몰락을 마주한 김창흡은 깊은 슬픔과 반대 정파에 대한 원한을 두루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sup>68)</sup> 김창흡의 모색기도 기사환국

262면. “之子可與語，夜闌簷影斜。論心佛前愧，得句月中誇。遠瀨浸沙界，飛霜似雨花。「逍遙」斯已矣，莫作問『南華』。” ‘論心佛前愧，得句月中誇’는 당나라 관휴(貫休)의 「회무창서」(懷武昌栖)에 나온 ‘得句先呈佛，無人知此心’이라는 시구를 변형해서 쓴 듯하다. ‘사계’(沙界)는 항하(恒河)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세계를 말한다. ‘우화’(雨花)는 『법화경』(法華經)의 여섯 상서(祥瑞) 중 하나인 우화서(雨花瑞), 즉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상서의 네 가지 꽃으로, 만다라화(曼陀羅華)·마하만다라화(摩訶曼陀羅華)·만수사화(曼殊沙華)·마하만수사화(摩訶萬殊沙華)이다.

64) 이런 맥락에서 1691년에 김창흡에게 편지를 보내 유교를 버리고 불가의 논리에 몸을 맡기는 것을 걱정하면서 권면하는 김창즙의 행동에 대해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김창즙의 원 편지는 남아 있지 않지만 김창흡의 답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김창흡의 답장에 대한 분석은 이승수, 앞의 책, 145~152면 참조.

65) 金昌翁, 「病後與士興昆季賦春，仍告東峽之行」, 『三淵集拾遺』 권2, 한국문집총간 166, 236면. 이에 김시걸도 김창흡의 동유와 관련하여 여러 수의 시를 지었다.

66) 김수항을 모시고 진도로 간 사람은 김창집과 김창흡이다. 김창즙은 3월에 모친을 모시고 갔고, 김창협과 김창업도 3월에 갔다.

67) 金昌翁 撰, 「臨命日記」, 『安東金氏文獻錄』(地), 311~312면. “少焉，又謂昌翁曰：‘自汝從我以來，數月之間，北來聲息，非無可駭可怕，而汝每以寬言緩詞鎮之，無使驚動。余時怪其太慢，而亦爲其定乎心者在也。及協業之追來也，觀其眉睫而知其憂深矣。’”

으로 일단락되고 김창흡의 일생은 칩거기에 접어들었다.

요컨대 김창흡의 모색기를 보면 부친 김수항의 정치적 부침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한 김창흡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장자』를 비롯한 도가책을 애독하고 도가 양생술 수련에 빠졌던 것, 『주역』을 정독(精讀)했던 것, 고시를 진작하여 시도를 진흥시키려 노력했던 것, 불전에 관심이 생겨 탐독했던 것은 김창흡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sup>69)</sup>

## (2) 칩거기(1689~1705)

기사환국 이후 김창흡은 칩거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칩거란 추위에 물린 짐승이 굴속에 피신하듯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을 말한다. 기사환국으로 실세한 뒤 1706년 2월 김창집이 우의정이 될 때까지 장동김문과 김창흡의 처지가 이와 같았다. 정치적 몰락기에 처해 있던 김창흡은 복수를 꾀하며 칩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칩거기라고 이름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크게 영평(永平: 포천시) 칩거기(1689~1692)와 벽계(槩溪: 양평군) 칩거기(1693~1705)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는 김창흡이 사상적으로 도가, 불교에서 유교로 돌아와 유교 경전에 몰두했던 때였다. 물론 이것이 도가나 불교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사환국 이후에 김창흡 형제는 모친을 모시고 백운산 영평으로 갔다. 그 사이에 중부 김수흥(金壽興, 1626~1690)이 1690년 10월 12일에 유배

68)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69) 그런데 이것이 김창흡이 유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창흡은 기본적으로 선비로서 유교 경전을 읽고 유가사상을 익혔다. 다만 이 시기에는 김창흡이 유교경전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도가의 이치와 불교의 원리를 궁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1685년 가을에 북평사(北評事)였던 김창협은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네가 『주역』을 읽는 외에도 『중용』을 공부하여 학문이 진전되는 즐거움을 꽤 얻었다고 들었는데, 매우 좋도다”라고 말한 바 있다. 金昌協, 「답자益」, 『農巖集』 권1 1, 한국문집총간 161, 512면. “聞讀『易』之外, 兼理『中庸』, 頗得鼓舞之樂, 甚善甚善.”

지 장기(長鬢)에서 병사했다.<sup>70)</sup> 장동김문의 두 기둥이 이렇게 기사환국으로 생을 마쳤고, 장동김문은 노론 내에서도 기사환국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이것이 김창흡에게 미친 타격과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며, 장동김문도 정치적으로 침체되었다. 갑술환국 이후에 백씨 김창집이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외직으로 몇 번 나갔으며,<sup>71)</sup> 중앙 관직으로 호조판서를 맡은 것 외에는 청요직을 얻은 적이 없었다.

김창흡은 3년상을 마치기 직전인 1691년 5월에 백부 김수증과 함께 한계산(寒溪山: 인제군)을 유람하면서 은거할 터를 찾으려 했고,<sup>72)</sup> 같은 해 겨울에 한계산에서 백수(栢樹: 잣나무) 공안을 참구(參究)하면서 슬픈 마음을 위로 받은 동시에 은거를 결심했던 듯하다.<sup>73)</sup> 다음 해 3월에 한계산에 집을 지어 겨울부터 은거하려고 했는데, 흥년과 양가(兩家)의 모친을 봉양(奉養)해야 한다는 이유로<sup>74)</sup> 1693년 봄 양근(楊根: 양평)의 국계(菊溪)에 은거했다가 같은 해 9월에 호환(虎患)으로 인해 벽계로 거처를 옮겼다.

70) 李喜朝,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退憂堂先生金公行狀」, 『芝村集』 권26, 한국문집총간 170, 550면. “遂以十月十二日, 易簣于縣城內村舍. 子昌說先以病尋醫, 上京未還, 只庶弟壽能在側. 公享年六十五. 以十一月, 返櫬于楊州之金村.”

71) 1695년~1696년 철원 부사(鐵原府使), 1698년 1월~11월 백천 군수(白川郡守), 1698년 11월~1700년 2월 강화 유수, 1700년 7월~1701년 7월 개성 유수(開城留守)를 역임했다. 관련 정보는 『承政院日記』 및 『肅宗實錄』 해당 정보 참조.

72) 金壽增, 「寒溪山記」, 『谷雲集』 권4, 한국문집총간 125, 210~212면.

73)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계산에서 백수 공안을 참구했다는 이야기는 같은 해 겨울에 동생 김창즙이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려는 김창흡의 입장과 현성 시절부터 불교에 빠져 있는 김창흡을 정통 유교로 돌아오라고 권유한 김창즙의 입장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이해해야 할 듯하다. 金昌翁, 「葛驛雜詠其三十五」,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298면. “東國無人愛坐禪, 栗翁參請在初年. 余亦寒溪看栢樹, 塞悲心事有誰憐.”; 金昌翁, 「答敬明」,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52~354면.

74) 金昌翁, 「祭亡室李氏文」, 『三淵集』 권31, 한국문집총간 166, 99면. “寒溪樹屋, 余影欲滅. 君往舍春, 履余其發. 聯翩捲入, 擬待冬月. 以歲不易, 值其大屈. 兩家垂白, 拘攣亦切.” 뿐만 아니라 이때 김창흡의 처남 완흥군(完興君) 이섭(李涉)도 죽었다. 이 역시 장동김문 구성원에게 큰 타격이었던 듯하다.

이때부터 1705년 설악산 은거 전까지 김창흡은 12년 동안 벽계에서 살았다.<sup>75)</sup> 벽계는 김창흡에게 그저 별서(別墅)가 아니라 자기 삶의 전환점을 지켜본 중요한 공간이다. 이는 김창흡이 지은 벽계와 관련된 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나중에 설악산 은거 뒤에 벽계를 경영한 사람은 아들 김양겸이다.<sup>76)</sup>

학문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김창흡은 도·불에서 유교로 향하면서 유가 경전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런 경향은 갑술환국 뒤에 더욱 뚜렷하다. 이는 1694년 가을에 김창흡이 지은 「시 짓는 것을 그치다」(止詩)와 김창즙이 지은 「숙씨의 ‘시 짓는 것을 그치다’ 운에 차운하다」(次叔氏止詩韻)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두 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끼를 찾게 된다 <sup>77)</sup> 는	兩葉尋柯嗟古戒,
옛 경계에 탄식하고	
물결 하나 일렁이자 바다를 뒤집으니	一波翻海愧初心.
초심에 부끄럽네.	
내일 아침에 『논어』를 전심(專心)으로	明朝魯論專研究,
연구할 것이니	
슬음(瑟音)을 버리고 <sup>78)</sup>	靜會春壇舍瑟音. <sup>79)</sup>

75) 金昌翁, 앞의 글, 99~100면. “虎以奚去, 委骨嵒嶮. 砥婦適至, 綯網四綴. 電睛閃曙, 風牖窸窣. 狼狽失圖, 眞不黔埃. 圖新槩溪, 一紀始闕. 泲水敗堰, 廐牛再失. 事與願乖, 窮與衰迭. 艱憂倍劇, 瀕洞可掇.” ‘해’(奚)는 김창흡의 노비 만해(晩奚)를 가리킨다. 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호랑이가 죽인 노비는 만해가 아니라 필흥(必興)이라는 노비다. ‘지부’(砥婦)는 김양겸의 부인 덕수이씨를 가리키는 듯하다.

76) 金昌翁, 「答養謙」,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57면. “知欲斂躅而幹役于槩溪, 可謂善思矣.”

77) 화란의 조짐이 싹틀 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건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육도』(六韜) 권1에, “처음 불이 붙을 때 끄지 않다가 훨훨 타오르면 어찌하리? 방울방울 솟는 물을 막지 않으면 장차 강하를 이루고, 두 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장차 도끼를 찾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炎炎不滅, 焔焔奈何? 涓涓不絕, 將成江河, 兩葉不去, 將尋斧柯)라 하였다. 呂望, 『六韜』 卷一, 淸平津館叢書本.

78) 『논어』 「선진」(先進)의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남이 알아주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증점(曾點)의 생각을 묻자, 증점이 조용히 거문고를 뜯고 있다가 크게 한바탕 튕기고서 내려놓은



고요히 춘단(春壇)에 모이려네.

어찌 알팍한 글재주로 장한 뜻을 마멸하겠는가?      豈以雕蟲磨壯志,  
응당 극기(克己)에서 제심(齊心)에 도달해야 하리.      應從克己到齋心.  
내일 아침 안석에 기대 삼뢰(三籟)<sup>80)</sup>에 잠기면,      明朝隱几冥三籟,  
재잘대는 소리는 다 새끼 새 울음<sup>81)</sup>이지.      多少啁啾是鷓音.<sup>82)</sup>

그동안 숙씨의 학문길을 지켜봤던 김창흡은 오로지 유교 경전만 궁구한다는 선언에 감격하여 차운시를 지었다. 김창흡이 본격적으로 유교 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갑술환국 이후인 듯하다. 김창흡은 부친의 관작이 회복된 1694년 4월 이후에 『중용』, 『논맹정의』(論孟精義),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을 읽었으며, 1697년에는 「지자설」(智字說)을 지었고, 1702년에는 『대학혹문』(大學或問), 『시경』 등을 읽는 한편 권상하의 문인 회곡(晦谷) 신유(申愈, 1673~1706)에게 학문하는 요점을 논하는 편지를 보내고 「잡록」(雜錄)을 지었다. 정주학 탐구의 심화는 바로 칩거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칩거기에 김창흡은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698년 최석정이 부친을 죽인 오시복(吳始復, 1637~1716), 이서우(李瑞雨, 1633~1709)를 비롯한 남인을 등용하려고 하자 김창흡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 절교하였다. 또 시비의리를 내세워 글을 통해 남인과 소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1703년에 일어난 박세당의 사문시비 사건 또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sup>83)</sup> 김창흡에게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준 사건들도

---

뒤에 일어나서는 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 육기풍우(浴沂風雩)의 뜻을 말했다. 증점의 뜻을 공자가 크게 허여했다.

79) 金昌翁, 「止詩」, 『三淵集拾遺』 권5, 한국문집총간 166, 283면.

80) ‘삼뢰’는 인뢰(人籟)와 지뢰(地籟)와 천뢰(天籟)로 천지의 온갖 소리를 가리킨다.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남곽자기(南郭子綦)가 안성자유(顔成子游)에게 “너는 인뢰는 들었어도 지뢰는 듣지 못했고, 지뢰는 들었어도 천뢰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女聞人籟而未聞地籟, 女聞地籟而未聞天籟夫)라고 한 말이 보인다.

81) ‘구음’(鷓音)은 새끼의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사람의 말, 시비의 소리를 가리킨다.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말이다.

82) 金昌緝, 「次叔氏止詩韻」, 『圃陰集』 권1, 한국문집총간 176, 365면.

이어졌다. 1701년 3월 4일 백부 김수증의 죽음, 1703년 4월 9일 고종사촌 우사(霧沙) 이세백(李世白, 1635~1703)의 죽음, 1703년 6월 22일 모친 안정나씨의 죽음이 그것이다. 3년상을 마친 뒤 김창흡이 그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설악산 은거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 (3) 설악산 은거기(1705~1714)

설악산은 김창흡이 평생토록 은거하고 싶었던 곳이었다.<sup>84)</sup> 삼부연 은거는 장동김문의 집단적인 은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가문의 정치적 복위, 경제(京第)의 정거에 따라 무산되었다. 현성 은거는 부친의 뜻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부친의 사사와 가문의 몰락에 따라 물거품이 되었다. 벽계 은거는 모친 봉양과 성묘의 편의, 그리고 정국의 형세를 편히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그동안의 은거가 가문의 처지나 정국과의 끊임없는 타협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설악산 은거는 비로소 김창흡의 숙원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김창흡은 설악산 은거지 경영에 어느 때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였던 듯하다. 1705년에 시작하여 1707년에 완성된 벽운정사(碧雲精舍), 1709년 완성된 영시암(永矢庵), 1711년 완성된 갈역정사(葛驛精舍)는 모두 설악산 은거지 경영의 일부분이었다. 설악산에서 평안하게 은거하기 위해 영시암을 지은 뒤 「설악산에 고하는 글」(告雪岳文)을 지었고,<sup>85)</sup> 농사일이 잘 되도록 1713년 8월에 「설악산 조원봉에 고하는 글」(告雪岳朝元峯文)을 짓기도 하였다.<sup>86)</sup>

그러나 권력의 중심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설악산에 은거한다고 해서 김창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1703년의 사문

83) 이에 대해서는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84) 金致謙, 「先妣行狀」, 『安東金氏文獻錄』(地), 1044면. “先君晩築室於雪嶽山中爲終老計.”

85) 金昌翁, 「告雪岳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6면.

86) 金昌翁, 「告雪岳朝元峯文」, 『三淵集拾遺』 권26, 한국문집총간 167, 170~171면.

시비 문제가 발생한 이래 노소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는 설악산에 은거한 그 해 겨울에 김창흡이 편지를 보내 외삼촌 나양좌(羅良佐, 1638~1710)가 스승 윤선거를 옹호하여 송시열을 비판한 일을 재비판한 것에 잘 드러난다.<sup>87)</sup> 김창흡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에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킨 듯하다.<sup>88)</sup> 그 뒤에 학문을 닦고 수행하면서 설산의 조용한 거사로 여생을 보내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이연평 선생 찬문」(李延平先生贊)을 지었다.<sup>89)</sup> 따라서 설악산 은거기는 김창흡이 학문에 정진하게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김창흡은 학문적으로 도·불·유 삼교를 두루 궁구했다. 1714년 현호 지익(玄虛智益), 치웅 상인(致雄上人)과 교류하면서 김창흡은 선비로서 『화엄경』(華嚴經)을 강학하고, 치웅은 승려로서 『남화경』(南華經)을 강학한 것에서 확인된다.<sup>90)</sup> 정치적으로 보면 김창흡은 노·

87) 金昌翁, 「擬上仲舅」, 『三淵集』 권22, 한국문집총간 165, 455~465면; 金昌翁, 「與宋伯純」, 『三淵集』 권18, 한국문집총간 165, 380~381면.

88) 金昌翁, 「寄養謙 乙酉」,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88면. “余連得安遣, 閉戶讀書, 意味殊不淺. 而正朝松楸之計, 怯寒未遂, 恨罔有涯也. 時事固宜如此, 自我斂手, 任其百般作弄可矣. 但爲伯氏進退之難, 不能安眠爾.”

89) 金昌翁, 「李延平先生贊」, 『三淵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65, 522면. “豪勇之資, 道則中庸. 訥言立本, 德邵容融. 頽然野老, 確乎潛龍. 水竹生涯, 冰月心胸.” 1706년 여름 남산에 있었을 때 김창흡은 문인 김명행에게 보낸 편지에서 “작년 겨울에 「연평 찬문」을 지어 조용히 수행하려는 뜻을 밝히려고 했으니, 이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대의 아의(雅意)로 또한 이에 대해 마땅히 계합할 게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김창흡이 「이연평 선생 찬문」을 창작한 배경은 1705년 겨울 윤선거·윤증 부자와 송시열 사이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외삼촌 나양좌와의 논쟁과 연결 지어 볼 필요가 있다. 金昌翁, 「答明行」, 『三淵集』 권20, 한국문집총간 165, 416면. “幸爲舅氏大度包容, 堯免嚴誅已. 設一誓于座下, 斷此生爲雪山默居士, 未知果能堅守三緘否也? (….) 去冬山居, 作「延平贊」, 以見默修之志, 聊此呈似. 以君雅意, 亦應有契乎斯也.”

90) 金昌翁, 「贈致雄上人」,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237면. “有士涼涼, 寄迹于菴. 有釋溫溫, 逢掖之心. 分其丈室, 淡對默參. 形迹既泯, 圓月雙襟. 釋則『南華』, 士也『華嚴』. 互換功課, 晨夕喃喃. 犁然意會, 遂至浸涵. 鯤鵬之池, 龍象之林. 何闊何狹, 合席莊曇. 相視而笑, 不在多談.” 金昌翁, 「別玄虛長老」, 『三淵集』 권26, 한국문집총간 165, 535면. “儒與釋其忘形兮, 會三教於一筵. 冥栩栩之適志兮, 欣得魚而忘筌.” 김창흡이 치웅상인과 『남화경』, 『주역』, 『화엄경』을 강학한 이야기는 사위 이덕재에게 보낸 편지에 많이 보인다. 金昌翁, 「與李德載」, 『三淵集拾遺』 권21, 한국문집총간 167, 61면. “向來六十日,

소론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1706년 임부(林溥)·이잠(李潛) 옥사, 1708년 이동언(李東彦, 1662~1708) 유사, 1710년 경인환국(庚寅換局) 등의 사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sup>91)</sup>

김창흡은 이 시기에 산수 유람과 문학 창작도 많이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1706년 관서 유람(「關西日記」), 1708년 영남 유람(「嶺南日記」, 「蔚珍山水記」), 1711년 봉정 유람(「遊鳳頂記」)을 하였다. 문학적으로는 「관복고서」(觀復稿序), 「하산집서」(何山集序) 등을 통해 시론을 펼쳤고, 「중씨 농암선생 문집서」(仲氏農巖先生文集序)를 통해 산문론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문학적·학문적으로 김창흡의 성숙기라 할 수 있다. 설악산 은거는 1714년 10월 말에 발생한 호환(虎患)으로 막을 내렸다.

#### (4) 곡운(谷雲) 노년기(1715~1722)

김창흡의 마지막 정착지는 백부 김수증의 은거지인 곡운(谷雲: 강원도 화천군)이다. 1714년 10월 27일에 호환이 일어나자 김창흡은 10년 간의 설악산 은거 생활을 접고 평강 현령(平康縣令)으로 부임한 맏아들 김양겸<sup>92)</sup>을 찾아가서 1715년 봄까지 평강에 있었다. 「평강산수기」(平康山水記)는 바로 이 시기에 지은 것이다.

1715년 가을에 곡구정사(谷口精舍)가 완성되었다. 이때부터 김창흡은 본격적으로 곡운에 은거하기 시작하였다. 곡운 노년기는 김창흡 삶의 총정리 시기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시기 김창흡은 가문의 영광과 파국을 초래한 병신처분(丙申處分)과 신임환국(辛壬換局)을 지켜보았으며, 학문적으로 보면 유도불에 대한 인식이 ‘총관융회’(摠貫融會)<sup>93)</sup>

---

未供一彈指。顧闕功課，只與雄衲講了十餘篇『南華』而止。名山所得，其亦虛疎矣。”；「答李德載」，『三淵集拾遺』 권21, 한국문집총간 167, 62면. “雄師携『易』來會，大信復韻。拔脫烏鼠，萬衲實所欽悅也。如君無志願者，得無駢忸乎？”

91) 이에 대해서는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92) 김양겸은 1714년 11월 11일부터 1717년 9월까지 평강현감으로 재임했다. 『承政院日記』 숙종 40년 11월 11일 기사; 안동김씨 편, 「紀年」, 『家乘』, 『安東金氏文獻錄』(地), 1056년 참조.

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학문적 총정리를 했다.

김창흡이 병신년(1716)에 「윤현주 삼절첩 발문」(尹玄洲三絶帖跋), 「홍도진이 소장한 한석봉 서첩 뒤에 제하다」(題洪道陳重疇所藏韓石峰書帖後), 「정장원이 소장한 우암의 서첩 뒤에 제하다」(題鄭長源滄所藏尤菴書帖後) 등의 글을 집중적으로 창작한 것은 병신처분이 일어난 상황에서 노론으로서의 의리를 밝히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신축년(1721)에 백씨 김창집의 「귀거래사」에 차운한 시인 「삼가 백씨가 지은 귀거래사에 차운하다」(謹次伯氏所步歸去來辭)도 당시의 노·소론 간에 벌어진 정치적 공방과 연관이 있다. 김창흡은 임인년(1722)에 백씨 김창집, 조카 김신겸의 장인 이이명을 비롯한 노론사대신의 유배를 보고서 생을 마감했다. 백년 동안 부침을 겪었던 장동김문의 두 차례 파국을 직접 지켜보고 경험한 것이다.

또한 문인에 의해 정리된 김창흡의 「어록」, 「치옹상인 제문」(祭致雄上人文), 「치옹법사의 문도에게 보여준 글」(書示雄法師門徒), 어유봉에게 보내준 『장자』 공부 관련 편지 3통<sup>94</sup>) 등을 보면 이때에 와서 김창흡이 삼교회통적 경지에 이미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기해년(1719) 「일록」, 경자년(1720) 「일록」과 「만록」(漫錄), 「좌사제찬」(左史諸贊)<sup>95</sup>) 등 문학 작품도 대거 창작했다. 이들 작품에는 김창흡 만년의 경사관(經史觀), 경세적 경향, 학문관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산수유람을 즐기는 인간으로서 김창흡은 삶의 마지막 세 번의 유람을 했다. 곧 1716년의 북관 여행(「北關日記」), 1717년의 남유 여행(「南遊日記」), 1719년의 남정 여행(「南征日記」)이다. 북관 여행은 김창흡 평생의 숙원(宿願)이었다.<sup>96</sup> 김창흡에게 북관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

93) 김창흡의 유도불 ‘충관유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94) 金昌翁, 「答魚有鳳」,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430~432면.

95) 「좌사제찬」의 창작 연도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기해년 3월에 쓴 「일록」에서 『좌씨전』을 읽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면 이 무렵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96) 金昌翁, 「與李德載」, 『三淵集拾遺』 권21, 한국문집총간 167, 63면. “俺出谷到衙已數日, 欲待景敍路平, 一走北關, 踏萬歲橋而還. 平生所夢想, 失此幾會, 將抱恨而沒矣. 計程只五日, 不過如自京往麟者耳.”

나라 조선의 북방 요새를 현지 답사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 여행을 통해 장동김문의 구성원을 추억하기도 했다. 남유 여행은 벗 조정만의 초대를 받아 간 것인데 손자 김각행(金愨行)의 죽음으로 급히 돌아왔던 듯하다. ‘남정’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1719년의 여행은 앞서 두 번의 여행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는 1719년 벗 안시태를 조문하러 간다는 특별한 목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717~1718년 사이에 김창흡이 겪었던 자신의 노쇠,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도 큰 연관이 있어 보인다.

김창흡은 1718년에 지은 「낙치설」(落齒說), 「오대산기」(五臺山記)에서 각각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이 부지기수다. 능히 이가 빠진 귀신이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sup>97)</sup>라고 하거나 “금년은 보통의 해가 아니니 살기 위해서 험준한 곳으로 도망왔더랬는데 이번 유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 하나의 행운이다”<sup>98)</sup>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심회를 토로하였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김창흡이 1718년에 아주 큰 난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는 죽음에서 살아난 뒤 이가 빠진 자신의 노쇠이고 하나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다.

1717년 남유 여행 과정에서 김창흡이 애지중지하던 14세 장손 진항(振降: 김각행의 아명)이 죽었다. 관례를 치르지 못해 죽었으므로 자나 이름도 없었고 안동김씨 족보에도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김창흡은 요절한 장손에게 특별히 단보(端甫)라는 자와 각행(愨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오랫동안 장손의 죽음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했다.<sup>99)</sup> 또 장

97) 金昌翁, 「落齒說」, 『三淵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65, 522면. “且今年大殺, 纍纍歸泉壤者, 不知其數. 其能爲落齒鬼者, 有幾人哉?”

98) 金昌翁, 「五臺山記」, 『三淵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65, 504면. “今年非常年, 逃生險巖, 能辦斯遊, 是一幸也.”

99) 金養謙, 「祭愨行振降墓文」, 『安東金氏文獻錄』(地), 1078면. “死後家大人錫汝名曰愨行字端甫. 蓋像其居常志行, 而於汝爲歿後之稱, 則悲莫悲焉.”; 金昌翁, 「愨行忌日告文」, 『三淵集拾遺』 권26, 한국문집총간 167, 170면. “維歲次庚子四月丁酉朔二十二日戊午, 大父以長孫愨行亡日復屆, 不勝愴痛, 陳此酒食, 而告之以文曰: ‘汝之云亡, 日亦遠矣. 我頑且耄, 猶不能忘. 尋常癡想, 若待再還. 逆數其齡, 今既突弁. 學則就矣, 器亦茂止. 美目淑貌, 宛見庭趨. 忽焉失之, 邈矣泉下. 魂氣有無, 良不可度. 倘其隨余, 倏忽東西. 深山廣澤, 奚適不及. 汝以衙童, 均于廣平. 今來文邑, 事有同異. 斑爛三箇, 婉孌繞膝. 間聆啾唔, 如刀觸腸.

손의 죽음으로 슬픔을 견디지 못해 병에 걸려 죽을 뻔하기도 했다. 이는 장인 이세장의 아우 이세필(李世弼, 1642~1718), 조카 김언겸(金彦謙, 1686~1738)의 장인 권성(權愔, 1653~1730)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sup>100)</sup> 따라서 1718년은 김창흡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다시 태어난 해였다. 그러므로 김창흡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정리할 차원에서 「갈역잡영」(葛驛雜詠) 연작시를 지었을 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1718년에는 김창흡의 문인 유명약(兪命岳), 김명행(金明行), 이진희(李震熙), 손녀인 윤만동(尹萬東)의 부인 등이 잇달아 죽었고 장손 김각행의 소상(小祥) 제사도 지냈다.<sup>101)</sup> 자식들을 먼저 보낸 김창흡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낙치설」, 「오대산기」는 자신 및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김창흡이 삶에 대해 가졌던 새로운 생각이나 깨달음을 잘 표현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기에 지은 김창흡의 글이나 시를 이해하면 김창흡의 내면 세계에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한다.

이상으로 김창흡의 은거지, 학문적 흐름, 숙종 대의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김창흡의 생애를 모색기, 칩거기, 설악산 은거기, 곡운 노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문의 정체성에 충실한 김창흡의 인적 관계망을 계급적 성격에 유의하여 경화세족, 지방문인, 중서층, 승려로

---

悶渠蒙愔，思汝慧勤。如截卓枝，何以爲木。如去巨擘，何以爲手。家事靡仗，老懷可知。我雖不忘，無計起汝。汝雖有靈，莫與我歎。幽明鬱塞，恨以歲長。哀辰斯屆，肆席衙軒。果脯匪薄，悽焮孔昭。淺罌之酌，罄我老淚。嗚呼尙饗。”

100) 金昌翁, 「與李參判世弼○戊戌」, 『三淵集拾遺』 권16, 한국문집총간 166, 531면. “昌翁窮頑之命, 未保一孫. 暮年文書之篋, 無可托矣. 悵緒慘惡, 久益難勝. 百疾乘虛, 交迭爲苦. 出入人鬼者, 蓋跨歲新舊矣.”; 「答權判書戊戌」, 『三淵集拾遺』 권16, 한국문집총간 166, 521면. “不幸爲病所奪, 及至惠書之墜, 則方在人鬼間矣.”

101) 金昌翁, 「祭愨行初基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1~112면; 「祭孫女尹氏婦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2면; 「祭明行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2~113면; 「祭兪君四墓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3면. 장손 김각행의 일주년 기일은 1718년 4월 22일이고, 손녀의 발인 날짜는 1718년 5월 12일이며, 문인 김명행을 곡한 날짜는 1718년 9월 18일이고, 유명약을 곡한 날짜는 윤8월 오대산 유람 뒤 일 것이다.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 2) 인적 관계망

### (1) 경화 세족

앞서 밝혔듯이 노론의 당파성은 김창흡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김창흡 집안의 혼척관계는 정치적 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창흡은 비록 서울 생활을 싫어했지만,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으며 서울에 있는 명문가와 혼척관계를 많이 맺기도 하였다. 이는 김창흡이 묘지명을 써주었던 대상이나 편지의 수신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서인과 남인의 권력 다툼과 노소 분기라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서 교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듯하다. 따라서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들의 혼척관계, 교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혼척관계를 잘 파악해야 그들의 정치적인 활동 양상 내지 학문적 연대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김창흡과 교유했던 인물을 정리하면서도 교유를 함부로 하지 않던 김창흡이 왜 그들과 교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 이경구의 연구에서는 청음파와 선원파의 통혼 관계를 정리한 바 있는데, 통시적이고 거시적 시각에서 17세 ‘수’(壽)자 항렬에서 23세 ‘근’(根)자 항렬까지를 살펴본 것이므로 김창흡 당시의 교유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sup>102)</sup> 조준호의 연구에서는 김창흡의 정치적 기반과 활동을 중심으로 농연 형제의 출신배경, 교유인맥 및 정치활동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지만, 농연 형제만을 중심으로 정리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sup>103)</sup>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

102)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 서울: 일지사, 2007, 65~71면 참조.

103) 조준호, 「김창흡의 정치기반과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04.



적·미시적 차원에서 김창흡이 살았던 시점에 초점을 두어 ‘수’자, ‘창’(昌)자, ‘겸’(謙)자 항렬을 대상으로 경화 세족과의 교유관계를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수’자 항렬을 보면 김광찬(金光燦, 1597~1668)<sup>104</sup>과 연안김씨 김래(金來, 1576~1613)의 딸 사이에 태어난 김수증(金壽增, 1624~1701), 김수흥(金壽興, 1626~1690),<sup>105</sup> 김수항(金壽恒, 1629~1689) 삼형제가 있다. 김광찬의 사위는 용인이씨 이정악(李挺岳, 1610~1674), 풍산홍씨 홍주천(洪柱天), 전주이씨 이중휘(李重輝, 1622~1678), 은진송씨 송규렴(宋奎濂, 1630~1709), 한산이씨 이광직(李光稷, 1632~1664)이다. 그들의 족보를 보면 각각 ‘이정악→이세백(李世白)→이의현(李宜顯)’, ‘홍주천→홍만조(洪萬朝)’, ‘이중휘→이유(李濡)/이담(李湛)’, ‘송규렴→송상기(宋相琦)/송상유(宋相維)’, ‘이광직→이수형(李秀衡)→이사제(李思齊)<sup>106</sup>’로 이어진다.<sup>107</sup>

족보에 드러난 것처럼 김창흡은 이세백, 홍만조, 이유 형제, 송상기 형제, 이수형 등과 **사촌관계**가 된다. 그들과의 교유는 혈연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연대로 이어진다. 노론 세력으로서 장동김문과 정계에서 같이 활동한 이세백·이의현 부자, 송규렴·송상기 부자, 이유·이담 형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례는 홍만조 집안과의 관계이다. 홍만조 집안은

104) 김광찬의 생부는 김상관(金尙寬, 1566~1621)인데 숙부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양자로 들어갔다. 장동김씨 족보 관련 정보는 안동김씨대종중(安東金氏大宗中) 사이트 참조.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인물 묘지명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도록 하겠다. 이하 동일. <<http://www.adkim.net/>>

105) 김수흥은 백부 김광혁(金光赫, 1590~1643)의 양자로 들어갔다. 따라서 김수흥은 성주이씨 이빈(李賓), 김해김씨 김홍경(金洪慶, 1621~1691), 함양여씨 여증제(呂曾齊)와 처남관계이다. 김홍경은 김우항(金宇杭, 1649~1723)의 부친이다. 따라서 김우항은 김광혁의 외손자이다. 이런 관계로 김우항은 장동김문과 정치적 연대성을 갖고 있었다.

106) 김창흡은 이사제를 위해 「이사제 애사」(李思齊哀辭)를 지었다. 金昌翁, 「李思齊哀辭」,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6~117면.

107) 장동김씨를 제외한 다른 가문의 족보는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인물관계정보 데이터를 참조하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인물의 묘지명 등을 참조하도록 하겠다. 이하 동일. <<https://kostma.aks.ac.kr/FamilyTree/>>

기사환국 이후에 남인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김창흡 집안과 멀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김수증과 창녕조씨 조한영(曹漢英, 1608~1670)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김창국(金昌國, 1644~1717), 김창숙(金昌肅, 1651~1673), 김창직(金昌直, 1653~1702)이고, 사위는 남양홍씨 홍문도(洪文度, 1650~1673), 한산이씨 이병천(李秉天), 평산신씨 신진화(申鎭華), 기계유씨 유명건(俞命健, 1664~1724)이다.

김수증 사위들의 족보를 보면 각각 ‘홍문도→홍유인(洪有人)/어유봉(魚有鳳)’, ‘이상우(李商雨)→이정(李鼎)→이병천’, ‘신정(申晷)→신진화→윤득귀(尹得龜)’, ‘유철(俞徹)→유명순(俞命舜)/유명건/유명악(俞命岳)’으로 이어진다. 이에 의하면 어유봉은 홍유인과 처남관계가 되고 김수증의 외손녀 사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상용과 김시보(金時保, 1658~1734)의 아들 김순행(金純行, 1683~1721)은 어유봉의 매부이다. 이렇게 어유봉 집안은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다. 김수증의 사돈 이정이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부친 이숙(李涑)과 친형제므로 이병천은 이병연·이병성(李秉成) 형제와 사촌관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병성은 김창흡의 둘째 아들 김치겸과 동서지간이고 나중에 이병성의 딸도 김창흡의 손자 김간행(金簡行)에게 시집갔다. 김창흡은 1712년 이숙을 위해 「난전구곡, 난곡칠폭을 합쳐 기문을 짓다」(藍田九曲蘭谷七瀑合記)를 지었다.<sup>108)</sup> 그만큼 이병연·이병성 집안은 김창흡 집안과 밀접한 혼척 관계였다.

기계유씨 가문에서 김수증 집안과 혼인한 사람은 유철 계열인데, 족보를 살펴보면 각각 ‘유명순→유학기(俞學基)→유언경(俞彦鏡)’, ‘유명건→유직기(俞直基)→유언호(俞彦鎬)’, ‘유명악→유척기(俞拓基)→유언흙(俞彦欽)’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유철의 형 유황(俞樞, 1599~1655) 계열, 유철의 4촌 형제 유석(俞晳) 계열도 장동김씨와 혼인관계가 있다. 즉 ‘유석→유명홍(俞命弘)→유수기(俞受基)’ 계열에는 유수기가 김창흡의

108) 金昌翁, 「藍田九曲蘭谷七瀑合記壬辰」, 『三淵集拾遺』 권23, 한국문집총간 167, 109~110면.

사위이고, ‘유황→유명퇴(兪命賚)→유광기(兪廣基)→유언전(兪彦銓)’ 계열에는 유언전이 김창흡의 손녀사위이다. 이처럼 장동김씨와 기계유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김창흡의 유씨 문인인 유명악·유척기 부자, 유숙기,<sup>109)</sup> 유언전 역시 김창흡과 혼척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김창흡과 홍유인, 어유봉, 이병천, 이병연, 이병성, 유명건, 유명악의 교유는 혼척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수증 아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첫째 아들 김창국은 전주이씨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의 아들 이정영(李正英, 1616~1686)의 딸과 혼인했는데,<sup>110)</sup>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sup>111)</sup> 김창흡의 둘째 아들 김치겸이 김창국의 양자로 들어갔다. 사위는 연안이씨 이하조(李賀朝, 1664~1700), 숙중[寧嬪]이다. 이하조는 이단상의 아들이자 이희조(李喜朝, 1655~1724)의 동생으로서 김창협과 처남관계가 된다.

둘째 아들 김창숙은 덕수이씨 이식(李植, 1584~1647)의 아들 이신하(李紳夏, 1623~1690)의 딸과 혼인했지만,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김창집의 둘째 아들 김호겸(金好謙, 1681~1699)을 양자로 삼았다. 셋째 아들 김창직은 선후로 함종어씨 어진열(魚震說)의 딸, 안동권씨 권순선(權順善)의 딸과 혼인했다. 아들은 김일겸(金逸謙, 1694~1721), 김퇴겸(金退謙, 1700~1719)이고, 사위는 은진송씨 송상윤(宋相允)의 아들 송필휴(宋必休)이다. 송상윤은 송규렴의 조카이자 송상기의 사촌형제이다.

이와 같이 김수증의 아들은 전주이씨 이경직 집안, 연안이씨 이단상 집안, 덕수이씨 이식 집안, 은진송씨 송규렴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런 혼인관계는 김수홍 집안, 김수항 집안과 이어진다. 다음으로 김수홍 집안의 혼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수홍은 남원윤씨 윤형각(尹衡覺, 1601~1664)의 딸과 혼인했다. 아들은 요절한 김창렬(金昌烈, 1666~1673), 김창열(金昌說, 1669~1732)이고, 사위는 남양홍씨 홍택보(洪澤普), 은진송씨 송광속(宋光涑, 1653~1704), 연안이씨 이희조(李喜朝, 1655~1724), 우봉이씨 이만성(李晩成,

109) 유숙기는 유수기와 사촌관계이다.

110) 이경직은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형이다.

111) 여기서 말한 ‘아들’은 정실부인 소생의 아들을 가리킨다. 이하 동일.

1659~1722), 경주이씨(慶州李氏) 이성좌(李聖佐)<sup>112)</sup>이다.

김수홍 사위들의 족보를 보면 각각 ‘홍명하(洪命夏)→홍택보’, ‘송시철(宋時喆)→송광연(宋光淵)/송광속’, ‘이단상→이희조→이량신(李亮臣)’, ‘이숙(李翹)→이만창(李晩昌)/이만성’, ‘이시술(李時述)→이세장(李世長)→이성좌’로 이어진다. 여기서 송광속의 형 송광연(宋光淵, 1638~1695)의 아들 송징오(宋徵五)는 이단상의 사위로 김창협과 동서지간이 된다. 이희조는 김수홍의 사위로 김창협과 처남관계이다. 이만성은 이만창의 아들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의 숙부이고, 이성좌는 김창흡과 처남관계가 된다.

김수홍 아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둘째 아들 김창열은 해주오씨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 사위이므로, 김시걸의 아들 김영행(金令行, 1673~1755), 이재와 동서지간이 된다. 오두인의 아들 오진주(吳晉周, 1680~1724)는 또 김창협의 사위이다. 이렇듯 장동김씨는 이단상 집안, 이만성 집안, 이성좌 집안, 오두인 집안과 밀접한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김창흡과 이희조, 이성좌, 오진주의 교류 역시 이런 혼적관계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조부 김광찬으로부터 백부 김수증, 숙부 김수홍까지의 장동김씨 혼적관계를 보면 용인이씨 ‘이정악-이세백-이의현’, 풍산홍씨, 전주이씨 ‘이중휘-이유/이담’, 은진송씨 ‘송규렴-송상기’, 한산이씨 이상우(李商雨, 1621~1685) 계열, 창녕조씨 조한영(曹漢英, 1608~1670) 계열, 남양홍씨, 평산신씨, 기계유씨 유성증(兪省曾, 1576~1649) 계열, 덕수이씨 ‘이식→이신하’, 함종어씨 ‘어진익(魚震翼)-어유봉(魚有鳳, 1672~1744)’, 안동권씨, 남원윤씨, 연안이씨 ‘이단상→이희조’, 우봉이씨 ‘이만성-이재’, 경주이씨 ‘이세장-이성좌’, 해주오씨 ‘오두인-오진주’ 등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노론 세력이 되어 장동김문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학문적·사상적으로는 김창협과 김창흡을 지지한 낙론 세력이 되었다.

---

112) 『만가보』에는 ‘勛佐’ 뒤에 ‘初名聖佐’라고 되어 있고,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의 『청성잡기』(靑城雜記) 권3에도 ‘李勛佐’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김수항 집안을 중심으로 김창흡의 외가, 친가, 처가를 세분하여 장동김문의 혼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수항은 안정나씨 나성두(羅星斗, 1614~1663)의 딸과 혼인했다. 그러므로 김창흡의 외가는 안정나씨다. 나성두의 부친은 구포(鷗浦) 나만갑(羅萬甲, 1592~1642)이고, 모친은 수몽(守夢) 정엽(鄭曄, 1563~1625)의 딸이므로, 안정나씨는 초계정씨(草溪鄭氏)와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성두와 경주김씨 김남중(金南重, 1596~1663)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나명좌(羅明佐), 나양좌(羅良佐, 1638~1710), 나석좌(羅碩佐, 1652~1698)<sup>113)</sup>가 있고, 사위로는 김수항, 전주이씨 이사명(李師命, 1647~1689)이 있다.<sup>114)</sup>

나성두 아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나명좌는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장녀와 혼인했고,<sup>115)</sup> 나양좌는 김광찬의 처남 김천석(金天錫, 1604~1673)의 딸과 혼인했다. 나석좌는 능성구씨 구옥(具鑿)의 딸과 혼인했고, 아들 나준(羅浚), 나연(羅演)<sup>116)</sup>을 낳았다. 김창흡의 글에 자주 보이는 나준은 김창흡과 외사촌관계가 된다. 나성두 사위의 족보를 보면 ‘이민적-이사명-이희지(李禧之)’로 이어진다. 따라서 김창흡은 이희지와 이종사촌관계가 된다.

이처럼 안정나씨는 은진송씨 송준길계, 연안김씨 김래계, 능성구씨 구옥계, 전주이씨 이민적계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김창흡의 외가가 안정나씨였으므로 김창흡 집안 역시 그들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중에서 연안김씨 집안과의 혼인관계로 인해 김수항에게 나양좌는 처남이자 외종매부가 된다.

김창흡 친가쪽의 혼인관계는 주로 육창 형제, 즉 김창집, 김창협, 김

113) 나석좌는 숙부 나성한(羅星漢)의 양자로 들어갔다.

114) 김수항은 이사명과 동서지간이 된다. 이들은 기사환국 때 모두 사사당했다.

115) 17세기에 송준길가와 안정나씨가 집중적으로 통혼한 양상이 보인다. 송준길의 장녀는 나명좌와 혼인했고, 송준길의 둘째 손자 송병하(宋炳夏, 1646~1697)의 딸은 나성두의 친동생 나성원(羅星遠, 1688~1709)과 혼인했다. 김연수, 「은진송씨 송준길가를 통해 본 기호사대부의 통혼 양상과 혼례문화」, 『한국계보연구』 10집, 한국계보연구회, 2020, 127면 참조.

116) 나연은 백부 나양좌의 양자로 들어갔다.

창흡, 김창업(金昌業, 1658~1721), 김창즙, 김창립(金昌立, 1666~1683)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김수항의 사위는 전주이씨 완흥군(完興君) 이섭(李涉, 1664~1692)인데, 일찍 죽었다. 그는 이산휘(李山輝, 1644~1698)의 아들로써 이유·이담 형제와 8촌 관계가 된다. 다음으로 육창 형제 및 그 자식들의 혼인관계를 순서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몽와(夢窩) 김창집 집안**을 보면 김창집은 반남박씨 박세남(朴世楠)의 딸과 혼인했다. 박세남은 박동열(朴東說, 1564~1622)의 손자로, 박황(朴潢, 1597~1648)의 아들이며 박호(朴濠, 1586~1667)의 조카이다. 응재(凝齋) 박태관(朴泰觀, 1678~1719)은 박호의 손자이므로 박세남에게 5촌뻘 조카가 된다. 김창집과 반남박씨 박동열계의 혼인관계를 통해 장동김문은 반남박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영남 유배기에 김수항 집안이 박태초(朴泰初, 1646~1702)·박필헌(朴弼憲) 부자<sup>117)</sup>와 교유한 것에는 반남박씨와의 혼맥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김창집의 아들은 김제겸(金濟謙, 1680~1722), 김호겸이고,<sup>118)</sup> 사위는 여흥민씨 민계수(閔啓洙, 1671~1720), 민창수(閔昌洙, 1685~1745)이다. 사위들의 족보를 보면 각각 ‘민광훈(閔光勳)-민정중(閔鼎重)-민진장(閔鎭長)-민계수’, ‘민광훈-민유중(閔維重)-민진원(閔鎭遠)-민창수-민백순(閔百順)<sup>119)</sup>’으로 이어진다. 사위들이 모두 여흥민씨 출신인 것을 보면 김창집 집안이 당시 여흥민씨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의 제자 민형수(閔亨洙, 1690~1741)는 민진원의 아들로, 민창수의 아우이다. 김창흡이 만년에 민형수를 제자로 삼은 것에는 여흥민씨의 혼맥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117) 박태초의 조부 박정(朴淳)이 박동열의 막내 아들이다. 이외에 박태초는 장동김문 상용과 김시걸 형제와 이중 사촌관계가 된다. 이에 대해 지방 문인과의 교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18) 김호겸은 백부 김수증의 둘째 아들 김창숙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자식 없이 일찍 죽었다. 나중에 또 형 김제겸의 둘째 아들 김준행의 양자로 들어갔다. 김호겸은 용인이씨 이세항(李世恒)의 딸과 혼인했다. 김호겸의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119) 『해동시선』(海東詩選)을 편찬한 민백순(閔百順, 1711~1774)은 민창수의 아들로써 김창집의 외손자이다. 『해동시선』에 김창집을 비롯한 장동김씨 구성원의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혼척관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김창집 아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첫째 아들 김제겸이 은진송씨 송준길의 아들 송병원(宋炳遠)의 딸과 혼인했으므로, 김제겸은 송병원의 아들 송요좌(宋堯佐, 1678~1723)와 처남관계가 되고, 송준길가와 혼인관계를 맺었다.<sup>120)</sup>

김제겸의 아들은 김성행(金省行, 1696~1722), 김준행(金峻行, 1701~1743),<sup>121)</sup> 김원행(金元行, 1702~1772),<sup>122)</sup> 김탄행(金坦行, 1714~1774), 김위행(金偉行, 1720~1752)이고, 사위는 전주이씨 이봉상(李鳳祥), 여흥민씨 민백중(閔百宗, 1712~1781)이다. 이봉상은 이민적(李敏迪, 1625~1673)의 증손으로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손자이고 이기지(李器之)의 아들이며, 민백중은 민시중(閔誓重, 1625~1677)의 손자로 민흥수(閔興洙)의 아들이다. 김제겸의 첫째, 둘째 아들은 모두 풍산홍씨 홍주원(洪柱元)-홍만용(洪萬容)계와 혼인을 했다. 구체적으로 김성행은 홍중연(洪重衍, 1666~1707)의 딸에게, 김준행은 홍중주(洪重疇, 1672~?)의 딸에게 장가갔다.

이처럼 김창집 집안은 노론 명문가 반남박씨 박동열계, 여흥민씨 민광훈계, 은진송씨 송준길계, 풍산홍씨 홍만용계, 전주이씨 이민적계와 긴밀한 혼인관계를 맺었다.

농암(農巖) 김창협 집안을 보면 김창협은 연안이씨 이단상의 딸과 혼인했다. 이희조·이하조 형제와 처남관계가 된다. 이단상의 사위들은 한산이씨 이행(李滄, 1647~1702), 김창협, 여흥민씨 민진후(閔鎭厚, 1659~1720), 송징오, 연일정씨 정제두(鄭齊斗, 1649~1736)의 아들 정후일(鄭厚一, 1671~1741) 등이므로 김창협은 그들과 동서지간이 된다.

김창협의 아들은 김승겸(金崇謙, 1682~1700)이고, 사위는 달성서씨 서종유(徐宗愈), 덕수이씨 이태진(李台鎭, 1674~1748), 해주오씨 오진주

---

120) 송병원의 조카 송요화(宋堯和, 1682~1764)는 상용과 김성달(金盛達)의 딸 호연재(浩然齋) 김씨에게 장가갔다. 이처럼 송준길가는 장동김씨 상헌과 상용과와 긴밀한 혼인관계를 맺었다.

121) 김준행은 숙부 김호겸의 양자로 들어갔다. 즉 김수증의 집안으로 간 것이다.

122) 김원행은 김창협의 아들 김승겸의 양자로 들어갔다. 즉 ‘김창협→김승겸→김원행’으로 김창협 계열의 대를 이어준 것이다.

(吳晉周, 1680~1724), 반남박씨 박사한(朴師漢), 기계유씨 유수기(兪受基)이다. 사위들의 족보를 보면 각각 ‘서문중(徐文重)-서종유’, ‘이식-이신하-이여(李畬)-이태진’, ‘오두인-오진주’, ‘박태적(朴泰迪)-박필정(朴弼鼎)-박사한’, ‘유석-유명홍(兪命弘)-유수기’로 이어진다.

김송겸의 혼인관계를 보면 그는 밀양박씨 박권(朴權, 1658~1715)<sup>123</sup>의 장녀와 결혼했다. 이신하의 손자 이기진(李箕鎭, 1687~1755)과 동서지간이다.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사촌형제 김제겸의 셋째 아들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을 양자로 삼았다.

이처럼 김창협 집안은 연안이씨 이단상계, 달성서씨 서문종계, 덕수이씨 이신하계, 해주오씨 오두인계, 반남박씨 박태적계, 기계유씨 등과 혼인관계를 이루었다.

김창흡의 집안을 보면 김창흡은 경주이씨 이세장(李世長, 1628~1668)의 딸과 혼인했다. 이세장의 부친은 월사(月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아들인 이시술(李時術, 1606~1672)이고, 모친은 풍산홍씨 홍영(洪靈, 1584~1645)의 딸이다. 아우는 귀천(龜川) 이세필(李世弼, 1642~1718), 이세희(李世熙, 1645~1671)<sup>124</sup>이고, 아들은 이성좌(李聖佐)이며, 사위는 김창흡, 풍천임씨 임유하(任由夏, 1669~1692)이다. 경주이씨 집안은 서인이 노·소로 분열된 뒤에 ‘이세장-이성좌’ 집안은 노론 쪽으로, ‘이세필-이태좌(李台佐)’ 집안은 소론 쪽으로 갈라졌지만, 외가 쪽 ‘홍영-홍주원-홍만용’ 집안, 처가쪽 ‘김익희(金益熙)-김만증(金萬增)’ 집안, 사위 쪽 ‘김수항-김창흡’ 집안, ‘임진원(任鎭元)-임유하’ 집안은 모두 노론 세력이다.

김창흡이 장가간 지 얼마 안 된 뒤에 장인 이세장이 죽었기 때문에 김창흡과 처가의 관계는 처남 이성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23) 박권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定界碑) 사건에서 접반사(接伴使)로서 청나라 목극등(穆克登)과 변경 문제를 협의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백두산 정계비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124) ‘이세희-이양좌(李良佐, 1663~1699)’ 부자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성좌의 사위는 서명원(徐命遠), 안석헌(安錫憲), 구경훈(具景勳), 심박(沈鑠), 윤경철(尹敬哲) 등이 있다. 이성좌의 딸들은 김창흡이 은거하는 벽계 장씨 마을(張家村)에 찾아와 모이곤 했고, 김창흡은 조카 서씨부(徐氏婦: 서명원의 부인)가 아플 때 가서 도와주기도 했다.<sup>125)</sup> 따라서 이성좌를 통해 달성서씨 ‘서종윤(徐宗胤)-서명원’ 집안은 김창흡과 척분관계를 맺게 된다. 순흥안씨 안석헌 집안도 마찬가지다. 안석헌은 안후(安垺)의 손자이자 안중정(安重鼎)의 아들이다. 안중정의 아우는 안중겸(安重謙), 안중진(安重晉), 회와(悔窩) 안중관(安重觀, 1683~1752)이다. 따라서 김창흡과 순흥안씨 안중겸, 안중관 등의 교유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안중관의 아들 삼교(霄橋) 안석경(安錫敬, 1718~1774)은 김창협(金昌協)의 외손녀이자 박사한(朴師漢)의 딸과 혼인했다. 이렇듯 순흥안씨와 장동김문의 척분관계는 후대까지 이어진다. 그들이 농·연 문학의 영향을 받고 김창협과 김창흡을 높이 평가한 것도 이런 관계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김창흡의 아들은 김양겸, 김치겸, 김후겸이고, 사위는 해평윤씨 윤세량(尹世亮, ?~1697), 전의이씨 이덕재(李德載, 1683~1739)이다. 사위의 족보를 보면 각각 ‘윤두수(尹斗壽)-윤훤(尹暄)-윤원지(尹元之)-윤평(尹坪)-윤세량-윤광(尹洸)’, ‘이만웅(李萬雄)-이징하(李徵夏)-이덕재’로 이어진다. 여기서 해평윤씨는 윤두수(尹斗壽, 1533~1601) · 윤근수(尹根壽, 1537~1616) 형제대부터 장동김문과 세교(世交)를 맺은 경화 세족이다. 윤평은 김창흡과 사돈관계이고, 윤세량의 양자 윤광은 김창흡의 외손자이자 문인이다.<sup>126)</sup> 윤세량은 윤세기(尹世紀, 1647~1712) · 윤세수(尹世綏) 형제와 6촌형제가 된다. 윤세수의 아들 윤식(尹湜, 1680~1719), 윤흡(尹滄, 1689~1753)<sup>127)</sup>은 김창흡의 문인이다.

125) 金昌翁, 「祭從甥女徐氏婦文」, 『三淵集拾遺』 권26, 한국문집총간 167, 160면. “且昔之所救汝者非他, 惟吾與爾大人, 晝夜其側. 而汝之不欲須與離捨者, 豈非吾與爾大人乎? (….) 尋念汝姊妹從我眷聚於壁溪 張家村, 正在此時. 今其濯輓之澗, 摘梨之谷, 莫不森然見在. 他日還山, 悲又有不可避者.”

126) 윤평은 윤세량의 생부이다. 윤세량은 백부 윤돈(尹墩)의 양자로 들어갔다. 윤광의 생부는 윤세량의 형 윤세헌(尹世憲)인데, 윤세량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윤광이 그의 양자로 들어갔다.

전의이씨도 이만웅(李萬雄, 1620~1661)부터 장동김문 집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징하의 형 이징명(李徵明, 1648~1699)은 김창협과 친한 사이였으며, 이징명의 아들 이덕수(李德壽, 1673~1744)의 자도 김창협이 지어준 것이다. 이덕수는 김창흡의 사위 이덕재와 사촌관계인데, 김창흡은 이덕재를 통해 이덕수에게 불교경전 『능엄경』(楞嚴經) 주석을 전해주기도 하였다.<sup>128)</sup> 그만큼 노소가 완전히 분기되기 전 두 집안은 친밀하게 교류했다.

김창흡의 사자(嗣子)는 맏아들 김양겸(金養謙, 1675~1728)이다. 그는 덕수이씨 이자(李蓄)의 딸과 혼인했다. 이자는 이식의 손자이고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 1625~1689)의 아들이며 수촌(睡村) 이여와 사촌관계이다. 김창열, 김창협, 삼연 모두 덕수이씨 ‘이식-이신하/이단하’ 계열과 밀접한 혼척관계를 맺은 만큼 장동김문과 덕수이씨 집안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김창흡이 만년에 손녀사위를 가르쳤으므로 김양겸 자식의 혼인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양겸의 아들은 김범행(金範行), 김간행(金簡行), 김화행(金和行)이고, 사위는 기계유씨 유언전(兪彦銓), 남양홍씨 홍익대(洪益大), 해평윤씨 윤만동(尹萬東, 1694~1746), 창원황씨 황심(黃心)이다.

아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첫째 아들 김범행은 평산신씨 신석화(申錫華)의 딸과 혼인했다. 둘째 아들 김간행은 계부 김후겸의 양자로 들어갔고 한산이씨 순암(順菴) 이병성(李秉成, 1675~1735)의 딸과 혼인했다. 셋째 아들 김화행은 김수증의 손자 김퇴겸(金退謙, 1700~1719)의 양자로 들어갔고, 기계유씨 유언철(兪彦哲, 1687~1744)의 딸과 혼인했다. 사위

127) 윤식은 윤세기의 양자로 들어갔다. 윤급(尹汲, 1697~1770)은 윤식, 윤흡의 아우이다. 그는 김창협이 뽑아준 당송팔대가 고문(古文) 선집 『팔대가문십선』(八大家文十選)을 필사하였다. 윤급이 농암의 선집을 필사하게 된 동기는 두 가문 사이에 맺혀진 혼인관계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안대회, 「八大家文十選[精騎集]과 唐宋八大家 古文의 수용양상」, 『八大家文十選』, 서울: 학자원, 2015 참조.

128) 金昌翁, 「與李德載」, 『三淵集』 권20, 한국문집총간 165, 412면. “『楞嚴』中交解, 草草錄去, 傳與仁老可也.” ‘인로’는 이덕수의 자이다.

들의 족보를 보면 각각 ‘윤두수-윤방(尹昉)-윤신지(尹新之)-윤구(尹坵)-윤세휴(尹世休)-윤하명(尹夏明)-윤득신(尹得莘)-윤만동’, ‘홍명구(洪命耇)-홍중보(洪重普)-홍득기(洪得箕)-홍치상(洪致祥)-홍태유(洪泰猷)-홍익대’, ‘황건(黃鍵)-황태하(黃泰河)-황심’으로 이어진다. 유언전, 윤만동은 김창흡의 손녀사위이자 문인들이다. 홍태유(洪泰猷, 1672~1715)가 죽은 뒤에 그의 유고 『내재집』(耐齋集)을 산정(刪定)한 사람이 바로 김창흡이다.<sup>129)</sup> 홍태유는 김창흡의 사위 이덕재와 처남관계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창흡 집안은 평산신씨, 한산이씨, 기계유씨, 해평윤씨 집안과 대대로 교유하였다.

김창흡의 둘째 아들 김치겸은 종사(宗祀)를 맡은 백부 김수증의 아들 김창국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는 반남박씨 박태정(朴泰定, 1640~1688)의 딸과 혼인했다. 아들은 김문행(金文行, 1701~1754)이고, 사위는 전주이씨 이강중(李剛中), 이규현(李奎賢), 과평윤씨 윤경성(尹敬性)이다. 이강중은 정암(正庵) 이현익(李顯益, 1678~1717)의 아들이다. 김창흡은 이현익과 어유봉의 인물론 논쟁을 중재하기도 하고,<sup>130)</sup> 이현익이 죽은 뒤에 제문도 지어주었으며,<sup>131)</sup> 이강중이 김창흡에게 선집(先集)에 들어갈 서문을 부탁하기도 하였다.<sup>132)</sup>

김창흡의 셋째 아들 김후겸은 숙부 택재(澤齋) 김창립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는 송시열의 현손 불훤당(不諛堂) 송일원(宋一源, 1664~1713)의 딸과 결혼했다. 김창흡 집안에서 은진송씨 송시열 계열과 직접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유일한 사례이다. 김창흡 집안은 송시열 계열보다 송준

129) 李宜顯, 「耐齋集序」, 『陶谷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81, 377면. “今其遺胤取其亂稿曾經三淵刪定者, 付之劄剛氏, 以傳通邑大都.”

130) 金昌翁, 「答純行」, 『三淵集』 권20, 한국문집총간 165, 416~417면. “昨間舜瑞與李仲謙各以論辨文字如麻束者, 埤益於丌前. 目眊神眩, 尙未討頭緒, 係是十分義理, 其孰爲堂上人乎? 早晚批鑿去, 試看林如何?”

131) 金昌翁, 「祭李仲謙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1면.

132) 金昌翁, 「答李剛中」,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408면. “先集閱過三四卷, 老眼生眊, 量力徐覽, 恐卒業未易也. 蓋觀其經義剖析處, 碎毫入微, 盛水不漏, 令人欽嘆, 亦恨並世而相悉者淺也. 至其精奧, 或有未領會者, 何敢遽加以丹鉛乎? 詩稿擬欲著手, 而猶未暇矣. 序文恐非衰力可辦, 且未閱全稿之前, 尤何敢生意也.”

길 계열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 김창흡 집안을 중심으로 혼인관계와 교유관계를 살펴보았다. 김창흡 집안은 경주이씨, 전의이씨, 해평윤씨, 덕수이씨, 반남박씨, 은진송씨, 기계유씨, 남양홍씨, 전주이씨를 비롯한 경화 세족과 밀접한 혼인관계, 교유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는 이후 정치적 연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가재(老稼齋) 김창업 집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가재 김창업 집안을 보면 김창업은 전주이씨 익풍군(益豐君) 이숙(李漣)의 딸과 혼인했다. 임원군(林原君) 이표(李杓, 1654?~1724)와 처남관계이다. 아들은 김우겸(金祐謙, 1676~1709), 술경재(述耕齋) 김언겸(金彦謙, 1686~1738), 증소(檜巢) 김신겸(金信謙, 1693~1738)이고, 사위는 풍양조씨 학암(鶴巖)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이다. 사위의 족보를 보면 ‘조상정(趙相鼎)-조인수(趙仁壽)-조문명-조재호(趙載浩)’로 이어진다. 조문명의 형 조경명(趙景命, 1674~1726)은 상용과 김시걸의 사위이다. 조문명 집안은 영조대의 탕평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sup>133)</sup> 18세기 전반까지 노소론 집안을 막론하고 혼척관계나 교유관계를 맺었다.<sup>134)</sup> 이처럼 장동김문 청음파와 상용파는 풍양조씨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김창업 아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김우겸은 고령신씨 신익상(申翼相, 1634~1697)의 손자인 신숙(申瀾, 1658~1713)의 딸과 혼인했고, 김언겸은 안동권씨 권성(權楮, 1653~1730)의 딸과 혼인했으며, 김신겸은 전주이씨 소재(疎齋)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딸과 결혼했다. 이이명의 아들 일암(一菴) 이기지(李器之, 1690~1722)가 김신겸과 처남관계이다. 김우겸, 김언겸, 김신겸은 김창흡의 조카이자 문인이다. 김창흡은 권변

133) 나중에 김언겸은 처남 조문명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탕평책 주장을 강렬하게 비난하였다. 金彦謙, 「與趙文命」, 『述耕齋遺稿』,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청구기호: 3428-455). “所謂蕩平之說, 台亦參涉乎? 大非所望於高明者也. 蓋以誣爲實, 指奸爲忠, 而掩護者豈是聖世事耶?”

134) 풍양조씨 가문의 서울 정착에 대해서는 오세현, 「조선중기 풍양조씨 증장령공파의 도봉구 정착과 청교조씨」, 『인문과학연구』 30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9~37면 참조.

(權忭, 1651~1726)<sup>135</sup> · 권성 · 권수(權慥, 1656~1718) 형제, 신숙 집안, 이이명 등과 교유관계를 맺었고, 그들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김창흡은 권성을 통해 북관 변경에 대한 청나라의 동향을 알아보기도 하고, 이이명을 통해 조선의 정국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포음(圃陰) 김창즙 집안을 보면 김창즙은 남양홍씨 홍처우(洪處宇, 1648~1693)의 딸과 혼인했다. 홍처우는 홍명일(洪命一, 1603~1651)의 아들로, 조문명의 조부 **조상정**, 홍주원의 아들 **홍만희**(洪萬恢, 1643~1709)와 처남관계가 된다. 김창흡의 문인 **운와**(雲窩) **홍중성**(洪重聖, 1668~1735)이 홍만희의 아들이다.

아들은 김용겸(金用謙, 1702~1789)이고, 사위는 전주이씨 **병산**(屏山)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의 아들 **이망지**(李望之, ?~1707)이다. 이망지는 서하(西河) **이민서**(李敏敍, 1633~1688)의 손자이고 **한포재**(寒圃齋) **이건명**(李健命, 1663~1722)의 조카이다.

택재(澤齋) 김창립 집안을 보면 김창립은 전주이씨 이민서의 딸과 혼인했다. 김창립이 아들 없이 죽었으므로 김창흡의 셋째 아들 김후겸이 양자로 들어갔다. 사위는 연안이씨 **매간**(梅澗) **이익상**(李翊相, 1625~1691)의 손자로, 이광조(李光朝, 1655~?)의 아들 **이연신**(李彦臣, 1682~1745)이다. 김창립은 이관명 · **이건명** 형제와 처남관계이고,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아들 **남학명**(南鶴鳴, 1654~1722)과 동서지간이다. 이처럼 노론 세력인 장동김씨, 전주이씨 집안은 소론 세력인 의령남씨 집안과 긴밀한 혼척관계였던 것이다.

이상 장동김문 수, 창, 겸 항렬을 중심으로 장동김문의 혼인관계와 교유관계를 살펴보았다. 김창흡 교유의 주축은 장동김문과 혼인관계가 있는 경화 세족이다. 통혼했던 경화 세족 가운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크게 유력했던 가문은 여흥민씨, 연안이씨, 덕수이씨, 전주이씨, 은진송씨, 기계유씨, 평산신씨, 해평윤씨, 해주오씨, 남양홍씨, 풍산홍씨 등이 있

---

135) 권변은 상용과 김수빈(金壽賓, 1626~1676), 김성도(金盛道, 1662~1707)와 사돈관계이고, 김수빈의 아들 김성익(金盛益, 1663~1715)과 처남관계이다. 따라서 안동권씨와 장동김씨는 깊은 척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

이외에 임천조씨 ‘조희일(趙希逸)-조석형(趙錫馨)-조경망(趙景望)-조정만(趙正萬)’ 집안, 함평이씨 ‘이초기(李楚奇)-이지두(李之斗)-이몽상(李夢相)’ 집안, 나주임씨 ‘임일유(林一儒)-임영(林泳)’ 집안, 함안조씨 ‘조봉원-조해(趙楷)-조영복(趙榮福)’ 집안, 영일정씨 ‘정태구(鄭台耆)-정필동(鄭必東)-정언환(鄭彦煥)’ 집안, 안동권씨 ‘권기(權埴)-권두추(權斗樞)-권익룡(權益隆)’ 집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천조씨 집안을 보면 조희일(趙希逸, 1575~1638)은 김상용의 아들 김광현(金光炫, 1584~1647)의 딸<sup>136</sup>과 혼인했다. 그러므로 조석형(趙錫馨, 1598~1656)은 김광현의 외손자가 되고, 조경망(趙景望, 1629~1694)은 김광현의 외증손자가 된다. 상용과와 임천조씨 사이의 척분으로 상헌과 자체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유관계를 맺었다. 이는 『문곡집』이나 『삼연집』에 수록되어 있는 조경망·조정만 부자와 관련된 글에서 확인된다. 조희일의 형 조희진(趙希進, 1579~1644)의 손자 조원기(趙遠期, 1630~?)가 김성후(金盛後, 1659~1713)의 장인이고, 증손자 조정서(趙正緒, 1664~1714: 조현기趙顯期의 아들)가 김성최(金盛最, 1645~1713)의 딸과 혼인한 관계로, 조희진 집안도 장동김문과 척분을 맺게 된다. 이 때문에 김창흡이 조정서에게 묘지명을 써주고 그의 아들 조명리(趙明履, 1697~1756)를 문인으로 삼은 것이다.<sup>137</sup>

또한 임일유(林一儒, 1611~1684)가 김광현의 외증손자이자 조석형의 딸과 혼인한 관계로 임천조씨와 나주임씨, 장동김씨 사이에 또 혼척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김창흡 집안이 조정만(趙正萬, 1656~1739), 조성기(趙聖期, 1638~1689)를 비롯한 임천조씨, 창계(滄溪) 임영(林泳, 1649~1696)을 비롯한 나주임씨와 밀접한 교유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런 척

---

136) 김광현의 아들로는 김수인(金壽仁, 1608~1660), 김수민(金壽民, 1623~1672), 김수빈(金壽賓, 1626~1676)이 있다. 김창흡 집안은 이쪽 계열 사람과 관계가 더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137) 조희진의 손자이자 조시형(趙時馨)의 아들로 구봉(九峯) 조원기(趙遠期, 1630~1680), 일봉(一峯) 조현기(趙顯期, 1634~1685), 줄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 1638~1689), 조암(槽巖) 조창기(趙昌期, 1640~1676), 조형기(趙亨期)가 있다. 조정서는 조현기의 아들이다.

분 관계와도 크게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함평이씨 집안의 경우를 보면 이초기(李楚奇)가 조희진의 사위인 관계로 함평이씨는 간접적으로 장동김문과 관계를 맺게 된다. 김창흡은 젊은 시절부터 이지두의 아우 이지성(李之星)과 교유하였다. 그를 위해 「이씨명원기」(李氏名園記)를 지어주기도 하였다.<sup>138)</sup> 뿐만 아니라 김창흡의 문인 이몽상(李夢相, 1667~?)은 안동김문 향파(鄕派)인 소산파(素山派) 김영(金瑛, 1475~1528)<sup>139)</sup>의 후손 김하성(金夏成)의 딸과 혼인했다.<sup>140)</sup> 김하성은 김창흡이 서문을 지어준 족인(族人) 채진자(采眞子) 김성갑(金聖甲, 1672~1706)의 백부이다.<sup>141)</sup> 경과인 김창흡 집안은 소산파 김영의 후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142)</sup> 이는 김수증의 「화산기」(花山記)와 김창흡의 「영남일기」에 잘 드러난다. 따라서 함평이씨와 장동김씨 경과·향파 사이에 밀접한 혼척관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함안조씨의 경우를 보면 김창흡은 어릴 적에 조봉원에게 수학하였으

---

138) 金昌翁, 「李氏名園記」, 『三淵集拾遺』 권23, 한국문집총간 167, 101면. 이 글은 1682년경에 지어진 듯하다.

139) 경과와 향파에 대해서는 이경구, 앞의 책, 18~29면 참조.

140) 함평이씨는 안동김씨 소산파 김하성 집안과 밀접한 혼척관계가 있다. 이몽상 이외에 김하성의 조카 김치갑(金致甲)도 이훈상(李勛相: 恥菴 李之濂의 아들임)의 딸과 혼인했고, 김치갑의 처남 가운데 이현상(李顯相: 이지성의 아들임)도 있다. 이현상과 이몽상은 사촌형제 관계이고, 김치갑과 김성갑은 사촌형제 관계이다. 김창흡은 유명악에게 편지를 보내 결혼을 앞둔 이몽상을 데리고 금강산을 간 것이 부당하다고 유명악을 꾸짖기도 했다. 金昌翁, 「與俞命岳」, 『三淵集』 권20, 한국문집총간 165, 410면. “若李君則羔鴈有期, 大禮將愆, 渾舍驚愕, 若遭家變. 太半歸咎於君四之招引, 餘波之及乎拙身, 亦且不少. 君豈念及於茲乎?”

141) 이 서문은 ‘김시중유고서’(金時中遺稿序)라는 제목으로 『三淵集拾遺』 권23, 한국문집총간 167, 99~100면에 수록되어 있다. ‘시중’은 김성갑의 자이다. 『채진자유고』(采眞子遺稿)의 첫 부분에는 제목이 ‘채진자유고서’(采眞子遺稿序)로 되어 있는데, 글씨체를 보면 김창흡의 필적인 듯하다. 작성 연도는 기축년(1709) 하완(下浣)이다. 金昌翁, 「采眞子遺稿序」, 『采眞子遺稿』,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 奎5805). “歲崇禎後己丑下浣三淵老翁序.”

142) 김성갑의 부친 김하영(金夏英)의 부인이 김광찬(金光燦)의 사위인 이정악(李挺岳, 1610~1674)의 딸, 즉 김광찬의 외손녀이다. 그래서 김하영은 이세백과 처남관계가 되고, 김성갑도 이의현과 사촌형제가 된다. 이렇게 따지면 김창흡 집안은 김성갑 집안과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며, 조봉원이 죽었을 때 김창흡 형제들이 가마례를 행하였다.<sup>143)</sup> 이로 인해 김창흡 집안은 조봉원 집안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조봉원의 아들은 조근(趙根, 1631~1690), 조해(趙楷, 1639~1699)이고, 손자는 조영기(趙榮期), **조영복(趙榮福, 1672~1728)**, 조영록(趙榮祿), 조영제(趙榮禔, 1678~1704),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祏, 1686~1761)** 총 다섯 명이 있다. 이 중에서 김창흡은 조영복과 가장 친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영복의 부탁으로 조봉원에게 묘갈명을, 조영제에게 묘지명을 써주기도 하였다.<sup>144)</sup>

영일정씨의 경우를 보면 김창흡이 정태구(鄭台耆, 1626~1702)에게 묘갈명을 써주고, 정필동(鄭必東, 1653~1718)에게 신도비명을 써줄 만큼 그 관계가 두터웠다.<sup>145)</sup> 또한 정필동의 아들 정언환(鄭彦煥)은 김창흡의 문인이다.

안동권씨의 경우를 보면 권기(權埴)는 조희일의 사위로, 김광현의 외손녀사위가 된다. 권두추(權斗樞, 1632~?)의 사촌형제 권두장(權斗章)은 이정악의 딸과 혼인했기 때문에 김광찬의 외손녀사위가 된다. 이처럼 안동권씨는 장동김문과 혼척 관계에 있다. 권두추는 또 춘소(春沼) 신최(申最, 1619~1658)의 사위이므로, 그의 아들 권익룡은 신최의 외손자가 된다. 평산신씨와 혼척관계를 맺은 장동김씨는 간접적으로 안동권씨와 다시 관계를 맺은 셈이다. 그러므로 김창흡은 권익룡과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여 권익룡을 위해 1711년 「운근정기」(雲根亭記), 「풍아별곡서」를 지어주기도 하였고 나중에 「권대숙 제문」(祭權大叔文)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권익룡을 통해 일본의 동향을 알아보아 백씨 김창집에게 일본을 방어하는 방도를 알려주기도 하였다.<sup>146)</sup>

143) 金昌翁, 「同知中樞府事趙公墓碣銘并序」,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57면. “昌翁幼從兩兄後, 嘗一趨隅而仰德宇矣. 尙記其據几大坐, 櫬楚肅諸生, 凜乎霜雪逼背. 既長而見兩兄所誦慕終始不忘, 及先生捐館, 制服而哭又甚哀.”

144) 金昌翁, 「趙榮禔墓誌銘并序」, 『三淵集』 권27, 한국문집총간 166, 19면; 「同知中樞府事趙公墓碣銘并序」,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57면.

145) 金昌翁, 「兪知中樞府事鄭公墓碣銘并序」,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53~54면; 「慶州府尹鄭公神道碑銘并序」,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49면.



이상 경화 세족을 중심으로 김창흡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리했다. 김창흡과 교유했던 경화 세족은 숙종 대 유력한 명문으로서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척관계를 맺었다. 김창흡은 그들과의 교유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숙종 대 정국 관련 정보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장동김문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김창흡은 그들을 통해 국제적 형세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유숙기, 박필주 등 김창흡의 문인들이 김창흡의 인물성동론을 계승하여 낙론학파의 주역이 되었다. 다음으로 지방 문인과의 교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지방 문인

지방 문인과의 교유는 김창흡의 활동 시기에 따라 지역적 특징을 지닌다. 크게 보면 영암 시기와 기사환국 때 전라도 문인과의 교유, 충청도 여행 때 충청도 문인과의 교유, 설악산 은거기 강원도 문인과의 교유, 북관 여행 때 함경도 문인과의 교유로 나눌 수 있다.

김창흡과 교유한 전라도 문인으로는 영암에 거주한 연주현씨(延州玄氏) 현징(玄徵, 1629~1702)·현약호(玄若昊, 1659~1709) 부자와 반남박씨(潘南朴氏) 박태초(朴泰初, 1646~1702)·박필헌(朴弼憲, 1666~1696 이전) 부자, 장성(長城)에 거주한 광산김씨(光山金氏) 김극광(金克光, 1653~1724), 의성김씨(義城金氏) 김중엽(金重曄, 1649~1684), 순창(淳昌)에 거주한 울산김씨(蔚山金氏) 김기하(金器夏, 1649~1701)·김희서(金羲瑞, 1675~1742) 부자 집안과 원주변씨(原州邊氏) 변시백(邊是伯, ?~1699)·변억(邊億) 부자,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시태(安始泰, 1640~1719) 등이 있다.

146)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58면. “頃見杆城, 以南虞爲說. 嶺東九邑, 與倭只隔一帶水宗, 勢甚單薄. 而一朝捨船踰嶺, 其長驅造都之勢, 迅急於東萊, 殆減半程, 誠可寒心. 而朝家太不以爲事, 謂宜於關陘等地, 設爲鎮堡. 多少規畫之道, 渠亦有胸中草本. 而無由上徹廟堂, 欲令弟因往侍時諍稟. 而今未果往, 故聊爲上聞爾.” ‘간성’은 당시의 간성군수 권익룡을 가리킨다.

현징 집안과의 교류는 김수항의 영암 유배기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귀양살이를 하던 김수항이 3년 동안 영암 월출산 구림리에 있는 현징의 집에 묵었으며, 현징은 기사환국 때 진도에서 사사당한 김수항의 영구를 호송해주기도 하였다.<sup>147)</sup> 이런 관계로 인해 김창흡은 현씨 가문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고, 1694년 겨울 멀리 찾아온 현약호에게 「삼벽당 기문」(三碧堂記)을 지어 안동김문과 연주현씨 두 가문 사이의 두터운 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약호의 아들 현수중(玄守中, 1682~1733)은 김창흡, 김창협이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박태초 집안과의 교류는 김수항의 영암 유배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두 집안은 이전부터 이미 관계를 맺은 듯하다. 박태초의 부친은 박세휘(朴世彙, 1625~1659)이고 모친은 남원윤씨(南原尹氏) 윤형성(尹衡聖, 1608~1676)의 딸이다. 안동김씨 상용과 김시걸과 김시보 형제의 모친도 윤형성의 딸이므로 박태초는 김시걸 형제와 이종사촌관계가 된다. 또한 박태초는 임영을 비롯한 나주임씨 집안과 두터운 혼척관계를 맺었다.<sup>148)</sup> 따라서 반남박씨, 나주임씨 집안과 두터운 관계가 있는 김창흡 집안이 박태초를 몰랐을 리가 없다. 다만 영암 유배기에 그들의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태초의 집이 현징의 이웃집이었기 때문에<sup>149)</sup> 영암 유배기에 두 집안 사이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그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던 듯하다. 이는 김수항이 진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현징의 집에 모여 정을 나누는 장면<sup>150)</sup>을 통해 짐작

147) 俞肅基, 「題玄敬之命直所藏農淵二先生遺墨後」, 『兼山集』 권7, 한국문집총간속 74, 317~318면. “玄君敬之於吾師門, 有四世峩洋之契, 百年羹牆之慕. 盖自文谷相國之謫居鳩林, 敬之之曾王考竹林公暨王考三碧公, 實爲湘潭主人. 而及相國之再謫沃州, 受後命而返樞也, 公之父子所以扶護周旋於禍故蒼黃之際者, 大見歎誠. 使吾先師兄弟, 常懷次骨之感.”

148) 임영의 부친 임일유(林一儒, 1611~1684)는 반남박씨 박호(朴濠, 1586~1667: 박태초의 조부 박정(朴滄과 형제관계)의 딸과 혼인했고, 박태초는 임영의 당숙 임지유(林之儒)의 딸과 혼인했다. 이런 혼척관계로 박태초의 아들 박필현이 임영에게 수학했고, 박필현이 죽은 뒤에 임영이 그의 유고에 발문도 지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박태초는 임영의 가장을 쓰기도 했다.

149) 金昌翁, 「題朴彝仲遺稿後」, 『三淵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65, 515면. “昔歲乙卯余隨家大人, 竄居于鳩林, 與彝仲家接隣.” ‘이중’(彝仲)은 박필현의 자이다.

할 수 있다. 이외에 김창흡은 1718년경에 박필현의 유고에 발문을 지어 주기도 했다.<sup>151)</sup>

김극광의 자는 현보(顯甫)이고 호는 원관현(遠觀軒)이다. 김극광과의 교유는 약관 시기 임영을 따라 북학할 무렵에 시작된 듯하며<sup>152)</sup> 영암 유배기에 장성을 지날 때도 김극광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나중에 김극광은 이웃 김중엽과 김창협을 찾아가 공부했다. 1716년 김창흡은 그에게 「원광정 기문」(遠觀亭記), 「원향정 기문」(遠香亭記)을 지어주었다.<sup>153)</sup> 원집과 습유에 수록된 편지를 보면 두 사람이 만년까지 긴밀한 교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유관계는 김창흡의 6대손 김매순까지 이어진다.<sup>154)</sup>

김기하의 자는 용구(用九)이고 거주지는 장성이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증손이자 송시열의 문인이다. 김수항이 그에게 보낸 편지의 연도와 그가 김창립의 만시를 지은 사실로 보면 장동김문과 일찍 교유관계를 맺은 듯하다.<sup>155)</sup> 김기하가 기사환국 때 의리를 지키면서 김수항의 영구를 호위하였기 때문에 육창 형제는 그와 두터운 관계를

---

150) 金壽恒, 「己巳二月二十五日, 到鳩林 玄參奉家中火, 阻雨仍留. 玄家外堂號爲竹林亭, 余曾作記者也. 月山面目, 對之依然. 堂中有映山紅一盆冬柏一盆方盛開, 映山紅開花非其時, 而就暖滋養, 花艷照耀可愛. 偶值吾行, 若相期者然, 亦可異也. 主人設酒食以慰之, 曹一遵朴泰初及里中諸人, 皆來會作穩. 十年之後, 復到此地, 與舊時知友把酒譚敘, 眞可謂相對如夢寐也, 人事之不可料者有如此. 余口占一絕, 示諸人云. 己巳, 『文谷集』 권6, 한국문집총간 133, 124면.

151) 金昌翁, 「題朴彝仲遺稿後」, 『三淵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65, 515면.

152) 申暲, 「處士遠觀軒金公墓表」, 『直菴集』 권15, 한국문집총간 216, 403면. “弱冠之年, 藝業蔚然夙成, 而尤長於詩, 偕滄溪 林公泳北學, 從農巖 金公昌協、三淵 金公昌翁共業, 每作科體文字, 就正於文谷 金公壽恒、瑞石 金公萬基, 則兩公亟加賞譽曰: ‘不意蘆嶺之南, 有此郢中之音也.’”

153) 두 기문은 다 김극광의 원광정에 지은 글이다. 김극광은 일찍감치 김창흡에게 글을 부탁했는데, 12여 년 뒤에야 김창흡이 글을 완성하였다. 주제 ‘원광’을 ‘원향’으로 잘못 기억해서 원향을 주제로 삼아 「원향정 기문」을 지었는데, 잘못된 것을 깨달은 뒤에 다시 주제 ‘원광’을 가지고 「원광정 기문」을 지었다. 金昌翁, 「與金顯甫 丙申」, 『三淵集拾遺』 권16, 한국문집총간 166, 536~537면.

154) 김매순은 「원관현집 서문」(遠觀軒集序)을 지었다.

155) 金器夏, 『覺齋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46-가1798), 17면, 26~28, 71~74면.

맺게 된다. 이는 그가 육창 형제와 주고받은 편지, 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156)</sup> 특히 김창흡은 김기하가 위중할 때 친히 돌봐주고, 죽은 뒤 영구를 호송하며 가마례(加麻禮)까지 하였다.

김기하가 죽은 뒤에 울산김씨 집안과의 교류는 후대로 이어진다. 김기하의 아들 김희서(金羲瑞, 1675~1742)와 김우서(金禹瑞)는 김창흡의 문인이다. 설악산 은거기에 김창흡을 모신 유마거사(維摩居士) 노비 최금(崔金)도 김희서가 보내준 자기 집안의 노비였다. 또한 김희서가 김창흡의 아들, 조카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김창흡이 타계한 뒤에도 두 집안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7)</sup>

변시백 집안, 안시대 집안과의 교류는 김수항의 진도 유배 및 사사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시백의 자는 경흥(慶興)이다. 충신 변희일(邊希一)의 손자이고 변순(邊巡)의 아들이다.<sup>158)</sup> 변시백은 당시에 진도 군수(珍島郡守)였는데, 진도에 뒤늦게 온 김수항의 아들들이 김수항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때문에 육창 형제는 그 은혜를 깊이 명심하며 변씨 가문과 깊은 교류 관계를 맺었다.<sup>159)</sup> 김창흡은 변시백이 죽은 뒤에 제문을 지어주고, 편지로 변시백의 형제 변시척(邊是陟)·변시길(邊是吉), 아들 변억(邊億), 변집(邊僣)을 위로하였다.

안시대의 자는 태래(泰來)이다. 안시대는 김수항이 후명(後命)을 받은 뒤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사약을 가진 의금부 병사보다 앞서 도착해 김수항을 배알하였고,<sup>160)</sup> 또 김수항의 유언에 따라 육창 형제를 도와 김수항의 영구를 호위하여 양주까지 갔다.<sup>161)</sup> 이런 은혜를 기억하여 김창

156) 金器夏, 『覺齋遺稿』, 28~37면.

157) 金羲瑞, 『喚菴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46-가1798), 126~133면. 김희서의 『환암유고』는 김기하의 『각재유고』 뒤에 부록의 형식으로 붙어 있다.

158) ‘人物’ 조목, 『新昌縣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奎17385).

159) 閔百順, 「記邊慶興是伯事」, 『安東金氏文獻錄』(天), 313면 참조.

160) 李宜顯, 「健元陵參奉安公墓誌銘并序」, 『陶谷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81, 191면. “安公泰來喟曰: ‘忠賢殲矣, 國其替矣. 彼郭亮, 朱震何人哉? 吾其夷居, 不爲之盡. 遂星夜兼程, 前緹騎拜金公.’”

161) 김창흡이 찬한 김수항의 「임명일기」(臨命日記)에 안시택에게 부탁한 김수항의 유언이 보인다. 金昌翁 撰, 「臨命日記」, 『安東金氏文獻錄』(地), 297면

흡은 1719년 안시태가 죽을 때 친히 경상도 안음(安陰)에 가서 조문하고 제문도 지었다.

이외에 김창흡은 전라도 담양에 거주하고 있던 제주양씨와도 교류하였다. 김창흡은 자신의 선대와 관계가 있었던 소쇄옹(瀟灑翁) 양산보(梁山甫, 1503~1557)의 후대 제주양씨 양택지(梁擇之, 1650~1711)·양익룡(梁翼龍) 부자, 양진태(梁晉泰)·양채지(梁采之) 부자, 양진태의 조카 양경지(梁采之) 등과 교류한 듯하다.<sup>162)</sup> 양택지는 양산보의 6대손으로 소쇄원의 주인이다. 생부는 양진혁(梁晉奕)이고 숙부는 양진태이다. 아들은 양익룡, 양운룡(梁雲龍), 양득룡(梁得龍)이 있다.<sup>163)</sup>

김창흡은 1710년에 양택지의 부탁에 따라 <소쇄원도> (瀟灑園圖)의 서발문을 지으려 했고,<sup>164)</sup> 둘째 아들 양운룡의 만시도 지어줬으며,<sup>165)</sup> 양택지의 죽음을 망금(亡琴)이라 애도하며 만시를 썼다.<sup>166)</sup> 김창흡은 1717년 3월 21일 소쇄원에 도착하여 소쇄원의 주인 양익룡, 그의 동생 양득룡, 양경지, 양채지 등과 함께 소쇄원을 유람하였다.<sup>167)</sup> 1722년 임인환국 뒤에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은 유배된 장인 송상기(宋相琦, 1657~1723)를 찾아가는 도중 소쇄원을 방문하고 쓴 글에서 제주양씨가 김창

---

참조.

162) 장동김문과 소쇄원의 관계는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2, 서울: 선인, 2011, 199~205면 참조.

163) 양산보의 가계도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 활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부록1 참조.

164) 양택지는 생전에 김창흡에게 <소쇄원도> 서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1712년 양진태에게 보낸 편지에 보인다. 金昌翁, 「答梁來叔 壬辰」,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46면.

165) 金昌翁, 「梁雲龍挽」, 『三淵集拾遺』 권7, 한국문집총간 166, 347면; 金昌翁, 「答梁汝精釋之」,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47면.

166) 金昌翁, 「答梁來叔辛未」,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46면. 이 편지 제목의 ‘신미’가 오류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발신 연도는 신묘년(1711)이다.

167) 김덕진의 연구에서는 3개월간 소쇄원에 체류했다고 보았지만 사실과 맞지 않은 듯하다. 김창흡은 3월 말 소쇄원을 유람한 뒤에 화순(和順), 능주(綾州), 보성(寶城), 장흥(長興), 영암(靈巖)도 유람하였다. 5월 영암에 있을 무렵 적손 김각행(金愨行)의 죽음을 알게 된 뒤에 급히 서울로 돌아간 듯하다. 김덕진, 앞의 책, 213면 참조.

흡을 흠모한다는 사실을 말한 바 있다.<sup>168)</sup> 그만큼 김창흡과 제주양씨 집안의 교유관계가 깊다는 의미이다.

이상 전라도 문인과의 교유를 살펴보았다. 김창흡과 교유한 전라도 문인들은 대부분 기사환국 때 안동김문에 큰 도움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김창흡은 평생동안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김창흡은 제자를 잘 받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후손들을 문인으로 삼아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들 집안과의 교유는 후손까지도 이어진다. 다음으로 충청도 문인과의 교유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충청도 문인과의 교유**는 1702년 두 번의 회덕(懷德) 여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첫 번째는 2월에 자신의 고모 즉 송규렴의 부인을 조문하러 간 것이고, 두 번째는 11월에 셋째 아들 김후겸과 송일원(宋一源, 1664~1713) 딸의 혼례로 간 것이다.

첫 번째 방문 때에는 평산신씨(平山申氏) 신유(申愈, 1673~1706)를 찾아갔다. 신유의 자는 백겸(伯謙)이고 호는 회곡(晦谷)이다. 당시 신유가 스승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찾아갔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유가 바로 편지를 보냈고, 11월에 김창흡이 회덕을 다시 방문했을 때 신유와 만나 주자학에 대해 토론한 듯하다. 두 사람의 교유는 학문적 교유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문은 은진송씨와의 혼인 때문에 간 것이므로, 만난 사람은 송하적(宋夏績, ?~1721 이전), 송일원, 송요화(宋堯和, 1682~1764)를 비롯한 양송(兩宋) 집안의 후손이다. 이외에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문인 창녕성씨(昌寧成氏) 성만징(成晩徵, 1659~1711)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양송 집안과의 교유에는 혼척관계와 정치적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다.

---

168) 李夏坤, 「南遊錄」, 『頭陀草』 권17, 한국문집총간 191, 550면. “今屬于翁之後孫翼龍, 方居憂不出, 使其族弟延入相見. 梁敬之進士采之進士亦來. 翼龍出示孝賦, 文谷所書河西先生四十八咏三淵詩二紙, 又有蕭灑園題詠卷, 列書來遊者名姓詩文, 余亦作一詩書其下. 座人始知其爲余, 相顧驚歎曰曾因三淵聞名久矣. 極致歎, 餉以霜柿. 少頃告行, 采之從至池上, 指溪齋曰:‘往歲三淵書來, 有過夏園中之語, 爲三淵營建, 不旬日成之, 如是朴陋’云. 湖土之愛慕三淵者, 於此槩可見矣.”

송하적은 자가 여성(汝成)<sup>169)</sup>이고, 생부는 송규창(宋奎昌, 1630~1688)인데 백부 송규정(宋奎楨, 1622~1669)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다. 송하적은 김창흡의 고종사촌 형제 송상기(宋相琦)와 10촌 형제관계이다. 송규창과 송규렴은 함께 송남수(宋柟壽, 1537~1626)의 『송담집』(松潭集)을 간행하기도 했다.<sup>170)</sup> 송일원은 송시열의 증손자이자 김창흡의 셋째 아들 김후겸의 장인이다. 송요화는 안동김씨 상용과 김성달(金盛達, 1642~1696: 김호연재金浩然齋의 부친)의 사위이자 김제겸의 처남 송요좌(宋堯佐, 1678~1723)의 사촌이다. 따라서 김창흡은 양송집안과 긴밀한 혼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양송 집안이 갈라져 서로 다툰 때 김창흡이 중재하기도 하였다.<sup>171)</sup>

성만징은 자가 달경(達卿)이고 호는 추담(秋潭)이며 거주지는 상주(尙州)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이다. 김창흡은 두 번째 회덕행에서 속리산(俗離山) 복천사(福泉寺)에 머물며 성만징과 하룻밤을 보냈다. 김창흡은 성만징을 독행(篤行)으로 이름난 남주(南州)의 훌륭한 선비라고 평가하였고,<sup>172)</sup> 나중에 성만징의 만시도 썼다. 『추담집』(秋潭集)에는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 몇 통이 있다. 이렇게 보면 김창흡과 성

169) 김창흡이 송하적에게 준 「장청헌 기문」(藏淸軒記)이나 「병천에서 송백성(하적)에게 시를 주다」(瓶泉贈宋伯成 夏績)에서는 송하적의 자를 ‘백성’(伯成)이라 했지만, 은진송씨 족보에 의하면 자가 ‘여성’이 맞는 듯하다.

170) 이미실, 『『송담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6, 130면.

171) 1704년 송일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창흡은 양 가문이 서로 다투는 점을 경계한다고 말하였고, 설악산 은거기에는 송하적에게 준 「장청헌 기문」에서 송하적에게 ‘현회어묵’(顯晦語默)의 이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양송 집안의 불화와 분열은 임우기(林遇箕)와 관계가 있는 듯한데, 나중에 송하적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18세기 초기에 양송 집안이 분열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김창흡이 1720년 조카 김제겸(金濟謙, 1680~1722)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밀리 하지 않으면 소제(蘇堤: 곧 송시열 후손을 가리킴)에서 크게 시끄러울 것이고, 의성(義城: 송준길 후손 송요좌를 가리킴)으로 하여금 기세를 올리게 할 것이다’(別紙所據發, 聊爲汝一投. 如或不密則大起蘇堤之鬧, 而却令義城輩增氣)라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172) 金昌翁, 「鄭龜河墓誌銘并序」, 『三淵集』 권27, 한국문집총간 166, 22면. “居室處鄉, 則又秩然有節法, 其師權遂菴亟稱其賢. 同門有成達卿者, 南州良士也, 以篤行著聲.”

만징의 교유도 깊었던 듯하다.

요컨대 충청도 문인과의 교유는 혼척관계와 정치적 관계로 맺어진 양송집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학맥으로 이어진 ‘송시열-권상하’의 문인과의 긴밀한 교유관계를 맺었고, 그들 사이에 학문적인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때는 호락논쟁을 벌이기 전이었고 두 집안에 정치적으로 공통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평화로웠다. 다음으로 강원도 문인과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문인과 교유관계를 집중적으로 맺은 시기는 설악산에 은거한 뒤이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강릉에 거주한 영월신씨(寧越辛氏)와의 교유이다. 주요 교유 인물은 신성하(辛聖夏, ?~?)·신성윤(辛聖潤, ?~?) 형제, 신성수(辛聖洙, 1658~?), 신성윤의 아들 신석동(辛碩東, ?~?)이다. 그들은 사촌 형 신경진(辛慶晉, 1554~1619)이 강릉에 부임할 때 따라와 강릉에 정착한 신경철(辛慶鐵, 1579~?)의 후손들이다.<sup>173)</sup>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성수의 부친인 신회(辛晦)는 신경철의 손자이고, 신성윤의 아들 신갑동(辛甲東)이 신경철의 부친 신응명(辛應命)의 오대손(五代孫)이라는 사실로 보면 신성윤도 신성수와 마찬가지로 신경철의 손자이다.<sup>174)</sup> 신성윤은 자가 택지(澤之)이고, 그 아들이 신석동과 신갑동인데, 신석동은 김창흡에게 수학하였다.<sup>175)</sup> 신성수의 자는 노청(魯淸)이며, 숙종 갑자년(1684) 식년시에 진사가 되었다.<sup>176)</sup> 「설악일기」(雪岳日記), 「영남일기」, 「오대산기」에는 김창흡이 그들과 교유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173) 신보상(辛輔商)은 아들이 여덟 명이 있는데, 이들을 팔신(八辛)이라고 부른다. 즉 신응종(辛應宗)·신응기(辛應基)·신응시(辛應時)·신응운(辛應運)·신응회(辛應會)·신응성(辛應性)·신응명(辛應命)·신응세(辛應世)이다. 신경진은 신응시의 아들이고, 신경철은 신응명의 아들이다. 백록(白麓) 신응시 집안은 대대로 한양에 정착했다.

174) 韓國人文科學院 편, 『增修臨瀛誌』, 『韓國近代邑誌』(55),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1, 312면. “辛甲東, 弘文博士應命之五代孫.”

175) 韓國人文科學院 편, 위의 책, 149면. “辛碩東: 甲東之弟, 有文藝, 學於金三淵之門. 從遊士林, 言議剛方, 不幸早逝.”

176) 韓國人文科學院 편, 위의 책. 264면 참조.



김창흡이 그들과 교유관계를 맺게 된 원인은 아마 신경진 후손과의 교유를 통해서일 것이다. 신경철과 달리 신경진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한성에 정착하여 반남박씨 등 경화 세족과 혼인관계를 맺었다.<sup>177)</sup> 김창흡은 그중에서 신성노(辛聖老: 신경진의 손자)의 아들 신상동(辛相東, 1653~1720)·신태동(辛泰東, 1659~1729)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78)</sup> 이 때문에 설악산 은거기에 강릉에 정착한 신경철의 후손과 활발하게 교유한 것 같다.

영월신씨 이외에 양양에 거주한 이민행(李敏行)·이진희(李震熙) 부자,<sup>179)</sup> 조협(趙浹)·조덕수(趙德粹) 부자, 강릉에 거주한 고달명(高達明)·고택명(高宅明) 형제, 김응경(金應鏡) 등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이진희, 조덕수, 고달명과 고택명은 김창흡의 지방 제자들이다.

편지를 보면 이씨 집안과 조씨 집안은 김창흡이 설악산에 은거했을 때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문인 이진희가 영시암(永矢庵)을 짓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김창흡의 가족이 없을 때 김창흡을 모시면서 설악산에서 세월을 보냈다. 김창흡은 1718년 이진희가 죽었을 때 친히 강릉에 가서 그를 곡하였으며, 나중에 이씨 집안 후손 이방억(李芳億)이 김창흡의 증손자 김이수(金履鏞, 1747~1822: 김매순의 부친)에게 찾아가 김창흡의 시와 편지를 등사(謄寫)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sup>180)</sup> 김

177) 박필주의 모친은 영월신씨 신환(辛暉)의 딸이다. 박태관의 부인은 신태동(辛泰東)의 딸이다.

178) 이는 윤봉조(尹鳳朝, 1680~1761)가 지은 신상동의 「정랑 신공 묘지명」(正郎辛公墓誌銘)과 이재(李緯, 1680~1746)가 지은 신태동의 「용담 현령 신공 묘갈명」(龍潭縣令辛公墓碣銘)에서 확인된다.

179) 김매순의 「이씨집안에서 가장한 고조고의 시와 편지 등사본 뒤에 글을 쓴다」(書李氏家藏高祖考詩牘謄本後)에 의하면 당시 김창흡에게 수학한 이민행의 아들은 이진래(李震來)와 이진호(李震豪)이다. 金邁淳, 「書李氏家藏高祖考詩牘謄本後」, 『臺山集』 권8, 한국문집총간 294, 428면. “李公敏行時居襄陽之靑草湖, 從遊爲東道主. 遣其子長公震來, 次公震豪受業有年.”

180) 金邁淳, 앞의 글, 428면. “次公子芳億亦早孤家貧, 遷徙不恒居. 而所藏先生詩札, 奉守惟謹, 間嘗齋詣宗兄完營任所, 裝池爲帖. 家君倣先生筆意, 題其面籤. 越五年乙丑, 不戒于火. 芳億大懼遺蹟之無徵, 從江陵高君健, 謄取一本. 以越七年辛未, 徒步五百里, 抵東郊之漢湖, 出空帖請家君移寫, 以還舊觀.”

매순은 이 등사본 뒤에 발문을 썼다.

설악산 은거기에 고달명은 김창흡을 모시면서 『주역』을 배웠다.<sup>181)</sup> 그는 김창흡이 백연정사에 없을 때 대신 정사를 지켜주었는데, 이에 김창흡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를 지어주었다. 고달명은 스승 김창흡을 위해 호해정(湖海亭)을 지어주었고,<sup>182)</sup> 1718년 호해정에서 김창흡의 강학을 듣고 김창흡을 따라 오대산을 유람하기도 했다. 고달명의 아들 고건(高健) 대까지 김창흡이 부친에게 써준 시와 편지들의 필사본을 간직하고 있었다.<sup>183)</sup>

유마거사가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한 뒤에 김창흡 곁에 장례를 도와준 문인은 조덕수이다. 그는 김창흡의 손자들을 잘 가르쳐 김창흡의 칭찬을 크게 받았고, 나중에 김창흡의 다른 문인과 함께 「삼연어록」도 지었다. 김창흡은 조덕수에게 『시경』(詩經) 집구 8장 4구의 형식으로 「서쪽으로 돌아가는 조덕수를 보내다」(送趙德粹西歸)를 지어주기도 했다. 1768년 75세였던 조덕수는 김원행을 찾아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김창흡의 시와 편지들을 보여주었는데,<sup>184)</sup> 이에 김원행이 제발문을 써줬다.

이렇듯 김창흡의 강원도 문생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문인들이었

181) 韓國人文科學院 編, 『增修臨瀛誌』, 『韓國近代邑誌』(55),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1, 149면. “高達明自髫齡學於金三淵, 從入雪嶽山受『易』.”

182) 김창흡이 1718년 여름 형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에 ‘이른바 호해정은 고씨 문인이 지어준 것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 나온 고씨 문인은 고달명을 가리킨다. 민우수(閔遇洙, 1694~1756)가 쓴 「호해정 기문」(湖海亭記)에서는 호해정 주인 신 상사(辛上舍) 정복(正復)이 김창흡을 위해 세 칸의 집을 지어 선생이 거처할 곳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김창흡의 글과 차이가 있는 듯하다.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6면. “所謂湖海亭, 門人高姓人所構. 而待一過者也, 勝妙過鏡湖, 可以忘老.”; 閔遇洙, 「湖海亭記」, 『貞菴集』 권9, 한국문집총간 215, 437면. “向者戊戌, 三淵金先生到此, 斷以爲第一名勝. 而湖亭主人辛上舍正復爲縛屋三間, 爲先生住宿之所. 先生居此甚樂之, 與門人弟子講易論詩, 未周歲而作五臺之遊, 遂不復至. 而其亭巋然獨留, 蓋三十餘年矣.”

183) 이민행 집안과 고달명 집안은 김창흡이 두 집안에 써준 시와 편지들을 모아 필사한 뒤에 각자 간직한 듯하다. 金邁淳, 「書李氏家藏高祖考詩牘謄本後」, 『臺山集』 권8, 한국문집총간 294, 428면. “蓋高君之先達明, 亦及先生門. 先生所與二氏詩札, 二氏交傳紙以藏. 故李氏之帖火, 而高氏之傳本猶可攷也.”

184) 金元行, 「題三淵先生與趙生帖後」, 『溪湖集』 권13, 한국문집총간 220, 269~270면.

지만 김창흡이 살아 있을 때 김창흡을 잘 모시면서 김창흡에게 수학하였고, 김창흡이 죽은 뒤에 사제의 의리를 잘 지켜 김창흡의 글을 조심히 간직하였다. 또한 강원도 문인과의 교류는 나중에 노론 장동김문의 정치적인 뒷받침이 된다. 1726년 소론 조태구(趙泰耇) 등 역적들의 죄를 속히 바로잡아 줄 것을 청하는 팔도의 유생 유학 이수(李洙) 등의 상소에 연명(聯名)한 강원도 유생이 대부분 김창흡과 교류한 영월신씨 구성원이었던 것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sup>185)</sup>

이상 김창흡과 강원도 문인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함경도 문인과의 교류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함경도 문인과의 교류는 김창흡의 1716년 북관(北關) 여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인물은 경성(鏡城)에 거주한 전주이씨(全州李氏) 이재형(李載亨, 1665~1741) 집안, 종성(鍾城)에 사는 청주한씨(淸州韓氏) 한세양(韓世襄, 1656~1727) 집안,<sup>186)</sup> 경원(慶源)에 사는 평강채씨(平康蔡氏) 채진원(蔡振遠, ?~?)이 있다.

이재형의 자는 가회(嘉會)이고 호는 송암(松巖)이다. 북관부자(北關夫子)라 불릴 정도로 학식과 학문이 높았다. 1685년 북평사(北評事)로 부임한 김창흡을 찾아가 수학했는데, 이런 인연으로 김창흡은 북관 여행 때 이재형과 만나 시를 주고받고 학문적 토론도 하였다. 이재형은 이별할 때 「성명도설」(性命圖說)을 지어 김창흡에게 줬는데 김창흡은 그의 소견이 아주 치밀하다고 평하였으며, 돌아온 다음에 형 김창집에게 추천해 천거하였다.<sup>187)</sup> 김창흡은 나중에도 편지를 통해 인물오상 성동론(人物五常性同論)을 두고 토론하면서 이재형의 생각을 크게 인정하였고, 문

185) 영조 2년 3월 20일 임자, 『承政院日記』. “江原道:辛聖源、金夏兼、李夏佑、金以剛、閔載文、辛甲東、辛碩東、崔虎徵、金應鏡、李重、曹夏蒼、崔天迪、崔鎮奎、辛聖澤、沈植、金啓、李悌、崔裕慶、閔昌文、崔龍徵、權達思、李學、曹夏縑、李萬肇、李禧肇、曹夏櫛、權弼思、李仁徵、崔龜徵、辛達東、辛斗東、崔麟徵、辛纘東、辛宗東、曹永禧、辛載復、辛始復、曹永洽、李寅興、辛鎮東、李睦、李時欽、崔翼海、崔宗煥、金昌炫、辛益東.”

186) 『북관일기』(北關日記)에는 ‘讓’으로 되어 있지만, 한세양의 조카 한몽린(韓夢麟)이 쓴 한세양의 가장에 의하면 ‘襄’자가 맞는 듯하다.

187) 金元行, 「行狀」, 『附錄』, 『松巖集』 권6, 한국문집총간 179, 474면. “公以孝義累被薦, 至肅宗丙申, 夢窩公以大臣始舉公經行, 爲南部參奉. 盖夢窩公卽三淵伯兄, 而是舉也實用三淵之言云.”

인들을 가르칠 때도 이재형의 인품과 학식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우암(尤菴) 이후에 이런 인물을 처음 본다고 극찬하였다.<sup>188)</sup> 이처럼 김창흡과 이재형의 교유관계는 두텁고 밀접했다. 이재형의 문집에 김창집·김제겸 부자, 김용겸, 김원행 등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것으로 보면 이런 교유 관계가 안동김씨 다른 구성원으로 이어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세양의 자는 성장(成章)이고 호는 치암(恥菴)이다.<sup>189)</sup> 김창흡은 종산서원(鍾山書院)을 배알한 뒤에 한세양이 문행(文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일부러 종성에 가서 그를 방문하였다. 김창흡은 한세양, 한몽린(韓夢麟, 1684~1762)을 비롯한 한씨 집안 사람들과 시회를 열기도 했으며,<sup>190)</sup> 한세양과 함께 며칠 동안 다니면서 『주역』의 이치를 함께 토론하고 이별할 때에는 송별시를 지어주었다.<sup>191)</sup> 한몽린이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들은 북관 여행 이후에도 교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북관일기」(北關日記)에는 김창흡이 경원에 가서 채진원을 방문해 한식경(食頃)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같이 했다고 되어 있다.<sup>192)</sup>

188) 金昌翁, 「語錄」, 『三淵集拾遺』 권31, 한국문집총간 167, 276면. “先生曰: ‘向入北關, 涉境即問可與言者, 則多人必稱鏡城李載亨. 到鏡城委訪, 與之同宿, 其人品甚高, 工夫又深, 繩墨之嚴, 尤翁後所創見. 德性深厚, 頗有啐盎之意. 夜聞子弟待候窓外如僮僕, 可見其教行於妻孥矣. 村秀才十餘人, 羅列左右, 質問經義, 亦自可聽. 臨別以所作「天命說」相贈, 而所見亦甚平正縝密. 其論禽獸五常處, 尤非近世學者之可及. 文章亦縱橫不俗. 絕塞荒裔中, 能生得如許人物, 豈非奇事? 別來令人甚不忘爾.’”

189) 韓夢麟, 「恥菴先生家狀草未卒篇」, 『鳳巖集』 권4, 한국문집총간 속 66, 343면. “先生諱世襄, 字成章, 姓韓氏, 號恥菴.”

190) 이는 한몽린이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韓夢麟, 「與三淵金公」, 『鳳巖集』 권2, 한국문집총간 속 66, 304면.

191) 金昌翁, 「贈韓成甫」, 『三淵集拾遺』 권10, 한국문집총간 166, 391면. 한성보(韓成甫)는 한세양을 가리킨다. 한세양의 자는 성장(成章)인데, 여기에서 앞 글자만 취하고 ‘보’자를 붙여 부른 듯하다. 이런 사례는 『삼연집』에 종종 보인다.

192) 金昌翁, 「北關日記」, 『三淵集拾遺』 권28, 한국문집총간 166, 219면. “哺時到慶源, 迤過東門外, 訪蔡振遠. 蔡已先知而掃榻矣. 坐語一餉, 主倅亦來見. 主人設飯, 飯後進邑底宿. 主倅夜又來見, 助行資及馬匹.”

채진원의 자는 기보(起甫)이고 이재형과 교유하였다.<sup>193)</sup> 이외에 채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며, 『승정원일기』를 통해 채진원의 아들이 채태윤(蔡泰胤)인 것만 알 수 있다.<sup>194)</sup> 그렇지만 채진원은 평범한 지방 선비가 아니라 이재형과 한세양처럼 북관에서 명성을 떨쳤던 인물로 조정에서 포섭하려는 북관 대유(大儒)들이다.<sup>195)</sup>

이상 김창흡이 함경도 문인과 교유한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재형과의 교유는 중씨 김창협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세양 집안 및 채진원 집안과의 교유에는 학문적 교류 이외에 정치적 포섭의 의도도 없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북관을 경영한 자는 민정중, 김수항을 비롯한 노론 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세양 집안 및 채진원 집안과의 교유는 단순한 교유로 볼 수 없을 듯하다.

이외에 김창흡은 포천(抱川)에 거주한 안산김씨(安山金氏) 김성대(金聲大, 1622~1695)·김석보(金錫保) 부자, 양천(陽川)에 거주한 원주원씨(原州元氏) 원해익(元海翼, ?~?)과도 교유하였다.

김성대의 자는 이원(而遠)이고, 호는 촌로(村老)이다. 김성대 집안과의 교유는 부친 김수항 대에서 시작되었다. 김성대는 김수항이 백운산에 은거지를 찾을 때 함께 의논한 적이 있고, 김수항이 죽은 뒤 육창 형제가 영평 백운산에 은거했을 때 그들에게 땅과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김성대가 죽은 뒤 김창흡이 제문을 지어주었고, 김창집이 묘표와 묘갈명을 썼다. 김성대의 아들 김석보는 김창집을 따라 연행을 갔으며, 김석귀(金錫龜)는 김창협과 함께 백운산을 유람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석보의 아들 김상성(金相星), 김석귀의 아들 김상복(金相復)은 김창흡에게 수학하였다. 이렇게 백운산이라는 공간에서 두 가문은 깊은 교유관계를 맺었다.

원해익은 자가 운서(雲瑞)이고 김창협의 문인이다. 을유년(1705) 식년

193) 李載亨, 「答蔡起甫振遠」, 『松巖集』 권3, 한국문집총간 179, 407면 참조.

194) 『承政院日記』 영조 13년 10월 28일 기사. “前萬戶蔡泰胤, 名父振遠之子, 此等人宜別用矣.”

195) 『承政院日記』 숙종 39년 1월 22일 기사. “鏡城之李載亨, 會寧之尹敏達, 儒士中以行誼稱, 而曾入剡薦. 鍾城之韓世讓, 慶源之蔡振遠, 一經齋郎, 不復收錄. 此四人, 皆一道之望也.”

시에 발생한 시험장 난리에서 크게 다친 뒤에 영원히 다시는 과거장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쓰기로 결심했다.<sup>196)</sup> 원해익은 1707년 가을에 스승 김창협이 권면(勸勉)하여<sup>197)</sup> 설악산 곡백연(曲百淵)에 찾아가 5개월 동안 김창흡에게 수학하였다.<sup>198)</sup> 따라서 원해익은 김창협의 문인이자 김창흡의 문인이다. 1717년 2월 보개산에서 강학했을 때 문인 유숙기가 김창흡에게 원해익이 어떤 사람이나 물어봤는데, 김창흡은 인품육등설(人品六等說)에 의하면 선인(善人)에 속하는 사람이라 하였다.<sup>199)</sup>

이상 김창흡의 활동 시기에 따른 지방 문인과의 교유관계를 정리했다. 장동김문이 정치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김창흡은 전라도를 비롯한 지방 문인의 도움과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들은 또 장동김문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다. 김창흡은 실제 은거 생활에서도 지방 문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김창흡 사후에 그들은 삼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출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학문적으로 보면 이재형을 비롯한 북관 문인들은 김창흡의 인물성동론을 지지했다. 다음으로 중서층과의 교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 (3) 중서층

중서층과의 교유는 크게 낙송루 시절 교유와 이병연 집안을 통해 이루

196) 金昌翁, 「贈元雲瑞出山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77면.

“於是大設矢誓, 永不復爲棘園中人. 此事既已, 庶可從事於爲己學乎.”

197) 元海翼, 「祭文」, 『附錄』, 『農巖別集』 권2, 한국문집총간 162, 546면. “百我所思, 願游雪山. 先生大然, 勉只驢只. 不爐之誨, 又庸書示. 我來自峽, 薄言歷謁. 問我工課, 謂我多得.”

198) 金昌翁, 앞의 글, 477면. “棲留閱歲, 凡五箇月而歸.”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의 글에서는 6, 7개월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였다. 魚有鳳, 「送金誠仲入雪嶽山序」, 『杞園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84, 183면. “乃者, 友人元生雲瑞負笈而從之, 留六七朔而歸. 余聞而奇之. 今誠仲又將往焉. 噫! 苟非篤信三淵子之道而誠心求益者, 其何能辦此乎?”

199) 俞肅基, 「寶蓋語錄」, 『兼山集』 권8, 한국문집총간 속 74, 339면. “問: ‘元海翼何如人也?’ 先生答曰: ‘善人也.’ 曰: ‘何如斯可謂之善人也?’ 曰: ‘吾嘗就人品中, 分作六層. 曰聖人, 曰大賢, 曰君子, 曰善人, 曰俗人, 曰小人.’”

어진 교유로 나눌 수 있다. 낙송루 시절부터 교유했던 대표적인 중인은 유하(柳下) 홍세태(洪世泰, 1653~1725)이다. 김창흡이 자신의 시고(詩稿)를 홍세태에게 맡겨 산정(刪定)하도록 했을 만큼 두 사람은 시도(詩道)를 함께한 벗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홍세태를 통해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 듯하다. 예를 들면, 홍만조(洪萬朝, 1645~1725)가 1696년 청나라 사행길에서 남인 심계량(沈季良)과 접촉하여 교유했다는 사실을 김창흡에게 알려준 사람이 홍세태였을 가능성이 높다.<sup>200)</sup>

이외에 낙송루 시절에 교유했던 중인으로 최동표(崔東標, ?~?), 강천득(姜天得, ?~?)<sup>201)</sup>이 있다. 1684년 12월에 김민행(金敏行, 1666~1720) 등이 쓴 김창립의 제문에서 이 두 사람을 부를 때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보면 이들은 중인으로 보인다.<sup>202)</sup> 두 사람은 낙송루 시절에 김창흡에게 시도를 배운 김창립의 벗인데, 김창립이 죽은 뒤에 김창흡을 모시면서 김창립의 시를 수습하여 정리해서 간행하는 데 힘쓴 듯하다. 김창립의 죽음과 기사환국으로 김창흡이 서울을 떠나면서 김창흡과 그들의 교유도 일단락되었다.

이병연 집안과 금강산을 유람한 장응두 역시 김창흡과 교유하였다. 장응두는 자가 필문(弼文)이고, 호는 국계(菊溪)인데, 이병연 집안을 통해 김창흡과 알게 된 듯하다. 이는 1711년 이병성에게 준 시에 나오는 “또 청심루 손님 있으니 / 시 논할수록 흥치가 초연하네”(亦有清心樓上客, 論詩愈覺興超然)<sup>203)</sup>라는 구절과 1719년 장응두에게 준 시에 나오는 “청심루의 손님은 / 난간 기대 고깃배 보네”(清心樓有客, 倚檻看漁舟)<sup>204)</sup>

200) 홍세태는 1696년 홍만조를 따라 중국어 통역관으로 청나라에 사행을 다녀왔다. 홍만조가 홍세태에게 준 시 몇 수가 『연사록』(燕槎錄)에 보인다. 홍萬朝, 『燕槎錄』, 『晚退堂集』 권2,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청구기호: 81 1.98 홍만조 만-필-2).

201) 김창립은 1683년 순창으로 돌아가는 강천득을 송별하는 시를 지었다. 金昌立, 「送姜天得歸淳昌癸亥」, 한국문집총간 속 56, 83면.

202) 金敏行 等, 「祭文」, 『安東金氏文獻錄』(地), 348면.

203) 金昌翁, 「李子平乘成草堂, 卜夜率吟」, 『三淵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65, 203면.

204) 金昌翁, 「通信使佐幕, 凡四詞客, 皆我意中人也. 巖居, 念破浪萬里, 一帆無恙, 令人神思飛越, 若與之齊橈也. 聊寄四律, 各有所屬, 只可一覽而投水矣」, 『三淵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65, 330면.

라는 구절, 이병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씨의 시에는 재주가 많고 구조도 긴밀하니 귀하다 여길 만한데, 부족한 점은 웅준(雄俊)한 소리를 내지 못함에 있다”(張詩才贍而構密可貴，而所不足者聲俊)<sup>205)</sup>라고 말한 것을 통해 짐작된다. 이 시들에 나오는 청심루의 손님은 장응두를 말하며, 편지에 언급된 장씨의 시는 장응두의 시를 가리킨다. 김창흡은 이병연·이병성 집안을 통해 장응두를 알게 되었고 장응두의 시재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1719년 장응두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대로 보인다.<sup>206)</sup>

김창흡은 장응두 이외에 1719년 통신사행에 따라간 나머지 세 명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시 재능을 크게 칭찬한 바 있다. 그들은 바로 성몽량(成夢良, 1673~1735), 정후교(鄭後僑, 1675~1755),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다.

성몽량은 창녕성씨(昌寧成氏) 서얼 출신이고 자는 여필(汝弼)이며 호는 장소현(長嘯軒)이다. 성후룡(成後龍: 김상용의 서얼 사위)과 김상용(金尙容, 1561~1637)으로부터 시작한 창녕성씨와 장동김문의 혼인으로 두 집안은 대대로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창흡은 성몽량의 백부 성완(成琬, 1639~1710), 부친 성경(成璟, 1641~1712)<sup>207)</sup>과 교류하였고, 이런 교류관계는 성몽량까지 이어졌다.<sup>208)</sup> 그러므로 김창흡이 성몽량의 글을 평가할 때 ‘민첩함이 가풍에서 말미암네(敏捷自家風)’<sup>209)</sup>라고 한 것이다.

정후교는 본관이 하동(河東)이고, 자는 혜경(惠卿)이며, 호는 국당(菊塘)이다. 위항인으로 홍세태, 정내교(鄭來僑, 1681~1757)와 교분이 두

205) 金昌翁, 「與李秉淵」,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400면. 장응두와 이병연 집안과의 교류는 이병연·이병성 형제의 문집을 통해 알 수 있다.

206) 金昌翁, 「答張應斗」,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408면.

207) 성경은 성후룡의 아들로, 김상용의 서얼 외손자이다.

208) 장동김문과 창녕성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창록, 「成琬의 『翠虛集』과 對明義理의 시」, 『한문학보』 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손혜리, 「成琬의 「日東錄」 연구」, 『한국실학연구』 17집, 한국실학학회, 2009; 김지훈, 「翠虛 成琬의 漢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209) 金昌翁, 「通信使佐幕, 凡四詞客, 皆我意中人也. 巖居, 念破浪萬里, 一帆無恙, 令人神思飛越, 若與之齊橈也. 聊寄四律, 各有所屬, 只可一覽而投水矣」, 『三淵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65, 330면.



터왔고 신정하(申靖夏, 1681~1716), 이병연 등 사대부와도 교류하였다.<sup>210)</sup> 김창흡은 이런 관계를 통해 정후교를 알게 된 듯하다. 그러므로 1719년 통신사행 때 정후교에게 시를 지어주기도 하고, 정후교의 『부상기행』(扶桑紀行) 시문 부분에 발문을 써주기도 하였다.<sup>211)</sup>

김창흡은 신유한과는 1719년 봄에 한번 만난 듯하다. 신유한의 사부(詞賦)를 극히 칭찬하여 서문까지 써줬고,<sup>212)</sup> 신유한이 1719년 통신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설악에서 시를 부쳐줬다. 신유한은 『해유록』(海游錄) 5월 18일 기사에서 김창흡의 시를 받았던 일을 말한 바 있다.<sup>213)</sup>

이상으로 중서층과의 교류관계를 정리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김창흡은 문학적 즐거움을 향유했다. 김창흡 사후에 홍세태 등은 삼연 시고(詩稿)의 산삭 작업도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정보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승려와의 교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승려

김창흡과 승려의 교류에 대해서는 최유진의 연구<sup>214)</sup>에서 이미 잘 정리

210) 申靖夏, 「贈鄭生來僑序」, 『恕菴集』 권10, 한국문집총간 197, 354면. “委巷士之以詩名世而從吾遊者有三人焉, 曰滄浪 洪道長, 鄭惠卿, 鄭潤卿. 三人之中, 老者滄浪, 少者二鄭, 而潤卿獨於余爲同齒. 余之知三子也, 潤卿爲最先, 滄浪, 惠卿其次也. 三子之從余遊, 俱以其詩.”

211) 金昌翁, 「題鄭後僑日本詩卷後」,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17면. 『부상기행』은 상권은 기행일기, 하권은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창흡이 말한 일본시권 부분은 하권의 시문 부분에 해당하는 듯하다. 다만 김창흡은 여기서 정후교의 시에 대해 그가 본조(本調)를 완전히 잊었으며 청진(淸眞)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정후교와 『부상기행』 관련 정보는 정후교 지음, 장진엽 옮김, 「해제」, 『부상기행』, 서울: 보고사, 2019, 9~20면 참조.

212) 申維翰, 5월 18일 기사, 『海游錄』(上). “此翁與余平生一識面. 見余『薛蘿洞私草』, 亟稱詞賦有古風, 序卷首而還之. 乃今巖居, 念行役千里緘辭, 可感.”; 申維翰, 「李白詩序」, 『靑泉先生續集』 권2, 한국문집총간 200, 407면. “於己亥春, 過三淵翁.”

213) 申維翰, 위의 글, 5월 18일 기사.

214) 최유진, 「삼연 김창흡의 철학적 시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에 힘입으면서, 선행연구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시기별로 승려와의 교유 양상을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앞서 밝혔듯이 김창흡이 불전을 탐독하고 불교를 탐닉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사환국 이후가 아니다. 물론 기사환국 이후 부친의 죽음으로 상처를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불전을 탐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환국을 김창흡이 불전을 탐독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불에 대한 김창흡의 인식 심화 과정을 잘 파악하려면 승려와의 교유를 시기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창흡과 교유한 승려들을 보면 크게 청허파(淸虛派)와 부휴파(浮休派)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15)</sup> 주로 전라도에서 포교 활동을 한 부휴파보다 강원도를 비롯한 북쪽에서 포교 활동을 한 청허파 승려들과 교유 관계가 더욱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색기	칩거기	설악산 은거기	곡운 노년기
天策長老 1670 겨울 江華 積石寺	雲峰靈祐 1691 겨울 淸平山	天浩上人 1706 淸平山	秋眼上人 1715 가을 雪岳山
松源豊悅 1672 가을 金剛山	天浩上人 <sup>216)</sup> 1691 겨울 淸平山	緇俊上人 1706 淸平山 慶雲峰	元順上人 1717년 1월 寶蓋山
法閑勝日 1676 봄 靈巖 道岬寺	海師 1695 겨울 白雲山	雲峰靈祐 1706 봄 妙香山 賓鉢菴	無用秀演 1717 봄 水石亭 <sup>217)</sup>
性天 <sup>218)</sup> 1676 봄	緇俊上人 1696	碧虛圓照 1706 봄	汝信和尚 1705~1718

2015.  
215) 위의 글, 71~72면 참조.

靈巖 道岬寺 1717 봄 靈巖 道岬寺	白雲山	妙香山 內院菴	雪岳山
元順上人 1678 겨울 寶蓋山	翁師 1699 江華島	道文上人 1706 봄 妙香山	竺敬 1718 가을 五臺山
義淸上人 <sup>219)</sup> 1682 白雲山	天策長老 1699 江華島	海機 1708 上佛菴	霜勳上人 <sup>220)</sup> 1720 가을, 永郎帖
楚梅上人 1684 겨울 三釜淵	楚梅上人 1702 妙積寺 <sup>221)</sup>	性能 1708 봄 海印寺	蹟道人 1720 가을 谷雲
金峰智霑 1685 겨울 白雲山		明察上人 1708 봄 白蓮菴	
		敏行上人 1708 봄 周王寺	
		玄虛智益 1710 겨울 金剛山	
		1713 겨울 白華庵	
		夢月致雄 1710 겨울 金剛山	
		1713 겨울 白華庵	
		忍長老 1712 겨울 金化	
		載聰上人 1713 金剛山	

위의 표는 원집과 습유에 나온 승려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모색기에 교유했던 승려의 지역적 분포는 김창흡의 행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22)</sup> 이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허파 인물은 청허의 3세 법손 송원 풍열(松源豐悅), 4세 금봉 지점(金峰智霑)이다. 법한 승일(法閑勝日)은 청허파가 아니지만 그의 스승 학명 장로(學明長老)가 청허파 1세 문인인 편양 언기(鞭羊彦機)와 교유관계가 있다.<sup>223)</sup> 나머지 승려들은 법통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그들이 강화도, 백운산(白雲山), 철원에서 김창흡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만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 의청 상인(義淸上人)과의 교유는 중씨 김창협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의청 상인은 백운산 보문암(普門庵)의 승려로

216) 운봉 영우의 제자이다.

217) 1717년 봄 전라도 여행을 할 때 김창흡은 무용 수연(無用秀演)을 비롯한 많은 승려들과 교유했다.

218) 법한의 제자이다.

219) 의청 상인(義淸上人)이 등장하는 시의 편찬 연도는 다소 의심스럽다. 『농암집』 권22에는 「백운사에서 의청 상인에게 준 서문」(白雲寺贈義淸上人序)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 내용 중 서쪽에서 백운산으로 왔다는 것, 희공 옆에 있던 어린 사미(沙彌)가 벌써 등이 굽은 백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 김창흡의 「의청 상인에게 주다」(贈義淸上人)의 내용과 비슷하다. 따라서 김창흡의 시는 김창협이 글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의청 상인에게 준 시는 1682년이 아니라 1691년 이후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편의상 일단 『습유』에 있는 시의 편찬 순서대로 교유관계를 정리한다.

220) 몽월 치옹의 제자이다.

221) 金昌翁, 「與李德載」, 『三淵集拾遺』 권22, 한국문집총간 167, 58면. “創寺者楚梅師, 亦久要也. 須與話及, 與我相周旋曲折, 亦可以破寂矣.”

222) 천책 장로(天策長老), 송원 풍열(松源豐悅)과의 교유는 이전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편의상 모색기로 묶기로 한다. 김창흡은 1699년 천책 장로가 죽었을 때 애도시를 지어주었다.

223) 淸虛休靜, 『江西馬祖四家錄草』, 『韓國佛教全書』 권11,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422~423면. “有僧學明長老者, 賦性樂山樂水者, 而恨匏瓜之一隅, 思鼓翼於三山. 一納行裝, 鳴筇妙香, 叅禮鞭羊大師, 而請觀西山大和尚衣鉢靈蹟. 及見此錄, 乃西山親筆也. 披及再三, 不勝欽奉, 整襟避席, 痛懇於鞭羊曰: ‘湖南道岬寺者, 雖僻在海隅, 而名稱普聞之禪刹也, 願奉此錄, 鏤板印施, 以貽後世.’ 鞭羊動其勤信, 踐言而許之. 明公欣然奉受, 踴躍而歸. 方欲鉞之, 不幸短命死矣. 厥弟子法閑勝日輩, 慨然流涕, 百爾思之, 願成師志.” 『강서마조사기록초』는 1650년 전남 영암 월출산 도갑사(道岬寺)에서 편양 언기(鞭羊彦機)가 보관하고 있던 휴정의 친필 사본이 벽암 각성(碧巖覺性)에게 전해져 간행됐다.

서 영희(靈熙)의 제자인데,<sup>224)</sup> 김창협은 의청의 기품, 용모, 몸가짐에 스승 희공의 유풍이 남아 있다고 크게 칭찬하였다.<sup>225)</sup> 김창흡의 초기 불교 공부에는 김창협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어준 시 내용을 보면 주로 서로 만난 인연을 이야기할 뿐, 불전이나 불교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1687년 가을 현성 시기부터 김창흡의 시에 불교 개념 관련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면모가 가장 뚜렷한 시는 바로 1688년 단구 여행 때 지은 「백련암의 새로 지은 몇 칸이 깨끗하여 먼지가 없었다. 움직이는 바위를 올려다보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며 앉았는데 솔바람이 가슴에 가득했다」(白蓮菴新構數椽，灑落無塵。仰看動石，俯臨清泉，坐來松風滿懷)이다.<sup>226)</sup>

침거기에는 부친의 죽음과 당시의 정치적 소용돌이 때문에 김창흡이 승려들과 많이 교류하지 못한 듯하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승려는 청허의 3세 법손 운봉 영우(雲峰靈祐, 1635~1715), 4세 천호 상인(天浩上人), 해사(海師), 흡사(翁師), 천책 장로(天策長老) 등이다.

운봉 영우와 주고받은 시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1691년 10월 김창흡이 청평산을 두 번째 유람할 적에<sup>227)</sup> 한자리에서 운봉 영우와 담소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228)</sup> 운봉 영우는 여러 승려들이 종사(宗師)라고 부르는,

224) 김창협의 「백운사에서 의청상인에게 준 서문」과 김구(金構, 1649~1704)가 1670년 지은 「동행일기」(東行日記)에 의거하여 정리했다. 金昌協, 「白雲寺贈義清上人序」, 『農巖集』 권22, 한국문집총간 162, 147면. “近有長老義清者, 新自西方來. 觀其容儀閒止, 視下而言簡, 類有守者. 既又早夜焚修, 不懈益勤. 余竊異之, 就叩其所師, 乃向熙公也.”; 金構, 「東行日記」, 『觀復齋遺稿』 권2, 한국문집총간 속 49, 33면. “又行向普門庵, 黃昏而至庵. 庵在深山萬木之中, 位置清塋. 有老僧名靈熙, 年八十三. 威儀靜閑, 顏色敷腴. 與之語, 淳謹不彫.”

225) 金昌協, 「白雲寺贈義清上人序」, 『農巖集』 권22, 한국문집총간 162, 147면. “而余獨喜師之氣貌持守, 猶有熙公之遺風. 自我得之, 以爲許掾之支遁, 陶公之惠遠. 於方外游, 庶不落莫.”

226) 金昌翁, 「白蓮菴新構數椽, 灑落無塵. 仰看動石, 俯臨清泉, 坐來松風滿懷」, 『三淵集拾遺』 권3, 한국문집총간 166, 253면. “到來未移景, 幽意滿松楸. 藜杖緣皆水, 蒲團到則菴. 圓門眞不二, 妙乘本非三. 欲認蓮花義, 斜陽俯碧潭.”

227) 『연보』에 의하면 1684년 가을, 1691년 10월, 1706년 3월에 청평산을 유람했다.

선교(禪敎)에 능통한 인물이다.<sup>229)</sup> 이때 3년상을 마치고 불교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던 김창흡이 그에게 받은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를 만난 뒤에 김창흡은 바로 한계산(寒溪山)에 들어가 백수(栢樹) 공안을 참구함으로써 마음속에 가득한 슬픔을 달래려 했다.<sup>230)</sup>

김창흡은 1695년 겨울에 철원에서 벽계(槩溪)로 가는 도중 백운산에서 해사를 만난 듯하다.<sup>231)</sup> 해사 관련 기록은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1722년 지은 「남유록」(南遊錄)과 「해사 방에 적다」(題海師房)에 보인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해사는 이름이 명해(明海)이며 만덕사(萬德寺)의 주지이다.<sup>232)</sup> 영암 왕복기에 김창흡은 만덕사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만덕사」 시도 지었다. 「차운하여 해사에게 주다」(次韻贈海師)에 나온 “산하가 비록 허망하지만 암자는 남아 있고 / 인간 세상은 뜬구름 같아 길손이 다시 찾아왔네”(山河雖妄菴猶在, 人世如浮客再來)라는 구절을 통해 두 사람이 일찍부터 서로 만나본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해사가 명해일 가능성이 높다. 법통으로 보면 명해는 운봉 영우의 제자로서 청

228) 金昌翁, 「贈天浩上人」, 『三淵集』 권8, 한국문집총간 165, 164면. “余於茲山遊, 凡三度矣. 雲峰松石, 一依舊態. 西川觀逝之眼, 亦未曾皺, 而顧循余髮已種種矣. 禪門存沒, 又有關心者. 昔之再度, 蓋與老宿靈祐師接軟話共蒲團, 而今已入寂矣. 沙彌天浩則又老白首, 相携叙故於西川影池之間, 婉變未已, 以一絕留別, 所以志幻迹之去來與舊好淵源云爾.” 이 시를 지은 시기는 1706년 3월이다. 그런데 김창흡은 같은 해 4월 관서(關西)의 묘향산(妙香山)에 가는 도중 빈발사(賓鉢寺)에 묵었을 때 영우를 다시 만났다. 운봉 영우의 생몰년이나 그가 입적한 사찰이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임을 고려해보면 같은 인물이 맞는 듯하다. 金昌翁, 「關西日記」, 『三淵集拾遺』 권28, 한국문집총간 167, 211면. “又東行賓鉢, 山氣深秀, 間有奇巖. 沿澗而北, 可到中獅子云. 有老僧靈祐, 沈靜有道氣, 博綜禪敎, 諸衲推爲宗師, 而耳聾不通話可嘆.”; 최유진, 앞의 글, 75면 참조.

229) 金昌翁, 「關西日記」, 211면. “有老僧靈祐, 沈靜有道氣, 博綜禪敎, 諸衲推爲宗師, 而耳聾不通話可嘆.”

230) 金昌翁, 「葛驛雜詠其三十五」,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295면. “東國無人愛坐禪, 栗翁參請在初年, 余亦寒溪看栢樹, 塞悲心事有誰憐.”

231) 「차운하여 해사에게 주다」 두 번째 시에 나온 “스님 따라 백운산 봉우리에 머물고 싶네”(願隨瓶錫住雲峰)라는 구절과 『연보』의 1695년 기사를 보면 김창흡은 가을에 사돈 이자와 강릉 쪽으로 유람한 뒤 철원을 거쳐 벽계로 돌아오는 도중 백운산 어딘가에서 그를 만난 것 같다.

232) 李夏坤, 「題海師房」, 「南行集」(下), 『頭陀草』 冊十, 한국문집총간 191, 373면. “住持僧明海解經旨, 極醇厚.”

허의 4세 법손이다.<sup>233)</sup> 의청상인처럼 흡사와의 교류도 1699년 강화도에서 중씨 김창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해사에게 준 시의 “연어(鳶魚)와 공색(空色)이 어찌 융통되리오만 / 유불의 같고 다른 점은 잠시 내버려두지”(鳶魚空色豈通融，且置儒禪有異同)라는 구절에 의하면 김창협이 칩거기에 지은 절과 관련된 시들에는 이미 구체적인 불교 개념이 보인다. 이는 1698년 봄에 황해도 해주를 유람했을 때 지은 「감로사 누대에 올라가다」(登甘露寺樓)의 “법계에 남긴 자취는 짧고 / 푸른 물결 잠긴 눈길이 차네 / 풍경 속에 정토가 절로 생기니 / 구름 끝에 울리는 풍경과 염불이네”(法界留蹤短，滄波注目寒。望中生淨土，鍾唄各雲端)<sup>234)</sup>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설악산 은거기의 승려 교류는 설악산에 있던 승려와의 교류 이외에는 주로 관서 여행, 영남 여행과 금강산 유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승려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고 법회(法會)도 자주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sup>235)</sup>

설악산 은거기에 가장 오래 교류했던 승려는 설악산 화엄사(華嚴寺)의 여신 상인(汝信上人)이다. 「설악일기」, 「영남일기」, 문인 이진희에게 보낸 편지에 여신 상인 관련 내용이 보인다. 성대(聖臺)와 곡백연(曲百淵) 사이에서 함께했던 여신 상인은 김창협에게 지허(支許)처럼 깊은 교분을 맺은 사람이었다.<sup>236)</sup>

233) 獅巖采永 編,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韓國佛教全書』 권10,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116면.

234) 金昌翁, 「登甘露寺樓」, 『三淵集拾遺』 권6, 한국문집총간 166, 306면. “滿板前朝什，披塵讀未殘。諸僧報潮退，三老倚船看。法界留蹤短，滄波注目寒。望中生淨土，鍾唄各雲端。”

235) 金昌翁, 「馱疾過花江，待主人不至。兩夜愁寂，聊題一律以留之」, 『三淵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65, 234면. “聊邀聖岳僧爲伴，文會多乘法會圓。”

236) 金昌翁, 「汝信和尚與余周旋于聖臺、百淵之間，托契之深，無恠支許矣。余旣爲庠所逐，師亦隕于賊鋒，嗚呼！尙忍言哉？今歲戊戌，自百淵更尋華嚴，蓋赴其沙彌三學所邀也。徊徨頽院，不覺攬涕。余所贈一律，已入劫火矣。學也拾得於他僧口耳，更懇手寫以留篋。余不忍拒，遂就其前本，略加點改而寫付之。又特吟一絕，以申與余學講好之意云」, 『三淵集拾遺』 권11, 한국문집총간 166, 421면. “生老隨緣住祇林，廣慈能得普賢心。尋常茶飯存眞味，圓轉寒暄會法音。樞蠟俗情多眩耀，琉璃禪態亦浮沈。水城太守如參社，暇日同吾載酒尋。”

1706년 관서 지방을 여행할 때에는 묘향산 내원암(內院庵)의 승려 벽허 원조(碧虛圓照)와 교유하였다. 그는 설암 추봉(雪巖秋鵬)의 제자로서 청허의 5세 법손이며,<sup>237)</sup> 나중에 금강산으로 김창흡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1708년 영남 지방을 여행할 때에는 백련암(白蓮菴)에서 청허의 3세 법손 풍계 명찰(楓溪明察)과 『화엄경』을 강론하였고,<sup>238)</sup> 해인사(海印寺)에서 중씨 김창협과 교분이 있던 승려 성능 상인(性能上人)과 시를 주고받기도 했다.<sup>239)</sup> 또 주왕사(周王寺)에 가서 민행 상인(敏行上人)과 수창(酬唱)하였다.

김창흡은 1710년 가을 금강산을 유람했을 때 현허 지익(玄虛智益), 몽월 치웅(夢月致雄)과 교유하기 시작한 듯하다. 현허(玄虛), 몽월(夢月)은 그 법호이고, 지익(智益), 치웅(致雄)은 그 이름이다. 두 사람은 설봉 자징(雪峰自澄)의 제자로서 청허의 4세 법손이다.<sup>240)</sup> 이들과의 교유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김창흡은 현허 지익에게 지어준 「현허 장로와 이별하다」(別玄虛長老) 시에서 1710년 가을에 대사와 비로봉(毗盧峯)을 유람하고 1713년 겨울에 백화암(白華庵)에서 대사와 『장자』를 강학했다<sup>241)</sup>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치웅에게 보낸 시, 편지, 제문(祭文)에도 선

237) 최유진, 앞의 글, 71면 참조.

238) 金昌翁, 「白蓮菴借榻, 贈明察上人」, 『三淵集拾遺』 권7, 한국문집총간 166, 338면. “案上華巖三十九, 披來共對一燈懸.” 이에 대해 유척기가 1712년 지은 「가야산 유기」(游伽倻記)에서 김창흡과 명찰 상인과의 교유, 시 내용, 창작 시기 등을 자세히 밝혔다. 俞拓基, 「游伽倻記」, 『知守齋集』 권15, 한국문집총간 213, 578면 참조.

239) 성능 상인은 농암의 부탁으로 절을 지었는데, 완성한 뒤인 1709년 장동김씨 집안을 찾아와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김시보가 그에게 시를 지어줬다. 이는 1708년 김창흡이 지은 「영남일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金時保, 「農巖先生曾附書一上人, 求助翠微重建之資, 今上人來報菴成, 而人事已變, 相對悽惋」, 『茅洲集』 권3, 한국문집총간 속 52, 290면; 金昌翁, 「嶺南日記」, 『三淵集拾遺』 권28, 한국문집총간 167, 204~205면. “夜宿禪堂. 有性能上人, 能詩可愛, 亦有轉運才. 嶺南巨刹, 爲渠所建立者不訾. 仲氏嘗呼至洛下, 托以翠微建立. 故仲氏書簡數紙在渠篋矣.”

240) 최유진, 앞의 글, 71면 참조.

241) 金昌翁, 「別玄虛長老」, 『三淵集』 권26, 한국문집총간 165, 535면. “毗盧之秋兮, 余挾師以觀大千. 白華之冬兮, 師卽余以談重玄. 既不見拒於靈岳兮, 又得會心之高禪. 彷徨塵外之與共兮, 無乃多生之植緣. 昔支公之從玄度兮, 講『南華』之首篇. 大小鵬鷗之均適兮, 延促椿菌之等年. 師亦咀嚼其義言兮, 恍心悟而



비와 승려가 한자리에서 『화엄경』이나 『장자』나 『주역』을 강론했다는 이야기가 보인다.<sup>242)</sup> 원집과 습유를 보면 치옹에게 준 글이 가장 많은데, 글마다 지기를 찾은 기쁨과 함께 강론하는 즐거움이 잘 드러난다. 왜 그럴까?

김창흡은 1710년 가을 치옹 상인에게 지어준 시에서 “유교와 불교의 진리가 다른 믿지 않으니 / 아산양수<sup>243)</sup> 사이에서 청담(淸談)하네”(不信儒禪道不同, 峩山洋水塵談中)라고 말한 바 있다.<sup>244)</sup> 이 시에서는

解懸. 嘆子休之交晚兮, 屏竺典而窮研. 趁講晨而來會兮, 儼鶴身之翩躚. 遵松磴而戛氷澗兮, 金策磨兮桐履穿. 蒲團竹倚之有待兮, 淨几明窓之蕭然. 儒與釋其忘形兮, 會三教於一筵. 冥栩栩之適志兮, 欣得魚而忘筌.”

242) 金昌翁, 「贈致雄上人」, 『三淵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65, 237면. “有士凉凉, 寄迹于菴. 有釋溫溫, 逢掖之心. 分其丈室, 淡對默參. 形迹既泯, 圓月雙襟. 釋則南華, 士也華嚴. 互換功課, 晨夕喃喃. 犁然意會, 遂至浸涵. 鯤鵬之池, 龍象之林. 何關何狹, 合席莊曇. 相視而笑, 不在多談.”; 金昌翁, 「祭致雄上人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4면. “嗟吾與師, 若陶於遠. 虎溪蓮社, 周旋者久. 剖玄『莊』『易』, 片長在我.”

243) 아산양수는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벗의 사림을 비유하는 말이고, 주담은 위진 시기 문인들인 고라니 꼬리가 꽂혀 있는 자루를 흔들면서 노장을 담론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244) 金昌翁, 「贈致雄上人」, 『三淵集拾遺』 권7, 한국문집총간 166, 347면. “不信儒禪道不同, 峩山洋水塵談中. 蒲團憇占盈樓月, 桂院吟同落木風. 天乙臺前揖無竭, 毗盧頂上傲鴻濛. 知渠活計『華嚴』在, 爭似吾家六六宮.” 같은 시가 심육(沈鎬, 1685~1753)이 1713년에 지은 『관동록』(關東錄)에도 보인다. 『관동록』에는 제목 없이 두 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그중 제1수는 김창흡의 「치옹 상인에게 주다」(贈致雄上人)와 같고, 제2수는 제1수에 차운해서 지은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심육의 문집에 박태관의 시도 잘못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백악시단의 시가 널리 읽히고 애호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들 사이의 친척 관계이다. 청송심씨 심육은 전의이씨 이덕수와 고종사촌 관계이고, 이덕수는 김창흡의 사위 이덕재와 사촌관계이다. 1688년 김창흡이 단구를 여행할 때 심육의 부친 심수현(沈壽賢)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치옹 상인에게 주다」의 내용은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꺼릴 만한 이야기다. 김창흡이 지은 이 시의 창작 연도가 1710년 가을이고 심육이 차운한 시의 창작 연도가 1713년인 것을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안 사이여야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김창흡의 시는 『저촌유고』에 잘못 편입되었다기보다는 심육이 김창흡의 원시를 제시하면서 원시에 차운한 자신의 시를 함께 실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沈鎬, 『關東錄』, 『樗村先生遺稿』 권5, 한국문집총간 207, 82면. “不信儒禪道不同, 峨山洋水■談中. 蒲團憇與■林日, 桂院吟同落木風. 天乙臺前揖無竭, 毗盧頂上傲鴻濛. 知渠澗界華

선비와 승려가 한자리에서 유불의 진리를 강론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김창흡에 의하면 유교와 불교가 추구하는 도는 다르지 않다. 이는 칩거기에 해사에게 준 시에 드러난 유·불을 구분한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경지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김창흡이 불교와 유교를 동등하게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연의 “그대 활계(活計)는 『화엄경』에 있나니 / 어찌 우리 유가 옥육궁<sup>245)</sup> 같겠나”(知渠活計『華嚴』在，爭似吾家六六宮)라는 내용을 통해 김창흡이 불교의 『화엄경』이 유교의 『주역』보다 못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6)</sup>

곡운 노년기의 승려 교유는 1717년 전라도 여행, 그리고 치옹과의 교유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김창흡은 전라도를 여행할 때 부휴과 4세 법손 무용 수연(無用秀演)을 비롯한 송광사(松廣寺) 승려들과 교유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무용 수연의 제자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치옹의 제자 상훈 상인(霜勳上人)과의 교유, 치옹이 김창흡을 종유했던 것을 보고 찾아온 일암 정색(日菴精蹟)과의 교유는 치옹과의 교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창흡은 치옹이 죽은 뒤에 치옹의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승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지 않고 사도(師道)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도를 비난하면서 치옹에게 『장자』 몇 편만 배운 제자 쌍훈(雙薰)이 사도를 잊지 않고 잘 계승한다는 점을 크게 칭찬한 바 있다.<sup>247)</sup> 표기상 ‘상훈’과 ‘쌍

---

陰在，何似吾家六六宮。”；“箕山雪嶽古今同，思與非思寂滅中。念念洗腸岩下水，時時拂面樹邊風。明月青山空寂寂，慈雲甘露灑濛濛。遯世若無巢許志，棄官何肯老琳宮。”；김형술, 「白嶽詩壇의 眞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75면 참조.

245) 『주역』의 64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곧 천지를 뜻한다.

246) 이 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최유진, 앞의 글, 150~152면 참조.

247) 金昌翁, 「書示雄法師門徒」, 『三淵集』 권26, 한국문집총간 165, 535~536면. “雄師在世，以脫洒爲其道。推其心，固不欲紛紛於身後，而然弟子者，徒順其脫洒之心而不存啁啾之悲，則豈非託理略事而歸於頑薄哉？積年親近，飽承法音，或至了四教集者，沒而散去，不復留影，是可忍乎？所謂雙薰，不知何人，而能一心悲慕，隨事護念，至周歲靡怠。問其所被惠，則只是講『南華』數篇，而志之不倦，乃能如此。始知人貴純心學，以口耳爲戒。彼讀遍龍藏說墜天花，而終不免於忘師者，豈不爲釋家之陳相乎？善哉！雙薰。善哉！雙薰。賴爾一人之在，其庶乎砥頑惇薄矣。”

훈'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인물을 가리킨 것으로 짐작된다. 김창흡은 상훈을 치옹의 도를 계승하는 호분(虎賁)에 비유하여 만년(1720)에 그와 함께 『장자』나 불전을 강론하였다.<sup>248)</sup>

‘색도인’(蹟道人)<sup>249)</sup> 일암 정색은 설암 추봉의 제자로서 벽허 원조와 같이 청허의 5세 법손이다.<sup>250)</sup> 그는 1720년 9월에 곡운으로 찾아가 김창흡에게 장교(藏敎)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이나 응답에 막히는 바가 없었다. 당시가 국상(國喪) 기간이라 시를 짓지 못하는 바람에 김창흡은 대신 글을 한 편 써서 해후한 기쁨과 경위를 기술하였다.<sup>251)</sup>

곡운 노년기의 승려 교유를 보면 김창흡이 이미 세속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은 금강산에서 승려와 함께 참선하는 일에 대한 비루한 유자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sup>252)</sup> 이는 설악산 은거기에 자신이 학불(學佛)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sup>253)</sup>과 다르다.

이상 시기별로 승려와의 교유관계를 정리했다. 김창흡은 부휴과 승려보다 청허과 승려와 더욱 긴밀하게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과의 교유를 통해 김창흡은 불교 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유·불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앞으로 김창흡이 정통과

248) 金昌翁, 「答霜勳上人 庚子」, 『三淵集拾遺』 권22, 한국문집총간 167, 91면. “昔蔡伯喈對虎賁, 如見孔北海. 師能爲雄公之虎賁則豈非奇事乎?”; 金昌翁, 「贈霜勳上人」, 『三淵集拾遺』 권11, 한국문집총간 166, 432면. “夢月淪光後, 逢師淚滿巾. 猶堪講『莊子』, 眞似見元賓. 淡水心期在, 玄風授受親. 仙山將結夏, 寧畏陋儒嗔.”

249) 일암 정색이 ‘색도인’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은 유언호(兪彦鎬, 1730~1796)가 지은 「설악대원당대사비명」(雪嶽大圓堂大師碑銘)에 보인다. “既而, 父母擇對, 將諷日送之, 乃中夜脫身, 走入雪嶽, 問道日菴大師, 卽蹟道人也.” 대원당대사(大圓堂大師)는 대원무외(大圓無外)를 가리키는데, 일암 정색의 제자이다.

250) 獅巖采永 編,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108면.

251) 金昌翁, 「書示蹟道人」,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25면.

252) 金昌翁, 「贈霜勳上人」, 『三淵集拾遺』 권11, 한국문집총간 166, 432면. “仙山將結夏, 寧畏陋儒嗔.”

253) 金昌翁, 「答時敏」, 『三淵集拾遺』 권19, 한국문집총간 167, 26면. “又得痘患, 宛然瞿曇黃面. 恐人見之, 證成學佛, 以增謗也.” 김창흡의 행적을 고려하면 이 편지의 작성 연도는 대략 1714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단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면서 융합하는 데 사상적 기초를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계급적 성격에 유의하여 김창흡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리해보았다. 김창흡이 맺었던 인적 네트워크 가운데 경화 세족 및 지방 문인과의 교유는 김창흡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정치적 행보

장동김문의 정체성은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에도 사적, 공적 두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사적으로는 김창흡이 가문의 복수를 위해 갑술환국 이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공적으로는 김창흡으로 하여금 노론의 당파성과 지배 엘리트의 신분을 기반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백씨 김창집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특히 김창집이 정국의 중심에 나섬에 따라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 역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갑술환국 이후부터 설악산 은거기까지, 설악산 은거기 이후부터 신축환국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갑술환국(1694) 이후부터 설악산 은거기까지

기사환국 당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집안은 바로 김창흡 집안이었다. 그런데 갑술환국 때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의 저지로 부친 김수항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남인 세력을 처벌하지 못했다. 장동가문의 일원으로서 김창흡은 이 불구대천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야 했다. 김수항의 유언에 의하면 김수항을 그런 처지에 이르게 한 무리 가운데는 소론도 있었다.

또 말하기를,

“일신(一身)이 겪은 오늘의 화난(禍難)에 대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런데 시사가 이처럼 지극한 지경까지 이른 것은 모두 소배(少輩)의 의론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 하였다.<sup>254)</sup>

위의 인용문은 김수항의 유언의 일부분이다. ‘소배’는 박태보(朴泰輔, 1654~1689)를 비롯한 소론을 의미하는 말인 듯하다. 1684년 노·소 분기 뒤에도 노론과 소론은 서로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지속했다. 그 중에서도 ‘회니시비’를 둘러싼 공방전이 격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의정 김수항이 송시열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김수항에 대한 소론의 비난은 점점 심해졌다. 1687년 3월 나양좌가 송시열의 소척(疏斥)을 받은 윤선거를 변호한 일로 유배되자, 박태보는 스승이자 장인인 윤선거를 옹호하고 송시열을 배척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 상소문에도 김수항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sup>255)</sup> 1687년 7월에 영의정 김수항이 체직되고 남구만이 영의정에 배수되었다. 1689년 2월 1일에 원자 명호 문제로 송시열이 삭탈관직 처분을 받은 뒤, 2월 10일에 김수항이 파직되었다. 그리고 숙종은 윤증의 배사(背師)를 비판한 상소문을 올려 정거(停擧)의 처벌을 받은 이진안(李震顔)을 김수항이 구원하여 그 시비의 논의가 격렬해진 것도 김수항의 탓이라고 하며 비판하였다. 이에 숙종은 윤3월 21일 김수항을 위리(圍籬)하도록 명하였다.<sup>256)</sup> 당시 남인이 김수항을 죽이기 위해 내세웠던 주요한 이유는 바로 ‘회니시비’에서 김수항이 보여준

254) 김창흡 찬, 「臨命日記」, 『安東金氏文獻錄』(地), 서울: 昌文女子中高等學校, 1975, 304면. “又曰: ‘一身今日之禍將誰怨尤, 而使時事至於此極者, 皆少輩之論致之也.’” 「임명일기」는 「기사유교」(己巳遺教)라는 이름으로 된 한글본도 있었다. 김창흡 기술, 김위현 편역, 『기사유교』, 서울: 藝文春秋館, 2015.

255) 朴泰輔, 「爲羅顯道良佐上辨魯西先生疏丁卯三月」, 『定齋集』 권6, 한국문집총간 168, 123~133면.

256) 지두환, 「문곡 김수항의 가계와 정치적 활동」, 『한국학논총』 3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261~267면; 홍순민,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 『한국사론』 15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181~194면; 『숙종실록』 15년 2월 10일 무신 기사 참조.

노론적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김수항이 유언에서 이야기한 ‘소배의 의론’은 바로 소론이 회니시비에서 윤선거, 윤증을 옹호했던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김창흡에게 남인이 불구대천의 원수라면 소론은 김수항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범이었다.

그런데 갑술환국 뒤에 남구만이 영의정에,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좌의정에, 윤지완(尹趾完, 1635~1718)이 우의정에 임명됨으로써 소론 중심 정국운영의 기본 틀이 이루어졌다.<sup>257)</sup> 남구만은 왕세자 보호를 위한 심장려설(深長慮說)을 내세우면서 남인을 관대하게 처벌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창흡은 1694년 여름에 종형 김창국(金昌國, 1644~1717)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구만을 ‘남간’(南奸), 박세당을 ‘박괴’(朴恠)라 부르면서 하늘까지 넘친 그들의 죄를 성토했던 적이 있었고,<sup>258)</sup> 「선비행장」(先妣行狀)에서 남구만이 남인의 죄를 용서해준 행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sup>259)</sup> 그런데 당시의 정국이 노론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정(自靖)을 표방하면서 출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창흡은 시를 통해 자기의 불평한 마음을 늘 토로하였다.<sup>260)</sup>

257)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9면 참조.

258) 金昌翁, 「上從氏府使公」,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85면. “南奸纔遁, 朴恠繼之. 其黨逆滔天之惡, 不但如惠卿傳法而已. 痛心切齒, 奈何奈何!” 남구만은 남일성의 아들이고 박세당은 남일성의 사위이므로 남구만은 박세당과 처남관계가 된다. 1694년 6월 15일에 강민저(姜敏著, 1651~1705)의 상소로 남구만이 물러나 도성 밖으로 나갔고, 박세당은 6월 19일 호조참판에, 7월 11일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숙종실록』 20년 6월 15일 신해 기사, 6월 19일 을묘 기사, 7월 11일 정축 기사 참고.

259) 金昌翁, 「先妣行狀」, 『三淵集』 권30, 한국문집총간 166, 81면. “甲戌傾否, 乍見天日, 而俄又晦翳. 蓋九萬當局, 曲貸諸賊奴, 天討用遏. 先妣之所冤鬱, 殆甚於向時矣.”

260) 1694년 가을 시 창작을 재개한 김창흡은 「저도」(楮島)에서 “우리의 한이 언제 평정(平定)할까 / 이곳 지나자니 놀란 듯하네”(吾人感恨幾時平, 此地經過迥若驚)라 표현하였다. ‘우리의 한’은 장동김씨 자제들의 한을 가리키고, ‘이곳’은 저자도를 가리킨다. 저자도 현성은 원래 김수항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부친과 연결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우리의 한”은 남구만의 주장으로 남인 처벌을 철저히 하지 못해 복수를 이루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金昌翁, 「楮島」, 『三淵集拾遺』 권5, 한국문집총간 166, 280면.

그러다가 소론 영수 최석정이 1698년에 오시복(吳始復), 이서우(李瑞雨)를 비롯한 남인을 등용하려고 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오시복 등은 김수항을 사사하라는 상소를 올렸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sup>261)</sup> 이 일은 김수항의 아들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글에서도 이를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다”(白虹貫日)라고 비유할 정도로 큰 화난이었다.<sup>262)</sup> 따라서 최석정이 남인 등용 문제를 김창협과 의논했을 때 김창협은 부정의 의사를 표하였다. 김창협은 이 때문에 편지를 보내 4대에 걸쳐 세교를 유지해왔던 최석정을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절교를 선언했다.<sup>263)</sup> 편지에 나온 김창협의 의견은 소론의 대(對) 남인에 정책에 대한 노론 측의 의구심도 대변하였겠지만, 더 내적인 원인은 부친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남인들을 향한 복수심에 있었을 것이다.

『숙종실록』에 이 편지의 전문과 평어가 실린 것<sup>264)</sup>을 보면, 이 편지는 당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듯하다. 이처럼 김창협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창협이 설악산에 은거하기 전까지는 형 김창집이 정국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기에 김창협의 정치적 행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게다가 중씨 김창협도 살아 있었으므로 김창협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사건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역시 1703년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사문시비 사건이다. 김창협은 박세당

---

“吾人感恨幾時平，此地經過迥若驚。嫋嫋秋風陵樹動，迢迢漁戶島烟生。樓疑溫祚城前失，身似麻姑海裡行。存滅古今俱未辨，哀歌斷續豈成聲。”

261) 이경구, 앞의 책, 133면 참조.

262) 金昌翁, 「記夢」,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31면. 앞서 밝혔듯이 「기몽」의 저자가 김창협인지 김창협의 아들 김양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연 집안 사람이 지은 것은 분명하다. 「기몽」의 시간적 배경은 무인년(1698) 4월 25일, 공간적 배경은 석실(石室)이며, 인물로는 가친(家親), 천상(天象)으로는 백홍관일이 나온다. 석실은 장동김씨 가문의 상징이고, 가친은 김수항이나 김창협을 가리키는 말이며, 백홍관일은 큰 화난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1698년에 장동김문에 일어났던 큰 화난은 무엇일까? 소론이 남인을 등용하려 했던 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63) 이경구, 앞의 책, 133면 참조.

264) 『肅宗實錄』 24년 4월 18일 기사.

의 문인 이덕수에게 편지를 보내 박세당이 이경석(李景奭)의 비문을 지으면서 송시열을 비판한 것을 재비판하는 한편, 박세당이 『사변록』(思辨錄)을 지어 주희의 주석과 다른 견해를 편 것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 편지는 노론 유생들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홍계적(洪啓迪, 1680~1722)을 비롯한 성균관 유생 180여 명이 『사변록』과 비문을 불태우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박세당의 문인 이탄(李坦, ?~1729) 등이 박세당을 옹호하고, 이경석의 손자 이하성(李廈成)이 김창흡을 비판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었다.<sup>265)</sup>

박세당 사문시비 사건에서 김창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저 편지 한 통만으로 영향력을 발휘했을까? 선행연구에서는 김창흡이 이덕수에게 쓴 편지만 가지고 김창흡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조한 듯한데 이는 재고를 요한다.

사실 편지 작성부터 관학 유생 상소까지의 전 과정은 김창흡의 정치적인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김창흡은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sup>266)</sup> 원래 노론 측에서는 반거(泮擧)만 주도하려고 했는데, 김창흡은 반거만으로는 일회적인 하소연에 그쳐 별 의미가 없을뿐더러 사체(事體)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267)</sup> 김창흡은 이 편지로 사문난적을 토벌하는 것이, 마치 제(齊)나라 노중련(魯仲連)이 화살 하나에 글을 매달아 전단(田單)이 10만 군대로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성(聊城)을 함락시킨 것과 같다고 하였다.<sup>268)</sup> 즉 박세당의 잘못을 밝히고 여론을 조성해

265) 이경구, 앞의 책, 134면; 『肅宗實錄』 29년 4월 17일 기사 참조.

266) 김창흡과 달리 김창협은 반소(泮疏)의 실행을 반대하였다. 이것은 1703년 사돈 이여(李翕)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에서의 김창흡의 정치적 역할과 욕망을 보여준 것이 된다. 金昌協, 「答李子三」, 『農巖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2, 63~64면.

267) 金昌翁, 「與李同甫」, 『三淵集拾遺』 권15, 한국문집총간 166, 510면. “妄竊謂誠以此書, 爲不失題. 而家各膽留一本, 凡百千萬本, 散布中外. 則彼雖假辭於子貢, 借筆於莊馬, 無可容喙處矣. 若泮擧則只是一番告訴於君父, 殊無意味, 其在事體亦不妥. 政所謂不須用數萬兵力者也.”

268) 金昌翁, 「與李同甫」, 『三淵集拾遺』 권15, 한국문집총간 166, 510면. “自聞樓院事, 腦中之氣, 勃勃難制, 不覺奮筆草出此書. 而出自憂病困耗中, 殊無筆力痛說出詭譎情狀, 然於大體則不至失旨否. 李生已知其難與言, 非欲曉其狐惑以返正路也, 特欲憑此以討斯文亂賊, 而亦欲使後生不知故事輕議大老者讀之, 有所



서 사문난적 토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편지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김창흡은 편지 내용을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덕수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편지 초고 수정에 관하여 이희조(李喜朝)와 두 번의 편지왕래가 있었다.<sup>269)</sup> 이 두 편지에서 김창흡은 편지 초고에 인용된 고사의 의미, 자신의 의도, 이 편지의 가치 등에 대해 밝혔는데, 두 번째 답장을 보내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이덕수에게 편지를 보낸 듯하다.<sup>270)</sup> 편지를 보낸 뒤에 김창흡은 관학 유생의 상소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기의 생각을 펼쳤다. 이는 같은 해 이희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듣건대 관학 유생이 상소를 올리는 것을 이미 결정했다고 하니, 중간에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글을 잘 지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흠을 지적하고 트집을 잡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편지에서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이조 참의(정호鄭濤-인용자)<sup>271)</sup>가 편지를 보내 물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조 참의가 알고 난 뒤라면 잘못 인용할까 하는 우려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상소문을 집필한 사람은 아마도 김달보(金達甫: 김진규金鎭圭)일 것이고, 이조 참의는 토론하고 윤색해주었을 것입니다. 개주(改註)의 절목과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의 비문에 대해서 상소문을 집필한 사람이 오히려 상세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조 참의가 다시 제 형제들한테 물어보셨는데 또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대학』의 개주(改註) 중에서 ‘격물설’(格物說)이 가장 다릅니다.<sup>272)</sup> 경의(經義)의 체면을 깨뜨린 것은 죄

---

洞釋於邪正淑慝之辨也。昔魯仲連以一片箭書，下却聊城，以當田單數十萬兵力。妄竊謂誠以此書，爲不失題。而家各謄留一本，凡百千萬本，散布中外，則彼雖假辭於子貢，借筆於莊馬，無可容喙處矣。”

269) 초고 수정 관련 편지는 『삼연집습유』 권15에 수록되어 있는 계미년(1703)의 「이동보에게 보내다」(與李同甫) 두 편이다.

270) 金昌翁, 「與李同甫」, 『三淵集拾遺』 권15, 한국문집총간 166, 511면. “前本猶似未痛快, 今此換來, 似益猛峭, 並其愛色一欸, 填入於初本謄紙如何? 李生處明間欲淨寫以投, 而其有答與否與渠之回頭與否, 皆不欲憧憧, 只欲廣布萬本於四方千古, 洞若秦鏡禹鼎, 不容魑魍之逃形而已.”

271) 팔호 속의 간주(間註)는 모두 인용자의 것이다. 이하 동일.

가운데 더욱 심합니다. 이는 어순서(魚舜瑞: 어유봉魚有鳳)<sup>273</sup>가 일찍 그 설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물(贓物)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것이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발을 긁는 것 같습니다. 글을 분명하게 쓰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소하는 유생을 모으는 것도 어렵다고 들은 듯하니, 사문난적 토벌에 대한 치열한 의론에 끝내 부끄럽습니다.<sup>274</sup> 이 또한 우려스럽습니다만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sup>275</sup>

위의 인용문은 김창흡이 1703년 4월 초에 이희조에게 보낸 답장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답장의 작성 시기는 관학 유생이 상소문을 올리기 전 일 것이다. 삼연에 의하면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은 당시의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 1658~1716)이고, 상소문을 운색

---

272) 홍계적 등의 소에 의하면 박세당은 『사변록』에서 『대학』 성의장(誠意章)을 전(傳)의 수장(首章)으로 삼으면서 ‘정본(鄭本)이 애초 탈오(脫誤)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격’(格)을 ‘정’(正)으로 풀이하면서 ‘격물(格物)은 본래 궁리(窮理)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론의 입장에서 이런 해석은 ‘『대학』의 핵심을 파괴하고 그 차례를 뒤바꾼’ 행위이자 ‘도를 배반하고 이치를 해친’ 행위였다. 『肅宗實錄』 29년 4월 17일 기사 참조.

273) 초고를 잡은 사람은 어유봉이었던 듯하다. 『숙종실록』에 인용된 상소문은 어유봉의 초고를 바탕으로 김진규 등이 내용을 대폭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소문은 魚有鳳, 「代太學儒生請罪朴世堂疏」, 『杞園集』 권9, 한국문집총간 184, 8~11면에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송혁기, 「상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지식인의 재편」, 『동양고전연구』 59집, 동양고전학회, 2015, 141면에서 언급한 바 있다.

274) 원문은 “雲合風發”이다. 구름이 모여 바람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집단적으로 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사문난적을 토벌하기 위해 김창흡을 비롯한 노론들이 적극적으로 편지와 반거 상소문을 주도한 것을 가리킨다.

275) 金昌翁, 「答李同甫」, 『三淵集拾遺』 권15, 한국문집총간 166, 511면. “泮疏聞已決舉, 不容中止. 其合宜與否, 更不須論. 但能善爲文字, 光明圓確, 使彼不能指瑕執頗則好矣. 鄙書中‘一得千慮’之云, 人多錯會. 吏議以書來問, 弟則明言其不然. 吏議既知之後, 則無復可慮於誤引矣. 執筆者恐是金達甫, 而吏議則盖討論潤色者也. 改註節目及軒碑文字, 作疏者尙未得詳, 吏議再詢於弟兄弟, 而亦未有得. 『大學』改註中有格物說最爲差異, 其破傷經義體面, 於罪尤重. 此則魚舜瑞曾聞其說, 分明可記云矣. 盖捉贓未確, 有同隔靴搔癢. 文字之未煥瑩, 難保其不然. 而似聞疏儒亦難湊合, 終有愧於雲合風發, 則亦可慮也. 然亦奈何.” 『삼연집』 원집과 습유 글들의 번역을 다듬어주신 김진영, 심규영, 황정수 등 동학께 감사드린다. 이하 동일.

한 사람은 이조 참의(吏曹參議) 장암(丈巖) 정호(鄭澁, 1648~1736)이다. 정호는 상소문을 윤색하면서 김창흡의 편지에 나온 박세당의 개주(改註) 절목(節目)과 이경석 비문에 대해 김창흡에게 그 경위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김창흡은 이에 더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박세당이 『대학』을 개변(改變)해서 경의의 체면을 깨뜨렸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나중에 관학 유생의 상소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sup>276)</sup> 이처럼 김창흡은 상소문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이다. 또한 김창흡은 관학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린 뒤, 이탄(李坦)을 비롯한 박세당의 문인들이 올린 해명 상소, 박세당의 관직 삭탈, 『사변록』의 화서(火書) 등의 일에 대해서도 주시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는 이희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두 확인된다.<sup>277)</sup>

이상은 1703년 박세당의 사문시비 사건에 대한 분석이다. 김창흡은 이 사건의 시말에 관여했다. 편지를 먼저 쓰고 여론을 조성한 뒤에 관학 유생 상소문을 올리도록 한 것은 김창흡의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희조와 함께 편지의 작성을 주도하였다. 상소문을 작성하고 윤색한 사람은 어유봉, 김진규와 정호였지만, 핵심적인 논점을 제공해준 사람은 역시 김창흡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김창흡의 역할은 단지 편지 한 통을 보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이 사건의 전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박세당 사문시비 사건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김창흡은 왜 1703년 봄에 와서야 박세당의 『사변록』<sup>278)</sup>을 성토했는가? 중씨 김창협이 반거에 반대하는 의향이 드러났는데도 김창흡은 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는가? 이는 1702년 10월경 박세당의 아들 박태보의 『정재집』 간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703년 6월 외삼촌 나양좌는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76) 『肅宗實錄』 29년 4월 17일 기사 참조.

277) 金昌翁, 「與李同甫」, 『三淵集拾遺』 권15, 한국문집총간 166, 511~512면.

278) 문제시된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은 실은 1680년에 이미 완성됐다.

사원(士元: 박태보의 자)의 문집이 나온 뒤에 또한 매우 노하여 지금 갑자기 서계(西溪: 박세당의 호)를 지극히 욕되게 하면서 노서(魯西: 윤선거의 호) 부자까지 아울러 지극히 무고하였구려. 그 아들에게 노하고 그 부친까지 욕되게 했으니, 정말로 전법사문[법통을 이어 전수하는 승려]이라 하겠네. 사원의 문집이 나오고 장문의 상소문이 나온 뒤에 이같은 분노가 있더라도 조금도 돌아보지 말았어야 하거늘, 복수하려 한다는 지적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또 자네가 저쪽에서 선친을 무고한 글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네.<sup>279)</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일부이다. 나양좌에 의하면 김창흡이 박세당을 비난한 이유는 1702년 10월경에 간행된 『정재집』에 부친 김수항을 모욕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정재집』에는 회니시비 문제로 부친 김수항을 비난한 글이 있었고, 김수항의 죽음도 그들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김창흡은 『정재집』의 편찬과 간행을 주도한 박세당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그러므로 김창흡의 반대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흡은 박세당을 공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희조, 어유봉, 김진규, 정호 등 김창흡과 혼척관계를 맺은 노론계 인물들이 일을 함께 도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703년 박세당 사비시비 사건에서 김창흡의 활동은 노론적 당파성을 띠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부친을 위해 박세당·박태보 부자를 비롯한 소론에게 복수하려는 사심(私心)도 담겨 있었을 것이다.

## (2) 설악산 은거기 이후부터 신축환국(1721)까지

설악산 은거기 이후부터 신축환국까지 김창흡이 간접적으로 참여한 정

279) 羅良佐, 「與金生昌翁書癸未六月」, 『明村雜錄』,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청구기호: 고서(우천) 316 0). “士元文集出後, 亦甚憾怒. 今猝無限醜辱西溪而並於魯西父子, 而極意捏誣. 怒其子而辱其父者, 真是傳法沙門云(…)士元文集之出, 長文一疏之後, 有此憤薄, 少無顧藉. 報復之斥, 其可諱耶? 或者又謂君欲去彼相誣辱先爺文字.” 이 편지 내용에 대해 김창흡이 다시 일일이 반박했다. 金昌協, 「上仲舅甲申」, 『農巖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61, 505~506면.

치적 사건은 1706년 임부(林溥)·이잠(李潛)의 옥사, 1708년 이동언(李東彦, 1662~1708)의 옥사, 1710년의 경인환국(庚寅換局), 1716년 군(君)·사(師)·부(父) 일체론(一體論)과 『가례원류』(家禮源流) 화서(火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노론·소론 사이의 정치적인 공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김창흡의 백씨 김창집이 이 정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가문을 수호하고 형제를 지키려는 김창흡은 이 모든 정치적 사건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임부·이잠의 옥사에 대한 김창흡의 생각과 그 이후의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국(推鞠)한 이래 박태춘(朴太春: 朴泰春의 오기)과 강이상(姜履相)·여필중(呂必重)이 모두 무복(誣服)하여 사태가 장차 헤아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뻔했는데, 다행히 이성조(李聖肇)가 명쾌하게 항변해줬으니, “또한 어찌 좋겠는가”[亦豈好]라는 한 구절은 큰형님의 상소와 꼭 들어맞았다. 어제 유언명(兪彦明)이 또 자당(自當)하고, “어찌 좋겠는가”[豈好]라는 말을 듣긴 했으나 관례에 따르면 기록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 저들의 뜻이 꺾이고 맥이 빠지게 되었으니, 비록 백방으로 죄목을 날조하려고 해도 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그저 미루고 또 미루어 마치고 싶어도 마치지 못하는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가소로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 싹 거두어버릴 수 있으니, 여러 대신(大臣)을 심문하자 한 죄목이 끝내 어디에 미칠지 알 수 없구나.<sup>280)</sup>

위의 인용문은 김창흡이 1706년 7월 말에 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에 나온 박태춘(朴泰春), 강이상(姜履相), 여필중(呂必重), 이성조(李聖肇), 유언명(兪彦明)은 모두 임부 사건과 관련해 공초(供招)를 받은 사람들이다. 큰형님의 상소는 6월 2일에 김창집이 올린 「임부의 상소문으로 인해 의금부 밖에서 대명(待命)하는 상소」(因林溥疏待

280) 金昌翁, 「寄養謙」,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88~489면. “鞫事向來, 朴太春, 姜, 呂皆誣服, 事將叵測. 賴得李聖肇抗對明快, ‘亦豈好’一句, 恰與伯氏疏符合. 昨者, 兪彦明又自當, 以聞其豈好之言而於例不當錄爲對. 此二人出現, 則渠輩意沮氣索, 雖欲百般煅煉, 而計亦無聊, 只得推之又推, 欲了未了, 謊張得可笑. 然不過一二日可收殺, 未知所欲勘諸大臣罪目者, 終將何底也?”

命疏)를 가리킨다.<sup>281)</sup>

이 상소문에서 김창집은 당시의 조사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임부의 상소에서 이른바 윤성(尹姓)의 사람이란 바로 윤순명(尹順命)입니다. 윤순명을 신문(訊問)할 때, 윤순명이 말하기를, “장희재(張希載)의 언서(諺書) 안에 ‘그 아내의 간악(奸惡)한 죄상을 떠벌려 말하면서 이르기를, 그 아내가 김춘택(金春澤) 등과 간통(姦通)하고 서인(西人)과 결탁하여 반드시 나를 모해(謀害)하려고 하는데, 그가 만약 나를 죽이면 세자(世子)에게 또한 어찌 좋겠는가? 너는 한 집안의 연장자로서 어찌 금단(禁斷)하지 못하는가?’ 운운하였다”라고 하니, 이는 장희재가 그 아내를 미워한 말에 지나지 않고, 또 옥사(獄事)의 긴요한 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사낭청(問事郎廳)이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지, 실은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은 아닙니다.<sup>282)</sup>

김창집의 상소에 의하면 윤순명은 ‘모해동궁’이라는 말을 진술하지 않았고 ‘세자에게 또한 어찌 좋겠는가’(於世子亦豈好乎)라는 말을 하였다. 이는 임부의 상소 내용과 다르다. 따라서 6월 7일에 국청을 개설하여 임

281) 金昌集, 「因林溥疏待命疏」, 『夢窩集』 권5, 한국문집총간 158, 106~107면. 이 상소문은 『肅宗實錄』 32년 6월 2일 기사에도 보인다. 1706년 5월 29일에 충청도 유생 임부(林溥) 등이 상소하여 ‘동궁모해설’(東宮謀害說)을 제기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사년(1701)에 장희빈(張禧嬪)이 인현왕후(仁顯王后)를 저주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열었던 국청에서 죄인 윤순명(尹順命, ?~1701)이 ‘동궁을 모해했다’(謀害東宮)는 말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관리들이 세자를 불리하게 만들 계책으로 해당 내용을 일부러 빼버리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6월 1일에 이광적(李光迪, 1628~1717)이 상소를 올려 임부의 상소를 무고(誣告)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장하였다. 6월 2일에 신사년 국청 조사에 참여했던 우의정 김창집이 당시 국청 진행 상황을 자세히 진술한 상소를 올렸는데, 이는 곧 편지에 나온 큰형님의 상소문을 가리킨다.

282) 金昌集, 「因林溥疏待命疏」, 『夢窩集』 권5, 한국문집총간 158, 106면. “林溥疏中所謂尹姓人, 當是尹順命也. 當訊問順命之時, 順命以爲‘希載諺書中盛言其妻奸惡之狀, 仍謂其妻與春澤等相奸, 交通西人, 必欲謀害我身. 渠若殺我, 則於世子亦豈好乎? 汝以一家中年長之人, 何不禁斷?’云云. 此不過希載憤嫉其妻之辭, 而又無關於獄事肯綮, 故問事郎廳曾不一一載錄, 實非用意拔去者也.” 인용문의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숙종실록』 번역을 참고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

부를 추국하기 시작하였다.

임부는 변동규(卞東規, ?~1701)를 통해 윤순명이 ‘장희재가 편지에서 김춘택이 곧 동궁을 모해하려 한다고 했다’라고 공초한 내용을 들었다. 이 일은 신사년 당시 문사랑 여필중이 강이상에게, 강이상이 다시 조태채(趙泰采)에게 말함으로써 외부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였다.<sup>283)</sup> 이에 6월 8일에 여필중과 강이상 등을 조사했는데, 그들은 ‘불호’(不好)라는 말을 들었지만 ‘모해동궁’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진술했다가,<sup>284)</sup> 나중에 추궁할 때 모두 ‘모해’라고 승복(承服)하였다.<sup>285)</sup> 이것이 바로 김창흡이 편지 서두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다.

사건의 흐름은 점차 노론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뒤에 신사년 국청에 참여한 문사랑 이성조와 유언명도 공초하였는데, 이성조는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에 여러 번 공초를 하였지만 시종 ‘모해동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했으며,<sup>286)</sup> 유언명은 7월 28일에 신사년 당시 윤순명을 신문했을 때 그에게 ‘(장희재의 언문 편지에서) 그가 만약 나를 죽이면 세자에게 또한 어찌 좋겠느냐고 하였다’라는 진술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백하는 말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공초하였다.<sup>287)</sup> 이것은 김창흡의 편지에서 유언명이 자처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처럼 ‘모해’라고 진술한 사람은 여필중, 강이상, 박태춘, 임완(林浣: 임부의 형)인데, 강이상 이하 세 사람은 모두 여필중에게 전해들었다. 그런데 여필중은 추궁하는 과정에서 말을 여러 번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 사이에 어긋난 증언도 자주 생겼다.<sup>288)</sup> 특히 신사년 국청에 참여한 이성조와 유언명의 공초 내용은 ‘동궁모해설’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지게 하였다.

김창흡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소론 쪽에서 장동김문을 비롯한

283) 『肅宗實錄』 32년 6월 7일 기사.

284) 『肅宗實錄』 32년 6월 8일 기사.

285) 『肅宗實錄』 32년 7월 20일 기사; 『肅宗實錄』 32년 7월 24일 기사.

286) 『肅宗實錄』 32년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기사.

287) 『肅宗實錄』 32년 7월 28일 기사.

288) 이상식, 앞의 글, 151면 참조.

노론을 타격하기 위해 만든 음모였다. 그런데 지금 사건의 흐름은 소론의 생각대로 가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곤란에 빠지게 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김창흡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론의 행위를 비웃으면서 며칠 뒤에 그들이 어떻게 수습할지를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그런데 8월 1일에 숙종은 영의정 최석정, 좌의정 서종태를 비롯한 소론 대신의 의견에 동의하여 임부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임부는 흑산도(黑山島)에 정배되고, 김춘택은 제주도로 정배되었다.<sup>289)</sup> 뿐만 아니라 숙종은 신사년 국청에 참여한 당시의 관원인 좌의정 이세백(李世白),<sup>290)</sup> 우의정 신완(申琬), 판의금 이여(李畬), 지의금 김창집, 동의금 유지발(柳之發)·이광적, 우부승지 이국방(李國芳), 장령 윤헌주(尹憲柱), 정언 황일하(黃一夏), 문사낭청 권상유(權尙游)·강이상·송택상(宋宅相)·이성조·여필중·유언명 등을 모두 파직시키도록 명을 내렸다.<sup>291)</sup> 파직당한 관원들은 대부분 노론 세력이고, 김창흡 집안과 혼척관계를 맺은 사이이다.

이상은 김창흡이 맏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편지 내용을 통해 김창흡이 당시의 정치적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김창흡의 형 김창집이 신사년 옥사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상소문을 올린 뒤에 양쪽에서는 ‘모해’인가 ‘기호’(豈好)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창흡의 뜻과 달리 이 사건은 노론 세력이 대거 파직당하고, 최석정, 서종태를 비롯한 소론 세력이 승리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물론 그 뒤인 9월에 이잠(李潛, 1660~1706)의 상소로 인해 임부에 대한 2차 신문이 진행되고 최석정을 비롯한 소론 대신이 체직되었으며, 이이명, 김창집을 비롯한 노론 대신이

289) 『肅宗實錄』 32년 8월 22일 기사.

290) 이세백은 1703년 이미 죽었다. 아들 도곡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이 8월 9일에 선친의 무고를 따져 밝힌 상소문을 올렸는데, 8월 10일에 파직당했다. 李宜顯, 「辨先誣疏」, 『陶谷集』 권5, 한국문집총간 180, 416~418면.

291) 『肅宗實錄』 32년 8월 1일 기사.



다시 득세하게 되었다.<sup>292)</sup>

1706년 임부·이잠 옥사를 둘러싸고 시작된 노론·소론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되었다. 1708년의 이동언(李東彦, 1662~1708) 옥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동언 옥사란 이동언이 1704년 소론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의 무고로 투옥되었다가 1708년에 옥사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도 김창흡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동언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국미(國美)이며, 호는 삼복재(三復齋)이다. 부친은 이세무(李世茂, 1637~1698)이고 동생은 이몽언(李夢彦)이다. 그의 부친 이세무는 이관명·이건명 형제와 삼종형제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이동언도 장동김씨와 척분(戚分)이 있었으며, 그의 동생 이몽언은 모주(茅洲) 김시보(金時保)의 사위였다. 두 노론 명문 간의 혼척관계에서 이루어진 연대는 정치적으로 확대되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만들었다.

어제 사례하는 편지를 써서 벽계(壁溪)에 놔두어 빨리 전달되길 바랐는데 이 편지에 앞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객지에서의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데, 사황(仕況)이 근래에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복인(基服人: 김창협)의 상)은 겨우 남아 있는 혼을 거두기 위해 산 속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득 가을을 만났으니, 기운이 꺾이고 애통함이 지극합니다.

이대(李臺: 이동언李東彦)가 결국 유사(瘵死: 옥중에서 병들어 죽음)했습니다. 이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은전(恩典)을 흔쾌히 준 것이고 **주초(走肖: 조태억趙泰億)**의 입장에서는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경사겠지만 가항(街巷)의 의론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292) 9월 7월에 남인 유생 이잠이 임부를 옹호하며 세자의 보호를 역설하면서 세자를 해치려던 노론 핵심인 조태채(趙泰采, 1660~1722), 민진후(閔鎭厚, 1659~1720), 김진규(金鎭圭, 1658~1716)를 처벌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숙종이 친국(親鞫)하였는데, 그 결과 임부의 국문을 담당했던 소론 대신들에게 옥사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더해져 최석정, 서종태 등이 체직되었고,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을 우의정으로 특배(特拜)하여 임부에 대한 2차 신문을 마치도록 하였다. 이상식, 앞의 글, 152~155면; 양기정, 『『禮記類編』의 編刊과 毀板·火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2면 참조.

이 사람이 설원(雪冤)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를 가소롭게 여깁니다. 한대(韓台: 한성우韓聖佑)의 상소문이 나와 문안(文案)이 역력하자, 변방에 떨어져 있는 자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억울함은 씻긴 지 오래됐습니다. 거짓을 날조해낸 저들은 진실로 도마 위의 고기와 같은 처지입니다.

지난번의 소결(疏決)에서 혹 그가 구차히 옥에서 나오길 바란 것은 진실로 친한 약정(弱情)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것처럼 모호하게 용서받아 변방에 유배되어 내쳐졌다면, 한번 죽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도 이렇게 유사(痲死)한 것만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민멸되지 않은 공의(公議)는 다만 가항에 있는데, 그 원통함을 호소하며 억울해 하는 것은 천상(天象)을 감동시키고 귀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동호(董狐)처럼 양사(良士)의 붓을 잡은 사람이 또 장차 단서(丹書)를 크게 씻어줄 것이니, 이는 어찌 이치가 곧아 빼앗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옥문(獄門) 지척의 땅에는 죽음에 완급의 차이가 있고, 사람이 애도하는 데는 천심(淺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애도하는 것이 간절했기에 그의 억울함이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하물며 상소문 문안에서 이미 역력히 드러남에 있어서겠습니까. 나는 진실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나, 속으로 다행히 여김은 그의 옥사가 잘 처리되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뜻이 또한 이에 부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듣건대 그 집안에서 등문(登聞)할 뜻이 있는 듯하니, 이는 아마도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가려져 넓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억울함을 호소하여 구차히 ‘신설’(申雪) 두 글자를 당장 얻는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통쾌한 것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어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지요?

만약 이렇게 하려는 뜻이 당신의 견해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바라건대 내가 위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통렬하게 한 번 말하여 뜯어 말려주십시오. 만약 모두의 의론이 같고 당신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진실로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사사로이 마음속에서 개탄하는 것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불평스러운 마음에서 촉발되다 보니 얽히고설킴이 너무 번거로움을 면치 못한 데다가 시회(時諱)에 저촉되어 위태롭고 두려워할 만한 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이 편지를 얻은 태워버려 부디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십시오.<sup>293)</sup>

위의 인용문은 1708년 7월 2일에 김창흡이 처남 이성좌에게 보낸 편지이다.<sup>294)</sup> ‘주초’(走肖)는 성씨 ‘조’(趙)를 파자한 것으로, 조태억을 가리킨다. 1704년 6월 20일에 지평(持平) 조태억은 인피(引避)하면서 이동언이 1698년 파주(坡州) 임소에서 부친의 상을 당했을 때 관노 강상(江床)을 시켜 반함(飯舍)하는 것을 대신 보게 했다는 불효의 죄를 고발하였다.<sup>295)</sup> 그 뒤에 조태억이 몇 차례 상소하여 이동언의 불효죄에 대한 증거들을 논한 바 있었다. 이동언은 이 때문에 옥중에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되지 못한 채 1708년 6월 26일에 병사(病死)하였다.<sup>296)</sup>

편지에 나온 한성우(韓聖佑, 1633~1710)의 상소문은 1708년 윤3월 19

293) 金昌翁, 「與李尙卿聖佐」,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42면. “昨裁謝簡, 留諸槩溪, 冀速傳徹, 而恐未及先此信也. 客炎逾毒, 不審仕況比何如? 暮服人爲收殘魂, 返身峽巢, 而奄見秋朔, 摧隕曷極. 李臺竟瘵死矣. 在朝家爲快典, 在走肖爲積慶, 但未知街巷議如何耳? 有謂斯人不能雪冤而死, 則吾以爲可笑. 蓋韓台疏出, 文案歷歷, 而爲邊隻者噤口不肱. 則斯人之冤, 久矣其雪, 而彼搆捏者眞爲肉在机上矣. 向來疏決, 或冀其苟得出獄, 是固出於親切之弱情, 而若是糶糊被宥, 屏諸邊裔而投身, 則一死之有光, 定不及此. 今公議之不泯, 只在街巷, 其所稱冤煩菴, 有足感天象而動鬼神. 繼此秉董狐之筆者, 亦將大湔丹書, 豈不以理直難奪? 而獄門一步地, 死有緩切; 而人之哀之, 乃有淺深. 蓋其哀之也切, 故其冤益暴. 況其文案早已歷歷乎! 愚固哀之者一, 而乃其默賀, 窃在其瘵死以爲好出場, 未知左右意亦符此否? 似聞其家有登聞之意, 此殆爲悲所掩, 不能廣思而然也. 假使鳴冤而苟得申雪二字於當今, 未知其爲榮且快. 以左右思量, 豈不及此乎? 果有此舉之意, 出於明見之外, 則幸以如右曲折, 痛說一番而挽止之. 若僉議合同, 盛意亦不以爲不然, 則固無奈何. 而私所慨嘆于中者, 豈有既哉? 不平所發, 未免葛藤太繁, 而語觸時諱, 有可危凜. 從違可否間, 急丙此紙, 千萬勿放過.”

294) 『삼연집습유』에는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삼복재집』(三復齋集) 『부록』(附錄)에 수록되어 있는 「삼연(三淵) 김선생이 이직장(李直長)에게 보낸 편지」(三淵金先生昌翁與李直長聖佐書)에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李東彦, 「三淵金先生昌翁與李直長聖佐書」, 『附錄』 下, 『三復齋遺稿』 六, 한국역대문집DB 2346~2347, 서울: 미디어한국학, 2012, 453면(원소장처:고려대학교 도서관). “戊子七月二日昌翁拜.”

295) 『肅宗實錄』 30년 6월 20일 기사.

296) 李夢彦, 「家狀」, 『附錄』 上, 『三復齋遺稿』 六, 387면. “六月十四日午猝昏室, 蓋殆積傷所暴發而醫不能名症. 翼日禁府據實以聞, 因請保放救療. 上怒傳教曰: ‘某何等重因而敢請保放乎? 當該堂上推考.’ 堂上實閔同知鎮遠也. 昏室旬餘日, 諄諄夢語猶多在君親. 二十六日味爽終於獄中.”

일에 이동언의 옥정을 신변하여 올린 글을 가리킨다.<sup>297)</sup> 한성우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당시의 추고관이였다. 이 글에서 그는 강상의 전후 공초가 서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또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 어버이를 모시는 효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동언이 불효한 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298)</sup> 김창흡이 말한 ‘문안이 역력하다’는 것은 바로 한성우가 열거한 여러 증거와 조목들을 가리킨다.<sup>299)</sup> 한성우는 이 상소 때문에 편당(偏黨)의 혐의로 파직당했다.

‘지난번의 소결’은 1708년 5월 21일에 여러 죄수를 소결한 것을 가리킨다.<sup>300)</sup> 이 소결에서 이유(李濡)와 민진원(閔鎭遠)이 강상의 공초에 의심할 자취가 많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동언을 구제하려고 했는데, 숙종은 그들을 한성우나 김흥경(金興慶, 1677~1750)<sup>301)</sup>과 같은 당류(黨類)로 간주하며 통렬히 비판하는 하교(下敎)를 내렸다.<sup>302)</sup> 김창흡이 편지에서 언급한 ‘이동언을 옥에서 구제하려는 사람’은 바로 이유와 민진원을 비롯한 노론 세력이다.

그러나 김창흡은 노론 측의 구제 행위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본 듯하다. 김창흡에 의하면 비록 단서(丹書)에 이동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억울함이 한성우의 상소를 통해 이미 다 씻겨졌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이동언의 죽음이 슬퍼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원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언이 지금 신원된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통쾌하지는 않으리라 본 것이다. 왜 그럴까? 여기서 김창흡의 예리한 정치적 판단력을 엿볼 수 있다.

297) 『肅宗實錄』 34년 윤3월 19일 기사.

298) 『肅宗實錄』 34년 윤3월 19일 기사.

299) 김창흡은 한성우가 상소한 행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다. 金昌翁, 「吏曹參判韓公墓表」, 『三淵集』 권30, 한국문집총간 166, 72면. “公年迫大耋矣, 獨能於衆難羣猜之中, 一筆判李東彥獄案, 以折讒賊之口. 天怒乍熄, 東彥得伸冤.”

300) 『肅宗實錄』 34년 5월 21일 기사.

301) 부교리 김흥경도 1708년 4월 23일에 올린 상소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동언을 신구(伸救)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숙종이 매우 놀라운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肅宗實錄』 34년 4월 23일 기사.

302) 『肅宗實錄』 34년 5월 21일 기사; 『承政院日記』 34년 5월 21일 기사.

이동언 사건을 대하는 숙종의 태도는 항시 불만과 분노로 가득차 있었다. 숙종은 이동언을 구제하려는 노론의 행위를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해당 관원들을 체직시키기도 하였다. 이동언이 죽은 뒤에는 해당 일을 언급하기만 해도 숙종이 바로 격노했기 때문에 대신들도 다시 이 일을 언급하지 못하게 되었다.<sup>303)</sup> 그만큼 이동언 사건을 바라보는 숙종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론 측의 공격도 지속되고 있었다. 조태억 등이 올린 몇 차례의 상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의 정국은 노론 측에 매우 불리하였다. 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시회(時諱)에 저촉되어 위태롭고 두려워할 만한 바가 있으니, 편지를 방치하지 말고 얼른 태워버리라’는 김창흡의 당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창흡은 당시의 형세를 판단하여 당분간 신원을 하지 말라고 한 듯하다.

1709년 6월 19일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가 이동언의 억울함을 신원했는데 숙종이 엄교(嚴敎)를 내렸기 때문에 인피하였다.<sup>304)</sup> 숙종은 1710년 2월 16일에 비로소 이동언의 죄명을 해당 관부로 하여금 핵실하도록 하교하였고, 3월 5일에 이동언의 억울함을 인정하면서 사후에 응당 행해야 할 은전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sup>305)</sup> 곧 경인환국(庚寅換局)으로 최석정이 실각한 뒤에 이동언 옥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언 옥사는 노소론 간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김창흡은 노론 명문가의 자제로서 늘 당시의 정국을 주시하고 형세를 판단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경인환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이 경솔하고 정성이 부족하니 『춘추』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거

303) 李夢彥, 「家狀」, 『附錄上』, 『三復齋遺稿』 六, 388면. “是後, 臣下或有提公事者, 上輒怒, 使莫敢復言者.” 『숙종실록』에서도 이동언 사건에 대한 숙종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304) 『肅宗實錄』 35년 6월 19일 기사.

305) 『肅宗實錄』 36년 2월 16일, 3월 5일 기사. 이몽언이 지은 「가장」에도 잘 밝혀져 있다.

늘, 아래로부터 부산스레 그를 구해줬으니 또 허지(許止)와 같은 무리<sup>306)</sup>가 아닌가 하는 혐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하와 자식은 한 몸이라고 하였으니, 장자(長子)된 자<sup>307)</sup>가 시질(侍疾)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병든 어버이에게 내쫓김을 당했다면, 그 처분이 비록 과도하다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는 다만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시인하며 잘못을 자책해야 할 따름입니다. 어찌 감히 법을 근거로 쟁집(爭執)하며 이처럼 무엄(無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생각에 만사를 복역(覆逆)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일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저들이 아는 바이겠습니까?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힘을 또한 슬퍼할 만합니다.<sup>308)</sup>

위의 인용문은 1710년 2월경에 김창흡이 형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최석정(崔錫鼎, 1646~1715)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영의정 최석정이 약방 도제조에서 퇴출된 사건을 계기로 소론 일파가 조정에서 축출됨에 따라 이른바 경인환국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소론 영수 최석정은 면직되었고, 그가 지은 『예기유편』도 바로 훼손·화서돼버렸다.<sup>309)</sup> 경인환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숙종은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병에 걸리는 일이 많았다. 1709년 1월 3일부터 1710년 4월까지 약원(藥院)에서는 직숙(直宿)했다.<sup>310)</sup> 그런데 1710년 1월 10일에 숙종은 영의정 최석정이 약원 도제조(都提調)

306) ‘허지’는 허(許)나라 세자를 가리킨다.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19년 조에, 허나라 도공(悼公)이 학질을 앓아서 그 아들 지(止)가 약을 지어 드렸더니 도공이 죽었다. 그 사건에 대해 공자가 “세자 허지가 그 임금을 죽였다”라고 기록했다. 인용문에서 언급한 ‘허지’는 최석정을 가리키고, ‘허지와 같은 무리’는 소론 세력을 가리킨다.

307) 이때 최석정이 영의정이기에 맏아들이라 표현한 것이다.

308)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456면. “其人之輕躁少愜, 合受『春秋』之誅, 而自下紛然營救, 又難免黨於許止矣. 夫既曰: ‘臣子一體’, 則爲長子者既以不謹侍疾, 見黜於病親, 則其舉雖過度, 在諸子處義, 只得俯首引罪, 自訟無狀而已. 何敢據法爭執, 若是其無嚴乎? 竊謂萬事可覆逆, 而惟此不可爲. 然豈彼輩之所知哉? 義理晦塞, 亦可悲也.”

309) 李肯翊, ‘庚寅換局’, 『肅宗朝故事本末』, 『燃藜室記述』 권38, 서울: 조선고서간행회, 1913, 704~705면; 『예기유편』을 중심으로 벌어진 노·소론간의 정치적 공방전에 대해서는 양기정, 앞의 글, 64~93면 참조.

310) 이상식, 앞의 글, 198면 참조.

로서 문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그를 삭탈관직(削奪官職)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옥당, 대간, 윤지완(尹趾完), 좌의정 서종태(徐宗) 등 소론들이 나서서 그를 구원하려 했는데, 숙종이 비망기로 『춘추』(春秋)의 시군(弑君)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최석정 등이 태연하게 약방 일을 수행한 것을 군부를 얕본 것으로 간주했고, 최석정을 대신하여 이이명을 약방 도제조로 삼고 민진후(閔鎭厚)를 제조로 삼도록 명했다.<sup>311)</sup> 이 사건으로 소론 세력이 조정에서 축출되었고, 이여를 영의정에, 김창집을 우의정에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노론 세력이 대거 등용되었다.<sup>312)</sup>

김창흡이 편지에서 ‘『춘추』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숙종이 내린 비망기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그를 부산스레 구제한다’는 것은 최석정을 구원하기 위해 상소문을 잇달아 올린 소론 세력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김창흡은 신하로서의 본분을 잃은 최석정을 비판하면서 의리에 어두운 소론 세력을 풍자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창흡의 정치적 안목과 판단력이다. 그는 소론 측의 상소에 대한 숙종의 반응과 숙종이 내린 비망기의 내용을 근거로 최석정의 실각을 예언하였다. 최석정은 이때 실각한 후 1715년 11월 11일 죽을 때까지 핵심 요직에 임명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노소론간의 정치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소론 영수 서종태가 그대로 좌의정에 있었고 최석항(崔錫恒, 1654~1724)을 비롯한 소론 대신들 역시 여전히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균형은 남구만(1711), 윤증(1714), 최석정(1715)의 죽음과 서종태의 면직에 따라 깨지기 시작되었고, 1716년에 들어가면서 소론의 정치적인 역량은 크게 줄어들었다.<sup>313)</sup> 이는 노론 일당독재의 서막을 상징적으로 알린 병신처분에서 잘 드러난다.<sup>314)</sup>

311) 『肅宗實錄』 36년 1월 10일 기사.

312) 『肅宗實錄』 36년 3월 26일 기사.

313) 이상식, 앞의 글, 202면 참조.

314)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서울: 동방미디어, 2000, 116~118면 참조.

사흘 전에 이곳에 도착해 보내주신 편지를 받으니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정에 나아가 사직을 고하여 한가로이 쉬실 편안함이 생길 듯하니 기쁘고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임금의 환후가 아직 낫지 않았거늘, 『가례원류』(家禮源流)의 풍파가 임금을 격뇌(激惱)케 하여 조양(調養)에 방해가 될 듯하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황강(黃江)의 상소**는 쉬이 짓고 호쾌하게 붓을 휘둘러 그 형세가 파죽(破竹)과 같으니 윤씨가 신령이 있다면 틀림없이 등이 땀으로 젖을 것입니다. 맹렬한 것이 또 있으니, **조대(趙臺)의 수백 마디** 말은 글자마다 바람과 서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 과감한 말은 가상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경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임금과 스승은 한 몸으로, 부자 관계보다 훨씬 위에 있음’을 논한 데 모두 논거가 있으니, 참으로 남들이 말하지 못한 것을 말했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리고 『원류』를 언급한 한 조목에 이르러서는 냉소적인 말로 마무리하였으니, 그 식견의 높음을 여기에서 더욱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합니다.<sup>315)</sup>

위의 인용문은 김창흡이 2월에 평강(平康)에 있었을 때 형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 내용을 보면 『가례원류』 파문과 연관된 듯하다. 문제는 『가례원류』가 애초 윤증의 부친 윤선거(尹宣舉, 1610~1669)와 유계(兪槩, 1607~1664)의 공동 편찬이었다는 데 있었다. 이후 이 책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sup>316)</sup> 결국 『가례원류』 초본 원고를 갖고 있던 윤증이 유상기를 이기지 못하고 원고를 그에게 넘겨줬다. 유상기는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서문과 장암(丈巖) 정호(鄭澹, 1648~1736)의 발문을 받아 1716년 『가례원류』를 간행하였다.<sup>317)</sup>

315)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47면. “三昨到此, 伏承下書, 仰慰無已. 且審趨班告撤, 庶有暇息之適, 以爲喜幸. 而上候加減猶靡常, 『源流』風波, 似有所激惱而妨調也. 大事大事. 黃江疏易題快筆, 勢若破竹, 尹若有靈, 定不禁汗浹背矣. 又有猛者, 趙臺數百言, 字挾風霜, 不惟其敢言可獎. 自是邃於經學者, 其論君師一體, 高壓父子之上, 皆有援據. 眞可謂發所未發, 而及至『源流』一歎, 冷語了之, 尤見識力之高, 可敬可敬.”

316) 유계의 손자 유상기(兪相基, 1651~1718)가 유계의 단독 집필설을 주장한 반면, 윤증은 공동 집필설을 주장했다. 공방 과정에서 윤증의 문인인 유상기는 윤증이 송시열도 모자라 유계까지 배반한다고 조롱했다.

317) 이성무, 앞의 책, 114~115면 참조.



『가례원류』가 간행되자 좀처럼 잠잠하던 회니시비가 다시 불거졌다. 권상하와 정호가 서문과 발문에서 스승 송시열을 배반한 윤증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숙종이 정호를 특별히 과직시켰는데, 권상하는 후서를 지은 자신도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편지에 언급된 ‘황강(黃江)의 상소’는 바로 권상하가 1716년 1월 25일에 『가례원류』의 후서를 지은 자신을 처벌할 것을 요청한 상소를 가리킨다.<sup>318)</sup> 이 상소에서 권상하는 윤증의 행위에 대해 “첫째도 스승을 저버렸고, 둘째도 스승을 저버렸다”(一則背師, 二則背師)라고 하면서 간경(簡勁)한 어조로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김창흡이 편지에서 “쉬이 짓고 호쾌하게 붓을 휘둘러, 그 형세가 파죽(破竹)과 같으니”(易題快筆, 勢若破竹)라고 말한 것은 이 부분을 두고 한 듯하다. 그런데 숙종은 권상하의 상소를 윤허하지 않았고 불문에 부쳤다.<sup>319)</sup>

이에 조상건(趙尙健, 1672~1721)이 권상하의 편을 들어 2월 3일에 윤증을 논핵하는 상소를 올렸다.<sup>320)</sup> 편지에 나온 ‘조대’(趙臺)가 바로 조상건이다. 이 상소에서 조상건은 경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소론측에서 주장한 부사경중설(父師輕重說)을 조목별로 논증하였고, 『가례원류』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의 예서(禮書)로 모아 엮은 것일 뿐이니, 누가 지었다 한들 그 사람의 학문이나 도덕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sup>321)</sup>라고 냉소적인 어조로 언급했을 뿐이었다. 이는 김창흡이 편지에서 말한 조상건의 상소 내용과 부합한다.

김창흡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대략 이상과 같다. 대신들의 상소문을 자세히 파악한 것을 보면 김창흡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김창흡이 당시의 정국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백씨 김창집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다.

김창집은 조상건을 옹호하고 윤증을 논척하는 상소문을 올렸다.<sup>322)</sup> 그

318) 『肅宗實錄』 42년 1월 25일 기사.

319) 이상식, 앞의 글, 208~209년 참조.

320) 『肅宗實錄』 42년 2월 3일 갑자 기사.

321) 『肅宗實錄』 42년 2월 3일 갑자 기사. “所謂『源流』, 特一禮書之彙編者也. 屬之彼此, 何關於其人之學問道德.”

322) 金昌集, 「因災異請賜策免, 兼陳所懷劄」, 『夢窩集』 권7, 한국문집총간 158,

뒤에 이진유(李眞儒, 1669~1730)가 상소하여 윤증을 신변하면서 부사경 중설을 옹호하여 김창집을 공격했다. 김창집은 다시 상소문을 올려 세 가지 경우를 들어 윤증을 비판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은 『예경』(禮經)에 뚜렷이 실려 있고, 옛 성현(聖賢)을 따르건대, 경중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 하였습니다. 이미 경중의 차이가 없다면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의리는 끊을 수 없을 것이고, 혹 경중이 있어서 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욕 설한 것이 없으면 또한 핑계 댈 말이 없을 것이며, 비록 마지못한 일이 있어서 서로 절교하더라도 글로 분명히 말하여 절교를 고하면 오히려 곧바로 관계를 끊는 데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윤증(尹拯)은 하나도 맞지 않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어찌 스승을 저버렸다는 지목을 면 할 수 있겠습니까?<sup>323)</sup>

김창집은 군(君)·사(師)·부(父)를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군사부일체론, 부사(父師)에 경중이 있어 관계를 끊는다 하더라도 애당초 욕설한 것이 없었다면 또한 변명하는 말도 없었어야 한다는 점, 서로 절교할지라도 글로 분명히 절교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올바르게 끊는 데에 해롭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윤증의 배사 행위가 여기에 모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숙종은 김창집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상건을 삭탈관작, 문외출송시켰다. 이에 조태채(趙泰采), 이이명, 어유귀(魚有龜)를 비롯한 노론 세력이 나서서 그를 옹호했다. 태학 유생 윤봉오(尹鳳五, 1688~1769), 김순행(金純行)<sup>324)</sup> 등도 권

138~139면.

323) 金昌集, 「因李眞儒疏辭職劄」, 『夢窩集』 권7, 한국문집총간 158, 140면. “父師與君, 事之如一, 著在『禮經』, 從古聖賢, 未聞有輕重之說也. 既無輕重之殊, 則雖有不協, 義不可絕, 雖或有輕重而可絕, 初無辱說, 則又無可諉之言也. 雖有不得已而相絕, 以書明言告絕, 猶不害於直截也. 於此三者, 拯無一得焉, 如是而烏得免背師之目哉?”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했다.

324) 김순행은 김창흡의 문인이다. 김창흡은 김순행의 정거에 대해 이것이 성중(誠仲, 김순행의 자)이 바란 것에 잘 맞았다고 평한 바 있었다. 이처럼 김창흡은 가문, 조정의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었다. 金昌翁, 「答彥謙」, 『三淵集』

당(捲堂)하면서 윤증을 선정(先正)으로 대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숙종은 그들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고 김순행 등을 특명으로 정거하게 했다.<sup>325)</sup> 이처럼 숙종은 노론을 비판하고 윤증을 옹호하였다.

그러다가 1716년 7월 2일에 숙종은 그 시비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윤증이 1681년에 송시열에게 보내려던 「신유의서」(辛酉擬書)와 송시열이 지은 윤선거의 묘문을 살펴보라고 명하였다. 결국 영의정 서종태를 비롯한 소론 세력이 물러난 반면, 김창집이 좌의정으로 임명되는 등 노론계열의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를 병신처분이라 한다.<sup>326)</sup> 노론측에서 주장하는 군사부일체론도 1716년의 『가례원류』 간행 문제로 벌어진 노소간 정쟁 속에서 정론으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김창흡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1716년 2월 18일 이전 김창흡은 김창집이 조상건을 구원하려고 작성한 차자 초고를 읽고 답장하였다.<sup>327)</sup> 이 편지에서 부사경중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부사경중(父師輕重)을 반박한 것은 비록 윤상(倫常)의 큰 당부(當否)이나, 그것이 의리에 정미한 것이라 일변(一邊)의 사람들이 이기는 것에 힘쓰는 생각으로 급하게 판단하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이미 먼저 선입견을 고집하셨으니, 아래로부터 부딪치는 것이 마치 혈전(血戰)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노소 사이의 다툼이 아니고 위아래 사이의 전투입니다.<sup>328)</sup>

---

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97면. “誠仲忍死辦事，亦可謂差強人意。停舉正中其願，但未知厥翁意何如也?”

325) 이상식, 앞의 글, 211면 참조.

326) 이성무, 앞의 책, 116~118면; 이상식, 위의 글, 212~213면 참조.

327) 편지 내용, 김창집의 차자 「재이로 면직을 청하고 겸하여 감회를 진술하다」(因災異請賜策免兼陳所懷劄) 내용, 그리고 『숙종실록』 42년 2월 18일 기묘 기사에 의하면 1716년 2월 18일에 차자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창흡이 차자 초고를 본 날짜는 2월 18일보다 이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1면; 金昌集, 「因災異請賜策免兼陳所懷劄」, 『夢窩集』 권7, 한국문집총간 158, 138~139면; 『숙종실록』 42년 2월 18일 기묘 기사 참조.

328)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1면. “父師輕重，雖爲倫常之大當否，而義理精微之所在，不容以一邊務勝之見，造次判斷。

노론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김창흡은 당연히 부사경중설을 비판하고 군사부일체론을 주장했다. 이 편지에서도 김창흡은 서두에서부터 곧바로 부사경중설을 배척하는 것이 “윤상(倫常)의 큰 당부(當否)”라고 밝혔다. 그런데 숙종은 1698년 비망기(備忘記)에서 부사경중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종의 부사경중설을 지지하였으며, 숙종의 이러한 관점은 1716년 병신처분 전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편지에서 “임금께서 이미 먼저 선입견을 고집하셨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창흡은 다른 글에서도 군사부일체론의 원리와 함의를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오호라! 이 서첩이여. 군(君)·사(師)·부(父)를 하나로 여기는 생삼사일(生三事一)의 뜻이 모두 이 첩에 보인다.

우옹(尤翁: 송시열을 가리킴)께서 유공(柳公: 유성채柳星彩를 가리킴)을 경계하신 바는, 하나는 성조(聖祖)의 밀교(密敎)를 전함으로써 몸을 바쳐 순국(殉國)하도록 하신 것이고,<sup>329)</sup> 하나는 주자의 시를 써서 보여줌으로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를 공업을 세우는 근본으로 삼게 하신 것이다. 모두 금석같은 지극한 가르침이다.

유공은 일찍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유해 사문(師門)을 욱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효자의 효성을 다함이 없었고 대대로 높은 관직을 맡았으니, 그가 바르고 성심있는 절도에 힘쓴 것은 조(曹)씨 집안의 찬란함<sup>330)</sup>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무릇 이 첩을 보는 사람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스승을 높이 받드는 것에 대해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

유공의 이름은 성채(星彩)이고, 관직은 안서절도사(安西節度使)이다. 서첩에서 일컬어진 우후(虞候)는 곧 유공이 처음 부임한 관직이다.<sup>331)</sup> 첫

而上意既執先入，自下衝激，有同血戰。此則非老小之爭，乃上下之戰也。”

329) 자세한 기록은 金鎭圭, 「統制使柳公神道碑銘并序」, 『竹泉集』 別集, 한국문집총간 174, 587면 참조.

330) 삼국시대 위(魏)나라 조순(曹純)을 비롯한 조씨 집안을 말한 듯하다. 조순, 조휴(曹休), 조진(曹眞) 등 호표기(虎豹騎)를 지휘하던 장수가 모두 조씨(曹氏) 일족이었다.

331)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5월 5일 기사에 의하면 유성채는 남병 우후(南

재 아들 취장(就章)은 진주절도사(晉州節度使)에 재직하고 있고,<sup>332)</sup> 둘  
재 아들은 바로 해서 수사(海西水使) 정장(貞章)<sup>333)</sup>이다.<sup>334)</sup>

인용문은 1720년경 김창흡이 쓴 제발 「유병사가 소장한 우암의 필적  
뒤에 제하다」(題柳兵使所藏尤菴筆蹟後)의 내용이다.<sup>335)</sup> 유병사는 송시  
열의 문인 진주유씨(晉州柳氏) 유성채(柳星彩, 1645~1707)를 가리킨다.  
이 글의 핵심은 생삼사일(生三事一)의 군사부일체론이다. 김창흡은 군사  
부일체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  
하였다.

우선 서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차원이다. 스승 송시열이 써준  
서첩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문인 유성채의 행동은 ‘사’(師)에 대한 의리  
가 잘 반영된 것이다. 송시열이 서첩을 써준 당시 유성채가 우후(虞候)  
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君)에 대한 의리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부친의 공적을 따라 유  
씨가문의 자제들이 벼슬하여 공업을 세운다는 것은 ‘부’(父)에 대한 의

---

兵虞候)에 제수되었다.

332)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를 가리킨다.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11월 25일  
기사에 의하면 이때 경상도 우병사(右兵使)로 유취장을 내려보내는 일을 논  
의하였고, 12월 19일에 경상도 우병사 유취장의 도입(到任) 상본(狀本)을 읽었  
다. 따라서 유취장이 1719년 11월 말경 경상도 우병사에 제수되어 1719년  
12월에 부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33) 해서는 황해도로 가리킨다.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8월 29일 기사에 의  
하면 유정장은 황해 수사(黃海水使)에 임명되었다가 다음해 10월 7일에 회  
령 부사(會寧府使)에 제수되었다.

334) 金昌翁, 「題柳兵使所藏尤菴筆蹟後」,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  
7, 117면. “嗚呼! 是帖也, 君師父生三之義, 具見於斯矣. 尤翁之所戒柳公, 一則  
傳聖祖密教, 使之奮身殉國; 一則書示朱子詩, 使其不褻遺體, 以爲建功之本焉.  
皆金石至訓也. 柳公蓋嘗奉以周旋, 無忝師門. 而又孝子不匱, 克世旌纛. 其懋効  
貞亮之節者, 將無愧曹家璨璋. 則凡觀是帖者, 孰不感勵乎忠孝隆師之道哉? 柳公  
名星彩, 官至安西節度. 書所稱虞候, 卽其初歷也. 伯胤就章見爲晉州節度, 次卽  
海西水使貞章也.”

335) 제발문의 창작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제발문에 언급된 유성채의 두  
아들의 관직과 1720년 봄경에 사위 이덕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종합해 짐  
작하면 창작 연도는 1720년 봄일 가능성이 높다. 金昌翁, 「答李德載」, 『三淵  
集拾遺』 권21, 한국문집총간 167, 64면;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8월 29일,  
11월 25일, 12월 19일, 숙종 46년 10월 7일 기사 참조.

리를 구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서첩을 써준 스승 송시열이라는 차원이다. 송시열이 쓴 서첩의 내용에는 군사부일체의 뜻이 들어가 있다. 성조의 밀교 이야기는 ‘군’의 시각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부’의 시각이며, 송시열이 제자 유성채에게 서첩을 써주어 가르침을 준다는 것 자체는 ‘사’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이 서첩을 써준 송시열이 군사부일체의 논리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인 유성채라는 차원이다. 문인 유성채가 스승 송시열의 가르침을 받들고 사문을 욱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용사’(隆師)의 시각에서 ‘사’에 대한 의리를 다함을 강조한 것이고, 또 효성을 다한다는 것은 ‘효’(孝)의 시각에서 ‘부’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것이며, 절도에 힘써 조씨 집안의 위대함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충’(忠)의 시각에서 ‘군’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것이다. 즉 이 서첩을 받은 유성채도 군사부일체의 논리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 김창흡은 위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군사부일체론의 논리를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창흡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호응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즉 김창흡이 이 글을 전개할 때 중점적으로 부각한 부분은 역시 사제(師弟)관계였다. 이는 노소론 사이의 군사부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부사(父師)에 대한 의리였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사제관계를 부각함으로써 윤증의 부사경중설을 반박하는 동시에 노론측에서 주장한 군사부일체론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각했다.

요컨대 숙종 대 노소론 간의 정치적인 공방전은 병신처분에 와서 노론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1701년의 옥사, 1703년의 박세당 사문시비 사건, 1706년의 임부·이잠의 옥사, 1708년의 이동언 옥사, 1710년의 경인환국과 최석정의 실각, 1716년의 군사부일체론과 병신처분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론 세력과 소론 세력 사이에는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벌어졌다. 김창흡은 이 전체 과정을 주시하면서 정국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으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1716년 노론 정권이 형성된 이후에도 김창흡은 정치적 논변을 멈추지 않았다. 1717년 응재(凝齋) 이희지(李喜之, 1681~1722)의 혈소(血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제 보내주신 안부편지를 받고서 위로됨이 매우 큼니다. 하룻밤을 넘기고 돌아오시니 안녕하십니까? 부강(扶江)의 혈소에 대한 회계(回啓)가 당신의 손으로 들어가 당연히 마음을 다하실 것이니, 곁에서 도와주는 것을 어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신속한 것이 귀중하니 지완(遲緩)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임금의 눈병으로 인해 공사(公事)와 관련된 것들을 감히 뻑뻑하게 쌓아 올릴 수 없고, 다만 천천히 조금씩 올릴 뿐이라 합니다. 이와 같다면 어찌 굳이 20편을 완성한 뒤에야 임금에게 진주(進奏)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올려도 무방할 듯합니다.

또한 이 일은 자세히 보는 데 달려 있지 않으니, 임금의 뜻이 바뀌기만 하면 절로 쾌연(沛然)해서 글을 끝까지 열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대략 제기하여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당신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일을 지원하게 처리하면 안되는 것 역시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하니, 어찌 이 말을 기다린 뒤에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까닭은 애오라지 대담하게 붓을 대는 데 도와드리려는 것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흉악한 이항(李杭)이 복주(伏誅)되어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태 신원해주는 조치가 없었으니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그리고 유혁연(柳赫然)과 이원정(李元禎)이 모두 신설(伸雪)됐는데 이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니, 어찌 이와 같은 이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sup>336)</sup>

336) 金昌翁, 「與宋玉汝」, 『三淵集拾遺』 권16, 한국문집총간 166, 527면. “昨荷枉存, 爲慰大矣. 經宿佳勝否? 且扶江血訴, 回啓歸台手, 自當盡心, 豈容傍贊乎? 但事貴神速, 不宜遲緩. 且聞以眼患之故, 凡干公事, 例不敢擁併投入, 只陸續稍呈云. 若然則何必待二十件完篇而後可進奏乎? 以此爲先呈, 似無不可. 且茲事不在鬮縷, 上意乍轉之後, 自當沛然, 不待閱過終篇矣. 只畧畧提掇, 以不淹時刻爲主. 伊鬱台所洞悉, 至於事不容遲, 亦應在意, 豈待此言而爲哉? 所以爲此言者, 聊以贊大膽落筆耳. 如何如何? 凶杭伏誅, 人皆言茲事可容易, 而迄無丹書之洗, 冤又冤矣. 且赫然、元禎, 皆蒙伸雪, 而此冤猶鬱, 豈有如許事理乎?”

위의 인용문은 김창흡이 고종사촌 송상기(宋相琦)에게 보낸 편지이다. 당시에 송상기는 판의금(判義禁)이었다. 앞서 밝혔듯이 이희지는 김창흡의 문인이자 삼연과 이종사촌관계이다. 그리고 이희지의 숙부 이익명(李益命)이 송규립의 딸과 혼인했기 때문에 송상기와는 처남-매부 관계가 된다. 이 때문에 김창흡이 이 일에 힘을 쓰고 회계를 맡은 고종사촌 송상기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부강(扶江)의 혈소’<sup>337)</sup>는 1717년 3월에 숙종이 안병으로 온천에 거둥했을 때<sup>338)</sup> 이희지가 부친 이사명(李師命, 1647~1689)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어가(御駕) 앞에서 상언한 것을 가리킨다. 회계(回啓)는 5월 26일 송상기가 이사명 복관에 관해 회계한 것을 가리킨다.<sup>339)</sup> 이 편지는 5월 26일 전에 보내진 것이다. 김창흡은 숙종의 눈병, 이항의 복주, 유혁연, 이원정의 복관을 가지고 당시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면서 송상기에게 회계를 망설이지 말고 대담하게 하라고 재촉하였다. 이에 송상기는 5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복계(覆啓)하였다.

“이사명은 당초에 죄명이 매우 중하였으나, 두 번째 극형을 받은 뒤부터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갑술년(1694) 복관(復官) 때에 고(故)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이 아뢰는 말을 보더라도 그 공을 완전히 버려둘 수는 없다 하였고, 또 역적 항(杭)이 이미 복법(伏法)되었으니, 남을 무함하였다는 일은 더욱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도 풀렸으니, 공으로 허물을 갚기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sup>340)</sup>

337) 이희지가 살던 곳은 부여(扶餘)이다. 나중에 김창흡은 1719년 안시태를 조문하러 전라도에 갔을 때 이희지와 5일동안 강학하였다. 이처럼 그들 사이의 관계는 긴밀하였다. 金昌翁, 「與李喜之」,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403~404면. “千里弔人, 本非好事, 際此而得與左右辦了五日周旋, 誠亦幸矣. 其間談山評水, 論心講史, 弔古刺今, 凡所以通抒狂惑者, 鄙懷則竭. 未知左右胸中, 猶有未罄者耶? 別後想侍學佳廼, 日用事不欲更圖進步否?”

338) 숙종은 1717년 3월 3일에 온양(溫陽) 온천행궁으로 출발했고 3월 27일에 돌아왔다. 이희지는 숙종이 돌아오는 길에 상언한 듯하다. 관련 정보는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3월 기사에서 확인된다.

339) 『肅宗實錄』 43년 5월 26일 기사.

340) 『肅宗實錄』 43년 5월 26일 기사. “禁府覆奏言: ‘師命當初罪名甚重, 而自其再被極刑之後, 人皆愍惻. 雖以甲戌復官時, 故相臣南九萬所陳之語觀之, 猶謂



위의 인용문은 바로 송상기의 복계 내용이다. 이 복계는 김창흡의 추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716년 이후에도 김창흡은 계속해서 정치적 사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물론 설악산 은거기부터 병신처분까지 노소론 간의 공방전이 가장 치열했던 때 김창흡의 정치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한 김창흡의 정치가적 면모를 조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본고는 정치사적 맥락의 첫 층위인 ‘정치사적 배경’ 내지 ‘당쟁사적 배경’ 속에서 김창흡의 생애를 재구했다. 장동김문 구성원으로서 김창흡은 태어날 때부터 가문적 정체성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의 삶, 인적 관계망은 모두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다시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김창흡의 산문에서 이러한 ‘정치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런 물음이 앞으로 중요한 논점이 된다.

---

其功，不可全棄。且逆杭既已伏法，則陷人一款，尤無可論。以此疑者亦解，或望其將功補過。”

## 4. 가문 수호자의 통한(痛恨)

지금까지 김창흡의 삶을 장동김문의 부침 및 숙종 대의 정치사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밝혔듯이 김창흡의 삶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은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이다. 부친 김수항이 비극적 죽음을 맞았고, 장동김문도 정치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창흡은 남인, 소론과 원수가 되어 그들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을 갖게 된다. 원한이라는 원초적 감정은 김창흡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원적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이 두 정치적 사건은 김창흡에게 그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존적 원체험에 해당한다. 이 원체험으로 김창흡에게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문을 지켜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강한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장에서는 정치사적 맥락의 두 번째 층위, 즉 장동김문과 김창흡에게 큰 여파를 끼친 구체적인 ‘정치사적 사건’ 내지 ‘당쟁사적 사건’의 측면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김창흡의 산문에 가문 수호자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 1) 생사 공동체로서의 가문

장동김문은 서울에 정착한 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과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 형제를 거쳐 김수증(金壽增), 김수흥(金壽興), 김수항(金壽恒) 삼형제에 이르러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했으며, 그 구성원들은 뚜렷한 가문의식을 지니게 되었다.<sup>1)</sup> ‘수’를 돌림자로 사용하는 세대에 이르러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당대의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었는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가문 내부의 결속력이었다.

1) 장동김문이 서울에 정착하고 명문가로 자리를 잡았던 16세기 후반 이래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경구, 『조선후기 안동김문 연구』, 서울: 일지사, 2007, 180~188면 참조.

이것은 구체적으로 형제간, 부자간의 혈연적인 연계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기사환국 때 김수증이 아우 김수항에게 보낸 영별(永別) 편지, 김수항이 죽기 전에 ‘육창’ 형제에게 당부한 유언과 백씨 김수증, 증씨 김수흥에게 영별을 고한 편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천지 사이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냐? 어제 금오랑(金吾郎)이 이미 떠났다. 천지 사이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냐? 손을 잡고 이별할 길이 없어, 남쪽을 바라보며 가슴을 탕탕 치며 슬퍼하니 심장과 간이 다 찢어질 지경이다. 다만 죽은 자가 눈을 감아 만사(萬事)를 모르는 것을 부러워할 뿐이다. 바라건대 다음 생에 다시 형제가 되길.<sup>3)</sup>

위 인용문은 1689년 4월 초에 김수증이 아우 김수항에게 영별을 고한 편지이다. 편지의 작성 시기와 길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성 시기는 사약을 가지고 김수항의 유배지로 향하는 금오랑이 떠난 다음날이다. 사약이 출발한 직후 편지를 쓰는 김수증의 심정은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편지의 길이는 매우 짧은데, 이는 상황이 긴박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짧은 편폭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만 적어놓았다.

이 편지에는 “천지 사이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아우 김수항의 죽음에 대해 속수무책인 김수증의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손을 잡고 이별할 길이 없어 심장과 간이 다 찢어질 지경이다’는 말은 아우 김수항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서 직접 사별하지 못하는 애타는 마음을 잘 반영한다. “다만 죽은 자가 눈을 감아 만사(萬事)를 모르는 것을 부러워할 뿐이다”라는 말은 살아 남은자인 김수증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낸다. 이 불안함은 가문과 자손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을 것이다. 마지막

2) 해당 편지들은 안동김씨 編, 『安東金氏文獻錄』(地), 293~295면에 실려 있다.

3) 金壽增, 「與久之已已」, 『谷雲集』 권5, 한국문집총간 125, 230면. “天地間寧有此耶? 昨日金吾郎已去矣. 天地間寧有此耶? 末由握手一訣, 南望擗擗, 心肝裂盡, 只羨逝者之瞑然不知萬事也. 惟願世爲兄弟於來生也.” 『安東金氏文獻錄』(地), 295면에는 같은 편지가 「문곡에게 보내어 영결(永訣)하는 편지」(寄訣文谷)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구절인 “다음 생에 다시 형제가 되길”은 금세(今世)에는 계속되지 못하는 형제간의 인연을 내세로 이어가고 싶은 김수증의 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편지는 단순히 영별의 정을 표할 뿐만이 아니라, 아우 김수항의 죽음에 대해 어찌 할 수 없는 김수증의 절망감과 애타는 마음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형제의 인연을 내세에 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과 가문의 미래를 우려하는 불안감 역시 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김수증과 김수항 사이의 돈독한 형제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밤에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가 평소에 서로 우애하니, 굳이 계칙(戒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비록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모름지기 조용히 상의하여 확정지어 한결같이 순하고 편함을 위주로 해야 한다. 큰일이 생기면 맏형과 중형에게 의논하고서 하면 된다”라고 하셨다.<sup>4)</sup>

위 인용문은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김수항의 유언이다. ‘이의가 생기면 조용히 상의하여 결정하고, 큰일이 생기면 맏형과 중형에게 의논하라’는 당부의 내용을 통해 김수항이 육창 형제 사이의 돈후한 우애와 가문의 결속력을 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언’이라는 형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김수항의 당부는 아들들에게 그것을 깊이 새겨 지켜야 한다는 무게감을 지니게 된다. 즉 김수항의 말은 통상적인 가문의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형을 앞둔 부친의 ‘유언’이라는 형태로 발화되었기 때문에, 당쟁 속에서 가문의 결속력을 중시하는 장동김문의 가문공동체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흥만조를 대하는 태도를 논의하는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창’을 돌림자로 쓰는 세대에서도 가문을 중시하는 태도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갑술환국 뒤인 10월에 김창협은 「좌부승지를 사직하는 소」(辭左

4) 金昌翁 撰, 『臨命日記』, 『安東金氏文獻錄』(地), 310면. “夜語諸子曰: ‘汝兄弟素相友愛, 不待戒勅. 然凡事雖有意見不合處, 亦須從容商確, 一以順便爲主, 如大事稟議伯氏、仲氏而爲之可也.’”

副承旨疏)에서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가정의 가르침, 가학, 부친의 훈계를 강조한 바 있다.<sup>5)</sup> 그리고 김언겸이 쓴 김창흡의 제문에서도 “선생의 학문은 가정에서 수학하셨고, 형제에게 배우셨다”<sup>6)</sup>고 밝힌 바 있다.

김수증, 김수항, 김창협, 김언겸이 위와 같은 글을 지은 시간적 배경은 장동김문이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신축환국(1721) 등 당쟁의 피해를 입어 몰락의 위기를 맞이했을 시기였다. 이처럼 장동김문 구성원들이 가문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을 강조한 것은 모두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이에 대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주장했는가? 이는 김언겸 형제에게 보낸 편지와 「안동김씨 족보 서문」(安東金氏族譜序)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먼저 김언겸 형제에게 보낸 편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창작 연도, 배경 등 작품이 지어진 구체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창작 연도와 배경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본격적인 작품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편지의 작성 배경은 1719년 8월 이전, 둘째 아들 김치겸(金致謙)의 부인, 즉 반남박씨 박태정(朴泰定)의 딸이 죽어 장례를 치른 것과 관련된다.<sup>7)</sup> 당시 김언겸 형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치겸은 김창흡

5) 金昌協, 「辭左副承旨疏」, 『農巖集』 권8, 한국문집총간 161, 453면. “臣誠柔懦, 不足以自立, 惟其家庭之所聞見者如此. 故常謂人臣立朝事君, 惟有此道理, 利害禍福, 非所顧問矣. 乃今竊觀於朝廷論議士夫趣尚, 則似與此大異. 臣於是時, 欲以家庭所學, 行於其間, 則必將柄鑿矛盾而不相合矣. 至於背先人之繩墨, 徇一時之塗轍, 偷合而取容, 臣又不忍爲也.”

6) 金彦謙, 「祭叔父三淵先生文」, 『述耕齋遺稿』. “先生之學, 受於家庭, 習於墳簞.”

7) 안동김씨대종중에 의하면 반남박씨는 1717년 5월 23일에 죽었다. 그런데 김창흡은 1719년 8월 6일에 「중씨부 박씨 제문」(祭仲婦朴氏文)을 지었으며, 1719년 가을에 문인 김희서(金羲瑞, 1675~1742)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중부상(仲婦喪)을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반남박씨는 1719년 8월 이전에 죽었음이 분명하다. 金昌翁, 「祭仲婦朴氏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13면. “歲次己亥八月辛丑朔六日丙午, 本生舅以酒果之奠, 哭祭于仲婦潘南朴氏之靈.”; 「與金羲瑞己亥」, 『三淵集拾遺』 권18, 한국문집총간 167, 19면. “服人慘遭仲婦喪, 並總功疊制, 八九在身, 淚眼枯矣. 氣力之摧損可知. 爲吊切入于恩津, 作此遠來.”

의 둘째 아들이지만, 김창흡의 사촌형제 김창국에게 출계했기 때문에 명의상으로는 김언겸 형제와 6촌 형제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혈연적으로 보면 피차가 사촌 형제관계지만, 예법(禮法)에 의하면 이미 오복(五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김언겸 형제가 김치겸의 부인에게 복(服)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8)</sup> 그런데 김언겸 형제의 장례식 불참 행위에 대해 김창흡은 강하게 비판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작품 분석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이 상사(喪事: 김치겸의 부인상)에는 복(服)이 없지만, 아픔과 가려움을 나눈 정(情)으로 말하자면 어찌 길 가는 사람처럼 무심할 수 있겠느냐? 만약 염병의 기세가 두려워할 만해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분명한 도리로 여긴다고 말한다면, 역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나는 숙부이니 너희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형제가 있는 곳이라면 비록 화살과 돌이 마구 퍼붓더라도 역시 생사를 함께해야 하니, 의리에 비추어보면 그렇다. 그래도 각자에게 아버지가 있어 하나로 통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또한 입으로 다투기가 어렵다. 인(仁)과 의(義)가 만약 서로 양립하지 못하여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를 씌어 다르게 되면, 자세히 헤아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건대, 너희들은 이것이 인지상정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점점 각박한 데로 치달을 것이다.<sup>9)</sup>

위의 인용문은 편지의 첫부분이다. 첫 번째 구절에서 김창흡은 예법의 차원, 즉 촌수의 차원에서 김언겸 형제 불참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8)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의하면 오복(五服) 가운데 가장 경한 상복(喪服)인 시마복(緦麻服)의 경우, 본종(本宗)에는 고조부모(高祖父母)·증백숙조부모(曾伯叔祖父母)·족백숙부모(族伯叔父母)·족형제(族兄弟) 및 시집가지 않은 족자매(族姊妹)와 외성(外姓)에는 내외종형제(內外從兄弟)·처부모(妻父母) 등이 해당된다.

9) 金昌翁, 「寄彥謙信謙」,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62면. “汝輩於此喪(致謙妻喪)雖無服, 以痛痒相關之情言之, 豈可愒若路人乎? 若曰竊罔可畏, 須以遠迹爲十分道理者, 則亦有不然. 我是叔父, 一間於汝嚴. 則父兄所在, 雖矢石交下, 亦與之同死生, 於義則然. 猶且曰各有其父, 不容通同, 則亦難以口舌爭也. 仁義若相奪, 經權用不同, 固難細商. 而竊恐汝輩秤停乎渾一各具者, 未必得當而駸駸乎趨於薄也.”

않았다. 그래서 김창흡은 그들이 ‘이 상사에는 복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법은 가문 결속의 수단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것이 문상을 회피하는 핑곗거리가 되어 역설적으로 가문 결속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게다가 김치겸은 ‘김수증→김창국→김치겸’ 계열에 속하므로 장동김문의 제사주재(祭祀主宰)와 종통계승(宗統繼承)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적장자(嫡長子)이다.<sup>10)</sup> 김치겸의 부인은 곧 이 가문의 총부이다. 총부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 가문 구성원으로서 가문 공동체 의식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김언겸 형제의 행위는 장동김문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분열의 조짐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김창흡은 이러한 위기를 충분히 느꼈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김창흡은 촌수의 차원을 넘어 혈연적인 관계를 거론했다. ‘아픔과 가려움을 나눈 정’(痛痒相關)이라는 한 마디로 피차의 관계를 혈연적·운명적 관계라고 지적한 것이다. ‘통양상관’은 원래 정호(程顥)가 한 말이다. 그는 “비유하면 손과 발이 마비되어서 기운이 서로 관통하지 못하면 병들어 아프고 가려움에 모두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譬如手足痿痺, 氣不相貫, 疾痛癢, 皆不相干)<sup>11)</sup>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소철(蘇轍)은 하옥한 형 소식(蘇軾)을 위해 올린 글에서 형제간의 정을 ‘수족(手足) 같은 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sup>12)</sup> 이 두 가지 전례를 종합해 보면 김창흡이 ‘통양상관’이라는 말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형제간의 혈연적인 정분이다. 그런데 혈연적인 정분에 기초한 형제 사이가 이제 길 가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김창흡은 다시 그들의 부친과 자신의 혈연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장동김문 구성원들이 느껴야 할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창흡에 의하면 김언겸 형제에게 자신은 숙부이므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다시 말해 김언겸 형제에게 김치겸은 자기의 형제이고, 김창

10) 김윤정, 「조선중기 祭祀承繼와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107면 참조.

11) 葉采 찬, 「道體」, 『近思錄集解』 권1, 元刻明修本. “譬如手足痿痺, 氣不相貫, 疾痛癢, 皆不相干, 此四體之不仁也.”

12) ‘수족지정’(手足之情)은 형제간의 정분을 가리키는 말로, 소철(蘇轍)이 지은 「하옥된 형 식(軾)을 위해 올린 글」(爲兄軾下獄上書)에 보인다.

흡은 자기의 부친이다. 이것이 혈연적 관계에서 김언겸 형제와 김창흡 집안의 관계를 보는 김창흡의 논리다.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김창흡은 다시 의리의 측면에서 아버지와 형제가 있는 곳이라면 비록 화살과 돌이 마구 퍼붓더라도 역시 생사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화살과 돌이 마구 퍼붓는다”(矢石交下), “생사를 함께해야 한다”(與之同死生)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쟁이라는 비상 사태를 환기한다. 당화를 겪은 김창흡의 입장에서는 당쟁이 그 구체적인 전쟁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말을 다시 이해해보면 김창흡의 생각은 ‘격한 당쟁 속에서 우리 가문 전체는 생사를 함께해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창흡이 김언겸 형제의 각박한 태도를 엄숙히 비판한 이유는 바로 그가 당화를 겪은 입장에서 가문의 결속을 사고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편지의 이어지는 단락에서 김창흡은 다시 오복 관계에서 이미 벗어난 장동김문 구성원 김시보(金時保)의 예를 들면서, 친소 관계에 입각하여 김언겸 형제의 약해진 가문의식을 비판하였다.

어제 사경(士敬: 김시보金時保)이 조문하러 와서 오랫동안 앉았다. 오래 살고자 하여 꺼리는 것이 많은데도 와서 조문했으니, 한결같이 둔후(敦厚)한데서 나와 억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촌수로 따지면 그는 우리와 십촌 관계다. 만약 촌수의 멀고 가까움으로 정리(情理)와 예의(禮儀)를 헤아리면 십촌이 팔촌보다 덜하고, 팔촌은 육촌보다 덜하며, 육촌은 사촌보다 덜하니, 이것이 바로 친소(親疏)의 차이다. 지금 사촌은 길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십촌은 너무나 두터우니, 피차를 서로 비교하면 너희들은 끝내 각박함으로 귀결된다.<sup>13)</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두 번째 부분이다. 인용문에 나온 김시보는 상용

13) 金昌翁, 「寄彥謙信謙」,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62면. “昨日士敬來問, 仍久坐. 以其欲久視多拘忌, 而乃能辦此, 則蓋出一味敦厚, 不容排抑而然也. 然計其寸數則十寸也. 若以寸數遠近, 裁量情禮, 則十寸殺於八寸, 八寸殺於六寸, 六寸殺於四寸, 乃爲親疎等差. 今四寸爲路人, 而十寸太厚, 彼此相形, 汝輩終歸於薄矣.”



파(尙容派)의 후손으로서 김치겸과 십촌 형제관계가 된다.<sup>14)</sup> 김치겸과의 친소 관계를 따져보면 십촌인 김시보보다 사촌인 김언겸 형제가 훨씬 더 가까운데, 사촌은 길 가는 사람이 되고 십촌은 오히려 두텁게 지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김시보는 장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조문하는 일에 대해 꺼리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물렀다. 같은 장동김문 구성원 간의 친소 비교를 통해 김언겸 형제의 행위는 더욱 각박하게 보인다. 이렇듯 김창흡은 ‘김시보-김치겸’과 ‘김언겸 형제-김치겸’ 사이의 친소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김언겸 형제의 약화된 가문의식을 비판했다. 편지 마지막 단락에서 김창흡은 ‘천리’의 시각에서 김언겸 형제를 경계하고 가르치면서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단결하자고 권유했다.

그런데 너희들의 타고난 기품이 어찌 자애롭고 선량함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겠느냐? 아마도 인의와 경권(經權)을 강론한 것은 법도를 잃어서 그랬을 것이다. 언겸(彦謙)이 자기가 모르는 명정(銘旌)을 들어 의로운 명성을 퍼졌으나, 박해야 할 것에 후하게 하고 후해야 할 것에 박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점검하고 반성할 것이 있으니, 의협(義俠)은 외인(外人)이 똑같이 칭찬하는 바이고, 간략함은 지친(至親)이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바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삼아 그쪽에는 후하게 대해주고 이쪽에는 박하게 대한다면 이것이 과연 천리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이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유추해서 서로 경계하면 너와 내가 함께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하지 않는 경지에 나아갈 것이다.<sup>15)</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김언겸은 이전에 자기도 모르는

14) 족보로 보면 김시보의 경우는 ‘김극효(金克孝)-김상용(金尙容)-김광현(金光炫)-김수인(金壽仁)-김성우(金盛遇)-김시보’로 되어 있고, 김치겸의 경우는 ‘김극효-김상현-김광찬-김수항-김창흡-김치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김시보와 김치겸은 십촌 형제관계이다.

15) 金昌翁, 「寄彦謙信謙」,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62면. “然汝輩天稟, 豈少慈良而然哉? 恐所講乎仁義經權者, 或失其準也. 彦也能學所不知之銘旌, 義聲騰播, 厚所薄而薄所厚, 其必不然. 然有可檢省者, 義俠, 外人之所同稱; 簡薄, 至親之所見恕. 以此爲心, 厚於彼而薄於此, 則其果出於天理乎? 是宜細省處也. 推類相規警, 爾我同趨於聊厚不薄之地, 如何如何?”

명정(銘旌)을 들으로써 의로운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에는 오히려 자기와 혈연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촌형제 부인의 장례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이백(李白)이 「상유전행」(上留田行)에 묘사한 “옛날에 아우 죽자 형은 장사도 안 지내고 / 남이 여기에다 명정을 세웠네”(昔之弟死 兄不葬, 他人於此舉銘旌)라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남에게 후하게 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박하게 한 것이 천리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친의 입장에서 이처럼 본말이 전도되는 행위를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창흡이 ‘남의 집안’과 ‘자기 집안’을 구분하고 이 구분을 ‘천리’로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자신의 가족, 가문을 후하게 대해주는 것이 비로소 천리에 맞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 후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 다른 아니라 우리 가문인 장동김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문 구성원 사이의 결속을 요구하는 김창흡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언겸 형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마땅히 반성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김창흡은 말했다. 이로써 “너와 내가 함께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하지 않는 경지에 나아갈 것이다.” ‘나와 나’가 ‘함께 나아간다’(爾我同趨)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생사를 함께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하지 않는 경지’(聊厚不薄之地)라는 것은 천리에 맞는 행동인 자기의 가문, 즉 장동김문을 후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김창흡의 권유에는 하나의 생사 공동체로서 장동김문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상 김언겸 형제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하였다. 이 편지는 짧지만, 가문 분열의 조짐과 위기를 느낀 김창흡의 대응을 잘 보여준다. 김창흡은 촌수의 차원을 넘어 혈연적 관계, 생사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김언겸 형제의 장례 불참 행위를 격하게 비판했다. 이는 당화를 겪은 사람으로서 가문의 결속을 사고한 김창흡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김창흡은 ‘남의 집안’과 ‘자기 집안’을 잘 구분하여 ‘자기 집안’, 즉 장동김문을 후하게 해야 천리에 맞는 일이라고 하면서 김언겸 형제를 타일렀으며, ‘우리’가

하나의 생사 공동체로서 장동김문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 김창흡은 왜 이때에 와서 가문 핵심 구성원들에게 가문의 결속력을 특별히 강조한 것일까? 이는 당시 장동김문 내부에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문 결속력의 약화 문제, 그리고 당쟁 속에서 가문의 결속을 강화하여 가문을 지키려는 김창흡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같은 해인 1719년 지은 「안동김씨 족보 서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족보는 흔히 『기해보』(己亥譜)라고 불리는 장동김문 최초의 족보이다.<sup>16)</sup> 1718년부터 김창집·김창흡 형제가 족보의 편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족보학에 능통한 정필동(鄭必東, 1653~1718)의 도움을 받아<sup>17)</sup> 1719년에 이르러 완성하였다.<sup>18)</sup> 본디 족보 편찬의 목적은 가문의 역사를 정리하고 가문의식을 강조하며 가문 구성원간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함이다. 주로 경화 세족들이 족보를 만들었는데, 같은 시기에 족보를 만든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해보」의 편찬은 일반적인 족보 편찬과 과연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

우리 김씨의 선계(先系)는 안동에서 나왔는데 거의 900년이 된다. 처음에는 족보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야 완성된 것이다. 시조는 태사(太

16) 『삼연집』에는 서문을 지은 날짜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안동김씨문헌록』에 수록된 해당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崇禎甲申後七十六己亥, 十八代孫昌翁謹述”이라는 내용이 있다. 안동김씨 편, 『安東金氏文獻錄』(天), 156면 참조. 안동김씨의 몇 차례에 걸친 족보 간행과 증보에 대해서는 이경구, 앞의 책, 34~36면 참조.

17) 정필동이 족보학에 능통하여 자주 다른 집안을 위해 족보를 고증해줬다는 사실은 김창흡이 지은 「경주부윤 정공 신도비명」(慶州府尹鄭公神道碑銘)에도 밝혀져 있다. 참고로 정필동의 아들 정언환(鄭彦煥)은 김창흡의 「태극문답」(太極問答)을 정리해준 김창흡의 문인이다. 金濟謙, 「書族譜後」, 『竹醉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청구기호: 一叢古819.53-G415m-v.1-5); 金昌翁, 「慶州府尹鄭公神道碑銘」,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51면 참조.

18) 金濟謙, 「書族譜後」, 『竹醉藁』. “昨年家大人以草藁示參議鄭公必東, 鄭公聰明強記, 證引諸姓源流如指掌, 執筆者聽其口授, 疾書之不及, 然後昔者之缺略幾盡填補. 今以此編摩入鉞, 此吾譜之始末也.” ‘작년’은 1718년을 가리키고, ‘가대인’은 김창집을 가리킨다.

師: 김선평(金宣平)라 부르고 태사로부터 공수부정(公須副正: 김습돈(金習敦)까지 중간 몇 세대에는 그 이름과 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후자는 ‘애초 빠진 세대가 있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 대로 전하는 것이 삼가는 방도다.<sup>19)</sup> 공수부정으로부터 지금까지 무릇 21세가 된다. 10세부터 별도로 11개의 분파로 구분했고, 이성(異姓)은 2세까지 기록하였지만 증손의 이름은 그 아래에 주를 붙였다. 글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선군(先君: 김수항(金壽恒)께서 어릴 적부터 족보를 만드는 데 뜻을 두셨으니 범례를 일찍이 초정(草定)했는데 채우지 못하셨다. 이번의 편집은 실은 이루어진 규정을 받들어 만들어진 것이니, 이성의 세수(世數)에 대해서만 상략(詳略)이 있을 뿐이다. 대개 족보를 세우지 않으면 자기의 원류에 어두울 수 있고, 족보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또 친소(親疏)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족보는 늦게 완성된 까닭에 교열이 이미 정밀하고, 채운 내용과 주석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본지(本支)와 중표(中表)가 정연하게 조리가 있어서 어지럽지 않으니 참으로 김씨의 대보(大譜)이다. 지금부터 잘 모르는 미래에 이르러 계속해서 편찬을 이어갈 때에는 다만 이 범례에 의하면 된다.<sup>20)</sup>

위의 인용문은 『기해보』 서문의 첫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김창흡은 주로 족보 편찬의 범례와 과정을 이야기했다. 『기해보』의 편찬은 부친 김수항으로부터 시작되어 육창 형제를 거쳐 ‘겸’ 돌림자 구성원 등 3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범례를 제정하고 족보 편찬을 처음으로 시작한 부친 김수항이었

19) 김매순의 「안동김씨가사 서문」(安東金氏家史序)에는 “或曰太師下，幾世佚不傳，蓋疑之也。疑以傳疑，愼之道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金邁淳, 「安東金氏家史序」, 『臺山集』 권7, 한국문집총간 294, 402면.

20) 金昌翁, 「安東金氏族譜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8~489면. “我金之系乎安東，幾至九百年。而未始有譜，譜成於今矣。始祖曰太師。自太師至公須副正，中間幾世不記其名號。或云初未嘗有缺，疑則傳疑，愼也。自公須副正，以至於今，凡二十一世。而自其十世別之爲十一派，異姓止於二世，曾孫則註其下。按文可見矣。先君自少留意於此，蓋嘗草定凡例而有未填焉。今之編摩，實奉成規而爲之。只異姓世數，稍有詳略耳。蓋譜之不立，或冥昧其源流，譜之不明，又混錯其親疎。是譜也，以其遲成之故，校閱既精，填註無訛，本支中表，秩然有條而不紊，允爲金氏之大譜。自此至所不知，續續繼書，只依此例已矣。”

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범례에서 언급한 “이성(異姓)은 2세까지만 기록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해보』의 편찬이 부친 김수항의 뜻을 이어받았다는 점이다.

『기해보』의 범례에는 “이성은 파(派)를 세우지 않고 2세만 기록한다”(異姓不立派, 止書二世)<sup>21)</sup>고 적혀 있다. ‘이성’은 ‘동성’(同姓)과 상대되는 말이다. 여기서 동성은 아버지의 종족으로 장동김문을 가리키고 이성은 왕구(王舅)의 친속으로 장동김문과 혼척관계가 맺어진 친속을 가리킨다.<sup>22)</sup> 이성은 파를 세우지 않고 2세만 기록한다는 것은 종족인 장동김문의 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래야 본지(本支)와 중표(中表)가 정연하게 조리가 있어서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분을 통해 안동김씨라는 가문의 존재와 가문의 단합을 한층 더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한다. 이것도 애초부터 가문의 결속력을 중시한 김수항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김창흡에 의하면 처음에 족보의 편찬에 뜻을 둔 사람은 부친 김수항이었다. 부친은 일찍이 범례를 만들었으나 내용을 채우지 못했다. 이유는 부친이 기사환국으로 사사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족보의 편찬에는 기본적으로 부친 김수항의 뜻을 잊지 않고 부친이 이루지 못한 일을 완수한다는 김창흡의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다. 실은 『기해보』의 편찬은 기본적으로 부친 김수항이 제정한 범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sup>23)</sup> 『기해보』의 범례와 비교해보면, 김창흡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시조 태사(太師) 김선평(金宣平)과 공수부정(公須副正) 김습돈(金習敦), 안동김씨 분파(分派), 이성(異姓) 등에 대한 내용은 모두 범례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4)</sup>

21) 안동김씨 편, 『安東金氏文獻錄』(天), 151면 참조.

22) 『시경』 「벌목」(伐木)에 나온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예에는 동성, 이성, 서성이 있다. 동성은 왕의 동족이니 아버지의 종족이고, 이성은 왕구의 친속이고, 서성은 왕과 친속 관계가 없는 자이다”(禮有同姓, 異姓, 庶姓. 同姓, 王之同宗, 是父之黨也. 異姓, 王舅之親. 庶姓, 與王無親者)라 했다.

23) 이는 김제겸이 지은 발문에서도 입증된다. 金濟謙, 「書族譜後」, 『竹醉藁』. “先王考府君創斯譜, 手寫若干以立規模, 而猶未卒業, 缺略頗多. 自是草藁溢篋, 束之棟宇之間者, 又三十年.” ‘선왕고 부군’은 김수항을 가리킨다.

24) 안동김씨 편, 「己亥舊刊凡例」, 『安東金氏文獻錄』(天), 151면 참조.

그런데 김창흡의 족보 편찬 동기는 당쟁사적 배경과의 연관 속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병신처분 뒤 백씨 김창집이 집권하자 소론측에서는 “선인(先人)이 경계한 말을 잊었다”는 이유<sup>25)</sup>로 김창집의 무상(無狀)함을 여러 번 공격했다. 이 때문에 김창집은 사직 상소를 여러 번 올렸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는 1718년으로, 족보의 편찬 역시 이 무렵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들 사이에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족보 편찬은 세상 사람들, 특히 반대 정파에게 자신들이 부친의 유지(遺志)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함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듯 김창흡은 족보 편찬의 범례와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족보 편찬이 가문의 결속을 중시하는 부친 김수항의 뜻을 이어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부친이 당쟁으로 이루지 못했던 일을 자식으로서 완수하는 심정을 표현하면서, 족보 편찬 동기가 당쟁사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암시했다.

창흡(昌翁)이 스스로 살펴본건대, 지금의 세족들은 집집마다 족보가 있다. 그런데 혹은 이 학문에 오로지 뜻을 두어 어려서부터 익혔어도 백발이 되도록 엉터리가 된 자가 있으니, 올바른 동류와 두터운 은혜를 살펴보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득하다. 예를 들면 단지 족보에 따라 보여 주어 “누가 소(昭)이고, 누가 목(穆)이며, 누가 우리의 종조이고 누가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말할 뿐이다. 병들어 아프고 가려움에 이르러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선하고 악하게 행하거나 도리를 닦고 거스르는 것에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쓰니, 또한 어찌 족보를 편찬하는가?

족보를 편집함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어찌 조상(祖上)을 높이고 종족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조상을 높이고 종족을 거두는 것은 이른바 위로 조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아래로 자손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반드시 의(義)로 거느리고 인(仁)으로 다스려야 마야 흐로 만 가지 다른 것을 모아 근본인 하나로 되돌릴 수 있다. 『시경』에 말

25) 『숙종실록』 44년 5월 4일 임자 기사; 金信謙, 「星山遺事」, 『檜巢集』, 권10, 한국문집총간 속 72, 327면. “閔昌洙問曰: ‘凶人每以違先訓爲言, 固知遺戒及前後出處之義, 而抑此外又有可聞之事耶?’”

하지 않았던가?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 그 덕을 닦을지어다.”

우리 태사께서 권도에 통달하고 공훈을 이루시어 뇌락(磊落)함이 천지에 높이 오르셨으니 참으로 더할 나위 없으시다. 몸소 힘써 후손에게 덕을 덮어주신 도는 비록 가승(家乘)에서 징험할 수 없으나, 전형(典刑)이 있는 바에는 조용하고 조출함으로 지키고 겸손하고 검소함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 선비가 된 자는 모두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현달한 자도 초야에서 높은 뜻을 두니, 확실히 한가지의 규모가 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알지 못해도 되겠는가? 증조고(曾祖考)께서 시를 지으시어 ‘팔백년의 청백(淸白)함으로 한시대의 공신이 되어 융성하셨다’<sup>26)</sup>라고 하셨다. 지극하도다, 이 가르침이여! 대대로 만대 자손까지 마땅히 가슴속에 새겨 잃지 말아야 한다.<sup>27)</sup>

위 인용문은 족보 서문의 두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김창흡은 통상적인 족보 편찬을 비판함으로써 진정한 족보 편찬이 무엇인지를 거론했다. 우선 당시 경화세족들이 기계적으로 족보를 편찬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족보를 보아 “누가 소(昭)이고, 누가 목(穆)이며, 누가 우리의 종조이고 누가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말할 뿐이지, 형제간의 혈연적인 관계나 가문을 결속하려는 마음 같은 것은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는 족보 편찬의 올바른 태도,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김창흡에 의하면 족보 편찬의 목적은 무엇보다 ‘조상을 높이므로 종족

---

26) 「시조(始祖)이신 태사공(太師公)의 일을 읊어서 동종(同宗)의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다」(詠始祖太師事, 示同宗諸君)를 가리킨다. 金尙憲, 「詠始祖太師事, 示同宗諸君」, 『淸陰集』 권3, 한국문집총간 77, 46면. “麗代論功在史編, 煌煌吾祖冠張權. 一時帶礪還餘事, 淸白傳家八百年.”

27) 金昌翁, 「安東金氏族譜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9면. “昌翁竊觀今世家家有譜, 或有專心於此學, 童習而白紛者, 夷考其正倫篤恩, 則邈乎無聞. 如只按譜而指示曰: 某爲昭, 某爲穆, 某爲吾宗, 某爲吾戚而已. 至其疾痛痾痒, 了不相關, 善惡修悖, 各自爲心, 則亦焉用修譜爲哉? 所貴乎修譜者, 豈不以尊祖而收族乎? 尊之收之, 是所謂上治傍治也. 治之如何? 必也義率而仁攝之, 方可會萬而歸一. 『詩』不云乎? ‘毋念爾祖, 聿修厥德.’ 惟我太師達權集勳, 磊磊軒天地, 固不可尙已. 若其劬躬燾後之道, 雖無徵於家乘, 典刑所在, 莫不靜拙是守, 謙約是秉. 爲士者皆華門圭竇, 處顯者猶丘壑雲霄, 的是有一箇規模, 寧可不知其所自乎? 曾祖考有詩, 以八百年淸白, 爲隆於一時帶礪, 至哉! 訓也. 世世萬子孫所宜服膺而勿失也.”

을 거두는’ 데 있다. 『예기』(禮記) 「대전」(大傳)에는 “조상을 높이므로 중통을 공경하고, 중통을 공경하므로 종족을 거둔다”<sup>28)</sup>라는 내용이 보인다. 김창흡이 말한 ‘존조’(尊祖)와 ‘수족’(收族)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상을 높이므로 종족을 거두는 것은 곧 위로는 존자(尊者)를 높이 받드는 것이고, 옆으로는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이다.<sup>29)</sup> 어떻게 가문을 다스려야 ‘존조’와 ‘수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김창흡에 의하면 ‘의’(義)로 거느리고 ‘인’(仁)으로 다스려야 바야흐로 만 가지 다른 것을 모아 근본인 하나로 되돌릴 수 있다. 이 말에는 어떤 함의가 내포되어 있을까?

이 말 역시 『예기』 「대전」에 나온 “인으로써 아버지를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 조상에 이르고, 의으로써 조상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와 아버지에게 이르게 된다”<sup>30)</sup>라는 내용을 변용한 것이다. 인으로만 다스리면 부모를 중히 여기고 조상을 가벼이 여기는 반면, 의리로만 다스리면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조상을 중히 여기게 된다.<sup>31)</sup>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김창흡이 제기한 방법은 바로 ‘의’(義)로 거느리고 ‘인’(仁)으로 다스리는 것, 즉 조상을 중히 여기고 존중함으로써 부모를 중히 여기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에 김창흡은 장동김문의 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가문 시조 태사로부터 역대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품행을 이야기하면서, 재야에 있는 선비이든 벼슬이 현달한 선비이든 가문 구성원 모두가 시조인 태사 김선평을 모범으로 삼아 한 가지의 규모로 자기 자신을 다스렸다고 밝혔다. 이 ‘한 가지의 규모’는 시조 김선평부터 갖고 있던 청백(淸白)한 품행을 가리킨다. 청백함은 가문 구성원들에게 800년 동안 전해져 큰 영향을 끼쳤으며 가문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다. 김창흡이 증조고(曾祖考) 김상헌의 시를 인용하여 강

28) 『禮記』 「大傳」.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29) 『禮記』 「大傳」. “上治祖禰, 尊尊也. (….) 旁治昆弟, 合族以食.”

30) 『禮記』 「大傳」. “自仁率親, 等而上之, 至于祖; 自義率祖, 順而下之, 至於禰.”

31) 이 부분에 대해 정현(鄭玄)은 “은혜로써 하면 부모가 무겁고 할아버지는 가벼우며, 의리로써 하면 부모가 가볍고 할아버지는 무겁다”(用恩則父母重而祖輕, 用義則父母輕而祖重)라고 해석했다. 본고는 정현의 해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하려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김창흡에 의하면 장동김문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상을 중히 여겨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데 있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왜 ‘존조’와 ‘수족’의 관계를 청백함이라는 가문의 가르침과 연결지어 강조했는가? 이에 대해 가문 내부와 외부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가문 내적으로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소론 측에서 청백함의 가르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의정 김창집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김창흡은 김언겸 형제의 장례 불참 행위를 통해 가문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장동김문 내부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김제겸이 1719년 봄에 지은 「족보 뒤에 쓰다」(書族譜後)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몸에서 나와 형제가 되면 형체가 나뉘지고, 형체가 나뉘지므로 사랑이 소원해지니, 나뉘질수록 소원해져서 길 가는 사람이 되는 형세에 이르게 된다. 조고가 후손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비록 먼 백세 뒤라도 한결같은 따름이다. 우리 족보의 여섯 파는 동족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제가 나뉘어졌는데 지금은 서로 축하하고 조문하지 않아 장차 길 가는 사람이 될 판이다. 그 처음에는 한 몸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예기』에 말하기를 “조상을 높이므로 종통을 공경하고 종통을 공경하므로 종족을 거두니 종족을 거두는 것이 바로 조상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일 능히 조고가 후손을 대하는 뜻을 체득하여 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이르지 않는다면 근본을 잊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sup>32)</sup>

김제겸에 의하면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원래 한 몸에서 나온 형제였지만 지금은 서로 축하하지 않고 서로 조문하지도 않아 장차 길가는 사람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김언겸 형제가 한 행동은 김제겸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김언겸 형제를 두고 지적한 것은 아니었

32) 金濟謙, 「書族譜後」, 『竹醉藁』. “夫自一身而爲兄弟則形分, 形分故愛疏, 愈分而愈疏, 至於路人勢也. 若祖考之臨後屬, 雖百世之遠如一而已, 吾譜六派始自同族兄弟分焉, 而今不相慶吊而將路人矣. 孰知厥初之爲一身哉? 『禮』曰: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收族乃所以尊祖也.’ 苟能體祖考所以臨之之意, 而不至於路人, 則可謂不忘本矣.”

겠지만 이 글을 통해 당시 장동김문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가문 내부 결속력의 악화를 의미한다. 이를 안 김창흡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창흡은 족보 서문에서 조상을 높이므로 종족을 거두는 것은 곧 존자를 높이 받들고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형제간의 우애가 곧 조상을 존중하는 의미이자 종족을 거두는 관건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가문 내부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으로 가문 외부, 즉 당쟁적 차원에서 김창흡이 쓴 글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718년 5월 1일 정언을 담당한 소론 이명의를(李明誼, 1670~1728)가 영의정 김창집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명의를는 상소문에서 김창집이 선친의 유훈을 잇는 채 권세를 부려 널리 뇌물을 받는 길을 열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인 항목은 군문(軍門)의 은화(銀貨)를 돌려쓴 것, 전리(箭里)의 진장(陳場)을 점거하여 재물을 모은 것, 종남(終南) 바깥 기슭에 별장을 지어 뇌물을 수집한 것 등<sup>33)</sup>이다. 김창집은 5월 4일에 이러한 비난이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sup>34)</sup> 이에 왕세자(王世子: 경종)는 이명의를의 상소가 당론에 아부한 내용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김창집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왕세자의 하답(下答)에 “이명의를가 경(卿: 김창집)의 선인의 훈계에 의탁하여 설을 만듦으로써 선인의 유업을 잇는 경의 정성을 감히 헐뜯었고, 청백한 지조에 누를 끼치려 근거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땅과 집을 경영하는 일을 크게 무함했다”<sup>35)</sup>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명의를의 상소와 왕세자의 하답을 통해 노·소론 사이에 벌어진 헤게 모니 투쟁에서 소론측이 노론 영수 김창집을 공격한 무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김창집이 부친의 유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부정행위를 통해 가문의 청백함에 누를 끼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장동김문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므로 김창집은 여러 번 상소하여 자기의 입

33) 『숙종실록』 44년 5월 1일 기유 기사.

34) 『숙종실록』 44년 5월 4일 임자 기사.

35)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6월 14일 신묘 기사. “托先戒而爲說, 敢毀肯堂構之誠; 累清操而造言, 厚誣營田舍之事.”

장을 밝혀 사직하기도 했고, 나중에 조카 김신겸은 김창집 유사를 기록할 때 첫 구절에서 바로 “부군의 가세(家世)가 본래부터 청백하시니 이어받은 선대의 땅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문충공(文忠公: 김창집)께서 제전(祭田) 몇백 평 이외에는 증식(增殖)하신 바가 없었다”<sup>36)</sup>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창흡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가? 김창흡의 입장에서는 백씨 김창집과 함께 족보 편찬에 착수함으로써 장동김문 구성원이 부친의 유계(遺誡)를 명심하고 있고 800년 동안 전해진 청백함이라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반격이었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족보의 서문에서 장동김문이 800년의 청렴함을 지닌 가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소론의 공격을 물리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 서문의 두 번째 부분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 김창흡이 생각한 족보 편찬의 올바른 태도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존조’와 ‘수족’의 관계를 청백함이라는 가문의 가르침과 연결지어 강조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릇 나와 함께 족보에 있는 자가 거처와 선묘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원근(遠近)과 노유(老幼)가 서로 얼굴을 알든 모르든, 반드시 공경을 함께하고 사랑을 함께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은혜가 비록 두루 미치지 못해도 각자 인륜을 바르게 하여 생각하는 바는 선덕(先德)이고 받드는 바는 조훈(祖訓)이 되어야 한다. 비록 시대가 내려오면서 풍속이 각박해지고 이욕이 마구 흘러도 혼연히 단정하고 온후하여 대대로 지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곧 몸은 만 개이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천리 떨어져 있어도 한 집에 있으며, 또 천세를 하루 같이 보낼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거의 같은 족보에 있는 것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sup>37)</sup>

36) 金信謙, 「夢窩府君遺事」, 『檜巢集』 권10, 한국문집총간 속 72, 324면. “家世自來清白, 先業甚剝落. 然文忠公祭田數畝外無所增殖.”

37) 金昌翁, 「安東金氏族譜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9면. “凡我同譜之人, 居住丘墓之或京或鄉, 遠近老幼之相面不相面, 必思所以合敬同愛. 恩雖未周, 而各正其倫, 所念者先德, 所奉者祖訓. 雖世降俗薄, 利慾橫流, 而渾然端厚, 不失其世守, 則便是萬身而一心, 千里而一室, 且將千世如一日, 庶無愧於同譜矣.”

위 인용문은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김창흡은 안동김씨 족보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청백함이라는 가르침을 대대로 만대 자손까지 마땅히 가슴속에 새겨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함<sup>38)</sup>으로써, 가문 구성원 간에 단결하자는 자기의 뜻을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경과(京派)나 향파(鄉派), 아는 자나 모르는 자 모두 선대의 덕과 조상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받아들여 대대로 지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비록 만가지 몸이어도 하나의 마음이 될 것이고, 천리를 떨어져도 한 집에 있을 것이며, 천세(千世)를 보내도 하루 같을 것이다. “만신”(萬身)과 “일심”(一心), “천리”(千里)와 “일실”(一室), “천세”(千世)와 “일일”(一日)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만세토록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문에 속한 장동김문 구성원임을 강조하려는 김창흡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상으로 『기해보』 서문을 분석하였다. 당시 장동김문은 그 내부에서 결속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고, 노·소론 사이에 벌어진 혜계모니 투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김창흡 형제는 당쟁 속에서 결속력의 강화를 통해 가문을 지키고자 족보 편찬 작업에 착수한 듯하다. 서문에 드러난 족보 편찬 동기 및 의미에 대한 김창흡의 태도와 입장을 가문을 결속하여 당쟁에서 장동김문을 지키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김창흡은 장동김문을 하나의 생사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강조해 왔다. 김창흡의 이러한 인식은 숙종 대의 복잡한 당쟁으로 인해 더욱 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문 구성원 내부의 분열의 조짐을 감지한 김창흡은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고 가문을 지키려고 했다. 이는 김언겸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난다. 『기해보』 서문에도 김창흡의 이러한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다. 『기해보』의 편찬은 단지 가문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격해진 노소 권력 다툼 속에서 장동김문의 정체성을 밝히고 구성원의 단결을 도모

38) 金昌翁, 「安東金氏族譜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9면. “至哉, 訓也! 世世萬子孫所宜服膺而勿失也.”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김창흡이 이토록 강렬하게 가문의 결속력을 강조한 것에는 내적인 동기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김창흡이 일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 김창흡에게 미친 영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서술하겠다.

## 2) 김수항의 죽음에 대한 울분과 복수의 다짐

김창흡은 부친 김수항의 묘표에 “기사년(1689)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사망하셨고, 갑술년(1694) 관직이 회복되어 사제를 받으셨으며, 또 어제(御製) 몽적시(夢覲詩)를 집안에 내리셨으니, 이것이 또 굴신(屈伸)한 일의 전말이다”<sup>39)</sup>라고 서술했다. 얼핏 보면 기사환국으로 사사 당한 부친이 갑술환국 때 명예가 회복되어 일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묘표에 의하면 부친 김수항의 일이 마무리된 시점은 1702년 1월 27일에 숙종이 지은 어제시(御製詩)를 내릴 때이다.<sup>40)</sup> 즉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숙종의 인정을 받아 비로소 부친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고 누명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다.<sup>41)</sup>

39) 金昌翁, 「先府君墓表」, 『三淵集』 권30, 한국문집총간 166, 67면. “己巳, 謫珍島, 受後命以沒. 甲戌, 復官賜祭. 又下御製夢覲詩于家. 是又終始屈伸之案也.”

40) 『숙종실록』 28년 2월 10일 임술 기사에 나온 김창협(協)의 상소문에 어제시를 내린 이야기가 보이지만,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김창집이나 그의 사돈 민진원 가문에서 엮은 『경람』(敬覽)의 첫부분에는 “**임오 정월 이십팔일. 어제** 도총부의 스알별감이 함을 bat드러 어필노 브오신 두 절구를 던흐니”라는 내용이 보인다. 『안동김씨문헌록』의 「몽적김상국」(夢覲金相國) 부분에도 “**壬午正月**, 嗣子忠獻公昌集以都摠管入禁中, 自上特下御製詩二絶”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를 종합해 추측하면 어제시를 내린 시기는 1702년 1월 27일일 가능성이 높다. 『숙종실록』 28년 2월 10일 임술 기사; 안세현 지음, 『『敬覽』해제』; 편자 미상, 『敬覽』,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청구기호:L45032), 3면; 안동김씨 편, 『安東金氏文獻錄』(地), 148면 참조.

41) 물론 여기에는 숙종의 정치적인 포섭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김덕수, 「숙종의 독후시 제작과 그 의미」, 『숙종대 정국 운영과 대외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1, 157~161면 참조.

그렇다면 왜 1702년 1월 27일을 부친의 억울함이 벗겨진 최종 시점으로 삼았는가? 이는 김수항을 죽인 주도자인 장씨 집안 등 남인 세력의 몰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신사년(1701) 옥사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8일에 장희빈이 자진하고, 10월 29일에 장희재(張希載)가 복주(伏誅)되었으며, 11월 8일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 1660~1701)이 사사되었다.<sup>42)</sup> 갑술환국으로 처벌된 민암(閔黯, 1636~1694)과 민종도(閔宗道, 1633~1694) 숙질 두 사람에게는 역률을 추시(追施)하였다. 옥사에 대한 김창흡의 관심은 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난다.

옥사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장희(張姬: 장희빈)가 모역한 죄목은 남김 없이 잘 드러나 있어 조만간 마외(馬嶺)에서 양귀비를 죽였던 장면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온 집안이 깜짝 놀라 기뻐하여 정신을 안정시킬 수 없구나.<sup>43)</sup>

이 편지는 아마도 장희빈이 자진하기 직전에 작성됐을 것이다. 백씨 김창집이 옥사에 참국했기 때문에 장동김문은 옥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주 짧은 편지지만, 기쁘고 흥분되어 가라앉힐 수 없는 김창흡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당시에 김창흡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까지 모두 기뻐하여 정신을 안정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불구대천의 원수인 남인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 그동안 품고 있던 원한이 일차적으로 해소되었기 때문이다.<sup>44)</sup>

갑술년 비색(否塞)한 운수가 기울어져 해가 잠깐 보이다가 이윽고 또

42) 지두환, 『장희빈』, 서울: 역사문화, 2002, 186~195면; 박성호, 「숙종대 동평군 이항의 옥중 유서 검토」, 『충청학과 충청문화』 24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180면 참조.

43) 金昌翁, 「寄養謙辛巳」,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88면. “獄事快成, 張姬謀弒, 彰露無餘, 不日有馬嶺之景色. 渾舍驚躍, 無以定神也.”

44) 여기서 ‘일차적’이라고 한 것은 장동김씨의 입장에서는 남인을 보호해주고 도와준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들이 조정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남인은 부친을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라면 소론은 원수를 도와준 공범이다. 1701년에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제거했지만, 공범은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어두워졌다. 대개 남구만이 정국을 장악해 적노(賊奴)에게 죄를 굽혀서 가볍게 해 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토벌이 중단되었다. 이에 선비(先妣)의 억울함과 원한은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신사년에 이르러 곤궁(坤宮: 인현왕후)께서 돌아가심에 따라 내외에서 발생한 무고(巫蠱)의 옥사에서 역절(逆節)이 드러났다. 이항과 장희재가 서로 얽히어 관련된다는 사실이 한 여자의 입에서 밝혀져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 뜨게 하였고, 민암(閔黯)과 민중도(閔宗道) 두 사람에 대해서도 역률(逆律)을 추시(追施)하였다. 무릇 이 서너 큰 악인들이 애당초 일찍이 우리 국모(國母)와 선군(先君)을 모해(謀害)한 사람인데, 남구만도 이들을 지켜보지 못했다. 신명이 있어 주벌을 해줬으니, 이에 천칙(天則)이 정해진 것이다. 백형이 마침 금오관(金吾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추국(推鞠)에 참석하여 눈으로 이항과 장희재가 나란히 죽는 것을 보았다. 또한 같은 날에 음식을 전하는 노비가 연이어 이 소식을 알려줘, 선비께서 손바닥을 치면서 상쾌하다고 말씀하였다. 돌아보며 창흡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십여 년 동안 원통하고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었는데, 다행히 이 날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의 형이 조정에 나간 것도 또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셨다.<sup>45)</sup>

위의 인용문은 「선비 행장」의 일부분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장희재, 이항 등은 기사환국에서 부친을 모해한 원흉들이었다.<sup>46)</sup> 그런데 갑술환국에서 남구만의 보호로 그들을 토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창흡을 비롯한 장동김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원한과 억울함은 기사환국 당

45) 金昌翁, 「先妣行狀」, 『三淵集』 권30, 한국문집총간 166, 81면. “甲戌傾否, 乍見天日, 而俄又晦翳. 蓋九萬當局, 曲貸諸賊奴, 天討用遏. 先妣之所冤鬱, 殆甚於向時矣. 及至辛巳, 坤宮賓天, 內外巫蠱獄, 逆節呈露. 杭與希載牽連爲鬼蜮者, 闖發一婦之口, 快張萬人之目, 黯與宗道追施逆律. 凡此三四巨慝, 始嘗謀害我國母以及先君者, 而九萬之所未護. 若有神殛, 天則於是乎定矣. 伯兄適以金吾官, 終始按鞠, 目見杭、希載駢首就戮狀. 亦一天也, 傳食之婢絡繹有報, 則先妣鼓掌而稱快, 顧謂昌翁曰: ‘吾與爾輩腐心十餘年, 幸見此日. 汝兄之立朝, 亦不爲無說矣.’”

46) 김창협도 「선부군 행장」(先府君行狀)에서 부친의 유언을 인용하면서 장씨 집안을 비롯한 남인 세력은 부친을 죽인 원흉이라고 밝힌 바 있다. 金昌協, 「先府君行狀下」, 『農巖續集』 卷下, 한국문집총간 162, 504면. “又曰: ‘昔靜菴臨命, 聞南袞爲相曰, 吾死宜矣. 今張希載爲內乘, 尹鑣、吳始壽雪冤復官, 吾安得不死, 亦安用不死哉?’”

시보다 더욱 심해졌다.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원한을 갚지 못하는 그들은 답답함과 원통함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갑술환국으로 남인 세력을 정치적으로 대거 몰아냈지만, 장동김문의 입장에서는 전혀 충분치 않았다. 부친을 죽인 장희재 등의 남인들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장동김문은 갑술환국의 결과에 불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갑술환국 뒤부터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십여 년 동안 이를 갈고 속을 썩이며 복수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다. 신사년 무고가 바로 그 기회였다.

이처럼 김창흡은 갑술환국에서 소론 영수 남구만의 보호로 인해 부친을 모해한 장씨집안을 비롯한 남인 세력을 제거하지 못하여 원통과 원한이 깊었다. 이러한 원한의 감정은 신사년 옥사에 이르러 남인 세력이 제거됨에 따라 비로소 일차적으로 해소되었다. 그렇다면 갑술환국 뒤에 해소되지 못했던 울분과 원한을 김창흡은 어떤 식으로 토로했는가? 「삼벽당 기문」(三碧堂記)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삼벽당’은 영암에 거주한 현약호(玄若昊)의 당호이다. 「삼벽기 기문」은 1694년 12월 무렵<sup>47)</sup> 김창흡이 현약호를 위해 지은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장동김문은 연주현씨 집안과 밀접한 교유관계를 맺었다.<sup>48)</sup> 김수항은 영암 유배기에 현징(玄徵)·현약호 부자의 집에서 묵었을 뿐더러 현징의 정자를 죽림정(竹林亭)이라고 명명하여 「죽림정 기문」(竹林亭記)을 써주기도 했다.<sup>49)</sup> 여기에는 죽기 전에 가족들을 영암에 안치하려는 뜻도 있었다.<sup>50)</sup> 현징·현약호 부자는 김수항이 사사당한 뒤에 그의 영구를 호송해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삼벽당 기문」을 이해하려면 갑술년(1694)이라는 시점, 김수항·김창흡 부자와 현징·현약호 부자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삼벽당 기문」을 본격적으로

47) 기문에 나온 ‘時方窮陰’이라는 말과 『삼연집』에 수록된 「玄欽甫若昊歷險遠訪，至意不可以言謝，輒以一詩剖懷」라는 시의 창작 연도를 아울러 고려하면 현약호가 벽계에 방문한 시기는 1694년 12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48) 제3장 제2절 “지방 문인” 부분 참조,

49) 金壽恒, 「竹林亭記」, 『文谷集』 권26, 한국문집총간 133, 498~499면.

50) 金昌翁 찬, 「臨命日記」, 『安東金氏文獻錄』(地), 304면. “又問: ‘前頭一家依泊之所亦何以指教耶?’ 答曰: ‘靈岩之鳩林即吾並州故鄉也, 今姑權厝於彼, 家屬仍爲寓居意.’”



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군(玄君) 흙보(欽甫)가 천리 밖에서 수레를 달려 벽계(槩溪)로 나를 찾아왔다. 이때 한창 음기(陰氣)가 극성하여 집 밖에 눈이 깊이 쌓였는데 등불 하나를 밝혀놓고 서로 함께 궁핍한 선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이윽고 함께 오열하였다. 이같이 한 것이 모두 사흘 밤이었으니, 이야기의 화제는 3년 간 월출산(月出山)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이별을 앞두고 흙보가 자기의 삼벽당에 대한 기문을 부탁하였다. 내가 이미 필연을 불살랐다고 사양하자, 흙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그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글이었다면 어찌 감히 그대를 번거로이 하겠습니까? 그대 선군자(先君子: 김수항)께서 일찍이 우리 부친을 위해 「죽림정기」(竹林亭記)를 지어주셨으니, 그 글이 아직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대는 혹시 잊었습니까? 제 삼벽당이 이 죽림정과 바로 한 집에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와 측백나무 한 그루가 대숲의 성대함을 이어받아 울창하게 뜰의 푸르름이 한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벽당이라 명명하고 일찍이 우옹(尤翁)께 청하여 큰 글씨 석자를 얻었습니다.”

내가 물었다.

“우옹의 글씨가 아직 남아 있는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얻었는가?”

흙보가 탄식하다가 얼마 뒤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우옹의 거의 마지막 글씨일 것입니다. 탐라(耽羅)로 가는 배가 다음날 출발하는데 이날 이것을 쓰셨으니 바로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寺)에 계실 적 일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기슭을 쳐서 생사가 눈앞에 닥쳤는데, 해안에서 전송하는 인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한창 글씨를 청하기에 풍랑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로 감히 우옹을 위로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옹께서 이 청에 대하여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많이 아끼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 필체가 특히 기이하고 굳었습니다. 지금 이 글씨를 걸어놓으니 줄기에 서리가 맺히고 눈이 쌓여도 곳곳이 위엄있고 당당하여 뜰의 푸른 나무들과 서로 오르내립니다. 이에 우러러보고 흙모하는 정성을 부쳐서 「죽림정 기문」과 똑같이 보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 삼벽당이 비록 작지만 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sup>51)</sup>

위 인용문은 기문의 첫 번째 부분이다. 이 기문의 핵심은 두 가문 사이의 정(情)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김창흡과 김수항 사이의 부자간의 정이다. 김창흡은 글의 서두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밝혔다. 우선 현씨 집안과의 관계이다. 서울에서 천리 떨어져 있는 영암에 살고 있던 현약호는 가장 추운 선달임에도 불구하고 벽계에 은거하고 있던 김창흡을 찾아와 그를 위로해줬다. 삼일간 이야기의 화제는 3년간 영암 월출산(月出山)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이야기 속에는 부친 김수항에 대한 추억이 많았을 것이다. 부친이 그곳에서 1675년 9월부터 1678년 8월까지 3년간 유배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둘은 이야기하며 함께 오열했다. 영암 시절에 같이 지냈던 현징·현약호 부자와 김수항·김창흡 부자 가운데 김수항만 죽었는데, 김수항을 죽인 원수에 대한 처벌이 그해의 갑술환국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며칠 동안 머물다 떠나게 된 현약호는 김창흡에게 삼벽당 기문을 부탁하였다. 이 부분부터 김창흡은 대화의 형식으로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현약호의 부탁에 대해 김창흡은 처음에 필연(筆硯)을 이미 불살랐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현약호가 삼벽당의 존재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김창흡을 설득하였다. 바로 삼벽당과 죽림정, 자기 자신과 김창흡, 자신의 부친 현징과 김창흡의 부친 김수항 사이의 운명적인 관계 때문이다.

‘삼벽’이라는 이름은 같은 뜰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와 측백나무 한 그

51) 金昌翁, 「三碧堂記」, 『三淵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65, 493~494면. “玄君 欽甫從千里命駕, 訪我於槩溪之中. 時方窮陰, 衡門之外, 雪至尋丈. 炯然一燈, 相與作土鏗中語, 已而相嗚咽也. 如是者凡三夜, 談話之所繚繞, 三周月出山矣. 臨別, 欽甫以其堂三碧記爲託, 余謝以已焚筆硯. 則欽甫曰: ‘余知子悰緒矣, 若他文則敢以煩子? 子之先君子嘗爲吾翁作「竹林亭記」, 則今其文尙壁上留也. 子豈忘之哉? 吾堂於斯亭, 卽其同宮, 而爰有一松一栢, 以承其檀欒, 蔚然庭翠合焉. 若是而名之曰三碧. 嘗請于尤翁, 得三大字矣.’ 余問: ‘尤翁之筆尙在乎?’ 曰: ‘在.’ 曰: ‘何從得之?’ 欽甫歛歔有間曰: ‘是殆尤翁絕筆也. 耽羅之船明日發, 而今日寫此, 乃在萬德之白蓮寺時. 鯨濤簸岸, 死生在前, 而人客之自崖送者, 方且乞字如雲, 無敢以舍達之說廣尤翁. 尤翁於此請, 似是愛其名之意爲多, 以故其筆分外奇勁. 今揭之, 凜乎其霜幹雪莖與庭碧相低昂, 于以寓俯仰瞻挹之誠, 一視諸「竹亭」文而無間焉. 吾堂雖小, 所重有在爾.’”

루가 뜰에 있는 대숲의 성대함을 이어받아 울창하게 모였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이것이 삼벽의 일차적인 의미다. 대나무는 현약호의 부친 현징이 심은 것인데, 죽림정도 여기에 있다. 삼벽당과 죽림정은 같은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나무가 소나무, 측백나무와 아울러 울창하게 한데 모인 모습이 마치 자신이 부친과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것 같다. 부친의 죽림정에 이름을 지어주고 「죽림정 기문」을 지어준 사람은 바로 김창흡의 부친 김수항이었다. 그러므로 김창흡에게는 부친 세대가 한 것처럼 삼벽당에 기문을 지을 당위성이 있었다. 현징과 현약호 부자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것처럼 자신과 부친 김수항도 한 몸과 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약호가 김창흡을 설득한 논리이다.

더 나아가 현약호는 ‘삼벽당’ 글씨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이 글씨는 노론 영수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 가는 길에 강진(康津)의 백련사(白蓮寺)에서 쓴 절필(絶筆)이다. 송시열은 죽은 부친에게 묘지명을 지어주기도 했었다.<sup>52)</sup> 이렇게 해서 삼벽당, 송시열, 김수항이 서로 연결된다. 송시열이 쓴 기이하고 굳센 글씨를 걸어놓으니 줄기에 서리가 맺히고 눈이 쌓여도 곳곳이 위엄있고 당당하여 뜰의 푸른 대나무들과 서로 오르내린다. 이에 우러러보고 흠모하는 정성이 「죽림정 기문」을 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 대나무가 부친의 상징이라면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자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대나무와 서로 오르내리는 것은 부자간의 정을 상징하며, 서리가 맺히고 눈이 쌓이는 것은 자신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친을 우러러보고 흠모하는 정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현약호가 말한 것이지만, 김창흡의 입을 대신한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김창흡은 눈물을 흘리며 현약호의 부탁은 말이 있고 말이 없는 사이에 모두 자기 자신이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대하여 이같이 대

52) 宋時烈, 「文谷金公墓誌銘 并序」, 『宋子大全』 권182, 한국문집총간 114, 191~193면.

답하였다.

“흠보가 이렇게 부탁하니, 말이 있고 말이 없는 사이에 모두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일세.

아아! 위령(葦嶺)의 남쪽은 큰 바다와 인접해 있는데, 선군과 우옹의 심적(心跡)이 여기에서 다하였으나 세상에 남은 공의(公議)는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이 있네. 자네 부자는 남도의 선비들 가운데 특히 시종일관 흠모하여 당화를 당했어도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네. 심지어 한 조각 남은 필적을 치성한 당쟁의 여파에도 별 탈 없이 보존하여 소중하게 간직해서 편액으로 내걸었으니, 선군과 우옹의 정신이 여기에 모여 있네.

대저 그 자취를 보존함은 그 사람을 사모하기 위함이며, 그 사람을 사모함은 그 도를 숭상하기 위함이며, 그 도를 숭상함은 그 지조를 가다듬기 위해서이네. 이것은 그 마음이 정고(貞固)한 것이니 이를 일러 독야청청이라 해도 좋을 것이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당에 거처하니, 나는 부끄러운 바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겠고, 또한 그 기탁한 것이 원대함을 볼 수 있네. 석실(石室)의 무성함과 화양(華陽)의 즐거움을 가지고 선군과 우옹께서는 일찍이 의기투합하셨네. 그러므로 그대 집 뜰 안의 죽림의 소리가 또 장차 그와 더불어 쇠하지 않을 것이니, 확대하여 말하자면 이 또한 삼벽의 뜻이네.”<sup>53)</sup>

위 인용문은 기문의 두 번째 부분이다. 김창흡은 왜 ‘차마 하지 못했다’고 말했는가? 현약호의 말이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김창흡으로 하여금 부친 김수항과의 정, 부친이 겪었던 불공평한 대우를 떠올리게 한 것이다.

당쟁으로 죽은 부친은 그해 환국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매우 원통해했다. ‘오호’(嗚呼)라는 감탄사는 김창흡의 불평한 심정을 잘 이끌어냈다. ‘오호’ 뒤에 이어진 ‘위령(葦嶺)의

53) 金昌翁, 「三碧堂記」, 『三淵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65, 494면. “余斂衽起坐, 泫然而應之曰: ‘欽甫之屬以此, 有言無言之間, 皆吾所不忍也. 嗚呼! 葦嶺之南, 以際大海, 先君與尤翁心迹盡此, 而公議之在世者, 至今有未定焉. 子之父子在南土中, 特能終始慕用, 不以禍故而少解. 至使片蹄殘墨, 無恙崑丘烈燼之餘, 而碧紗璇額之奉, 邂逅精神之斯會. 夫存其蹟, 所以慕其人; 慕其人, 所以崇其道; 崇其道, 所以勵其操. 是其爲心之貞, 雖謂之獨也青青可也. 以是心處斯堂, 吾知其無所愧矣. 亦見其所寄者遠矣. 石室之茂, 華陽之悅, 先君與尤翁蓋嘗以此託契矣. 子之家庭竹林之韻, 又將與之不衰. 廣而言之, 是又三碧之義也.’”

남쪽부터 큰 바다 사이에까지 부친과 우암의 마음과 행적이 다했다’는 말과 ‘세상에 남은 공의(公議)가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일종의 대비를 이루면서, 갑술환국에서 부친과 우암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김창흡의 울분과 불만을 잘 드러낸다.

위령이라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위령<sup>54)</sup>은 남북을 오가는 데 이용하는 삼남대로(三南大路)로서, 강진, 진도, 제주도로 유배 가는 선비들은 반드시 이 고개를 넘게 된다. 김수항은 기사환국으로 진도에 유배될 때 위령을 넘었고,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한양으로 압송될 때 위령을 넘어 정읍에 도착해 사약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령은 김수항과 송시열에게 죽음을 맞이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부친 김수항과 송시열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까닭은 남인 처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령’과 ‘공의’에 대한 김창흡의 언급은, 남인이 일으킨 기사환국으로 위령 남쪽의 유배지에서 생을 억울하게 마친 부친과 우암이 갑술환국에서도 공평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징·현약호 부자는 부친을 시종일관 흠모하여 당화를 당했어도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한 조각 남은 우암의 필적을 당쟁의 여파에도 별 탈 없이 보존하여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이로써 부친과 우암의 정신과 지조가 삼백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잘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석실의 무성함, 화양의 즐거움, 현약호 집의 죽림 소리가 아울러 하나가 되어 삼백의 이차적인 의미가 된다.

이렇듯 「삼백당 기문」은 현약호를 위해 쓴 글이지만, 여기에는 부친 김수항에 대한 부자간의 정, 그리움, 부친의 죽음에 대한 울분, 갑술환국 때 부친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원한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창흡이 부친 김수항의 죽음에 대한 울분을 표현했을 때 단지 개인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창흡은 노론의 당파적 입장에서 노론 영수 송시열을 부친 김수항

---

54)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노령(蘆嶺), 갈재(葛岾)라고도 한다.

과 연결 지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울분을 함께 토로했다. 즉 장동김문의 구성원이자 노론의 엘리트로서, 부친 김수항의 죽음을 장동김문이라는 한 가문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노론이라는 한 당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갑술환국이 끝나고 노론이 어느 정도 다시 권력을 잡은 뒤에 김창흡은 부친을 위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다졌다. 이는 1694년 지은 「가을 감회」라는 시에서 잘 드러난다.<sup>55)</sup> 그렇다면 갑술환국 뒤인 소론 집권기에 복수의 마음을 다진 김창흡은 원수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

### 3) 남인과 소론에 대한 원한

앞서 밝혔듯이 김창흡에게 남인이 불구대천의 원수라면 소론은 김수항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범이었다.<sup>56)</sup> 갑술환국 때 소론은 남인 처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남인과 소론에 대한 김창흡의 원한은 갑술환국 이후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소론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이 복수를 포기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늘 남인과 소론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그들에 대한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표했다. 김창흡이 여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는 중씨 김창협에게 보낸 편지<sup>57)</sup>에 잘 드러난다. 편지 내용의 핵심은 육창 형제가 고종사촌 형제 홍만조(洪萬朝)<sup>58)</sup>를 대할 방도를 논한 것이

55) 시에서 “비록 다시 산으로 돌아가나 은둔을 위해서 아니니 /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죽인 원수 잊으면 어찌 사나이리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시 원문의 “망월”(忘越)은 춘추시대 오(吳)나라 부차(夫差)가 자기 부친을 죽인 월나라 왕에 대한 원수를 잊지 않고 3년 뒤에 월나라에 복수를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여기서 자기 부친을 죽인 원수를 잊지 않겠다는 김창흡의 복수의식이 잘 드러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공(定公) 14년 조 참조. 金昌翁, 「秋感之三」, 『三淵集拾遺』 권5, 한국문집총간 166, 279. “支離此世命之衰, 撫往驚來涕墮頤. 雖復歸山非隱遁, 公然忘越豈男兒. 棲棲半爲妻孥計, 冉冉頻違志學期. 靖獻先人無一可, 「西銘」三讀起長噫.”

56) 제3장 제3절 “정치적 행보” 부분 참조.

57) 金昌翁, 「上仲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4~476면.

다. 편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편지의 작성 시기와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작성 시기부터 검토할 것이다.

이 편지에서 김창흡은 청나라 사행 도중 의주에서 홍만조가 심계량(沈季良, 1659~1718)과 만났다는 최근의 일에 의거하여 홍만조가 같은 편 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sup>59)</sup> 홍만조는 사은사 부사로서 1696년 7월 25일부터 1697년 2월 1일까지 사행을 다녀왔다. 9월 초에 정사 이항(李杭)이 병으로 의주 객관에 오래 머물렀는데, 의주에 있는 동안 홍만조는 심계량과 만나 시를 주고받았다.<sup>60)</sup> 이때 홍세태가 홍만조를 수행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김창흡은 홍세태를 통해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sup>61)</sup> 김창흡은 청나라에서 돌아온 홍세태를 통해 이 일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된 연도는 1697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왜 자기의 고종사촌 홍만조를 적(敵)으로 여겼는가? 김창흡 형제 사이에 왜 이러한 논의를 생겼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편지의 작성 배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홍만조는 김창흡 집안을 비롯한 노론 세력과 긴밀한 혼척관계를 가진 인물이다. 심지어 김수항은 사사되기 전에 외조카 홍만조가 자기의 행실과 인품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믿음직하므로, 육창 형제에게 홍만조를 격의 없이 대하라고 유언까지 남겼다.

“(…)

홍형(洪兄) 만조(萬朝)께서 말씀하시길, ‘민상(閔相: 민정중閔鼎重) 같은 자는 오히려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있는데 외숙은 터럭만큼도 권모술

58) 제3장 제2절 “경화 세족” 부분 참조.

59) 金昌翁, 「上仲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5면. “俄而其西行之日, 與玄賊接膝, 人有言之者. 及其在灣, 與沈賊通款, 已自分明招認.”

60) 이는 『연사록』에 수록되어 있는 「용만에 이르다」(到龍灣) 바로 뒤의 「심직부령이 증행시를 지었는데 쓸 즈음에 바로 차운하다」(沈直夫令有贈行詩, 臨書走次)라는 시를 통해 확인된다. 정두원·홍만조 지음, 신재환·장세후 옮김, 『국역 조천기 지도·홍만조 연사록』,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223~224면 참조.

61) 제3장 제2절 “중서충” 부분 참조.

수가 없으니 오늘의 화는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김수항이] 대답하시기를, “홍 생질(甥姪)의 이 말은 진실로 나를 아는 것이다. 나는 천성이 본래 옹졸하다. 비록 권모술수를 쓰려고 해도 참으로 할 수 없었다. 또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할아버지께서 논의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 마음을 미덥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따지지 않으셨다. 내가 평소에 이와 같은 습속을 듣고 보아왔던 까닭에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한 마음일 뿐이다”라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근래 홍 생질이 한 일을 보니 진실로 우연이 아니다. 너희들은 격의 없이 홍 생질을 대하면 되겠다”라 하였다.<sup>62)</sup>

위 인용문이 바로 김수항의 유언 중 홍만조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처럼 김수항은 홍만조를 믿고 자식들에게 홍만조를 격의 없이 대하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런데 홍만조의 교유관계를 보면 그가 남인계열 인물과 친하게 지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그가 생전에 오시수(吳始壽), 이하서(李夏瑞, 1647~1703), 권두경(權斗經, 1654~1725), 이재(李裁, 1657~1730), 심계량 등 남인계열 인물과 교유했다는 점,<sup>63)</sup> 죽은 뒤에는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 1658~1737),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 등 남인 문인들이 그를 위해 묘지, 묘갈을 지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64)</sup>

그리고 김창흡이 편지에서 강조했던 대로 홍만조가 의주에서 심계량과 만났다는 것도 사실이다. 홍만조는 의주에서 심계량에게 「심직부(沈直夫) 령(令)이 증행시를 지었는데 임서(臨書)하여 바로 차운하다」를 보냈

62) 金昌翁 찬, 「臨命日記」, 『安東金氏文獻錄』(地), 311면. “洪兄萬朝謂如閔相猶有些機關, 而舅氏則無一毫機關, 今日之禍皆由於此云矣.’ 答曰: ‘洪甥此言, 誠是知我者也. 吾天性素拙, 雖欲爲機關權數, 固所不能. 且自幼時, 侍先祖考, 見其論議行事, 信心直行無少計較. 平日聞見習俗如此, 故尤不能爲彼. 蓋自少至今只此一心耳.’ 又曰: ‘近觀洪甥所爲, 誠不偶然. 汝輩待之無間可也.’” 인용문의 번역은 김창흡 기술, 김위현 편역, 『기사유교』, 서울: 예문춘추관, 2015, 63면을 참고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

63) 홍만조의 『만퇴당집』과 남인 인물들의 문집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4) 趙德鄰, 「崇祿大夫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 知春秋館事, 世弟左賓客晚退堂洪公墓誌銘」, 『玉川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75, 373~378면; 李瀾, 「判敦寧府事貞翼洪公墓碣銘」, 『星湖全集』 권61, 한국문집총간 200, 39~40면 참조.



다.65) ‘직부’는 심계량의 자이다. “공연히 사령운의 못가의 꿈 힘쓰니 / 누가 백아의 산과 물 읊은 곡조에 화답하겠는가 / 함께 서로 떨어져 있으니 어찌 유감스러울 것 있겠는가 / 훗날 동이 술이나 함께 주선행보세”(空勞謝氏池塘夢，誰和伯牙山水弦？等是相離何足恨，他時樽酒共周旋)<sup>66)</sup> 라는 내용을 보면 둘 사이의 정이 매우 두터웠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홍만조는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척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남인계 열 인물과 긴밀하게 교류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수항을 죽인 남인과 불구대천의 원수인 장동김문 구성원의 입장에서 남인과의 교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육창 형제에게 홍만종은 고종사촌이면서 부친 김수항이 깊이 믿고 격의 없이 지내라는 유언까지 남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 편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편지의 작성 배경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이 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명(敬明: 김창즙金昌緝)이 돌아온 날 밤에 홍형(洪兄: 홍만조)의 일을 조금 들어 응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곡절을 비록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형님[김창협金昌協]의 뜻을 대략 알았습니다. 형님은 그쪽이 애당초에 참섭(參涉)한 까닭을 명목(名目)에 얽혀 형세상 어쩔 수 없었던 탓으로 돌렸고, 심지어는 그쪽 입장을 너그럽게 헤아려주며 말하기를, “이미 같은 편인 사람이니 우리와 함께 도모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기 어렵다. 처지가 바뀌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그 실정을 다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치에 다 부합하지 못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가를 도와준 일을 끌어들이는 것은 경중이 또한 서로 같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만약 운운(云云)한 것들을 가지고 애매해서 밝히기가 어려운 것으로 곧바로 돌려버리면 그만이지니와, 과연 잘못된 사실이 있는데도 용서할 만하다고 말

65) 洪萬朝, 「沈直夫令有贈行詩, 臨書走次」, 『燕槎錄』, 『晚退堂集』 권2,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청구기호: 811.98 홍만조 만-필 -2). “城南春草自年年, 塞外音容轉杳然. 賦鵬愁深斜日後, 援琴淚灑旅窓邊. 空勞謝氏池塘夢, 誰和伯牙山水弦? 等是相離何足恨, 他時樽酒共周旋.”

66) 번역은 정두원·홍만조 지음, 신재환·장세후 옮김, 앞의 책, 224면 참조.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을 듯합니다. 운운한 설들은 이야기하기에 참담합니다.

하나는 돈을 주렴한 흉악한 모임에 몸소 참석했다고 한 것이고, 하나는 유위한(柳緯漢)의 상소문을 꾸몄다고 한 것이며, 하나는 어두운 새벽에 장현(張炫)과 함께 모여 친밀하게 왕래한 것입니다. 전해진 바가 비록 하나가 아니지만, 요컨대 임금에게 참소해서<sup>67)</sup> 은밀하게 올빼미와 물여우의 음모<sup>68)</sup>를 피한 것이 그 정절(情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공적으로는 언제든지 배어야 할 원흉이고, 사적으로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sup>69)</sup>입니다. 이것을 어찌 감이 나오고 울이 들어가는 사이에 심상하게 당과를 따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구차히 도모하는 자와 똑같이 보아 나란히 놓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이 따른 형세와 만든 음모는 이미 관례적으로 간계를 부려 모함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고, 우리쪽이 당한 화의 잔혹함은 또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곡진한 사정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준다는 설을 장차 어떻게 그 사이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들은 바를 가지고 시험 삼아 처지를 바꿔 살펴본다면 저쪽이 한 것은 진실로 제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쪽이 한 것이 저 또한 할 수 있지만 이치상 불가함이 있는 것이라면 용서해주는 것이 어찌 타당하겠습니까? 만약 이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용서에만 힘쓴다면 무릇 흉적(凶籍)에 있는 사람 중에 용서할 만한 자가 많을 것이고 원수로 삼을 만한 자가 드물 것입니다. 역시 서로 이끌어 구차히 용서함은 의거할 만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만합니다. 피차의 형세를 헤

---

67) 원문은 “夤緣左腹”이다. ‘인연’은 뇌물을 주거나 연줄을 타서 출세하려 하는 것을 뜻한다. ‘좌복’은 ‘좌복지참’(左腹之讒)의 줄임말로 어진 사람을 해치기 위해 간사한 말로 임금에게 참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명이괘」(明夷卦) ‘육사’(六四)에 이 말이 보인다.

68) 원문은 “梟賊之計”이다. ‘효’는 올빼미를 가리킨다. 어미를 잡아먹는 악조(惡鳥)로 악인(惡人)을 비유한다. ‘역’은 물여우를 뜻한다. 물여우는 물속에 사는 독충인데, 그 독기를 사람의 그림자에 뿌리면 병에 걸린다고 하므로 남을 해치는 음흉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고사는 『시경』 「하인사」(何人斯)에 보인다.

69) 원문은 “不共戴天者”이다. 이 말은 『예기』 「곡례」(曲禮) 상(上)의 “부친의 원수와 하늘을 함께 이고 살지 못한다”(父之讎，弗與共戴天)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 세상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가진 원수 사이를 이른다.

아려 보면 차이가 없을 수 없으니, 원서(原恕)의 도와 더불어 논하자면 충(忠)에 근본하지 않고 용서[恕]에만 치우쳐서 온당함을 잃은 것<sup>70)</sup>으로 귀결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이 지금과 달라서, 저쪽에서 우리를 대체한 바는 부정한 방도로 도모한 것이 아니며 화를 일으키려는 마음으로 기울어뜨린 것이 아니니, 도모함의 지극한 바는 오직 세력이 번갈아 일어남에 있었다고 합니다. 혹 그가 지킨 바가 공적인 것이었는데 불행히도 뜻밖의 화변(禍變)이 그가 배척하고 모함한 여파로 인해 전성(轉成)되었다고 한다면, 저쪽이 스스로 해명한 바에 혹시 말이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또한 그를 위해 꼭진히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방도가 마음에 자리잡고 뼈에 사무쳐 바로 한쪽을 원망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혹한 지경에 이르도록 구한 것이어서, 방울진 물이 하늘까지 넘실거리게 되듯 하여 끝내 화단(禍端)이 몰려드는 바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절로 적의 편 사람이요, 명백히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sup>71)</sup>

70) ‘원서의 도’는 곧 충서(忠恕)의 도이다. 『논어』 「이인」(里仁)에서 증자(曾子)가 “부자의 도는 충과 서일 뿐이다”(夫子之道，忠恕而已矣)라고 말한 것에 대해 주희는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을 서라고 한다”(盡己之謂忠，推己之謂恕)라고 주를 달았다. 여기서 김창흡은 홍만조에 대해 용서에만 치우치는 김창협(協)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71) 金昌翁，「上仲氏」，『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74~475면. “敬明之歸夜，微聞以洪兄事，有所酬酢。雖未詳曲折，而畧領兄主之旨，以彼當初所參涉者，誘之於名目所纏，勢不容已，而至爲之平恕曰：‘既是一邊人，難責其不與局。易地而處，吾亦可爲’云。則竊恐覈之未盡其情，恕之未盡合理。而其挈涇陽事，輕重亦似大不相倫。今若以所云云者，直歸之曖昧難明則已，果有之矣，猶曰可恕，則恐有大不然者。云云之說，言之慘矣。一則曰身與釀金之凶會，一則曰修緯漢之疏，一則曰與炫也昏曉聚首，密勿往來。所傳雖不一，而要之夤緣左腹，陰售梟賊之計，是其情節。則乃如之人，在公爲比誅之元凶，在私爲不共戴天者也。此豈可與尋常徇黨苟且彙進於甲出乙入之際者，等視而比論乎？彼其所因之勢，所設之謀，既非循例傾軋之比，我之所被禍酷，亦無復餘地。則委曲平恕之說，將何以着於其間耶？試以所聞者，爲易地之觀，則彼之所爲，固吾之所不忍爲也。卽彼之所爲，吾亦可爲，而於理有不可者，則恕之豈當乎？苟不準之於理，而惟恕是強，則凡在凶籍者，可宥者多，而可讎者尠矣。亦足明其相率苟且之恕，不可據爲可挈之矩矣。彼己之勢度之，不能無差，與原恕之道論之，不本於忠，居一於此，恐未免爲失當之歸。且有一說：事異於今日，彼所代我者，畧之不以邪逕，傾之不以禍心，謀爲所極，只在於迭興。乃或所執者公，而不幸不虞之禍變，由其傾軋之餘波而轉成，則彼所自解，容或有說矣，人亦爲之曲恕矣。然爲我之道，所以處心

위 인용문은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이다. 육창 형제가 홍만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논술이 그 핵심이다. 김창협은 홍만조가 장동김문을 배반했던 각종 행위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주려고 했다. 이유는 홍만조가 자기의 고종사촌 형제이므로 같은 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창협은 홍만조가 ‘자기 편 사람’[一邊人]인가 ‘적의 편 사람’[敵一邊人]인가에 초점을 맞춰 홍만조가 동지가 아닌 적이라고 논증함으로써 증씨 김창협을 설득하려 하였다. 이 편지글에는 ‘자기 편인 사람’인 ‘동지’와 ‘적의 편인 사람’인 ‘적’(敵)의 이분법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카를 슈미트의 논법을 빌려 보면, 적과 동지의 이분법은 ‘정치적인 것’이다.<sup>72)</sup> 김창협의 동지와 적의 구별은 그의 정치의식을 첨예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김창협은 ‘동지/적’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했는가?

편지의 서두를 보면 김창협은 장동김문을 배신하는 행동을 한 홍만조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입장을 표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애당초 홍만조가 당쟁에 참여한 것은 명목에 얽혀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홍만조가 혈연적으로 이미 자기 가문과 같은 편인 사람이니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창협은 “처지가 바뀌었다면 자신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홍만조를 위해 변명했다.

이에 김창협은 ‘조사’와 ‘실정’, ‘용서’와 ‘이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김창협의 입장을 반박하였다. 조사와 실정은 김창협이 홍만조를 용서해준 첫 번째 이유를 두고 말한 듯하고, 용서와 이치는 두 번째 이유를 두고 말한 듯하다. 당시에 홍만조는 장동김문에 불리한 행동들을 많이 한 듯하다. 운운한 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 이 운운한 설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는 돈을 함께 추렴한 흉악한 모임에 몸소 참석했다고 한 것이고, 둘째는 유위한(柳緯漢)의 상소문을 꾸몄다고 한 것이며, 셋째는 어두운

---

次骨，直是致怨於一方，求其使我至此酷者。而涓滴之於滔天，終是禍孽所輾。則其人自是賊一邊之人也，自是不可相面之人也。”

72)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살림, 2012 참조.

새벽에 장현(張炫)과 함께 모여 임금 곁에서 기밀에 참여한 일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 것이다. 유위한의 상소문은 1689년 1월 14일 남인 계열 인물인 유학(幼學) 유위환이 왕자의 명호를 정하는 일을 반대한 신하들을 비난하고 왕자를 속히 세자로 삼아 국본을 안정시킬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것<sup>73)</sup>을 가리킨다. 유위환의 상소를 계기로 기사환국이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부친 김수항과 중부 김수홍의 죽음<sup>74)</sup>을 맞이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운운한 설에 의하면 홍만조는 유위환의 상소문을 꾸몄다. 일의 진위를 고증할 수 없지만, 이때 홍만조는 홍문관 부수찬<sup>75)</sup>으로서 상소문에 손댈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장현(張炫, 1613~1695)은 바로 희빈 장씨의 종백부(從伯父)로서 장희재와 매우 가까운 친족이다.<sup>76)</sup> 운운한 설에 의하면 홍만조는 장현과 함께 모여 임금 곁에서 기밀에 참여한 일을 서로 주고받았다.

홍만조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남인과 결탁한 것들이다. 이에 김창흡은 당파적 입장에서 그 행위의 속성을 임금에게 참소해서 반대정파를 공격하려는 올빼미와 물여우같은 음모를 은밀하게 꾀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근거해서 김창흡은 ‘공사’(公私) 논리를 끌어내어, 이와 같은 사람은 공적으로는 노론 당파를 물리친 원흉으로서 처벌해야 할 대상이며 사적으로는 부친을 죽인 원수로서 우리 가문과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당쟁의 차원에서 그를 단순히 당파를 따라 구차히 행동을 도모하는 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창흡은 ‘공사’ 통합적 논리에 근거하여 홍만조의 행위를 당파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사적 차원, 즉 가문 복수의 차원에서도 사고한 것이다. 홍만조의 행위를 통상적인 당파성과 차별화함으로써 김창흡은 자신의 복수

73) 『숙종실록』 숙종 15년 1월 14일 기사 참조.

74) 유위환이 상소문에서 공격한 신하는 바로 당시의 영의정 김수홍이었다. 유위환의 상소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김창흡이 김수홍의 묘지명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金昌翕, 「仲父退憂先生墓誌銘」, 『三淵集』 권28, 한국문집총간 166, 30~31면.

75) 『숙종실록』 숙종 14년 11월 6일 을해 기사; 15년 1월 9일 정축 기사 참조.

76) 지두환, 앞의 책, 27~34면 참조.

심을 끌어내 정당화하게 된다. 복수심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김창흡은 다시 ‘피아’(彼我)의 시각에 입각하여 저쪽이 한 행동은 관례적 당쟁보다 더욱 심하며 우리쪽이 피해 공동체로서 당한 당화의 참혹함, 억울함, 분노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렇듯 김창흡은 운운한 설을 둘러싸고 ‘공사’와 ‘피아’의 시각에서 홍만조의 행위를 통상적 당파성과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의 복수심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홍만조가 당쟁에 참여한 것은 명목에 얽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김창협의를 태도를 조사와 실정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김창흡의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어서 ‘용서’와 ‘이치’의 관계에 입각하여 김창협의를 입장을 비판하였다.

김창흡에 의하면 김창협이 주장한 이치와 맞지 않는 용서는 타당하지 않다. 친형제인 자기 자신이 홍만조가 했던 일을 했을 경우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그저 혈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용서해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이치와 맞지 않는 용서에만 힘쓴다면 원수로 삼을 만한 자가 드물 것이다. 그리고 충(忠)에 근본하지 않고 용서에만 치우치는 것은 곧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처지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용서의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서 원리에 의하면 당화를 당한 장동김문 구성원들이 복수를 하려는 정당성도 절로 사라질 것이다. 자신의 복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창흡은 이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용서에만 치우치는 김창협협의 타협적 태도가 온당함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흡은 ‘조사’와 ‘실정’, ‘용서’와 ‘이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김창협협의 입장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복수심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창흡은 홍만조의 정체를 규정하였다. 즉 홍만조는 우리 편 사람이 아닌 적의 편 사람이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명백히 적의 편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김창흡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동지와 적의 구별이 이 글의 처음에서부터 등장하면서 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축조하고 있다. 그

런데 김창흡의 설득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설을 빌려 이같은 대수롭지 않은 비유를 했는데도 이와 같으니, 하물며 오늘날 저쪽이 한 바는 어떻습니까? 우리쪽이 당한 바는 또한 어떻습니까? 범범하게 동서(東西)에 항상 있는 일로 여겨 물아(物我)를 평등하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명목에 얽혀 당과의 모략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하셨다면, 모의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에는 올 빼미가 되고 우리에게는 물여우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 속내입니다. 길은 하나의 길인데 본말이 마음의 자취와 하나로 꿰어지니,<sup>77)</sup> 장차 무엇으로 한계의 구분을 절단하여 그 사람을 깨끗한 경지에 둘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그가 겉으로 직접적으로 일에 관여하지 않은 척한 모습에 속아서, 모략에 관련된 초기에 그의 마음을 주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법조문을 왜곡하여 사람에게 죄를 주어 형세의 변동에 따라 잘 대응하는 것과는 상관 없으니, 그 일은 진실로 중간인 미지근한 것이 없이 분별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sup>78)</sup>

귀에 들린 바가 처음에는 그래도 애매한 풀이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위한의 상소문을 논한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열여덟아홉을 차지했는데도, 아직 결단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화변을 당한 이래로, 그가 주선한 생색을 드러낸 것을 보기도 했고, 또한 맹세한 말이 있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면서 엿보아 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윽고 그가 서쪽으로 출발한 날에 현적(玄賊: 이현일)과 서로 무릎을 맞대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고, 의주(義州)에 있었을 때 심적(沈賊: 심계량)과 통관(通款)한 것도 이미 스스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종말을 가지고 시초를 돌이켜보면 점점 믿게 되지만, 말을 가지고 파악하고 행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미 배반한 것입니다. 예전에 의심스러

77) 원문은 “塗轍則一箇塗轍”이다. ‘도철’은 수레바퀴 자국에 따라 행하는 길이라는 의미로, 인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나 자식의 효도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그 이치가 갖춰져 있는 도리나 법칙 혹은 규범을 비유한다.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1 「도체」(道體)에 나오는 말이다.

78) 원문은 “實無溫吞煖處”이다. ‘온’과 ‘난’은 모두 크게 뜨겁지 않고 약간 따뜻한 것으로, 크게 구별되지 않음을 비유한다. 『심경부주』(心經附註) 권4 「계명이기장」(鷄鳴而起章)에 나오는 말이다. 상채사씨(上蔡謝氏)가 이(利)와 선(善)의 중간에 대해 묻자 주희가 “냉수가 아니면 열탕이어서 그 중간인 미지근한 것은 없다”(不是冷水, 便是熱湯, 無那中間溫吞煖處也)라고 답했다. 여기서 홍만조가 배신한 일이 이미 분명하다고 지적한 듯하다.

왔던 것들이 더욱 확실해지고 예전에 혹 애매하다고 여겼던 것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홍형은 아마도 그저 역적 쪽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혹시 주모자(主謀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의 얼굴을 마주해서는 안 될뿐더러 우리와 불공대천의 원수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sup>79)</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두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김창흡은 현실적 차원에 입각하여 홍만조가 적의 편 사람임을 단단히 입증함으로써 김창협을 설득했다. 김창흡은 저쪽이 한 것과 자기쪽이 당한 것을 들면서 물아(物我)를 평등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피한 일의 속내는 공적으로 나라에 올빼미가 되고 사적으로 우리에게 물여우가 되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이것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시비분별을 명확히 하려는 김창흡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그동안 상대방에 대해 실행해왔던 ‘옛보기’ 대응 전략을 통해서이다.

처음에는 관련 정보를 들었지만 애매한 꼴이어서 겉으로 내보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를 이미 입수했으니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의심의 마음은 1689년 초 그가 유위한의 상소문을 논한 일에서 열에 여덟아홉을 차지한 것으로, 홍만조가 남인 세력과 결탁했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다. 기사년(1689) 화변 이래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김창흡은 그를 엿보고 관찰하며 틈을 노렸다.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1696년 홍만조의 청나라 사행이다. 김창흡은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홍만조가

79) 金昌翁, 앞의 글, 475~476면. “假說而言之, 爲此歇後之喻而猶且如此, 況今日彼之所涉, 如何如何? 吾之所丁, 亦如何如何? 而汎然以東西之常勢, 作此物我之平觀乎? 夫既曰名目所纏, 不容崖異於黨謀, 則謀中之事非他, 爲梟於國, 爲蠹於我, 乃其蘊也. 塗轍則一箇塗轍, 本末與心跡串焉, 將何以截斷其界分, 而置其人於乾淨乎? 抑豈可見欺其外面隔手之形, 而不誅其心於涉謀之初乎? 此非關文致而曲成之也, 其事實無溫吞煖處故也. 惟其所落耳者, 初猶涉於曖昧, 故含忍至今. 然於其論柳疏一事, 疑居八九, 而未有以決焉. 禍變以來, 見其效周旋之色焉, 亦有矢言可按而復焉, 故所以遲徊而伺之也. 俄而其西行之日, 與玄賊接膝, 人有言之者. 及其在灣, 與沈賊通款, 已自分明招認. 執終而反始, 而漸孚焉; 握言而準跡, 而已背焉. 向之涉於曖昧者, 益以堅焉; 向之謂或曖昧者, 益以露焉. 洪兄恐不翹賊一邊之人, 而或者其主謀也. 恐不但不可相面, 而殆不共戴天者也.”



남인계열 인물 이현일(李玄逸, 1627~1704), 심계량 등과 교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홍만조도 스스로 인정했다. 홍만조가 남인과 결탁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이제 사실로 확정되었다.

이렇듯 김창흡은 정보 입수 단계, 의심 단계, 관찰 단계, 확신 단계를 거쳐 엿보기 전략을 실행했다. 이로써 홍만조가 남인 세력과 결탁했다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었다. 김창흡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엿보기 전략을 실행한 까닭은 홍만조가 가문 내부의 배신자였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식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법이니 조심스럽게 엿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확정하자 김창흡은 바로 홍만조를 적의 편 사람이라고 단호히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앞 단락에 이어 동지와 적의 구별이 두 번째로 등장한다. 이제 김창흡의 이러한 구별은 더욱 명확해지고 확고해진다. 홍만조가 부친 김수항을 죽인 일을 피한 주모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김창흡이 홍만조를 그저 단순히 ‘적의 편 사람’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구대천의 원수’로까지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홍만조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려는 김창협 의 태도와 확연히 다르다. 김창협을 설득하기 위해 김창흡은 홍만조가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어 김창흡은 다시 ‘당화 피해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앞서 논한 사실을 뒷받침하면서 김창협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대저 귀신과 물여우의 은밀한 실정은 그 정장(正贓)을 쉽사리 발견할 수 없는데, 원한을 품고 원망을 참으면서 그와 더불어 한평생 지내는 것 역시 사람의 이치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의거하여 그를 대하는 방법을 논하면, 확실하게 잡아서 그의 죄를 성토했을 수 있는 것은 심적을 접대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의리를 내세워 절교를 선언할까요? 아니면 먼저 그에게 냉담한 얼굴을 보여 후일에 손발을 모두 드러내기를 기다린 뒤에 대처할까요?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은밀하게 하든 노골적으로 드러내든 간에 요컨대 구차히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어찌 이를 처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끝내 곡진히 용서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기 쉬우니, 처하기 어려울 때마다 구차히 지내려

는 마음이 이기면 조사해서 밝힐 때가 되어도 하지 않고, 비록 밝히더라도 끝까지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미한 것을 점검하여 터럭만큼이라도 옳음에 가까우면, 어찌 두려운 마음이 솟구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은 바에 즉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다 용서해줄 수 없는 정상(情狀)이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핑계 대어 이전에 범한 적이 없다고 확실히 말해놓고 그가 뒤에서 처신한 방도를 보면, 예전 그대로 왕래하는 자가 모두 우리가 불공대천하는 사람이니, 그렇다면 **홍형은 도리어 적의 편 사람이고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앞에서는 물뚝이 없고 뒤에서는 잘 대처해야 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진퇴, 반복하여 근본을 지극히 하고 곡진함을 다해서 더 이상 궁구할 여지가 없는 단안(斷案)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관대한 주장은 본디 순조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일반 사람에게나 마땅한 일이니, 우리 같이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먼 사람은<sup>80)</sup> 마음가짐이 자별(自別)해야 합니다. 진실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연 의심할 만한 쪽이어서 마땅히 사절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사이에 있는 자라면, 아마도 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것<sup>81)</sup>과 반대로 하는 것을 율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서 유추해보면 차라리 각박할지언정 범범하게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고, 차라리 편협할지언정 관대하게 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고, 차라리 사나울지언정 약하게 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굳건히 세우고 이런 주장을 견지하면 혹 모두

80) 원문은 “日暮塗遠”이다.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초 평왕(楚平王)이 무고하게 자신의 부친과 형을 죽이자, 오자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 오(吳)나라로 망명하였다. 오자서는 재상이 되어 초나라를 정벌하고 초 평왕의 묘를 파헤쳐 그 시체에 3백 개의 곤장을 가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마구 저질렀는데, 벗 신포서(申包胥)가 사람을 보내 이를 비난하자, “나는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한 처지이니, 내가 이러한 이유로 거꾸로 가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행하는 것이다”(吾日莫途遠, 吾故倒行而逆施之)라고 하였다. 이 표현에서 부친을 위해 복수하려는 김창흡의 급한 마음이 드러난다. 司馬遷, 「伍子胥列傳」, 『史記』 권66 참조.

81) 원문은 “罪疑惟輕”이다.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중한 쪽으로 상을 준다”(罪疑惟輕, 功疑惟重)라고 하였다. 김창흡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안에서는 『서경』의 말과는 반대로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오히려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르지 않고 편중되겠지만, 실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의리<sup>82)</sup>에 맞습니다.<sup>83)</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김창흡은 홍만조가 그동안 은밀히 숨어 있던 남인과 결탁했던 사실을 확정했다. 그를 배신자로 규정한 김창흡은 먼저 원한을 품고 원망을 참으면서 홍만조와 함께 한평생 지내는 것을 사람의 이치에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홍만조를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은밀하게 하든 노골적으로 드러내든 간에 요컨대 구차히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통해 홍만조를 적으로 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라고 강조하는 김창흡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김창흡은 사람의 마음에 입각하여 잘 판단하면 홍만조가 적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 판단이 흔들리거나 실수하는 것만 염려하여 용서해주려고만 하는 김창흡의 입장을 완곡하게 비판하였다. 김창흡이 보기에 판단의 근거는 이미 다 뚜렷이 나와 있었으므로, 홍만조가 남인과 결탁했다는 확정된 사실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함으로써 홍만조가 적의 편 사람임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동지와 적의 구별이 세 번째로

82) 원문은 “不反兵之義”이다. 부모의 원수와 싸운다는 뜻이다. 자하(子夏)가 공자에게 부모의 원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가 “거적을 깔고 방패를 베개 삼아 자며 벼슬하지 않고 더불어 천하를 함께하지 않으며, 시장과 조정에서 만나면 병기(兵器)를 가지러 되돌아가지 않고 싸운다”(寢苫枕干, 不仕, 弗與共天下也. 遇諸市朝, 不反兵而鬪)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 上 참조.

83) 金昌翁, 앞의 글, 476면. “夫其鬼蜮之隱情, 未易發其正賊, 而含冤忍怨, 與之終年, 亦人理之所不堪也. 據今而論其待之之道, 則可執而聲罪者, 接沈一事也. 輒以此引義而告絕耶? 抑且先示以冷薄顏面, 待日後畢露其手足而處之耶? 緩急含露之間, 要之不可以苟爲放置則決矣. 然豈可以其處斷之難, 而終思所以曲恕乎? 人心易弱, 每於難處而因仍之意勝, 當覈而不覈, 雖覈而不欲究者有矣. 點檢隱微, 一毫近是, 則豈非相與惕然處乎? 且就其所聞者, 以爲實有, 而其不可恕之狀如右. 借曰保無前犯, 而觀其處後之道, 所與依舊追逐, 皆吾不可以共天者, 則洪兄却又是賊一邊之人也, 不可相面之人也. 必也無染於前, 而善處乎後, 方可免此耳. 此實進退反復, 極本致曲, 究竟無餘之斷案也. 且和平寬大之論, 自是平人處順境者事宜. 如我等日暮塗遠之人, 處心自別. 固不可致怨於無所交涉之人, 而其果涉於可疑, 在當絕不絕之間者, 則恐當以罪疑惟輕之道相反而定律. 推之於此類, 寧刻而毋失之汎, 寧隘而毋失之寬, 寧悍而毋失之弱. 以此建意, 以此持說, 或者都均乎不均不中, 而實中其於不反兵之義.”

등장한다. 이제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김창흡의 인식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이는 “도리어”, “더 이상 궁구할 여지가 없는 단안”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흡은 홍만조가 동지가 아닌 적이라는 점을 이미 굳게 확정했다. 그렇다면 적에 대한 김창흡의 태도는 무엇인가? 김창흡은 당화 피해 공동체의 차원에서 적에 대한 비타협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日暮塗遠)는 표현을 통해 자신들이 부친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복수하려는 김창흡의 급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창흡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好生之德)으로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한다”(罪疑惟輕)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것”(罪疑惟重)이다. 이러한 원칙을 세운 까닭은 현재 자신들이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김창흡은 복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각박하고 편협하고 사납게 행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각박하고 편협하고 사납게 대하는 대상은 바로 적 홍만조이다. 이 각박함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적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격성, 비타협적 태도이다. 이는 부친의 원수와 싸운다는 “불반병”(不反兵)의 뜻과 부합한다. 이렇게 김창흡은 당화 피해 공동체의 차원에서 홍만조를 용서해주지 말고 적으로 대하자고 김창협을 설득하였다.

이상 김창협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하였다. 이 편지의 핵심은 장동김문구성원들이 고종사촌 홍만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홍만조가 자기 편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해주려는 김창협의 입장과 달리 김창흡은 홍만조를 적으로 취급하여 그에 대해 강경한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줬다. 김창흡은 홍만조가 ‘자기 편 사람’인가 ‘적의 편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춰 홍만조가 동지가 아닌 적이라고 논증함으로써 증씨 김창협을 설득하려 하였다. 먼저 김창흡은 운운한 설을 둘러싸고 ‘공사’, ‘피아’의 시각에서 홍만조의 행위를 통상적 당파성과 차별화함으로써 자

신이 지닌 복수심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이어 김창흡은 ‘용서’와 ‘이치’의 관계에 입각하여 자신의 복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용서에만 치우치는 김창협이 타협적 태도가 온당함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동지와 적의 구별이 처음으로 작동한다. 다음으로 다시 현실적 차원, 당화 피해 공동체의 차원에서 홍만조가 적의 편 사람이라고 확고하게 입증함으로써 김창협을 설득했다.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인식도 그 과정에서 점차 확고해진다. 홍만조를 적이라고 확정한 뒤 김창흡은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격성을 바로 드러냈다.

이 시기에 김창흡은 다른 산문 장르를 통해서도 사물을 빌려 이치를 밝히는 방식으로 남인에 대한 원한과 남인을 용서한 소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그 글은 바로 1698년 무렵 창작된 「경을 죽인 설」(殪獍說)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에서 이 글을 통해 남인과 소론에 대한 김창흡의 원한과 원망을 분석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제목부터 살펴보자.

‘에경’은 경을 죽인다는 뜻이다. 경은 아버지를 잡아먹는 호랑이류의 짐승이다. 어미를 잡아먹는 올빼미류의 짐승인 효(梟)와 함께 흉악해서 인륜을 저버린 반역(反逆)하는 악인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두 동물은 문학 작품에서 늘 ‘효경’(梟獍)이라는 식으로 등장한다. 물론 이들은 다 상상의 동물이다. 『삼연집』 원집이나 습유에는 ‘효경’, ‘효’, ‘경’이라는 말이 두 글에만 나온다. 하나는 「이덕수에게 보내다」(與李德壽)이고, 다른 하나는 「경을 죽인 설」이다. 「이덕수에게 보내다」에는 ‘효경’이 윤휴(尹鑄) 남인 일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sup>84)</sup> 또한 앞서 살펴본 「중씨에게 보내다」라는 편지에서도 남인 무리를 ‘효’라고 불렀다. 그리고 윤

84) 金昌翁, 「與李德壽」, 『三淵集』 권22, 한국문집총간 165, 470면. “於是王霸並用之說, 猛起於尼山, 而行僞順非之詆, 奮末於西溪. 信乎其伺時闖發, 果自有日, 而蜿蜿百怪物態可見. 而尤翁則只一箇尤翁而已. 惡如少正卯而後, 可伏君子之誅; 聖如孔仲尼而後, 可行兩觀之討. 尤翁之有罪無罪, 所被害者, 豈非鑄黨梟獍輩歟? 徒急於攻尤翁, 而不知其鑄黨梟獍輩之不可爲仲尼. 豈所謂逐鹿而不見泰山者耶? 尤翁之爲少正卯, 誠亦少事, 而以仲尼而降同於鑄黨梟獍輩, 嗚呼其殆矣.”

휴와 허목(許穆, 1595~1682)을 비롯한 남인 세력을 효경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송시열의 시에도 보인다.<sup>85)</sup>

노론 세력이 남인을 ‘효경’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이덕수에게 보내다」에서 김창흡이 윤희를 ‘효경’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중씨에게 보내다」에서 남인 무리를 ‘효’라고 불렀다는 사실로 짐작하면 「경을 죽인 설」에 나온 ‘경’은 남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을 죽인다는 뜻의 ‘에경’은 남인을 제거하려는 김창흡의 의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의 장르는 ‘설’(說)이다. 설은 기본적으로 ‘설리’(說理)를 목적으로 하는 장르이다.<sup>86)</sup>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문인이 ‘설’ 창작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김창흡이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불구대천의 원수 남인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을 통해 그들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을 가능성 역시 높다.

다음으로 이 글의 창작 연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고는 이 글이 1698년 무렵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경을 죽인 설」에 드러난 남인을 제거하려는 김창흡의 마음, 「경을 죽인 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어떤 자가 ‘그들을 어찌 모두 잡아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흥역한 자와 같이함이 심한 것이다”<sup>87)</sup>라는 서술을 통해 유추할 수

---

85) 宋時烈, 「次朴和叔所寄十二篇 其七」, 『宋子大全』 권1, 한국문집총간 108, 101면. “陽川鑿善流, 氣勢終難降. 帶方助桀虐, 天倫相擊撞. 戾氣終有鍾, 梟獍生其腔. 朋姦濟其世, 蔑貞凶于邦. 其禍已滔天, 浩浩吞濤江.” ‘양천’(陽川)은 허목의 본관으로 허목의 선조 허자(許磁)를 가리키고, ‘대방’(帶方)은 남원(南原)의 고호로 남원 윤씨의 윤희의 부친 윤희전(尹孝全)을 가리킨다. 여기서 ‘효경’이라는 말은 허자와 윤희전의 후손인 허목과 윤희를 가리킨다. 송시열 지음, 양기정 옮김, 『송자대전』 권1, 『송자대전』 1,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9, 147면 참조.

86) 송혁기, 「한문산문 ‘설’ 體式의 문학성 재고-17·8세기 작품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4~236면 참조. 송혁기는 이 논문에서 설을 산문 ‘체식’이라고 규정하였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장르’라고 부르기로 한다.

87) 金昌翁, 「殘獍說」, 『三淵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65, 516면. “有謂彼其獸狡捷難捕, 捕之或反噬, 且焉得以盡誅之? 此與於凶逆之甚者也.”

있다. “어찌 모두 잡아 죽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잘 활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흉역한 자와 같이함이 심한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자”가 “흉역한 자”와 같은 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탕평책을 주장하여 남인을 서용하려는 소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경을 죽인 설」에 나온 ‘어떤 자’는 최석정을 비롯한 소론을 가리키는 말로, ‘흉역한 자’는 남인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숙종 24년(1698) 1월 19일에 탕평 비망기가 내려진 이후 탕평 정책은 대체로 이 비망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sup>88)</sup> 그만큼 1698년 초 반포된 탕평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탕평 정책을 크게 옹호한 사람이 최석정을 비롯한 소론들이다. 붕당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남인을 서인과 함께 등용하는 탕평 정책을 주장한 최석정은 1698년 초에 기사환국 당시 김수항을 사사하는 상소에 참여한 남인 오시복을 서용할 것을 청하였다.<sup>89)</sup> 이것은 장동김문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sup>90)</sup> 그런데 탕평 정책은 숙종이 지지한 것인 만큼 장동김문을 비롯한 노론 세력이 크게 반박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현실에 직면했던 김창흡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소론이 남인을 서용하려 한 당시의 정치적 현실이 반영된 「경을 죽인 설」의 창작 연도를 1698년 무렵으로 추정한다.

이상으로 본고가 「경을 죽인 설」을 남인과 소론에 대한 김창흡의 원한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경’을 남인으로 해석한다는 전제와 가설 아래 「경을 죽인 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sup>91)</sup>

---

88) “문벌만 쓰는 용인(用人)과 일진일퇴(一進一退)의 정국을 부정하는 한편 명의(名義)에 관계된 자를 제외한 인물들은 보합(保合)하겠다”는 것이 비망기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31면; 『숙종실록』 숙종 24년 1월 19일 을미 기사 참조.

89) 『숙종실록』 숙종 24년 4월 18일 임술 기사 참조.

90) 제3장 제3절 “정치적 행보” 부분 참조.

91) 선행 연구에서는 이 글이 당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내가 밖에서 돌아오니 뜰에 무언가 걸려 있었다. 누가 잡았느냐고 물었더니, 노비 거금(擧金)이 곁에서 대답하였다.

“소인이 골짜기에서 띠풀을 베고 있는데 때마침 이 짐승이 틈을 타서 내려오기에 저는 정면으로 맞아 그들을 쳐서 하나를 죽였습니다. 청컨대 다른 날에 모두 죽이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낮빛이 변하여, 경의 가족으로 다가가 그 위에 앉고 집안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놈이 이른바 경(獍)이다. 경은 효(梟: 올빼미)와 마찬가지로 악한 짐승이다. 효는 어미를 잡아먹고 경은 아버지를 잡아먹으며, 효는 낮에 숨었다가 밤에 돌아다니고 경은 밤낮으로 돌아다니니, 모두 흉한 기운이 모인 것이요 천도(天道)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다.”<sup>92)</sup>

위 인용문은 글의 첫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첫째는 악한 동물인 ‘경’을 잡은 주체가 다름아닌 거금(擧金)이라는 노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비 거금이 ‘경’을 하나만 잡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체를 섬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며, 셋째는 김창흡이 가족들에게 ‘경’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노비를 경을 잡은 주체로 설정한 것은, 하층민 노비의 주체성에 대한 노론 측의 인식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듯하다. ‘경’ 전체를 섬멸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천리에 악조인 ‘경’, 즉 남인이 존재해서는 안될 당위성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가족들에게 경에 대해 설명한 것은 악인인 남인이 도덕 규칙의 근거인 천리에 용납되지 않는 존재임을 한층 더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의도는 앞에서 분석한, 가문 내에서 적에 대한 공격성과 복수심을 환기하면서 내부 단속을 한 김

---

있으며 천리를 어그러뜨리는 무리들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안득용, 「김창흡의 설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글쓰기」, 『어문논총』 59집, 민족어문학회, 2009, 206~211면 참조.

92) 金昌翁, 앞의 글, 516면. “余自外歸, 則庭有懸焉. 問誰獲焉, 則奴擧金從傍對曰: ‘小人刈茅於谷, 適是獸乘至, 迎而擊之, 殪其一, 請待他日盡劉之.’ 余聞之色動, 卽其皮而坐之, 顧謂家人曰: ‘是所謂獍也. 與梟齊惡, 梟食母, 獍食父. 梟晝伏夜行, 獍晝夜行. 是皆凶沴所鍾, 而天理之所不宜有者也.’”



창흡의 태도와 상응한다.

남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횡행하고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 김창흡은 그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그들을 처벌할 방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는 일찍이 건도(乾道)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性命)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한 적이 있다. 무릇 건도는 순수하고 지선(至善)한 것이 거늘 화육(化育)하는 것으로 말하면 뱀과 전갈을 낳고 호랑이와 표범을 기르는데, 도리어 부족하다고 여겨 또 효와 경을 낳는다. 효와 경은 그의 적을 해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비어미도 해치니, 어찌 하루라도 있을 수 있게 해서야 되겠는가? 천도가 지극히 어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만둘 수 없는가? 나는 이에 대해 유감이 있다.

그러나 황제(黃帝)가 임금이 되어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다 경의 고기를 썼다고 하니, 천하에서 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황제의 마음이 하늘보다 더욱 어진 것이다. 아니면 하늘의 처음 뜻은 생생(生生)을 위주로 하여, 고동하고 마찰하고 분탕하고 알력하여, 풀무질이 그치지 않아 유기(游氣)가 분유(紛糶)될 때부터 모르는 사이에 선과 악을 뒤섞어서 아울러 태어나게 했는데, 이윽고 그 대처하기 어려움을 걱정하여 번번이 정돈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군주와 사목(司牧)에게 넘겨 그들로 하여금 변통하여 처리하게 한 것이다. 황제가 천지의 조화를 알아서 계술(繼述)하는 일을 잘 하려 하는데 힘으로는 화육의 근원을 통째로 발본하여 깨끗이 씻을 수가 없었으므로 이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것을 도륙하는 법은 만세에 혁연하게 드러났다. 순임금이 익(益)을 시켜 산과 못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게 하고 주공이 맹수를 몰아냈으니 그들은 이로 말마암아 특별히 드러난 것이다. 이 의리가 강구되지 않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다. 그 때문에 흉하고 독을 끼치는 무리가 이처럼 세상에 횡행하여 그 자손을 기르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했다. 이에 그물, 잔그물, 칼날, 몽둥이가 도리어 기린과 봉황에 미치게 되었으니 아야, 어찌 이다지도 어긋났단 말인가?<sup>93)</sup>

93) 金昌翁, 앞의 글, 516면. “余嘗有疑於‘乾道變化, 各正性命’矣. 夫以其純粹至善, 而及至所化育也, 蛇蝎產焉, 虎豹育焉. 猶以爲不足, 又生梟與獍也. 害其敵以及其父母, 胡可使一日有也? 天道至仁, 是亦不可以已乎? 余於是乎有憾. 然聞黃帝之爲君也, 山川祀事, 盡用此肉, 要以絕種於天下. 是其爲心, 殆賢於天矣?”

위 인용문은 글의 두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김창흡은 자연철학적 관점에서 ‘악’을 설명하기에 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악한 존재도 하늘의 운행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그들도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악한 존재를 제거하는 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김창흡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김창흡의 해결책은 바로 천리, 의리로 선악을 판별해서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악은 선과 더불어 생기지만, 악을 제거하는 것이 자고로 천리, 의리에 맞는 행동이다. 즉 선악 판별의 기준은 늘 천리에 있다. 경을 죽이는 것은 곧 남인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천리에 맞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천리가 다스려지지 않은 지 오래 됐다. 이 때문에 흉하고 독을 끼치는 무리가 세상에 횡행하여 그 자손을 기르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결과 선한 기린과 봉황이 다 치게 되었다. 여기서 흉한 무리와 자손들은 역시 남인과 남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고 선한 기린과 봉황은 장동김문을 비롯한 노론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을 막지 못한 까닭은 남인까지 서용하려는 보합적인 탕평 정책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친을 위해 복수하기는 커녕 남인들이 정국에 다시 나아가는 것도 막지 못하게 된 것이다.

거금은 노비 가운데 가장 어리석다. 어리석기에 천진에 가까워 죽일 만한 놈을 죽일 줄을 안다. 애초에 기교(機巧)로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황제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어떤 자가 “그 짐승이 교활하여 잡기가 힘든데, 잡히더라도 도리어 주인을 물 수 있으니 어찌 모두 잡아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흉악한 자와 같이함이 심한 것이다. 이에 황제(黃帝)의 명으로 거금에게 한 잔 술을 시상하노라.<sup>94)</sup>

---

抑天之初意，主於生生，鼓摩蕩軋，自其橐籥難住，游氣之所紛糅，不覺混善惡而并生焉？既而患其難處也，輒以整領之權，畀諸君牧，使之區處。黃帝知化，圖所以善繼述，而力不能學化源而洗發也，於是不得已於斯舉。然其誅惡之法，萬世赫然。舜之烈山澤，周公之驅猛獸，由此其選也。此義不講，今則久矣。凶毒如此類縱橫於世，卵育其子孫，而莫之禁焉。羅罟刃挺則反及於麟鳳，嗚呼！何其戾也。”

위 인용문은 글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어리석은 거금이 경을 죽인 행동과 어떤 자의 말을 대비함으로써 선악과 시비의 구분을 견지하는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남인을 용서하고 서용해주는 소론을 비판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노비를 경을 잡은 주체로 설정한다는 것은 노비의 주체성에 대한 노론 측의 인식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 부분에는 그런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거금은 노비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존재다. 이 때문에 오히려 ‘천진’(天真)을 잘 안다. 그러므로 꾸밈 없이 순진하고 자연 그대로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천리를 따라 선악과 시비를 판단할 줄 알며, 죽여야 할 놈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금은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인물이 되고 도덕적인 주체가 된다. 이는 조선후기 노론 측에서 주장하는 ‘어리석은 노비도 의리를 안다’라는 논리와 일치한다.<sup>95)</sup> 즉 김창흡은 노론의 논리로 반대 정파인 남인과 소론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죽여야 할 놈’은 역시 남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어떤 자’는 바로 소론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떤 자가 그렇게 말한 목적은 경을 죽이지 말고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인재를 등용하는 취지에서 남인을 서용하자는 소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어떤 자의 발언에 대해 김창흡은 흥역한 자와 매우 가깝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경을 죽인 설」을 당시의 정치적 현실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경을 죽이는 것이 천리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는 김창흡의 의도는 남인을 제거하는 것이 천리에 맞다는 것이다. 경을 죽이는 것을 반대한 어떤 자를 비판한 것은 남인 등용을 주장하는 최석정을 비롯한 소론을 비판한 것이다. 넓게 보면, 김창흡은 「경을 죽인 설」을 통

94) 金昌翁, 앞의 글, 516면. “擧金在奴輩, 最愚駭. 愚乃近眞, 故知可殺而殺之. 初不以機巧設心, 所以得黃帝之心. 有謂彼其獸狡捷難捕, 捕之或反噬, 且焉得以盡誅之? 此與於凶逆之甚者也. 於是以黃帝命, 賞擧金一大白.”

95) 조하늘, 「조선후기 하층민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40~79면 참조.

해 남인을 제거하고 소론을 비판하는 시비구분론을 강조하는 노론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좁게 보면, 부친을 죽인 남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막은 최석정 등 소론은 남인의 공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작품은 남인과 소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잘 밝혔다고 평가할 만하다.<sup>96)</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문 수호자로서의 김창흡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원한이라는 강렬한 감정적 차원과 실존적 체험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창흡은 장동김문을 하나 생사 공동체로 생각했는데, 가문 내부의 분열 조짐을 감지하자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고 가문을 지키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숙종 대의 복잡한 당쟁으로 인해 더욱 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창흡이 이렇게 강렬하게 가문의 결속을 강조한 내적 동기는 바로 두 번의 정치적 사건으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남인에 대한 원한과 부친을 죽인 공범인 소론에 대한 원망이라는 강렬한 원초적 감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친 김수항의 죽음을 김창흡이 장동김문이라는 한 가문의 차원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노론이라는 한 당파의 차원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갑술환국 뒤 노론이 어느 정도 다시 권력을 잡은 뒤에 김창흡은 부친을 위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다졌다. 김창흡은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지와 적의 구별을 뚜렷이 함으로써, 적을 대하는 자신의 강경한 비타협적 입장과 적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격성을 드러냈다.

‘원한’과 ‘복수심’이라는 감정은 김창흡이 복잡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

96) 후대에 가서 김창흡의 「경을 죽인 설」은 다른 노론 인물에게 영향을 끼친 듯하다. 노론사대신 중의 한 명인 조태채(趙泰采, 1660~1722)의 아들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은 1752년경 「악조를 죽인 설」(殪惡鳥說)을 지은 바 있다. 제목, 서술 내용, 그리고 논리 구조를 비교해보면 「경을 죽인 설」과 매우 비슷하다. 이처럼 김창흡의 산문은 후대에 끼친 영향이 크다. 참고로 조관빈의 아들 조영경(趙榮慶)은 김화행(金和行)의 딸과 혼인했는데, 김화행은 김양겸의 셋째 아들로 김창흡의 손자이다. 그리고 조관빈의 아우 조겸빈(趙謙彬)은 민계수(閔啓洙)의 딸과 혼인했는데, 민계수의 딸은 바로 김창집의 외손녀이다. 이렇게 해서 양주조씨 조관빈 집안은 장동김씨 집안과 밀접한 혼족관계를 맺은 것이다. 趙觀彬, 「殪惡鳥說」, 『悔軒集』 권15, 한국문집총간 211, 457면.

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가문을 지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원한’과 ‘복수심’은 대단히 강렬한 감정으로 양면성을 갖는다. 그것은 반대정파와의 대립 속에서 동지와 적을 구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지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외부로 향하는 공격성이 자기 자신에게 회귀하여 행위 주체를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높다. 그리고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한이라는 강렬한 감정은 적에 대한 공격성과 동지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보편화하고 확장하는 길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원한이라는 원초적 감정이 과연 김창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한이라는 감정이 김창흡의 작품 세계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주되는지, 김창흡이 어떻게 원한이라는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획득했는지, 그런 성과 속에도 원한이라는 감정에 대응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김창흡의 원한과 관련된 글들을 분석한 뒤에 이어지는 탐구 과제로 제기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의 차원에 대해 좀 더 성찰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영역, ‘사상’의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개방적인 정통주의 모색

조선은 기본적으로 사대부 사회이고 유교 사회다. 조선 사대부는 역성혁명 과정에서부터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하여 사상 투쟁을 전개한 바 있거니와, 이와 같이 정치와 사상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것이 정치적 대립을 사상적·이념적 시비의 문제로 귀결시켜 타협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당쟁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조 사대부 정치에서 사상의 정치성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다. 조선 중기 중종 때 조선의 유교화가 심화된 뒤<sup>1)</sup> 임병양란을 통과하여 숙종 대에 이르면 주자학이 절대화되면서 사상적으로 경직되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창흡은 노론 지배 엘리트로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번 장에서는 ‘정치사적 맥락’의 세 번째 층위, 즉 정치사와 당쟁사의 기저부를 형성하는 ‘사상적 지향’이라는 시각에서 김창흡의 사상적 모색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주자학 중심의 ‘총관융회’(摠貫融會)

김창흡은 1722년 2월 죽기 직전에 손가락을 꼬으며 김신겸에게 말하기를 “유가, 불가, 도가를 총괄하여 융회관통한 것으로 말하면 아마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로(門路)에 대해 너무 어름어름하여 ‘亥’와 ‘豕’를 혼동하는 것,<sup>2)</sup> ‘餌’와 ‘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sup>3)</sup>과 같은 점이 있다”라고 했고, 또 “『주역』, 『장자』, 『화엄경』

1) 계승범, 『중종의 시대』, 고양: 역시비평사, 2014, 264면 참조.

2) ‘해’와 ‘시’의 글자 모양이 비슷한 데서 나온 말로, 서책을 간행하거나 베껴 쓰는 가운데 비슷한 글자를 구분하지 못해 오자가 생기는 것을 이른다. 『역씨춘추』(呂氏春秋) 「찰전」(察傳) 참조.

3) ‘이’와 ‘병’을 구분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와 ‘병’은 모두 떡 종류의 음식인데,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다. 안사고(顔師古)가 주석을 단 『급구편』(急救篇)의 ‘餅餌麥飯甘豆羹’ 부분에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찐 것을 ‘병’(餅)이라고 한다. ‘병’은 ‘병’(并)이라는 뜻이니 서로 합친다는 것이다.

공부는 터득한 바가 역시 적지 않다”<sup>4)</sup>라고 했다. 이는 자신의 학문에 대한 만년 김창흡의 총평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창흡은 유불도를 ‘총관융회’했다고 자부했다. 그렇다면 김창흡에게 유불도는 동등한 비중을 갖고 있었는가? 김창흡을 ‘탈주자학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김창흡은 주자학을 중심에 두고 있는 노론 엘리트이다.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하에는 간단하고 쉬운 이치가 있는데 조목으로 미루지 않으면 어려워 지게 될 것이고, 성인은 명백한 가르침이 있는데 현원(玄遠)함에 치우쳐 구하면 미혹해질 것이며, 학자는 박문(博文)과 약례(約禮)의 순서가 있는데, 단계를 따르지 않으면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자가 만세 사람의 나루가 되는 공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김하서(金河西: 김인후)가 주자를 찬미하여 읊기를, ‘우주에 두 사람이 있으니 / 중니는 원기(元氣)요<sup>5)</sup> 자양은 진수(眞髓)일세’라고 했습니다.<sup>6)</sup> ‘진’이라는 한 글자를 놓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의 방(方)과 원(圓), 횡(橫)과 수(豎)는 모두 자기 위치와 본분으로 돌아가고, 물색(物色) 가운데 흑색

---

쌀가루를 반죽하여 찐 것을 ‘이’(餌)라고 한다. ‘이’는 ‘이’(而)라는 뜻이니 서로 달라붙는다는 것이다”(溲麩而蒸熟之則爲餅, 餅之言并也, 相合并也. 溲米而蒸之則爲餌, 餌之言而也, 相黏而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오례의』에 의하면 정제에서 변(籩)에 담기는 음식 가운데 네 가지 종류의 떡이 있다. 백병(白餅), 흑병, 구이(糗餌), 분자(粉糝)가 그것이다. 그런데 재료 사용 문제를 두고 1717년 6월 21일 제물 논쟁이 크게 벌어졌다. 김창흡은 이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제물 음식 관련 설명은 김해인,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음식문화 연구: 길·가례 음식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70~116면 참조. 제물 논쟁 관련 내용은 『숙종실록』 43년 6월 21일 갑진 기사 참조.

- 4) 金昌翁, 「語錄」, 『三淵集拾遺』 권31, 한국문집총간 167, 290면. “又屈指曰: ‘儒家、道家、佛家揔貫融會, 則恐無過我者. 世人於此等蹊逕甚糊塗, 有如豕餅.’ 又曰: ‘『易』、『莊子』、『華嚴經』工夫, 所得亦自不淺.’”
- 5) 원문은 “仲尼元氣”이다. 『근사록』(近思錄) 권14 「관성현(觀聖賢)에 “중니는 원기이고, 안자는 봄에 만물을 낳는 것이고, 맹자는 가을에 숙살하는 것을 아울러 나타내셨다”(仲尼元氣也, 顏子春生也, 孟子并秋殺盡見)라는 정호(程顥)의 말이 나온다.
- 6) 이 시는 金麟厚, 「示門人」, 『河西全集』 권7, 한국문집총간 33, 152면에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 潛心勿向他岐惑, 慰此摧頹一病身.”

과 백색, 주색과 자주색도 서로 섞이지 않게 됩니다. 만 가지의 헛된 것이 모두 그치고 하나의 참된 것만 가득하게 됩니다. (주자가) 이와 같이 했으니 그를 ‘공자 뒤의 일인자’라고 칭송해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sup>7)</sup>

위 인용문은 1702년 여름에 신유(申愈)에게 답한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이 편지에서 김창흡은 학문하는 방도와 요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였다.<sup>8)</sup> 편지의 앞부분에서 지난 세월 자신이 도가, 불교 문자에 빠지게 된 까닭과 이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뒤, 다시 유학으로 돌아와 유가의 학문을 궁구하게 된 과정을 말했다.<sup>9)</sup> 이어서 주희와 주자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말했는데, 위 인용문이 바로 그 부분이다.

김창흡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문인에게 보여주다」(示門人) 시의 제1~2구를 인용하여 주희를 유가의 창시자 공자와 함께 거론하면서 공자 뒤의 일인자라고 칭송했다.<sup>10)</sup> 주희가 ‘진’(眞: 理)으로 세상의 방(方)과 원(圓), 횡(橫)과 수(豎), 흑(黑)과 백(白), 주(朱)와 자(紫)를 구분함으로써 세상에 헛된 것이 모두 그치고 참된 것만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 자는 ‘하나의 진실’이라는 의미로 시비 판별의 확고하고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김창흡에게 시비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주희이다. 이를 통해 김창흡도 절대주의 사유, 정통주의 사유를 지니고 있는 주자와 주자학을 옹호하는 성리학자라는 것을 확인할

7) 金昌翁, 「答申愈」, 『三淵集』 권18, 한국문집총간 165, 382면. “(…) 仍竊謂天下有簡易之理, 推之不以條段則艱; 聖人有明白之訓, 求之偏於玄遠則迷; 學者有博約之序, 循之不以階級則殆. 夫朱子之爲萬世津梁者功德在此. 善乎! 金河西之贊詠曰: ‘宇宙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 眞之一字, 下得最好. 世界之方圓橫豎, 咸歸位分; 物色之黑白朱紫, 莫相淆混. 萬僞伏息, 一實充塞. 若是而稱之曰: ‘孔子後一人’, 未爲過也.”

8) 제3장 제1절 “칩거기” 부분 참조. 신유와의 교유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지방 문인” 부분 참조.

9) 金昌翁, 앞의 글, 381~382면 참조.

10) 송시열이 김인후를 위해 지은 「신도비명」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유학에 몰두하여 유학의 창시자 공자, 그리고 집대성자 주희를 추대한 김인후의 높은 식견과 지취를 칭찬했다. 宋時烈, 「河西金先生神道碑銘」, 『宋子大全』 권154, 한국문집총간 113, 316면 참조.



수 있다. 같은 시기 이덕수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러한 태도가 보인다.

천하에 업신여겨서는 안 될 사람은 중니(仲尼: 공자)이고 천하에 침범해서는 안 될 사람은 주자입니다. 김하서의 시에 ‘우주에 두 사람이 있으니 / 중니는 원기요 자양은 진수일세’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확실하니 이 평가를 뒤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겨난 이후로 공자와 같은 이가 진실로 있지 않았지만, 주자가 그 지극하고 오묘한 이치를 펼쳐 밝혀 그 은미하고 오묘한 것을 풀어내지 않았더라면, 공자가 공자인 바를 누가 참으로 명쾌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어찌 후세 사람을 깨우치고 도와서 그 문로(門路)를 미혹하지 않도록 하였겠습니까?<sup>11)</sup>

1703년 김창흡은 경전을 헐뜯은 박세당을 성토하기 위해 먼저 그의 문인 이덕수에게 편지를 보내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sup>12)</sup> 위 인용문은 바로 그 편지 내용의 일부분이다. 이 편지에서도 김창흡은 김인후의 시를 인용하여 주자를 공자와 함께 거론하면서 그를 천하에는 침범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에는 주희가 절대적 진리를 담지하고 있으며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무오류의 인물이라는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 결국은 김창흡에게도 주희가 진리 판별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래서 주희가 없었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공자의 학문과 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편지는 김창흡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작성한 측면이 강하지만, 주자와 주자학에 대한 태도는 앞서 밝힌 신유에게 보낸 편지에서와 똑같다. 주자학에 대한 김창흡의 태도는 「갈역잡영」에 그대로 반영된다.

중원에는 학술이 여러 갈래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주학 일통으로 귀결되네.

中原學術亦多歧,  
我國程朱一統歸.

11) 金昌翁, 「與李德壽」, 『三淵集』 권22, 한국문집총간 165, 470~471면. “天下不可侮者, 仲尼; 天下不可侵者, 朱子. 金河西有詩曰: ‘宇宙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 確哉, 言乎! 其不可以改評矣. 自生民以來, 固未有如孔子者, 而不知有朱子發明其極致, 張皇其幽眇, 則孔子之所以爲孔子, 孰知其眞簡明快? 而亦何以啓裕後人, 不迷其門路乎?”

12) 구체적 서술은 제3장 제3절 “정치적 행보” 부분 참조.

장공(張公: 장유)이 차가운 눈으로 보며,                    不滿張公冷眼視,  
 텅 빈 맨 땅이라고 비판한 것이 불만스럽네.                    茫然赤地以爲譏.<sup>13)</sup>

위 인용문은 「갈역잡영」 제141수이다. 이 시의 내용은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척관계인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sup>14)</sup>가 『계곡만필』(谿谷漫筆)에서 조선의 경직되고 교조화된 학풍을 서술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계곡만필』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서 김창흡의 시를 분석하겠다.

중국의 학술은 다양하다. 정학(正學)이 있는가 하면 선학(禪學)과 단학(丹學)이 있고, 정주(程朱)를 배우는가 하면 육씨(陸氏:육구연)를 배우기도 하는 등 학문의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식 무식을 막론하고 책을 끼고 다니며 글을 읽는 자들을 보면 모두가 정주(程朱)만을 칭송할 뿐 다른 학문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해서 기국(器局)이 워낙 좁아 구속을 받은 나머지 도대체 지기(志氣)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정주의 학문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말을 얻어 듣고는 입으로 너까리고 겉모양으로만 높이는 척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소위 잡학(雜學)이라는 것조차 나올 여지가 없으니, 또한 어떻게 정학 방면에 소득이 있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를 비유하자면, 땅을 개간하고 나서 씨를 뿌려야만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런 뒤에야 오곡이니 제비(稊稗: 돌피와 쪽정이)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말라 비틀어진 땅덩어리뿐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오곡이라 하고 무엇을 제비라 할 수 있겠는가.<sup>15)</sup>

13) 金昌翁, 「葛驛雜詠其百四十一」,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306면.

14) 장유는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사위이다.

15) 張維, 『谿谷漫筆』 권1, 한국문집총간 92, 573면. “中國學術多岐: 有正學焉, 有禪學焉, 有丹學焉, 有學程朱者, 學陸氏者. 門徑不一. 而我國則無論有識無識, 挾筴讀書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 我國則不然. 齷齪拘束, 都無志氣. 但聞程朱之學世所貴重, 口道而貌尊之而已. 不唯無所謂雜學者, 亦何嘗有得於正

위 인용문은 조선의 경직된 학풍에 관한 장유의 서술이다. 김창흡의 시와 연결지어 보면 제1구는 장유가 말한 “중국의 학술은 다양하다”는 내용과 호응되고, 제2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자학만 칭송하고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강조한 논점은 다르다. 장유는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반면 김창흡은 학문의 정통성을 강조한다. 장유가 중국 학술계와의 대비를 통해 조선 학술계에서 주자학<sup>16)</sup>이 유일한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현상을 비판했다면, 김창흡은 그런 중국 학술계보다 주자학이 정통사상으로 자리를 잡은 조선의 학술계가 더 낫다고 보았다. 김창흡은 학문의 정통성, 유일성을 주장했다. 즉 ‘주자학 일통’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주자학을 대하는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유가 주자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주류 학문인 주자학을 맹신하는 것과 제대로 주자학을 연구하는 것을 구분하여, 학문적 다양성이 학문 발전의 근본 토대이며 이런 토대가 결여되면 주자학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주자학을 맹신하는 것과 주자학을 제대로 궁구하는 것을 구분하여 본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김창흡도 장유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어떻게 주자학을 지키려 했는가?

대개 판각되어 있는 책에 나타나 있는 설들을 종신토록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굳게 고집할 줄 알기만 하고, 석함(石函)의 진귀한 고서가 땅에서 나와도 아무도 주자의 설인지 육상산의 설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미 빠가 되어버린 이단에 대해서는 능히 예에 따라 통렬히 배척할 줄 알지만,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대면해서는 혹 적을 자식으로 알기도

學也? 譬猶墾土播種, 有秀有實而後五穀與稊稗可別也. 茫然赤地之上, 孰爲五穀, 孰爲稊稗者哉?” 인용문의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16)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에는 “정주학”으로 되어 있다. 주자학이든 정주학이든 모두 유가 학문, 성리학이라는 뜻이다. 본고는 송시열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주자의 학문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술의 편의상 용어를 모두 “주자학”으로 통일시켰다.

함을 면치 못합니다. 배움에 실제로 얻은 것이 없기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혼암(昏暗)하여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의리에 정밀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와 같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지금의 학문이 그 궤도와 전철을 바꾸지 않아서, 이 때문에 [남월왕(南越王) 위타(尉佗)가 천자를 참칭한 것처럼] 황옥과 좌독<sup>17)</sup>의 치장을 하고 스스로 즐기는 계책으로 삼는다면 괜찮지만, 아무래도 장차 저 고정(考亭: 주희)의 통서(統緒)를 이르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참람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sup>18)</sup>

위 인용문은 앞서 살펴본 신유에게 답한 편지의 뒷부분이다. 김창흡은 당시의 학자들이 선유(先儒)의 학설을 기계적으로 공부하기만 하고 주자학을 제대로 궁구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주자학 일통”을 주장한 김창흡도 장유와 마찬가지로 주자학을 맹신하는 것과 주자학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을 구분해서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당시 학자들의 이단 비판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창흡은 그들이 이미 빠가 되어버린 이단에 대해서는 통렬히 배척할 줄 알지만,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대면해서는 그것을 정학으로 여기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김창흡의 이 비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이미 형해화된 이단, 즉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단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살아 있는 이단을 제대로 식별하여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창흡은 단지 선유의 학설을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단을 식별하고 비판하기 위해 이단에 대해서

17) 원문은 “黃屋左纛”이다. 누런 비단으로 뚜껑을 하고 깃으로 만든 기를 뜻하는 천자의 수레를 말하는데, 남월왕 위타가 본국에서 이를 참람되게 사용했다. 『史記』 권112 「南越列傳」 참조.

18) 金昌翁, 「答申愈」, 『三淵集』 권18, 한국문집총간 165, 383면. “蓋板本見在之說, 知能終身株守, 而石函出地, 莫辨其爲朱爲陸; 旣骨之異端, 知能隨例痛斥, 而對面楊墨, 或不免認賊爲子. 學無實得, 無怪乎其到底憤憤. 所貴乎精義入神者, 政欲其不可如此. 竊謂由今之學, 無變其塗轍, 以是爲黃屋左纛, 聊以自娛之計則可矣. 亦將以纂承夫考亭統緒, 則吾知其非誣則僭也.”

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주자학 공부의 두 층위를 구분하여 본 것과 대응된다.

천년토록 양묵(楊墨)을 배척하여 비난하는데,	千秋楊墨斥非難,
대면하면 누가 이단 있음을 알겠는가?	接面誰知有異端?
하물며 ‘심’과 ‘성’의 경계는 원래 모호한데	況自儻侗心性界,
억지로 유·불을 구분하는 것이	強分儒佛豈能安? <sup>19)</sup>
어찌 온당할 수 있겠는가?	

위 인용문은 「갈역잡영」 제142수이다. 제1, 2구에서 김창흡은 유학자들이 그동안 유가의 도를 지키기 위해 관념적으로 양주와 목적의 학설을 이단으로 배척하여 비난하였지만, 실제로 대면해서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부분은 신유에게 보낸 편지와 종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유교와 불교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억지로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김창흡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김창흡에 의하면 유학자들이 정통과 이단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까닭은 학문을 깊이 탐구하고 궁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정학과 이단을 제대로 공부하여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제3, 4구에서 김창흡이 하고자 한 말로 생각된다.

이상 고찰한 편지와 시를 통해 이단의 학설과 학문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한다는 김창흡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21년 1월 어유봉에게 답한 편지<sup>20)</sup>에도 잘 드러난다.

19) 金昌翁, 「葛驛雜詠其百四十二」,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306면.

20) 1720년 12월에 어유봉이 김창흡에게 편지를 보내 『장자』의 학문에 대해 논했다. 이 편지는 바로 이에 대한 답장이다. 본고에서는 편지의 서두에 나온 “작년 12월에 보내주신 편지를 오늘 받으니 마치 신춘(新春)의 소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舊臘枉札, 得之於今日, 如承新春消息)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편지의 작성 연도를 1721년 1월로 추정하였다. 金昌翁, 「答魚有鳳」,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431면. “舊臘枉札, 得之於今日, 如承新春消息.”; 魚有鳳, 『杞園先生年譜』 권1, 『杞園集』, 한국문집총간 184, 511면. “十二月. 上書三淵, 論『莊子』之學.”

하지만 (체계는) 일단은 어리석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유학자들 가운데 샷된 설을 배척하고 이설을 변정하는 자들이 그저 먼발치에서만 바라보고는 매도하여, 그 주의와 취지를 깊이 탐구하거나 깊숙하게 들어앉아 있고 넓게 서려 있는 것을 바짝 탐구하지 않고는, 그저 선유가 끼친 논설의 꼬트머리만 답습하고 구차하게 단단히 판정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뱃속까지 번민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격물궁리(格物窮理)하는 방도가 이처럼 거칠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장자』와 『순자』의 언설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점에서 그 본과 말의 차이가 있고 같고 다른 점이 있는지 깊이 탐구해서, 다른 점에 나아가 혹은 같은 점을 알고 단점을 버리고 그 장점을 취하여, 부디 나의 안계(眼界: 시야)를 더욱 크게 넓히고 심량(心量: 도량)을 더욱 크게 해야 하며, 저서를 남겨 죽은 지 오래된 사람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배척을 받을 구실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 뜻이 진실로 어리석다고 하겠지요.<sup>21)</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김창흡은 숙된 유학자들이 이단을 배척하고 공격할 줄 알지만, 해당 이단 학설의 주요한 뜻과 취지를 깊이 탐구하지 않고서 그저 선대 유자들의 논설의 꼬트머리만 따라 구차하게 이단이라고 판정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김창흡에 의하면 이것은 진정한 격물(格物)과 궁리(窮理)의 학문 태도가 아니다. 김창흡의 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신유에게 답한 편지에 드러난 생각과 일치한다. 김창흡은 격물궁리하기 위해 『장자』, 『순자』(荀子) 등의 학설에 대해서도 주자학과 비교하여 같고 다른 점을 깊이 탐구하고, 취할 만한 장점이 있다면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단을 식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단을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곧 김창흡의 ‘격물궁리’에 대한 생각이자 개방적인 정통주의의 논리이다. 이단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이단을 배척하는 것은 선배의 권위에 기댄 외재적 배척 혹은 이데올로기적 배척이다. 이와 달리 김창흡이 추구한 것은 이단에 대한 연구를 경유한 이단 비판이자

21) 金昌翁, 「答魚有鳳」,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431면. “然有一段癡見, 以爲世儒之所斥邪卞異者, 只望風罵去. 未有能深探其意旨, 跟究其窩盤, 而仍襲先儒緒論, 苟爲硬判, 令人腹悶. 竊謂窮格之道, 不宜若是鹵莽. 故雖於『莊』、『荀』言說, 亦欲深究其本末同異之所在, 卽異而知其或同, 捨短而取其所長. 庶使我眼界愈恢而心量愈宏, 亦欲使著書骨朽者無辭受斥, 此意良亦癡矣.”

이단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이단을 내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창흡의 이단 비판은 역설적이게도 이단에 대한 깊은 공부를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주의적 틀 내에서 이단 사상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정통 사상을 유연화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김창흡이 정통인 주자학을 옹호하고 정통과 이단을 명확하게 구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은 정학과 이단을 구분함으로써 정통인 주자학을 옹호했다. 이는 김창흡의 사상적 정치성을 보여준다. 조선 사대부 정치에서 사상의 정치성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단을 무분별하게 배척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단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그가 평생 『장자』를 비롯한 노장사상을 공부하고 승려와 교류하면서 불교를 공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김창흡이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정통 사상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자학은 늘 불교와 노장사상을 통합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통과 이단에 대한 김창흡의 이런 인식이 그의 산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불 인식부터 고찰하겠다.

유불 인식과 관련해서는 조카 김언겸(金彦謙)에게 보낸 편지가 참조된다.

허령(虛靈) 두 글자는 유·불의 공통된 바인데, 차이는 **본심의 득실이**니, ‘영광’(靈光)<sup>22)</sup>을 스스로 함부로 다루어 본진(本眞)에서 떨어진 것은 불교의 잘못이니, 대변에 ‘본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sup>23)</sup>

22)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권6에서는 “신령한 빛[靈光]이란 중생들의 진성(眞性)이 불성과 다르지 않아서 보배 그물과 보주(寶珠)가 서로 바뀌어 가며 비추는 것을 비유한다”(靈光者, 喻衆生眞性與佛無異, 若寶網與摩尼交互相映)라고 해석하였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참조. 이하 동일. <[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IT\\_K1259\\_T\\_006](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IT_K1259_T_006)>

23) 金昌翁, 「答彦謙」, 『三淵集』 권18, 한국문집총간 165, 361~362면. “二字儒佛所通, 而所爭者本心得失. 若自弄靈光, 離遠本眞, 乃佛者之錯, 而遽許以得本心可乎?”

위 인용문은 김창흡이 1715년 6월 무렵에 김언겸에게 답한 편지의 일 부분이다. 당시 어유봉(魚有鳳), 이현익(李顯益), 오대준(吳大濬)을 비롯한 김창협(金昌協)의 문인들이 모여서 ‘명덕’(明德)과 ‘심성’(心性)에 관해 논변했는데, 김언겸도 아마 참여했을 것이다. 이현익과 어유봉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그들은 질정(質正)을 받기 위해 김창흡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들의 편지를 읽은 뒤에 김창흡이 김언겸에게 답장을 했다.<sup>24)</sup>

이 편지에서 김창흡은 오대준에게 답한 어유봉의 주장을 두고 비판했다. 어유봉은 명덕을 해석할 때 마음으로 보든 본성으로 보든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sup>25)</sup>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창흡은 마음과 본성을 뒤섞어서 명덕을 해석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유봉은 명명덕(明明德)과 허령(虛靈)한 본심(本心)의 관계를 두고 명덕을 밝히기 위해 허령하는 본심을 우두커니 지키기만 하면 불교의 학문과 별 차이가 없을 것<sup>26)</sup>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김창흡은 어유봉의 논리를 매우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sup>27)</sup>

24) 해당 편지의 “또 제공의 변론 문자를 받았다”(又領諸公論辨文字)라는 말, 「기원선생연보」의 “을미년 6월. 정암 이중겸현익과 더불어 김창흡에게 편지를 보내드려 논한 심성설을 질정하였다”(乙未六月. 與正庵 李仲謙顯益上書三淵, 質所論心性說)라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편지의 작성 연도는 1715년 6월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金昌翁, 「答彥謙」, 『三淵集』 권18, 한국문집총간 165, 361면. “得書慰甚, 又領諸公論辨文字, 皆理義之與, 尤爲眼青. 但舜瑞所與仲謙駁者, 未詳起端, 何敢覈其中否而輕作斷案乎?”; 魚有鳳, 『杞園先生年譜』 권1, 『杞園集』, 한국문집총간 184, 505면. “乙未先生四十四歲六月. 與正庵 李仲謙顯益上書三淵, 質所論心性說.”

25) 魚有鳳, 「答吳仲深大濬」, 『杞園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84, 135면. “至於明德之或以心言, 或以性言, 本不相妨. 『章句』既曰‘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 則序文所謂‘仁義禮智’, 小註所謂‘惻隱羞惡之發’, 『或問』所謂‘本然一定之則’, 何莫非明德乎?”

26) 魚有鳳, 「答吳仲深大濬」, 『杞園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84, 135면. “況所貴乎明明德者, 欲其明夫實理而全其所得乎天者耳. 若塊然守着虛靈之本心而已, 則此與釋子之學何異? 此固專以心字看明德之失也. 心與德之分言, 亦有說焉. 所謂明德, 本兼性情而爲言. 故此德之明, 日以益昏者, 謂顛倒迷惑, 昧於天理之當然. 既如是, 則所存者不過此心之靈覺, 而通於一己之情欲利害而已. 心與明德, 雖非二物, 而立言之不能無別, 蓋如此.”



이어 어유봉의 주장을 두고 김창흡은 유·불에서 ‘허령’ 두 글자는 공통된 것인데, 차이는 본심의 득실이라고 반박하였다. 김창흡에 의하면 ‘영광’(靈光)을 스스로 함부로 다루어 ‘본진’(本眞)에서 떨어진 것이 불교의 잘못이다. 이것이 유교와 불교 심성론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김창흡의 진단이다. 즉 불교에서도 유교처럼 인간의 마음을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허령한 마음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반응이 반드시 도덕적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불교의 허령한 마음을 곧바로 본심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창흡의 이런 논리에는 마음의 작용만을 강조하고 마음의 지각 작용 자체를 성(性)으로 간주한 불교의 ‘작용시성설’(作用是性說)에 대한 비판<sup>28)</sup>이 깔려 있다. 불교 심성론에 대한 김창흡의 이런 비판은 장유가 명대 유자 왕수인(王守仁)과 진헌장(陳獻章)의 학문이 선학(禪學)인지를 논한 부분을 반박한 글에 잘 드러난다.

불가의 공적(空寂)의 설은 선학(禪學)에 이르러 영역이 크게 뒤집혔다. 송나라 이래로 이른바 선학이란 대저 신령한 비춤이 어둡지 않음과 오묘한 작용이 막히지 않음을宗旨(宗旨)로 삼았다. 정신을 단련시키는 바는 대부분 만나는 일에 반응하는 일상생활에 있다. 그러므로 대혜종고(大慧宗杲)가 유자휘(劉子翬)를 논할 때는 매번 그가 마음을 놓고 고적(枯寂)하게 한 것을 꾸짖었지만,<sup>29)</sup> 주자가 육상산을 논할 때는 또한 육상산이 정(靜)을 좋아하고 동(動)을 싫어함을 흠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만 참됨과 망령됨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의 작용(作用)을 성(性)으로 여긴 것이 선학의 귀착지이며 여러 유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양명의 치양

27) 金昌翁, 「答彦謙」, 『三淵集』 권18, 한국문집총간 165, 361면 참조.

28) 정도전(鄭道傳, 1342~1398) 이래로 조선 성리학자들은 ‘작용시성설’(作用是性說)을 주장한 불교 심성론을 비판해왔다. 김창흡도 마찬가지다.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의心性인식과 그 사상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32집, 한국사상사학회, 2009, 406~411면 참조.

29) 대혜종고는 묵조선(默照禪)에 빠져 있는 유자휘에 대해 “有般杜撰長老(…), 教一切人如渠相似, 黑漆漆地緊閉卻眼, 喚作默而常照. 彦沖被此輩教壞了”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언충’은 유자휘의 자이다. 閔孟祥, 「論大慧宗杲批評默照禪的真相」, 『河北大學學報』 2006年 5期, 河北大學宋史研究中心, 93면 참조.

지설도 마음의 힘은 본 것이 있지만 성의 참됨은 본 것이 없으며, 다만 타고난 바탕이 완전한 것이 오묘함이 되는 것만 알지, 법도에 따라 머무는 것이 방정함이 되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명이 이른바 성찰(省察)하여 확충(擴充)함<sup>30)</sup>은 다만 ‘작용이 성이다’라는 것이 되고 말 뿐이다. 그렇다면 선학이 유학과 다르고 양명이 선학에 빠지게 된 까닭은 바로 용에만 힘쓰고 체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지금 정(靜)에만 치우치지 않고 적(寂)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자신의 학문이 선학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 했으니, 또한 장유(張維)의 견해가 영성함을 볼 수 있다.<sup>31)</sup>

위 인용문은 「『계곡만필』에 대한 논변」(谿谷漫筆辨)의 일부이다. 장유는 『계곡만필』에서 진헌장의 학문이 선학일지라도 왕양명의 양지설은 정주(程朱)의 것과 다르지만 선학이 아니라고 주장하여<sup>32)</sup> 양명학을 옹호하였다. 장유의 주장에 대해 김창협이 먼저 이의(異意)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sup>33)</sup> 반면 김창흡은 그 주장을 체계적으로 따져보았다.

30) 왕수인은 “省察是有事時存養，存養是無事時省察”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只念念要存天理，即是立志。能不忘乎此，久則自然心中凝聚，猶道家所謂結聖胎也。此天理之念常存，馴至於美大聖神，亦只從此一念存養擴充去耳”라고 밝힌 바 있다. 모두 마음의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王守仁 門人 編, 「知行錄」 六, 『傳習錄』 上.

31) 金昌翁, 「谿谷漫筆辨」, 『三淵集』 권26, 한국문집총간 165, 541면. “佛家空寂之說，至禪而大翻窠窟。自宋以來，所謂禪學，大抵以靈照不昧、妙用不滯爲宗，其所煅煉精神，多在於日用應緣處。以故宗杲之於彥沖，每訶其忘懷枯寂，朱子之於象山，亦不病其喜靜厭動。惟是不分眞妄，以作用爲性，乃禪之歸宿，諸儒之所迷轍也。陽明之致良知，蓋亦有見乎心之能，而無見乎性之眞。但知圓於機之爲妙，而不知止乎矩之爲方。故其所謂省察擴充，只成得作用是性而已。然則禪學之異於儒，陽明之淪於禪，正以其煉用而昧體也。今乃以不偏靜、不流寂，證其非禪，亦見其疎矣。”

32) 張維, 『谿谷漫筆』 권1, 한국문집총간 92, 579면. “陽明、白沙，論者竝稱以禪學。白沙之學，誠有偏於靜而流於寂者。若陽明良知之訓，其用功實地，專在於省察擴充。每以喜靜厭動，爲學者之戒，與白沙之學絕不同。但所論窮理格物，與程朱頓異，此其所以別立門徑也。”

33) 金昌協, 「內篇二」, 『農巖雜識』, 『農巖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2, 355면. “『谿谷漫筆』考證較詳密，而所論亦多可疑。如論陽明禪學處，非唯不識聖學，亦似不識禪學者。”

김창흡은 먼저 선학의 특징부터 밝혔다. 송나라 이래로 선학은 ‘영조 불매’(靈照不昧)와 ‘묘용 불체’(妙用不滯)를 중지로 삼았다. 이는 마음을 단련시키고 수행하는 것이 일상 생활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어서 김창흡은 대혜종고가 묵조선(默照禪)에 빠져 적막하게 앉기만 하여 마음을 수련하는 유자휘(劉子翬)를 꾸짖은 것, 주희가 육구연(陸九淵)이 조용히 마음을 수행하는 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을 들어 선불교에서 ‘정’(靜)에 편향된 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리학에서 ‘정’을 좋게 보기도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여기까지는 김창흡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김창흡은 불교의 근본적인 잘못된 “참됨과 망령됨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의 작용(作用)을 성(性)으로 여긴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김언겸에게 보낸 편지의 “영광을 스스로 함부로 다루어 본진(本眞)에서 떨어진 것은 불교의 잘못이다”라는 말과 일치한다. 김창흡에 의하면 불교에서는 참됨과 망령됨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마음의 신묘한 작용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심을 성으로 착각해서 마음의 역할만 강조하고, 참됨과 망령됨, 시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성의 역할을 무시하는 불교의 심성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창흡은 마음을 성찰하여 그에 따라 실천함을 중시하는 왕양명의 치양지설 역시 심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의 학문일 뿐 ‘심’과 ‘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리학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김창흡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마음의 작용만 중시하고 성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심성론과 왕양명의 치양지설을 비판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김창흡이 성리학 심성론의 테두리에서 불교를 인식하여 비판했다는 것이다. 김창흡의 이러한 인식은 문인 조명리(趙明履, 1697~1756)가 기록한 김창흡의 말에도 잘 드러난다.

선생께서는 유교와 불교의 구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씨는 ‘참됨’과 ‘망령됨’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신묘한 작용이라고 했으니, 운수반시(運水搬柴)의 설<sup>34)</sup>이 이것이고, 산하와 대지에 이르러서

는 이 영명과 원광이 모두 그것을 비춘다고 했다. (석씨는) 단지 원만한 것만 알았지, 모난 것이 있음은 알지 못했다. 우리 유자들은 둥근 곳에서 모난 것을 아니, 모난 것은 이른바 ‘사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sup>35)</sup>

위 인용문은 1718년 11월 명학재(鳴鶴齋) 강학 기간 문인 조명리가 김창흡의 말을 기록한 내용이다.<sup>36)</sup> ‘운수반시’(運水搬柴)와 ‘산하대지’(山河大地) 이야기는 불법(佛法)의 수행과 마음의 수련이 물 길고 뿔나무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며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것이 모두 도(道)임을 말한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즉심시불(卽心是佛)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sup>37)</sup>과 통한다. 하지만 무선무악을 표방하는 불교는 공적(空寂)에 빠질 수 있다.<sup>38)</sup>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불교에서는 원만함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원만함은 ‘용’(用), 즉 형이하의 차원으로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원만함을 아는 동시에 모난 것이 있다는 것도 안다. 모난 것은 ‘체’(體), 즉 형이상(形而上)의 차원으로 성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렇듯 김창흡은 성리학의 심성론을 기반으로 하여 유·불의 차이를 간파하여 불교의 심성론을 비판하였다.<sup>39)</sup>

34) ‘운수반시’는 당나라 때 선종의 유명한 거사(居士)인 방온(龐蘊)의 계송(偈頌) 중 “신통과 묘용은 / 물 길고 뿔나무를 하는 데에 있다”(神通併妙用, 運水及搬柴)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불법(佛法)의 수행은 물 길고 뿔나무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며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것이 모두 도(道)라는 뜻이다.

35) 金昌翁, 「語錄」, 『三淵集拾遺』 권31, 한국문집총간 167, 281~282면. “先生說儒釋之別曰: ‘釋氏不分眞妄, 皆爲妙用. 運水搬柴之說是也. 至若山河大地, 以爲此箇靈明圓光, 都映得他. 蓋只見得圓滿, 却不知有方. 吾儒能於圓處識得方, 方所謂物之則是也.’”

36) 『삼연집습유』 「어록」 중 조명리가 기록한 부분은 「명학재어록」(鳴鶴齋語錄)이라고도 한다. 무술년인 1718년 11월에 영평 명학재 강학 기간 김창흡의 말을 모아놓은 것이다. 金昌翁, 「語錄」, 『三淵集拾遺』 권31, 한국문집총간 167, 281~282면; 안동김씨 편, 『安東金氏文獻錄』(地), 874면 참조.

37) 전준모, 「조선 중·후기 佛者와 儒者의 心身觀 연구-‘一’과 ‘多’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47면 참조.

38) 전준모, 위의 글, 47면 참조.

39) 유·불 심성론의 차이에 대한 김창흡의 이러한 인식은 문인 김시정(金時淨)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흡은 무분별하게 이단을 배척하지 않았으며, 수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는 김창흡이 화엄사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어느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야 함<sup>40)</sup>을 강조한 것에 잘 드러난다.

이른바 영롱(玲瓏)이라는 것은 한 곳에만 비춘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달빛이 비치는 수정 구슬밭과 물고기를 담은 유리병처럼 빛과 그림자가 살아 움직여 얕음과 깊음, 넓음과 좁음으로 그 방소를 정할 수 없어야 기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 이른바 제석천(帝釋天)의 구슬 그물이 겹겹으로 엮여서 구슬이 서로 비추어 빛을 내기에 그림자가 억천만의 변화가 있다<sup>41)</sup>는 것은, 이로써 무애법계(無礙法界)를 비유한 것이다. 이 말이 비록 허황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함을 비유해도 무방할 것이다.<sup>42)</sup>

위 인용문은 1720년 「일록」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화엄사상의 무애법계(無礙法界) 논리를 끌어내어 사람의 마음도 이처럼 살아[活]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징관에 의하면 『화엄경』(華嚴經)의 본뜻은 곧 무장애의 법계이고, 화엄사상의 핵심은 바로 사법계(事法界), 이법계(理法界), 사리무애법계(事理無礙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로 구성된 사법계관(四法界觀)이다.<sup>43)</sup> 그렇다면 김창흡은 화엄사상의 무애

---

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최유진, 「三淵 金昌翁의 哲學的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99~100면 참조. 金昌翁, 「答時淨問目」,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406면.

40) 마음의 움직임에 관한 김창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한석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한석, 「김창흡의 지각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93~106면 참조.

41) 澄觀, 『華嚴經疏註』. “一多無礙, 等虛室之千燈; 隱顯俱成, 似秋空之片月; 重重交映, 若帝網之垂珠; 念念圓融, 類夕夢之經世.”

42) 金昌翁, 「日錄」, 『三淵集』 권34, 한국문집총간 166, 152면. “所謂玲瓏, 非一處呈照之云也. 如透月之水晶簾, 貯魚之琉璃瓶, 光影漾活, 不可以淺深闊狹定其方所, 斯爲奇妙. 『華嚴』所謂重重帝網, 珠交互現, 影有億千萬變態, 以此喻無礙法界. 此語雖幻, 取以喻人心要活, 亦無妨矣.”

43) 아라키 겐고 지음, 심경호 옮김, 『불교와 유교』, 서울: 예문서원, 2000, 40~61면 참조.

법계 논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여 도출하였는가?

먼저 김창흡은 수정 구슬밭과 물고기를 담은 유리병에 비치는 그림자와 빛의 예를 들어 ‘영롱’(玲瓏)이라는 말을 한 곳만을 향해 비추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위 인용문에서는 그림자와 빛이 움직이는 양태를 형용할 때 “漾活”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움직일 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고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김창흡은 『화엄경』의 제석천(帝釋天) 구슬 그물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제석천의 구슬 그물이 겹겹으로 엮여 구슬이 서로 비춰 빛을 내기에 그림자에 수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것도 어느 한 가지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해나감을 의미한다. 그림자와 빛의 수많은 변화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무애법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유는 사물 사이에 단절 없이 원통(圓通)한다는 화엄사상의 원융무애(圓融無礙)와 가깝다. 특히 화엄의 사법계 가운데 사사무애법계의 사유와 유사하다.<sup>44)</sup> 이렇게 해서 김창흡은 화엄사상의 무애법계 논리를 끌어내어 사람의 마음이 살아[活]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상으로 성리학 심성론의 테두리 내에서 선악과 시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본성을 무시하는 불교의 심성론을 명확하게 비판하는 김창흡의 유불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김창흡에게서 유가의 입장으로 이단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정통과 이단을 분명히 구분하는 성리학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흡에게 불교는 무조건적인 배척의 대상은 아니다. 김창흡은 불교 사상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쪽이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김창흡의 태도가 도가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되는가? 이제부터 유·도에 대한 김창흡의 생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찌 문만 그렇습니까? 『장자』에서 드러난 뛰어난 견해와 명리

44) 최유진은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유불의 대립을 뛰어넘어 공관(空觀)과 천리(天理)가 융합된 김창흡의 시도와 시론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본고가 최유진의 연구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구체적인 분석은 최유진, 앞의 글, 146~152면 참조.

(名理)는 천고의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을 경동(警動)하였습니다. 큰 주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담박하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해서 처음의 본성[性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아(物我)를 평등하게 보게 함으로써 시와 비를 참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장자』의 주요한 뜻입니다.<sup>45)</sup>

김창흡은 1720년 12월경 어유봉에게 편지를 보내 『장자』 공부를 권했다.<sup>46)</sup> 위 인용문은 이 편지의 일부분이다. 김창흡은 문(文)과 도(道) 두 가지 측면에서 어유봉을 설득하려 했다. 이 편지 내용을 통해 김창흡이 만년에 들어서도 『장자』를 애독하고 『장자』의 글과 도를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문’의 측면에서 『장자』의 내용이 기괴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글의 구조가 매우 묘하고 변화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서, 잘 배우는 자가 『장자』의 말과 문장만 흉내내지 말고<sup>47)</sup> 『장자』 정신의 정수(精髓)를 잘 가져오면 기문(奇文)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sup>48)</sup> 어유봉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어서 ‘도’의 측면에서 어유봉을 설득하였다. 위 인용문의 내용이 바로 『장자』의 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초’(性初), ‘물아평간’(物我平看), ‘시비귀진’(是非歸眞)이라는 표현이다.

‘성초’는 인간 처음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장자』의 요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

45) 金昌翁, 「答魚有鳳」,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430면. “然豈惟文哉? 其達見名理, 警動千古. 大要勸人恬淡寡慾, 以復性初. 而物我平看, 使是非歸眞, 乃其主意.”

46) 창작 연도 추정에는 제5장 각주 20번 참조.

47) 김창흡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의 과거시험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안세현, 「조선중기 한문산문에서 『장자』 수용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5집, 한국한문학회, 2010; 안세현, 「조선중기 문풍의 변화와 과문」, 『대동문화연구』 74집, 대동문화연구원, 2011; 박재경, 「책문에 반영된 『장자』의 글쓰기 방식」, 『국학연구』 2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5.

48) 金昌翁, 「答魚有鳳」,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430면. “吾儒文字, 大抵說事多而說理少. 雖其說性說命, 而文則溫順. 此則開口談天, 發之以奇辭怪調, 或不能句者有之, 所以爲難解也. 若其結撰之妙, 無中生有, 則如靈蜃噓氣, 構起百層樓閣, 忽焉風捲而去, 只是一碧晴空. 又如浙江潮至, 浩漾澎湃, 若騰三軍之裝而轟輻萬兩, 俄然退陣, 但見萬頃澄洋, 不見涯涘. 其倏忽變化, 神於捭闔, 有如是者, 善學者不襲其言句而偷其神髓, 則豈不爲奇文乎?”

장자』의 요지에 대한 김창흡의 이러한 해석에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

진재(眞宰)와 조화(造化)가 어찌 두 가지의 사물이겠는가? 진군(眞君) 역시 그렇다. 그러나 한 몸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귀, 눈, 손, 발은 모두 군주가 될 수 없는데 오직 마음이 한 몸을 주관하고 성(性)이 그 가운데 있는 경우만 진군이 될 수 있다.<sup>49)</sup>

위 인용문은 1720년 무렵 김창흡이 손자 김문행(金文行)을 위해 『장자』의 설을 풀이해 준 편지의 일부이다.<sup>50)</sup> 여기서 김창흡은 「제물론」(齊物論)에 나온 ‘진군’(眞君) 개념에 대해 해석하였다. 「제물론」에 관한 논의에서는 ‘진재’(眞宰), ‘조화’(造化)가 ‘진군’과 같은 뜻으로서 몸을 주관하는 참된 마음[眞心]으로 해석된다.<sup>51)</sup> 「제물론」에는 마음의 차원에서 진군 개념을 해석할 뿐이지, 본성의 시각에서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김창흡은 마음과 본성의 차원에 입각하여 진군을 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마음이 한 몸을 주관하는 동시에 ‘성’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진군이 될 수 있다. 이 해석에서는 본성의 역할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김창흡의 성리학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김창흡이 성리학적 심성론의 차원에서 『장자』의 요지를 해석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자』의 주요한 뜻에 대한 김창흡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인용한 어유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창흡은 『장자』의 주요한 뜻이 물아(物我)를 평등하게 보게 함으로써 시와 비를 참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창흡은 『장자』에도 시와 비가 존재하고 시와 비를 구분한다고 주장한다.<sup>52)</sup> 시와 비를 참됨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도

49) 金昌翁, 「答文行莊子疑處」,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26면.  
“眞宰造化豈二物哉? 眞君亦然. 但就一身上推之, 耳目手足, 皆不足爲君. 而惟心主宰一身, 而性在其中, 是爲眞君也.”

50) 이 글은 경자년(1720) 무렵 「문행에게 보내다」(寄文行)라는 편지와 함께 부친 것이다. 金昌翁, 「寄文行 南華問目答見禰著」,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99면 참조.

51) 평유란(馮友蘭), 천구잉(陳鼓應)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陳鼓應 注譯, 『莊子今注今譯』(上), 北京: 中華書局, 2020, 52~53면 참조.

52) 金昌翁, 「答文行莊子疑處」,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27면.  
“淺看『莊子』者, 以爲將泯去是非而無所卞別, 則失其本旨也.”



가 바로 ‘물아평간’이다. ‘물아’는 인식의 대상[物]과 주체[我]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다르게 보지 않고 똑같이 본다는 ‘물아평간’에는 과연 어떤 사유가 내포되어 있을까?

‘인시’(因是)와 ‘인비’(因非)에 대한 해석은 박주(朴註: 박세당의 주석)가 가장 터무니없어 족히 깊이 논할 필요도 없다. ‘인시’, ‘인비’를 처음 읽을 때에는 분명하지 않은 듯하지만, 마디마디를 살펴보아 ‘피시’(彼是)와 상대해서 해석하면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피시’는 **작을 세우는 것이고, ‘인시’는 환중(環中)의 도이다.** 우(耦) 자는 구(仇) 자와 같으니, 구(仇)는 호불호의 뜻을 지닌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삼키려고 하는 것, 우(虞)나라와 예(芮)나라가 서로 침탈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쪽만 존재하게 하고 상대쪽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좋게 지내는 것, 벗 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것은 양쪽을 보존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려고 하는 것이다. 같은 우인데, 남곽(南郭)이 서로 삼키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피시’는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아 서로 기울이려고 하고 하얀 부분과 저 까만 부분이 서로 삼키려고 한다. ‘인시’는 물아(物我)가 평(平)하니 색깔도 같고 또한 높음과 낮음의 구별이 없다.<sup>53)</sup>

위 인용문은 「제물론」에 나온 ‘인시’(因是)와 ‘피시’(彼是)에 대한 김창흡의 해석이다.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제물론」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으며 사물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저쪽의 관점으로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또한 저것을 인한다’고 하는 것이다.

저것이니 이것이니 하는 것은 나란히 생겨난다는 말이다. 비록 그렇다

53) 金昌翁, 「答文行莊子疑處」,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26~127면. “因是因非, 朴註最胡亂, 不足深論. 因是因非, 初見似未分曉, 而觀其節節, 與彼是對說則其意了然. 彼是則立耦者也, 因是則環中之道也. 耦字如仇字, 仇有好不好. 楚漢之欲相吞, 虞芮之欲相奪, 欲存是而滅彼也. 夫婦之好合, 朋友之麗澤, 欲兩存而相須也. 同是耦也, 而南郭則欲喪其相吞者耳. 彼是一高一低欲相傾, 此白彼黑欲相吞. 因是物我平, 同是一色, 亦無高低.”

하더라도 나란히 생겨나면 나란히 죽고 나란히 죽으면 나란히 생겨나며,  
나란히 가하면 나란히 불가하고 나란히 불가하면 나란히 가하다.

옳다고 함에 의거하여 그르다고 함이 있고, 그르다고 함에 의거하여 옳  
다고 함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그러한 것을 말미암지 않고 하늘에 비추  
어보는데, 이것은 또한 자기가 옳다고 함을 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저것이고 저것이 또한 이것이다. 저것도 하나의 시비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그렇다면 과연 저것이니 이것이니 하는 것이 있  
는가? 과연 저것이니 이것이니 하는 것이 없는가?

‘저것’과 ‘이것’이 그 상대적 대립구조를 이룰 수 없음을 도의 지도리라  
한다. 지도리라야 비로소 그 고리의 중앙이 되어서 무궁에 대응한다. 옳  
음도 하나의 무궁이고 그름도 하나의 무궁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밝음으  
로써 비추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다.<sup>54)</sup>

위 인용문은 「제물론」 해당 원문의 내용이다. 지금부터 위에 인용한  
부분과 그에 대한 김창흡의 해석을 함께 보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김창  
흡에 의하면 「제물론」에서 말한 ‘인시’는 ‘피시’와 상대되는 말이다. ‘피  
시’는 짝을 세우는 것이고, ‘인시’는 환중(環中)의 도(道)이다. 피시는  
짝을 세우는 것이므로 상대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우(虞)나라와 예  
(芮)나라가 서로 침탈하려는 것, 부부 사이에 좋게 지내는 것, 벗 사  
이에 서로 도와주는 것은 모두 상대적 시각에서 서로를 보고 구별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높음과 낮음,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다. 이와 달리 인시는 환중의 도이다. 환중의 도는 고리 가운데의 도를  
뜻한다. 『장자』에서 말하는 도의 운행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나선형의

---

54) 『莊子』 「齊物論」. “物無非彼, 物無非是. 自彼則不見, 自知則知之. 故曰:彼出  
於是, 是亦因彼. 彼是方生之說也. 雖然, 方生方死, 方死方生; 方可方不可, 方  
不可方可; 因是因非, 因非因是. 是以聖人不由而照之於天, 亦因是也. 是亦彼也,  
彼亦是也.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果且有彼是乎哉? 果且無彼是乎哉? 彼是莫  
得其偶, 謂之道樞. 樞始得其環中, 以應無窮. 是亦一無窮, 非亦一無窮也. 故曰:  
莫若以明.” 인용문의 번역은 박세당 지음, 박헌순 옮김, 『박세당의 장자읽기』,  
과주: 유리창, 2012, 97~102면; 박세당 지음, 전현미 역주, 『박세당의 장  
자, 남화경주해산보 내편』, 서울: 예문서원, 2012, 108~112면; 陳鼓應 注譯,  
『莊子今注今譯』, 北京: 中華書局, 2020, 60~63면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순환이다. 이 순환의 중심이 바로 환중이다.<sup>55)</sup> 그러므로 인시는 곧 무한하고 절대적인 도를 의미한다. 김창흡은 인시는 ‘물아’가 평하니 색깔도 같고 높음과 낮음의 구별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중간의 도로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똑같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만물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로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시각으로 만물의 하나인 자신 안에서 만물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sup>56)</sup> 이 보편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시와 비를 참됨으로 돌아가게 하는 도(道)이다. 이것이 김창흡이 말한 ‘물아평간’의 뜻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김창흡에게 이 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천예(天倪)라는 것은 시비의 자연으로서 하늘이 구분한 바이고 사람에게 의해 구분된 것이 아니다. 지인(至人)의 마음속에는 시비가 없는 것이 아닌데, 하늘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지 않을 뿐이지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장자』를 깊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자』에서 시비를 없앴으로써 구별함을 따지지 않는다고 여겼으니, 이는 『장자』의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이다.<sup>57)</sup>

위 인용문 역시 『장자』에 대한 손자 김문행의 의문에 답한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자연[天倪]에도 시비가 있고 덕이 높은 사람[至人]에게도 시비가 있다. 자연에서의 시비는 사람이 아닌 하늘에 의해 구분된다. 지인의 마음 속에 있는 시비는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보거나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보는 식의 상대적이며 인위적인 관념으로 구분되지 않고, 절대적인 존재인 하늘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여기서 하늘이란 곧 천리이다. 김창흡은 천리를 시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천리에 따라야만 그 시비가 참됨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창흡의 이런

55) 陳鼓應 注譯, 앞의 책, 62~63면 참조.

56) 미조구치 유조 지음, 임태홍 옮김, 『이탁오평전』, 파주: 글항아리, 2022, 69~70면 참조.

57) 金昌翁, 「答文行莊子疑處」, 『三淵集拾遺』 권24, 한국문집총간 167, 127면. “天倪者, 是非之自然, 天之所分, 非人之所分者. 至人胸中, 非無是非, 而順天而不徇人, 非謂以妍爲媸指冷爲煖也. 淺看『莊子』者, 以爲將泯去是非而無所卞別, 則失其本旨也.”

『장자』 해석은 인용문에서 시비를 없앴으로써 구별함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통상적인 『장자』 해석과 다르다. 김창흡이 펼치는 이런 논리는 규범주의자의 절대주의적 사유에 가깝다. 다시 말해 김창흡은 노장사상을 성리학적 틀에서 해석함으로써 성리학적 틀 내로 포용한 셈이다.

이상으로 『장자』의 큰 요지와 주요한 뜻에 대한 김창흡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진재’에 대하여 본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심성론의 차원에서 『장자』의 요지를 해석한 부분에서 김창흡의 성리학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물아평간’이 가능한 ‘환중’의 관점이 실은 참된 시비로서 천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김창흡의 해석에서도 성리학자로서의 김창흡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창흡이 성리학적 시각, 유가적 시각에서 『장자』를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실제로 노장사상의 논리를 응용해서 성리학적 이치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1693년 무렵 백부 김수증을 위해 지은 「무명와 기문」(無名窩記)에 잘 드러난다.<sup>58)</sup>

백부께서 부지암(不知菴)을 지으시고 소자의 기문을 받으신 뒤에, 또 생각하시길 아직 남은 땅이 그 동쪽 총계봉(叢桂峰) 아래 있는데 시내를 사이에 두고 백여 보 가까이 있다 하시어, 마침내 그 곳에 띠풀을 엮어 ‘무명와’(無名窩)라는 움집 하나를 지으셨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니 ‘무명’(無名)으로 ‘부지’(不知)를 받은 것이 오묘하다.

대저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뒤쫓지만 통달한 사람은 버리는 바이다. 그러나 ‘명리’(名利)의 ‘명’이 있고 ‘명상’(名相)의 ‘명’이 있으니, 이름을 두고 실재의 손님이라고 한 것<sup>59)</sup>은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의

58) 김수증의 「무명와기사」(無名窩記事)와 그가 1693년 가을 사위 유명건(俞命健)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무명와는 계유년(1693) 가을에 완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명와 기문」도 그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金壽增, 「無名窩記事」, 『谷雲集』 권4, 한국문집총간 125, 219면. “癸酉九月初二日, 自石室還華陰不知菴. 而無名窩役畢, 塗壁糊窓, 遂往來宿食.”; 金壽增, 「答俞命健癸酉」, 『谷雲集』 권5, 한국문집총간 125, 237면. “此間新營, 錄在別紙. 蓋出於閑中漫浪之意, 而又未知幾許時徜徉於此也. 形勢清曠絕勝, 此即古人所謂過清難久居者, 而亦恨不得與親知相對評品嘯詠也.”

59)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허유(許由)가 “이름이라는 것은 실질의 손님이니, 내가 장차 손님이 되라는 것입니까?”(名者, 實之賓也, 吾將爲賓乎)라고

시한 것이고 이름을 두고 만물의 어미라고 한 것<sup>60</sup>)은 유(有)와 부합하기 때문에 보존한 것이다. 지금 백부께서 계신 곳을 가지고 말하자면 명리의 명은 백운령(白雲嶺) 밖의 일이다. 곡운(谷雲) 한 골짜기를 차지하고 계시면서 동쪽으로 방화계(傍花溪)에 이르고 서쪽으로 침석대(疊石臺)에 이르니 여기에 모두 명상이 보존되어 있다.

애초에 곡운은 천년 백년 숨겨져 있어서 그 봉우리, 고개, 시내, 계곡이 태초의 상태로서 이름이 없었다가 백부께서 처음 이름을 붙이셨다. 청람산(靑嵐山)이니 농수정(籠水亭)이니 하는 명칭을 이 지역의 나무하고 소먹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두 입에 올리고 있다. 화음동(華陰洞)으로 말하면 품제(品題)가 더욱 많아져 작은 물줄기와 주먹만 한 돌도 모두 그 광채를 입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무명화로 끝이 나니, 늘어나면 모름지기 줄어들어 그 운수의 자연스러움인 것인가? 아니면 이름이 너무 많은 것을 싫어하여 사물에 이름을 붙인 것까지 함께 거두어들인 것인가? 이는 소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다.<sup>61)</sup>

위 인용문은 「무명와 기문」의 첫부분이다. 「무명와 기문」의 주지는 ‘무명’(無名)이다. 전편 내용을 보면 김창흡은 『노자』(老子)의 ‘유명/무

한 데서 온 말이다. 이름이나 명에는 실상에 따라 붙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60) 『노자』 제1장에 “‘이름없음’[無名]은 천지의 시초이고, ‘이름있음’[有名]은 만물의 어머니이다”(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천구잉은 ‘무/유’의 구도로 보아 이 문장의 구두를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로 끊었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한나라의 하상공주본(河上公注本) 『도덕경』에는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로 되어 있다. 「무명와 기문」을 보면 김창흡이 이 구절을 ‘무명’과 ‘유명’의 구도로 본 것이 분명하다. 이석명 옮김, 『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 서울: 소명출판, 2005, 47~48면; 陳鼓應 注譯, 『老子今注今譯及評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0, 47~48면 참조.

61) 金昌翁, 「無名窩記」, 『三淵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65, 492면. “伯父既作不知菴, 納小子記矣. 又謂猶有餘地在其東叢桂峰下, 間溪百餘步而近, 遂就而縛成一窩, 曰‘無名’. 不知故無名, 無名之受乎不知妙矣. 夫名者, 衆人之所趨而達人之所遺也. 然而有名利之名, 有名相之名. 其謂實之賓也者, 以近爭而外之也; 其謂萬物之母也者, 以合有而存之也. 今以伯父所在言之, 名利之名, 白雲嶺以外事也. 據谷雲一谷, 東至于傍花溪, 西至于疊石臺, 乃名相所存也. 始谷雲冥翳千百年, 峰嶺溪洞, 樸無名號, 名之自伯父始. 嵐山籠水之名, 土人之樵牧者今皆上口. 及至華陰, 品題逾繁, 涓流拳石, 皆被其賁然, 無何, 而以無名了焉. 乘而須除, 豈其數之自然歟? 將惡其名之甚, 并與其命物者而收之歟? 小子之所未解也.”

명' 구도를 빌려 이를 성리학의 리(理)의 '본체/작용' 구도로 풀어내면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여기서 김창흡은 '유명'의 차원에서 '무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백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표현함으로써 '무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아울러 끌어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명’으로 ‘부지’를 받은 것이 아주 오묘하다”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 번째는 실제 공간 배치의 차원에서 무명과와 부지암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공간적으로 무명과가 부지암(不知菴)과 서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2)</sup> 두 번째는 노자 철학의 차원에서 무명과 부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창흡이 말한 '무명'은 무슨 뜻일까?

김창흡은 먼저 '명'(名)의 시각에서 '유명'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창흡은 '명'을 '명리'(名利)의 '명'과 '명상'(名相)의 '명'으로 나눴다. '명리'는 이름과 명예를 가리키는 말이다. 김창흡은 『장자』 「소요유」(逍遙遊)의 요임금이 허유에게 선양하는 고사에 나온 “이름이라는 것은 실재의 손님이니, 내가 장차 손님이 되라는 것입니까”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름이나 명예가 모두 본질이 아닌 허상(虛像)이기 때문에 도외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상'은 사물의 본체와 형상(形象)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창흡은 『도덕경』 제1장에 나온 “무명은 천지의 시초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유(有: 있는 그대로)와 부합하기 때문에 보존한 것이라 밝혔다. 김창흡에 의하면 명리의 명은 도외시하는 것이고, 명상의 명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어서 김창흡은 백부 김수증이 소유한 거처로 말하자면 명상만 보존되어 있고, 명리는 모두 백운령(白雲嶺) 밖에 있다고 말했다. 김수증이 거처하는 백운령을 기준으로 명리와 명상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백운령 안은 허위적인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난 실재만 있는 명상의 세계, 즉 '유명'의 세계이다. '유'는 현실, 실재라는 의미이므로 이 유명한 세계가 곧 현실의 세계이며, 이 세계를 만든 주체는 바로 김수증이다. 김

62) 金昌協, 「有知堂記」, 『農巖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62, 183면. “吾伯父谷雲先生, 既作不知菴於華嶽山下白雲溪之上, 以居焉有年矣. 間又得地於菴北數十步, 作小屋曰無名窩者, 以與菴相對.”

수증은 이름을 붙이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만의 영역인 유명한 세계를 만든 셈이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김수증은 자신이 직접 만든 유명한 현실 세계까지 버렸다. 김창흡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감히 내 생각을 말해보면 이렇다. 이름 중에 제거할 만한 것으로 명리보다 심한 것이 없지만, 명상의 명으로 말하자면 혹 형체(形體)를 따르거나 혹 실재와 짝할 따름이다. 천하의 사물 중에 이름을 갖고 생겨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 이치가 있으면 상(象)이 있고 상이 있으면 이름이 있으니 이름을 가지고 이치를 살필 수 있다. 이름이여! 이름이여! 어찌 이름을 붙인 뒤에야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겠는가? 흰 말을 희다 하고 어르신을 어른스럽다고 하는 것은 형색(形色)이 그렇기 때문이다.<sup>63)</sup>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다. 또한 홍몽은 홍몽이기 때문에 홍몽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혼돈은 혼돈이기 때문에 혼돈이라는 이름이 더해졌다. 이름을 붙였으면 떼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사물의 이치인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겠는가?

옛날에 이름을 미워한 사람으로 소부(巢父)와 허유(許由)만한 이가 없다. 그들은 명예를 버리기를 표주박 버리듯이 했는데 유독 소부와 허유라는 이름만큼은 제거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을 부를 때 소부와 허유라 하고 그의 처소를 말할 때 기산(箕山), 영수(潁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청한자(淸寒子) 또한 그런 부류이다. 오세(五歲)라는 호가 곡운에 남아 있는 것이 백여 년이 하루 같으니, 그렇다면 무명와라는 명칭은 장차 목소리를 높여서 시끄러움을 그치게 하려는 것인가?<sup>64)</sup>

위 인용문은 기문의 두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김창흡은 유명한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유명론(有名論)을 펼쳤다. 김창흡에 의하면 ‘명상’

63) 『맹자』 「고자」(告子) 상(上)에 나온다.

64) 金昌翁, 「無名窩記」, 『三淵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65, 492~493면. “然竊敢謂名之可去, 莫甚於利名, 而若名相之爲名, 則或從形或配實而已. 天下之物, 未有不帶名而生者也. 有理則有象, 有象則有名, 卽名而理焉. 名乎! 名乎! 豈名之而後有哉? 白馬之白, 長人之長, 形色然也. 山是山, 水是水, 天是天, 地是地. 且以鴻濛之鴻濛, 而鴻濛之號及焉; 混沌之混沌, 而混沌之目加焉. 被之名而不能辭, 物理則然, 況於人乎? 古之惡名者, 莫如巢由. 去其名利, 如去其瓢. 獨不能去其巢由之名, 至今名其人曰巢由, 名其處曰箕潁, 我東淸寒子亦其流也. 五歲之號在谷雲者, 幾百年如一日. 然則無名之名, 其將爲揚聲而止響乎?”

의 ‘명’은 형체를 따르고 실재와 짝할 따름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이름을 통해 이치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치와 이름의 관계이다. 김창흡은 이치가 있으면 상이 있고 상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주자학의 체용일원론(體用一元論)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이는 『역전』(易傳) 서문에서 “지극히 은미한 것[微]은 이(理)이고, 지극히 드러난 것[顯]은 상(象)이다. 체(體)와 용(用)은 하나의 근원이고, 드러남과 은미함은 간격이 없다”<sup>65)</sup>라고 말했다. 여기서 체(體)가 본체, 이치[理], 형이상(形而上)의 절대적 진리를 표상하는 개념으로서 미(微)를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면, 용(用)은 작용, 기능, 형이하(形而下)의 현상 세계를 표상하는 개념으로서 현(顯)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름과 이치는 서로 간격이 없고 하나가 된다. 형체, 현상 세계를 표상하는 이름을 통해 만물의 이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만큼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백마(白馬), 장인(長人), 산수(山水), 천지(天地), 홍몽(鴻濛), 혼돈(混沌) 등에 그러한 이름을 붙인 까닭은 그것이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김창흡은 사물을 대상으로 유명한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 더 나아가 같은 논리로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질로 붙인 이름은 역시 떼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청한자(淸寒子), 오세(五歲) 등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삼연은 이치와 이름의 관계에 입각하여 사물과 인간 두 측면에서 유명한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자학의 체용일원론에 근거하여 유명한 존재론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고, 하나는 사물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김창흡의 절대적인 사유이다. 이름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백부는 왜 무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 김창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5) 程頤, 「易傳序」. “至微者, 理也; 至著者, 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有)의 경지에서 말하면 사물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없고, 그 ‘무’(無)의 경지에서 말하면 오직 도만 이름을 초월할 수 있다. ‘유’에서 ‘유’로 나아가는 것이 ‘무’에서부터 ‘유’로 나아감만 못하고, ‘무’에서 ‘유’로 나아가는 것이 나아감이 없는 것만 못하니, 나아감이 없는 것을 일러 도라 한다.<sup>66)</sup> 노자(老子)가 도를 말한 것에 내가 취하는 바가 있으니, 곧 “무명(無名)은 천지의 시초이고,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미다. 그러므로 ‘상무’(常無)에 있어서는 그 오묘함을 보고자 하고 ‘상유’(常有)에 있어서는 그 드러난 모습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와 ‘유’를 구분하지 않고 현묘하다 한 것은 지인이 이름을 버린 것이니, 겉으로 드러난 사물의 모습만 알고 오묘한 도를 모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 배를 타서 바다에 뜨면 전송하는 사람은 물가에 있는데 배가 가면 갈수록 그 물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멀리 떠나기 때문이다. 지금 시끌시끌한 것은 모두 명리의 물가를 떠나지 못한 자이다. 더러 능히 떠났을지라도 혹 형기(形器)를 초월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이는 또한 ‘명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미 막혀서 초월하지 못하고 마음이 사물에 얽매이면 명리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주 작은 데서부터 막대한 차이가 생기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유명이라 하는 것이 무명이라 하는 것만 못하다. 백부께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셨으니 시초에 돌아가 근본을 지키셨다 이를 만하다.

대저 텅 비고 고요한 도에 형체를 맡겨 그 소리와 행적을 숨기면 물아(物我)가 모두 하나가 되어 구분해주는 명칭이 성립하지 않는다. 움집이 처음으로 생기기 앞서 움집을 보고, 호가 처음으로 생기기 전에 호를 붙인다면 오묘하게 도와 합칠 것이다. 거두어들이고 펼치는 작용으로 말하면 지팡이를 짚고 짚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것에 달려 있다. 왼쪽의 천근석(天根石)과 오른쪽의 월굴암(月窟巖)이 모두 내 눈 앞에 있고 삼일정(三日亭)과 함청문(含淸門)과 총계봉과 석문오(石門塢)로부터 동쪽으로 방화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첩석대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품평하고 이름을 지은 곳에 하나하나 그 이름에 따라 머무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유람하다 보면 혹 백운령 밖으로 나가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대저 태시(太始)를 가지고 한 움집을 보면 한 움집이 태시이고, 태시를

66)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말이다. “故自無適有，以至於三，而況自有適有乎？無適焉，因是已。”

가지고 한 골짜기를 보면 한 골짜기가 태시이며, 태시를 가지고 한 세상을 보면 한 세상이 태시이고, 태시를 가지고 태시를 보면 태시가 태시이다. 펼쳐놓으면 삼라만상이 이름 아닌 것이 없고 거두면 일진(一眞)이 혼연하여 칭위(稱謂)가 사라지니, 오묘한가 겉으로 드러나는가? 흰가 검은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이름이 있고 무엇이 이름이 없는가? 그렇다면 무명와의 ‘무’ 자는 증감을 가지고 풀이해서는 안 되고 드러나고 은미한 사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을 「무명와 기문」으로 삼는다.<sup>67)</sup>

위 인용문은 기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김창흡은 무명의 세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절대적 진리인 도에만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창흡이 말한 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창흡은 『장자』 「제물론」의 “무로부터 유로 나아가도 삼(三)이 됨에 이르니, 하물며 유로부터 나아감이겠는가?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절대의 시(是)를 따를 뿐이다”라는 구절을 변용해서 도가 나아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인시’(因是)일 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시’가 무한하고 절대적인 도라는 해석과 일치한다. 김창흡에 의하면 절대적인 존재인 도만 이름을 초월할 수 있다.

이어서 김창흡은 『노자』의 유명과 무명의 구도를 이용하여 유명과 무

67) 金昌翁, 「無名窩記」, 『三淵集』 권24, 한국문집총간 165, 493면. “豈亦有說哉? 自其有者而言之, 則無物非名; 自其無者而言之, 則惟道超名. 自有適有, 不如自無適有; 自無適有, 不如無適, 無適之謂道也. 老子之言道, 吾有取焉, 曰: ‘無名者, 天地之始; 有名者, 萬物之母. 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徼.’ 夫混無有而玄之者, 至人之所遣名也, 知徼而不知妙則衆庶是已. 乘舟而浮於海, 送者在崖, 而逾往而不見其崖, 去之遠也. 今之囂囂, 皆不離名利之崖者也. 間能去之矣, 或不能超形器而返自然, 亦名相之爲著也. 夫既滯而不化, 有物於靈臺, 則其轉而淪乎名利, 眇忽而天淵矣, 豈不殆哉? 若是而謂之曰有名, 不如無名. 伯父之去彼取此, 其返始守宗之謂也. 夫其委形虛漠, 泐其聲迹, 物我都盧, 誰某不立. 觀室於未始有室之前, 寄號於未始有號之初, 窅乎體合希夷矣. 若乃卷舒之用, 存乎杖屨, 左天根而右月窟, 皆吾目前. 三一之爲亭也, 含清之爲門也, 叢桂之爲峰也, 石門之爲塢也. 東至于傍花溪, 西至于疊石臺, 昔之所題品, 一一依名而住. 乘是而遊, 或至出白雲嶺者有之. 蓋以太始觀一室, 一室太始, 以太始觀一谷, 一谷太始, 以太始觀一世, 一世太始, 以太始觀太始, 太始太始. 放之則萬象森然, 莫非名也; 收之則一眞渾然, 稱謂泯絕. 妙乎徼乎? 白耶黑耶? 何有何無? 何名何名不名? 是則無名之無, 未可以增減爲解, 存乎顯微之間可也. 以是爲「無名窩記」.”

명의 세계를 설명하였다. 유명의 세계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사물의 모습만 알고 오묘한 도를 모르는 명리의 세계와, 형기(形器) 즉 구체적인 세계를 초월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명상의 세계가 있다. 이 명상의 세계는 곧 김수증이 만든 유명의 세계이다. 그런데 명상에 집착하여 초월하지 못하면 마음이 사물에 얽매어 다시 명리로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유명이라 하는 것은 무명이라 하는 것만 못하다. 김수증이 유명을 버리고 무명을 취한 까닭은 이러한 위태로움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백부 김수증이 이름 있는 것을 버리고 이름 없는 것을 취한 것은 천지의 시초에 돌아가 근본을 지키는 행동이자 무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창흡은 유명과 무명의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드러나고 은미한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체용일원론의 내용과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러난 것은 작용으로서의 상을 의미하고, 은미한 것은 본체로서의 리를 의미한다. 김창흡의 이 말은 유와 무를 있음과 없음의 증감(增減)으로 이해하지 말고 형이상인 리와 형이하인 상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김창흡은 무명을 중심으로 『노자』의 유명/무명 구도를 응용해서, 이를 성리학의 본체/작용의 구도로 풀어내어 백부 김수증이 무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까닭을 밝혔다. 이를 통해 김창흡이 성리학적 시각, 유가적 시각에서 노장사상을 해석하고 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김창흡이 유·불·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상호 연관성과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융회관통을 자부했지만, 유교를 그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흡의 사상에서는 주자학이 불교와 노장사상을 통합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김창흡은 ‘주자학 일통’을 주장한 노론 엘리트로서 주자학과 다른 사상 사이에 선명한 우열 관계를 두어 정통과 정통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주의의 틀 내에서 사상적 경직성에 빠지지 않고 불교와 노장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김창흡은 주자학의 정통성을 유연한 방향으로 재정위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같은 노론 내에서 송시열 학파가 송시열을 절대화함으로써 주자학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다르다.

## 2) 송시열 절대화 비판

조선시대에는 논쟁에 따른 학문적 정통성의 획득이 바로 정치적 정통성의 획득을 의미한다.<sup>68)</sup> 당색 사이의 논쟁은 물론이고 같은 당색 내에서 학문적 정통성을 두고 다투기도 한다. 노론 사이에서 벌어진 호락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호락논쟁의 뿌리는 송시열이다. 송시열은 ‘이이-김장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인물로서, 주자학을 절대화하여 최대의 이데올로기로 삼아 조선을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sup>69)</sup>

통상적으로 김창흡은 송시열과 같이 성리학을 연구하는 노론계 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신 역시 송시열을 매우 존중했지만, 사실 두 사람이 성리학을 궁구하는 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흡은 당시의 학자들이 선유(先儒)의 학설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하고 주자학을 제대로 궁구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주자학을 제대로 궁구하지 않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더 이상 주자학을 연마하지 않으며 학자로서의 진정성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왜 이러한 비판을 했는가?

가)

의리가 무궁하다고 주자가 말했는데,<sup>70)</sup>

義理無窮朱子云,

68) 이경구, 「김창흡의 학풍과 호락논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46면 참조.

69) 이경구, 『조선, 철학의 왕국』, 서울: 푸른역사, 2018, 22~26면 참조.

70) 이 말은 『논어』 ‘무침무교장’(無諂無驕章)의 집주에 보인다. 『주자어류』 권2 2에서 주희는 이 말에 대해 “『논어집주』(論語集註)에서 ‘의리무궁’이라 한 것은, 아첨함도 없고 교만함도 없어 즐거워하고 예를 좋아함에 이르면 이것이 바로 의리가 무궁한 경지라는 말이 아니다. 절차탁마함에 정밀히 하는데도 더욱 정밀하게 해야 함을 말했을 뿐이다”(『集註』中所謂義理無窮者, 不是說無諂無驕, 至樂與好禮處, 便是義理無窮. 自是說切磋琢磨處精而益精爾)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해가 천차만별하여 매우 분분하네.	千差萬別劇紛紜.
자양(紫陽: 주자) 이후 궁격(窮格)하지 말라는	紫陽之後休窮格,
이 말이 퍼져서 사람을 가장 그르치네.	此語流傳最誤人. <sup>71)</sup>

나)	
정자의 글과 주자의 가르침이 있건만,	程書朱訓在,
갑론을박 논쟁이 끊임없네.	甲是乙非生.
어찌 정자와 주자 이후로	安在程朱後,
격물치지의 노력이 필요 없겠는가?	無勞格致精. <sup>72)</sup>

가)는 「갈역잡영」 칠언절구 제62수이고, 나)는 「갈역잡영」 오언절구 제24수이다. 먼저 가)부터 살펴보자.

가)의 제1, 2구에서 김창흡은 의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주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리를 끝까지 궁구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학문을 이렇게 궁구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주희 이후 궁리격물(窮理格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주자학을 숭배하기만 하고 격물치지의 유학 공부를 방기하고 있었다. 이 시를 통해 김창흡은 주자학만 고수하고 개인적으로 학문에 정진하지 않는 조선 학자들의 나태한 학문 태도를 비판하였다. 나)에 드러난 김창흡의 뜻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김창흡의 이러한 비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바로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다.

이는 송시열 계열 인물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이 동문인 심조(沈潮, 1694~1756)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창흡의 이 시가 우옹(尤翁: 송시열)을 겨냥한 것<sup>73)</sup>임을 밝힌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김창흡이 「갈역잡영」에서 비판한 대상이 송시열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왜 장동김문과 밀접한 정치적 관계가 있는 노론 영수 송시

71) 金昌翁, 「葛驛雜詠其六十三」,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300면.

72) 金昌翁, 「葛驛雜詠其二十四」, 『三淵集』 권15, 한국문집총간 165, 311면.

73) 韓元震, 「答沈信夫三淵集筭辨」, 『南塘集』 권15, 한국문집총간 201, 340면.  
 “『淵集』詩: ‘程書朱訓在, 甲是乙非爭. 安在程朱後, 無勞格致精.’ 此詩指尤翁也.”

열을 비판했는가? 그 현실적 맥락은 무엇인가?

송시열은 주자학만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674년 10월에 지은 『택당집』 서문(澤堂集序)과 1677년 12월 15일에 박광후(朴光後, 1637~1678)에게 답한 편지 등 여러 글에서 주자학을 절대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가)

그러나 정자(程子)·주자(朱子) 이후로 의리(義理)가 크게 밝아져서 크게는 높고 깊은 천지와 미세하게는 잠사(蠶絲)·우모(牛毛)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천명하였으니, 피사(諛辭)와 이설(異說)이 또한 그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명나라 이후로 양명(陽明: 王守仁)과 백사(白沙: 陳獻章)의 무리가 봉기(蜂起)하여 각기 비루한 학설을 내놓아 세상을 현혹시켰다. 그래서 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치가 더욱 어두워졌으니, 아무리 홍수가 산릉을 삼킨다고 할지라도 해악이 이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sup>74)</sup>

나)

대체로 정주(程朱) 이후에 성리의 설이 크게 밝혀져 더는 미진한 점이 없네. 이것을 살피지 않고 또 다른 설을 주장한다면 참으로 이른바 쓸모 없는 군더더기 말일 것이네.<sup>75)</sup>

두 인용문의 핵심은 정이·정호 형제와 주희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의리를 이미 자세히 밝혀놓았으니 그 이후 새로운 학설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자학만 추송하고 다른 학설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생각은 학문의 획일성과 절대화를 강조한다. 송시열도 평생 별다른

---

74) 宋時烈, 「澤堂集序」, 『宋子大全』 권138, 한국문집총간 112, 556면. “然程朱以後義理大明, 大而天地高深, 微而蠶牛絲毛, 無不闡發. 則諛辭異說, 亦可以止矣. 而自皇朝以後, 如陽明、白沙輩蜂起蠅鳴, 各自眩售. 故書益多而理益晦, 雖洪水懷襄, 而其害蔑以加矣.” 인용문의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했다. 이하 동일.

75) 宋時烈, 「答朴士述丁巳十二月十五日」, 『宋子大全』 권116, 한국문집총간 156면. “大抵程朱以後, 性理之說大明, 而無復餘蘊. 於此不察, 而復有他說, 則眞所謂無用之贅言也.”

학설을 내세우지 않고 주희의 이론을 충실하게 따랐다.<sup>76)</sup> 이런 주장을 내세웠던 까닭은 윤희(尹鑄, 1617~1680)와 허목(許穆, 1595~1682)을 비롯한 남인 학자들이 이설을 주장한 가운데 그들의 학문적 태도를 비판하고 정통 유학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sup>77)</sup> 주자학의 교조화는 사상행위와 학문행위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sup>78)</sup> 무엇보다 호론계 문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가장 컸다.

이는 1703년 4월 17일 박세당 사문시비 사건에서 관학 유생 홍계적(洪啓迪, 1680~1722) 등이 송시열을 무욕한 박세당을 배척한 상소문,<sup>79)</sup> 1709년 2월 16일 성균관 재임 이병정(李秉鼎) 등이 최석정이 지은 『예기유편』에 대해 논박한 상소문,<sup>80)</sup> 1716년 박광일(朴光一, 1655~1723)이 호남유생을 대신하여 『가곡원류』 서문으로 문제시된 권상하를 위해 신변한 상소문,<sup>81)</sup> 1748년 8월 5일 윤봉구(尹鳳九, 1681~1767)의 아우 윤봉오(尹鳳五, 1688~1769)가 경상도 유생 권태우(權泰佑) 등 1500인을 대신하여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묘 종향을 칭한 상소문<sup>82)</sup>에서 모두 송시열의

76) 이경구, 앞의 글, 1995, 41면 참조.

77) 한원진이 심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상적 비판은 역시 당파적 입장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단과 정통의 구분에는 절로 정치적 함의가 들어가 있다. 노론 측에서는 허목을 비롯한 남인의 학설이 다 이단이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남인 측에서는 노론 학문의 지표인 이이의 학문을 이단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韓元震, 「答沈信夫三淵集筭辨」, 『南塘集』 권15, 한국문집총간 201, 340면. “尤翁嘗言‘程朱以後義理大明, 更無未發之理, 學者無難於講明, 但當尊信服習, 不可別生異見.’ 此蓋當時賊鑄倡言排朱, 而歸服者衆. 故爲此懼而言之耳.”;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43호, 한국실학학회, 2022, 219~233면 참조.

78) 박희병, 『범애와 평등』, 파주: 돌베개, 2013, 231~232면 참조.

79) 『숙종실록』 29년 4월 17일 임진 기사.

80) 『숙종실록』 35년 2월 16일 무오 기사.

81) 朴光一, 「代湖南儒生伸辨遂菴疏丙申」, 『遜齋集』 권2, 한국문집총간 171, 27면. “孝廟朝有臣李枝茂進論學冊子, 孝廟示宋時烈曰: ‘此說得無悖於朱子之說耶?’ 時烈對曰: ‘朱子之後, 義理大明. 後此而有著述者, 皆剩語, 或違於朱子則乃異說也.’ 孝廟善之.”

82) 尹鳳五, 「請兩宋文正公尤菴同春從享疏代慶尙道儒生權泰佑等疏, 錄一千五百人」, 『石門集』 권4, 한국문집총간 속 69, 449면. “而至於著述, 則嘗曰: ‘自朱子以後, 義理大明, 靡有餘蘊, 不必別爲立說.’ 其所用工, 專在於闡發程朱之旨, 故『二程書分類』、『語類小分』、『問義通攷』、『心經釋疑』等書, 皆其所編. 若『朱子大全筭疑』,

이 말을 인용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홍계적, 이병정, 박광일, 윤봉오 등 송시열 계열의 인물들이 상소문에서 송시열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통해 노론계, 특히 송시열 계열에서 송시열의 학문적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국가적으로 송시열의 정치적 권위가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상소문을 올린 시점은 숙종 대 후반기인 18세기 초이다. 이는 노소론 권력 투쟁에서 노론계의 이념적 지도자인 송시열의 권위가 강고해지고 송시열이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된 지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주자학을 절대화·교조화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이 발휘한 역할과 영향력이 컸다. 자기 학파 학문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권상하를 비롯한 호중(湖中) 노론들이 송시열을 절대화하는 경향도 점차 강해진다. 이렇게 한 결과 그들은 조선의 학술계에서 학문의 획일화, 학자 개성의 말살, 학문적 진정성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참된 학문을 궁구하는 공부를 방기하고 노론의 이념적 지도자인 송시열의 주장만 믿고 주자학을 교조화하는 데 힘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학문적 분위기에서 서울에 살고 있던 노론 김창흡은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송시열과 그 문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김창흡의 비판은 1708년 지은 「중씨 농암선생 제문」(祭仲氏農巖先生文)에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주자 이후로 의리가 크게 밝아져 더 이상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자가 있는데, 이런 말은 사람들의 안목을 어둡게 하기 쉽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주자 이후에 학문 하는 자는 과연 약례(約禮)만 있고 박문(博文)은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나처럼 공부하지 않는다면 나의 경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sup>83)</sup>라는 것은 또 누가 말한 것입니까. 중씨께서는 때면

---

則平生精力，尤在於此。使其微奧之義，一字一句，無不著明。雖初學蒙蔽之士，亦能曉然知其歸趣，莫不學朱子之學，而尊朱子之道。則其有功斯文，嘉惠後學，又豈不廣且博也？”

83) 이 말은 『주자어류』 권14에 보인다. 『대학』 공부에 대해 주희가 “내가 한 공부를 나와 똑같이 하지 않는다면 나의 경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 말한 적이 있다. 黎靖德 편찬, 『大學』一, 『朱子語類』 권14. “又久之，自有一部『大學』在我胸中，而正經亦不用矣。然不用某許多工夫，亦看某底不出。不用聖賢許



나에게 이에 관해 언급하면서 세상 유자들의 고루한 식견에 통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 주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오도(吾道)의 학통이 우리 동국으로 들어와 황무지가 개척되자 오랑캐의 고루한 풍속이 약간 바뀌었으며, 주자의 학문에 대해 도산(陶山: 이황)이 깊이 연구하고 석담(石潭: 이이)이 발전시킨 것은 바뀐 풍속으로 인해 생긴 뛰어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는 무궁하고 문건은 한계가 있는 법이므로 왕왕 땀질한 곳에서 틈이 생기고 오묘한 이치를 펼쳐서 밝히려고 하나<sup>84)</sup> 도리어 본의를 어둡게 만들기도 하였으니, 도가 밝아지기 어려움이 어찌 끝날 기약이 있겠습니까.

한편,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니 비뚤어지거나 올바로 되는 것이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사이에 좌우되고, 어두워지기 쉬운 것이 눈이니 눈동자를 돌리는 사이에 백태가 납니다. 이 때문에 혹은 성현의 말씀을 험박하여 자기의 뜻에 맞추기도 하고 혹은 남북의 갈림길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 마음과 눈이 허물이 된 것입니다. 요행히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면할 경우에는 또 마음이 흡족하고 입이 무거워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니, 이는 곧 연평(延平: 이통)의 논변이 회옹(晦翁)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한 이유<sup>85)</sup>이며 자후(子厚: 장재)의 필력이 명도(明道: 정호)의 경의심을 일으킨 이유<sup>86)</sup>입니다.<sup>87)</sup>

多工夫，亦看聖賢底不出。”

84) 이 말은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서 “이단을 배척하여 불로의 도를 물리치고, 틈 새는 곳을 땀질하고, 오묘한 이치를 넓혀 밝혔다”(砥排異端，攘斥佛老。補苴罅漏，張皇幽眇)라고 한 데서 가져온 것이다.

85) 이는 주희가 스승 이통의 ‘미발구중’(未發求中) 사상을 비판한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중용』에는 “희노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고 하고 발해서 모두 중절하면 화(和)라 이른다”는 말이 보인다. 이통은 중일토록 고요함[靜] 속에서 미발(未發)인 중(中)의 기상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주희는 스승 이통의 이러한 주장이 불교에 빠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장재의 ‘심통성정설’(心統性情說)을 흡수하면서 ‘경’(敬)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설’(中和說)을 발전시켰다. 黎靖德 편찬, 「羅氏門人」, 『朱子語類』 권130. “或問：‘延平先生何故驗於喜怒哀樂未發之前，而求所謂中？’曰：‘只是要見氣象。’陳後之曰：‘持守良久，亦可見未發氣象？’曰：‘延平即是此意。若一向這裏，又差從釋氏去。’”

86) 이 고사는 『성리대전』(性理大全) 권3에 보인다. 정자(程子: 정호程顥)가 『서명』(西銘)에 대해 내가 그 뜻을 터득했지만, 자후(子厚: 장재의 자)와 같은 글 솜씨가 없어 이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한 적 있다. 胡廣, 「通書二」, 『性理大全』 권3, 清文淵閣四庫全書本. “程子亦言「西銘」吾得其意，但無子厚筆力不能

첫 부분에서 김창흡은 주자학을 믿기만 하고 격물치지의 학문을 하지 않는 송시열의 주장의 해로움을 비판하였다. 그 비판의 근거는 바로 주희의 『대학』(大學) 공부설이다. 『대학』 공부에 대해서 주희는 “나처럼 공부하지 않는다면 나의 경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에는 격물치지하는 주희의 학문 태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김창흡이 이 말을 거론한 까닭은 주희의 학문을 그렇게 믿고 고수하면서 왜 주희의 이러한 학문 태도는 따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송시열 계열 문도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김창흡의 이러한 관점은 중세 김창협이 이전부터 표명하던 것이다.<sup>88)</sup> 주자학을 궁구하는 태도에서 김창협 형제를 비롯한 서울 노론은 호중 노론과 일찍부터 이미 갈라졌다.

이어서 김창흡은 다시 조선 성리학의 대표 인물 이황(李滉)과 이이(李珣)의 학문을 논하면서 의리는 무궁하기 때문에 학문의 도를 추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선현의 학문이 무조건 옳다고 여겨 그들의 학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호중 노론의 학문 태도를 비판하는 김창흡의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김창흡의 비판 근거는 스

作耳.”

87) 金昌翁, 「祭仲氏農巖先生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02~103면. “有謂‘朱子以後, 義理大明, 無待講研’, 此言易瞎人眼目. 若如是說, 則爲學於朱子後者, 其將有約而無博乎? ‘無某工夫, 看某底不出’, 又誰說也. 仲氏每與弟言此, 未嘗不痛惋於世儒之陋也. 噫! 武夷邈矣. 吾道其東, 天荒既破, 夷陋稍革, 陶山之沈潛, 石潭之開發, 由此其選也. 然義理無窮, 聞見有局, 往往罅漏從補苴而生出, 張皇反使之幽曖, 道之難明, 豈有了期乎? 抑又有難者, 難平者心, 欵正在於俯仰; 易眚者目, 障翳生於眇昧. 或驅脅聖賢之言, 以從己意; 或迷錯朔南之歧, 以爲到頭. 此皆心目爲咎. 幸而得免其錯解, 則又意滿口重, 不能明白說出. 此延平辨論, 所以被短於晦翁; 子厚筆力, 所以見畏於明道者也.” 인용문의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

88) 金昌協, 「內篇一」, 『雜識』, 『農巖集』 권31, 한국문집총간 162, 330면. “世之儒者, 每言朱子後義理大明, 學者事半功倍. 此言似之而實不然也. 朱子定著經說, 明白的確, 百世不刊. 而其『大全』問答, 發明爲學工夫次序, 與道理精粗本末, 又皆詳博周盡, 無復餘蘊. 學者但依文熟誦, 按本力行不失儒者路脉可也. 若其裏面精微, 多少曲折, 苟不用朱子當日工夫, 亦何由深造自得? 朱子嘗論『大學章句』曰: ‘不用某底工, 看某底不出.’ 其意正如是耳. 今不識此意, 只據見成說話, 用得二三分工夫, 便謂朱子之堂室可升而入, 則豈不遠矣哉?”

승 이통(李侗)의 학설에 대한 주희의 비판적 태도와 장재(張載)의 글솜씨에 대한 정호(程顥)의 탄복이다. 이통은 제자 주희에게 고요함 속에서 미발인 ‘중’(中)의 기상을 보라고 권했는데, 주희는 이에 대해 불교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중에 ‘주정’(主靜)이 아닌 ‘주경’(主敬)의 ‘중화설’(中和說)을 세웠다. 이 사례를 통해 송대 이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도 자기 스승의 학설을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호와 장재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다. 정호는 장재가 지은 『서명』(西銘)을 보고서 자신은 그와 같은 글을 지을 수 없다고 경탄했다. 이 사례를 통해 두 사람이 학문적으로는 이견이 있었으나 정호가 장재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하고 경외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호중 노론들은 자기 학파 학문의 정통성 내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송시열의 주장만을 따르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더 이상 격물치지하여 정진하지 않으며 학문에 대한 진정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김창흡이 주희와 정호의 사례를 논하면서 그들의 학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김창흡의 이 글이 나오자 송시열 계열 인물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킨 듯하다. 특히 1709년 『농암집』의 간행으로 이 제문이 읽힌 뒤에 일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1710년 송시열의 수제자 권상하(權尙夏)가 문인 이간(李柬, 1677~1727)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삼연(三淵)이 지은 삼주(三洲: 김창협)의 제문을 선생께서는 읽으셨습니까? 그가 퇴계(退溪)선생과 율곡(栗谷)선생을 논한 곳은 불공(不恭)한 것을 끝내 면치 못했습니다. 이 어른의 견해와 언설이 이와 같이 매우 추하고 어긋날 줄 몰랐습니다.

삼주 어른께서 도달하신 경지는 진실로 말학(末學)으로서 감히 함부로 의론할 바가 아니지만, 주자께서 부자(夫子: 공자)의 성스러움을 찬양할 때 다만 요순보다 훨씬 훌륭하시다<sup>89)</sup>고 말씀했을 뿐이지, 일찍이 요순을 배척하여 낮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삼주 어른의 실체가 진실로 두 선생보다 어진 바가 있다면 다만 퇴계와 율곡보다 훨씬 훌륭하시다고 말하면 될 뿐인데, 어찌 굳이 퇴계, 율곡을 비루하고 지리멸렬하다고 폄하한 뒤

89) 『맹자』 「공손추」(公孫丑) 상(上)에, “나[재아幸我]로서 부자를 관찰하건대 요순보다 나움이 크시다”(以予觀於夫子 賢於堯舜遠矣)라는 구절이 있다.

에 삼주 어른을 그 위로 놓아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퇴계 선생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은 진실로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율곡 선생께서는 올바른 견해 가운데 하나의 모자란 부분으로만 여기셨을 뿐이지, 퇴계 선생을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이치를 변론하신 바는 함께 행해져 어긋남이 없다고 이를 만합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퇴계 선생을 능멸하고 압도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율곡 선생의 이기설(理氣說)에 대해 선생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선현(先賢)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으니, 성인이 다시 나오시더라도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께서 어찌 헛되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백세의 인물을 크게 속이시겠습니까? 후대 사람이 아무리 의기양양하여 비록 높은 지혜와 독보적 식견으로 자처하며 거만하게 단번에 전고(前古)를 뛰어넘으려 하더라도 다만 그 책만 읽기만 하고 그 사람을 알지 않으면 됩니까?

(…)

그(삼연)가 “오랑캐의 고루한 풍속이 약간 바뀌었으며, 주자의 학문에 대해 도산(陶山: 이황)이 깊이 연구하고 석담(石潭: 이이)이 발전시킨 것은 바뀐 풍속으로 인해 생긴 뛰어난 경우”라고 말한 것보다 비루한 것이 없을 것이고, “의리는 무궁하고 문견은 한계가 있는 법이므로 왕왕 땀질한 곳에서 틈이 생기고 오묘한 이치를 펼쳐서 밝히려고 하나 도리어 본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으니, 도가 밝아지기 어려움이 어찌 끝날 기약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보다 지리멸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폄하함을 대놓고 더하고, 도를 밝히지 못했다고 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도를 더럽힌다고 단정했으니 어찌 뜻이 과도하게 높고 말이 너무 심하단 말입니까?90)

90) 李東, 「上滌菴先生庚寅」, 『巍巖遺稿』 권4, 한국문집총간 190, 300면. “三洲之祭三洲文, 先生得覽否? 其論退、栗二先生處, 終未免大段不恭. 不謂此丈之見識言說, 如是其非常醜差也. 洲丈所造, 固非末學之所敢輕議, 而但贊夫子之聖者, 只得曰‘賢於堯舜遠矣’, 未嘗絀堯舜而卑之. 今洲丈實際, 果有賢於二先生者, 則直亦曰‘賢於退、栗遠矣’可也, 何必絀退、栗於卑陋滅裂而後, 廼引於其上也. 退陶先生互發之論, 誠有所未安者, 而栗谷先生不過以爲正見之一累, 其所尊畏辨明, 可謂並行而不悖矣. 何嘗有一毫凌駕壓倒底意思也? 況栗谷先生理氣說, 先生自謂: ‘發前賢所未發, 聖人復起, 不易斯言.’ 先生豈虛妄自高厚誣百世之人哉? 後人意氣, 雖自處以高智獨識, 居然欲跨越前古, 而但讀其書, 不知其人可乎? (….) 其曰‘夷陋稍革, 而陶山、石潭, 由此其選也’者, 是卑陋之之甚也. 其曰‘聞見有局, 往往罅漏從補苴生出, 張皇反使之幽曖之, 道之難明, 豈有了期乎?’者, 是滅裂之之甚

위 인용문은 1710년 이간이 스승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간은 충청도 온양 출신으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중의 한 명으로, 1707년에 권상하의 제자가 된 호중 노론 인물이다.<sup>91)</sup>

편지의 첫부분에서 이간은 김창흡이 퇴계와 율곡의 학술을 비판하면서 중씨 김창협(중씨)의 학문적 성취를 평가하는 행위를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김창흡의 행위 자체가 선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어서 율곡이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지만 퇴계를 능멸하지 않고 존중한 사례와 율곡의 이기설이 확고한 학설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선현과 그 학술에 대한 김창흡의 불공(不恭)한 태도를 다시 지적하고 김창흡의 식견이 비루하고 지리멸렬하다고 통탄하였다.

김창흡은 김창협(중씨)의 제문에서 학술사적 맥락에서 이황과 이이의 학술을 논하면서 중씨의 학문적 성취를 평가했는데, 김창흡의 이러한 학술적 담론에 대해 이간은 선현과 그 학문을 경외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간의 비판 편지에 권상하가 1710년 8월에 답장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익(子益: 김창흡의 자)의 문자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보여준 문장을 보니 해괴함을 이기지 못하겠네. 그쪽이 영특한 재능으로 평소 언의(言議)가 당당해서 늘 높은 식견이 있는데, 견해와 식견이 미혹되고 어긋남이 이러한 지경까지 이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으니, 매우 애석하게 여길 만하네. 고명의 견해는 분석이 명쾌하니 나로 하여금 공경하고 심복하게 하네.<sup>92)</sup>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는 김창흡에 대한 이간의 비판에 몹시 동의

---

也。噫! 不止於無所尊畏，而必顯加歎貶。不但謂不能明道，而必勸以亂道，何意之過高而辭之太深也?”

91) 이간에 대한 정리는 이경구, 앞의 책, 38~53면 참조.

92) 權尙夏, 「答李公舉庚寅八月」, 『寒水齋集』 권13, 한국문집총간 150, 259~260면. “子益文字, 所未曾聞, 今以來示中語句觀之, 不勝駭怪. 渠以英才, 平日言議堂堂, 常有過高之慮, 不料見識之迷錯一至於此, 殊可惜也. 高明之見, 剖破明快, 令人敬服.”

하였다. 권상하는 송시열이 죽은 뒤 호중 노론을 대표하는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생각은 곧 호중 노론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권상하를 비롯한 호중 노론은 송시열의 학설을 확고히 따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자학과 이이-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지는 학설만 따랐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계열 학문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송시열을 비판하고 선현의 학설에 경외심이 없는 김창흡의 학문 태도를 몹시 비판했다. 이들간의 관계는 송시열계 인물과 학술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했던 김창협이 죽은 뒤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물론 논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자학의 교조화와 사문 문제로 김창흡과 권상하 사이에 학문적 분기가 발생했고, 서울 노론과 호중 노론 사이에도 분리의 양상이 이미 드러났다. 권상하를 비롯한 호중 노론은 이이→김장생 학통을 이어받은 송시열이 주장한 주자학의 절대화와 교조화를 지지하였다. 반면 학문적 진정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학문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김창흡을 비롯한 서울 노론은 이에 반대했다. 김창흡에 의하면 주자학을 믿되, 선현의 학설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내세워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창흡은 선현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호중 노론의 비판에 대해 재비판하였다. 재비판의 핵심은 선현을 경외하는 폐단과 참된 진리를 추구할 필요성이다.<sup>93)</sup> 이는 1719년 이후 지은 중씨의 묘지명,<sup>94)</sup> 1720년 5월경 송암(松巖) 이재형(李載亨)에게 보낸 편지, 1721년 8월 은파(隱坡) 신명정(申命鼎, 1664~1718)의 『『은파시고』 서문』(隱坡詩稿序)에서 잘 확인된다. 이 글들을 순서대로 인용하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93) 이 무렵(1717)에 인물론 논쟁도 점차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김창흡의 재비판은 인물론 논쟁과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다. 金昌翁, 「答李參奉載亨」,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396면. “蓋洛中有五常之稟人物, 有同異底新論, 出自權遂菴. 鄙輩只信『中庸』首章註而不從新論矣.”

94) 묘지명을 지을 무렵 김창협의 사자 김원행이 이미 진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묘지명의 작성 시기는 1719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다. 金昌翁, 「仲氏農巖先生墓誌銘」, 『三淵集』 권27, 한국문집총간 166, 15면. “先生取從子濟謙子元行爲嗣, 今進士.”; 김경희, 『『미호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222면 참조.

그리고 의리가 집약된 문제를 만나서는 분석할 점이 털끝처럼 미세하면 서도 관계된 것이 중대하였기에, 비록 선유와 선배들의 정설(定說)이 이미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거침 없이 논변해 나가 그 잘잘못을 따지며 이르기, “이것은 천하의 공변된 이치이니 떠받들고 감싸 주기만 하는 것은 이른바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이르기, “주자(朱子)처럼 공부 하지 않으면 주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자의 뒤 시대에 태어났기에 자신이 직접 사물을 탐구하여 이치를 궁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세속 유자(儒者)들이 자신의 태만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이니 그 구차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95)</sup>

위 인용문은 「중씨 농암선생 묘지명」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김창흡은 의리를 궁구하는 김창협 의 학문적 진실성을 먼저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 리 관련 문제라면 비록 다른 사람의 눈에 이미 불변의 진리로 여겨지는 선유나 선배의 정설(定說)이더라도 반드시 그 득실과 이해를 따지고 합리적인 답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다른 사람’은 앞서 언급한 권상하와 이간을 비롯한 호중 유림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불변의 ‘정설’을 따르기만 한다. 이것은 스승의 학설과 주장을 고수하고 진지한 학문을 하지 않는 송시열 계열 문도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반면 중씨 김창협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선유의 정설을 맹신하지 않고 진지한 학문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김창흡은 다음으로 다시 주희의 『대학』 공부 설을 인용하여 주희의 학문적 경지에 이르려면 주희처럼 학문을 궁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스승 송시열의 학설을 추송하기만 하고 학문을 닦지 않는 태만한 송시열 계열 문도의 행위를 풍자했다. 김창흡의 이러한 비판과 풍자는 이재형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95) 金昌翁, 「仲氏農巖先生墓誌銘」, 『三淵集』 권27, 한국문집총간 166, 16면. “如遇義理肯綮, 其辨在毫忽而關係者大, 雖先儒前輩, 已有定說, 衆以爲金石不刊, 而必向前廝殺, 勘究其得失曰: ‘此天下之公理, 尊畏周旋, 亦非所謂求是也.’ 又嘗謂: ‘無朱子工夫, 看朱子不出.’ 以爲生於其後, 不勞窮格者, 乃世儒自怠之說, 亦見其苟矣.”

지금 허위(虛僞)의 폐단은 유림(儒林)에서 더욱 심합니다. 다들 다만 사문(師門)을 위해 서로 다투고 서원 안치 여부를 침탈하는 것을 능사로 여길 뿐, 진심으로 학문하는 자는 잘 없습니다. 이동(異同)을 강론하고 평가할 적에 마음을 비운 채 가려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집스레 자기의 스승이 거칠게 만든 초본을 금석지전(金石之典)으로 삼아 번갈아 간행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스승이 정설(定說)을 두셨는데 어찌 감히 스승의 뜻을 어기겠는가”라고 합니다.

의리가 공변된 물건이라는 것은 고급과 피차가 없으니 오직 옳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선배들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의리가 있는 곳이라면 구차히 따르고 억지로 부합하려 해서 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sup>96)</sup>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sup>97)</sup> 또 말씀하시길, “눈을 크게 떠서 관찰하고 입을 크게 벌려 강론해서 3일 된 신부(新婦)의 모양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sup>98)</sup>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찌 장차 주자의 가르침을 버리려 합니까? 참으로 기이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sup>99)</sup>

위 인용문은 1720년 5월경에 이재형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편지

96) 이 말은 심숙회(沈叔晦)에게 답한 편지에 보인다. 朱熹, 「答沈叔晦」, 『晦庵集』 권53. “近日說經, 多有此弊. 蓋已看得本指不曾分明, 又著一尊畏前輩, 不敢違異之心, 便覺左右顧瞻, 動皆窒礙. 只得曲意周旋, 更不復敢著實理會義理是非文意當否矣. 夫尊畏前輩, 謙遜長厚, 豈非美事? 然此處才有偏重, 便成病痛, 學者不可不知也. 又非義襲而取之句內, 亦未見外面尋義理之意. 請更詳之橫渠先生言觀書有疑, 當且濯去舊見, 以來新意. 此法最妙.”

97) 심숙회에게 답한 편지 이외에 주희는 여자약(呂子約)에게 답한 편지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朱熹, 「答呂子約」, 『晦庵集』 권47, 四部叢刊景明嘉靖本.

98) 朱熹, 「答葉正則」, 『晦庵集』 권56, 四部叢刊景明嘉靖本. “彼此盡情吐露, 尋一箇是處, 大家講究到底, 大開眼看觀, 大開口說話, 分明去取, 直截剖判, 不須得如此遮前掩後, 似說不說, 做三日新婦子模樣, 不亦快哉?”

99) 金昌翁, 「答李參奉」,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396~397면. “今日虛僞之弊, 在儒林尤甚. 只以各競師門凌奪俎豆爲能, 而實心爲學, 寥寥乎無聞. 至於講評同異之際, 未嘗虛心擇從, 而硬把其師之粗率草本, 定爲金石之典, 遞相印布曰: ‘吾師有定說, 曷敢有越厥志?’ 殊不知義理公物, 無古今無彼此, 惟是之求耳. 朱子嘗曰: ‘尊畏前輩, 豈非美事? 而義理所在, 不可苟從強合以傷體面.’ 若是言之者非一. 又曰: ‘大開眼看觀, 大開口講討, 不作三日新婦模樣爲快.’ 今日主師說者, 其將弁髦朱子訓乎? 其可怪已! 其可慨已!”



에서 김창흡은 호중 노론을 비롯한 조선 유림의 두 가지 폐단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진심으로 학문을 하지 않고 사문을 위해서 다투기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비를 따지지 않고 그저 스승의 주장을 금석지전(金石之典)으로 삼아 고수하면서 의리가 공변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적은 「중씨 농암선생 묘지명」에서 비판한 정설에 대한 무분별한 추송과 진지한 학문적 태도의 상실과 통한다.

숙종 대 후반기에 노론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노론의 지도자 송시열에 대한 추송의 정도도 깊어졌다. 이러한 추송은 저절로 학문으로 이어진다. 송시열 절대화 문제를 둘러싸고 호중 노론은 김창흡을 비롯한 서울 노론과 싸우기도 했다. 호중 노론은 스승의 학설을 더욱 강고히 믿고 따르기만 했다. 당시 권상하를 비롯한 호중 노론은 송시열의 문묘 종향 문제를 두고 상소문을 여러 번 올렸다.<sup>100)</sup> 문묘 종향은 자기 학파의 정통성,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그들의 행위를 허위(虛僞)의 폐단이라고 규정했다. 김창흡은 이 글에서도 “의리가 있는 곳이라면 선배를 경외하고 선배의 학설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주희의 발언, “깊게 관찰하고 강론함으로써 학문을 정진한다”는 주희의 언급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주자학과 사설(師說)을 고수하기만 하고 참된 의리를 궁구하지 않는 송시열 계열 문도의 태도를 비판했다.

의리는 공변된 물건이라 선배를 존경한다는 이유로 우물쭈물하며 진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망령되이 말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못마땅하다는 반응이 있었으니 <양춘백설가>(陽春白雪歌)<sup>101)</sup>를 따라 부를 수 있

100) 이는 권상하가 1715년 4월에 박광일(朴光一, 1655~1723)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갈역잡영」에도 관련 지적이 보인다. 權尙夏, 「答朴士元乙未四月」, 『寒水齋集』 권10, 한국문집총간 150, 194면. “同春先生從祀文廟之疏, 數十年前起於湖西, 其後更不發矣. 尤菴先生從享之議, 亦屢發屢止. 蓋沙溪先生猶未準請, 今又并舉, 事體未安故也. 愚意與高見參差矣. 此時何時而輕發大論乎? 曾聞沙溪從祀之論, 先生挽止多年, 可見十分慎重之意也.”; 金昌翁, 「葛驛雜詠其六十」,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300면. “四賢從祀議方張, 獨有陶山慨歎長. 所惜羣兒無遠慮, 恐留疵貶等文昌.”

101) <양춘백설가>는 격조가 매우 고상한 노래를 가리키는데, 곡조가 높을수록 그에 화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송옥(宋玉)의 「대초왕문」

는 수준의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 그런데 백응(伯凝: 신명정의 자)은 이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비난에 대해 해명해주었으니 어찌 그리도 초탈하단 말인가?<sup>102)</sup>

위 인용문은 1721년 8월에 지은 「『은파유고』 서문」의 일부이다. 이 서문의 주제 역시 앞서 살펴본 인용문들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숙종 대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호중 노론 계열은 송시열의 권위를 추승함에 따라 송시열의 학문적 주장을 자기의 학문적 신조처럼 믿었다. 이로 인해 진지하고 진취적인 학문 태도를 상실하고 사문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 다투기만 했다. 김창흡은 이렇게 경직된 학문적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주자학을 궁구하는 참된 태도가 무엇인지, 의리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창흡의 비판에 대해 권상하를 비롯한 호중 노론은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따라서 김창흡을 비롯한 서울 노론과 권상하를 비롯한 호중 노론 사이에는 주자학을 제대로 궁구하는지의 여부, 사설을 단단히 지키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낙론과 호론이 형성되기 직전에 서울 노론과 호중 노론은 송시열 절대화 문제를 두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는데, 이러한 갈등이 호락논쟁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창흡의 주장은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비롯한 조선후기 낙론계 인물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sup>103)</sup> 이는 홍직필이 1806년 2월 상순에 이봉수(李鳳秀, 1778~1852)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난다.

지난번 가르침에 “삼주(三洲)의 묘지명(墓誌銘)에 ‘주자의 말씀이라고 해도 구차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농암

---

(對楚王問)에 이 고사가 보인다. 여기서는 김창흡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102) 金昌翁, 「隱坡詩稿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8면. “竊妄謂義理公物, 未可以尊畏前輩, 依違失真. 斯言出口, 動遭睚眦. 甚矣, <陽春>之寡和! 而伯凝於此不惟不聽瑩, 乃爲之解嘲, 一何脫洒.”

103) 홍직필은 김창흡의 화이관과 정통론을 비판했지만, 주자학에 대한 태도는 김창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관과 정통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農巖)과 삼연(三淵) 두 현자의 큰 안목이고 큰 역량입니다.

우암(尤菴)의 시대에 올바른 학문이 쇠미해지자, 윤희(尹鑣)와 허목(許穆)의 무리가 그 사이에 사설(邪說)을 창도하고 자기 무리들을 선동하고 따르게 하였는데, 우암께서,

“정자와 주자 이래로 의리가 크게 밝아져서 더 이상 발명되지 못한 깊은 뜻이 없으니, 다만 마땅히 이를 높이고 믿으며 가슴에 새기고 익혀야 할 뿐, 별도로 이견(異見)을 내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들을 물리쳤으니, 참으로 시의에 적절한 도(道)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왕왕 끝이곧대로 지키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다시는 학문을 강마(講磨)하고 연구하지 아니하여,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탄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삼연과 농암 두 현자께서 “사람의 안목을 쉽게 멀게 하니, 세상 유자들의 고루한 식견에 통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이어받은 병폐를 변혁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참으로 훌륭한 의론입니다.

삼연(三淵) 어른의 시에, “정자의 책과 주자의 가르침이 남아 있건만 / 사람들은 갑론을박하며 다투고 있네 / 어찌 정자와 주자 이후로 /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노력이 필요없겠는가”라고 하였고,

또, “여러 성인의 은미한 말씀 주자가 이미 풀었는데 / 주자의 주석은 그 누구의 손에 맡길 건가 / 마음으로부터 연구하는 것 싫어하여 / 이제는 격물치지 할 것 없다고 말하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들은 마땅히 농암에게 올린 제문(祭文), 묘지명(墓誌銘)과 함께 서로 발명되니, 그 말씀이 매우 간절하여 천고(千古)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웁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마땅히 정자와 주자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sup>104)</sup>

104) 洪直弼, 「答李子岡丙戌二月上旬」, 『梅山集』 권10, 한국문집총간 295, 246면. “向教‘三淵墓誌, 於朱子亦不苟爲應諾云’者, 是農、淵兩賢, 大眼目大力量也. 尤翁之世, 正學衰微, 而鑣、穆輩倡邪說於其間, 鼓其衆而從之. 尤翁以爲程朱以還, 義理大明, 更無未發之蘊. 但當尊信服習, 不可別生異見, 舍性命而闢之, 卽隨時制宜之道也. 篤信是說者, 往往泥守印板, 不復講研, 致端拱無爲之歎. 兩賢所謂‘易瞎人眼目, 而痛恨於世儒之陋’者, 亦出於承弊易變, 眞至論也. 淵翁詩亦嘗有‘程書朱訓在, 甲是乙非爭. 安在程朱後, 無勞格致精.’ 又云: ‘羣聖微言朱子解, 朱子註脚付諸誰. 懶從心上加研究, 却謂今無可致知.’ 此詩當與「祭農巖文」及「墓銘」互相發明. 而其言殷切, 警動千古, 如此者當爲洛、建純臣也.” 인용문의 번역은

위 인용문은 홍직필이 이봉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봉수가 김창흡이 지은 김창협 의 묘지명에 나오는 “주자의 말씀이라고 해도 구차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두고 홍직필에게 자문했던 듯하다. 이에 홍직필은 먼저 송시열이 주자학만 궁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까닭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홍직필은 송시열의 주장이 나온 뒤에 후학들이 더 이상 학문을 연마하지 않고 주자학만 지키고 옛 학문만 고수하는 폐단이 생겼다는 사실을 밝혔고, 경직되고 있었던 노론의 학풍을 목도한 김창협·김창흡 형제가 그들의 고루한 학문 태도를 아낌없이 비판했다고 말했다. 홍직필은 주자학만 고수하는 폐단을 풍자한 김창흡의 「갈역잡영」시 두 수를 들면서 김창흡이 지은 김창협의 제문 및 묘지명과 아울러 보아야 김창흡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창흡의 주장과 뜻이 천고에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니, 김창협 형제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이 형제와 주희의 학문을 충실히 궁구하는 자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김창흡은 송시열 이래로 노론, 특히 호중 노론에서 주자학을 제대로 궁구하지 않고 사실만 따르기만 하는 학문적 폐단을 통렬히 비판하고 진정한 의리를 추구하기 위해 선현의 학설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창흡의 주장은 조선후기의 낙론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홍직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김창흡은 왜 송시열 계열 문인들이 송시열을 절대화하는 것을 비판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흡은 「삼벽당 기문」에서 부친 김수항과 송시열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했는데, 이제와서 송시열의 절대화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김창흡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 유연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노론의 해계모니를 유지할 전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밝혔듯이 김창흡은 주자학 일통을 주장하면서도 도가, 불교사상 역시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사상적으로 유연했기 때문에 김창흡은 이정

---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했다.

형제와 주희의 설을 절대화하거나 맹신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경전과 역사적 사실과 연결 지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면서 그들의 설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sup>105)</sup> 그가 주자학과 사설을 절대화·교조화하는 송시열 계열 문인의 학문 태도를 비판하게 된 중요한 내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김창흡이 송시열의 절대화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시기는 노소론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이 매우 치열했던 숙종 후반기이다. 사설만 고수하고 주자학을 제대로 궁구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자기 당파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불리할 것이다. 박세당 사문시비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자학을 제대로 연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반대 정파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까? 헤게모니 투쟁에서 노론 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론 엘리트 김창흡은 송시열 절대화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창흡의 사상적 성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노론 엘리트로서 김창흡은 사상적 모색을 통해 정통 사상을 재정위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다른 정파와의 차별화를 통해 노론이 이미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노론 내부로 향하는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 노론 내의 사상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노론은 사상적·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그 사상적 권위에 의지하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노론의 헤게모니를 더욱 튼튼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노론 내부에서 송시열 계열과 차별화함으로써 서울 노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노론이 경직화되는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헤게모니를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 네 번째,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융통성이 필요하다. 경직된 이념만으

105) 이정 형제나 주희에 대한 김창흡의 비판적인 시선은 원집이나 습유에 종종 보인다. 원집보다 습유에 주희를 비판한 내용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삼연의 문인들이 당시 조선 사대부들이 주희를 절대화하던 분위기를 고려하여 원집에 그러한 경향의 글들을 일부러 수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로는 국가 통치를 할 수 없고, 이념적 순수성과 비타협성을 강조하면 오히려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정치’의 수단이 되기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통 사상에 입각한 사상적·정치적 권위를 방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통 사상을 재정위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창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적 모색을 시도했는가?

### 3) 대심중생(大心衆生)의 구세의식(救世意識)

앞서 김창흡이 ‘마음’에 대한 사유의 측면에서 유불의 접점을 마련한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김창흡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더 확장하여 경세의식의 측면에서도 유불의 접점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대심중생에 대한 구세의식이다.

‘대심중생’은 범어(梵語) ‘Bodhi-sattva’의 의역이고, 그 음역은 ‘보리살타’(菩提薩埵)이다. ‘보리’라는 것은 대심(大心)이라는 뜻이고, ‘살타’는 ‘중생’(衆生), ‘유정’(有情)이라는 뜻이다. 즉 대심중생은 대도(大道)를 구하는 큰 마음을 지내고 있는 사람(衆生), 대각(大覺)을 구하는 사람(衆生)이다.<sup>106)</sup> 「의상화상일승발원문」(義湘和尚一乘發願文)에는 “선지식(善知識)이 큰 마음을 내고 큰 수행을 실천하듯이 자신과 모두가 또한 그러할 것이다”(如善知識發大心, 我及衆生無不發)<sup>107)</sup>라는 말이 보인다.

106) 金泰洽, 「菩薩의 도」, 『불교』 50집, 불교사, 1928, 41면 참조. “菩薩은 梵語(Bodhisattva)의 略稱이니 具足히 原語의 廣稱을 引할 時 가트면 菩提薩埵、菩提索埵、摩訶菩提質帝薩埵等이다. 此를 舊譯에서는 心衆生、道衆生이라고 譯하얏고 玄奘三藏의 新譯에 依하면 大覺有情 覺有情이라고 譯하얏스니 譯意에 依하면 大道를 求하는 大心의 人 大覺을 求하는 사람이라는 意味이다. 또는 菩薩은 勇猛의 義이니 勇猛히 菩提를 求한다는 意味이다. 또는 開土、始土、高土、大土라고도 한다. 以上을 一言으로써 總括하야 말할 時 가트면 菩提는 覺이란 말이고 薩埵는 衆生이란 말이니 覺을 求하는 衆生이니 即佛果를 求하는 衆生이란 말이다.” <[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BM\\_00013\\_0050\\_T\\_001&imgId=0050\\_0024\\_a](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BM_00013_0050_T_001&imgId=0050_0024_a)>

107) 義湘, 「義湘和尚一乘發願文」, 『大方廣佛華嚴經』,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https://kabc.dongguk.edu/search/group?q=query%24%EC%97%AC%97>>

이 말에는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식들과 같이 각양각색의 선지식들이 가르쳐준 보살도를 실천하여 그 귀결을 보현행원(普賢行願)의 실천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화엄 사상이 담겨 있다.<sup>108)</sup> 이에 의거하면 대심중생이란 말은 큰 마음을 내어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는 곧 불교의 구제의식이다. 이러한 구제의식은 유교의 치세의식·경세의식과 통한다.

그런데 이단을 배척하고 주자학이 절대화된 조선후기에는 대심중생이라는 불교 표현을 잘 쓰지 않았다. 한국고전종합DB에서 “대심중생”을 키워드로 삼아 검색한 결과 조선시대에 처음 “대심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바로 조성기(趙聖期)이다. 그는 임영(林泳)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만약 오늘 제가 끄집어낸 단서로 말미암아 불가에서 말하는 큰 마음을 지닌 중생으로 사람을 무는 사자 같은 이가 있어 나와 응한다면 어찌 세도에 큰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sup>109)</sup>라고 한 번 언급한 바 있다. 조성기를 이어 같은 시기에 “대심중생”을 쓴 사람은 김창흡이다. 조선후기에 들어가면서 이 표현을 쓰거나 인용할 경우가 많아졌지만, 김창흡의 시대에는 거의 없었다. 당시에는 “대심중생”을 쓰는 것이 시비에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이다.<sup>1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흡은 이 표현을 여러 번 썼다.

가)

외삼촌께서 갑자기 스스로 생각하시길, ‘한 몸을 거두어 장수하는 것이

---

C%84%A0%EC%A7%80%EC%8B%9D%EB%B0%9C%EB%8C%80%EC%8B%AC>

108) 「義湘和尚一乘發願文」 해제」 참조.

109) 趙聖期, 「與林德涵書」, 『拙修齋集』 권6, 한국문집총간 147, 257면. “今日若因吾之發端, 或有如釋家所云‘大心衆生, 咬人獅子者出而應之’, 則豈不爲世道之大益乎?” 인용문의 번역은 조성기 지음, 이승수 역주, 『졸수재집』 2, 서울: 박이정, 2000, 159면 참조.

110) 金昌翁, 「一峰集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5면. “然公家之與世抹撥, 亦已久矣. 寥寥數十年遽歸, 以大心衆生之稱, 自不佞始, 則誠不顧他人是非爾.”

한 세상에 두루 미쳐 장수하는 것보다 어찌 좋겠는가? 공적은 없고 장수만 하는 것이 또 어찌 장수는 못하지만 공적이 있는 것보다 좋겠는가?’라 해서 개연히 경제의 뜻을 두시어 마침내 백성의 수명을 늘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셨다. 여기서부터 일을 헤아리고 고금을 상략(商略)함에 공이 더욱 깊으시고 방법이 더욱 익숙하셨다.

(…)

오직 삼촌만이 자기의 집에 얽매이지 않고 만 칸이나 된 크고 너른 집을 생활의 계획으로 삼으셨으며 자기의 몸을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동포와 중생을 위해 큰 마음을 세우셨으니, 여기에서 곧 외삼촌의 높은 기상과 넓은 기량을 볼 수 있다.<sup>111)</sup>

나)

인지상정으로 말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짐작할 수 있지만, 대심중생으로 생각하면 확연히 순응하게 될 테니 어찌 막히는 바가 있겠습니까? 왕양명(王陽明)이 자기의 심학은 전쟁터에서 진전했다고 스스로 말했는데, 이 말은 역시 취할 만합니다.<sup>112)</sup> 감히 권면하는 것은 아니니 그대가 꼭 이렇게 할 것이라고 평소 믿기 때문입니다.<sup>113)</sup>

다)

청구에 다시 대심을 가진 사람 없으니,                    靑丘無復大心人,  
아름 옷깃과 둥근 모자에 몸이 아름답네.            圍領圓冠楚楚身.  
장차 너희를 쓴다면 무엇으로 할 것인가?            如將用爾將何以,  
성의정심(誠意正心) 말한들 진부할 뿐이네.            誠正爲言也腐陳.<sup>114)</sup>

111) 金昌翁, 「祭季舅羅教官文」, 『三淵集拾遺』 권26, 한국문집총간 167, 157면. “舅氏忽自念曰: ‘斂諸一身而壽, 曷若其普一世而壽? 無功而有年, 又孰若有功而無年乎?’ 慨然經濟之意, 遂以躋民壽域爲極. 自此揣摩事情, 商略古今, 功愈深而術愈鍊. (….) 惟其不戀窠窟而以廣廈萬間作活計, 不私軀殼而以同胞衆生立大心. 便見其氣象軒豪而器量宏恢處.”

112) 이를 통해 김창흡이 이기론, 심성론의 차원에서는 양명학을 비판했지만, 경제론의 차원에서는 양명학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3) 金昌翁, 「與權判書庚寅」, 『三淵集拾遺』 권16, 한국문집총간 166, 520면. “自凡情言之, 以爲多少苦境, 若在大心衆生則廓然順應, 夫豈有滯礙哉? 王陽明自言‘渠心學長進於戰陣中’, 此言亦可取. 非敢相勉, 素恃其必如此也.”

114) 金昌翁, 「葛驛雜詠其九十一」,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302면.



가)는 1698년에 외삼촌 나석좌(羅碩佐, 1652~1698)를 애도한 제문의 일부이고, 나)는 1710년에 평안감사 권성(權愾)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다)는 1718년에 지은 「갈역잡영」 제91수이다. 제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심중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동포와 중생을 위해 큰 마음을 낸다는 것은 사실 “대심중생”의 차원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 편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말을 사용했다. 시에서는 “대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뜻은 “대심중생”과 똑같다. 인용문에서 보여주듯이 김창흡이 쓴 이 표현은 예외 없이 모두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김창흡이 “대심중생”으로 불교의 구세의식과 유교의 경세의식을 관련 지어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문, 편지 등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산문 장르 이외에 김창흡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남의 문집 서문에서도 “대심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심지어 한 서문에서는 “대심중생”을 주지와 키워드로 삼았다. 바로 일봉(一峰) 조현기(趙顯期, 1634~1685)의 「『일봉집』 서문」(一峰集序)이다. 김창흡은 조현기의 아들 조정강(趙正綱, 1666~?)<sup>115)</sup>의 부탁을 받아 이 문집 서문을 썼다. 이 서문은 조현기를 위해 쓴 것이지만, 조현기의 입을 빌려 자신이 관찰한 조선의 문제점을 밝혀 대심중생의 구세의식을 표현한 셈이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이 글에서 대심중생의 구세의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했는가?

이전에 회암 부자(晦菴夫子: 주희)가 장남헌(張南軒: 장식)과 함께 당세의 인물을 논할 적에 큰마음을 가진 중생을 보지 못한 걸 가지고 탄식하였다. 나는 일찍 그 말을 외워 중히 여겼는데, 다만 어떻게 해야 이 칭호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였다.

졸수재(拙修齋) 조공(趙公)의 문하에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해박하고

115) 조정강은 안동김씨 김시좌(金時佐, 1664~1727)와 사돈관계이다. 김시좌의 아들이자 김창흡의 문인인 김하행(金夏行, 1691~1713)이 조정강의 딸과 혼인했다. 그리고 조정강의 숙씨(叔氏) 조정서(趙正緒, 1664~1714)는 또 김시좌와 처남관계이다. 따라서 조현기 집안은 안동김씨 집안과 밀접한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김창흡이 조정강의 부탁을 받은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

뛰어난 변론을 듣게 되었으니, 천인과 고금이 융회관통(融會貫通)하는 것, 이치와 일의 본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 도를 담론하는 것과 치세를 논하는 것을 한결같이 다하였다. 내가 손뻑을 치면서 통쾌하다고 말하며 그 연원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물어봤더니 조공이 말하기를, “나는 아우 문경(文卿: 조창기趙昌期)과 함께 경제에 마음을 두어 『주관』(周官)의 법을 깊이 궁구했지만, 그 시작은 중씨부터이다”라고 했다.

곧 그가 지은 일봉(一峰) 제문을 꺼내 일봉 평생의 뜻과 사업이 오로지 나라를 살리고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있었으며, 삼대(三代)에 임금을 보좌하던 풍모를 흠모하는데 격을 낮춰 가장사(賈長沙: 가의), 범고평(范高平: 범중엄)과 귀결처를 함께하였음을 성대하게 설명하였다.

대저 가생(賈生)은 한나라가 삼대에 미치지 못함에 부끄러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렀고, 범공(范公)은 가우(嘉祐)를 태평성세로 만들려고 하면서 천하를 가지고 근심하고 즐거워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이 천고(千古)에 많지 않았으나 천륜을 품평한 것으로 보면 오히려 완전히 순수하거나 궁구하지 않았다고 여겼으니, 여기서부터 그들의 안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대저 뜻은 당세에 있지 않고 만고에 있고 근심은 자기의 몸에 있지 않고 사해에 있으며, 차라리 자기의 고통으로 중생의 즐거움을 넓히고자 하고, 자기의 수고로 천하의 편안함을 넓히고자 했으니, 공의 형제들이 어찌 이른바 큰마음을 가진 중생이라는 자가 아니겠는가?<sup>116)</sup>

위 인용문은 1717년 1월 지은 「『일봉집』 서문」의 첫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조현기를 “대심중생”으로 평가했다. 이 표현은 서문에 세 번이나 등장한다. 이 말은 이 서문의 주지, 곧 조현기의 구세의식과 경제의

116) 金昌翁, 「一峰集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5면. “昔晦菴夫子與南軒論當世人物, 而以未見大心衆生爲嘆. 不佞嘗誦其言而大之, 獨未知如何然後可當是稱也. 及登拙齋 趙公之門, 始聽博辯偉論, 天人古今之融貫, 理事本末之該舉, 談道與論治一串盡之. 余則撫掌稱快而問其淵源所自, 則曰: ‘吾與弟文卿留心經濟, 大究『周官』之法, 開端則自仲氏矣.’ 遂出其所祭一峰文, 盛述其平生志業, 專在活國澤民. 竊有慕乎三代佐王之風, 而降格與賈長沙、范高平同其歸趣. 夫賈生恥大漢之不及三代, 至於痛哭流涕. 范公欲轉嘉祐爲雍熙, 以天下爲憂樂. 若此輩人, 千古無多. 而自其天倫揚扈, 猶以爲未粹未究, 則可見其眼目之大矣. 夫志不于當世而于萬古, 憂不以一身而以四海. 寧欲以己之苦, 而博衆生之樂; 以己之勞, 而易天下之逸. 如公兄弟, 豈非所謂大心衆生者流乎?”

식을 드러내는 키워드이다. 인용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김창흡은 주희가 장식(張栻)에게 답한 편지의 “불교에서 이른바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라는 자를 오늘날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sup>117)</sup>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서문의 주지인 “대심중생”을 끌어냈다. 여기서 “대심중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주희의 불교 이야기를 인용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창흡이 주희가 사용한 “대심중생”이라는 불교 표현을 인용했으나, 이것이 “대심중생”이라는 말이 이미 조선 성리학자에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밝혔듯이 처음으로 “대심중생”을 쓴 사람은 조성기이고, 그 다음이 바로 김창흡이기 때문이다. 『주자서절요』를 익히 읽은 조선 문인들이 이 편지를 모를 리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 말을 인용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흡은 주희의 이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려는 “대심중생” 이야기를 끌어냈다. 주희의 말을 통해 김창흡은 이 세상에 과연 “대심중생”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대심중생”이라는 키워드를 끌어낸 뒤에 김창흡은 대화의 형식으로 자기 조성기를 통해 조현기라는 인물을 끌어냈다. 김창흡이 조성기의 치세지도(治世之道)를 칭찬하면서 연원(淵源)이 어디에 나온지를 물어봤더니 조성기는 동생 문경(文卿: 조창기)과 함께 경제에 마음을 두고 『주관』(周官)의 법을 궁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증씨 조현기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김창흡은 제3자의 시각으로 조성기의 서술을 통해 조현기의 일생을 평가하였다. 조성기의 서술은 바로 「증씨 일봉공 제문」(祭仲氏一峯公文)이다. 김창흡이 이 서문에서 서술한 삼대에 임금을 보좌하던 신하의 풍모, 한나라 가생(賈生)의 통곡 이야기,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선우후락(先憂後樂) 등의 내용은 모두 조성기의 제문에서 나온 것<sup>118)</sup>으로 조성기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조성기에 의하면 큰 마음으로 나

117) 朱熹, 「答張敬夫」, 『晦庵集』 권32, 四部叢刊景明嘉靖本. “尋常戲謂佛氏有所謂大心衆生者, 今世絕未之見. 凡今之人, 營私自便, 得少爲足. 種種病痛, 正坐心不大耳.”

118) 趙聖期, 「祭仲氏一峯公文」, 『拙修齋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47, 357~358면.

라를 살리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측면에서 중씨 조현기는 가생과 범중엄에 비견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생, 범중엄 같은 사람들은 천고에 보기 드문 인물인데도 그들은 완전히 순수하고 궁구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이를 통해 가생과 범중엄같은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김창흡은 가생과 범중엄을 칭찬함으로써 그들에 비견할 수 있는 조현기를 높이 평가하였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김창흡은 조현기와 조성기 형제가 바로 이른바 “대심중생”이라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대심중생”이라는 말이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다. 김창흡이 그들을 평가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의 뜻과 마음이 늘 천하와 중생에 있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대우(對偶)의 형식으로 그들이 “자기의 고통으로 중생의 즐거움을 넓히고자 하고, 자기의 수고로 천하의 편안함을 넓히고자 한다”<sup>119)</sup>는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였다. 이 대구에서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고통으로 중생의 즐거움을 넓힌다”는 말은 『불설화수경』(佛說華手經) 권6에 나온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사리불이여, 어떤 사람이 보살이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보리심을 발한 이는 마땅히 온갖 중생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지금 나는 제일 첫째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니,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뒤에 온갖 중생에게 미쳐야 한다.’”<sup>120)</sup>

『불설화수경』의 교리(敎理)는 대승 보살도이다. 자기의 시련과 수행으로 중생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자기의 고생으로 중생의 즐

119) 이 말은 조성기가 쓴 중씨의 제문에도 나온다. 다만 조성기의 글에는 이 말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계책을 바친 진량(陳亮)과 왕통(王通)을 칭찬하는데 활용되었다. 趙聖期, 「祭仲氏一峯公文」, 『拙修齋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47, 358면. “龍川少日, 已著萬言. 河汾一疏, 庶挽至理. 寧欲以一身之苦而博衆生之樂, 以一己之勞而易天下之逸. 雖命與時乖, 道不見信, 鳳凰溷於鷄鶩, 天驥隨乎駑駘, 蹉跎五十, 坎軻下邑. 而耿然此心, 終不能一日而暫忘, 一日而自安.”

120) 鳩摩羅什, 『佛說華手經』 卷六. “舍利弗! 若有人來到菩薩所, 作如是言: ‘若有人發無上道心, 應與一切衆生之樂. 今我則是第一苦人, 當先見與, 然後乃及一切衆生.’”

거움을 넓힌다는 김창흡의 말은 위 인용문의 내용을 변형해서 만들어진 듯하다. 이 말은 “대심중생”과 호응된다. 그래서 김창흡은 바로 이어서 “공의 형제들이 어찌 이른바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라는 자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창흡은 서두에서 던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세상에 “대심중생”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조현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심중생”이라는 키워드를 조현기와 연결 지었다.

요컨대 첫 번째 단락의 서두에서 김창흡은 주희의 말을 인용하여 이 세상에 “대심중생”인 자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화두를 이끌어냈다. 이어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성기의 서술을 통해 『일봉집』의 저자 조현기가 나라와 백성을 살리려 했던 뜻을 밝힘으로써 “대심중생”을 조현기라는 인물과 관련시켰다.

나는 일봉공의 위대한 용모를 잠깐 봤지만 가르침을 받는 데 미치지 못했으니 이를 큰 유감이라 생각했다. 공이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아드님 회천 사군(懷川使君) 정강(正綱)씨가 유고 7권을 가지고 나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사양할 수 없어 삼가 받아 서문을 마무리했다. 기세는 성대하고 문사는 빛나니, 바라볼 수 없다. 그런데 그의 포부를 드러내고 정신을 쏟은 것은 유독 선후에 올린 만언소(萬言疏)에 있다.

군덕(君德)에 뜻을 세워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안을 잘 다스려 외적을 물리치는 것과 어진 자를 구하고 선비를 기르는 것, 균세(均稅), 공안(貢案) 개정, 군병 훈련, 장군 선발의 요점에 이르기까지 벼리를 들어 조목마다 진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시무를 말할 때 반드시 폐단이 말미암은 까닭을 밝히고, 폐단을 진달할 때 반드시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을 알린다. 긴절(緊切)함과 걸맞음을 말하자면 마치 바둑 고수가 패국(敗局)에 빠졌는데 한 자리의 움직임으로 위태로움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뛰어난 약이 괴증을 치료해 별안간 죽은 사람이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정말로 중요한 조치를 한 두 개 베풀게 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심한 곤고(困苦)에서 벗어나고 편안함으로 돌아가게 할 것임을 의심할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 뒤에야 바야흐로 그가 강구하여 세운 대책의 정밀함과 휘두른 것의 크음을 볼 수 있다. 말세에 있는 편방에 어찌 다시 이와 같은 범위(範圍)가 있겠는가?

또 현재의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효종과 현종 양묘가 어찌 이른바성한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하지만 공이 보기에 는 느긋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가 허둥지둥 근심하여 천자께 호소하기를 마치 불과 물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처럼 하니, 아마도 그들을 위해 머리부터 갈아 발뒤꿈치까지 이를지라도 자기 자신을 구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생이 태평성세에 통곡한 것과 범공이 남보다 먼저 시대를 걱정한 것에 어찌 고금의 차이가 있겠는가? 『시경』에, “마음에 근심함이여 / 애오라지 나라에 돌아다니라 / 그 누가 이것을 알리오 / 또한 생각하지 않아서로다”라고 했으니, 공께서 마음에 생각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

저 명리에 골몰하는 자는 진실로 거론할 것이 없거니와, 세상에서 일컬어진 큰 명망이 있는 석유(碩儒) 또한 끝내 체용(體用)에 완전하지 못하고 의리와 일에 융통하지 못하다. 인의를 익숙히 강론하는데도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중용』을 지극히 논하는데도 구경의 뜻에 미치지 못해, 단지 가슴에 가득한 것이 모두 인인 것만 알 뿐 피부 밖으로 미루어 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정사를 맡기면 아득하여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천하의 일을 과연 장차 누구에게 맡길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시무를 아는 것이 준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어찌 공을 두고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의 다른 글과 문장도 모두 빼어나고 호걸스럽고 통쾌한데 미처 자세히 논하지 못한 까닭은 공의 대처(大處)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 가운데 공의 글의 품격이 가장 높다. 공은 어릴 적에 식암(息庵) 김공(金公: 김석주金錫胄)과 함께 신춘소(申春沼: 신최申最)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아울러 칭찬과 허여를 받았는데, 의리를 위주로 하는가 문사를 위주로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그러므로 공께서 식암에게 편지를 보내 근본을 캐면서 김석주가 모의와 꾸밈의 폐단에 빠지는 것을 깊이 배척했으니, 문과 도가 둘로 구분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갑오년(1654)의 만언소와 함께 모두 공께서 약관 때 지으신 것이다. 젊은 나이에 탁월한 식견이 이미 이와 같으니 역시 두려워할 만하다.

공께서 다스리셨던 세 가지 군현엔 유교의 교화가 모두 베풀어졌다. 그가 온양(溫陽)에 부임할 때 회정당(熙政堂)에서 인견(引見)을 받았는데, 난간에 엎드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논해 임금의 경청(傾聽)을 받게 하셨으니<sup>121)</sup> 공발해(龔渤海)가 한선제(漢宣帝)를 처음에 본 것에 비교하면

121) 『숙종실록』 6년 2월 15일 을해 기사.

더욱 탁월한 듯하다. 태사씨(太史氏)가 그의 뛰어난 기록을 기록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sup>122)</sup>

위 인용문은 서문의 두 번째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자기의 시각에서 “대심중생”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려는 조현기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김창흡에 의하면 조현기가 포부를 드러내고 정신을 쏟은 것은 선후에 올린 두 편의 만언소(萬言疏)였다. 그 글들은 바로 1654년의 「갑오봉사」(甲午封事)와 1674년의 「갑인봉사」(甲寅封事)이다.

「갑오봉사」는 시폐(時弊)를 구제하는 급선무와 임금이 경계해야 할 점 등의 내용을 담아 수만 언을 초하여 올리려 했던 글이다. 「갑인봉사」는 1674년 청나라에서 오삼계(吳三桂)가 거병하여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드시 그 화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이라 염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아뢰는 만 언의 봉사이다.<sup>123)</sup> 김창흡에 의하면 조현기

122) 金昌翁, 「一峰集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5면. “不佞於一峰公, 乍接偉表而未及承誨, 以爲大恨. 公沒三十年, 其胤懷川使君正綱甫以遺藁七卷, 屬不佞爲序. 不佞不能辭, 謹受而卒業. 浩乎滂沛, 燦乎煒燁, 其不可以狎視矣. 然其負抱之攄, 精神所注, 獨在於前後萬言疏中. 蓋自君德之立志端本, 以至修內攘外與招賢養士, 均稅改貢鍊軍擇將之要, 靡不綱舉條陳. 而說務, 必原其所由弊; 陳弊, 必奏其救之之方. 若言其著繁中宜, 則猶良棊之受敗局, 轉危於一著; 名藥之對壞證, 起死於須臾. 果使施措其一二要, 必使一域蒼生, 解倒懸而歸奠枕, 無可疑者. 夫然後方見其講究之精而揮霍者大. 衰季偏邦, 豈復有如許範圍乎? 且以今而回思, 孝顯兩廟, 豈非所謂盛際? 而自公視之, 以爲泄泄沓沓. 其遑遑呼籲, 若救焚拯溺, 殆欲爲之磨頂放踵而不自恤. 則賈生平世之哭, 范公先人之憂, 夫豈有古今之殊哉? 『詩』云: ‘心之憂矣, 聊以行國. 其誰知之? 蓋亦勿思.’ 公之心事, 正亦如此. 彼汨於名利者, 固不足道. 世所稱瓊望碩儒, 亦坐其體用不全, 理事未融. 慣講仁義而不知保民之爲何事, 極論『中庸』而未及九經之義, 徒知滿腔皆仁而未能於皮膜外推出也. 以故授之以政, 茫然無措. 天下之事, 未知果將誰寄? 則識時務者在俊傑, 豈非如公之謂歟? 公之他雜文及句語, 皆警拔豪暢, 而未暇詳論者, 以公大處之不在是也. 公於昆季中, 文格最高. 蓋公少時, 與息菴金公同學文章於申春沼之門, 並蒙獎許. 而主理主詞, 意見差異. 故其與息菴書原原本本, 深斥其摸擬粉澤之陋, 惟恐文與道之或二也. 此與「甲午萬言疏」, 同在弱冠時. 妙年卓識, 已能如此, 其亦可畏也哉! 公所歷三郡, 皆有儒化. 其赴溫陽也, 引見于熙政堂, 伏檻論治, 明主動聽, 視諸冀渤海初見宣帝, 尤似卓犖. 未知太史氏能載其奇否?”

123) 서인숙, 「『일봉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8,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432면 참조.

는 이 두 편의 봉사에서 대내외적인 해결책을 조목조목 질서정연하게 진술하였다. 김창흡은 이러한 중요한 조치를 한 두 개 실행한다면 온 나라 백성들이 틀림없이 심한 곤고에서 벗어나고 편안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나라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조현기의 마음과 명리에 빠지지 않고 경서에서 배운 것을 정사(政事)에서 잘 활용하는 등[體用融通] 시무를 잘 아는 조현기의 면모를 묘사하였다.

김창흡은 두 편의 만언소를 통해 조현기의 시무적(時務的) 면모를 자세히 밝힌 반면, 조현기의 다른 글에 대해서는 빼어나고 호걸스럽고 통쾌하다는 말로 간단하게 평가하였다. 이렇게 한 까닭은 조현기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조현기의 대처(大處)는 무엇인가? 김창흡은 김석주와 조현기의 공부 일화를 들면서 이에 대해 밝혔다.

조현기와 김석주는 모두 춘소(春沼) 신최(申最, 1619~1658)의 문인이다. 조현기는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의 딸과 혼인했기 때문에 김석주와 처남관계도 된다. 김석주는 고문사 공부에 힘쓴 사람이다. 이에 조현기는 1653년 겨울에 편지를 보내 근본에 대해 따지면서 김석주가 모의와 꾸밈의 폐단에 빠져 있는 것을 깊이 비판했다. 문과 도가 둘로 구분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현기의 대처(大處)가 도문일치론을 기반으로 문을 통해 도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언소와 도문일치론에 대한 일화에 이어 김창흡은 조현기가 온양에 부임하기 전 숙종의 인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여 강조한 듯하다. 임금이 신하를 인견하는 것은 대서특필할 정도로 대견스러운 일이 아닌 듯한데, 왜 특별히 강조한 것일까? 이는 조현기가 임금을 뵈었을 때 아뢴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 온양 군수(溫陽郡守) 조현기(趙顯期)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그대의 뛰어난 재주는 자주 특별한 천거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선 한 고을을 맡겨서 그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니, 그대는 직무에 마음을 다하라.”

조현기가 아뢰었다.

“신이 특별히 생각한 바가 있으니, 황송하오나 들어주소서. 대체로 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조정을 바르게 하고 사방을 바르게 하고 만민을 바르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논의가 어긋나고 무너져서 현인(賢人)과 사인(邪人)이 섞여 등용되고, 국경의 수비가 소홀하여 위급한 때에 믿기가 어렵고, 백성이 유산(流散)하여 원망의 소리가 길에 가득 찹니다. 세 가지가 이와 같으니 장차 무엇을 믿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성상께서 능히 편벽되고 사사로운 것을 물리치고 옳고 그른 것을 밝게 살피시어, 비록 죄인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진실로 그 사람됨이 어질면 불러다 쓰고, 비록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진실로 그 사람됨이 간사하면 배척하여 물리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어서 인재(人才)를 찾아내고 변방의 수비에 힘을 들이며 군포(軍布)의 법을 폐지하고 호포(戶布)의 정사를 행할 것 등의 두어 가지 일을 아뢰었다.<sup>124)</sup>

위 인용문은 『숙종실록』 1680년 2월 15일 을해 기사에 기록된 조현기와 숙종의 대화 내용 중 일부이다. 이 자리에서 조현기는 숙종에게 조정, 사방, 만민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뢰었다. 이러한 방안을 제기하게 된 까닭은 조정에서 현인(賢人)과 소인(小人)이 섞여 등용되고, 사방에서 국경의 수비가 소홀하여 위급한 때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백성이 유산(流散)하여 원망의 소리가 길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문제에 대한 조현기의 진단이었다. 그래서 이 세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결책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현재에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조정에는 군자가 아닌 소인배들도 등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인배는 주로 소론을 가리킨다. 사방에서는 국경의 수비가 소홀히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북관 요새지, 북한산성, 남한산성 구축 등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말

124) 『숙종실록』 숙종 6년 2월 15일 을해 기사. “又諭溫陽郡守趙顯期曰: ‘爾之茂才, 屢被別薦, 故先委一郡, 欲試其能, 爾其盡心職事.’ 顯期曰: ‘臣別有所懷, 敢瀆崇聽. 大率治國之道, 不過曰正朝廷, 正四方, 正萬民. 而乃者論議橫潰, 賢邪雜進; 邊圉踈虞, 緩急難恃; 生齒流散, 怨聲載路, 三者如此, 將何所恃? 臣愚以爲, 聖明克祛偏私, 明察是非, 雖在罪籍, 而苟其人之賢也, 進而用之; 雖在顯列, 而苟其人之邪也, 斥而退之可也.’ 仍陳搜訪人材, 飭厲邊備, 罷軍布之法, 行戶布之政等數事.” 인용문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것을 참고하되, 필자가 원문의 표점 및 번역문을 다듬었다.

한 듯하다. 백성들이 유산하여 원망한다는 것은 균역, 기근,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는 현황을 가리킨다.<sup>125)</sup> 이렇듯 조현기의 문제 진단은 김창흡이 이 서문을 쓰던 때에도 유효했다. 김창흡은 조현기의 입을 빌려 자신이 관찰한 조선의 문제점을 밝힌 셈이다. 이것이 이 서문에서 조현기가 숙종의 인견을 받은 일을 강조한 동기가 아닐까 한다.

요컨대 두 번째 단락에서 김창흡은 자신의 시각으로 조현기의 두 편의 만언 봉사와 김석주에게 보낸 편지를 예로 들면서 시무적인 면모가 강하고 도를 추구하는 조현기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나아가 회정당(熙政堂) 인견 이야기를 끌어내어 조선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조현기의 경세적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심중생으로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내가 일찍 졸수재의 묘지명을 지었는데 책임자가 아니라서 부끄러웠다. 지금 또 책머리에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으니 또한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 그런데 이 웅색한 소견을 돌아보고는 다만 겉으로만 널리 살펴봤지만, 높은 경지를 엿보지 못해 그림자와 메아리로 이야기하여 거칠게 응했을 뿐이다. 어찌 공을 포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공의 집안이 세상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지 또한 오래됐다. 수십 년 동안 잠잠했다가 갑자기 돌아와 ‘대심중생’으로 일컬어진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 진실로 남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공의 첫째 아들인 일묵(一默: 조정위趙正緯)이라 불리는 자는 경학에 뛰어나고 글도 굳세다. 굴산(屈山)에는 열악한 말이 없고 등림(鄧林)에는 약한 식물이 없다는 것을 믿을 만하다. 그가 지은 「졸수재 행장」은 내가 정말로 옷깃을 여미면서 뛰어나다 칭찬하였고, 다른 글도 모두 지극히 치밀하여 저자의 궤범을 잊지 않았다. 이 자가 어찌 다만 일봉을 본받은 아들일 뿐이겠는가? 진실로 식암의 외조카다. 아울러 서문을 쓰는 바이다.

정유년 맹춘일에 안동 김창흡이 삼가 쓰다.<sup>126)</sup>

125)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26) 金昌翁, 「一峰集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85면. “不佞嘗誌拙齋墓, 愧非其任矣. 又此弁卷之託, 亦知以心期所在. 而顧此窺見, 徒能博觀於外, 未窺其闕域, 只以影響說話, 潦草應副. 其何足爲公輕重哉? 然公家之與世抹撥, 亦已久矣. 寥寥數十年遽歸, 以大心衆生之稱, 自不佞始, 則誠不顧他人是

위 인용문은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마지막 단락에서 김창흡은 조현기를 “대심중생”으로 일컬었다. “대심중생”이 세 번째로 등장한 것이다.

요컨대 이 서문의 주지는 “대심중생”이다. 김창흡은 첫 번째 단락에서 주희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말을 끌어내었다. 이어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성기의 서술을 통해 나라와 백성을 살리려 했던 『일봉집』의 저자 조현기의 뜻을 밝힘으로써 “대심중생”을 조현기라는 인물과 관련시켰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심중생”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제하려는 조현기의 경세적, 시무적인 모습을 두편의 만언 봉사와 김석주에게 준 편지, 회정당 인견 일화를 통해 입체적으로 부각했다. 이로써 조현기가 “대심중생”을 가진 사람임이 입증되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 “대심중생”이라는 말로 조현기의 구세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김창흡은 조현기의 대심중생의 구세의식을 부각함으로써 노론 엘리트로서의 자신의 구세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개방적 정통주의를 모색하는 노론 엘리트 김창흡의 면모를 고찰하였다. 김창흡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정통 사상의 중심에 놓았지만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런데 김창흡에게 불교와 노장사상은 성리학과 동등한 비중을 갖지 못하며, 성리학이 그들을 통합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김창흡에게 성리학은 시비분별의 절대적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인바, 정통주의 특유의 반대 학파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공격적 태도는 정치적으로 적과 동지를 준엄하게 구별하는 논리와 유사성을 갖는다. 이는 ‘원한’이라는 감정이 사상의 차원에서 형태 변환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한’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와는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불교와 노장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더 유연해진 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불교를 개인적인 위안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심중생’이라는, 유교적 경세의식과 불교의 접점에 주

---

非爾。公之伯胤號一默者，優於經學，文亦適健。信乎屈產無劣駒，鄧林無弱植也。所撰「拙齋狀」，不佞固斂衽稱奇矣。他文皆極馳驟，而不失作者軌範，是豈但一峰肖兒，展矣息菴之甥也。併爲序。丁酉孟春日，安東 金昌翁謹序。”

목했다. 이러한 구세의식과 경세의식은 김창흡이 원한이라는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보편화한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모색은 김창흡에게 실존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동시에 노론의 헤게모니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창흡의 사상적 모색은 노론 내에서 송시열 학파가 스스로를 절대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정통주의적 틀 내에서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고하여 지배 집단이 ‘자기 조정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통치성을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창흡의 사상적 모색은 김창흡 한 개인의 실존적 모색인 동시에 노론 지배 엘리트의 자기 조정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사상적 모색을 토대로 김창흡이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해,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국가간 정치에 대해 어떤 사고를 했는가가 그 뒤를 잇는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6. 조선 내외에 대한 시선

지금까지 김창흡의 가문 수호자로서의 면모와 노론 엘리트로서의 사상적 모색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김창흡의 모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가문과 세력만을 지키는 데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혔다. 이번 장에서는 ‘정치사적 맥락’의 네 번째 층위, 즉 조선이 당면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및 대안의 모색과 관련된 ‘경제적 지향’이라는 시각에서 김창흡의 경제적 모색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조선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김창흡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특히 장동김문의 권력이 강화되고 노론 세력과 소론 세력의 권력 쟁탈이 심해짐에 따라 김창흡의 목소리와 역할도 절로 커졌다. 김창흡은 가문의 힘을 빌려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우곤 했다.<sup>1)</sup> 그의 시선은 조정의 안팎으로 두루 향해 있었는데, 이는 김창흡의 경제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지금부터 먼저 조정 내부에 대한 김창흡의 시선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과거제도와 소결(疏決)제도에 대한 김창흡의 주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과거제도 및 소결(疏決)제도 비판

17세기의 과거 시험은 이전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7세기의 과거 시험 상황을 보면 과거 응시자의 증가율에 시종(試種)별로 차이가 있어, 생원·진사시와 알성시·정시는 3배 정도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던 반

---

1)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 “정치적 행보” 부분 참조.

면 식년시·증광시 문과 응시 인원의 증가폭은 매우 미미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숙종 대에 증가 양상이 보다 뚜렷하였다.<sup>2)</sup> 그런데 숙종 대에 들어서 1699년의 기묘과옥(己卯科獄), 1702년의 임오과옥(壬午科獄), 그리고 1712년의 임진과옥(壬辰科獄) 등 수차례의 과옥이 발생했다.<sup>3)</sup> 과옥이라 표현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과거 부정의 실상과 정도가 심했다. 그렇다면 왜 숙종 대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창흡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가)

우리나라 인재 선발법은	吾東取人法,
대저 황명(皇明)을 답습했네.	大抵襲皇明.
열 번의 사부(詞賦)와 책론(策論)으로	十場詞策論,
오히려 경생(經生)을 뽑을 수 있거늘.	猶可取經生. <sup>4)</sup>

나)

변려문이 출세의 지름길 열어주니	儷文開捷徑,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것이 시초일세.	喪國此爲胎.
인재 가운데 준걸한 선비 없고	菁莪無俊士,
묘당에는 어진 인재 부족하네.	廊廟乏賢才. <sup>5)</sup>

다)

애통하게도 사과법(詞科法)은	痛矣詞科法,
양광(楊廣) 때에 시작했네.	昉於楊廣時.

2) 박현순,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93집, 한국사학회, 2009, 139~140면 참조.

3) 대표적인 연구는 차미희, 「조선후기 숙종대 기묘과옥에 대한 연구」, 『국사관논총』 93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차미희, 「조선후기 숙종대 임진과옥 연구」, 『민족문화연구』 42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112~189면;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130집, 한국사연구회, 2005; 김동석 지음,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246~248면 참조.

4) 金昌翁, 「葛驛雜詠其九十六」, 『三淵集』 권15, 한국문집총간 165, 314면.

5) 金昌翁, 「葛驛雜詠其百」, 『三淵集』 권15, 한국문집총간 165, 315면.

당(唐)·송(宋)·명(明)이 답습했고  
조선이 변려문으로 바꾸었네.

唐宋明因襲，  
朝鮮更駢麗.<sup>6)</sup>

가)와 나)는 「갈역잡영」의 제96수, 제100수이고, 다)는 「갈역잡영」에 이어진 「또 읊다」(又賦)이다. 내용을 보면 김창흡은 조선의 과거제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 하나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가 아니라 정시(庭試)를 비롯한 임시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하나는 변려문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창흡은 조선 과거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초래된 인재의 결여에 대해 근심을 표하였다. 그런데 이 시들이 1718년에 창작되었다 해서 김창흡이 이때에 와서 비로소 과거제도에 관심을 쏟아 그 문제점을 진단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창흡은 이전부터 조선의 과거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1701년 무렵 김창흡이 사돈 이정하(李徵夏)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제가 진실로 오활하고 미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남의 자제를 그려쳐 그[사위 이덕재]가 대과(大科)와 소과(小科)에 합격하여 출세하는 것에서 추구하는 바를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평소 권면한 바는 다만 『시경』·『서경』을 먼저 공부하여 글을 짓는 기본을 배양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예화(例話)가 현재 표학(表學)이 날로 치성해지는 때에 너무 도드라져서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할 지경인 것은 진실로 괴이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6) 金昌翁, 「又賦」, 『三淵集拾遺』 권11, 한국문집총간 166, 418면.

7) 이 편지는 작성 연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편지 내용에 따르면 사위 이덕재가 이미 약관(弱冠)이 되었다는 점, 명촌(明村)의 상일(祥日)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1701년 중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덕재가 김창흡의 딸에게 장가간 시기는 1699년이었을 것이며, 1683년에 태어난 그가 약관이 된 연도는 1702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창흡이 명촌의 상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면 외가 안정나씨(安定羅氏) 친척의 소장이나 대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친척은 김창흡과 친했던 셋째 외삼촌 나석좌(羅碩佐, 1652~1698)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1698년 3월 6일에 죽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1701년 나석좌의 대상제에 참석하기 전에 김창흡이 사돈 이정하에게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金昌翁, 「季舅內侍教官羅公墓碣銘并序」,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52면.

형님께서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신 것은 오히려 40년 전의 일이지요. 당시 과거 시험 공부를 한 자들 중에는 『중용』과 『대학』을 술술 외우지 않고 시험장에 출입한 자가 없었습니다. 형님 집안의 연원으로 말하더라도 돌아가신 존장(尊丈: 이징하의 부친 이만웅) 노야(老爺)께서 과거급제하신 뒤에도 여전히 경서 공부를 그만두지 않으시어, 서류를 처리하시는 바쁜 와중이라도 빈번히 책을 쓴 보자기를 챙겨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백씨(伯氏: 이징명)께서는 아직 과거급제하시기 전에도 『논어』에 통달하셔서 대략 모두 입으로 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을 힘쓰는 아름다운 모범에 대해 일찍이 형님께서 입이 닿도록 칭찬하셔서 제 귀가 뚫어질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자제를 위해 도모함에 미처서는 독서의 본말과 대소과(大小科) 공부 하나같이 모두 갑자기 엽등(躑躅)하여 더 이상 순서가 없게 되었으니, 어찌 조급하게 권세를 다투는 말류의 논의를 따르기만 하고 수십 년 전 노성한 분의 풍모와 법도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오래된 일 이외의 일은 인용할 만한 게 못되는 점이 있으니, 가정에서 이미 행해진 법도를 마땅히 따라야 하고 마땅히 실추시켜서는 안됨을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sup>8)</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첫부분이다. 이 편지의 핵심은 김창흡이 작문 기초가 약한 사위 이덕재로 하여금 과거시험을 보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몇 년동안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 뒤에 다시 과거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 사돈 이징하를 설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창흡은 먼저 당시 표학(表學)의 유행과 이징하 가문 앞 세대의 과거 공부 전통을 논했다. 여기서 ‘표학’이라는 말을 주목할

8) 金昌翁, 「答李季祥」,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389면. “弟固迂矣頑矣, 亦何嘗誤人子弟, 乖其所趨於大小科名進取之間乎? 尋常所相勉者, 只在先治『詩』、『書』, 以培作文之本而已. 惟此例話, 在今日表學熾長之時, 突兀駭聽, 固無足怪. 若兄則耳目之及, 猶在四十年前. 當時治科業者, 未有不貫誦『庸』、『學』而出入場屋者. 雖以兄家庭淵源言之, 先尊丈老爺出身後, 猶不廢治習經書. 雖簿書倥偬中, 輒以黃卷袂隨身. 而先伯氏未決科前, 亦淹貫『論語』, 略皆上口. 惟此務本美範, 兄嘗疊疊稱述, 數徹於弟之耳根矣. 及至爲子弟謀, 則其讀做本末及大小科功, 一皆迫遽凌躑而無復次序, 豈流徇於末流躁競之論, 而不返諸數十年前老成風規乎? 借曰遠事外事有不足援, 則胡不念旃於家庭已行之調度宜遵而不宜墜者乎?”



필요가 있다. 표학은 과문(科文) 여섯 문체 중의 한 문체인 과표의 학문이라는 뜻이다.<sup>9)</sup> 앞서 밝혔듯이 숙종 대에는 식년시보다 정시를 비롯한 임시 시험, 즉 경과(慶科)가 자주 실행되었다. 시험의 특성상 명실상부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문체라 여겨졌던 표문의 출제 빈도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sup>10)</sup>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 숙종 대에 들어 유생들은 전통적인 경서 공부보다 시험 준비에 효율적인 과문 관련 유초(類抄)와 려문선집류(麗文選集類) 등 참고서의 사료문 학습에 몰두하게 되었다.<sup>11)</sup> 이것이 바로 김창흡이 편지에서 말한 표학의 유행이다. 그 결과 송상기가 상소문에서 말했듯이 문풍이 무너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인재가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sup>12)</sup> 참고로 김창흡은 동서지간인 임유하(任由夏, 1669~1692)를 기린 「임경화 묘표」(任景華墓表)에서도 경서가 아닌 사장으로만 인재를 선발하는 상황을 비판했다.<sup>13)</sup>

이처럼 김창흡은 당시 유생들이 경서 공부를 하지 않고 과거급제의 지름길인 표학만 추구하는 과거시험의 부조리 현상을 비판하였다. 그런데 김창흡의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어서 김창흡은 사돈 이징하가 과거의 모범을 익히 알고 칭찬했으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출세 지향

9) 과표에 관한 연구는 정경주, 「과문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39집, 대동한문학회, 2013; 이상욱, 「조선후기 과표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과표 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3집, 대동한문학회, 2017 참조.

10) 17세기 말을 기준으로 일정한 과표 정식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숙종도 변려문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신하가 표문의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건의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숙종 대 친림시 32회 중 28회에 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욱, 「조선후기 과표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과표 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3집, 대동한문학회, 2017, 166면; 박선이, 「숙종·영조대 과거제와 과문의 추이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83집, 한국한문학회, 2021, 121~122면; 박현순, 「조선후기 문과에 나타난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10면 참조.

11) 박선이, 앞의 글, 137~139면; 이상욱, 앞의 글, 161~162면 참조.

12) 『숙종실록』 31년 6월 29일 신유 기사 참조.

13) 金昌翁, 「任景華墓表」, 『三淵集』 권30, 한국문집총간 166, 64면. “蓋自漢以降, 博士之廢久矣. 至後世, 專以詞章取人, 而我國家尤甚. 末流之弊, 士益淫於浮巧, 而五經幾乎束閣矣.”

적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도 완곡하게 비판했다. 이징하가 칭찬한 과거의 모범은 다름 아닌 그의 부친 이만웅(李萬雄, 1620~1661)과 백씨 이징명(李徵明, 1648~1699)이다. 그들은 경서 공부에 몰두한 전범(典範)이었다. 그런데 이징하는 앞 세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익히 알면서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한 미덕을 버리고 출세를 지향했다. 과거 시험에 대한 이징하의 의식과 태도가 변질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이징하를 완곡하게 비판했으며,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렇게 한 결과의 악영향을 지적하였다. 김창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이랑(李郎: 이덕재)은 이미 약관이 되었는데 하나의 경서도 통달하지 않았거늘 그로 하여금 갑자기 시험장에 출입하며 어지러이 뒤엎켜 댄지어 다니게 한 것은 이미 본말이 전도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또 표학을 공부하라는 설로 몰아 넣었으니, 이게 무슨 순서입니까? 두 잎이 처음 땅에서 나오는데 급급하게 물을 뿌리며 잘 자라도록 빌어 하루아침에 구름까지 닿기를 바라는 꼴이니, 옳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무인(武人)이 활쏘기를 익히는 경우에는 먼저 육량궁(六兩弓), 그 다음은 유엽전(柳葉箭), 그 다음은 편전(片箭)으로 해야 차례에 맞는데, 지금은 앞의 두 차례를 건너뛰어 곧바로 편전으로 연습하니, 그 효과를 보기 전에 손목이 먼저 아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sup>14)</sup>

먼저 김창흡은 사위 이덕재의 경서 공부 상황을 말했다. 현재로서 이덕재의 경서 공부가 매우 부족한데,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본말이 전도된 행위이다. 경서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표문 공부가 더욱 그러하다. 김창흡은 이어서 새싹이 나오자 물을 뿌려 잘 자라는데 급급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과 무인(武人)이 활쏘기를 배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예를 들면서 경서에 통달하지 못한 채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의 악영향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덕재

14) 金昌翁, 「答李季祥」,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389~390면. “且如此郎年已弱冠, 未通一經. 而遽使之出入解場, 紛拏逐隊, 已是顛倒行事. 俄又有驅入表學之說, 是何次第也? 兩葉之始出乎地, 汲汲噴水而祝之, 欲使之一曙拂雲, 無有是處. 且如武人之習射也, 先六兩, 次柳葉, 次片箭, 方是次第. 今則超過兩節而片箭是習, 吾知其功未到而腕先痛矣.”

의 공부를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이징하를 설득하려 하였다.

천하 일의 본말과 선후는 그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형님께서 저의 말이 전혀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받아들일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라건대 일이년간 이랑(李郎)을 맡겨주시어 출입하며 서로 교유했으면 합니다. 우선 그로 하여금 한결같이 저의 지휘를 따라 저의 준엄한 가르침<sup>15)</sup>을 받게 하되 효과를 급히 얻기를 바라지 말고, 또 주변 사람의 비방 소리로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땅히 정성을 다해 가르침을 베풀어, 공부가 쌓이고 폭 젖어들게 하여, 그로 하여금 많이 쌓고 조금만 드러내는 공효가 있되 대소과의 실제 재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형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감히 더 이상 그를 오랫동안 만류하지 않을 것입니다.<sup>16)</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앞으로 이덕재를 가르칠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했다. 이 계획에는 이덕재를 공부에 많이 쌓여 실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담겨 있다. 김창흡은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여 이징하를 설득하고자 했다.

이렇듯 김창흡은 이징하를 설득하기 위해 표학의 유행 상황과 이징하가문의 과거 모범 사례를 대비하고 경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김창흡이 펼친 설득 전략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김창흡이 사돈 이징하를 완곡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이런 비판에는 같은 노론 내부의 과거 시험에 대한 변질된 태도를 문제삼고 단속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듯하다. 김창흡은 앞 세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환기시키고 회복함으로써 위의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덕재를 공부에 많이 쌓여 실제 재능을 가진 사람

15) 원문은 “鎚鉗”이다. “검추”라고도 한다. 선불교 용어로, 선승(禪僧)의 엄격한 지도력을 비유한다.

16) 金昌翁, 「答李季祥」,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390면. “天下事本末先後, 其理則然. 兄若以弟言爲不全無稽而猶有可採, 則願借此郎於一二歲間, 出入相周旋. 姑使之一從指揮而受其鎚鉗, 而勿責其急効, 亦勿以衆擘撓之. 則弟當盡誠施教, 積累浸灌, 使有多積薄發之功, 而不失爲大小科實才矣. 此後則任兄所入, 不敢復爲久久挽守計也.”

으로 만들고 싶다는 김창흡의 강렬한 마음은 개인적으로 사위를 인재로 육성하려는 뜻이 있는가 하면, 노론 집안의 차원에서 출세를 지향하는 과거시험에 대한 변질된 태도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노론 인재를 육성하려는 뜻도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 이 편지에서는 국가사회 전체와 차원에서 표학의 문제를 다루었다기보다는 노론 내의 변화를 두고 표학 문제를 논한 듯하다. 그렇다면 과거제도에 대한 김창흡의 관심은 개인과 노론 집단의 차원에만 국한되었을까? 김창흡은 표학의 유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까지 간파하여 지적하였다. 바로 지방 유생 선발의 불이익 문제이다. 「설악산을 나가는 원운서에게 지어준 서문」(贈元雲瑞出山序)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글의 창작 연도와 배경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원운서는 김창흡의 문인 원해익(元海翼)을 가리킨다. 1707년 가을 원해익은 김창흡을 따라 청평을 유람한 뒤에 같이 설악산에 갔다가 다음해 초에 떠났을 듯하다.<sup>17)</sup> 그렇다면 이 증서의 창작연도는 1708년 초일 가능성이 높다. 원해익의 거주지가 경기도 양천(陽川)<sup>18)</sup>이기 때문에 원해익은 지방 유생에 해당하는 향촌 사족임이 분명하다. 이 점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문 장르상 이 글은 증서(贈序)이다. 증서의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 권면 등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치에 대해 의론을 펼치고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다.<sup>19)</sup> 원해익에게 보내준 이 서문도 마찬가지다. 그럼 지금부터 글을 인용하면서 과거제도에 대한 김창흡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원해익과 김창흡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지방 문인” 부분 참조.

18) 金昌翁, 「答元海翼 甲午」, 『三淵集拾遺』 권22, 한국문집총간 167, 87면. “楊根卜隣, 知是八九分事. 苟得成矣, 此蹤豈不一造盍簪耶? 要勝於陽川時矣.” 영조 『을병증광사마방목』(乙卯增廣司馬榜目)에 의하면 원해익의 아들 원계영(元啓英, 1707~?)의 거주지 역시 양천이다. 이로써 원해익이 지방 유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9) 한유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陳必祥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1995, 서울: 이회문화사, 233~242; 陳必祥 著, 『古代散文文體概論』,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6, 170~174면 참조.

원군(元君) 운서(雲瑞)가 나를 따라 설악의 곡연(曲淵)에 들어와 머무르면서 세시를 넘기고 5개월 뒤에 돌아갔다. 떠날 때가 되자 나에게 한마디 말을 청하였다.

나는 운서와 책상을 함께한 지 오래되었고, 내 입에서 나온 미친 말이 운서의 귀로 들어간 게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훈(經訓)을 강론한 것으로 말하면 『논어』(論語), 『대학』(大學)에서부터 『태극도설』(太極圖說), 『통서』(通書), 『서명』(西銘), 『역학계몽』(易學啓蒙)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정밀하고 오묘한 의리로서 종신토록 연찬해도 쉽게 궁구할 수 없는 것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다. 돌아가 익히고 부연하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는 데 달려 있을 따름이니 내가 다시 무엇을 권면하겠는가? 그럼에도 그치지 않고 더해주기를 반드시 청했으니, 그렇다면 예전의 노여움을 잊지 말길 바랄 뿐이다.<sup>20)</sup>

위 인용문은 서문의 첫 부분이다. 이 서문의 주지는 ‘예전의 분노’이다. 얼핏 보면 이 글의 기조(基調)는 권면하는 것 같은데, ‘예전의 분노를 잊지 말라’라는 한마디를 통해 김창흡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환되었다. 김창흡은 이어서 ‘예전의 분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예전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술하였다.

처음에 내가 설악산으로 돌아갔을 때 운서와 함께 나란히 말을 몰아 가평(加平)의 청평산(淸平山)에 갔다. 이른 아침에 말을 타면서 토론한 바가 있었고 이어서 운서에게 최초의 초발심을 물어보니, 운서가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시골의 식견 좁은 자로서 어릴 적부터 들은 바는 오직 과거급제 하여 출세하는 것이 이로움이 된다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싶은 욕망의 정도를 논한다면 서울 유생의 배나

20) 金昌翁, 「贈元雲瑞出山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77면. “元君雲瑞從余入雪岳之曲淵, 棲留閱歲, 凡五箇月而歸. 臨行, 以一言爲要焉. 余與雲瑞同榻久矣, 狂言之出自余口, 入于雲瑞耳者, 不勝其多. 若所講經訓, 則自『魯論』、『曾書』, 以至『太極』、『通書』、『西銘』、『啓蒙』, 凡天下義理精蘊, 終身鑽研而未易窮者, 揜在裏許. 歸而溫繹, 在勿怠耳. 吾復何勉哉? 無已而必求益之, 則願毋忘疇昔之怒而已.”

되었습니다. 지난 을유년(1705)에 과장(科場)에서 난리가 일어났는데, 거자(舉子)들이 시관(試官)을 때리고 밟았으며 밤이 어두워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다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말 아래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크게 낭패를 당해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달간 뜰로 나가지 못했으니, 분한 마음이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통한 마음을 품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간간히 의리(義理) 관련 책을 가져다 읽었고 지금 옳은 것이 여기 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맹세하기를 영원히 다시는 과거장의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이미 그만두었으니 아마도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쓸 수 있을 듯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안장을 치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자네가 자신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참 이렇구나! 노할 때의 의리가 참으로 크다”라고 하였다.<sup>21)</sup>

위 인용문은 서문의 두 번째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대화의 형식으로 원해익의 입을 빌려 그가 분노한 까닭을 직접 밝혔다. 그 원인은 바로 을유년(1705) 식년시 시험장에서 유생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다. 김창흡은 과장에서 사고의 발생을 목도하고 피해를 입은 지방 유생 피해자의 입을 통해 사고의 전말을 생생하게 재현(再現)했다.

앞서 밝혔듯이 숙종 대에 경과가 자주 시행되고 시험 문제도 표문 출제를 위주로 하였다. 이는 지방 유생에게 매우 불리했다. 17세기에 들어 식년시와 경과가 분화함에 따라 서울 출신과 지방 출신의 급제 경향도 분화되어, 식년시 급제자는 지방 출신, 경과 급제자는 서울 출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sup>22)</sup> 식년시는 지방유생에게 관계 진출의 가장 중

21) 金昌翁, 「贈元雲瑞出山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77면. “始余還山, 與雲瑞聯鑣到加平之清平坪, 清曉馬上, 有所叙討. 仍詰其最初發心者, 則雲瑞嘆息而言曰: ‘余以鄉曲窳啓, 自幼所聞, 惟決科發身之爲利, 不知其他. 若論科愆分數, 則殆倍於盜諸生矣. 往在乙酉, 場屋亂作, 舉子輩毆踏試官, 夜黑相紛拏, 人多被傷. 余則顛於馬下, 危至折脅, 蓋大困歸家, 不庭者累月, 憤氣益沖沖也. 負痛無聊, 間取義理書閱之, 頓覺今是之在茲也. 於是大設矢誓, 永不復爲棘圍中人. 此事既已, 庶可從事於爲己學乎?’ 余聞此言, 不覺擊鞍而歎曰: ‘有是哉! 子之能立, 而怒之時義亦大矣.’”

22)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서울: 국학자료실, 1999, 112~119면;

요한 통로였다. 이에 지방 유생으로서 식년시에 대한 원해익의 욕망은 서울 유생보다 훨씬 컸다. 그런데 지방 유생에게 이렇게 중요한 식년시 시험 현장에서 부조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을유 식년시의 초시는 1704년 가을에 시행되었다.<sup>23)</sup> 그런데 문이소(文二所)에서 시관(試官) 안후(安垺)가 부정행위를 하여 자기 편의 유생을 뽑으려고 했다. 또 종장(終場) 날에 까닭없이 인정(人定) 전에 불을 끈 다음 많은 유생을 몰아내고, 다만 약간의 유생만을 남겨두고는 비로소 불을 켜며, 수권관(收券官)이 일어나 나간 뒤에 다시 시권(試券)을 거두는 일도 발생했다.<sup>24)</sup> 이를 목도한 유생이 많았다. 이 때문에 시험장에서 밟고 밟히는 사고가 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해익이 말한 을유년 시험장에서 일어난 난리였을 것이다.

원해익은 사고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많이 입었다. 그는 낙상(落傷)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급제는커녕 낭패를 당해 몇 달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김창흡은 원해익과의 대화를 통해 지방 문인으로서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는 희망, 과장에서 목도한 사고로 받은 충격, 이 사고로 입은 육체적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희망-충격-아픔’ 등 여러 심리적·육체적 변화를 겪은 원해익은 분노하는 마음이 더욱 치밀어올랐다. 원해익은 분노한 결과 과거 공부를 그만하고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쓰고자 결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유생으로서의 원해익의 자존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김창흡은 원해익의 몸에 각인된 기억을 집중적으로 논함으로써 원해익이 분노한 까닭을 밝혔다. 또 원해익과의 관계를 통해 향촌 사족의 고충을 알게 되고, 향촌 사족으로서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의리학을 선택한 원해익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김창흡의 시선은 한 향촌 사족 원해익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

박현순, 「조선후기 문과에 나타난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11면 참조.

23)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1월 10일 경술 기사 참조.

24) 『숙종실록』 30년 10월 11일 무인 기사 참조.

아아! 아름답고 성대한 우리나라가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여, 사방의 범민(凡民) 중에 준수한 이들을 모아놓고, 맨날 예(藝)로 다투게 하다가 점차 심해져 예위시(禮闈試)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아마 하늘에서 내리신 경계일 것이다. 그런데도 크게 징계하여 성률(聲律)에 대한 비루한 규정을 혁파해서 향거리선(鄉舉里選)의 고법(古法)을 따르지 못하니, 심하도다, 그들의 게으르고 안일함이여! 그 변란을 목도하고도 이전의 관행을 따르는 저 선비들은 파리나 개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다름없으니, 결국은 강개한 기개가 모자라 모두 운서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sup>25)</sup>

위 인용문은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시야를 더 넓혀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조선 과거제도의 부조리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정에서 사육문으로 인재를 뽑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팔도의 훌륭한 인재를 얻지 못할뿐더러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로 시관과 유생 사이에 밝고 밝히는 사고까지 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해익은 자신이 지방 유생으로서 서울 유생보다 과거급제에 대한 욕망이 배나 된다고 고백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숙종 대 식년시와 경과의 분화로 경향간 인재 선발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창흡의 지적에는 경향간의 인재 선발 불균형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경향간의 인재 선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창흡은 사육문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을 혁파하고 향거리선법(鄉舉里選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sup>26)</sup> 향거리선법은 주나라에서 고을마다

25) 金昌翁, 「贈元雲瑞出山序」, 『三淵集』 권23, 한국문집총간 165, 477면. “噫! 皇皇大東, 不能以禮讓爲國, 聚四方凡民俊秀, 而日以藝鬪, 馴致亂生於禮闈, 殆天所示警也. 而又不能大有懲創, 革其聲律陋規, 以從鄉舉古法. 甚矣, 其泄泄也! 彼衿紳之目覩其變而足踏舊跡者, 無異蠅狗之復, 則畢竟欠一慷慨, 都輸於雲瑞耳.”

26) 향거리선법에 대해서 김창흡은 정태구(鄭台壽, 1626~1702)를 기린 묘갈명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金昌翁, 「僉知中樞府事鄭公墓碣銘 并序」, 『三淵集』 권29, 한국문집총간 166, 53~54면. “公爲人淳厚, 性於仁孝. (….) 公少有文譽, 尤工比興. 其於本末, 可謂該矣. 始則厄於公車, 終未有論述德藝如古鄉舉法. 以是知其賢者鮮.”



향대부(鄉大夫)를 두고 세 가지로써 가르치다가 3년마다 어진 사람을 뽑아 중앙에 천거하던 인재선발법을 가리킨다.<sup>27)</sup> 이러한 방법으로 과거시험으로 선발되지 못한 기이한 인재들을 뽑아 나라에서 어진 사람을 얻을 수 있다.<sup>28)</sup> 이는 서울이 아닌 팔도의 유생이 출세하는 데 상대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조정에서 치세(治世)하는 인재를 얻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듯 김창흡은 ‘예전 분노’를 둘러싸고 지방 유생이자 향촌 사족인 원해익의 몸에 각인된 기억을 집중적으로 논함으로써 조선 과거제도의 부조리 현상을 지적하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거리선법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김창흡이 의리학을 선택한 향촌 사족 원해익을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지만, 김창흡의 시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시야를 국가적 범위로 확대해서 사료문으로 취재하는 조선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결책까지 마련했다. 이는 앞서 다른 글에서 개인과 노론 집단의 차원에서만 과거제도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다르다. 이제 김창흡은 나라를 통치하는 엘리트로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표학을 비롯한 과거제도 문제를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김창흡의 경세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김창흡이 향거리선법 외에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은 한 향촌 사족의 ‘몸의 기억’에 집중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세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거제도에 대한 생각을 개진한 의의가 있다.

요컨대 김창흡은 일찍부터 조선 과거제도의 부조리에 대해 진단을 내렸다. 김창흡에 의하면 숙종 대의 과거제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자주 실행된 경과가 표문 출제를 위주로 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흡은 사돈 이징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표학의 유행 문제를 비판하였다. 다만 이 편지에서는 과거 시험에 대한 노론

27) 『周禮』 「司徒」.

28) 金壽興, 「請用人變通疏」, 『退憂堂集』 권3, 한국문집총간 127, 55면. “我朝用人, 限以科目. 外此則雖有奇才隱德, 無路自達, 橫道遺珠之歎, 不幸有之. 可勝惜哉! 古之鄉舉里選, 公府辟召, 實是得人之良規, 而今難猝行. 臣愚以爲八道道臣各其道內, 如有表著可用之才, 勿論文武儒生, 不拘多少, 於歲首具其實行而啓聞, 隨才授官. 則雖未及濟濟之盛, 亦不無拔十得五之益矣.”

내부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두어 표학 문제를 논한 듯하다. 다른 하나는 경향간 인재 선발의 불균형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흡은 한 향촌 사족의 ‘몸의 기억’을 집중적 논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표학을 비롯한 과거제도 문제를 비판하였다. 당대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거리선법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 과거제도에 대한 김창흡의 생각과 주장을 분석하였다. 김창흡은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관리를 함부로 사면하는 소결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 소결이란 미결수의 죄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형벌을 결정하는 것, 심리(審理)를 거쳐 감형, 감등, 석방 등의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소석(疏釋), 소방(疏放)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sup>29)</sup> 김창흡은 경자년(1720) 지은 「만록」에 소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

율곡(栗谷)이 선조(宣祖) 대에 중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니, 참으로 명쾌하다. 당시 소재(蘇齋: 노수신)가 재상이었는데 그 주장을 흔쾌히 따르지 못하였다. 백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폐단이 아직 남아 있는데 혁파하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sup>30)</sup>

위 인용문은 선조 대에 소결을 비판한 이이의 일화를 서술한 내용이다. 글이 짧지만, 이이의 입을 빌려 소결제도를 비판하고 혁파하려는 김창흡의 생각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내용 분석에 앞서 먼저 소결과 관련된 이이와 노수신의 일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9) 조운선, 「조선시대 사면·소결의 운영과 법제적·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38집, 조선시대사학회, 2006, 53~55면; 문준영, 「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 『법과 사회』 69집,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282면 참조.

30) 金昌翁, 「漫錄」, 『三淵集』 권36, 한국문집총간 166, 176면. “栗谷在宣廟朝, 力言疏決釋重囚之不可, 儘是明快. 時蘇齋爲相, 而未能快從其言. 至今百餘年, 其弊猶在, 而未有破除之者, 良可慨惋.” 인용문의 번역은 김광태, 「三淵漫錄역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3면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

가뭄이 크게 들자 죄인을 소방(疏放)하라고 명했다.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이 건의하기를,

“원기(冤氣)가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김여부(金汝孚)·김진(金鎭)·이명(李銘)·임복(林復) 등은 금고(禁錮)된 지 오래되기에 원기가 틀림없이 쌓였을 것이니, 다시 등용하여 원기를 푸십시오”

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자 삼사(三司)가 함께 일어나 이들을 서용하지 말라고 청하였는데, 여러 날 만에 상이 비로소 허락하였다. 김여부·김진·이명은 병진년(1556), 정사년(1557) 무렵에 윤원형(尹元衡)에게 빌붙어 김홍도(金弘度)와 김규(金虬) 등을 공격하여 그 화를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던 자들이고, 임복은 을사년(1545) 이후에 권력을 잡은 간신에게 붙어서 사람을 해치고 출세하려던 자이다.

(이이가) 삼가 생각건대, 한재(旱災)와 황재(蝗災)는 진실로 원기로 초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억울하다는 것은 죄 없이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죄로 인하여 배척당한 것도 모두 억울하다 한다면, 요임금 시대에 사흉(四凶)을 귀양보내고 죽이는 것 역시 원기가 되어 요임금 시대에도 재앙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노수신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상의 우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재앙을 입은 때를 당하여 불만한 계책이 하나도 없고, 다만 죄인을 다시 서용하는 것을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로 삼으려 하니, 지극히 무능한 사람이라 하겠다.<sup>31)</sup>

위 인용문은 선조 7년(1574) 6월 기사를 기록한 이이의 『경연일기』(經筵日記)의 일부이다. 당시 심한 가뭄으로 우의정 노수신이 을사사화<sup>32)</sup>

31) 李珥, 「萬曆二年甲戌」, 『經筵日記二』, 『栗谷全書』 권29, 한국문집총간 45, 155면. “六月大旱, 命疏放. 右議政盧守愼建白: ‘以爲冤氣召災, 金汝孚, 金鎭, 李銘, 林復等禁錮歲久, 冤氣必積, 可復敍用, 以消冤氣.’ 上從之. 於是三司竝發, 請勿收敍, 累日乃允. 金汝孚, 金鎭, 李銘則於丙辰丁巳年間, 依附尹元衡攻擊金弘度, 金虬等, 將嫁禍士林者也. 林復則乙巳以後, 黨附權姦, 將以害人, 爲發身之路者也. 謹按: 旱蝗固是冤氣所致. 但所謂冤者, 無罪見枉之謂也. 若有罪被斥者, 皆可謂之冤氣, 則四凶之流放竄殛, 亦當爲冤氣, 而招堯代之災矣. 盧守愼位居台司, 被上眷遇, 而當此被災之時, 無一策可觀. 顧以收用罪人, 爲應天之道, 其可謂至無能者矣.” 인용문의 번역은 율곡 이이 지음, 오항녕 옮김, 『율곡의 경연일기-난세에 읽는 정치학』, 서울: 너머북스, 2016, 297~299면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를 주도한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 1503~1565) 일파를 소방(疏放)하자고 건의했다.<sup>32)</sup> 이에 이이는 을사사화의 주모자들을 소방하는 것을 칭한 노수신을 비판했다. 사림을 해친 무리를 사면하고 다시 등용한다는 것은 이이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이에 의하면 억울하다는 것은 죄 없이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소방을 시행할 수 있지만, 죄를 저질러 배척당한 자는 소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림을 해치고 엄중한 죄를 지른 김여부(金汝孚) 등 을사사화의 주모자를 소방해서는 안 된다. 소방과 소방 대상에 대한 이이의 태도는 그의 평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김창흡이 서술한 소결에 관한 일화의 시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결에 대한 이이의 평가가 소결과 을사사화라는 정치적 사건을 연결 지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창흡이 이이의 견해가 매우 명쾌하다고 높이 평가한 까닭 혹은 의도 역시 소론들이 소결을 활용해서 남인을 석방하여 등용하려 함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소방의 주체와 대상은 모두 장동김문과 원수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결에 대한 김창흡의 시선이 좋았을 리가 없다. 이는 김수증과 김창협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제 보내준 편지를 보니 매우 위로가 되네. 해직은 조만간의 일이니 피차 모두가 기쁠 것이네. 나는 무더위에 시달렸기 때문에 청령포(淸泠瀨)를 두루 유람하지 못해 곧바로 송풍정(松風亭)으로 돌아와 누웠으니

32) 을사사화는 4대 사화 중의 하나로서, 명종 즉위년(1545) 8월 외척 세력을 대표하는 소윤 윤원형 일파가 명종을 제치고 다른 왕족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혐의를 사림을 지지한 대윤(大尹) 윤임(尹任, 1477~1545) 일파에게 씌워 숙청한 사건이었다. 을사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림의 시대가 열린 선조 집권기에 이르러서였다. 강정인·장원윤,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4대 사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3집,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14~15면 참조.

33) 해당 내용은 『宣祖修正實錄』 7년 6월 1일 갑진 기사에도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旱, 命疏放罪人. 盧守愼建白: ‘冤氣召災, 金汝孚, 金鎭, 李銘, 林復等禁錮歲久, 可復收用.’ 上從之. 於是三司竝發, 請勿收絃, 累啓乃允. 金汝孚, 金鎭, 李銘曾附元衡攻害金弘度, 金虬等者也. 林復亦元衡鷹犬, 害士林發身者. 守愼欲因此時釋錮, 而有此論, 物議非之.”

개탄스럽네.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 이루어질 일이네. 비가 비록 늦게 내렸지만, 오히려 마른 곡식을 살릴 수 있네. 또 간귀(奸鬼)들이 소결(疏決)을 꾸미는 즈음에 내렸으니 마음이 또한 상쾌하네.<sup>34)</sup>

위 인용문은 1695년 여름 김수증이 조카 김창협에게 답한 편지의 일부이다.<sup>35)</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가 내려 마른 곡식을 살린다는 것과 간귀(奸鬼)들이 소결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증은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인가?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정에서 죄인을 처벌한 것이 애당초에 이미 엄중하지 못했는데, 겨우 1년이 지나자 갑자기 소방(疏放)을 의논하였고, 이미 소결(疏決)을 단행했는데 또 회의를 개최하니, 삼사(三司)에서 따르지 않은 것은 이치와 형세상 당연하다. 대신(大臣)이 된 자들은 마땅히 중지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여력을 다 쏟듯 삼사를 비난하고 배척하여 끝내는 반드시 성취시킨 뒤에야 그쳤으니, 사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 많이 사면되고 말았다.

안여익(安汝益)·안세정(安世楨)처럼 민암(閔黯)을 위해 장희재를 소개하여 큰 화변(禍變)을 빚어낸 자와, 장우극(張宇極)처럼 중전(中殿)을 향해 함부로 부도(不道)한 말을 발설하여 증거가 명백한 자까지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여 급급하게 석방을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소결(疏決)의 조치는 가뭄을 걱정한 데서 나온 것인데, 이제 큰 비가 연일 내려 바야흐로 홍수가 날 우려가 있는데도 또한 굳이 이런 조처를 하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대신이 공론(公論)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죄인을 구제하려 함이 이와 같으니,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sup>36)</sup>

34) 金壽增, 「答昌協」, 『谷雲集』 권5, 한국문집총간 125, 235면. “昨見來書, 甚慰甚慰. 解職是早晚事, 彼此俱可喜也. 俺困於炎蒸, 不卽歷覽清冷瀨, 歸臥松風亭, 可歎. 然此亦早晚事也. 一雨雖晚, 猶足以蘇枯, 而又發於奸鬼輩經營疏釋之際, 亦可快也.”

35) 문집을 연대순으로 편집한다는 점, 편지 내용과 『숙종실록』 21년 6월 6일 기사 내용과 비교해보면 같은 일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편지의 작성 연도는 1695년 6월 6일 직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6) 『숙종실록』 21년 6월 6일 병신 기사. “史臣曰: ‘朝家討罪, 初已不嚴. 而纔

위 인용문은 『숙종실록』 21년(1695) 6월 6일 기사의 일부이다. 사관은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 세력이 갑술환국으로부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기사환국을 주도한 안여익(安汝益), 안세정(安世禎)을 비롯한 남인 세력을 소방하기를 청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수증의 편지는 이 기사 내용과 연결 지어 볼 필요가 있다.

1695년부터 심한 가뭄으로 인해 을병대기근(1695~1696)이 발생했다.<sup>37)</sup> 재이가 발생할 때마다 가뭄을 없애기 위해 소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다. 1695년에 큰 가뭄이 들자마자 조정에서 소결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소론이 소결을 도모하던 중에 비가 내렸다. 심지어 홍수가 날 우려가 있을 정도였다. 이 비로 심하게 가뭄이 들었던 마른 곡식을 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뭄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소결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수증이 “간귀들이 소결(疏決)을 꾸미는 즈음에 내렸으니 마음이 또한 상쾌하다”라고 토로한 까닭이다. 김수증이 말한 간귀는 당시의 집권세력인 영의정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이다. 그런데 소결의 당위성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만 등이 소결의 단행을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기사환국을 주도한 안여익, 안세정을 비롯한 남인 인물들이 많이 사면되었다. 장동김문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소결로 자기 가문과 불구대천의 원수인 남인세력을 석방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695년 6월 6일 소론 영수 남구만이 소결로 기사환국을 일으킨 남인세력을 석방할 것을 청한 것은 1574년 6월 1일 우의정 노수신이 소결로 을사사화를 주도한 소윤 일파를 석방한다고 청한 것

---

及暮月，遽議疏釋，既行疏決，又舉會議。三司之不從，理勢然矣。爲大臣者，所當請寢之不暇，而乃反詆斥三司，不遺餘力，終至必成而後已。罪犯罔赦者，多蒙赦宥。而至如安汝益、安世禎之爲黯紹介，釀成大變者，張宇極之向坤聖肆發不道之言，證佐明白者，亦且視以薄物細故，而汲汲請放，何哉？且疏決之舉，出於憫旱，而目今大雨連日，方有懷囊之憂，而猶且強爲此舉者，豈不異哉？噫！大臣之不畏公議，必欲伸救罪人如此，國其奈何？國其奈何？”

37) 관련 연구는 최진수, 「을병대기근기 청 곡물 수입과 진휼정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7~15면; 권연웅, 『경연과 성군 담론』, 파주: 지식산업사, 2021, 113~157면 참조.

과 똑같다. 따라서 기사환국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장동김문 구성원들은 소결로 남인세력을 석방하는 행위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갑술환국이 지난 지 1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바로 남인을 석방한다고 소결한 것은 갑술환국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던 장동김문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김창흡은 이이와 노수신의 일화를 통해 소결제도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입장을 전반적으로 드러냈다. 김창흡의 비판은 당시의 정치적 맥락 및 당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소결에 대한 김창흡의 비판적 입장은 『십팔사략』(十八史略)에 나온 동한 오한(吳漢)의 유언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릴 적에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읽었는데, 오한(吳漢)이 죽음에 임하여 광무제(光武帝)에게 사면령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매양 그의 긴요하지 않음을 비웃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고금의 유언 가운데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오늘날에 죄수들을 관대하게 처분하여 풀어주는 것을 오한이 본다면 또한 필시 마음속에 답답하게 여길 것이다.<sup>38)</sup>

위 인용문은 「만록」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김창흡은 자신의 역사서 공부 경험을 가지고 오한 유언에 대해 재평가함으로써 소결제도를 비판하였다. 오한은 죽기 전에 광무제가 오한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오한이 사면령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sup>39)</sup> 이에 대해 김창흡은 어릴 적에 오한의 유언이 긴요하지 않다고 조소했는데, 말년에 와서 고금 이래 이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고 재평가하였다. 김창흡은 왜 노년에 와서 생각을 바꿨는가? 이는 당화를 겪은 뒤 헤게모니 투쟁 속에서 장동김문을 지키고 노론을 지키려는 김창흡

38) 金昌翁, 「漫錄」, 『三淵集』 권36, 한국문집총간 166, 176면. “兒時讀『史略』, 至吳漢臨死, 言願無赦, 每笑其不緊. 到老思之, 古今願言, 莫如此切確. 今之疏決, 使吳漢見之, 則亦必腹悶矣.”

39) 曾先之, 「東漢光武」, 『十八史略』(天), 대전: 학민문화사, 2011, 390면. “及卒, 上臨問所欲言. 漢曰: ‘臣愚, 願陛下慎無赦而已.’”

의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김창흡이 소결제도에 대한 이이의 평가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한의 유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는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한 유언의 내용과 당부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십팔사략』 해당 부분 뒤에 붙은 당 태종(唐太宗)의 평어이다. 오한 유언의 당부 대상은 광무제 유수(劉秀)이고, 당부 내용은 사면령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양한(兩漢) 시기의 사면 상황을 보면 동한 광무제 때 사면 횟수가 19번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sup>40)</sup> 이에 대해 당태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사면은 소인의 요행이요, 군자의 불행이다. 무릇 죄를 내버려두는 것은 좋은 곡식을 해치는 일이고 죄수를 사면하는 것은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짐이 사면령을 자주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소인들이 사면령을 믿고서 법을 가벼이 범할까 두려워해서이다. 오한이 광무제에게 사면령이 없게 하기를 간한 것은 이 뜻이다.<sup>41)</sup>

위 인용문은 당태종의 평어이다. 『십팔사략』을 읽은 김창흡이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 여기서 군자와 소인, 그리고 그들과 사면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태종의 말에 의하면 사면령을 많이 내리면 소위 소인이 이를 믿고 법을 가벼이 범하기 십상이고 군자를 해치기도 하므로, 오한의 유언도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남긴 것이었다. 즉 사면령은 군자에게 해가 되고 소인에게 이득이 되는 수단이란 것이다. 숙종대의 복잡한 권력 투쟁 속에서 군자소인론을 주장한 김창흡이 사면제도 중 하나인 소결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 까닭은 소론세력이 소결제도를 통해 실세(失勢)한 남인을 비롯한 소인배를 석방하거나 재등용했기

40) 鄒文玲, 「漢代赦免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3, 20~34면 참조.

41) 曾先之, 「東漢光武」, 『十八史略』(天), 대전:학민문화사, 2011, 391면. “唐太宗曰: ‘赦者小人之幸, 君子之不幸也. 夫養稂莠者害佳穀, 赦有罪者害良善. 故朕不欲數赦. 恐小人恃之, 輕犯憲章. 吳漢諫光武無赦, 亦此意也.’” 인용문의 번역은 김광태, 앞의 글, 14면 참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95년 소결을 통해 남인을 석방한 것에서 이 점을 이미 확인할 수 있고, 사면된 중죄수 대부분이 남인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sup>42)</sup>

요컨대 김창흡은 이이와 노수신의 일화, 오한의 유언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소론 세력이 소결로 기사환국의 주도자들을 석방하도록 청한 것과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결로 남인세력을 소방하고 다시 등용한 것을 비판하였다. 소결제도에 대한 김창흡의 비판에는 장동김문과 불구대천의 원수관계인 남인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가문 수호자로서의 김창흡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소결제도를 비판한 김창흡의 입장은 소결에 대한 부친 김수항 및 노론 세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수항은 1775년 7월 12일에 「응지에 진언하는 차자」(應旨進言劄)에서 재변을 그치기 위해 경수(輕囚)라도 소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sup>43)</sup>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노론의 주도 아래 편찬된 『숙종실록』에 나온 소결에 대한 사신(史臣)의 평어도 김수항의 논리와 같다. 숙종 21년(1695) 5월 1일 임술 기사 가운데 남인 권대운(權大運)·권처경(權處經)·정유악(鄭維岳) 등의 석방을 논한 대목에서 사신은 소결로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석방하여 하늘을 감동시켜 재변을 그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sup>44)</sup>

이렇듯 김창흡이 소결제도를 비판한 것은 당시의 정치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소결제도에 대한 김창흡의 비판에는 장동김문과

---

42) 대표적인 예는 숙종 23년 4월 24일 숙종이 소결로 갑술환국 때 유배된 목내선(睦來善)을 안치시키고, 오시복(吳始復), 이서우(李瑞雨)를 비롯한 남인을 모두 석방하도록 한 것, 숙종 25년 2월 4일, 숙종 27년 5월 21일 목내선, 이현일(李玄逸), 심계량(沈季良) 등을 석방하도록 한 것이다. 1697년 석방된 오시복과 이서우는 1698년 초에 최석정의 천거를 받아 서용되기도 하였다. 『숙종실록』 23년 4월 24일 계유 기사; 25년 2월 4일 갑진 기사; 27년 5월 21년 정미 기사 참조.

43) 金壽恒, 「應旨進言劄」, 『文谷集』 권12, 한국문집총간 133, 233면. “庶獄輕囚之疏釋, 行之可也, 不行亦可也. 欲以此而感回天怒, 迓續邦命, 不亦左乎?” 이 일로 숙종이 크게 노하여 김수항을 영암으로 유배했다. 김수항의 이 차자에 대해 김창협이 「선부군 행장」(先府君行狀)에 자세히 밝혀놓았다. 金昌協, 「先府君行狀上」, 『農巖續集』, 한국문집총간 162, 466면.

44) 『숙종실록』 21년 5월 1일 임술 기사 참조.

불구대천의 원수관계인 남인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남인을 등용하려는 소론 세력을 비판하는 뜻이 깔려 있다. 이는 가문 수호자로서의 김창흡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 소결에 대한 김창흡의 비판은 부친 김수항을 비롯한 노론 세력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는 노론 엘리트로서 김창흡이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결제도를 비판하는 노론 세력의 논리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과거제도와 소결제도에 대한 김창흡의 비판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과거 시험에 대한 노론 내부의 변질된 태도 비판, 향촌 사족의 경험에 의거한 표학을 비롯한 과거제도 문제 비판, 당파간의 해계모니 투쟁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결제도 비판 등은 모두 김창흡이 ‘사’(士)라는 계급을 두고 한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김창흡의 경제적 면모를 논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민’(民)을 향하는 마음이나 애민사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따져본 후에 그를 경제적인 인물로서 부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민’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 (2) 군역 및 토지 개량의 문제점 진단

김창흡은 조선 팔도를 두루 유람했다.<sup>45)</sup> 그런데 그의 유람 목적은 단지 산수를 즐기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여러 여행을 통해 누구보다 민생, 민정(民情)을 세심히 관찰하고 파악하고 있었다. 백성의 삶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군역과 토지 문제 등에서 백성을 향한 김창흡의 시선이 더욱 잘 드러난다. 그는 백성을 위해 백씨 김창집과 대립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군역과 토지 개량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백성을 향한 김창흡의 경제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숙종 대에 논의된 가장 큰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양역제를 변통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전정문란(田政紊亂)을 해결하여 균세균부(均稅均賦)를 달성하는 것이었다.<sup>46)</sup> 김창흡은 이 두 가지 논의에 모두 참여하

45)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 참조.

여 자기의 의견을 내세웠다. 먼저 군역의 문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전기 군제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등 중앙 군영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각종 명목이 증설되어 군역의 급증을 야기하였고 지방군의 군역도 폭증하였다. 숙종 대에 이르러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역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sup>47)</sup> 이에 군역과 양인 총수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조선후기에는 양역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역으로 발생하는 폐단과 현상은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침정(黃口簽丁), 인징(隣徵), 족징(族徵) 등이 있다. 이는 당시 민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sup>48)</sup>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현종 대부터 양역변통론이 대두하였고, 숙종 대에 이르러 양역변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sup>49)</sup>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김창흡은 양역변통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펼쳤는가?

김창흡은 1715년 봄에 평강에 있었을 때 양역 변통과 관련하여 백씨 김창집에게 편지를 두 통이나 보냈다.<sup>50)</sup> 하나는 원집 권17에 수록되어 있는 「백씨에게 올리다」(上伯氏)이고,<sup>51)</sup> 다른 하나는 습유 권13에 실려 있는 「백씨에게 올리다」이다.<sup>52)</sup> 내용상 습유에 수록된 편지를 먼저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습유 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46) 이세영, 「조선 숙종대의 양전의 정치학」,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서울: 혜안, 2008, 20면 참조.

47) 김종수 지음, 『숙종시대의 군사체제와 훈련도감』,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69~71면 참조.

48) 김종수 지음, 위의 책, 70면; 송양섭, 「숙종조의 재정·부세정책」, 『한국인물사연구』 9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8, 158면 참조.

4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연식,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11~175면; 정연식 지음, 『영조대의 양역 정책과 군역법』,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43~72면 참조.

50) 편지 제목 뒤에 ‘乙未’라는 소주가 적혀 있다. 을미년은 1715년이다. 편지 내용에 의하면 김창흡은 자신이 머물렀던 읍의 인구수, 태정(汰定)한 수 등 수령급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상세한 정보에 대해 매우 잘 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정 관련 두 번째 편지에는 이희조가 평강을 다스린 내용도 나왔다. 따라서 김창흡의 행적, 양역 사정 관련 기록으로 짐작하면 아들 김양겸이 평강 현감으로 재직중인 1715년 봄에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51)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47면.

52)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0~461면.

하겠다.

양역을 사정(査定)하는 일에 대해 모르겠습니다만 형님도 그 의론에 참여해서 꼭 실시할 만하다고 여기셨는지요. 저는 방외인으로서 그 곡절을 자세히 알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여기(평강平康을 가리킴)에 와서 보니 2천 호(戶) 내에서 오백 명을 뽑아냈으니, 위로는 향청(鄉廳)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령(使令)까지 모두 포함시켜 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를 통해 미루어 보면 각 읍의 어수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일을 행해 민심을 잃으면 과연 나라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승정(崇禎) 황제는 역참(驛站)을 혁파함으로써<sup>53)</sup> 민심을 흐트러지게 해서 이자성(李自成)의 반란을 초래했습니다. 역참제도를 혁파할 당위성은 꼭 사정(査定)보다 반드시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진실로 제때에 맞는 게 아니라면 절로 난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우선 사람이 아픈 것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의 기운이 한창일 때는 도창법(倒倉法)<sup>54)</sup>을 써도 괜찮고, 이보다 못한 경우에는 다만 대황(大黃)과 빈랑(檳榔)을 쓸 수 있고, 이게 또 안 되는 경우에는 금련을 써야 되며, 이게 또 안되는 경우에는 삼부(參附)를 쓰고, 목숨이 다해감에 이른 경우에는 오직 미음을 먹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지금의 때를 당해 신법(新法)을 반드시 실시하려 드는 것이 미음을 먹여야 할 때 도창법을 쓰려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sup>55)</sup>

53) 승정 황제는 재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승정 2년(1629)에 역참을 혁파하였다. 이자성은 원래 역참의 벼슬아치였는데 역참이 없어지자 이자성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54) 장위(腸胃)나 경락(經絡)이 오랫동안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을 때 장위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씻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55)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0면. “良役査定一事, 未知兄主亦與其議, 而以爲必可行耶? 方外之人, 固難詳其曲折, 而來此見之, 則二千戶內, 抽出五百人, 上自鄉廳, 下至使令, 皆被括入而收布. 則舉此一隅, 可知各邑之騷然矣. 此時何時, 而爲此無前之事, 以失民心, 果何利於國哉? 崇禎皇帝罷一驛替而民心渙散, 以致李自成之亂. 驛替之當罷, 未必不如此査定. 而行之苟非時, 則自有招亂之道. 且以人病設喻, 方其氣健之時, 雖用倒倉法亦可, 下此則只用大黃檳榔, 又不可則用芩連, 又不可則用參附, 至其垂盡則惟以米飲灌之而已. 不然則促其死. 當今之時, 必行新法, 何以異於試倒倉於灌米飲之時哉?”

위 인용문은 편지의 첫 부분이다. 이 편지의 핵심은 바로 ‘민심’이다. 김창흡은 민심의 차원에 입각하여, 1714년 갑오사정을 바탕으로 실시하려던 호포론(戶布論)을 포함한 신법의 실시<sup>56)</sup>를 반대하였다. 민심이라는 어휘는 이 편지에 세 번이나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요민’(擾民), ‘여민’(厲民) 등 ‘민’과 관련된 어휘도 보인다.

우선 편지의 서두에서 김창흡은 외진 고을 평강의 실제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현재 시점에서 양역변통 실시가 무리하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김창흡은 신법 실시에서 ‘때’[時]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흡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명나라 승정(崇禎) 황제가 잘못된 시기에 역참제도를 혁파해서 이자성(李自成)의 난이 일어나게 됐다는 역사적 사실과 병의 증세에 맞게 처방해야 하는 한방 치료법을 들면서 때의 중요성과 민심 사이의 상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양역변통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정에서 이번 수괄(搜括)을 한 까닭은 오로지 북한산성의 축성<sup>57)</sup>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혹자가 말하였는데, 이는 역시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산천의 견고함이 어찌 나라 근본의 견고함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요충지를 지키는 효과는 먼 후일에 드러날 것인데,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은 바로 눈앞에 있으니 그 이로움과 해로움을 역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내 재물을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라고 했으니, 도둑질하는 신하는 그저 임금의 재물만 훔쳐갈 뿐이지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신하는 백성을 괴롭혀 나라를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대부분 임금의 마음에 영합하여 나라의 재정을 마련하고 준비함으로써 한 시대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니, 한나라의 상홍양(桑弘羊)과 공근(孔僅), 당나

56) 갑오사정은 숙종 대의 마지막 양역사정이었다. 정만조, 「양역변통론의 추이」, 『한국사』 32, 서울: 탐구당, 2003, 148면 참조.

57) 북한산성 축성 관련 논의는 김근하, 「丁丑約條로 본 현종~숙종 대 조청관계-安秋元 事件과 北漢山城 修築 論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1~48면 참조.

라의 양염(楊炎)과 진서(陳恕)<sup>58)</sup>가 이런 무리들입니다. 지금의 조정에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대신(大臣)이 된 자가 잘 재 채하고 억누르지 않아 구차히 서로 ‘예예’라고 하기만 하면 끝내 망하는 데로 귀결될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sup>59)</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두 번째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재야 노론 엘리트로서 ‘민’의 시각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북한산성 축성 사업을 보태려는 조정의 행위를 비판하였다. 김창흡은 국가 재정 마련의 문제를 국가의 근본인 백성을 침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재 양역변통을 통해 국가 재정을 마련하려는 행위는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김창흡은 현재 조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겉으로는 국가 재정을 표방하면서 실은 백성을 괴롭히고 외면하는 신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대신들은 이를 억누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대신은 좌의정 김창집을 비롯한 의정부 삼정승을 가리킨다. 김창흡은 백성의 이익을 해치는 조정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던 백씨 김창집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우의정[김우항]의 뜻은 이 법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은 듯합니다. 즉, “안건에 의거하여 점주(點注)하는 것은 해당 현에서 맡기지 않고 구질구질하게 스스로 하니, 사체에 크게 어긋난다”라고 하였고, 끝으로는 “민대(閔臺: 민진후)께서 하시는 것에 내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시 불충한 것 같습니다. 진

58) 진서는 당나라가 아니라 북송 초기의 대신이다. 김창흡이 착각한 듯하다. 상홍양(桑弘羊), 공근(孔僅), 양염(楊炎)과 진서(陳恕) 등은 재정 개혁으로 유명한 신하들이다.

59)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0면. “或云: ‘朝家之爲此搜括, 專爲支供北漢之用也’, 則亦未之思也. 山溪之固, 何如邦本之固? 而據險之效, 遠在日後; 擾民之弊, 近在目前. 其利害亦易見矣. 『大學』曰: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盖盜臣則只是窃君之財, 聚斂之臣, 厲民以削國. 若此類, 多是奉迎君心, 辦備國用, 以是見能於一時. 如漢之桑·孔, 唐之楊·陳是也. 今日朝廷, 未必無其人, 而爲大臣者, 不稍裁抑, 而苟相唯諾, 終爲淪胥之歸, 豈不殆哉?”

실로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여러 번 변명하고 반박해서 지당(至當)한 것으로 귀결되게 힘써야 도리에 맞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마치 수수방관하는 자처럼 했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 오늘의 조정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도가 없습니다. 무릇 한 의안(議案)을 제시하고 한 일을 일으킴에,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때에는 마치 부절을 합한 듯했다가, 물러나면 뒷말을 하여 진월(秦越)처럼 여깁니다. 이와 같은 사이인데 나라의 일을 함께 도모하려고 하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번 신법의 실행 여부는 진실로 나라의 이해(利害)와 연관되니, 구차히 서로 ‘예예’라고 응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바라건대 다시 우의정과 충분히 의론하셔서 우의정께서 과연 불편할 기색을 보이신다면 영의정[서종태]에게 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임금으로 하여금 왕명을 회수하시게 해서 민심을 크게 흐트러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 신법을 실행하기보다는 차라리 구포법(口布法)을 실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일의 편의 여부에 대해 연상(蓮相: 이이명)<sup>60</sup>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습니까?<sup>61</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당파적 차원을 넘어 나라와 백성의 현황을 고려하여 양역변통 실시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백씨 김창집에게 권하였다. 편지에 나온 우규, 민대는 노론 세력으로 우의정 김우항(金宇杭, 1649~1723)과 민진후(閔鎭厚)를 가리키고, 수규는 소론 세력으로 영의정 서종태(徐宗泰)를 가리킨다. 당색이 다르지만 모두 장동김문과 혼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다.<sup>62</sup>

60) 이이명의 집이 연동(蓮洞)에 있었다. 그러므로 연상이라 불렀다.

61)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1면. “似聞右揆之意, 不以此法爲是. 以謂‘據案點注, 不付本縣, 而瑣瑣自爲, 大非事體’云. 而終則曰: ‘閔台所爲, 余何與焉?’ 此言亦似不忠. 誠知其不可, 則反復卞駁, 務歸至當, 方是道理. 而不此之爲, 有若袖手傍觀者然, 豈不異哉? 盖今日朝廷, 無是是非非之道. 凡發一議, 興一事, 合席而論, 若相契合. 而退有後言, 便同秦越. 如是而欲共做國事, 豈不殆哉? 惟此新法行否, 實有關於國家利害, 不可苟相唯諾而止. 幸更與右揆爛熟商量, 果見其不便, 則取決于首揆. 而斯速反汗, 毋俾民心大渙, 如何如何? (….) 與其行此法, 不若行口布. 此事便否, 試詢于蓮相如何?”

편지에서 김창흡은 시비 판단을 끝까지 견지하지 않았던 고종사촌 김우항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유는 김우항이 양역변통을 강렬히 반대하였는데, 그동안 양역변통 추진 사업을 해왔던 민진후가 한 것<sup>63)</sup>에 대해 오히려 자신과 상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편지에서 김창흡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우항이 양역변통을 반대한 것은 분명하다. 그는 1714년 10월 3일에 백성의 생계와 삶을 고려해서 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포를 감면해줄 것을 건의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고,<sup>64)</sup> 1715년 7월 23일에 양역변통 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생민의 적폐(積弊)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듭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sup>65)</sup> 하지만 이렇게 강렬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역변통을 추진한 민진후의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袖手傍觀)한 듯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시시비비의 도를 지키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하여 김우항을 비판하였다. 그런데 김창흡의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창흡은 대신들이 공적 자리에서 시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뒤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을 비판했다. 숙종 후반기 당쟁이

62) 김우항의 모친은 김광혁의 딸이다. 김광혁과 김광찬은 친형제이다. 나중에 김광찬은 김상헌에게 출계하였으며, 김광찬의 둘째 아들 김수홍은 다시 김광혁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김우항은 김창흡과 고종사촌관계가 된다. 서종태의 모친은 이명환(李明漢, 1595~1645)의 딸로서 이희조의 고모이다. 그러므로 이희조와 서종태는 고종사촌관계가 된다. 또한 서종태의 큰아들 서명륜(徐命倫)이 김수홍의 사위인 홍택보의 딸과 혼인했기 때문에 서종태 집안은 장동김문과 혼척관계가 있다. 민진후는 김창협과 동서지간이 된다. 제3장에서 밝혔듯이 여흥민씨 집안도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척관계를 맺었다.

63) 정만조,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 『국사관논총』 17집, 국사편찬위원회, 1990, 155면 참조.

64) 金宇杭, 「辭職仍申請減布筭」, 『甲峰遺稿』 智編, 한국문집총간 158, 420~421면.

65) 『승정월일기』 숙종 41년 7월 23일 병진 기사. “宇杭曰: ‘生民積弊, 不可不念. 故昨年, 臣有所達, 自上有戶布口錢間, 從長設施之教, 而外間諸議, 皆以爲決不可行, 戴黑笠者, 尤有怨言. 國必大更張, 大變通, 然後可以行之. 臣每與領相議之, 其意難於猝行, 而以大體言之, 不過均民役而已也. 臣聞故參判俞榮於先王朝獻戶布之議, 而其時不得設行. 臣之內舅故相臣金壽興與故清城府院君金錫胄有欲行之議, 先輩長者三字缺確之久矣. 然卽今形勢, 有不可猝然行者, 行與不行間, 一言決之也.’”



격화됨에 따라 당파 사이에는 합리적인 상호 견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고 정파적 대립이 심해져 반감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서로간의 갈등을 미봉하기 위해 공식적인 토론을 삼가고 구차히 서로를 건드리지 않았다. 김창흡은 이를 조선 지배질서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위기를 감지한 김창흡은 당파적 차이를 넘어 나라와 백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려하여 김창집에게 김우항과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했고, 같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서종태에게 결단을 부탁하자고 당부했다.<sup>66)</sup> 당쟁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고려하는 김창흡의 사고는 전형적인 애민 사상의 논리에 해당한다.

이상 이 편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김창흡이 양역변통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당시 시점에서 양역변통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했을 따름이다. 김창흡은 양역의 고질을 고쳐야 할 것을 알았다. 이는 “역참제도를 혁파할 당위성은 꼭 사정보다 반드시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변통에는 ‘때’, 즉 시의성(時宜性)이 중요하다. 왜 그럴까?

이번 사정의 특수성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의 사정 작업이 주로 중앙의 각사나 군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데 반하여 갑오년 사정의 규모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보다 훨씬 컸다.<sup>67)</sup>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전국적인 흉년과 전염병이 심했다는 점이다. 속종 연간에는 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1714년의 전염병이 매우 심했다.

66) 서종태는 양역 변통에 대해 1711년 호포론을 건의하였고, 1715년에 영의정이 된 뒤에 양역 변통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그런데 서종태도 당시는 신법을 실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듯 노·소론을 막론하고 양역변통에 대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용흠, 「만정당 서종태의 정치 활동과 탕평론」, 『고전번역연구』 11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20, 76면; 李喜朝, 「答閔靜能 乙未」, 『芝村集』 권10, 한국문집총간 170, 238면. “日昨領相書, 有曰‘今時決不可創行大新法, 致其末梢深可憂懼’云. 而又聞其所言於兒子者, 則‘以爲左相既發端, 今難中止. 方與兄相議, 欲試行結布於關西’云. 數日之間, 書與言又如是逕庭, 未可知也.” 참조. 이희조는 서종태와 고종사촌관계이다. 편지에 언급된 ‘영상’은 서종태를 가리킨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는 이희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법을 급히 실시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표하였다.

67) 정연식,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추이」, 『한국사론』 13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139면; 송양섭, 앞의 글, 159면 참조.

전염병은 농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국적인 흉년이 든 해는 숙종 34년(1708), 숙종 39년(1713), 숙종 42년(1716)이었다. 그 사이에 숙종 36년(1710), 37년(1711), 40년(1714)에 국가 재정의 근본이던 삼남에 재황이 들었다. 이에 숙종이 기근 구제 지시를 내렸다.<sup>68)</sup>

이렇듯 1714년 양역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1715년 양역변통을 실시하려던 시기에 조선의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을 겪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창흡이 양역변통을 실시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이다. 당시 조선 팔도 백성들의 삶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양역변통을 실시하면 백성에게 피해를 주고 민심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내린 것이다. 김창흡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김창집에게 편지를 보냈다. 몇 차례 논의한 뒤에 1715년의 양역변통은 끝내 무산되었다.<sup>69)</sup> 1715년 12월 4일에 김창집이 훈련도감을 변통하는 방법에 대한 소회를 진달하는 상소문을 올려 양역변통의 시의성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sup>70)</sup> 양역변통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요컨대 이 편지에서 김창흡은 나라와 백성의 현황을 고려하여 양역변통 실시의 부당성을 밝힘으로써 1715년의 양역변통을 반대하였다. 이 편지를 통해 당쟁보다 백성을 먼저 고려하는 김창흡의 애민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구체적으로 당시에 양역변통을 실시하는 것의 폐단에 대해 어떻게 파악했는가? 이는 같은 해 김창집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양역(良役)을 사정(査正)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편지를 삼가 받고 그 곡절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뜻이 과연 도망가거나 죽은 자의 부역을 그 이웃과 친족에게 전가(轉嫁)하는 폐단을 구제하려는 데에서 나왔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의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토지를 자세히 측량하는 것은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것이

68) 이세영, 앞의 글, 163~164면; 정형지,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25집, 한국역사연구회, 1997, 50~52면 참조.

69)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10월 30일 임진 기사 참조.

70) 金昌集, 「論訓局變通之道, 兼陳時弊筭乙未」, 『夢窩集』 권6, 한국문집총간 158, 130~131면;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12월 4일 병인 기사 참조.

라고 주장했는데 끝내 백성을 괴롭히는 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전포(錢布)를 모으는 것도 북한산성의 축성에 쓰는 것이 아닐지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읍에서 태정(汰定)<sup>71)</sup>할 인원수는 오백 명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팔백 명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읍의 각양각색 모속(冒屬)된 사람들이 곧 민호(民戶) 원래 수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니, 이 어찌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비변사에서 관아 사이에 보낸 공문(公文)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향청의 아전으로 하여금 조금도 분간(分揀)하지 말고 모두 다 포괄시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집에 응하려는 자도 면치 못하는 것은 더욱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애당초 관부(官府)에서 모집을 유도한 것은 아마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것과 군기(軍器) 및 서적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니, 이른바 필요한 까닭에 바친다<sup>72)</sup>는 것입니다. 수령된 자가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첩문(帖文)을 주는 것은 진실로 죄로 삼을 만합니다. 그리고 납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미 비싼 값으로 납부할 것을 마련했는데 오랜 이후에 다시 신포(身布)를 징수한다니 안 팔리는 물건 신세<sup>73)</sup>라 이를 만합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관가에게 속임을 당하게 해놓고 다시 분간하지 않았단 말이나?’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관가에서 백성을 속이는 것과 조정에서 댋을 놓는 거의 한통속이 되는 데로 귀결되어, 비방을 나누어 갖는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을 깨끗하게 없애고 철저히 다스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백성의 돈을 함부로 거두어들인 전후(前後) 수령들로부터 백성의 재물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백성들이 태정에 대해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댋을 놓아 강행한다면 백성의 입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아마도 상군(商君: 상앙)의 3장(丈)의 나무<sup>74)</sup>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71) 선비로서 시강에 떨어진 자를 도태시켜 군사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72) 원문은 “要用所致”이다. 이 말은 인조 22년 8월 6일 “여러 행차에 소요될 서로(西路)의 쇄마(刷馬)를 마련하는 일에 대한 방안을 아뢰는 비변사의 계(啓)”에 보인다. 『비변사등록』 인조 22년 8월 6일 기사 참조.

73) 원문은 “賈用不售”이다. 이 말은 『시경』 「곡풍」(谷風)의 “이미 나의 덕을 물리치니 / 마치 장사꾼이 물건 팔리지 않는 것과 같구나”(既阻我德, 賈用不售)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74) 원문은 “商君三丈之木”이다. 『사기』 「상앙전」(商鞅傳)에 보이는 말로,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상앙(商鞅)이 법정을 개정할 때 백성들의 신임을 사기 위해 3장(丈)의 나무를 세워 놓고 그것을 옮기는 사람에게 금을

어제 들었는데, 한 교생(校生: 지방 향교에 다니는 유생을 가리킴)이 동보(同甫: 이희조)<sup>75)</sup>의 재임 기간에 일찍이 서적을 마련해줌으로 부역을 면제받았는데 지금 태정하는 명단에 들어 있어서, 구물(舊物)을 옮겨 배를 바치는 데 보태려고 한다고 하니, 또한 우스운 노릇입니다. 현임 평강 현감 역시 대답할 만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 봐도 이 일의 실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더 잘 살피시어 변통할 길을 도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76)</sup>

위 인용문은 양역변통과 관련된 두 번째 편지이다. 이번 편지에서는 김창흡이 평강 한 고을의 실제 태정(汰定) 상황을 가지고 양역변통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창흡이 지적한 폐단은 바로 ‘모속’(冒屬)과 ‘사모속’(私募屬)으로 일어난 민폐이다.

모속은 직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변동을 통해 양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르고, 사모속은 정부에서 파악하고 공인한 군역 이외의 것으로서 경외(京外)의 각 관청 및 기관들이 각종 명목으로 사사로이 군역자를 모집하는 현상을 이르는 것이다.<sup>77)</sup> 1714년 양역사정의 목적은 각처의 모

---

준다는 명령을 내렸다. 어떤 사람이 이를 옮겨 농자 곧 금을 주어 백성들에게 신의를 증명하였다.

75)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희조는 1686년 11월 13일부터 1688년 12월 2일까지 평강 현감에 재직하였다. 숙종 12년 11월 13일 기사; 14년 12월 2일 신축 기사 참조.

76)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47면. “查正事, 伏承下示, 以悉曲折矣. 朝家主意, 果出於逃故隣族之救弊, 則豈不美哉? 而從前如許等事, 如詳定量田之類, 號爲恤民, 而終爲厲民之歸. 今番括入錢布, 安知不爲北漢支用耶? 此邑汰定之數, 不惟五百, 實則八百名也. 試念一邑中各樣冒屬, 乃占民戶原數三分之一, 而不爲剝割之歸耶? 更考備局行關, 的以鄉廳吏隸不少分揀而括之, 至於願募之不免, 尤爲冤悶. 當初官家之誘募, 蓋出於賑政所用及軍器書籍之備, 所謂要用所致也. 爲守令者, 不待朝令, 擅給帖文, 固爲可罪. 而以渠輩言之, 既已備納重價矣, 年久之後, 復徵身布, 可謂買用不售矣. 豈可曰: ‘孰令汝見欺於官家而不復分揀也哉?’ 竊謂官家之罔民與朝家之籠罩, 殆爛漫同歸, 而謗有所分矣. 此事如欲盡淨究治, 則當於前後守令之濫爲捧錢者, 討償民財, 而後民可無辭於汰定矣. 不然籠罩而硬行之, 民口難防, 恐有愧於商君三丈之木矣. 昨聞一校生在同甫時, 曾備書籍而免役矣, 今在汰中, 願推舊物以補納布之用, 亦可好笑. 爲今官者, 亦無辭可答. 舉隅可知其無限難便矣. 伏望更加澄省, 圖所以變通. 如何?”

속자를 사출(查出)해서 모속으로 일으키거나 가중시킨 족징, 인징 등의 폐단을 구제하려는 것이다.<sup>78)</sup> 그렇다면 김창흡은 편지에서 모속과 사모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했는가?

우선 김창흡은 아들 김양겸이 다스리고 있는 평강 고을의 실제 태정과 모속 상황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1714년의 양역사정으로 2000명 인구의 평강읍에서 800명의 양인이 태정되었다.<sup>79)</sup> 여기서 ‘모속’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태정된 800명의 양인들은 모속으로 자기가 맡아야 할 양역을 일부러 피하였다. 그래서 이번 양역 사정을 통해 모속된 양인들이 다시 양역 징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김창흡이 말한 백성의 재물을 쟁탈한 결과이다.

모속으로 자기가 맡아야 할 양역을 피한 양인들에게도 해당 역가를 부과했다. 그런데 비변사의 공문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켰다. 애당초 관부에서는 진휼할 비용이나 군영의 무기나 서원의 서적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모속으로 이들에게 해당 액외역을 징수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을 모속자로 태정하여 다시 신포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는 그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다. 이에 김창흡은 이회조가 평강을 다스렸을 때 서적을 바침으로써 역을 면제받은 교생이 이번에 태정되어 포를 납부해야 할 신세가 됐다는 예를 들어 이 조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김창흡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백성을 속이는 관부와 텃을 놓는 조정 때문이다. 김창흡은 역임 수령이 백성에게 함부로 받은 재물을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백성의 원한이 풀려 태정한 일에 대해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김창흡은 모속과 사모속의 문제점을 논함으로써 관부와 조정이 부작위(不作爲)로 백성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밝혔고, 이로써 양역

---

77) 정연식,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추이」, 『한국사론』 13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123~129면; 김우철, 「균역법 시행 전후의 사모속 연구」, 『충북사학』 4집, 충북대학교 사학회, 1991, 80~92면 참조.

78) 정연식, 위의 글, 122~141면;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47면 참조.

79) 평강 민호의 인원수는 첫 번째 편지에 밝혀져 있다.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0면.

변통 실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것을 백씨에게 조언하였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김창흡이 양역변통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미 밝혔듯이 김창흡은 양역변통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실시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했을 뿐이다. 그는 오히려 양역변통을 주장하였으며, 여러 변통론 중에서 호포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호포론은 양역을 폐지하고 집집마다 세금을 부과하여 해결하자는 변통론이다.<sup>80)</sup> 호포론을 비롯한 양역변통 실시에 대한 의지와 그 방법은 「갈역잡영」에 잘 드러난다.

가)

경신년 호포법 논의가 시작하자마자,	庚申戶布議方張，
한차례 넘어지고 아유하며 한바탕 싸움질.	一蹶擲揄鬧一場。
애석하구나, 임창계(林滄溪)의 택민의 뜻이여,	可惜滄公澤民意，
끝내 제 당과 옹호하느라 헛소리 지껄였네.	終緣護黨說郎唐。 <sup>81)</sup>

나)

화폐 주조 신속하고 산성 축조도 순조로우니,	造錢神速築城輕，
나라에 이롭긴 하지만 어찌 쉽사리 이루어지랴?	苟利邦家豈易成？
호포법이 좋은 줄은 알지만,	可知戶布爲良法，
편부 따지다 끝내 시행치 못하였네.	便否消詳竟不行。 <sup>82)</sup>

가)와 나)의 내용은 모두 호포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를 보면 경신년(1680)에 식암(息庵) 김석주(金錫胄)와 이사명(李師命)을 비롯한 신하들이 호포론 논의를 하자마자 창계 임영(林泳)을 비롯한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다.<sup>83)</sup> 마지막 두 구절은 소론을 옹호하기 위해 호포론을 반

80) 정연식 지음, 앞의 책, 2015, 45면 참조.

81) 金昌翁, 「葛驛雜詠其百三十九」,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306면.

82) 金昌翁, 「葛驛雜詠其百四十」, 『三淵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65, 306면.

83) 김석주는 「의행호포의」(議行戶布議)를 지어 호포론을 추진하려 했는데, 이에 임영은 「논호포소」(論戶布疏)를 올려 호포론의 실시를 반대하였다. 김석주, 이사명의 호포론 찬성 주장에 대해서는 정만조, 「양역변통론의 추이」, 『

대한 임영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나)를 보면 김창흡은 나라에서 화폐의 주조와 북한산성의 축조에는 신속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좋은 방법인 호포법을 끝내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실은 호포론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숙종 전기, 중기, 후기에 여러 차례 거론되었는데, 신분을 동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양반층의 심한 반대 하에 끝내 실시되지 못하였다.<sup>84)</sup>

이렇듯 김창흡은 양역변통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양역변통 중 대변론인 호포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1715년의 양역변통을 반대한 이유는 백성들이 대기근과 전염병의 곤경에 빠져 있던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양역변통을 실시하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백성을 살리려는 입장에서 그때의 양역변통 실시를 반대했을 뿐이다.

김창흡은 민생과 민정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당시의 국가적 정책을 반대한 경우가 많다. 1715년의 양역변통 외에도 1719~1720년의 삼남 양전(量田) 사업의 실시 또한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숙종 대의 두 번째 과제인 양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창흡은 그간 실행되었던 양전 사업 역시 좋게 보지 않았던 듯하다. 그에 의하면 양전을 하는 목적은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서이지만 끝내 백성을 해치기만 했다. 김창흡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양전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생각과 대책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숙종 대의 양전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양전이란 토지의 전품(田品), 길이와 넓이의 척수(尺數) 등을 파악하여 세금을 거두는 단위인 결부(結負)를 산출하고, 기경(起耕) 여부, 전주(田主) 그리고 토지의 위치 등을 국가의 공적인 통치체제로 조사하여 양안(量案)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sup>85)</sup> 17세기 후반 이후 전정이 크게 문란해짐에 따라 양전의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숙종

---

한국사』 32 서울: 탐구당, 2003, 141~144면 참조. 임영의 호포 반대 상소문에 대해서는 이우성 지음, 『창계집』 해제-구도자의 사색과 철학, 『창계집』 1,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5, 40면 참조.

84) 정만조, 앞의 글, 137~151면; 정연식, 앞의 책, 2015, 47~50면 참조.

85) 염정섭, 「숙종대 후반 量田論의 추이와 庚子量田의 시행」, 『조선후기 경자 양전 연구』, 서울: 혜안, 2008, 175면 참조.

대 재정의 악화와 고갈로 인해 전세 수입으로 재정을 보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sup>86)</sup> 따라서 숙종 대에 1684년의 강원도 양전, 1701년의 황해도 3읍 양전, 1708년의 강원도 양전, 1708년의 강원도 16읍 양전, 1719·1720년의 삼남(三南) 양전 등을 실시하였다.<sup>87)</sup> 이 중에서 삼남지역은 국가 재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결국 1716년 가을에 삼남 지역에 양전을 실시하라고 숙종이 명을 내렸지만, 삼남의 흉년과 전염병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1719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행되었다.<sup>88)</sup>

1719년부터 1720년에 걸쳐 수행된 경자양전은 조선 정부가 삼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지막 양전이다. 경자양전은 1719년 균전사(均田使)가 삼남에 파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지만, 이전부터 양전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을 겪다가 비로소 현실화된 것이었다.<sup>89)</sup> 경자양전 실시에 대해서도 김창흡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개량의 일은 평소에 거칠고 졸렬하여 그 편부(便否)에 대해 그다지 명료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의 시세가 마치 사람의 기운이 맥이 없어 보(補)할 수도 없고 사(瀉)할 수도 없어 다만 미음을 먹이는 것만 되고, 혹시라도 속수무책이라 답답한 이유로 조금이라도 흔들고 움직이면 명을 재촉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뿐입니다. 나라의 상태를 질병에 비유하는 것은 진실로 진부한 말입니다만, 오늘의 이 비유가 가장 합당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한 마디도 임금에게 의문의 말을 올리지 않는다면, 불충(不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한 대신(臺臣)의 상소문<sup>90)</sup>을 봤는데, 글에서 이 일을 논한 부분이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기상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음을

86) 이세영, 앞의 글, 24~31면 참조.

87) 송찬섭,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한국사』 30, 서울: 탐구당, 2013, 422면; 이세영, 앞의 글, 22면 참조.

88) 이세영, 위의 글, 118면 참조.

89) 염정섭, 앞의 글, 173면 참조.

90) 1719년 8월 16일 사헌부 지평 홍우전(洪禹傳, 1663~1728)이 올린 상소문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이재가 지은 「찬판홍公墓誌」(參判洪公墓誌)에서 확인된다. 『숙종실록』 45년 8월 16일 기사; 李緯, 「參判洪公墓誌」, 『陶菴集』 권43, 한국문집총간 195, 392면. “未幾以司憲府持平召。上疏論變良役搜隱丁, 而以振紀綱爲要。金百淵 昌翁讀之, 歎曰經濟文字也。” 참조.



중심으로 삼아 말하길, 아픈 자는 아직 나아지지 않고 죽은 자는 매장되지 않았는데 뒤흔들어 더 어지럽히지 않는 게 맞다고 한 말씀은 매우 정확합니다. 또 관지(官紙)와 모곡(耗穀)이 다 곤궁해질 때 백성들에게 이를 징수하고 거두는 것도 매우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은 비록 지엽적인 것이었지만, 이를 변명해 깨뜨려서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먼 곳에 와서 보건대 민심은 모두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고산(高山) 한 읍으로 말하자면 종이를 거두는 사찰들은 다른 현보다 가장 많은데 승려들은 시끌벅적하면서 공납하기가 어려울까 근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떠드는 상황을 이에 의거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릇 신법을 시행할 때 반드시 널리 찾아가고 많이 물어보아 백성들이 모두 믿어주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경장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바가 사물의 본말을 꿰뚫어본 것이라 사방팔방 적의 공격을 받을 것이니, 만약 일을 저지하려는 다른 설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에게 단락마다 변론하고 해석해주어 잘 알게 한 뒤에야 폐단을 개혁하고 신법을 시행하는 권한을 맡을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길, “우리가 믿어주니 뉘우침이 없다”라고 했고, 또 “고치기가 타당해야 그 뉘우칠 것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명도(程明道)가 일찍 청묘법(靑苗法)을 논하면서 말하길, “천하의 일에는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것이 있지 않다”<sup>91)</sup>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불편하더라도 순탄하게 이를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일에 대해 저는 서울과 지방의 여론을 들어봤는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가 믿어준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구습을 따르느라 진작되지 않는 폐단과 억지로 흔들고 움직여 우환을 생기게 하는 걱정은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손대지 말아서 흔들려 목숨을 잃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sup>92)</sup>

91) 관련 내용은 희녕(熙寧) 3년 4월 17일에 올린 「재상소」(再上疏)에 보인다. 『명도문집』(明道文集) 권2에 실려 있다.

92)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6면. “改量事素以鹵莽不甚了然於便否, 只謂今日時勢, 如人氣漸脉, 補不得瀉不得, 只灌以米飲爲可. 或以束手杳杳, 畧有攪動則命促矣. 以國喻病, 固爲陳談, 而今日此喻, 最爲切當. 知是而未曾一言獻疑, 則不忠之罪也. 路中見一臺臣之疏, 所論此事,

위 인용문은 1719년 9월 안시태를 조문하러 전라도에 갔을 때 김창흡이 백씨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때는 삼남 양전이 최종 실시되기 직전이었다. 이 편지에서 김창흡은 고산(高山)에서 보고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당시의 민정을 고려하여 삼남의 양전 실시를 강렬히 반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창흡은 사헌부 지평 홍우전(洪禹傳, 1663~1728)의 상소문, 『주역』의 구절, 정호(程顥)가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을 반대한 고사를 들어 신법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신법을 실시하지 말고 나라와 백성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하였다.

편지의 서두에서 김창흡은 현재 나라의 시세를 맥이 빠진 아픈 사람에 비유하면서, 개량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것도 김창집에게 편지를 보낸 동기이자 이유이다. 이어 홍우전의 상소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양전 실시 여부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김창흡은 전라도에 가는 길에 지평 홍우전이 1719년 8월 16일에 올린 양전 실시 반대 상소문을 읽고<sup>93)</sup> 상소문에 언급된 두 가지 내용을 편지에 인용하였다. 하나는 궁핍한 민생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전으로 인한 삼남 지역 환곡(還穀)의 곤궁한 상황이다.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홍우전의 상소문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似皆中窾. 大體以時不可行爲柱子, 有云‘病者未蘇, 死者未埋, 不合攪動而生亂’者, 說得甚確. 又言官紙, 耗谷之窘, 徵斂及民, 爲大不便. 此雖枝葉之說, 而無可卡破以拄其口. 來見遠方, 民情皆以此爲憂騷. 以高山一邑言之, 納紙寺刹最多於他縣. 而寺僧騷然有難供之愁, 則他縣之嗷嗷, 據此可知. 凡行法之時, 須博訪廣詢, 務歸衆允. 吾之所欲更張矯革者, 洞見事本末, 八面可受敵. 如有別說涉於沮事者, 逐段卡釋, 使皆曉然, 而後可任其革弊行法之權. 『易』曰: ‘衆允悔亡.’ 又曰: ‘革而當, 其悔乃亡.’ 程明道嘗論靑苗事曰: ‘天下事未有大小遠近.’ 皆言其不便而可以順成者. 今日此事, 竊聽於中外輿論, 未有不攢眉者, 則誠未可謂衆允也. 且因循不振之弊, 與攪動生患之憂, 相去遠矣. 束手且束手, 且勿攪動以促命, 似爲得宜.”

93) 이를 통해 김창흡이 실시간으로 조정의 일을 주시하고 나라의 정사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다.

지금 개량(改量)하는 일은 시작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곧 다시 정지하여 거의 아이들 장난과 같게 되었으니, 조정에서 국체(國體)가 손상됨을 염려함은 진실로 그럴 만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일에 완급(緩急)이 있으니, 시험삼아 당시의 폐막(弊癘)을 헤아려 본다면, 어찌 양역(良役)의 폐단만 하겠습니까? 대저 양역의 폐단은 팔도가 똑같아서 옛날의 부호(富戶)가 지금은 모두 파산하였고, 옛날의 부성(富盛)했던 촌락이 지금은 절반이나 황폐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계책을 담당하는 자들은 이를 시급하게 구제하기를 마땅히 물이 새는 독을 들어 바닥이 타는 솥에 쏟아붓듯이 하여 다른 것을 돌아볼 여가가 없어야 할 것인데, 급하지 않은 전정(田政)에 한창 급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양역(量役)을 곧 마치고 새 양안(量案)을 곧 이룬다고 한다면, 단지 민생의 곤책(困悴)만 더할 것이고 국가의 위급한 형세에는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

또 듣건대, 개량(改量) 때 쓴 양식(糧食)·늪료(廩料)·지필묵(紙筆墨)의 값을 모두 환모(還耗)에서 가져다 쓴다 합니다. 이는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는 데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잡비(雜費)는 논할 것도 없이 다만 지지(紙地)만을 계산하더라도 큰 고을에서 응당 받아들이는 것이 2천여 냥의 전(錢)을 밀돌지 않고, 중읍(中邑)과 소읍(小邑) 또한 4, 5백 냥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의 환모가 반드시 많이 부족할 것이니, 형편상 다시 원환(元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호(兩湖)의 경우 계사년과 갑오년 이후에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많은 양전(量田) 비용을 다시 환곡(還穀)에서 판출(辦出)한다면 삼남(三南)의 환곡은 장차 거의 다 없어질 것이니, 불행하게도 갑자기 군사에 이바지하거나 흉년에 진휼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어디에서 판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개량하는 정사를 우선 한편으로 치워버리고 풍년이 들기를 조금 기다려 천천히 의논하여 거행하되, 만약 개량하는 데 힘쓰던 뜻을 양역을 변통하는 정사에 옮겨서 좋은 계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그래도 제 때에 미쳐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94)</sup>

94) 『숙종실록』 45년 8월 16일 기사. “今茲改量之舉，經始有年，旋復停寢，殆同兒戲。朝家之慮損國體，誠有然者，而第念事有緩急。試究當時之弊癘，豈若良役之弊哉？夫良役之弊，八路同然。昔之富戶，今皆破產；昔之盛村，今半爲墟。爲

위 인용문은 홍우전이 1719년 8월 16일에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이 상소문에서 홍우전은 양전 차선론(次善論)을 제기하였다. 핵심은 양전보다 양역변통이 훨씬 급선무라는 점이었다.<sup>95)</sup> 이에 그는 현재 국가의 위급한 형세, 즉 부호(富戶)가 파산하고, 성촌(盛村)이 황폐하게 변해버린 현실적인 상황을 지적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김창흡이 인용한 첫 번째 내용이다. 홍우전의 지적에 대해 김창흡은 매우 정확하다고 평가하였다. 김창흡은 홍우전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양전을 실시하면 백성에게 폐를 끼쳐 난을 일으키기만 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김창흡이 이런 진단을 내린 이유는 당시 전국적으로 퍼진 전염병과 재해 상황 때문이다.<sup>96)</sup> 삼남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편지의 “아픈 자는 아직 나아지지 않고 죽은 자는 매장되지 않았다”라는 서술은 바로 이런 현황에 대한 묘사이다.

나라의 위급한 형세를 지적한 뒤에, 홍우전은 양전을 실시할 때 삼남 지역에 미칠 환모(還耗)와 같은 폐단을 언급하여 양전 실시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창흡은 이것이 지엽적인 지적이지만, 대신으로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창흡은 홍우전의 상소문 내용을 들어 당시 삼남 지역 양전 실시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

지금 민간으로 말하면 병은 아직 나아지지 않고 시체는 아직 매장되지

---

今日國家計者，救此之急，宜若奉漏沃焦，不暇他顧，而方且汲汲於不急之田政。藉令量役卽畢，新案卽成，只益民生之困悴，無補國勢之危也。(…)且聞改量時所費糧料紙筆墨之價，皆以還耗取用。此出於爲民除弊，然勿論雜費，只計紙地，大邑應入，不下二千餘兩錢。中小各邑亦不減四五百兩。各邑還耗必多不足，其勢不得不更許元還。如兩湖則癸甲以後，未捧居多，數多費入，若復倚辦於還穀，則三南還穀且將盡矣。不幸而猝有供軍賑荒之舉，則何從責出乎？臣謂改量之政，姑爲倚閣，一邊稍俟年穀豐登，徐議舉行，而若以銳於改量之意，移之良役變通之政，講究善策而行之，則痼瘵之民，猶可及救。” 인용문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것을 참고하되, 필자가 원문의 표점 및 번역문을 다듬었다.

95) 염정섭, 앞의 글, 201~202면 참조.

96) 이세영, 앞의 글, 166면 참조.

않은 것이 실로 대신의 말과 같습니다. 게다가 임금의 건강이 위태로우신 것은 또 말하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 때에 맞겠습니까? 이때가 어찌 신법을 실행할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엇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균전사(均田使)를 이미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좋습니까? 그래도 바라건대 다른 의견이 임금과 가까운 경재(卿宰)로부터 나와 공평하게 다스려 이 일을 중지한다면, 또한 나라와 백성의 행운일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정신을 차리시고 생각을 바꾸시어, 그에 대해 고집하고 기필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사람들이 믿어줌을 마땅함으로 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면서 김백온(金伯溫: 김진옥金鎭玉)이 논한 것을 들어보니, 의론한 내용이 대신의 상소와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정에서 반드시 균전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해당 읍으로 하여금 차츰차츰 거행하게 하면 백성을 크게 괴롭히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인데, 지금 급급하여 구차하게 한다면 이전보다 꼭 낫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또 겨울철이 다가오니, 다만 영성하여 제대로 되지 못하는 데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로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만약 겨울이 다가오므로 미루기로 결정하시어 금년에 한해 백성을 괴롭힘이 없도록 하신다면, 이것이 제가 적이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sup>97)</sup>

위 인용문은 편지의 뒷부분이다. 김창흡은 고산 안심사(安心寺)<sup>98)</sup> 등에서 보고 들었던 정보를 말하면서 현지 및 전국에서 민심과 민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예측하였다. 이런 시국에서 양전 사업을 하면 민심을 동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실시하기 전에 민심과 민정을 우선적으로

97)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6~467면. “(…) 今以民間言之, 病未蘇, 死未埋, 實如臺臣之言. 而上候危凜又在不言之中. 時乎時呼? 此豈行法之時哉? 然今已展不縮, 均田使出矣. 奈何奈何? 猶冀有異論者出自近上卿宰, 平章寢止, 則亦宗社生民之幸. 伏望澄神改思, 毋存固必於其間, 要以衆允爲宜. 如何如何? 來時見金伯溫所論, 槩如臺言, 而亦言朝家不必遣均田使, 只令本邑稍稍舉行, 庶不至大段擾民. 而今汲汲苟了, 未必勝前. 而又迫冬節, 只歸於草率不成樣云. 其言誠似有理. 若以迫冬退行定奪, 限今年無擾, 窃所深企.”

98) 1719년의 「남정일기」와 해당 시기의 시, 그리고 해당 시기에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에 의하면 김창흡은 전라도 고산읍 안심사 등의 지역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이 편지에 언급된 고산읍 사찰의 상황은 그가 이곳에 머무르는 사이에 알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김창흡은 『주역』 진괘(晉卦)의 “무리가 믿어주니 뉘우침이 없다”(衆允悔亡)라는 구절과 혁괘(革卦)의 “고치기가 타당해야 그 뉘우칠 것이 없어진다”(革而當，其悔乃亡)라는 구절을 들어 백성의 목소리와 개혁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호가 올린 왕안석의 청묘법을 반대한 상소를 인용하면서, 신법의 실시는 나라 및 백성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순리에 맞추어 해야 신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김창흡은 양역 사정과 마찬가지로 때와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시점에 양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창흡은 양전이 곧 거행될 형세를 스스로 알아챘다. 편지에서 밝혔듯이 이때 삼남 균전사(均田使)를 이미 파견했기 때문이다.<sup>9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흡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백씨 김창집을 한번 설득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년 겨울이라도 양전 실행을 미루어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선책을 권유한 것이다.<sup>100)</sup> 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하면서 주장을 밝혔는데, 바로 김진옥(金鎭玉, 1659~1736)의 말이다.<sup>101)</sup>

「남정일기」에 의하면 김창흡은 1719년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밤새도록 수원현감 김진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sup>102)</sup> 이때 김진옥이

---

99) 『숙종실록』 45년 9월 5일 갑술 기사에 의하면 삼남(三南)을 좌도 균전사(左道均田使)와 우도 균전사(右道均田使)로 나누어, 이재(李緯)를 경상좌도 균전사로, 경상 감사(慶尙監司) 오명항(吳命恒)을 경상우도 균전사로, 김재로(金在魯)를 전라좌도 균전사로, 전라 감사(全羅監司) 신사철(申思喆)을 전라우도 균전사로, 홍석보(洪錫輔)를 충청좌도 균전사로, 충청 감사(忠淸監司) 권업(權爍)을 충청우도 균전사로 삼았다. 균전사는 대부분 노론이었다.

100)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67면. “來時見金伯溫所論，槩如臺言，而亦言朝家不必遣均田使，只令本邑稍稍舉行，庶不至大段擾民。而今汲汲苟了，未必勝前。而又迫冬節，只歸於草率不成樣云。其言誠似有理。若以迫冬退行定奪，限今年無擾，窃所深企。”

101) 김진옥은 광산김씨 출신으로 김창흡의 장인 이세장의 외조카이며 이성좌의 외사촌이다. 따라서 김진옥 집안은 김창흡 집안과 혼척관계가 있다.

102) 金昌翁, 「南征日記」, 『三淵集拾遺』 권28, 한국문집총간 167, 230면. “初二日晴。早發秣馬彌勒堂，晡時至水原。主宰金伯溫出見敍闊，話到鷄鳴而就寢，



성을 생각하는 김창흡의 애민관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김창흡이 1715년 양역변통론 실시, 1719년 삼남지역 양전 실시를 반대했던 것은 모두 백성을 위해서였다. 말로만 정책을 논의하는 조정의 신하들과 달리 김창흡은 현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찰했고,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창흡은 제도나 정책을 평가할 때 추상적·관념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것이 민에게 실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김창흡은 백성을 위해 당파적 차원을 넘어 정책을 도모하자고 건의하기도 하고, 노론의 정책이나 백씨 김창집의 주장을 반대하기도 했다. 김창흡이 펼친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애민사상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김창흡은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기했는가?

### (3) 농업과 민생 중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흡이 양역변통과 삼남양전을 반대한 이유는 백성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창흡은 늘 백성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국가 정책의 실행 등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곤 했다. 김창흡의 이러한 면모는 농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식사한 뒤에 집 북쪽에 있는 밭으로 가서 두노(斗奴)가 귀보리를 파종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농업의 이로움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무릇 이익을 말하는 자는 모두 동갑(同甲)을 기준으로 삼으니, 동갑은 배로 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밭에 조를 심어 한 되의 곡식을 거두어 들여 스무 말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백동갑(百同甲)이다. 공상(工商)의 온갖 일들은 농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민풍(民風)으로 말하자면, 농사일로 돌아가면 교활한 자가 순후한 사람으로 변하고, 공업과 상업으로 들어가면 순박하고 근실하던 자가 교사(巧詐)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니, 이로써 생계 수단을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모든 일이 초술(草率)한데, 농사일에 이르러서도 역시 지혜와 법을 다하지 못하니, 하나는 분전법(糞田法)을 일삼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모를 거리를 두고 성기게 심지 않는 것이며, 하나는 흙을



쌓아 뿌리를 북돋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호미질이 거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수확할 것을 바라는데, 만약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곧 흉년을 타하니, 참으로 가증스럽다. 『주례』(周禮)에 기록된 분전법은 소, 양, 늑대, 사슴 등 동물의 똥을 흙에 따라 알맞게 뿌리는 것이니, 그 방법이 매우 정밀하다. 후직(后稷)의 옹본법(壟本法)은 1묘당 이랑을 3개 만들어 이랑마다 각각 모를 심는데, 싹이 한 마디 넘게 자라면 흙으로 북돋아 이랑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니, 뿌리가 이미 깊게 박혀 있어서 바람이나 가뭄을 잘 견딜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 묘함을 아는 자가 드문데, 오직 황해도, 평안도 양서(兩西) 지역의 농작 방식이 이와 방불하다.<sup>105)</sup>

위 인용문은 기해년(1719) 3월 9일 「일록」의 일부이다. 이날 김창흡은 곡운에서 식사한 뒤에 종 두발(斗發)이 귀보리를 파종하는 것을 보러 갔다. 김창흡은 농업 현장에서 관찰한 사실과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농업의 이로움을 생각했다. 이는 실용 학문에 관심을 갖고 민생을 살리려는 김창흡의 경제적 면모를 보여준다.

김창흡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이로움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공상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상업은 민풍을 교활하게 만드는 반면 농업은 민풍을 순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 하에 김창흡은 조선 농업의 부족한 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첫째, 분전법(糞田法)을 일삼지 않는 것이고, 둘째, 모를 듭성듬성 심지 않는 것이며, 셋째, 뿌리를 북돋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넷째, 거칠게 호미질하는 것이다. 이에 그는 분전법과 옹본법(壟本法)에 초점을 두

105) 金昌翁, 「日錄己亥」, 『三淵集』 권33, 한국문집총간 166, 137~138면. “食後之屋北田, 看斗奴播耳麥, 仍思農之爲利, 不可勝量. 凡言利者皆以同甲爲準, 同甲者倍售也. 如種粟良田, 一升之收, 得二十斗, 則便是百同甲也. 工商百業, 無可比擬. 又以民風言之, 歸之南畝, 則桀黠化爲淳厯; 納諸工商, 則淳謹化爲巧詐. 可知術不可不慎也. 東俗百事草率, 至於農務, 亦未竭智盡法. 一則不事糞田, 一則立苗不疎, 一則不解壟本, 一則鋤治鹵莽. 以是而望大穫, 如未副望, 則以歲爲罪, 甚可憎. 『周禮』糞田之法, 以牛羊狼鹿之糞, 各隨土宜而布之, 其法極精密. 后稷壟本之法, 畝各三畝, 畝各種苗, 苗寸以上, 籽令壠平. 著根既厚, 可使能風能旱. 東方罕知其妙, 惟兩西農習, 髣髴近之.”

어 부연 설명을 하였다. 『주례』(周禮) 「초인」(草人)에 기록된 분전법을 인용하면서 토질에 맞게 동물의 똥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였고,<sup>106)</sup>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기록된 후직(后稷)의 옹본법을 요약하면서 농작물이 바람과 가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이로움을 서술하였다.<sup>107)</sup> 옹본법에 관한 김창흡의 서술은 「갈역잡영」 제31수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후직(后稷)에게서 유래한 방법이	由來后稷法,
양서(兩西) 사람 사이에 전해졌네.	傳在兩西人.
바람과 가뭄을 견딜 수 있으니,	能風與耐旱,
옹본법이 가장 귀신같네.	壟本最爲神. <sup>108)</sup>

위 시에서 언급한, 후직의 옹본법이 황해도, 평안도 사람들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옹본법의 이로움은 1719년 「일록」의 기록과 일치한다. 새싹이 바람과 가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옹본법의 이로움을 강조한 것은 아마도 숙종 대 빈번한 가뭄으로 농업 생산력이 떨어졌으며 이 때문에 백성이 기근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김창흡이 주장한 옹본법은 곧 ‘일묘삼경’(一畝三畝)의 경종법(畝種法)이다. 김창흡에 앞서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 ‘일묘삼경’의 법을 제시하며 중국 요동 지역의 농작 방식이 이렇다고 말했다.<sup>109)</sup> 김창흡과 비슷한 주장을 가진 동시대 사람이 바로 『

106) 분전법에 관한 기록은 『주례』(周禮) 권4 「지관」(地官) ‘초인」(草人) 편에 보인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草人掌土化之法以物地, 相其宜而爲之種. 凡糞種, 駢剛用牛, 赤緹用羊, 墳壤用麋, 渴澤用鹿, 鹹澇用貍, 勃壤用狐, 埴墟用豕, 疆檻用蕢, 輕農用犬.”

107) 옹본법에 관한 기록은 『한서』(漢書) 권24 「식화지」(食貨志) 상(上)에 보인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后稷始畝田, 以二耜爲耨, 廣尺深尺曰畝, 長終畝; 一畝三畝, 一夫三百畝, 而播種於畝中. 苗生葉以上, 稍耨隴草, 因隴其土, 以附苗根. 故其『詩』曰: ‘或芸或芋, 黍稷儼儼.’ 芸, 除草也; 芋, 附根也. 言苗稍壯, 每耨輒附根, 比盛暑, 隴盡而根深, 能風與旱, 故儼儼而盛也.”

108) 金昌翁, 「葛驛雜詠」, 『三淵集』 권15, 한국문집총간 165, 311면.

109) 柳馨遠, ‘務農’, 「田制後錄攷說」, 『磻溪隨錄』 권7, 서울: 東國文化社, 1958, 136면 참조.

색경』(穡經)의 저자 박세당이다. 그는 종속(種粟)을 논하는 조목에서 견종법을 언급했다.<sup>110)</sup> 조선후기에 들어가면서 농학에 관심을 둔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견종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경간」(耕墾)에서 대전법(代田法)을 논하면서 후직이 제시한 견종법의 뜻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sup>111)</sup>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본리지』(本利志)과 「의상경제책」(擬上經界策)에서 중국의 대전법 논의와 선배 유학자의 논의를 종합하여 견종법 체계를 확립했다.<sup>112)</sup> 김창흡은 처음으로 견종법을 제기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관서와 해서 지역 등 현지의 민생과 농사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견종법의 이로움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13)</sup>

이렇듯 「일록」과 시에서 양서 사람이 옹본법을 잘 활용한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업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김창흡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김창흡이 농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조선 사회에서 농업이 백성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창흡은 선비로서 농업을 등한시할 수 없었다. 농업에 대한 중시는 호조판서였던 백씨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제가 이틀 동안 지나갔던 곳이 모두 험한 구덩이와 깊은 진창이었으니,

110) 朴世堂, ‘種穀’, 『穡經』, 수원: 농업진흥청, 2001, 52~53면 참조.

111) 朴趾源, 「耕墾」, 『課農小抄』, 『燕巖集』 권16, 한국문집총간 252, 371~372면 참조.

112) 徐有榘, 「擬上經界策」, 『金華知非集』 권12, 한국문집총간 288, 528~529면; ‘粟類’, 『本利志』 권5, 『林園經濟志』; 정명현,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의상경제책(擬上經界策)」의 해제 및 역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5면 참조.

113) 조선시대에 유통된 농서를 조사해 보았으나 중국 요동 지역에서 견종법을 기반으로 농작을 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견종법을 활용했다는 기록은 김창흡 이전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후기에 와서 서유구의 「의상경제책」에 관서와 해서 지역의 밭이 견종법을 쓴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창흡이 조선 팔도를 유람할 때 현지의 민생과 농사 현황을 확인했다는 것을 짐작하면 황해도의 농사 현장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황해도 유람 관련 기록은 『삼연집』에서 확인된다. 徐有榘, 「擬上經界策」, 『金華知非集』 권12, 한국문집총간 288, 528~529면 참조.

편안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할 만합니다. 이 곳에 이르러 흐트러진 쭉대와 거친 명아주를 헤치고 갔더니 그 가운데에 산 아낙이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 채색(菜色)<sup>114)</sup>을 띠고 있어 광경이 매우 수상(殊常)했고 그의 아이는 심히 고달픈 것이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도착한지라 농토를 아직 순력(巡歷)하지 못했는데, 대략 듣건대 ‘제언(堤堰)이 우뚝하니 조금 망가진 부분이 있어도 무방하고, 이웃집의 기장과 조는 추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는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sup>115)</sup>

위 인용문은 1702년에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이때 김창집은 호조판서였다. 호조판서의 책임은 농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창흡이 김창집에게 농작물이 자라는 상황을 알려준 것은 형을 보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김창흡은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막 도착한지라 밭을 아직까지 일일이 순력(巡歷)하지 못했다’는 김창흡의 서술에서 확인된다. 이 서술을 통해 김창흡이 여행을 할 때 단지 유람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현지의 민생(民生)을 파악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백성의 굶주리는 모습과 참상(慘狀)을 백씨 김창집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김창흡이 애민의식을 갖고 백성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재야 선비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흡의 이러한 모습은 삼남 양전 사업에 대한 그의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김창흡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할 때 해결책을 내기도 했다. 예컨대, 민정이 흉흉할 때마다 술잎으로 허기를 채우는 송엽요기법(松葉療飢法)을 시행하자는 이단하(李端夏, 1625~1689)의 주장을 거론하며 기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14) 굶주려 누렇게 뜬 얼굴빛을 이른다.

115) 金昌翁, 「上伯氏壬午」,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56면. “弟兩日所歷跋, 皆峻坑深澗之間. 其得安到, 亦足爲幸. 到來披拂亂蓬荒藜, 而山婦坐其中, 面帶菜色, 景色殊常, 其兒疲敗之劇則非細憂也. 纔來未及歷巡田渠, 而槩聞堰築屹然, 不妨有少壞. 隣家黍粟, 蔚有西成之望. 此皆好聞見也.”

그러나 이번 진휼의 일에 대해 역시 좋은 해결책이 없다. 자고로 다만 매작(賣爵)과 권분(勸分)뿐이다. 매작첩(賣爵帖)은 이전부터 백성을 속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억지로 [부호(富戶)에게] 주려고 하면 이는 곤장을 친 뒤에야 행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권분하는 것도 역시 협박하여 시키는 대로 귀결된다. 그리고 평강(平康)에 어찌 많은 부호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 해결책을 빼고는 오직 외재(畏齋)의 송엽법(松葉法)이 곡식이 모자란 현황을 보탬 수 있는데, 백성이 먹기를 달가워 하지 않으면 어찌겠는가? 결국 조곡(糶穀)을 권분하고 모곡(耗穀)을 더해 주는 것 외에 다시 무슨 조치를 하겠는가?<sup>116)</sup>

위 인용문은 1715년 여름 곡운에서 평강 현감으로 재직중이었던 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당시 김양겸이 평강 진휼의 일을 두고 김창흡에게 문의를 한 듯하다. 이에 김창흡이 관행적인 진휼 수단인 매작(賣爵)과 권분(勸分)의 이로움과 폐단을 거론함으로써 실행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매작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부자에게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행위를 가리킨다. 부자는 이른바 공명첩(空名帖)을 받는데, 공명첩은 매작첩(賣爵帖), 납속첩(納粟帖)이라고도 한다.<sup>117)</sup> 권분은 고을 수령이 기민 구제의 명목으로 관내의 부자에게 곡식을 바치도록 권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숙종 대 후반기에 기근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매작첩을 많이 발급했는데, 매작첩의 남발이 부호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따라서 김창흡은 부자에게 매작하는 것은 곤장을 친 뒤에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실행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권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을에 부자가 있어야 하는데, 평강은 외진 고을로서 부자가 많이 없었다. 이는 현실적 측면에서 매작과

116) 金昌翁, 「答養謙」, 『三淵集』 권17, 한국문집총간 165, 357~358면. “然今日賑事, 亦無好策. 自古只賣爵分, 而爵帖則自前欺民多矣. 今欲勒授, 則杖而後可行, 知其難矣. 勸分亦歸於脅使, 且平康豈有許多富民乎? 除此兩件外, 惟畏齋松葉法, 可以助穀之不逮, 而民不肯啖則奈何?”

117) 진휼 관련 개념에 대해서는 문수홍, 「朝鮮時代 納粟制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년, 14~127면 참조.

권분의 실시가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제할 방법은 오직 송엽요기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송엽요기법을 원치 않았다. 김창흡은 송엽요기법을 직접 시행해봄으로써 그 실용성을 증명하였다.

양도가 끊겨 식량이 부족하니 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 술잎과 콩가루를 섞고서 물을 부어 종들에게 먹으라고 권유했더니 모두 채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런데 진작에 요량하지 못했으니 민정이 크게 가증스럽다. 작년 가을에 콩이 익었을 때 십여 말을 모았는데 한 섬의 술잎과 섞어 먹으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니, 삼십 일에 아홉 번 곡식을 먹는 것<sup>118)</sup>보다 어찌 낫지 않겠는가? 지금 국가와 개인의 공간에 모두 쌓인 곡식이 없으니 오직 백성들로 하여금 술잎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 이외에는 좋은 해결책이 없다. 외재(畏齋) 이상국(李相國: 이단하)이 매번 이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마다 남의 비웃음을 받아 그만두었으니, 참으로 탄식할 만하다.<sup>119)</sup>

위 인용문은 1720년 3월 7일 「일록」의 일부이다. 백성이 굶주림에 빠졌음에도 더 좋은 해결책이 없자 김창흡은 시험삼아 송엽요기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시행했는데, 채소를 먹는 것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창흡에 의하면 송엽요기법은 겉으로 보면 자질구레한 것이지만, 백성을 구제하는 데 실용적이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이고 백성의 생활에 밀착된 진솔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굶주림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김창흡은 직접 송엽요기법을 시행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창흡 이외에 이단하의 송

118) 이 말은 끼니를 제대로 잇지도 못할 만큼 가난한 것을 뜻한다. 도연명(陶淵明)의 「의고」(擬古) 제9수에 “동방의 한 선비 / 옷도 제대로 못 입고 / 석 달에 아홉 번 식사하고 / 십 년에 갓 하나 쓰네”(東方有一士, 被服常不完.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라는 말이 보인다.

119) 金昌翁, 「日錄」, 『三淵集』 권35, 한국문집총간 166, 162면. “糧道頗窘, 不能不關念. 松葉和菽末澆水, 勸奴輩, 皆以爲勝喫菜. 然不能早爲料理民情, 大可憎. 去秋菽稔時, 聚得十餘斗, 和一石松葉以療飢, 豈不勝三旬九食穀乎? 卽今公私無畜積, 惟勸民啖松外, 無一好策. 畏齋李相每欲行此政, 而被人笑, 沮而止, 良可歎也.”

엽요기법을 강조한 사람은 소재(疎齋)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다. 그는 「만록」(漫錄)에서 이단하가 송엽법을 고안한 경위와 그 효과, 이 방법으로 남에게 비웃음을 받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송엽요기법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노론 집단에서 공유한 진흥책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120)</sup>

소빙기의 기후변동으로 17세기 후반에는 대기근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그 정점에는 경신대기근(1670~1671)과 을병대기근(1695~1699)이 있었다.<sup>121)</sup> 이단하는 경신대기근이 일어났던 1670년 진흥을 위해 송엽요기법을 제안하는 상소문을 올렸고<sup>122)</sup> 이는 1671년 6월 11일 좌의정 정치화(鄭致和)와 예조판서 김만기(金萬基)의 추진으로 시행되었다.<sup>123)</sup> 송시열도 이단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구급방(救急方)의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했다.

전반적으로 노론은 송엽요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실용성을 인정한 반면, 남학명을 비롯한 소론은 신정(申詵, 1628~1687)이 이단하의 송엽론을 비웃었다는 일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으며<sup>124)</sup> 소론 주도하에 편찬된 『숙종실록보궐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에서 송엽요기법을 거론하면서 이단하의 오활함을 비판하기도 했다.<sup>125)</sup> 이처럼 소론 측

120) 李頤命, 「漫錄」, 『疎齋集』 권12, 한국문집총간 172, 307면. “松圃好服松葉, 以爲可以療飢. 又考國初救荒, 方有松葉作末之法. 請於朝, 頒布其法於諸路, 使之浸刊久傳. 人或笑之, 民多不從. 時申汾厓爲江都留守, 見其令覆, 稟廟堂曰: ‘將懸板於官門乎? 將於客舍乎?’ 盖有譏笑之意. 是時蝗起, 食四山松葉殆盡, 有人作詩曰: ‘虫食四山松葉盡, 相公何處施經綸?’ 又有客言于公曰: ‘松葉若可救荒, 則誠好矣. 某有一策, 無採葉乾春之勞, 如何?’ 公喜問之, 乃曰: ‘令飢民日出時東向吸氣, 則好矣. 仙家豈不以餐松吸氣, 同爲良方耶?’ 聞者絕倒.”

121)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제』 85집, 부산경남사학회, 2012, 346~352면.

122) 李端夏, 「傳諭懷德, 復命後辭職, 仍陳沿路所聞疏 庚戌」, 『畏齋集』 권3, 한국문집총간 125, 322~323면.

123) 『顯宗改修實錄』 12년 6월 11일 경인 기사 참조.

124) 南鶴鳴, 「詞翰」, 『晦隱集』 권5, 한국문집총간 속 51, 374면. “李相端夏每主松葉論, 丙寅入相後尤力主. 時連有松蟲, 松樹多枯死. 申判書詵有詩曰: ‘木覓青松蟲食盡, 相公何處做經綸?’”

125) 『肅宗實錄補闕正誤』 12년 11월 17일 정유 기사. “史臣曰: ‘此法主張者, 李端夏也. 四山松禁解弛, 偷斫紛紜, 而有此許採之令, 蟲食餘松, 殆將自此盡矣.’”

은 이단상의 송엽요기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론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홍직필은 송엽요기법을 여전히 중시하는 발언을 했다.

숙종조에 큰 흉년이 들자 외재(畏齋) 이공(李公)이 이 방법을 팔도에 반포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셨습니다. 또 삼연(三淵)이 화악산(華嶽山)에 거처하실 적에 솔잎을 먹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채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고, 심지어는 “십여 말의 콩을 모아서 한 섬의 솔잎과 섞어 먹으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니 삼십 일에 아홉 번 곡식을 먹는 것보다 어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이 정사를 시행하지 못함을 몹시 탄식하셨습니다. 선배들이 이것에 대하여 어찌 공연히 그러셨겠습니까.<sup>126)</sup>

위 인용문은 1815년 2월 홍직필이 강주흠(姜周欽)에게 답한 편지의 일부이다. 당시 홍직필은 순조 대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송엽법의 실행을 주장했다. 이에 홍직필은 앞서 살펴본 김창흡이 송엽을 먹은 사례를 직접 인용하면서 송엽요기법의 실용성을 크게 칭찬했다. 이단하에서부터 홍직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송엽요기법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이 구휼책은 노론 지식인 사이에 매우 유의미하게 여겨졌던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송엽요기법을 주변에서 직접 시행해보고 실제 시행을 바라던 모습에서 백성을 중시하고 구제하려는 김창흡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생에 대한 김창흡의 관심과 중시는 조선의 현실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비판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폐단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총 다섯 가지가 있

---

有識莫不竊笑. 蓋端夏素乏材具, 而自任經綸, 所建請以爲進退者, 不過社倉與松葉方而已. 其迂闊類此.”

126) 洪直弼, 「答姜文老乙亥二月」, 『梅山集』 권17, 한국문집총간 295, 405면. “肅廟朝值歲大無, 畏齋李公請頒行茲法于八路. 三淵居華嶽山中, 亦服此物. 以爲勝喫菜, 至謂‘聚得十餘斗菽, 和一石松葉以療飢, 豈不勝三旬九食穀乎’, 甚歎此政之不克行. 先輩於此, 豈苟然哉?”



다. 일족절린(一族切隣)의 폐단이 첫째이고, 진상(進上)하는 일이 너무 많은 폐단이 둘째이며,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셋째이고,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이 불공평한 폐단이 넷째이며, 아전들이 가렴주구하는 폐단이 다섯째이다.” 위의 다섯 가지에 대해 마땅히 마음으로 헤아려 백성을 구제하고 폐단을 혁파하는 방도를 찾아야 시무(時務)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127)</sup>

위 인용문은 1720년 11월 30일 「일록」의 일부이다. 인용문에 언급된 다섯 가지 민생 구제법은 사실 이이(李珥)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창흡이 율곡의 경세론을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이는 「동호문답」(東湖問答)의 ‘논안민지술’(論安民之術)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손님이 “당신이 민생을 구제하는 일은 폐단을 개혁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폐단 중에 무엇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근심이 되고 있는가?” 라고 말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일족절린(一族切隣)의 폐단이 첫째이고, 진상(進上)하는 일이 너무 많은 폐단이 둘째이며,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셋째이고,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이 불공평한 폐단이 넷째이며, 아전들이 가렴주구하는 폐단이 다섯째이다”라고 하였다.<sup>128)</sup>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 이 다섯 가지 개혁안은 이이가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다섯 가지 병폐를 지적한 뒤에 이이는 항목별로 예시를 들면서 그 폐단, 이해관계, 해결책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sup>129)</sup> 이후 유형원을 비롯한 실학자도 「동호문답」의 이 부분을 인용

127) 金昌翁, 「日錄」, 『三淵集拾遺』 권26, 한국문집총간 167, 181면. “救民革弊, 凡有五件: 一族切隣之弊一也, 進上煩重二也, 貢物防納三也, 役事不均四也, 吏胥誅求五也. 右五件當入心揣摩, 求所以救弊之道, 似有進於識時務矣.”

128) 李珥, 「東湖問答」, 『栗谷全書』 권15, 한국문집총간 44, 325면. “客曰: ‘子以爲救民, 在於革弊. 當今之弊, 孰爲民患之大者?’ 主人曰: ‘一族切鄰之弊一也, 進上煩重之弊二也, 貢物防納之弊三也, 役事不均之弊四也, 吏胥誅求之弊五也.’” 인용문의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고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129) 李珥, 「東湖問答」, 『栗谷全書』 권15, 한국문집총간 44, 325~328면.

하면서 조선의 폐단을 개혁하자고 주장한 바 있었다.<sup>130)</sup> 그만큼 「동호문답」은 나라를 다스리고 시무(時務)에 정진하는 데 중요한 책이었다. 김창흡은 「동호문답」을 직접 읽었다.<sup>131)</sup> 이것은 조선 국정(國政)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파악하여 시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이는 김창흡이 국정에 나타난 이 다섯 가지 폐단을 인정하고 비판했음을 의미한다. 김창흡은 이러한 비판의식을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여러 항목 가운데 괄정(括丁: 백성을 군사로 선발해 수용하는 것), 심전(審田: 토지를 조사하는 것), 징포(徵布: 신역포를 징수하는 것), 인족(隣族: 이웃이나 일족에게 침징하는 것) 같은 일들은 태인(泰仁)만이 아니라 모든 읍에 있는 공통된 폐단들입니다. 그대는 다만 폐단이 있음을 말했을 뿐, 그 중책(中策)을 얻은 게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승려에게 종이를 바치라고 하는 조치는 혹은 이어서 하고 혹은 없애 버립니다. 일에는 이해(利害)가 서로 뒤섞여 있고 또 서로 막고 방해하는 것<sup>132)</sup>이 병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십분 편리한 방도를 구하고, 수시로 변통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는 고집스레 하나만 주장하면 됩니까?<sup>133)</sup>

위 인용문은 김창흡이 1704년 무렵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재직중이었던 죽인 김시보(金時保)에게 답한 편지의 일부이다.<sup>134)</sup> 김시보는 태인

130) 柳馨遠, 「國朝名臣論弊政諸條附」, 『礪溪隨錄』 권4, 서울: 東國文化社, 1958, 86면.

131) 「만록」에는 「동호문답」을 읽고 의심할 점을 지적한 항목이 보인다. 金昌翁, 「漫錄」, 『三淵集』 권35, 한국문집총간 166, 170~171면. “看「東湖問答」, 多有可疑處. 其論霸王才智高下, 以晉文爲勝於齊桓, 屈昭烈於宋太祖之下, 殊欠愜當.”

132) 원문은 “掣肘”이다. 공연히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여 뜻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노(魯)나라 복자천(宓子賤)의 고사에서 나왔다.

133) 金昌翁, 「與士敬」,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56면. “(…) 至於諸欸中, 括丁. 審田. 徵布. 隣族等事, 非泰而已, 乃列邑通患, 徒有言弊矣, 未聞有得其中策者. 而僧寺責紙, 或仍或罷. 事固有利害相參錯, 而又矛盾掣肘之爲患, 若是者非一. 於其沒奈何處, 必求其十全便宜; 於其隨時變通處, 硬判其指一可否?”

134) 김시보는 1704년 2월 6일부터 1706년 5월 12일 전까지 태인현감으로 재직하였다. 김시보가 부임한 초기에 김창흡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방도를 문

현감이 된 이후 김창흡에게 태인을 다스리는 방도를 구한 듯하다.<sup>135)</sup> 이 편지에서 김창흡은 괄정(括丁), 심전(審田), 징포(徵布), 인족(隣族) 같은 폐단들이 비단 태인 한 지역만이 아니라 조선 모든 지역에 있는 폐단이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심전의 폐단은 토지개량과 연관된 부분이고 징포의 폐단은 양역변통 정책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폐단들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고을을 다스릴 중책을 마련할 때 수시로 변통할 줄 알아야 한다. 이처럼 김창흡은 조선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의 비판적 시각은 박필주(朴弼周, 1665~1748)의 체차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평 현령(永平縣令: 박필주)의 편지가 왔는데, 이직(移職)되어 낭패 하여 돌아갔다고 했으니, 관청에 도착한 지 모두 10일밖에 되지 않았다. 조정이 백성의 일을 경시하는 것은 수령을 빈번하게 체차(遞差)하는 데서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항상 강개하고 한탄한다. 이번에 진구(賑救)할 때에 임박하여 현령을 교체해서 글 읽은 선비로 하여금 고을 다스리는 재주<sup>136)</sup>를 조금 펴보도록 하지 않아 전혀 의미가 없고 조치가 되지 못하였으니, 쫓쫓, 어찌하겠는가?<sup>137)</sup>

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편지의 작성 연도를 1704년경으로 추정하였다.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2월 6일 병자 기사, 숙종 32년 5월 12일 기사 참조.

135) 金昌翁, 「與士敬」, 『三淵集拾遺』 권17, 한국문집총간 166, 555면. “向承見詢七段, 雖非專屬於罪劣者, 苟有所見, 一體參商, 亦無不可. 而細考條目, 莫非盤錯肯綮中出來, 須有飽經歷眞諳悉而後, 可以應對. 迂昧者誠不敢措舌其間, 只得以來書委屬於仲兄, 待其何以爲答, 而控手傍觀之爲計. 惶惶若此, 殊覺於心不足, 而亦無奈何.”

136) 원문은 “製錦”이다. 비단옷을 만든다는 뜻인데, 지방관으로서 고을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31년 조에, 정(鄭)나라 자피(子皮)가 나이 어린 윤하(尹何)를 고을 수령으로 삼으려고 하자, 자산(子產)이 윤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치가 미숙하여 안 된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그대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다면 남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마름질하는 법을 배우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子有美錦, 不使人學製焉)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137) 金昌翁, 「日錄庚子」, 『三淵集』 권34, 한국문집총간 166, 150면. “永平宰書至, 報以移職狼狽而歸. 到官凡十日耳. 朝家之輕民事, 可見於頻遞守令, 每所慨惋. 此則臨賑換宰, 又不使讀書人少試製錦施爲, 全無意味, 不成舉措. 咄咄奈

위 인용문은 1720년 2월 15일 「일록」의 일부이다. 이날 영평 현령(永平縣令) 박필주가 김창흡에게 편지를 보내 체차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1720년 1월 27일 박필주가 영평에 부임했을 당시 김창흡은 그에게 영평을 잘 다스리고 쉽사리 벼슬을 그만두지 말라고 당부했다.<sup>138)</sup> 그런데 박필주는 열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 체차되었다. 이에 김창흡은 조정이 백성에 관한 일을 경시하는 것을 빈번히 수령을 체차하는 데서 볼 수 있다고 한탄하였다. ‘수령칠사’(守令七事)로 상징되는 수령의 중요성, 역할과 위상이 이 시기에 와서 더욱 확고해졌고, 목민관으로서의 책임도 강조되었기 때문이다.<sup>139)</sup>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가 빈번하게 체차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백성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체차는 진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박필주가 영평 현령이 되었을 때 영평은 흉년이었으므로 진휼의 일에 착수했다. 진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박필주는 김창흡에게 편지를 보내어, 김창흡의 인적 네트워크를 빌려 당시의 영의정 김창집과 진휼청 당상관 민진원(閔鎭遠)의 도움을 받아 상진청(常賑廳)의 발매미(發賣米)를 얻기를 부탁했다.<sup>140)</sup> 김창흡도 아마 자신의 역할을 발휘해서 김창집과 민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다만 박필주가 회신을 기다리는 사이에 2월 9일에 지평으로 체차되었다.<sup>141)</sup> 조정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김창흡은 진휼하는 긴요한 시기에 수령을 체차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

何?”

138) 金昌翁, 「答朴弼周」,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451면. “乍到事固如麻, 手熟游刃之後, 將見案無留牘, 則松桂讀書可優爲之. 八十日前, 毋遽賦歸如何? 冷煖雖曰自知, 處事求當否, 亦朋友之所宜與也.”; 『承政院日記』 숙종 46년 1월 27일 기사.

139) 송양섭, 「숙종조의 재정·부세정책」, 『한국인물사연구』 9집, 한국인물연구소, 2008, 172면 참조.

140) 朴弼周, 「答金三淵 己亥」, 『黎湖集』 권9, 한국문집총간 196, 194면. “最是卽今所難堪者, 年事極歎, 賑政當前, 雖熟手段而在雄邑猶難有爲於新到, 况以周而來此至殘之邑乎? 束手茫然, 百計無策. 若得賑廳發賣米一二百石, 則庶救得一半. 而如周不識人者, 誰肯出力相救乎? 惟門下念此大段狼狽, 書白于伯相國領台大爺, 少費陶鎔之力, 送言于閔季台, 以濟此邑近止之民命. 未知以爲如何?”

141) 『承政院日記』 숙종 46년 2월 9일 기사.

다고 비판하였다.

요컨대 김창흡은 독서지사로서 민생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있었을뿐더러, 민생을 둘러싼 조선 사회 현실의 폐단을 진단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창흡은 농업을 중시했음에도 실용 학문을 체계화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백성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었다. 농사 경작법을 강조한 것, 송엽요기법을 제시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창흡은 백성의 삶과 나라의 현실을 우려하는 경제적 면모가 강한 재야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해 김창흡이 어떤 사고를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도적 측면에서 김창흡은 사 계급과 관련하여 과거 시험에 대한 노론 내부의 변질된 태도를 지적하고, 향촌 사족의 경험에 의거하여 표학을 비롯한 과거제도 문제를 비판하였으며, 당파간의 헤게모니 투쟁 차원에서 소결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민생의 측면에서 애민 사상을 펼치면서 백성을 위해 당파적 차원을 넘어 백씨 김창집에게 정책을 도모하자고 건의하기도 했으며 노론의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민생을 둘러싼 조선 사회 현실의 폐단을 진단하기도 했고, 백성의 삶과 밀접한 농업을 중시하면서 농사 경작법, 송엽요기법 등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김창흡이 경제적 면모가 강한 엘리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국가간 정치에 대한 김창흡의 생각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화이관(華夷觀)과 대청인식

장동김문에서 청나라 사행을 다녀온 사람으로는 김수항, 김창집, 김창업 등이 있었다.<sup>142)</sup> 혼척 가운데 청나라에 간 사람으로는 송상기(宋相

---

142) 김수항은 1653년, 1674년 두 번 다녀왔고, 김창집은 1712년 동지사 정사로 사행(使行)했으며, 김창업은 자제군관으로 백씨 김창집을 따라 청나라에 갔다.

琦, 1657~1723), 박권(朴權, 1658~1715), 이건명(李健命, 1663~1722) 등이 있었다. 이외에 중서층 홍세태 등도 청나라에 여러 번 다녀왔다. 김창협(金昌協)의 「심적편」(審敵篇) 창작은 부친 김수항의 여행 기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sup>143)</sup>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燕行日記)에는 송상기의 『정축일기』(丁丑日記)를 참고했다는 기록도 보인다.<sup>144)</sup>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장동김문은 청나라의 정치적 동향과 문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나라의 형세를 거의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장동김문 구성원으로서 김창흡은 청나라에 대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화엄사상의 무애법계 논리를 빌려 사람의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sup>145)</sup>고 주장하고, 백성을 다스릴 때 수시로 변통해야 한다<sup>146)</sup>고 주장한 김창흡은, 청나라에 대한 인식 역시 유연한 면이 있었다. 그는 송시열계 호중 노론처럼 의리론을 표방하지 않았으며<sup>147)</sup> 만년에 들어 김창흡의 이러한 면모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글을 인용하면서 김창흡의 대청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43) 金昌協, 「審敵篇」, 『農巖集』 권25, 한국문집총간 162, 211면. “往在甲寅, 先君子自使燕還. 聞吳三桂起事, 虜中大警, 私竊爲此篇, 藏之篋笥而不以示人也. 其後三桂竟敗死, 而虜至今無恙. 蓋愚臆料, 或中或不中, 天下事其難險度如此. 然其所謂二可憂者, 今尙未艾. 而顧念根本之計, 不及彼時又遠甚. 發篋讀此, 不勝慨然, 輒錄以存之, 以見區區之志云.”

144) 金昌業, 『燕行日記』 권2, 『燕行錄全集』 31,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365면. “而曾見宋兄玉汝氏丁丑『燕行記』, 有所謂文錫亭楊嗣昌所書字大如股者, 今亦無矣. (….) 曾見宋兄日記, 漢兒王寧潘年十四, 頗端秀. 已讀四書云.” 송상기의 『정축일기』는 『성사록』(星槎錄)이라고도 한다. 시뿐만 아니라 일기체로 되어 있는 『성사록』 이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宋相琦 著, 宋必煥 編, 『星槎錄』, 『玉吾齋集』 권28, 청구기호:古3648-39-183)뿐이다. 이 이본은 표제에 선고(先稿)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가장본일 가능성이 높다.

145) 제5장 제1절 참조.

146) 제6장 제3절 참조.

147) 농연 형제의 화이론에 대해서는 조성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김창협·김창흡의 학풍과 현실관」, 『역사와 현실』 51집, 한국역사연구회, 2004; 183~190면;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파주: 지식산업사, 2007, 184~192면; 박희병, 『범애와 평등』, 파주: 돌베개, 2013, 229~298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성과에 힘입으면서 김창흡의 화이관과 정통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유연한 화이론과 정통론

김창흡의 대청인식을 잘 보여주는 글은 1720년 2월 14일에 박필주에게 보낸 편지,<sup>148)</sup> 1720년 2월 14일의 「일록」, 그리고 1720년의 「만록」 등이다. 먼저 같은 날에 작성한 편지와 「일록」의 해당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분석하겠다.

가)

바야흐로 『서경』(書經)을 읽다 「홍범」(洪範) 편에 이르렀습니다. 무왕(武王)이 마음을 비워 겸손히 도(道)를 찾은 것과 기자(箕子)가 아낌없이 법을 전수한 것을 보니, 모두 천지의 기상입니다. 사필(史筆)의 전심(傳心)함이 귀신과 같아서 매번 읽을 때마다 거듭 감탄하기를 금치 못합니다.

‘십유삼사’(十有三祀) 중의 ‘사’(祀) 자에 대해 누원(樓院) 부자[박세당·박태보 부자]가 고집스레 ‘년’(年) 자를 잘못 기록한 것<sup>149)</sup>으로 판단했으니 집요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들이 십삼 년이라 한 것은 주나라의 역법인데, ‘사’ 자를 ‘십삼’ 뒤에 쓴 것은 족히 은나라를 높인다고 말할 수 없다니, 그들의 설이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사관이 특필(特筆)로 ‘방기자’(訪箕子) 앞에 ‘십유삼사’를 씌으로써 기자가 감히 신하로 삼을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은 본디 활법인데, 융통성이 없는 견해로 갑자기 입론하여 분쇄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분개한 자취를 찾아보면, 오로지 우재(尤

148) 이 편지는 1720년 2월에 박필주가 영평 현감에서 체차될 무렵에 쓴 것인데, 편지에 언급된 바야흐로 「홍범」을 읽고 있었다는 말은 경자년(1720) 2월 14일 「일록」의 「홍범」 ‘황극’ 부분까지 읽었다는 언급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창흡이 박필주에게 답장을 한 시기는 『홍범』을 읽은 1720년 2월 14일일 가능성이 높다.

149) 『서경집전』(書經集傳)에 의하면 상나라는 ‘사’라 하고 주나라는 ‘연’이라 한다(商曰祀, 周曰年). 이 부분의 내용은 박세당의 「화숙이 기년을 논한 것을 변론하여 아질에게 보이다」(辨和叔論紀年示兒姪)에 보인다. 이에 대한 반박은 1682년 4월 7일에 박세채가 조카 박태보에게 답한 편지에 보인다. 朴世堂, 「辨和叔論紀年示兒姪」, 『西溪集』 권7, 한국문집총간 134, 131~134면; 朴世采, 「答泰輔姪 四月七日」, 『南溪集』 권36, 한국문집총간 139, 230~231면 참조.

齋: 송시열)와 현석(玄石: 박세채)이 명나라가 멸망한 지 오래된 뒤에도 승정(崇禎) 연호를 쓴 것이 그 뜻이 허위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옮겨 『서경』까지 이르러 훌륭한 서법을 부수었으니 참으로 크게 웃을 만합니다. 반남(潘南) 선생이 세우신 것<sup>150)</sup>에 대해서도 누원 역시 강자를 두려워하고 약자를 버렸을 뿐 오랑캐에게 등 돌리고 중화를 향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선조를 추종함에 부허(浮虛)하고 어긋남을 면치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진실한 듯합니다. 공정한 마음으로 논하면 과연 어떻습니까?<sup>151)</sup>

나)

14일.

‘십유삼사’(十有三祀) 중의 ‘사’(祀)에 대해 누원(樓院) 부자가 고집스레 ‘년’(年) 자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설파하려고 했으니, 집요하다고 이를 만하다. 십삼 년이라 한 것은 주나라의 역법인데, ‘사’ 자를 ‘십삼’ 뒤에 쓴 것은 족히 은나라를 높인다고 말할 수 없다니, 그들의 설이 옳은 듯하다. 그러나 사관이 특필(特筆)로 ‘방기자’(訪箕子) 앞에 ‘십유삼사’를 썼으니 본디 활법인데, 융통성이 없는 견해로 갑자기 입론하여 분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분개한 자취를 찾아보면<sup>152)</sup> 오로지 우재(尤齋: 송시열)와 현석(玄石: 박세채)이 명나라가 멸망한 지 오래된 뒤에도 승정(崇禎) 연호를 쓴 것이 그 뜻이 허위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여움을 옮겨 『서경』까지 이르렀으니 한 번 웃을 만하다. 그러나 일은 중도에 맞

150) 반남 선생은 반남 박상충(朴尙衷, 1332~1375)을 가리킨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권25에 “박반남 상충 등이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지 말고 명나라에 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상소를 올렸다”(朴潘南 尙衷等疏請勿迎元使, 勿貳大明)라는 내용이 보인다.

151) 金昌翁, 「與朴弼周」, 『三淵集』 권21, 한국문집총간 165, 452~453면. “方讀『書經』至「洪範」, 看武王虛遜訪道, 與箕子之授法無慳, 都是天地氣象. 史筆傳心如神, 每讀來, 三復感歎不能已. ‘十有三祀’之‘祀’, 樓院父子硬判以年之誤, 可謂拗矣. 蓋謂十三年, 係是周家春秋, 則用‘祀’字於‘十三’之下, 未足爲尊殷, 其說似矣. 然而史以特筆, 冒著於訪箕子之上, 以著不敢臣之意, 自是活法, 未可以膠滯之見, 卒然立說碎也. 迹其不忿, 專在於尤齋、玄石用崇禎年號於久遠之後, 意涉虛僞也. 怒有所遷, 上及『書經』, 而撞碎好書法, 良足一嘆. 潘南先生所樹立, 樓院亦判以畏強捨弱而非有背夷向華之意, 比諸他家推尊厥先未免於浮爽者, 却似慳實. 平心論之, 果如何耶?”

152) 원문에는 해당 글자가 빠져 있지만, 박필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해당 부분을 비교하면 빠진 글자는 ‘不’이 분명하다. 이를 참고하여 번역했다.



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다. 천도도 오히려 줄어들어 있으니, 그때 이후로 몇백 년 뒤에 조선의 선비가 된 자가 연이어 승정 연호를 쓰는 것은 역시 너무나 고루하지 않은가? 누원이 우암과 현석을 조롱한 것은 이미 고집에 빠진 잘못인데, 내가 또 그 고집을 바로잡으니, 누원이 승정 연호를 오랫동안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sup>153)</sup>

위 인용문 중에 가)는 편지의 일부이고, 나)는 「일록」의 일부이다. 두 글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다. 박세당 부자가 논한 기년설(紀年說)<sup>154)</sup>을 비판하는 것부터 화이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승정(崇禎) 연호 사용의 합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김창흡은 자신의 생각을 문인 박필주에게 편지로 토로하기도 하고 일록의 형식으로 스스로 기록하기도 했다. 박필주에게 그의 생각을 보여준 까닭은, 김창흡이 자신의 생각과 실제 사례를 결부했을 때 이것이 박필주의 집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두 편의 글을 비교하면서 김창흡의 화이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와 나)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홍범」에 나온 ‘십유삼사’(十有三祀)에 대한 박세당 부자의 해석이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고, 하나는 그들이 그 해석을 고집한 까닭을 추측한 것이며, 마지막은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김창흡은 이와 같이 몇 단계에 걸쳐 화이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이를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첫째, ‘십유삼사’에 대한 박세당 부자의 해석 부분이다. 박세당은 「화숙이 기년을 논함을 변론하여 아질에게 보이다」(辨和叔論紀年示兒姪)라

153) 金昌翁, 「日錄庚子」, 『三淵集拾遺』 권26, 한국문집총간 167, 177면. “十四日. 十有三祀之祀字, 樓院父子欲破說諉之年字之誤, 可謂拗矣. 謂‘十三年, 係是周家春秋, 則用祀字於十三之下, 未足尊殷’, 其說似然. 而史以特筆冒之於訪箕子之上, 自是活法, 未可以膠滯之見, 卒然立說碎矣. 其所[不]忿, 專在於尤齋、玄石用崇禎年號於久遠之後, 意涉虛僞. 而怒之所移, 上及於『書經』, 亦可一笑. 然事貴適中, 天道猶有消息, 自此累百年後, 凡爲朝鮮士子者, 連用崇禎年號, 亦無乃太固乎? 樓院之嘲尤、玄, 既失之拗矣. 我又矯拗樓院久執崇禎而不捨, 則恐未爲適當也.”

154) 기년설을 논한 내용은 朴世堂, 「辨和叔論紀年示兒姪」, 『西溪集』 권7, 한국문집총간 134, 131~134면 참조.

는 글에서 기년(紀年)을 논한 박세채의 주장을 반박하며, ‘연’(年) 자를 ‘사’(祀)로 잘못 기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령 기자가 진실로 상나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따라 쓰고 주나라의 제도를 쓰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상나라 주(紂)의 세수를 기록하여 사를 연결하지 않고 주나라 무왕의 세수를 기록하였겠는가”<sup>155)</sup>라고 말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박세당의 설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사관이 활법(活法)을 사용해서 특필로 ‘방기자’(訪箕子) 앞에 ‘십유삼사’를 넣음으로써 기자가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 반박하였다.

둘째, 박세당이 왜 이런 주장을 고집했는지에 대한 김창흡의 추측이다. 김창흡에 의하면 박세당이 이런 이설(異說)을 내세운 까닭은 송시열과 박세채의 허위성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대명의리(對明義理)를 지키기 위해 명나라가 멸망한 지 오랜 뒤에도 명나라 의종(毅宗) 황제의 연호 ‘숭정’(崇禎)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다.<sup>156)</sup> 그렇다면 박세당의 지적에 대해 김창흡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의 화이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가? 이는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가)와 나)의 내용을 보면 첫째, 둘째 부분의 내용은 거의 똑같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 않다. 편지에서는 김창흡이 박필주에게 반남(潘南) 박상충(朴尙衷, 1332~1375)에 대한 박세당의 평가가 어떠한지 질문을 던진 반면, 「일록」에서 김창흡은 ‘숭정’ 연호를 쓰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였다. 표현이 다르지만, 두 인용문에 드러난 김창흡의 견해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편지에서 언급한 박상충에 대한 박세당의 평가가 무엇인지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박상충은 여말 사람으로 반남박씨이며, 박세당과 박세채의 선조다. 그는 친명파(親明派)로 「북원 사신을 물리치기를 청하는 소」(請却北元使

155) 朴世堂, 「辨和叔論紀年示兒姪」, 『西溪集』 권7, 한국문집총간 134, 132면.  
“向使箕子苟爲因商舊而不用周, 則何爲不記商紂之歲數, 以係乎祀而記周武王之歲數也?”

156) 이에 대한 박세당의 비판은 朴世堂, 「辨和叔論紀年示兒姪」, 『西溪集』 권7, 한국문집총간 134, 133면 참조.

疏)를 올린 적이 있었다.<sup>157)</sup> 상소문에서는 복원 사신을 맞이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순리를 버리고 역리를 따르는 것은 천하의 대의가 아니며, 강대국을 배반하고 약소국을 가까이하는 것은 오늘날의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sup>158)</sup>라고 말했다. 송시열과 박세채는 박상충의 이러한 행동을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면서 1681년에 숙종에게 박상충을 정몽주(鄭夢周)와 똑같이 추숭(追崇)할 것을 건의하였다.<sup>159)</sup> 그런데 이에 대해 박세당은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박세당은 박세채에게 답한 편지에서 선조 박상충의 행동을 단순히 ‘존왕양이’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당시의 형세를 함께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다음은 1681년 무렵 박세당이 박세채에게 답한 내용이다.<sup>160)</sup>

일찍이 적이 생각건대, 직학 부군(直學府君: 박상충)께서 간담을 다 쏟아 혼란한 조정에 항쟁하여 재차 삼차에 이르러서도 그만둘 줄 모르시다 끝내 목숨을 잃는 화를 범하여 천 년 뒤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장(疏章)을 읽노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하니, 그 충성과 분개를 일으킨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는가. 명나라를 위하려는 것이었겠는가. 아니면 고려가 망해 갈 적에 화근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서 차마 좌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겠는가. 그 상소를 자세히 읽어 보면 환히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정 문충공(鄭文忠公: 정몽주)이 올린 상소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았네. 대체로 당시의 지사(志士)와 충신(忠臣)들이 이

157) 朴尙衷, 「請却北元使疏」, 『潘陽二先生遺稿』 권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청구기호: 古3647-375), 21~24면.

158) 朴尙衷, 「請却北元使疏」, 『潘陽二先生遺稿』 권1, 23면. “夫棄信而從逆, 天下之不義也. 背強而向弱, 今日之非計也.”

159) 『숙종실록』 7년 1월 21일 을해 기사; 朴世采, 「答季肯兄十一月十四日」, 『南溪集』 권36, 한국문집총간 139, 219~221면.

160) 이 편지에서는 1681년 1월 21일에 송시열이 숙종에게 박상충의 추시를 건의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게다가 박상충의 추시(追諡)와 사적(事蹟) 편찬이 모두 1681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박상충을 두고 편지를 주고받은 시기도 1681년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朴世堂, 「答和叔書」, 『西溪集』 권7, 한국문집총간 134, 124면; 朴世采, 「先祖高麗判典校寺事朝鮮贈領議政府事錦城府院君潘南先生事蹟辛酉三月八日」, 『南溪集外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42, 73~79면; 朴泰輔, 「潘南先生事蹟略」, 『定齋集』 권3, 한국문집총간 168, 72~73면 참조.

문제에 대해 통탄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선조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심하셨네. 지금 이 편지의 뜻과 지난날 선영에 올린 제문(祭文)과 대신(大臣)이 주상께 진달한 내용에서는 모두 존양(尊攘)만 거론하고 이 문제는 털끝만큼도 언급하지 않았네. 이 어찌 우리 선조께서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다하신 것이 천하 후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뜻을 알아주기를 바라셨겠는가.

그리고 존양하였다는 의는 비록 또한 근리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일은 자못 쉽게 말할 수 없는 점이 있네. 원(元)이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된 뒤로 고려가 원나라를 섬긴 지가 거의 100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이 망하고 명나라가 일어나자 고려는 외번(外藩)에 처하여 원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절의를 지킬 의리가 없었네. 이 때문에 명을 섬기고서도 중국을 존송하는 예를 잃지 않았던 것이네. 그러나 고려는 원에 대해서 이미 일찍이 조금이나마 군신의 분수가 있었으니, 원이 나라를 잃고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해서 대뜸 스스로 원을 배척하자고 주장해서는 안 될 걸세. 강성할 때는 백년토록 신하라고 일컫다가 갑자기 망하자 우리가 능히 배척한다고 하면 사리로 볼 때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정 문충공의 상소에 “우리 동국이 멀리 해외에 처하여, 우리 태조(太祖)께서 당나라 말엽에 일어나심으로부터 중국을 예로 섬겼는데, 그 섬길 적에는 천하의 의주(義主) 인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지난날 원이 파천(播遷)을 자초하고 대명(大明)이 일어나자 우리 성상께서 왕위에 오르시어 환히 천명을 알았기 때문에 표문을 받들매 신하라고 자칭한 지가 이제까지 6년입니다”라고 하였네. 문충공의 뜻을 살펴볼진대, 또한 어찌 존양을 자처한 적이 있단 말인가. 말이야 옳은 듯하지만 고증해 보면 사실과 맞지 않네.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을 남이 미루어 인정하는 것은 사적을 천명하는 의리를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sup>161)</sup>

161) 朴世堂, 「答和叔書」, 『西溪集』 권7, 한국문집총간 134, 124면. “嘗竊惟念, 直學府君所爲剗心剖肝, 抗爭於昏亂之朝, 至再至三而猶不知己, 卒犯殞身之禍. 今千載之下, 讀其疏而不覺涕流者, 其忠憤所發, 果誰爲歟? 其將爲明乎? 抑爲知高麗將亡, 禍根在此, 不忍坐視耶? 詳覆其疏, 灼然可見. 且如鄭文忠疏意, 亦無異同. 蓋當時之志士忠臣, 無不痛心於此, 而先祖尤烈焉. 今書意及前日先墓祭文暨大臣所陳於上者, 皆只舉尊攘, 而一毫略不及此. 此豈先祖所爲自盡其心, 而將有望於天下後世之能識其一二哉? 且尊攘之義, 雖亦近矣. 而當時之事, 頗有未可以易言者. 夫元既入主中國, 而高麗之事元, 垂百年矣. 一朝元亡而明興, 高麗處外藩, 無爲彼守死之義, 故事明而不失尊中國之禮. 然高麗於元, 既嘗粗有君臣之分, 不當以其失國北遁, 而遽自居於辟攘之義也. 當其強也, 百年稱臣, 及忽而亡

위 인용문은 해당 편지의 일부이다. 박세당은 박상충의 상소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려가 장차 망하리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세당에 의하면 고려가 섬기는 대상은 중국에서 왕 노릇하는 강한 왕조일 뿐이므로, 원나라를 섬기든 명나라를 섬기든 다 중국을 높이는 예를 지키는 것이다. 박세당의 평가는 바로 김창흡이 말한 것처럼 박상충이 강자를 두려워하고 약자를 버렸을 뿐 오랑캐에게 등 돌리고 중화를 향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상충의 행동에 대한 박세당의 평가를 이해한 뒤에 김창흡이 박필주에게 보낸 편지와 「일록」 두 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김창흡은 박상충에 대한 박세당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김창흡의 생각에 박세당의 평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선조를 추종할 때 부허하고 어긋남을 면치 못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성실한 면이 있다. 즉 박세당의 평가가 사실과 더욱 가깝다고 여긴 것이다. 이는 김창흡이 박상충의 행동을 ‘존왕양이’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당시의 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김창흡의 주장에 대해 박필주는 선조 박상충의 행위가 ‘존왕양이’의 의리를 지킨 것이라고 반박하였다.<sup>162)</sup> 그런데 김창흡

---

曰：‘吾能攘，’則於事何如哉？故鄭文忠之疏曰：‘吾東國，僻處海外。自我太祖起於唐季，禮事中國，其事之也，視天下之義主而已。頃者，元氏自取播遷，大明龍興，我上昇王，灼知天命，奉表稱臣，六年于茲。’觀文忠意，亦何嘗以尊攘白居乎？言之似是而考之非實，己之所未嘗自意而人推與之，無乃失闡明之義乎？” 인용문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고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162) 朴弼周, 「答金三淵」, 『黎湖集』 권9, 한국문집총간 196, 196면. “蒙諭『書經』新義, 灑然開發, 三復莊誦. 此書前固略讀, 而年久未能尋繹, 實茫茫不知所對, 然豈敢有異論乎? 又是一家說, 故嫌不欲有言, 彼兩先生親見明亡之事, 故心懷至痛, 每用年號, 此何可悲之也? 天道固有消息, 下諭儘然. 而第侍生舊見則每謂清人未亡之前則雖久遠, 當不捨崇禎爲得. 未知意下果以爲如何? 先祖所樹立, 以爲但在強弱上言, 非有關於華夷之義者, 亦恐是移怒於尤老之致. 盖好立異見, 非中正也. 却元疏見久不記得, 雖不現出華夷字, 而既爲備論逆順之理, 則此非指華夷而何? 苟不然則胡元是本來所事之上國, 而明爲後出, 逆順字, 恐說不去矣. 如何

은 ‘중도’와 ‘변통’이라는 입장에서 화이관을 다시 해석하였다. 그것이 바로 「일록」의 마지막 부분이다.

노론의 입장에서 송정 연호 사용 여부는 ‘대명의리’, ‘존왕양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나라가 멸망해도 송정 연호를 쓰는 것은 청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창흡은 일의 중도와 천도의 변화라는 차원에 입각하여 명나라가 멸망한 지 이미 백년이 넘었는데 다시 송정 연호를 고집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듯하다고 해석하였다.

‘오랑캐 청이 중화의 땅을 점거한 지 백년이나 넘었다’라는 김창흡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선 지식인들, 특히 송시열 계열의 노론은 ‘오랑캐에게는 100년의 운세가 없다’는 말을 깊이 믿고 대명의리를 지켜왔으며, 백년 이후 오랑캐 청나라가 끝내 중원에서 물러나 원래 거주지인 영고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영고탑 회귀설까지 제기했다.<sup>163)</sup> 그런데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努爾哈赤)가 1616년 후금(後金)을 건립한 이래 김창흡이 1720년 이 글을 지을 때까지 백년의 시간이 이미 흘렀다. 그런데 청나라는 중원에서 물러나기는커녕 강희제에 이르러 오히려 강력한 국제적 질서를 구축하게 되어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는 ‘오랑캐에게는 백년의 운세가 없다’는 설이 절로 깨지고 대명의리를 견지하는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김창흡은 송정 연호를 씌으로써 대명의리를 표방하는 행동이 과연 마땅할지에 대해 바로 반성하게 되었다. 김창흡도 실제로 그동안 서문이나 기문에 ‘송정’ 연호를 써왔다.<sup>164)</sup> 그런데 만년에 와서 김창흡은 청나라가 중원을 통치한 지 100년이 지나자마자 현실

---

如何?”

163) 배우성, 『조선과 중화』, 파주: 돌베개, 2014, 199~200면 참조.

164) 심지어 김창흡은 송정 연호 사용 타당성을 토론했던 뒤인 1720년 8월에 지은 『연행훈지록』 서문(燕行墳簾錄序), 1721년 8월에 지은 『은파시고』 서문(隱坡詩稿序) 등의 글에서도 ‘송정’ 연호를 썼다. 이렇게 한 까닭은 글의 성격이나 당시의 사상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상적 전환이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 판단에 입각하여 생각을 바꾸게 된 듯하다. 김창흡에 의하면 무의미하게 명나라를 위해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현재의 형세를 파악하여 청나라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김창흡은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여 박상충을 평가한 박세당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동안 스스로 송정 연호를 고집해왔던 것이 적당치 않다고 반성하였다.

이렇듯 김창흡은 만년에 ‘중도’와 ‘변통’의 시각에서 화이관을 새로 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백년 넘게 송정 연호 쓰는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현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의리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김창흡의 유연한 화이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김창흡의 유연한 화이관은 박세당과 박태보 부자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런데 노론의 이념적 지도자 송시열과 그의 주장을 추종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는 용납되기 어려웠다. 명나라 멸망 후 송정 연호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노론 영수 송시열이기 때문이다. 송시열을 배신한 소론 영수 윤증도 송시열의 이 주장을 따랐다.<sup>165)</sup> 김창흡이 살았던 시대에는 노·소론을 막론하고 대명의리를 지키기 위해 공문서나 개인적 기록에 모두 송정 연호를 사용했다.<sup>166)</sup> 김창흡도 그동안 줄곧 이를 사용해왔지만, 만년에 와서 오랑캐에게 백년의 운세가 없다는 설이 깨진 뒤에 현실적 판단 하에 송정 연호를 고집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스스로 반성한 것이다. 당시의 사상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김창흡의 주장은 대단히 과격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창흡의 화이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18세기 초기의 시대적·사상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김창흡의 문인들이 이 글을 『습유』에 수록하여 가장(家藏)했기 때문에, 『습유』가 정리되기 전에 김창흡의 화이관은 후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대명의리와 존왕양이의 이념이 더욱

165) 朴性陽, 「芸窓瑣錄」, 『芸窓集』 권8, 한국문집총간 속 129, 322면. “明亡後, 因用崇禎年號, 乃尤庵所創. 而尼尹文集中, 亦往往用此例矣. 但定齋則抵書玄石, 極言其不可. 且以洪「範」十三祀之祀字, 謂之錯誤云. 未知義理之何如, 而亦足爲窮格之一端矣.”

166) 송정 연호 사용에 대해서는 이현식, 「『도강록서』 『열하일기』를 위한 위장」, 『동방학지』 15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174~177면 참조.

견고해지고 송정 연호의 사용에 더욱 집착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노론 내에서도 송정 연호를 버리고 청나라 연호를 쓰자고 주장한 인물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다. 그는 『연암집』(燕巖集)이나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 송정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열하일기』에서 송정 연호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 춘추론자의 비판과 검열을 받기도 했다.<sup>167)</sup> 이렇듯 역사적으로 같은 노론 내에서 같은 아이디어가 대를 이어 계승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168)</sup>

김창흡의 유연한 화이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통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통론에 대해서는 김창흡이 경자년(1720) 「만록」에서 세 번이나 언급한 바 있다.

예로부터 정통(正統)을 논한 것이 분분하게 어지러워서 지금까지도 하나로 귀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자(朱子)의 설로 절충하면,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을 정할 수 있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삼대 이후로 내려와,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와 같은 경우는 또한 순수한 정통이 아니니, ‘변’(變) 가운데의 ‘정’(正)입니다. 그리고 진(秦)나라, 서진(西晉), 수(隋)나라와 같은 경우는, ‘통’(統)이긴 해도 ‘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촉(蜀)과 동진(東晉)과 같은 경우는, ‘정’이긴 해도 ‘통’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주자는 이렇게 답했다. “어떻게 꼭 그렇게 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천하가 통일되어 제후가 조회하고 옥송(獄訟)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귀의한다면, 이것이 곧 정통이다.”<sup>169)</sup> 이것은 주자가 평소에 한 말이니, 『통감강목』(通鑑綱目)의 범례(凡例)를 가지고 참조해 보면, 그 범례 또한 이 뜻에 따라 진(秦)나라, 진(晉)나라, 수(隋)나라 등과 같이 역내(域內)를 통일한 모든 나라에 대해 정통을 인정해 주었다.<sup>170)</sup>

167) 이현식, 앞의 글, 200면 참조.

168) 박지원이 『삼연집습유』를 봤을 가능성은 불분명한데, 『농암집』을 봤을 가능성은 높다. 이것은 박지원이 농암이 쓴 「심적편」을 패러디하여 「심세편」을 작성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박지원은 장동김문의 대청인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169) 이상의 문답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05 「통감강목」(通鑑綱目)에 보인다.

170) 『주자전서』(朱子全書) 「통감강목 범례」에는 “무릇 정통은 주(周)나라, 진



여기에 의거하여 논하면, 이른바 정통의 ‘정’이란 것은 ‘사정’(邪正)의 ‘정’이 아니라 바로 ‘편정’(偏正)의 ‘정’으로, 구역이 넓으나 좁으나를 가지고 말한 것일 뿐이다. 만약 선악(善惡)의 실체가 간사한지 바른지를 가지고 따진다면, 진(秦)나라, 진(晉)나라, 수(隋)나라 따위가 어찌 그 사이에 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선한지 악한지를 막론하고, 그리고 중화인지 오랑캐인지를 막론하고, 다만 천하가 통일되었으면 곧 정통이니, 이견(異見)을 달 필요가 없다.

방손지(方遜志: 방효유)와 구경산(丘瓊山: 구준)이, 원나라에 대해서는 정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의를 처음으로 했는데, 오랑캐를 물리치는 의리에 대해서 그들이 비분강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자어류』의 뜻과 『강목』의 범례에 어긋나는 점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선악을 따지지 않고 오직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을 엄격하게 할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아마도 옳지 않을 듯하다. 오랑캐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간이 어진 군주와 의로운 임금이 있는데도 호해(胡亥)·양광(楊廣)<sup>171)</sup>과 똑같이 ‘정통’의 명칭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평가가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또 한 가지 설이 있다. 주자는 일찍이 왕통(王通)이 남북조(南北朝)의 송(宋)나라를 부지하고 위(魏)나라를 억제하는 것에 열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한 바 있다. 남북조의 송나라는 중화이고 위나라는 북적(北狄)이다. 그런데도 주자는 오히려 “하나는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으니, 굳이 어느 한 쪽을 높이고 어느 한 쪽을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sup>172)</sup> 여기서 중국과 오랑캐, 선(善)과 악(惡)을 똑같이 보아 가리는 게 없는 뜻을 볼 수 있다.<sup>173)</sup>

---

(秦)나라, 한(漢)나라, 진(晉)나라, 수(隋)나라, 당(唐)나라를 이른다”(凡正統, 謂周、秦、漢、晉、隋、唐)라고 하였다.

171) 모두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포악한 군주들이다.

172) 주희는 「왕씨속경설」(王氏續經說)에서 “至於宋、魏以來，一南一北，校功德，蓋未有以相君臣也，則其天命人心之向背，統緒繼承之偏正，亦何足論，而欲攘臂其間，奪彼予此，以自列於孔子之『春秋』哉?”라고 말한 바 있다. 朱熹, 「王氏續經說」, 『晦庵集』 권67.

173) 金昌翁, 「漫錄」, 『三淵集』 권36, 한국문집총간 166, 181~182면. “自古論正統者，紛然淆亂，至今未歸一。而折之以朱子之說，則可定其未定矣。『語類』中，或問：‘自三代以下如漢、唐，亦未純乎正統，乃變中之正者。如秦、西晉、隋，則統而不正者。如蜀、東晉，則正而不統者。’答曰：‘何必恁地論，只天下爲一，諸侯朝覲獄訟皆歸，便是得正統。’此是雅言，而參以『綱目』凡例，亦用此意。如秦、晉、隋諸

위 인용문은 「만록」에 나온 정통론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천하를 통일한 나라라면 곧 정통이 된다”라는 김창흡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김창흡이 주희의 설을 인용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통과 선악(善惡)·화이(華夷)의 관계이다. 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김창흡은 『주자어류』와 『자치통감강목』의 범례에 근거하여 “정통의 ‘정’이란 것은 ‘사정’(邪正)의 ‘정’이 아니라 바로 ‘편정’(偏正)의 ‘정’으로, 구역이 넓으냐 좁으냐를 가지고 말한 것일 뿐이고, 선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선악과 화이를 막론하고 천하가 통일되었으면 곧 정통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역이 넓으냐 좁으냐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세력의 강약을 강조한 뜻이라면, 선악과 화이를 따지는 것은 의리적 측면에서 명분을 강조한 뜻이다. 김창흡이 주장한 정통론은 의리·명분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정통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김창흡의 화이관과 일맥상통한다. 정통이 무엇인지를 밝힌 뒤에 김창흡은 다시 “선악”과 “화이”의 관점에서 정통을 정의하면 적당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우선 그는 선악의 관점에 입각하여 방효유(方孝孺)와 구준(丘濬)이 제기한 원나라가 정통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선악으로 정통을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방효유는 「석통」(釋統)에서 중국의 각 왕조를 정통(正統)과 변통(變統)으로 구분하고, 다시 천하에는 정통이 하나이고 변통이 셋이라고 했는데, 인의(仁義)로 군주의 지위에 오르고 도덕

---

國，凡混一區宇者，皆與之正統。據此論之，則所謂正統之正，非邪正之正，卽偏正之正，以區域闊狹而言耳。如以善惡之實曰邪曰正勘之，則秦、晉、隋之類，安得齒於其間乎？然則無善無惡，無華無夷，只天下爲一者，便是正統，無容異議。方遜志、丘瓊山創爲元不可與正統之論，其於攘夷之義，非不慷慨，而得無乖於『語類』旨意與『綱目』凡例乎？若曰不擇善惡而獨嚴夷夏之分，則亦恐未然。所惡乎夷者，以其無善狀也。間有賢君義辟，不得與胡亥、楊廣同得正統之名，吾未知其爲公也。抑有一說，朱子嘗以王通攘臂於宋、魏扶抑之際，有所致譏。夫宋是中華，魏是北狄，而猶曰一南一北，不足與奪。此可見夷夏善惡，一視無揀之意矣。” 인용문의 번역은 통인학사 화이론연구회 편, 『韓中日華夷論資料輯要』에 수록된 「중국을 통일했으면 정통 왕조다」, 4~5면; 김광태, 앞의 글, 43~44면 참조.

으로 다스릴 경우에 비로소 정통의 지위를 갖는 반면, 찬신(篡臣)·이적(夷狄)·적후(賊后)는 아무리 천하를 취한다고 해도 정통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sup>174)</sup> 이런 논리에서 방효유는 이적으로서의 원나라를 정통에서 제외했다.

이렇듯 방효유의 정통론은 성리학적 이념과 엄격한 화이론이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구준(丘濬) 역시 화이론적 성격이 강한 정통론을 견지했다. 그는 『세사정강』(世史正綱)에서 한·당은 화하(華夏) 순전(純全)의 시기, 삼국은 할거(割據), 남북조와 남송은 분열(分裂), 동진과 오대는 화이 혼란(混亂), 원은 이적 순전(純全)의 시기로 분류함으로써 명 이전의 치세를 화이의 대립으로 파악했다.<sup>175)</sup> 이러한 논리에서 구준은 원나라가 이적(夷狄) 순전(純全)의 시기로서 정통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석통」과 『세사정강』의 관련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원나라가 오랑캐라고 생각한 까닭은 원나라가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76)</sup> 즉, 선악의 관점에서 화이를 구분하여 정통을 정한 것이다. 김창흡은 선악의 관점을 따지면 오랑캐 나라 가운데 어진 임금이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경우에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오랑캐라고 규정하는 것이

174) 方孝孺, 「釋統上」, 『遜志齋集』 권2, 四庫叢刊景明本. “嘗試論之曰: ‘天下有正統一, 變統三. 三代正統也. 如漢如唐如宋, 雖不敢幾乎三代, 然其主皆有恤民之心, 則亦聖人之徒也. 附之以正統, 亦孔子與齊桓仁管仲之意歟! 奚謂變統? 取之不以正, 如晉宋齊梁之君, 使全有天下, 亦不可爲正矣. 守之不以仁義, 戕虐乎生民, 如秦與隋, 使傳數百年, 亦不可爲正矣. 夷狄而僭中國, 女后而據天位, 治如符堅, 才如武氏, 亦不可繼統矣.’”

175) 丘濬, 『元世史』, 『世史正綱』 권31,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 第6冊, 濟南: 齊魯書社, 1996, 600면. “有華夏純全之世, 漢唐是也. 有華夏割據之世, 三國是也. 有華夷分裂之世, 南北朝及宋南渡是也. 有華夷混亂之世, 東晉及五代是也. 若夫胡元之入主中國, 則又爲夷狄純全之世焉. 噫! 世道至此, 壞亂極矣.”

176) 丘濬, 『明世史』, 『世史正綱』 권32,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 第6冊, 濟南: 齊魯書社, 1996, 631면. “自有天地以來, 中國未嘗一日而無統也. 雖五胡亂華, 而晉祚猶存; 遼金僭號, 而宋系不斷. 未有中國之統盡絕, 而皆夷狄之歸, 如元之世者也. 三綱既淪, 九法亦斁, 天地於是乎易位, 日月於是乎晦冥, 陰濁用事, 遲遲至於九十三年之久. 中國之人, 漸染其俗, 日與之化, 身其氏名, 口其言語, 家其倫類, 忘其身之爲華, 十室而八九矣. 不有聖君者出, 乘天心之所厭, 驅其類而蕩滌之, 中國尚得爲中國乎哉?”

공정(公正)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방효유와 구준의 명분적 화이론 논리가 적당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어 김창흡은 화이의 관점에서 남북조의 송(宋)나라와 위(魏)나라에 대한 주희의 설을 거론하면서 화이의 구분으로 정통을 규정함도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나라는 중화이고 위나라는 북적(北狄)이지만, 주희는 이에 대해 “하나는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으니, 굳이 어느 한쪽을 높이고 어느 한쪽을 폄하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주희가 화이의 구분 없이 그들을 똑같이 보았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김창흡은 선악과 화이의 관점에서 정통을 정의하지 말고 선악과 화이를 막론하고 천하를 통일하면 정통이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방효유와 구준, 그리고 주희의 설을 인용하면서 선악과 화이의 구분 없이 천하를 통일하는 나라가 정통이 됨을 논증하였다. 김창흡의 정통론에서 강조한 것은 의리나 명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 즉 구역, 영토의 크기, 세력의 성쇠이다. 다시 말해 중국을 통일하는 자가 곧 정통이 된다는 것이다.

김창흡의 정통론은 ‘중도’와 ‘변통’의 시각에서 의리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는 김창흡의 화이관과 같은 논리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보면 김창흡은 당시 중국을 이미 완전히 통일한 청나라를 중국의 주인으로 생각하여 정통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까닭은 당시의 국제적 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희제 시기에 들어와서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이 크게 완화되었을뿐더러 청은 1681년 삼변(三藩)의 반란을 평정하고 티베트, 대만, 중아시아까지 정복하여 강력한 제국질서를 구축했다. 이러한 청 질서 아래 이전에 견지해왔던 배청적(排淸的) 중화의식과 대명의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기 어렵게 되었다.<sup>177)</sup> 따라서 김창흡은 현실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유연한 화이론과 정통론을 새로 제기하였다. 이는 대명의리, 조선중화주의, 존왕양이를 견지하는

---

177) 계승범, 「조선후기 중화론의 이면과 그 유산-명·청 관련 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9집, 한국사학사학회, 2009, 52~53면;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서울: 푸른역사, 2009, 292~294면 참조.

송시열 계열의 노력 세력과 사뭇 다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가면서 같은 낙론에 속해 있던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 1734~1799), 홍직필(洪直弼, 1778) 등은 김창흡의 정통론을 비판하였다.<sup>179)</sup> 특히 홍직필은 1832년 1월에 이자선(李子善)에게 답한 편지에서 김창흡이 언급한 정통론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를 전반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화이 사이의 선악과 인종적 차이를 명확히 따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나아가 왕 노릇하면 중국의 주인이 되어 정통이 된다<sup>180)</sup>는 김창흡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통론에 대해서 김창흡이 보여준 유연한 현실주의적 태도는 같은 낙론 내에서 잘 계승되지 못했고, 낙론 계열 학인들의 정통론은 점차 경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 김창흡의 화이론과 정통론을 분석하였다. 김창흡의 화이론과 정통론은 모두 ‘중도’와 ‘변통’의 시각에서 의리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기 때문에 유연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유연한 화이론과 정통론을 가지고 있는 김창흡은 청나라를 실제로 대할 때 과연 우호적이었는가?

## (2) 백두산 정계비 사건에 대한 주시

178) 홍직필은 김창흡 집안과 밀접한 혼척관계가 있는 박윤원의 문인이다. 박윤원의 부인은 안동김씨 김상용의 후손이다. 박윤원의 모친은 김창흡의 외손녀이다. 따라서 박윤원은 김창흡의 외증손이 된다. 이처럼 후대에도 반남박씨는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79) 朴胤源, 「貞智錄」, 『近齋集』 권24, 한국문집총간 250, 483면; 洪直弼, 「答李在慶 壬辰元月」 『梅山集』 권23, 한국문집총간 295, 554면 참조.

180) 洪直弼, 「答李在慶 壬辰元月」 『梅山集』 권23, 한국문집총간 295, 554면. “華夷之分, 若乾坤定而貴賤位. 故雖以元、清之入主中國, 混一區宇者, 不可與正統, 律以邪正則邪而已, 律以偏正則偏而已, 下正字不得. 盖其處於人與禽獸之間, 不可擬倫於秦、晉、隋、唐也. 雖強如苻堅, 盛如德光, 不可與之以中國之禮. 方遜志之論, 無容改評. 遜志、瓊山俱懲蒙古之變, 爲天下生民慮, 萬世不可易者也. 秉史筆者當處之以無統某年之下, 傍註分書. 凡所當書者, 皆不得與中國之正統者比. 是爲得正, 亦使夷狄知春秋之義, 正統之嚴, 消弭其僥倖覬覦之心, 方可謂憂患世道, 詎可以天下爲一, 而許以正統乎? 晦翁所云只天下爲一, 諸侯朝覲獄訟皆歸, 便是正統者, 卽以秦、晉、隋、唐而云爾, 非指夷狄也. 秦、晉、隋、唐雖非邪正之正, 猶爲偏正之正. 至若元、清兩虜, 盜竊神州, 據所非據, 薙天下之髮, 左天下之衽, 驅堯舜三代之民於腥羶之中, 天地之所不容, 神人之所共誅也. 豈容以進於中國而中國之乎? 前儒曰率天下而歸夷狄者許衡也, 率萬世而歸夷狄者尊衡者也. 罪許衡失身, 尙云乃爾, 矧正統乎? 是爲淵翁正見之累, 恐不可從.”

김창흡은 현실적인 시각에서 유연한 화이론과 정통론을 주장하여 청나라를 정통으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그가 청나라를 무조건 받아들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창흡은 현실적 판단 아래 조선의 국경을 위협하는 청나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정계에서 활동한 혼척 박권(朴權), 권성(權愷),<sup>181)</sup> 백씨 김창집을 통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 숙종 대 대청관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백두산정계비의 수립은 화이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sup>182)</sup> 1710년 11월 무렵 김창흡은 당시 평안감사로 재직중인 권성에게 편지를 보내 청나라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본 적이 있다.<sup>183)</sup>

풍문(風聞)으로 듣건대 강건너 기병들이 잠깐 제멋대로 날뛰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조짐입니까? 설령 우려할 만하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절로 『삼략』(三略)이 있어 대응할 수 있으니, 수항루(受降樓)에서 술잔을 띄워 전달하며 술을 마시면서 날을 보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sup>184)</sup>

181) 그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경화 세족” 부분 참조.

182) 백두산 정계비와 화이질서에 관한 연구는 박선영, 「백두산정계비와 화이질서」, 『중국학보』 56집, 한국중국학회, 2007, 369~393면 참조.

183) 편지의 작성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편지 내용이 조·청의 변경(邊境) 상황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수신자가 권성이라는 점을 보면 1710년 11월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권성의 관력을 보면, 관서(關西)나 북관에서 맡은 관직이 평안도 관찰사인데 재임 기간은 1710년 4월 29일~11월 28일이었고, 조청 변경 문제가 벌어진 시기는 1710년 11월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발신 시기는 권성이 평안감사로 재임 중이었던 1710년 11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李緯, 「右參贊權公神道碑」, 『陶菴集』 권30, 한국문집총간 195, 106~107면; 『숙종실록』 숙종 36년 4월 29일 갑자 기사, 숙종 36년 11월 28일 무오 기사 참조. 1707~1708년 사이에 권성이 강계부사(江界府使)가 된 시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조·청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큰 사건이 없었다.

184) 金昌翁, 「與權判書愷」, 『三淵集』 권19, 한국문집총간 165, 387면. “因風似聞, 隔河獵騎, 暫爾跳跟, 是何形兆耶? 設若可虞, 吾人胸中, 自有一部『三略』, 可以應之. 受降樓上, 亦何妨飲傳度日也?”

위 인용문은 권성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에 언급된 강은 토문강이다. 이 편지는 짧지만,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에 대한 김창흡의 근심을 보여준다. 김창흡은 벽계에 있으면서도 청나라 기병이 국경 주변에서 크게 활동한 소식을 듣자 바로 권성에게 편지를 보내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이를 통해 늘 나라의 안위를 근심하고 청나라의 동향을 실시간 주시하고 있던 김창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전쟁의 조짐에 예민히 반응하였다. 그는 만약 청나라가 조선을 재침하더라도, 조선 측이 이미 익숙한 황석공(黃石公)의 병서 『삼략』(三略)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는 김창흡 본인을 포함한 조선 지배층이 전쟁에 대응할 계획을 상시 준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김창흡의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냈던 사건은 무엇인가?

편지에 언급된 것처럼 청나라 기병이 토문강 건너 체멧대로 소란을 부린 일이 발생한 이유는 1710년에 발생한 위원(渭原) 월경(越境) 사건 때문이다. 이만건(李萬建), 이만지(李萬枝)를 비롯한 9명의 위원 백성이 범월(犯越)하여 청나라인 5명을 박살(搏殺)하고 그들을 약탈하였다. 이에 청나라에서 범인 인도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순라장(巡邏將) 고여강(高汝岡)을 납치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이 아마 김창흡이 편지에서 말한 청나라 기병들의 소란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청나라가 다시 전쟁을 일으킬까봐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김창흡의 이런 위기감은 1710년 겨울 김창집에게 보내준 시에도 드러난다.

이 시에는 “북로가 채찍 던질까 낭묘의 근심과 연관되니 / 언제 동산에 와서 바둑을 구경하겠는가”<sup>185)</sup>라는 구절이 있다. “북로”(北虜)는 청나라를 가리키고 “투편”(投鞭)은 채찍을 강에 던져 메운다는 말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다는 뜻이다. “묘려”(廟慮)는 낭묘(廊廟)의 근심이라는 뜻으로 우의정인 백씨 김창집의 근심을 가리킨다. 김창집의 근심은 실은 김창흡의 근심이기도 하였다. 이 시를 통해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할까 걱정하는 김창흡의 마음을 알 수 있다.

185) 金昌翁, 「又疊前韻」, 『三淵集』 권10, 한국문집총간 165, 217. “北虜投鞭關廟慮, 東山何日看碁來以上二首屬伯氏.”

위원 월경 사건에 대해 11월 9일 좌의정 서종태, 우의정 김창집, 병조 판서 민진후 등이 숙종에게 아뢰었다. 이에 숙종은 청나라 측으로부터 조사 사절이 오기 전에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을 내렸다. 11월 21일에 평안 감사 권성이 이만지, 이만성 두 명이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12월 23일에 도망죄인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1711년 2월 4일에 안찰어사 정식(鄭栻, 1664~1719)이 복명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모두 승복하여 사건을 마무리짓고, 뇌자관을 청나라로 보내 경과를 보고하기로 했다.<sup>186)</sup> 그런데 이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청의 조·청 국경에 대해 사계(査界) 시도를 하던 강희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백두산과 압록강, 토문강 일대를 명백히 조사하여 경계를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87)</sup> 조선은 “영고탑 회귀설”(寧古塔回歸說)로 대표되는 대청의식에서 그동안 청나라 측의 사계 요청을 무산시켰지만,<sup>188)</sup> 위원 월경 사건으로 사계 요청을 공식으로 받았다. 따라서 위원 월경 사건은 백두산정계비 설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청나라는 1711년 6월 오라(烏喇) 총관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백두산 답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1712년 2월 24일에 목극등을 청차사(淸差使)로 임명하여 봄날에 다시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sup>189)</sup> 김창흡은 이 일에 대해 1712년 봄에 아들 김양겸, 백씨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바 있다.<sup>190)</sup>

가)

186) 위원 월경 사건에 관한 정리는 시노다 지사쿠 지음, 신영길 옮김,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서울: 지선당, 2005, 106~108면; 『숙종 실록』 숙종 36년 11월 9일 기해, 숙종 36년 11월 21일 신해 기사 참조.

187) 청나라의 사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화자, 「17~18세기 월경 문제를 둘러싼 조·청 교섭」,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06~127면 참조.

188) “영고탑 회귀설”과 대청인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성, 앞의 책, 195~205면 참조.

189) 이원명, 「백두산정계비와 접반사 박권에 관한 일고찰」, 『백산학보』 80집, 백산학회, 2008, 411면 참조.

190) 두 편지에 나온 북쪽 소식, 남쪽과 북쪽이 모두 근심이 있다는 말, 서울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을 보면 모두 1712년 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사일은 4월에 지낼 부친 김수항의 기일일 가능성이 높다.



듣건대 오랑캐가 백두산을 엿본다고 하니 풍색(風色)이 매우 나쁘다. 그들에게 크게 무너지는 형세가 있으면 우리 영토로 달아나 올 것으로 짐작된다. 남쪽과 북쪽이 모두 근심스러우니, 모든 일에 끝내 근심 없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

변이(變異)가 자고로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이번에 소양강(昭陽江)의 흐름이 끊기고<sup>191)</sup> 사문(社門)이 무너지는 것은 특히 매우 가까이 닥칠 것이니, 놀라 탄식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sup>192)</sup>

나)

저는 처음에는 기사(忌祀) 일로 서울에 이르려고 했는데 북쪽의 소식(청나라의 경보)을 들은 뒤부터 마음에 동요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모두 근심스러우니, 필시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sup>193)</sup>

가)는 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이고, 나)는 백씨 김창집에게 보낸 편지다. 두 편지에서 조선의 외부적 위협에 대한 김창흡의 우려가 잘 드러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편지에서 모두 언급한 “남쪽과 북쪽이 모두 근심이 있다”라는 대목이다. 1712년 봄에 조선은 외부적으로 무슨 위협이 있었는가?

북쪽에 대한 근심은 백두산 문제를 가리킨다. 이는 “오랑캐가 백두산을 엿보고 있어 풍색이 매우 나쁘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1) 소양강은 열수의 북쪽 발원지이다. 원래 열수는 한(漢)나라 삼한(三韓)의 경계였다. 열수 이북은 한나라에 붙였고 그 남쪽은 삼한이 되었다. 열수의 물의 근원은 남북 두 가닥이 있는데, 북쪽 물 근원을 경계로 하고 다시 소양강(昭陽江)을 경계로 했다. 그러므로 소양강의 물이 끊긴다는 것은 조선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丁若鏞, 「魚鱗圖說」, 『經世遺表』 권9,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5, 171면 참조.

192) 金昌翁, 「寄養謙壬辰」, 『三淵集拾遺』 권14, 한국문집총간 166, 490면. “聞胡窺白山, 風色甚惡, 可料其中有大潰之勢, 而奔迸乎我界也. 南北皆憂, 孰能聖知其終無虞乎? (….) 變異昔非不足, 而昭江斷流, 社門傾頽, 尤其切近之甚者. 驚吁何極?”

193)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58면. “弟始擬趁忌祀戾盜矣. 自聞北耗, 心有所動. 盖南北皆憂, 孰能聖知其必無事乎?”

그렇다면 남쪽에 대한 근심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는 아마도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일방적인 조선과의 빙례(聘禮) 개혁으로 일어난 커다란 외교 분쟁과 일본의 야심에 대한 걱정을 가리킬 것이다. 6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1711년 신묘통신사행을 파견했다. 가기 전에는 빙례 개혁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때 통신사행에서는 빙례 개혁으로 인해 일본 측의 국왕 복호(國王復號) 문제, 국휘(國諱)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전례 없이 국서 교환도 귀국길에 쓰시마에서 이루어졌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일본이 조선과 대등해지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귀국 후인 1712년 3월 9일 정사 조태억(趙泰億, 1675~1728), 부사 임수간(任守幹, 1665~1721), 종사관 이방언(李邦彦) 등 삼사가 구금(拘禁)되기도 했다.<sup>194)</sup>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빙례 개혁은 일본이 다시 조선을 노릴 조짐이었다. 이것이 바로 김창흡이 이야기한 남우(南憂)의 배경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김창흡에게 보낸 같은 편지의 뒷부분에서 김창흡은 일본에 대한 근심과 대책도 말했다. 다만 일본에 대한 위기감과 우려는 김창흡이 감지했다기보다 김창흡의 벗이자 당시 간성 군수(杆城郡守)였던 권익룡(權益隆)이 먼저 깨달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김창흡도 벗 권익룡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대비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sup>195)</sup>

194) 아라이 하쿠세키의 빙례 개혁과 조선 측의 대응에 대한 정리는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과주: 경인문화사, 2007, 379~426면;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서울: 지성의 샘, 1995, 252~261면; 정응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조선통신사 의례 개정에 관하여」, 『일본문화학보』 2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5, 305~320면; 『숙종실록』 숙종 38년 3월 9일 임진 기사 참조.

195) 金昌翁, 「上伯氏」, 『三淵集拾遺』 권13, 한국문집총간 166, 458면. “頃見杆城, 以南虞爲說. 嶺東九邑, 與倭只隔一帶水宗, 勢甚單薄. 而一朝捨船踰嶺, 其長驅造都之勢, 迅急於東萊. 殆減半程, 誠可寒心, 而朝家太不以爲事. 謂宜於關陘等地, 設爲鎮堡. 多少規畫之道, 渠亦有胸中草本, 而無由上徹廟堂. 欲令弟因往侍時詮稟. 而今未果往, 故聊爲上聞爾.”; 金昌翁, 「祭權大叔文」, 『三淵集』 권32, 한국문집총간 166, 109면. “蓋亦憂時, 臨海歎息. 眼前夷險, 水宗改昔. 鯨鉤竹梯, 此岸之著. 帆風一日, 赤關靡隔. 萊州緬矣, 彌水爲捷. 合有關防, 因其天設. 延袤九郡, 犬牙列戟. 勢禁形格, 以防豕突. 願擔斯役, 手鍤背甓. 苟用

이상 김창흡이 언급한 남쪽 근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김창흡은 일본에 대해 근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하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일은 백두산 문제였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조선 재침과 그로 인한 전쟁에 대한 우려는 김창흡이 아들 김양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그들에게 크게 무너지는 형세가 있으면 우리 영토로 달아나 올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동안 조선 지배층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영고탑 회귀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오랑캐에게는 백년의 운세가 없다’는 설을 믿고 있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청나라가 장차 북경에서 물러나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자아냈다. 그들이 예상한 청나라의 최종 목적지는 영고탑이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조선의 서북 지역과 만주 일대의 지리에 대한 판단은 중요하다.<sup>196)</sup>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김창흡은 백두산을 옛본 청나라의 행동과 관련하여 “영고탑 회귀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청나라가 붕괴하면 자신들의 발상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선 북쪽을 경유하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말에는 전쟁이 다시 발생하여 조선이 침략당하는 것에 대한 김창흡의 걱정이 담겨 있다. 편지의 뒷부분에 나온 소양강(昭陽江)의 흐름이 끊긴다거나 사문(社門)이 무너진다는 말에도 조선이 다시 멸망의 위협에 빠져 있다는 근심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 조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11년의 위원 월경 사건으로 청나라 측에서 조선에 공식적으로 백두산 사계 요청을 했고, 다음해 1712년 2월 24일 목극등을 파견해 사계 일정에 협조해달라고 통보했다. “목극등 등이 의주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되, 전진하지 못한다면 곧장 육로로 토문강으로 가서 우리의 지방을 답사하기로 하겠다”라는 통보 내용에서 백두산을 꼭 측량하겠다는 청나라 측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 우의정 조상우를 비롯한 제신들이 다시 거절

---

我者, 身非所惜.”

196) 배우성, 앞의 책, 198~199면 참조.

하자고 주장했으나 숙종은 거절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여겨 부득이 받아들이기로 했다.<sup>197)</sup> 3월에 박권이 접반사(接伴使)에 임명되어 목극등을 접대하여 국경 획정의 업무를 수행했다.<sup>198)</sup> 결국 위원 월경 사건이 국경 사계의 단초를 제공하여, 목극등에 의해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다”(西爲鴨綠 東爲土門)라는 내용의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sup>199)</sup> 이로써 백두산정계비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1711년 11월, 1712년 봄에 보낸 이 세 편지에서 김창흡은 백두산정계비 사건 발생 직전과 발생 초기의 상황을 기술했는데, 후속 동향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는 없다. 아마도 박권을 접반사로 파견한 뒤, 사건의 결말을 이미 예측할 수 있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듯하다. 물론 김창흡은 백씨 김창집, 박권, 벗 홍세태 등을 통해 후속 정보를 계속해서 얻었을 것이다. 이처럼 김창흡은 조정 관계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두산과 청나라의 행동에 대해 줄곧 관심을 쏟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백두산에 대한 김창흡의 관심이 그때 와서야 생겨난 것은 아니다. 김창흡은 오래 전부터 이미 백두산을 주시하고 있었다.

금과 비단을 60년 동안 바쳤는데, 근심은 백두산에 있네. 국경 넘어 지형을 두루 그리고, 강 건너와 사냥하고 돌아갔다네. 나라 안위에 틀림없이 일이 생길 테니, 원근으로 마땅히 관문을 다스려야지. 천험(天險)이 없는 것 아닌데,	金繒六十載, 憂在白頭山. 越界圖形遍, 凌河獵騎還. 安危定有事, 遠近合修關. 不是無天險,
--	--

197) 이원명, 앞의 글, 411~412면; 『숙종실록』 숙종 38년 2월 27일 경진 기사 참조.

198) 이에 대해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박권, 『北征日記』, 『백산학보』 16집, 백산학회, 1974, 247~262면; 홍세태, 「白頭山記」, 『柳下集』 권9, 한국문집총간 167, 477~481면.

199) 이인걸, 「백두산정계비 설치의 숨겨진 실상」, 『백산학보』 105집, 백산학회, 2016, 123면 참조.

위 인용문은 1699년 김창흡이 강화도에 있었을 무렵 지은 「또 읍다」(又賦) 연작시의 마지막 수이다. 그는 수련에서 조선의 근심이 백두산에 있다고 바로 지적하였다. 이어서 함련에서 근심의 이유를 밝혔다. 즉, 청나라 측에서 사계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조선의 국경을 넘어 지리를 탐사하고 지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특히 강희제는 백두산을 사계할 의도를 오래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다. 1679년의 사계 시도, 1692년의 사계 요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201)</sup> 그 결과 조선의 안위는 위협을 받았으며 청나라가 조선을 다시 침략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조선 측에서는 관문을 다스려 대비를 잘해야 했지만, 실상은 그저 등한시하고 있었다. 김창흡이 미련에서 서술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김창흡은 청나라에서 조선을 다시 침략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오래전부터 백두산의 전략적인 위치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위원 월경 사건이 발생한 뒤 청나라 측에서 범인 인도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순라장을 납치하기까지 하였을 때 곧바로 평안감사 권성에게 편지를 보내 상황을 물어보았다. 1712년 청나라에서 강력한 백두산 사계 의지를 보였을 때 김창흡은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조선을 침략할까 근심하였다. 이때 청나라는 김창흡에게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오락가락일 뿐이었다. 이는 조선 선비로서 김창흡이 내린 현실적 판단이었다.

이상으로 조선 내외에 대한 김창흡의 주장을 두루 살펴보면 김창흡의 경제적 면모를 고찰하였다. 조선 국가 전체에서 출발하여 김창흡은 과거제도, 소결, 군역, 토지 개량, 농업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창흡은 시야를 넓혀서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조청 관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제 김창흡은 한 가문이나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시야에 넣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파적 정체성을 초월한 것은 아니다. 이는 소결제도를 비판한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또 그의 화이론

200) 金昌翁, 「又賦」, 『三淵集』 권7, 한국문집총간 165, 137면.

201) 이화자, 앞의 글, 2003, 106~117면 참조.

과 정통론은 송시열의 북벌론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지만, 그가 노론의 정파적 정체성을 초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시열과 달리 김창흡은 청나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한 서울을 거점으로 하여 조청관계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노론 지배층 내부의 유연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상적으로 그가 송시열 학파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의 정통성을 유연한 방향으로 재정위하려고 한 것에 대응된다. 마찬가지로 그의 경제론도 정파적 이익의 상위에 놓인 국가의 차원을 사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정치사적 맥락 속에 놓고 보면 어디까지나 자신이 속한 노론이 반대 정파와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승리하여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진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7. 결론

이상으로 본고는 ‘정치사’를 김창흡 산문 연구의 시좌로 도입하여 문·사·철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면서 숙종 대 정치사적 맥락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고찰하였다. 본고가 ‘정치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김창흡을 오로지 ‘외재적 맥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창흡이라는 한 인간의 실존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이다. 즉 정치사적 탐색이 곧 인간학적 탐색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치사적 맥락’을 네 가지 층위로 나누면서 김창흡의 산문을 탐구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삼연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를 했다. 먼저 원집의 간행 경위를 살펴보았다. 『삼연집』 간행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1730년 첫 번째 간행은 강화유수인 문인 유척기가 주도해서 진행하다가 중지했고, 1732년 두 번째 간행은 김치겸이 주도해서 완수했다. 원집의 정리와 간행은 당시의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이어서 원집의 산삭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김창흡의 산문관을 잘 드러내는 「중씨 농암선생 문집 서문」에 초점을 두어 산삭 문제를 검토했는데, 이 글이 산삭된 이유는 김창흡이 당송팔대가인 한유와 구양수의 글을 비판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습유』의 계통 문제와 수록 작품의 진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지금 알려져 있는 『습유』 이본은 총 네 가지인데, 장서각본은 정고본 이전 단계의 필사본인 듯하고, 김귀년본은 1806년 이전에 김달순에 의해 필사된 정고본이며, 연대본과 국중본은 같은 모본을 필사한 이본으로 필사 연도는 알 수 없으나 편차와 내용이 김귀년본과 동일하다. 정고본이 나온 뒤에 장동김문과 밀접한 혼적관계가 있는 경화 세족 가문 사이에 전해지고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습유』는 김창흡의 글이 아닌 작품을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주에 인적사항이나 창작 연도가 잘못 표기된 경우가 종종 보인다.

다음으로 ‘정치사적 맥락’을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였다.

첫째, 김창흡의 삶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사적 배경’ 내지 ‘당쟁사적 배경’이라는 층위에서 김창흡의 생애와 인적 관계망의 형성을 정치적 행보와 연관지어 고찰했다. 먼저 김창흡의 은거지와 학문적 흐름, 숙종 대의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김창흡의 생애를 모색기, 칩거기, 설악산 은거기, 곡운 노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계급적 성격에 유의하여 김창흡의 교유 대상을 경화 세족, 지방 문인, 중서층, 승려로 나누어 고찰했다. 김창흡이 맺었던 인적 네트워크 가운데 경화 세족과 지방 문인과의 교유는 김창흡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삼연의 정치적 행보를 갑술환국 이후부터 설악산 은거기까지와 은거기 이후부터 신축환국까지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1701년의 신사옥사, 1703년의 박세당 사문시비 사건, 1706년의 임부·이잠 옥사, 1708년의 이동언 옥사, 1710년의 경인환국과 최석정의 실각, 1716년의 군사부일체론과 병신처분 등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김창흡은 항상 당시의 정국을 주시하면서 예리한 정치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장동김문과 김창흡에게 큰 여파를 끼친 구체적인 ‘정치사적 사건’ 내지 ‘당쟁사적 사건’이라는 층위에서 가문 수호자로서의 김창흡의 모습을 고찰했다. 구체적으로 원한이라는 감정의 차원과 실존적 체험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김창흡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동김문을 하나의 생사 공동체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가문 구성원 내부의 분열 조짐을 감지한 뒤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문 내부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가문을 지키려고 했다. 김창흡의 이러한 인식은 숙종 대의 복잡한 당쟁으로 인해 더욱 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창흡이 이토록 강렬하게 가문적 결속력을 강조한 내적 동기는 바로 두 정치적 사건으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남인에 대한 원함과 부친을 죽인 공범인 소론에 대한 원망이라는 강렬한 원천적 감정이다. 그런데 김창흡은 부친 김수항의 죽음에 대해 장동김문이라는 한 가문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노론이라는 한 당파의 차원에서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갑술환국 뒤 노론이 어느 정도 다시 권력을 잡게 되자 부친을 위해 복수하



는 마음을 다졌다. 김창흡은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지와 적의 구별을 뚜렷이 함으로써 반대 당파를 대하는 자신의 강경한 비타협적 입장과 반대 정파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격성을 드러냈다.

원한이라는 강력한 감정은 반대 정파와의 대립 속에서 동지와 적을 구분하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보편화하고 확장하는 길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 김창흡은 원한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편적·성찰적 차원의 지평을 획득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 길은 바로 개방적인 정통주의를 모색한 것이다. 본고는 정치사적 맥락의 세 번째 층위인 정치사와 당쟁사의 기저부를 형성하는 ‘사상적 지향’이라는 층위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가 개방적인 정통주의를 모색한 양상을 고찰하였다.

김창흡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정통 사상의 중심에 놓았던 노론 엘리트이다. 김창흡은 주자학과 다른 사상 사이에 선명한 우열 관계를 두어 정통과 정통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주의적 틀 내에서 사상적으로 경직성에 빠지지 않고 불교와 노장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창흡은 주자학의 정통성을 유연한 방향으로 재정위하려고 했는데, 이는 노론의 헤게모니 전략을 도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당시 권상하를 비롯한 호중 노론은 송시열의 권위를 추송하면서 송시열의 학문적 주장을 자기의 학문적 신조처럼 믿었고, 그 과정에서 주자학을 궁구하는 진지하고 진취적인 학문 태도를 상실하였다. 김창흡은 이렇게 경직된 학문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주자학을 궁구하는 참된 태도가 무엇인지, 의리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사유의 측면에서 유불의 접점을 찾았던 김창흡은 차원을 넓혀 유가의 경세의식과 대심중생의 불교 구세의식의 접점을 찾음으로써 노론 엘리트로서의 치세 태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김창흡에게 주자학은 시비분별의 절대적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인바, 정통주의 특유의 반대 학파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공격적 태도는 정치적

으로 적과 동지를 준엄하게 구별하는 논리와 유사성을 갖는다. 이는 ‘원한’이라는 감정이 사상의 차원에서 형태 변환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한’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와는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불교와 노장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더 유연해진 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특히 불교를 단지 개인적인 위안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심중생’에 대한 구세의식이라는, 유교적 경세의식과 불교의 접점에 주목했다. 이런 구세의식과 경세의식은 김창흡이 원한이라는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주체로서 스스로를 보편화한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창흡의 사상적 모색은 정통주의적 틀 내에서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배 집단이 ‘자기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통치성을 더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창흡의 사상적 모색은 김창흡 한 개인의 실존적 모색인 동시에 노론 지배 엘리트의 자기 조정 운동이라는 의미 또한 갖는다.

넷째, 당대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된 ‘경제적 지향’이라는 층위에서 조선 내외에 대한 김창흡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김창흡은 조선 전체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과거제도, 소결, 균역, 토지 개량, 농업 등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거 시험에 대한 노론 내부의 변질된 태도를 지적하고, 향촌 사족의 경험에 의거하여 표학을 비롯한 과거제도 문제를 비판하였으며, 당파간의 헤게모니 투쟁 차원에서 소결제도를 비판하였다. 이는 모두 ‘사’(士)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민생의 측면에서는 애민사상을 펼쳐서, 백씨 김창집에게 백성을 위해 당파적 차원을 넘어 다른 정파와 함께 양역변통 실시 여부를 도모하자고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토지 개량을 주장하는 노론의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민생을 둘러싼 조선 사회현실의 폐단을 진단하기도 하고 백성의 삶과 밀접한 농업을 중시하고 농사 경작법, 송엽요기법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창흡은 시야를 넓혀서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조청 관계에 대해 지대

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창흡은 ‘중도’와 ‘변통’의 시각에서 화이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김창흡에 의하면 의리를 무의미하게 지키는 것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청나라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리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김창흡은 유연한 화이관을 주장했다. 화이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창흡의 정통론도 마찬가지다. 김창흡은 선악이나 화이의 관점에서 정통을 정의하지 말고 천하를 통일하면 곧 정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창흡이 정통론에서 강조한 것은 의리, 명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 곧 영토의 크기와 세력의 성쇠였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보면 삼연이 당시에 중원을 이미 통일한 청나라를 중국의 주인으로 생각하여 정통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명의리와 조선중화주의를 견지하는 송시열 계열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런데 김창흡은 유연한 화이론과 정통론을 주장하여 청나라를 정통으로 생각했지만, 청나라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김창흡은 청나라에서 조선을 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오래전부터 백두산의 전략적인 위치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위원 월경 사건이 발생한 뒤 청나라 측에서 범인 인도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순라장을 납치하기까지 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평안감사 권성에게 편지를 보내 상황을 물어보았다. 1712년 청나라에서 강력한 백두산 사계 의지를 보였을 때에도 김창흡은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조선을 침략할까 걱정하였다. 이때의 청나라는 김창흡에게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오랑캐일 뿐이다. 이는 조선 선비로서 내린 현실적 판단이었다.

이제 김창흡은 한 가문의 이익, 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을 시야에 넣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파적 정체성을 초월한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화이론과 정통론은 송시열의 북벌론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지만, 그가 노론의 정파적 정체성을 초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시열과 달리 김창흡은 청나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한 서울을 거점으로 하여 조청 관계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노론 지배층 내부의 유연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상적으로 그가 송시열 학파를 비판하면

서 성리학의 정통성을 유연한 방향으로 재정위하려고 한 것에 대응된다. 마찬가지로 그의 경세론도 정파적 이익의 상위에 놓인 국가 차원을 사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정치사적 맥락 속에 놓고 보면 어디까지나 자신이 속한 노론이 반대 정파와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승리하여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진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치사적 맥락’에서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탐색한 결과, ‘원한’이라는 감정이 김창흡의 정치적 행보의 출발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의 산문 세계는 이 원초적 감정이 상황에 따라 형태 변환을 하면서 일관되게 유지되려는 구심축과, 그와 반대로 ‘원한’이라는 감정에 대해 거리를 두고 그에 얽매이지 않는 차원으로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원심축으로 직조되어 있다. 원심축에 의해 구심축의 경직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여전히 원심축이 더 강하게 작동함으로써 결국 ‘개방적 정통주의’ 내지 ‘유연화 전략을 구사하는 노론 지배층’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김창흡의 모색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원한’에서 출발하여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인간의 자기 모색인 동시에,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는 노론 지배층이 경직화되지 않고 자기 조정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더 유연하게 공고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헤게모니 전략의 모색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실존적 모색이 노론의 정파적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에서도 김창흡 산문의 ‘정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정치사적 맥락’을 축으로 하여 김창흡의 산문 세계를 입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어 온 김창흡 문학의 정치성과 김창흡의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복원하고자 했다. 이는 본고에서 처음 시도한 작업으로서, 그간 시 연구에 집중되었던 김창흡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본고는 문학 기반의 문사철 통합적 연구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이제 본고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

다.

첫째, 김창흡 산문의 미학적 가치와 예술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본고는 산문 작품을 분석하면서 김창흡 산문의 정치성을 부각하는데 치우치고 작품에 대한 수사학적 고려가 부족한 면이 있다. 둘째, 본고는 김창흡이라는 개인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의 산문의 의의를 동시대 다른 당파 인물과의 비교 속에서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특히 김창흡과 교유관계가 있었던 최석정 등 소론계 문인들과 김창흡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에서 김창흡 산문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유념하면서 앞으로 관련 연구를 심화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金昌翁, 『三淵集』 원집 및 습유, 한국문집총간 165~167.

\_\_\_\_\_, 『三淵集拾遺』,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청구기호: K4^6110).

\_\_\_\_\_, 『三淵集拾遺』,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46-가528).

\_\_\_\_\_, 『三淵集拾遺』,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청구기호: 고서(I) 811.98 김창흡 삼-필 -1~14).

\_\_\_\_\_, 『三淵集』 권1~36,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89 5.1-82/ A642).

權相一, 『淸臺集』, 한국문집총간 속 61.

權尙夏, 『寒水齋集』, 한국문집총간 150.

金構, 『觀復齋遺稿』, 한국문집총간 속 49.

金器夏, 『覺齋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46-가1798).

金令行, 『弼雲稿』, 한국문집총간 속 58.

金邁淳, 『臺山集』, 한국문집총간 294.

金尙憲,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77.

金聖甲, 『采眞子遺稿』,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奎5805).

金世均 편, 『蘭谷先生年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奎7745).

金壽增, 『谷雲集』, 한국문집총간 125.

金壽恒, 『文谷集』, 한국문집총간 133.

金壽興, 『退憂堂集』, 한국문집총간 127.

金純行, 『稔翁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2480.

金時傑, 『蘭谷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승계古3648-10-243).

- 金時保, 『茅洲集』, 한국문집총간 속 52.
- 金信謙, 『檜巢集』, 한국문집총간 속 72.
- 金彦謙, 『述耕齋遺稿』,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3428-455).
- 金字杭, 『甲峰遺稿』, 한국문집총간 158.
- 金元行, 『溪湖集』, 한국문집총간 220.
- 金益謙, 『潛齋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古3648-10-617).
- 金濟謙, 『竹醉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一  
叢古819.53-G415m-v.1-5).
- 金鎮圭, 『竹泉集』, 한국문집총간 174.
- 金昌立, 『澤齋遺唾』, 한국문집총간 속 56.
- 金昌業, 『燕行日記』, 『燕行錄全集』 31,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_\_\_\_\_, 『老稼齋集』, 한국문집총간 175.
- 金昌緝, 『圃陰集』, 한국문집총간 176.
- 金昌集, 『夢窩集』, 한국문집총간 158.
-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162.
- 金昌協, 『農巖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奎  
4413)
- 金羲瑞, 『喚菴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46-가179  
8).
- 羅良佐, 『明村雜錄』,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청구기호: 고서(우  
천) 3160).
- 南九萬, 『藥泉集』, 한국문집총간 131~132.
- 南克寬, 『夢嚙集』, 한국문집총간 209.
- 南鶴鳴, 『晦隱集』, 한국문집총간 속 51.
- 閔遇洙, 『貞菴集』, 한국문집총간 215.
- 朴光一, 『遜齋集』, 한국문집총간 171.
- 朴權, 『北征日記』, 『백산학보』 16집, 백산학회, 1974.
- 朴尙衷, 『潘陽二先生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古3647-375).

- 朴性陽, 『芸窓集』, 한국문집총간 속 129.
- 朴世堂, 『西溪集』, 한국문집총간 134.
- \_\_\_\_\_, 『穉經』, 수원: 농업진흥청, 2001.
- 朴世采, 『南溪集』, 한국문집총간 139.
- 朴胤源, 『近齋集』, 한국문집총간 250.
-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 朴泰輔, 『定齋集』, 한국문집총간 168.
- 朴弼周, 『黎湖集』, 한국문집총간 196.
- 白東野 編, 『休庵先生實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57-가655).
- 獅巖采永 編,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韓國佛教全書』 권10,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 徐有桀, 『金華知非集』, 한국문집총간 288.
- 成大中, 『青城雜記』, 李丙燾 소장본.
-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 273.
- 宋相琦 著, 宋必煥 編, 『星槎錄』, 『玉吾齋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古 3648-39-183).
- 宋相琦, 『玉吾齋集』, 한국문집총간 171.
-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08.
- 申暲, 『直菴集』, 한국문집총간 216.
- 申維翰, 『海游錄』, 『海行摠載』.
- \_\_\_\_\_, 『靑泉先生續集』, 한국문집총간 200.
- 申靖夏, 『恕菴集』, 한국문집총간 197.
- 新昌縣(朝鮮) 編, 『新昌縣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奎17385).
- 沈鎔, 『樗村先生遺稿』, 한국문집총간 207.
- 安東金氏 편, 『安東金氏文獻錄』, 서울: 昌文女子中高等學校, 1975.
- 安東金氏 편, 『三淵先生年譜』, 『韓國人物史料叢書』 권10, 서울: 민족문화사, 1987.



- 魚有鳳, 『杞園集』, 한국문집총간 184.
- 俞肅基, 『兼山集』, 한국문집총간 속 74.
- 俞莘煥, 『鳳棲集』, 한국문집총간 312.
- 俞彦鎬, 『燕石』, 한국문집총간 247.
- 尹鳳五, 『石門集』, 한국문집총간 속 69.
- 柳馨遠, 『磻溪隨錄』, 서울: 東國文化社, 1958.
- 尹鳳朝, 『圃巖集』, 한국문집총간 193.
- 義湘, 「義湘和尚一乘發願文」, 『大方廣佛華嚴經』,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 李東, 『巍巖遺稿』 4, 한국문집총간 190.
- 李肯翊, 『燃藜室記述』, 서울: 조선고서간행회, 1913.
- 李東彦, 『三復齋遺稿』, 한국역대문집DB 2346-2347, 서울: 미디어한국학, 2012.
- 李秉成,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속 59.
- 李世白, 『雩沙集』, 한국문집총간 146.
- 李宜顯,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181.
- 李珥,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44.
- 李頤命, 『疎齋集』, 한국문집총간 172.
- 李瀼,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200.
- 李緯, 『陶菴集』, 한국문집총간 195.
- 李載亨, 『松巖集』, 한국문집총간 179.
- 李夏坤, 『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 李喜朝, 『芝村集』, 한국문집총간 170.
- 張維, 『谿谷漫筆』, 한국문집총간 92.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5.
- 趙觀彬, 『悔軒集』, 한국문집총간 211.
- 趙德鄰, 『玉川集』, 한국문집총간 175.
- 趙秉憲, 『肅齋集』, 한국문집총간 311.
- 趙聖期, 『拙修齋集』, 한국문집총간 147.

- 趙正萬, 『寤齋集』, 한국문집총간 속 51.
- 趙顯期, 『一峯集』, 한국문집총간 속 42.
- 淸虛休靜, 『江西馬祖四家錄草』, 『韓國佛教全書』 권11,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9.
- 편자 미상, 『敬覽』,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청구기호: L45032).
- 韓夢麟, 『鳳巖集』, 한국문집총간 속 66.
- 韓運聖, 『立軒集』, 한국문집총간 속 124.
- 韓元震, 『南塘集』, 한국문집총간 201.
- 洪萬朝, 『晚退堂集』,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청구기호: 811.98  
홍만조 만-필-2).
- 洪奭周, 『鶴崗散筆』,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韓  
8-113)
- 洪世泰, 『柳下集』, 한국문집총간 167.
- 洪重聖, 『芸窩集』, 한국문집총간 속 57.
- 洪直弼, 『梅山集』, 한국문집총간 295.
- 鳩摩羅什, 『佛說華手經』.
- 丘濬, 『世史正綱』,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 第6冊, 濟南: 齊魯書社,  
1996.
- 方孝孺, 『遜志齋集』, 四部叢刊景明本.
- 無門慧開, 『無門關』.
- 黎靖德 編, 『朱子語類』, 明成化九年陳煒刻本.
- 呂望, 『六韜』, 清平津館叢書本.
- 葉采 撰, 『近思錄集解』, 元刻明修本.
- 王守仁 門人 編, 『傳習錄』.
- 魏伯陽 撰, 仇兆鰲 集註, 『古本周易參同契集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程顥·程頤 著, 王孝魚 點校, 『二程集』, 北京: 中華書局, 2004.
- 朱熹, 『晦庵集』, 四部叢刊景明嘉靖本.

曾先之, 『十八史略』, 대전: 학민문화사, 2011.  
澄觀, 『華嚴經疏註』.  
胡廣, 『性理大全』, 清文淵閣四庫全書本.  
胡一桂, 『周易啟蒙翼傳上篇』, 『欽定四庫全書』.

『唐宋八大家文鈔』.

『道德經』.

『論語』.

『孟子』.

『史記』.

『書經集傳』.

『詩經』.

『心經附註』.

『禮記』.

『呂氏春秋』.

『儀禮』.

『莊子』.

『周禮』.

『周易』.

『中庸』.

『春秋左氏傳』.

『漢書』.

『高麗史』.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宣祖修正實錄』.

『肅宗實錄』.

『肅宗實錄補闕正誤』.

『英祖實錄』.

『顯宗改修實錄』.

## 2. 단행본

### 1) 국내 단행본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서울: 푸른역사, 2009.

\_\_\_\_\_, 『중종의 시대』, 고양: 역시비평사, 2014.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서울: 일지사, 2001.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9.

권연용, 『경연과 성군 담론』, 파주: 지식산업사, 2021.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2, 서울: 선인, 2011.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金榮國 외, 『政治學概論』(개정판), 서울: 博英社, 2001.

김종수, 『숙종시대의 군사체제와 훈련도감』,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김창흡 기술, 김위현 편역, 『기사유교』, 서울: 藝文春秋館, 2015.

廖名春·康學偉·梁韋弦 [공]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미조구치 유조 지음, 임태홍 옮김, 『이탁오평전』, 파주: 글향아리, 2022.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파주: 경인문화사, 2007.

박세당 지음, 박현순 옮김, 『박세당의 장자읽기』, 파주: 유리창, 2012.

박세당 지음, 전현미 역주, 『박세당의 장자, 남화경주해산보 내편』, 서울: 예문서원, 2012.

박정원 지음, 『조선초·중기 불교와 유교의 심성론과 상호인식 연구』, 서울: 역락, 2021.

박희병, 『범애와 평등』, 파주: 돌베개, 2013.

- 배우성, 『조선과 중화』, 파주: 돌베개, 2016.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서울: 지성의 샘, 1995.
- 송시열 지음, 양기정 옮김, 『송자대전』 권1, 『송자대전』 1,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9.
- 시노다 지사쿠 지음, 신영길 옮김,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서울: 지선당, 2005.
- 아라키 겐고 지음, 심경호 옮김, 『불교와 유교』, 서울: 예문서원, 2000.
- 연담 유일 지음, 조영미 옮김, 『석전유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편, 『송준길·송시열』, 서울: 예술의전당, 2007.
- 용인이씨 대종회 편, 『용인이씨대동보』, 대전: 회상사, 2008.
- 유호선,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문학』, 파주: 태학사, 2006.
- 윤덕진·성무경 주해, 『고금가곡』, 파주: 보고사, 2007.
- 이경구, 『조선후기 안동김문 연구』, 서울: 일지사, 2007.
- \_\_\_\_\_, 『조선, 철학의 왕국』, 서울: 푸른역사, 2018.
- 이석명 옮김, 『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 서울: 소명출판, 2005.
-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서울: 동방미디어, 2000.
- 이승수, 『三淵 金昌翁 研究』,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8.
- 정연식, 『영조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정두원·홍만조 지음, 신재환·장세후 옮김, 『국역 조천기 지도·홍만조 연사록』,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 조남권 편역, 『한국고전비평론』, 서울: 민속원, 2006.
- 조성기 지음, 이승수 역주, 『졸수재집』 2, 서울: 박이정, 2000.
-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파주: 지식산업사, 2007.
- 지두환, 『장희빈』, 서울: 역사문화, 2002.
- 陳必祥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서울: 이회문화사, 1995.
-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서울: 국학자료실, 1999.
- \_\_\_\_\_,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

부, 2012.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살림, 2012.

韓國人文科學院 편, 『增修臨瀛誌』, 『韓國近代邑誌』(55),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1.

## 2) 국외 단행본

陳鼓應 注譯, 『老子今注今譯及評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0.

\_\_\_\_\_, 『莊子今注今譯』, 北京: 中華書局, 2020.

陳必祥 著, 『古代散文文體概論』,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6.

廖名春·康學偉·梁韋弦, 『周易研究史』, 長沙: 湖南出版社, 1991.

## 3. 논문

### 1) 국내 논문

강정인·장원운,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4대 사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3집,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강혜선, 「김창협, 김창흡 가문의 한시에 나타난 “아버지”」, 한국고전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_\_\_\_\_, 「조선후기 장동김문의 부자간 수창시 연구」, 『돈암어문학』 35집, 돈암어문학회, 2019.

계승범, 「조선후기 중화론의 이면과 그 유산-명·청 관련 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9집, 한국사학사학회, 2009.

고연희, 「김창흡(金昌翁), 이병연(李秉淵)의 산수시(山水詩)와 정선(鄭敼)의 산수화(山水畵) 비교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0집, 한국한문학회, 1997.

-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경희, 「『삼연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_\_\_\_\_, 「『송암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_\_\_\_\_, 「『학암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 \_\_\_\_\_, 「『미호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 김광태, 「三淵漫錄 역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근하, 「丁丑約條로 본 현종~숙종 대 조청관계-安秋元 事件과 北漢山城 修築 論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43집, 한국실학학회, 2022.
- 김남기, 「金昌翁의 山水詩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_\_\_\_\_, 「三淵 金昌翁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首尾吟』의 수용과 雜詠類 連作詩의 창작 양상 - 宋時烈과 金昌翁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2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2.
- \_\_\_\_\_,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9.
- 김덕수, 「숙종의 독후시 제작과 그 의미」, 『숙종대 정국 운영과 대외관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1.
- 김동준, 「정치권력과의 상관관계로 본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翁)의 문학비평과 그 성격-18세기로의 전환기 한국한문학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韓國漢文學研究』 67집, 한국한문학회, 2017.
- 김묘정,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 시에 드러난 실경(實境)의 일 양상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의 실경 품격을 기반으로-」, 『동양문화

- 연구』 32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20.
- 김문준, 「김창흡의 학문경향과 후대의 영향」,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 김민학, 「동계 조귀명의 소식 문학 수용과 변용 양상 연구」, 『대동한문학』 55집, 대동한문학회, 2018.
- 김병희, 「‘군사부일체’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34집, 한국교육철학회, 2008.
- 김성애, 「『두타초』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 김세호, 「17-18세기 안동김문(安東金門)이 향유(享有)한 매화(梅花)의 문화사(文化史)」, 『韓國漢文學研究』 63집, 한국한문학회, 2016.
- \_\_\_\_\_, 「17-18세기 壯洞金氏 淸陰派의 園林 文化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연수, 「은진송씨 송준길가를 통해 본 기호사대부의 통혼 양상과 혼례 문화」, 『한국계보연구』 10집, 한국계보연구회, 2020.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의心性인식과 그 사상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32집, 한국사상사학회, 2009.
- 김용흡, 「만정당 서종태의 정치 활동과 탕평론」, 『고전번역연구』 11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20.
- 김윤정, 「조선중기 祭祀承繼와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 김은정, 「金昌翁의 丹丘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語文學』 14집, 한국어문학회, 2018.
- \_\_\_\_\_, 「安東 金門의 四郡 유람 연구」, 『돈암어문학』 34집, 돈암어문학회, 2018.
- 김준석, 「탕평론의 대두」, 『한국사』 32 서울: 탐구당, 2003.
- 김지훈, 「翠虛 成琬의 漢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진영, 「삼연 김창흡의 시경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경체 한시와 시경론과의 관련성-다산 정약용



-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43집, 우리한문학회, 2020.
- 金彰顯, 「『三淵全集』 解題」, 『三淵全集』(乾), 서울: 昌文女子高等學校, 1976.
- 金泰洽, 「菩薩의 도」, 『불교』 50집, 불교사, 1928.
- 김해인,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음식문화 연구: 길·가례 음식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 김형술, 「백악시단의 진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문수홍, 「朝鮮時代 納粟制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문준영, 「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 『법과 사회』 69집,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명희, 「朝鮮後期 詩論 研究: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경론」,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 박선영, 「백두산정계비와 화이질서」, 『중국학보』 56집, 한국중국학회, 2007.
- 박선이, 「숙종·영조대 과거제와 과문의 추이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83집, 한국한문학회, 2021.
- 박성호, 「숙종대 동평군 이항의 옥중 유서 검토」, 『충청학과 충청문화』 24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 박재경, 「책문에 반영된 『장자』의 글쓰기 방식」, 『국학연구』 2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5.
- 박현순, 「『농암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박현순,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93집, 한국사학회, 2009.
- \_\_\_\_\_, 「조선후기 문과에 나타난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

- 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서인숙, 「『일봉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8,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손혜리, 「成琬의 「日東錄」 연구」, 『한국실학연구』 17집, 한국실학학회, 2009.
- 송봉구, 「주자의 거경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21집, 한국유교학회, 2004.
- 송양섭, 「숙종조의 재정·부세정책」, 『한국인물사연구』 9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8.
- 송찬섭,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한국사』 30, 서울: 탐구당, 2013.
- 송혁기, 「한문산문 ‘說’ 體式의 문학적 재고-17·8세기 작품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_\_\_\_\_, 「상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지식인의 재편」, 『동양고전연구』 59집, 동양고전학회, 2015.
- 신경훈, 「삼연 김창흡 시에 나타난 관물정신의 변모 양상」, 『士林語文研究』 23집, 사림어문학회, 2013.
- \_\_\_\_\_, 「김창흡의 천기 개념 형성 배경과 시적 형상화의 양상」, 『배달말』 55집, 배달말학회, 2014.
- \_\_\_\_\_, 「김창흡 시의 사상적 특성과 시적 형상화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안대회, 「삼연 김창흡의 「갈역잡영」 연구」, 『韓國漢詩研究』 1집, 한국한시학회, 1993.
- \_\_\_\_\_, 「八大家文十選[精騎集]과 唐宋八大家 古文의 수용양상」, 『八大家文十選』, 서울: 학자원, 2015.
-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農淵 山水遊記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2집, 동양한문학회, 2006.
- \_\_\_\_\_, 「三淵 金昌翁의 산문세계와 창작 및 비평의식에 대한 소고」, 한

- 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2008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8.
- \_\_\_\_\_, 「金昌翁 散文 批評의 實際」, 『동아한학연구』 7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1.
- \_\_\_\_\_, 「金昌翁 散文 研究－閑寂과 紐帶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2.
- \_\_\_\_\_, 「김창흡 「동유소기」 연구-가유자기의 서술 양상과 그 흐름에 대한 고찰을 겸하여」, 『고전과 해석』 20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 안세현, 「조선중기 문풍의 변화와 과문」, 『대동문화연구』 74집, 대동문화연구원, 2011.
- \_\_\_\_\_, 「조선중기 한문산문에서 『장자』 수용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5집,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敬覽』해제」, 『敬覽』,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
- 양기정, 「『禮記類編』의 編刊과 毀板·火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양선비, 「17세기 중후반 禮訟의 전개와 政治地形의 변화-禮訟의 政治史的 과정과 國王-朋黨 力學關係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여운필, 「17세기 한국한시사의 구도: 동명시(東溟詩)와 삼연시(三淵詩)의 거리(距離)」, 『韓國漢詩研究』 14집, 한국한시학회, 2006.
- 여희정, 「김창흡(金昌翁) 매화시의 특징: 「松栢堂詠梅」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 염정섭, 「숙종대 후반 量田論의 추이와 庚子量田의 시행」,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서울: 혜안, 2008.
- 오세현, 「조선중기 풍양조씨 증장령공파의 도봉구 정착과 청교조씨」, 『인문과학연구』 30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130집, 한국사연구회, 2005.

- 유호선, 「17C 후반~18C 전반 경화세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김창흡, 최창대, 이덕무, 이하곤과 조귀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김창흡의 불교적 사유와 불교시」,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 윤경희, 「김창흡(金昌翁)의 단구일기(丹丘日記) 연구」, 『民族文化研究』 4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이경구, 「金昌翁의 學風과 湖洛論爭」,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경수,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설악산의 심상(心象) -삼연 김창흡과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32집, 한국시가학회, 2012.
- \_\_\_\_\_, 「삼연 김창흡 한시의 금강산 표현」, 『인문과학연구』 44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이미실, 「『송담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 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6.
- 이상식, 「조선 숙종대 군사부일체론의 전개와 왕권강화」, 『한국사학보』 20집, 고려사학회, 2005.
- \_\_\_\_\_,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상욱, 「조선후기 과표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과표 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3집, 대동한문학회, 2017.
- \_\_\_\_\_,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 과시(科詩) 고찰 -17세기 조선 과시(科詩)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77집, 열상고전연구회, 2022.
- 이상주, 「18세기 초 문인들의 우도론과 문예취향: 김창흡과 이하곤 등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23집, 한국한문학회, 1999.
- 이세영, 「조선 숙종대의 양전의 정치학」,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서울: 혜안, 2008.

- 이승수, 「金昌翁 生涯와 詩世界の 變貌」, 『한국언어문화』 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1.
- \_\_\_\_\_, 「김창흡의 시세계 연구-「갈역잡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_\_\_\_\_, 「三淵 金昌翁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조선조 지식인의 장자 수용과 분격 의식-삼연 김창흡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5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1.
- 이심권, 「三淵 金昌翁의 樓亭詩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우성, 「『창계집』 해제-구도자의 사색과 철학」, 『창계집』 1,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5.
- 이원명, 「백두산정계비와 접반사 박권에 관한 일고찰」, 『백산학보』 80집, 백산학회, 2008.
- 이인걸, 「백두산정계비 설치의 숨겨진 실상」, 『백산학보』 105집, 백산학회, 2016.
- 이종수, 「17세기 말 心性論에 있어서 儒佛 교섭의 가능성」, 『보조사상』 32집, 보조사상연구원, 2009.
- 이종우, 「김창흡과 한원진의 인물성 논쟁 및 이간과의 비교」, 『한국학논집』 7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 \_\_\_\_\_, 「삼연 김창흡의 미발설과 호락논쟁에서 그 위상」, 『열상고전연구』 6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8.
- \_\_\_\_\_, 「『정조실록』에서 호락의 미발논쟁 연구 - 김창흡 · 이재 대 한원진·심조의 논쟁 및 이간과 비교를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42집, 울곡학회, 2020.
- 이종호, 「三淵 金昌翁 研究(其一): 東岳, 五山詩에 對한 拙修齋와의 論爭을 中心으로」, 『韓國漢文學研究』 9집, 한국한문학회, 1987.
- \_\_\_\_\_, 「三淵 金昌翁의 詩論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경해석에 나타난 문예지향」, 『大東文化研究』 3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론과 그 비평사적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1  
1집, 동양한문학회, 1997.
- \_\_\_\_\_, 「서한논쟁을 통해 본 삼연 김창흡의 시의식」,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 \_\_\_\_\_, 「장동김문(壯洞金門)의 은둔지(외포)(隱遁地(外圃)) 경영(經營)  
과 김창흡(金昌翁)의 은일의식(隱逸意識)-매월당(梅月堂)과 곡운  
(谷雲)이 간 자리에 삼연(三淵)이 등지를 틀다-」, 『東方漢文學』 3  
2집, 동방한문학회, 2007.
- \_\_\_\_\_, 「한국 한문학의 전통적 사유와 문예미: 17~18세기 기유문예의  
두 양상-농연그룹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30집,  
근역한문학회, 2010.
- 이한석, 「김창흡의 지각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이현식, 「「도강록서」, 『열하일기』를 위한 위장」, 『동방학지』 152집, 연  
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 이홍식, 「삼연 김창흡(三淵金昌翁)의 「백이전(伯夷傳)」 이해와 그 의미  
」, 『한국실학연구』 25집, 한국실학학회, 2013.
- 이화자, 「17~18세기 월경 문제를 둘러싼 조·청 교섭」,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3.
- 장유승, 「김창흡(金昌翁)의 『응재유고(凝齋遺稿)』 비평(批評) 연구(研  
究)」, 『韓國漢詩研究』 28집, 한국한시학회, 2020.
- 전준모, 「조선 중·후기 佛者와 儒者의 心身觀 연구 - ‘一’과 ‘多’의 문제  
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정경주, 「과문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39집, 대동한  
문학회, 2013.
- 정다운, 「17세기 후반 서인의 함경도 경험과 정치활동-감수항과 민정중  
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정만조, 「조선후기의 양역변통논의에 대한 검토-균 역법 성립의 배경」,  
「동대론총」 7집, 동덕여자대학교, 1977.
- \_\_\_\_\_,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 『국사관논총』 17집,

- 국사편찬위원회, 1990.
- \_\_\_\_\_, 「양역 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한국사』 32, 서울: 탐구당, 2003.
- \_\_\_\_\_, 「양역변통론의 추이」, 『한국사』 32, 서울: 탐구당, 2003.
- 정명현,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의상경제책(擬上經界策)」의 해제 및 역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무룡, 「17세기 후반 경화사인간의 문학론 공방의 한 양상-김창흡과 조성기의 왕복서한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13집, 동양한문학회, 1999.
- 정연식,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추이」, 『한국사론』 13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 \_\_\_\_\_,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정응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조선통신사 의례 개정에 관하여」, 『일본문화학보』 2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5.
- 정진웅, 「조선후기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집, 한국서지학회, 2007.
- 정형지, 「숙종대 진흥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25집, 한국역사연구회, 1997.
- 정후교 지음, 장진엽 옮김, 「해제」, 『부상기행』, 서울: 보고사, 2019.
- 정혜린, 「三淵 金昌翁의 성리학과 시문학-‘지각’과 ‘성령’ 개념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34집, 대동한문학회, 2011.
- 諸吟珉, 「三淵 金昌翁의 詩文學 研究: 詩에 나타난 觀物精神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성산, 「朝鮮後期 洛論系 學風의 形成과 經世論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翁)의 학풍과 현실관」, 『역사와현실』 51집, 한국역사연구회, 2004.

- 조운선, 「조선시대 사면·소결의 운영과 법제적·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38집, 조선시대사학회, 2006.
- \_\_\_\_\_,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 『법사학연구』 64집, 한국법사학회, 2021.
- 조준호, 「조선 숙종~영조대 근기지역 노론학맥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김창흡의 정치기반과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2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 조창록, 「成琬의 『翠虛集』과 對明義理의 시」, 『한문학보』 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 조하늘, 「조선후기 하층민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지두환, 「문곡 김수항의 가계와 정치적 활동」, 『한국학논총』 3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차미희, 「조선후기 숙종대 기묘과옥에 대한 연구」, 『국사관논총』 93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 \_\_\_\_\_, 「조선후기 숙종대 임진과옥 연구」, 『민족문화연구』 42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 채환종, 「삼연 김창흡의 사회시 연구」, 『어문연구』 27집, 어문연구학회, 1995.
- 최유진, 「三淵 金昌翁의 哲學的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최진수, 「을병대기근기 청 곡물 수입과 진휼정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통인학사 화이론연구회 편, 「중국을 통일했으면 정통 왕조다」, 『韓中日華夷論資料輯要』.
- 韓英, 「三淵 金昌翁의 「湖行日記」 연구」, 『한남어문학』 40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17.
- \_\_\_\_\_, 「김창흡 산수시와 일기체 유기의 상호연관성 연구」, 『韓國漢詩研究』 26집, 한국한시학회, 2018.



\_\_\_\_\_, 「三淵 金昌翁의 日記體 遊記 研究」,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한창섭, 「삼연 김창흡의 방계족친 교유문학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홍순민,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 『한국사론』 15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 2) 국외 논문

閔孟祥, 「論大慧宗杲批評默照禪的真相」, 『河北大學學報』 2006年 5期, 河北大學宋史研究中心, 2006.

鄔文玲, 「漢代赦免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3.

## 4. 웹사이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index>

안동김씨대종중 <http://www.adkim.net/>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index.do>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한국학자료센터 <https://kostma.aks.ac.kr/>

한국학종합DB <http://DB.mkstudy.com/zh-cn/>

中國基本古籍庫

## Abstract

# A Study on Kim Ch'anghŭp's Prose in Political-Historical Context

Zongmei, ZH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roduces "political history" as a standpoint for researching Samyŏn(三淵) Kim Ch'anghŭp(金昌翁, 1653-1722)'s prose, aiming for an integrated approach of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and examines the world of Kim Ch'anghŭp's prose i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King Suk-chong's reign. The reason for considering the "political-historical context" in this study is to view Kim Ch'anghŭp not merely from an "external context", but rath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his existence as an individual.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Kim Ch'anghŭp's prose by dividing the "political-historical context" into four layers.

Before delving into the main discussion, a bibliographic review of *Samyŏnjip*(三淵集) is conducted. First, I examine the publication history of the original collection and the issue of additions an

d deletions. Subsequently, I look into the lineage issue of *Samyŏn jipsŭbyu*(三淵集拾遺) and the authenticity of the included works.

Next, I delve into the world of Kim Ch'anghŭp's prose by dividing the 'political historical context' into four levels.

Firstly, in the context of 'political historical background' or 'factional conflict background' which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in Kim Ch'anghŭp's life, I examine the formation of his life and his network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connection with his political actions. Initially, I look into Kim Ch'anghŭp's places of retreat, academic trends, and the political flow of the King Suk-chong's reign, segmenting his life into four phases: the exploration period, the period of exile, the period of retreat to Sŏrak Mountain, and the later years of adversity. Next, with attention to class characteristics, I analyze the people whom Kim Ch'anghŭp was associated with, categorizing them into noble families, local literati, *Jung-In* (the middle class) and *Seo-Eol*(the sons of concubines), and Buddhist monks. Lastly, I study Kim Ch'anghŭp's political actions, dividing them into two periods: from the Kapsurhwan'guk to his retreat to Sŏrak Mountain, and from after the retreat until the Shinch'uk'wan'guk.

Secondly, in the context of specific 'political historical events' or 'factional conflict event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dongkimmun*(a branch of Kim family which lived in Changdong, Seoul) and Kim Ch'anghŭp, I examine his role as a protector of his family lineage. Using the emotion of resentment as the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I look into how Kim Ch'anghŭp perceived the *Changdongkimmun* as a unified community of life and death amidst the whirlwind of factional strife, emphasizing unity within the family. One of the driving forces behind Kim Ch'anghŭp's emphasis on in

ternal cohesion of the family was his resentment towards those he deemed responsible for his father Kim Suhang's death, along with his animosity towards the rival faction. Therefore, following the Kapshurhwan'guk, Kim Ch'anghŭp, in his pursuit of vengeance, distinctly delineated friends from foes, demonstrating a rigid, uncompromising stance against the opposing faction, marked by extreme caution and aggression.

However, Kim Ch'anghŭp did not become consumed by his feelings of resentment. Instead, he ventured towards acquiring a more universal and introspective perspective. This path led him to explore an 'open-minded orthodoxy'. This corresponds to the third layer, which is the 'ideological orientation' that underpins political history and factional conflicts.

Kim Ch'anghŭp was fundamentally an elite of the *Noron* faction who placed Zhu Xi(朱熹)'s philosophy at the center of orthodoxy. However, within the orthodox framework, he did not fall into ideological rigidity but demonstrated flexibility and openness, partially accepting Buddhist and Laozi-Zhuangzi philosophies. Kim Ch'anghŭp aimed to redefine the orthodoxy of Zhu Xi's philosophy in a more flexible direction. As such,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the *Noron* hegemony strategy, he criticized the *Hochungnoron* for absolutizing Song Siyŏl to emphasize the academic orthodoxy of their faction. Additionally, Kim Ch'anghŭp sought to reveal his socio-participatory attitude as a *Noron* elite by finding a convergence betwee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Confucianism and the salvific consciousness of "great compassion for all beings" in Buddhism. To Kim Ch'anghŭp, Zhu Xi's philosophy provided an absolute standard for discerning right from wrong. The characteristic harsh criticism and aggressive stance of orthodoxy towards opposing factions bear a re

semblance to the logic of strictly distinguishing allies from enemies in politic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the emotion of resentment undergoing a transformation on an ideological level. However, by embracing Buddhism and the philosophy of Laozi and Zhuangzi, Kim Ch'anghŭp exhibited a more flexible attitude compared to when he was consumed by the emotion of resentment.

Fourthly, in the context of the 'socio-participatory orientation' related to actively contemplating contemporary socio-political issues and seeking alternatives, I examine Kim Ch'anghŭp's socio-participatory attitude towards both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of Chosŏn. Starting from the broader context of the Chosŏn state, Kim Ch'anghŭp had specific concerns about issues such a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judicial decisions, military service, cultivation, and agriculture. Expanding his perspective to East Asia, he also had significant interest in the relations between Chosŏn and Qing. From a standpoint of 'moderation' and 'adaptability,' Kim Ch'anghŭp sought a balance between righteousness and reality and advocated a flexible perspective on diplomatic relations. This perspective is closely correlated with his views on orthodoxy. What Kim Ch'anghŭp emphasized in orthodoxy was not so much the ethical righteousness or the established order, but the pragmatic aspects, specifically the size of territories and the rise and fall of powers. Based on this logic, it can be inferred that Kim Ch'anghŭp recognized the Qing dynasty as the orthodox power. His stance differs from that of the Song Siyŏl lineage, which upheld the principle of righteousness and Chosŏn's centrality. However, while Kim Ch'anghŭp acknowledged Qing as the orthodox, he did not unconditionally accept their dominance. Recognizing the potential threat of Qing re-invading Chosŏn, he had long valued the strategic position of P

aektu Mountain.

Kim Ch'anghŭp expanded his perspective to encompass the entire nation beyond the interests of a single clan or faction. However, this does not mean he transcended his factional identity. His socio-participatory theories, when viewed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time, seem to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Noron* faction would emerge victorious in their hegemonic competition against the rival faction and thereby assume control of the nation's governance. His views on diplomacy and orthodoxy clearly contrasted with Song Siyŏl's advocacy for northern expansion, yet it is challenging to say that they surpassed the factional identity of the *Noron*.

The exploration of the world of Kim Ch'anghŭp's prose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yields the following insights: At the outset of Kim Ch'anghŭp's political trajectory lies the emotion of "resentment". The world of his prose is intricately woven between a centripetal force that seeks to consistently maintain this primal emotion while it adapts to varying circumstances, and a centrifugal force that aims to distance itself from and not be bound by this emotion, seeking self-expansion. The rigidity of the centripetal force is alleviated by the centrifugal force. Still, as the centrifugal force operates even more potently, one can discern the emergence of an "open-minded orthodoxy" or a "*Noron* ruling class implementing a flexibility strategy." Kim Ch'anghŭp's exploration represents, on an individual level, a personal quest that begins from "resentment". While not ensnared by this emotion, one can never be entirely free from it. In the realm of practical politics, his exploration depicts the *Noron* ruling class's efforts to stay adaptable, exercising self-regulation, thereby solidifying and sustaining their dominance through a flexible hegemonic strategy. This existential explo

ration of an individual being inextricably tied to the factional attributes of the *Noron* faction further underscores the "political nature" of Kim Ch'anghŭp's prose.

Key Words: Kim Ch'anghŭp, Essays, Political-historical Context, Resentment, *Kamun*, *Noron* Hegemony, Pragmatic Orientation

Student ID: 2019-32139

## 中文摘要

# 政治史視角下的金昌翁散文研究

張宗美

首爾大學 研究生院

國語國文系 國文學專業

本論文的研究目的是從政治史視角下探究三淵金昌翁的散文世界。爲此，本論文以“政治史”爲出發點，並綜合文、史、哲三個方面，來對此展開具體分析。本論文之所以選擇從“政治史視角”這一角度來探析金昌翁的散文世界，是爲了突出體現出政治史背景對於金昌翁而言，並不僅僅只是外在性要素，而是和金昌翁本人緊密相關融爲一體這一目的。也就是說，關於政治史的探索過程其實就是對金昌翁本人的具體剖析過程。因此，本論文將“政治史視角”分爲四個層面，並以此來探究金昌翁的散文世界。

在正式進入主題前，先從文獻學的角度對《三淵集》進行了考察整理。首先分析整理了原集的刊行及內容刪減問題。接下來，分析整理了《拾遺》的異本體系狀況及其收錄作品的真偽問題。

接下來，本論文按照“政治史視角”的四個層面，對金昌翁的散文世界進行了深入探析。

第一層面就是，在金昌翁一生中起著至關重要地位的“政治史背景”及“黨爭史背景”。從這個角度出發，重新考察了金昌翁的生涯、人際關係網及政治軌跡。首先，結合金昌翁的隱居地、學術走向及肅宗朝的政治動向，將金昌翁的一生分爲：探索期、蟄伏期、雪嶽山隱居期及谷雲老年期。其次，根據階級特性，將金昌翁的交友對象分爲：京華世族、地方文人、中庶層、僧侶，並對其進行了考察。最後，結合政局發展，將金昌翁的政治軌跡分成兩個階段：



甲戌換局~雪嶽山隱居期、雪嶽隱居期~辛丑換局，以此來考察金昌翁的政治活動情況。

第二層面就是，給壯洞金門及金昌翁帶來重大影響的“政治史事件”或“黨派鬥爭事件”。本論文從這個角度出發，探究了金昌翁作為家族守護者的形象。本論文以“仇恨”這一情感作為分析的切入點，來探析金昌翁在黨派鬥爭過程中，是如何將壯洞金門視為一生死共同體，並以此來強調家族內部團結的。金昌翁如此強調家族內部團結的根本原因，正是基於“仇恨”這一情感。金昌翁對害死父親金壽恒的元凶南人黨派及其幫凶少論黨派充滿了仇恨。因此，在甲戌換局之後，立志為父報仇的金昌翁，明確區分了敵我關係，對反對黨派採取了強硬、不妥協的態度，並對其表現出了極度的警覺性和攻擊性。

但是，金昌翁並沒有被“仇恨”這種情感所束縛，他選擇了一條自省，以求達到普世目的的道路。這條道路就是開放性正統主義思想探索道路。這也就是本論文“政治史視角”的第三層面——構成政治史和黨爭史思想基礎的思想探索。

金昌翁基本上是一位堅持朱子學為正統思想的老論知識分子。但是，金昌翁並沒有陷入思想僵化。他在正統主義思想框架內，部分吸收借鑒佛教和道家思想，實現了思想上的靈活性和開放性。金昌翁試圖以更加靈活的方式重新架構朱子學的正統性。因此，金昌翁批判了湖中老論為了穩固自己的學術正統性，而過度神化宋時烈的行為，以此來謀求老論在政治上的霸權鬥爭戰略。不僅如此，金昌翁還試圖找到儒家經世意識與佛教普渡眾生之間的共鳴，以此展現出作為老論知識分子的治世態度。對金昌翁而言，朱子學為其提供了判斷是非的絕對標準。這種對反對派的尖銳批判與攻擊的態度，同政治上嚴格區分敵我的邏輯有其相似之處。這可以被視為“仇恨”這一情感在思想上的轉化。然而，在吸收借鑒佛教和老莊思想之後，金昌翁在思想層面上展現出了更加靈活開放的姿態。

第四層面就是，關聯到當時政治社會中的各種問題並尋求解決方案的“經世傾向”。從這個角度來探析了金昌翁對朝鮮國內外的經世態度。從朝鮮國內角度來看，金昌翁對科舉制度、疏決、軍役、土地改量、農業等問題都有著深切地關注。不僅如此，金昌翁還將視野投向東亞，對朝清關係展現出了十足的關注。他從“中道”和“變通”的角度，追求義理和現實之間的平衡，提出了靈活的華夷觀點。他的正統論也是如此。金昌翁正統論的核心是基於現實

層面上的領土的大小及實力的強弱，而不是所謂的義理名分。基於這樣的邏輯，可以認為金昌翁承認了清朝的正統地位。這與堅守對明義理和朝鮮中華主義的宋時烈學派的觀點是不同的。但即便金昌翁視清朝為正統，也不意味著他無條件接納清朝。金昌翁對清朝時刻保持警惕，以防其再次侵犯朝鮮，因此金昌翁一直很重視白頭山的地理戰略位置。

金昌翁不再僅僅代表家族利益或黨派利益，他的視野擴大到了國家層面。但他並沒有突破了自己作為老論的黨派屬性。從當時的政治歷史背景來看，金昌翁的經世論也是基於老論能夠在與反對黨派的霸權鬥爭中取得勝利，從而成為國家統治主體的這一前提下展開的。金昌翁的華夷觀及正統論雖然與宋時烈的北伐論形成鮮明對比，但這並不意味著金昌翁突破了自己的老論黨派屬性。

從“政治史視角”探討金昌翁的散文世界，本論文可以得出以下結論：

金昌翁政治軌跡的根本出發點就是“仇恨”這一情感，這一情感分為中心軸和離心軸，中心軸則努力保持著“仇恨”這一情感的原始面貌，而離心軸則試圖掙脫“仇恨”這一情感的束縛，並進行自我擴展。這兩者共同織就了金昌翁的散文世界。離心軸消解了中心軸的僵化，同時由於離心軸更加強烈地運作，最終造就了金昌翁的“開放正統主義思維”及“謀求柔性戰略的老論統治階級思維”。從個人角度來看的話，金昌翁的探索是始於“仇恨”這一情感，既不受其束縛，同時也無法從中完全擺脫出來的自我探索之旅；從現實政治角度來看，金昌翁的探索是為老論統治階級謀求霸權戰略的探索之旅。為了讓老論統治階級能夠通過自我調節能力，更加靈活地鞏固和維持其統治地位，而不至於陷入僵化。金昌翁個人的自我探索與其身為老論這一黨派屬性有著密不可分的關係，從而也證實了金昌翁散文具有“政治性”這一特徵。

關鍵詞：金昌翁、散文、政治史視角、仇恨、家族、老論霸權、經世傾向

學號：2019-32139